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18호, 2025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차 례

[지식과 문화]

■ 강효진 ■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13

■ 김천수 · 이주희 ■

신중국 문예정책에 따른 조선족 부채춤 작품의 양상 연구 51

■ 현승훈 ■

생성형 AI 기반 영상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 주관성 연구..... 77

■ 이수현 ■

재매개를 통한 예술적 상상력 연구: 웹툰 <정년>의 드라마화를 대상으로..... 109

■ 박연수 ■

진주오광대 탈 연구: 탈 제작자 항병권의 활동을 중심으로 139

■ 홍태한 ■

황해도굿 공수의 양상과 의미 173

■ 김유빈 · 김혜균 ■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가 소비자의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디자인 태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195

■ 박문희 ■

손드하임 뮤지컬의 캐릭터 정체성의 형성과 사회적 의미..... 225

■ 신광민 · 조준희 ■

존 듀이의 이론으로 바라본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참여적 미학성: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255

■ 주소은 ■

1950년대 미국 서부의 쿨재즈의 형성과 발전: 웨스트 코스트 출신
뮤지션들의 음악적 혁신과 유산을 중심으로 289

[지식과 교육]

■ 김성희 ■

머신 컬쳐 시대의 예술과 기술의 성찰적 만남: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Comedian>을 활용한 교양교육 수업 설계 323

■ 김성훈 ■

고등학교 중국어 수업에서 온라인 문화교류 수업과 원어민 교사 협력
학습의 성과..... 347

■ 김병선 ■

창의 교과 교양 수업에서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들의 참여도의 매개효과에 근거하여 .. 373

■ 이정환 ■

교과목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삶”의 개설 의미와 강의 진행 결과 분석
..... 395

■ 오경은 · 한규은 ■

교양대학 중심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목의 가치와 한국적 적용
방향: 해외 주요 대학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425

■ 강경균 ■

청소년 인문 소양 교육 활성화 방안: ‘청소년 인문교실’ 사례 중심으로..
..... 461

■ 서원혁 ■

현대 사회에 있어 관례(성년식) 필요성에 대한 고찰 :책임의식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언 491

Ⅰ 정형근 Ⅰ

충남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육과정 고도화 방향성 논고 523

Ⅰ 권양이 Ⅰ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휴타고지의 확장 및 실천 가능성 557

Ⅰ 홍래성 · 윤정안 Ⅰ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글쓰기 방안 모색: 낯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를 제안하며 597

Ⅰ 김요셉 Ⅰ

대전 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역 문화 리터러시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613

Ⅰ 김유철 Ⅰ

융합형·참여형 교양 교육 모델 구축: 기후변화 수업 사례 분석 643

[지식과 사회]

Ⅰ 채 진 Ⅰ

소방현장안전점검관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675

Ⅰ 고은영 · 조민아 Ⅰ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의 효과 699

Ⅰ 박정승 · 강은진 Ⅰ

COVID-19 팬데믹 이후 좋은 사회를 위한 돌봄의 재고찰: 공휴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원리의 회복을 중심으로 735

Ⅰ 유재두 Ⅰ

해양경찰관의 불안 및 회피 애착이 이중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773

Ⅰ 장연주 Ⅰ

마음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이론 비교 분석 연구 797

Ⅰ 김양희 · 유학곤 Ⅰ

디지털 시대 교회 리더십 전략: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원칙의 통합
모델 833

[지식과 과학]

Ⅰ 손정원 Ⅰ

2인 환자 운반법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 평가: PATH-KOSHA 기법을
중심으로 881

Ⅰ 윤지원 · 박은하 Ⅰ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연구 주제어 분석 연구: 최근 5년간
(2020년~2024년) 논문을 중심으로 903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933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943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947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958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18. 2025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Knowledge and Culture]

■ Kang, Hyojin ■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Artification and Popularization of Music . 13

■ Quan-xiu kim · Ju-hee Lee ■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Korean Chinese Fan Dance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Up 51

■ Hyun, Seung Hoon ■
A study on user subjectivity for generative AI-based video media..... 77

■ Lee, Su Hyun ■
A Study on Artistic Imagination through Remediation: the case of the TV
drama adaptation of the webtoon ‘Jeongnyeoni’ 109

■ Park, Yeonsu ■
A Study on the Masks of the Jinju Ogwangdae(Masked Play and Dances):
Focus on the activities of mask maker that Hwang Byeong-Gwon..... 139

■ Hong Teahan ■
The aspect and meaning of Hwanghaedogut Gongsu 173

■ Kim, Yu Been · Kim, Hye Kyun ■
The Influence of Design Evaluation Factors in Total Coordination Styling
on Perceived Design Value: An Empirical Study on the diating Role of
Design Attitude..... 195

■ Park, Moonhee ■
The Formation of Character Identity in Sondheim’s Musicals and Its Social
Significance 225

■ Shin, Kwang Min · Cho, Joon hui ■

The Participatory Aesthetics of Applied Theatre Through the Theory of John Dewey: Focusing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pplied Theatre
.....255

■ Joo, So Eun ■

The Rise and Evolution of Cool Jazz in 1950s American West: Musical Innovations and Legacy of West Coast Jazz Musicians: Focusing on the musical innovations and legacy of musicians from the West Coast 289

[Knowledge and Education]

■ Kim, Seong Hee ■

Reflective Encounters Between Art and Technology in the Age of Machine Culture: Designing a Liberal Arts Course Using Maurizio Cattelan’s Comedian.....323

■ Kim, Sung Hun ■

The Effects of Online Cultural Exchange and Collaborative Learning with Native Teachers in High School Chinese Classes 347

■ Kim, Byungsun ■

The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Based on PBL in a Creativity-Based Liberal Arts Course on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Character, and Leadership: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ngagement.....373

■ Lee Jung Huan ■

Analysis of the meaning of opening the cours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ur Lives” and the results of the lecture 395

■ Oh, Gyungeun · Han, Kyueun ■

Community Problem-Solving Curricula in Liberal Arts Education: Values and Directions for Korean Implementation Based on International University Case Studies 425

■ Kang, KyoungKyoon ■

Strategies for Enhancing Youth Humanities Education: Focusing on the
‘Youth Humanities Class’ Case Study 461

■ Suh, WonHyuk ■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oming-of-Age Ceremonies in Contemporary
Society: Proposals for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stering
Responsibility.....491

■ Jung Hyung Geun ■

A Study on the Advancement Strategies for the Curriculum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in Chungcheongnam-do 523

■ Kwon, Yangyi ■

The Extension and Practicality of Heutagogy in College Writing Education
.....557

■ Hong, Rae-seong · Yoon, Jeong-ahn ■

Exploring Effective Writing Strategies of Character Education: Suggesting
Essay Writing Based on the Technique of Defamiliarization 587

■ Kim, Joseph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Based on Local Cultural Literacy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Daejeon.613

■ KIM, Youcheer ■

Establishing Integrated and Participatory Liberal Arts Education Model: A
Case Study Analysis of Climate Change Course.....643

[Knowledge and Society]

■ Chae, Jin ■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competency of fire safety
inspectors.....675

■ Koh, Eunyoung · Cho, Mina ■

The Effects of Intergroup Dialogue Program for Multicultural Competency Enhance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699

■ Park, Jung Seung · Kang, Eun Jin ■

Reconsidering Care for a Good Society after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the Recovery of Community Principles Based on the Philosophy of Compassion 735

■ You, Jae Doo ■

The Impact of Anxious - Avoidant Attachment on Dual Commitment among Maritime Police Officers 773

■ Jang, Yeon Ju ■

A Critical Review of Theory of Mind and Comparative Analysis of Alternative Theories.....797

■ Kim, Yang-Hee · Lu, Hak-Gon ■

Strategic Church Leadership in the Digital Age: An Integrative Model of Wesleyan Ecclesiology and SMART Principles.....833

[Knowledge and Science]

■ Son, Jeong Won ■

Assessing the risk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two- person patient transport: focusing on the PATH-KOSHA method 881

■ Yoon, Ji Won · Park, Eun Ha ■

Keyword Trends in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alysis of Domestic Academic Papers across Disciplines (2020–2024) 903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강 효 진**

목 차

1. 서론: 논의의 목적과 절차와 한계
2. 음악의 예술화
3. 음악의 대중화
4.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의 역학
5. 결론

1. 서론: 논의의 목적과 절차와 한계

음악은 유독 ‘대중’이란 말을 붙여 사용하기도 한다. ‘대중음악’이란 말이 통용한다는 것은 대중성 외의 다른 어떤 속성을 강조하고 추구하는 경향의 음악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 경향 중 하나는 예술성을 추구한다. 그런 음악을 통상 ‘고전’ 또는 ‘클래식’으로 범주화하지만, 차라리 ‘예술 음악’으로 통칭하면 혼동이 없을 일이다. ‘고전(classic)’의 사전적 의미는 ‘우수성의 전형(a model of excellence)’ 또는 ‘형식적 규범(formal discipline)’이다.¹⁾ ‘고전음악’은, 일반적으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 고전파 작

* 2024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1) Sadie, Stanley. The Notron/Grove Concise Encyclopedia of Music, NY:

곡가에 의해 악보로 표기된 음악으로, 형식 내에서 균형과 질서와 명료성 등을 반영하여 예술 음악의 전통을 잇는 한 부류로 인식되고 통용된다. 그래서 ‘예술 음악’이라고 표현하면 시대를 초월하여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어감(語感)상 대중음악은 전혀 예술성을, 그리고 고전음악은 전혀 대중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두 개념을 한마디로 명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 그 경계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설령 설득력 있는 방법이 주장되더라도 그 주장의 보편성을 담보 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느 정도 불필요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실, 이 논제는 한때 주로 예술 전공자들 사이에서 ‘지적 사치’로 여겨던 토론의 한 주제였다. 그러나 20세기를 지나고 21세기 들어 ‘실용화’가 사회적 담론이 되면서 이런 토론은 어느 정도 시들해졌고 이제는 식상한 인문학의 한 주제처럼 여겨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조금이라도 학구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저자의 개인적인 의지가 예술에 관한 주제를 다시 소환하게 되었다. 이 고찰의 목적은 예술성과 대중성의 음악, 이렇게 개념을 이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음악의 변천사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음악의 예술화 과정과 대중화 과정을 구분하고, 음악의 예술화는 예술과 미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대중화는 음악사적 사례를 중심으로 논하는 절차를 택한다. ‘예술화’와 ‘대중화’는 상충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다. 예를 들어, 주로 바로크에서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연주단과 연주회장 규모의 추세가 전반적으로 최대화한다는 관점에서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를 같은 맥락에서 조명하고,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대중음악이 급속도로 대두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관점에서 음악의 대중화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두 개념

W·W·Norton & Company, 1994, p.169.

을 역학적 관계 내지는 현상으로 조명한다.

학문 수준이든 상식과 교양 수준이든 현재 통용하는 음악사 교재는 음악 사학자들의 오랜 연구와 숙의와 논의를 거쳐 공적으로 인정받은 내용으로 그 범위는 방대하다.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가 역사에서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논점이므로 그 방대한 역사에서 논조와 직접 관련되는 일부 핵심적인 사례를 취사선택한다. 결론에서 언급하다시피,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는 상호작용의 역학관계로서 불가분의 개념이다. 마치 물리의 작용과 반작용처럼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 역시 역사에서 공존했다. 음악의 예술화 또는 대중화가 심화하면 할수록 그 상호 역학은 더 강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특정한 용도의 음악은 예술화나 대중화와는 별로 상관없으므로, 이 논문은 주로 종교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의 예술을 표방하고 음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한 시기부터 논의의 범위로 정한다.

2. 음악의 예술화

예술화란 어떤 대상이나 행위를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독창성과 미적 가치 등이 강조된다. 흔히 ‘미의 표현이 예술’ 또는 ‘예술의 내용이 미’ 또는 ‘미의 개념이 예술 개념의 기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미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고 상대적이어서 아무리 미학적 개념을 적용하더라도 예술을 정의하고 그 개념을 객관화하기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그리고 음악가이기도 했던 아도르노(Theodor Ludwig Wiesengrund Adorno, 1903~1969)는 그의 주저인 ‘심미적 이론’에서 예술에 관한 개념의 보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한다. 정의와 개념 등, 예술에 관한 논쟁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명쾌한 해결 방법은 여전히 없다.

예술과 관련된 어떤 것도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는 것, 예술에서 그리고 전체에 대한 예술의 관계에서 예술의 현존권리(Existenzrecht)마저 자명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중략- 예술에 관한 그 어떤 논의도 더 이상 예술의 개념을 명시할 수 없고 오히려 ‘탈-예술화 시대’를 맞아 예술의 개념은 더 불확실해졌다.²⁾

아도르노가 언급한 탈-예술화는 탈-근대화(Postmodernism) 사상의 한 갈래이자 한 현상이었다. 이 사상을 계기로 오랜 세월 평가의 기준치(norm)로 작용했던 전통예술과 문화가 더 이상 그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예술에 관한 기존의 ‘절대적인’ 개념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고정되어 있던 문화간 위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대신 작가의 개성을 존중하고 감상자의 취향과 감상 태도 그 자체가 새로운 기준치가 되었다.

현대문명이 발전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지적 수준이 향상하면서 대중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진짜 예술이라는 일종의 진보적인 견해도 생겼다. 그럼에도 예술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아니므로 실용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시각도 여전히 사회 저변에 존재한다. 나아가 인공지능이나 동물도 예술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생겼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산된 것이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한다. 이해완은 예술의 조건을 현대에 한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예술은 사람에 의한 창조 활동이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만을 제시한다.

예술이라는 영역은 시대별, 지역별, 심지어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므로 그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심지어 잘 훈련된 동물이 그린 그림이나 만들어진 소리, 또는 4차산업 시대의 인공지능에 의해 생산된 그림이나 음악도 예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장이 나올 만큼 예술의 범위를 한정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보인다. ‘기발한 상상력’이나 ‘번득이는 영감,’ ‘작가의 열정’ 같은 그동안 예술가가 가졌다고 믿어 왔던 신비로운 능력들을 더는 예술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기존의 그런 주장이 더 이상 예술의 조건이

2) 문광훈, 『예술의 유토피아(아도르노의 문제의식)』, 세창출판사, 2024, 69쪽.

아니더라도 동물이나 인공지능을 예술 창조의 주체로 인정하지는 않는다.³⁾

1) 예술

일반적으로 예술이란 단어는 ‘순수예술(Beaux-Arts, Fine-Arts)’을 의미한다. 그 단어와 개념이 오래전에 성립되었고 오랜 세월 유지했다 하더라도 삶의 조건과 환경이 변하고, 그에 따라 사람의 감성과 철학적 이해가 변하면 예술 개념 역시 변한다고 예술사는 우리에게 예증한다. 현대에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예술의 개념을 이해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술이란 단일한 하나의 인간 활동이 아니라, 시, 음악, 춤, 연극, 그림, 조각 등 각기 다른 목적과 배경에서 추구되던 서로 다른 인간 활동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졌다는 생각으로 한데 묶인 것(Fine-Arts System)을 지칭하는 말이다. 언제 무슨 이유로 그런 묶음이 이루어졌는지, 무엇이 그에 속하는 구성원인지 등은 모두 역사적 구성물이다. 예컨대 그림이나 조각을 그저 외관의 모방 기술로 이해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때의 화가나 조각가는 시인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다. 그림이나 조각이 단순한 솜씨나 기계적 노동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극복하고자, 그림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는 과학과 유사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졌던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회화, 조각을 포함하여 음악과 시 모두가 ‘미를 추구하는 모방’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fine arts’라는 말과 그 말로 불리는 대상들이 확립된 시기가 그때쯤이다. 이때 중심이 되는 생각은 이 특별한 기술들이 옷감을 짜고 그릇을 만드는 실용적인 목적의 일반 기술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의 정당화를 위해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의 추구가 제시되었다.⁴⁾

위 발췌문 중 마지막 부분, “실용적인 목적의 일반 기술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이었고 그것의 정당화를 위해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의 추구가 제시되었다”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순수예술은 특정 용도의 실용적인 목적은 배척한다는 의미이다. 이 관점은 실용성이 배제된 음악과 미술, 무용, 연극 등 고도의 기능으로 표현하여 미를 추구하는 분야만을 순수예술로 한정한다.

3) 이해완, 『인공지능은 예술을 꿈꾸는가?』, SIGONGART, 2024, 43쪽.

4) 위의 책, 62-63쪽.

예를 들어 패션이나 인테리어디자인 등의 아름다움은 실용성이 관여하고, 예술 음악이나 미술의 아름다움은 창의성과 감정 표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칸트(Emanuel Kant, 1724~1804)의 영향을 받아 미학에 관한 많은 저술을 남긴 실러(Friedrich Schiller, 1759-1805)는 “예술의 목적은 미이며, 그 미의 원천은 실용적 목적이 없는 쾌(快)라고 본다. 그렇다면 예술이란 일종의 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술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 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삶 자체의 미를 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⁵⁾ 라고 말하면서 예술은 실용성은 배제하고 미를 드러내야 한다고 정의한다.

톨스토이(Lev Nikolayevich Tolstoy, 1828~1910)는 예술을 “작가가 어떤 감정을 체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의 결과라고 정의하고, 작가가 체험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면 심지어 ‘모조 예술’로 규정한다.⁶⁾ 삶의 영위가 목적이거나 쾌를 위한 수단이어도 예술이 될 수 없다. 톨스토이는 예술의 ‘감염력’이 창조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고 예술의 감염력을 다음의 세 조건으로 구분한다: 전달되는 감정의 독특성, 감정 전달의 명료성 그리고 예술가의 진실성.⁷⁾ 풀어 말하면,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예술의 목적은 예술가가 의도한 관념의 전달이다. 그러나 그 관념이 평범해서는 예술적인 주제가 될 수 없고, 그 관념의 전달 방법 역시 논리적으로 절제되고 간결해야 한다. 그리고 억지나 과장 없는 예술가의 관념과 진심이 표현 매질(媒質)에 담겨야 한다. 문광훈은 예술에 관한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⁸⁾

* 철학이 아포리아를 ‘개념적으로 사유’한다면, 예술은 ‘형상적(미메시스

5)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바다출판사, 2024, 39-40쪽.

6) 위의 책, 197쪽.

7) 위의 책, 209-211쪽.

8) 문광훈, 앞의 책, 12-13쪽.

(mimesis, 모방))으로 표현'한다. 대응목표가 진실이라는 점에서 철학과 예술은 서로 통한다.

- * 예술은 기존 질서와는 '다른 질서'-지금 여기에 없지만 언젠가 올지도 모를 다른 현실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비-동일한 것들의 자취와 흔적과 메아리를 담는다. 예술은 현실의 아포리아 속에서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암시하며 표현한다.
- * 예술은 어떤 것도 주장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좀 더 나은 것, 더 나은 삶의 화해적 상태를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윤리적'이다.
- * 심미적 경험 속에서 인간은 감각과 사고를 쇄신하는 중에 자신을 변형시켜 갈 수 있다. 예술은 이미 있는 것의 상투적 정당화를 의문시하면서 주체의 새로운 형성을 도모하고, 이 주체 형성 속에서 비지배의 이성적 질서로 나아간다.
- * 그러므로 철학의 과제가 '타율성 비판'이라면, 교육의 과제는 '자율성 장려'에 있다. 그렇듯이 미학은 새롭게 느끼고 다르게 사유하는 능력, 즉 심미적 판단력의 연마에 있다. 예술은 자율적 개인의 반성적 변형능력을 촉진한다.

톨스토이와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중점으로 정리하면, 미의 관념이 전제된 예술은 먼저 작가의 독창적이고 논리적인 형식과 고도의 기교로 표현한 결과물로 실용 목적이 아니다. 그 결과물은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아름다워야 하고 작가의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⁹⁾ 그리고 '사회·문화적 시각'을 반영한 메시지로 감상자와 소통한다.

2) 예술 음악

'예술 음악'은 제2장 1절에서 논한 예술성을 추구한 모든 장르로, 일반적으로, 음악 학계에서 오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음악사의 맥을 잇는다고 공적으로 인정한 모든 작품을 포함한다. 예술 음악의 변천 과정은 고대와

9) "현대는 미의 확대된 표현으로 추(醜)도 인정한다. '아름답지 않은 예술 작품'도 있고, 반대로 '예쁘지만 예술이 아닌 상품'도 있음을 알기에, 아름다운 이미지만을 예술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이해완, 앞의 책, 44쪽.

중세의 종교와 제정 중심에서 18세기 시민혁명 이후의 민주로, 그리고 20세기 이후 점점 복잡하게 얽히고 다원화한 사회로 이어졌다.

역사의 변천이 음악을 예술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거시적인 관점은, 역사 순으로, 선법성(旋法性, Modality), 조성(調性, Tonality) 그리고 무조성(無調性, Atonality)의 시대로 대략 구분한다. 악보의 창제와 조율법의 발전은 음악이 학문적으로 발전하고 예술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제1장 서론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악보로 기록되어야 예술 음악의 범주로 인정하는데, 악보가 과거의 음악을 재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예술의 주체가 신(神)에서 사람으로 전환되는 시기의 팔레스트리나(Giovanni Pierluigi da Palestrina, 1525~1594), 몬테베르디(Claudio Monteverdi, 1567~1643) 등 많은 작곡가가 음악의 예술화를 견인했다. 그러나 악기 제조술과 조율법 등이 아직 덜 발달했고 중세의 종교적 관성과 사회적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적 환경이 예술화의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예술화는 흔히 악기가 발달하고 평균율이 상용화하고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소위 ‘예술 음악(Musical Arts)’의 시대라는 바로크부터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술 음악사’의 변천 과정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팔레스트리나가 16세기 다성음악 이론의 체계를 세웠고, 바흐는 대위법과 기능화성 그리고 음악 형식 등 18세기의 음악 어법을 정립했다. 그럼으로써 음악의 논리화와 학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바로크 시대, 평균율의 상용화도 음악을 예술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합리주의와 계몽사상이 시대적 담론이자 사상적 헤게모니였던 바로크 시대에서,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이전의 고전 시대까지는 음악의 논리적 진행, 특히 기악을 위한 형식 개발이 화두였다. 푸가와 소나타 등의 세속 기악 형식은 물론 미사(Mass)와 진혼곡(Requiem), 수난곡(Passion) 등 종교적 장르 역시 종교의 제례 형식이 진행

논리의 기반이었다.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 사회체계가 바뀌고 ‘합리주의의 비-합리성’을 삶에서 겪은 낭만 시대 음악은 ‘사실적 묘사’의 ‘예술’을 표방했고 오페라나 발레와 같이 ‘재미’나 ‘오락성’이 대두된 시기이기도 하다. 과거 진행의 논리를 우선순위에 둔 음악보다 한결 목적이 뚜렷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었다. 문학적인 이야기나 이미지를 음악으로 묘사한 교향시(Symphonic Poem)와, 오페라는 물론 심지어 과거 절대 형식이었던 교향곡도 그런 진행 방법을 적용했다. 바로크 시대부터 연주단의 규모와 연주회장은 점점 대형화되었고 그 추세는 두 번의 대전이 발발한 20세기 초중반까지 계속되었다. 점점 장황해진 연주단을 위해 자연스럽게 선율, 화음, 대위법, 형식, 관현악법 등에 관한 음악이론은 발전했다.¹⁰⁾

조성에서 무조성으로의 과도는 주로 말러(Gustav Mahler, 1860~1911)와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등의 작곡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유럽의 산업혁명으로 풍부해진 물자와 유행처럼 번진 식민지정책, 그리고 19세기 말 무렵의 잦은 전쟁과 20세기 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경제·사회·문화는 물론 음악을 포함한 예술 환경도 근대주의(Modernism) 예술사조로 바꿔놓았다. 인상주의, 표현주의, 음렬주의, 신고전주의 등이 그런 예로, 근대주의 음악은 작곡가의 음악적인 개성을 이론화하고 음악으로 발현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21세기의 음악은 아직 학문적으로 정의된 뚜렷한 사조가 없지만 ‘실용의 시대’라고 말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실용성이 없는 예술은 고리타분하고 실생활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세하게 되었고 실제로 실용이 순수 영역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의 예술은 실용의 영역도 아우르게 되었다.

10) 강효진·한상은,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관점에서 음악사적 접근」, 『음악교육공학』 제62집, 2025, 166쪽.

이렇게 음악이 학문적·예술적으로 체계화하면서 창조된 작품은 미학적 관점에서는 다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형식의 우수성’과 ‘사실적 재현(또는 모방)’인데, 전자는 주로 절대음악을 표방한 고전주의, 후자는 주로 표제음악을 표방한 낭만주의의 음악적 전형과 조응한다. 고전주의는 ‘비율적인 강조(an emphasis on elements of proportion)’¹¹⁾와 ‘형식적 전개(a model of excellence or formal discipline)’를 통한 ‘큰 형식(large-scale forms)’을 강조한다.¹²⁾ 낭만주의의 주된 목적은 감정의 표현으로, 심지어 아이디어의 분위기(the representation in tone of ideas)나 문학적 또는 회화적으로 받아들여진 표현도 포함한다.¹³⁾

20세기의 무조성 음악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장르마다 작곡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드뷔시(Claude Debussy, 1862~1918)는 프랑스 미술의 인상주의를,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1874~1951)는 주로 독일 미술의 표현주의를 천착했으므로 분위기나 회화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표현주의를 지나 쇤베르크는 음렬주의로 작품을 바꾸면서 감성적 요소보다는 논리적 전개를 강조했다.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는 고전주의의 형식미를 천착했다. 그러므로 절대음악을 표방한 바로크와 고전주의 그리고 20세기의 신고전주의와 음렬주의는 ‘형식의 우수성’의 미학을, 낭만주의의 표제음악, 20세기의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는 ‘사실적 재현(또는 모방)’을 미학적 근간으로 삼을 수 있다.

(1) 형식적 우수성의 미학

신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개입된 미에 관한 절대적인 관념의 기준은 형이상학, 즉 진·선·미였다. 고대 그리스와 중세 시대의 예술적 주제와 배경

11) Scholes, Percy A. *The Oxford Companion to Music*,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194-195.

12) Sadie, Stanley. op. cit., p.169.

13) Scholes, Percy A. op. cit., pp.194-195.

은 신(들)이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과 중세 유럽 사회에 절대적이던 종교의 신이 미의 절대적인 기준이었고 예술의 절대적인 대상이자 주제였다. 지금까지 인류의 유산으로 전해오는 유럽의 신전과 조각, 중세의 대성당 그리고 종교적 용도의 건축물 내외에 장식된 조각과 그림 등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그러니 신(들)을 의인화한 조각은 ‘완전한’ 신체로 표현되었고 신(들)을 모시는 신전과 대성당 역시 당대의 조화와 균형을 통한 ‘완전성’을 추구했다. 도리아식(Doric), 이오니아식(Ionic), 코린티아식(Corinthian) 등의 건축 양식을 따른 그리스의 신전들, 그리고 로마네스크양식과 고딕양식의 건축술로 지은 중세의 대성당들이 그런 예이다. 그런 건축물과 건축물의 실내외에 장식된 조형물과 미술품은 조화와 균형과 품위를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았다.¹⁴⁾

이런 표준을 근간으로 창조된, 장르를 불문하고, 모든 작품을 소위 ‘클래식’으로 분류하고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클래식’은, 서론의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오래됐지만, 여전히 가치 있고 훌륭한 것”을 의미한다. 원래 로마 시민 계급 중 최고 등급을 지칭했고 나중에는 최상급, 우수한, 모범적인 등의 의미로 통했다. 즉 완전성을 추구하는 예술의 조건이 조화와 균형과 품위이고, 그 근원을 절대적인 존재에 둔다는 말이다.

“신에서 출발한 관념(사람의 정신 또는 마음)은 절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만, 그 관념의 표상(Vorstellung)은 주관성이 개입되었다”라고 주장한 칸트¹⁵⁾와 그에 앞선 새프츠베리(A. A. Cooper Shaftesbury, 1671~1713)와 허치슨(Francis Hutcheson, 1694~1744) 등의 미학자들에 의해 고전적인 예술은 비율적인 미를 강조함으로써 새롭게 정립된다. 새프츠베리는 미(美)가 진(眞)이 되는 조건으로 조화와 균형을 전제한다. 그리고 진은 관념

14) 강효진·한상은, 앞의 논문, 155쪽.

15) 최은아, 『한슬리크 음악미학의 철학적 배경』, 예술, 2011, 101쪽.

의 배경이고 진을 배경으로 창조한 미가 선(善)이 된다고 주장한다.

“미는 조화와 균형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화와 균형으로 나타난 미는 옳다(진).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옳아야 유쾌하고 좋다(선). 그러므로 미는 오직 정신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신은 가장 중요한 미이며, 미와 선은 하나의 원천에서 나온다. 미와 선을 별개의 것으로 고찰하더라도 미는 선과 분리 불가능한 것으로 결합한다.”¹⁶⁾

허치슨은 예술과 미에 관해 “예술의 목적은 미이고, 미의 본질은 다양성 내의 통일성”¹⁷⁾이라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 때 정립된 클래식 개념, 즉 조화와 균형과 품위라는 예술의 조건에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을 더한다. 작품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되 논리정연해야 통일성이 담보된다는 말이다. 형식적 우수성, 균형적 비율,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통한 형이상학을 표방한 음악의 미학적 배경이다.

(2) 사실적 재현(모방)의 미학

신본에서 인본으로의 점진적인 사조의 변화로 예술의 개념은 형이하학적(또는 경험적) 요소도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취급된 미의 요소가 개인적 취향과 쾌(快)였다. 톨스토이는 미와 예술은 따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없는 듯한 개념으로, 관념적인 개념과 경험적인 미는 결국 주관적인 영역으로 귀결한다고 말한다. 여전히 미의 객관성은 담보할 수 없다.

형이상학적이든 경험적이든 모든 정의는 주관적 정의로 귀결한다. 그리고 아무리 이상하게 돌려 말한다 해도, 미를 드러내는 것이 예술로 간주하며, 마음에 드는(욕망을 일깨우지 않으면서) 것, 그것이 미라는 결론으로 나아간다. 그러한 정의들이 근거가 불충분하고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많은 미학자는 그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왜 마음에 드는 것이 예술인지 다시 자문한다. 그리하여 미의 문제는, 허치슨, 볼테르, 디드로 등에게서처럼, 취향의 문제로 전이된다. 그러나 취향이란 또 무엇인가를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도, 독자들이 미학사와 실제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어떤 결론에 도달할

16)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앞의 책, 35-36쪽.

17)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앞의 책, 36쪽.

수 없었다. -중략- 이처럼 현재 존재하는 미학은 소위 과학이라고 부르는 지적 활동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와 같은 그런 것이 되지 못한다.¹⁸⁾

18세기 미학의 창시자인 바움가르텐(Alexander Gottliebe Baumgarten, 1714~1762)을 필두로 미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진화하기 시작한다. 그는 미의 발현이 예술이라고 정의하고 자연의 모방이 예술의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는 일종의 조응(照應) 상태 즉 부분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전체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형성된 하나의 질서이다. 미 자체의 목적은 욕망을 충족하고 유발하는 것에 있다. 미의 발현에 대해 논하면서 바움가르텐은, 우리는 오직 자연 속에서 미의 실현을 볼 수 있으므로 자연의 모방이 예술의 최고 과제라고 주장한다.¹⁹⁾

이런 예술에 관한 바움가르텐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예술을 진과 선의 경지, 즉 형이상학으로 끌어올리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독일의 미학자 멘델스존(Moses Mendelssohn, 1729~1786)은 “예술은 모호한 감정에 의해 인식된 것을 진과 선의 경지로 끌어올린다.”²⁰⁾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인용하면서 감정의 예술을 형이상학의 영역으로 승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경향을 가진 미학자들은 ‘미의 이상은 아름다운 육체 속에 깃든 아름다운 정신’, 즉 미와 정신을 동일화한다. 그러나 이런 형이상학의 미는 “예술의 목적과 법칙은 선과 완전히 구별되는 독립적인 미일 뿐이고 외적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의 조형미가 예술의 목적이다.”²¹⁾라고 주장한 빙켈만(Winckelmann, 1717~1767)에 의해 부정된다.

위에서 언급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두 관점은 결국 예술에 관한 개념과 정의를 아우른다. 그러나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하든 예술을 정의하는

18)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앞의 책, 61-62쪽.

19)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앞의 책, 32-33쪽.

20)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앞의 책, 33쪽.

21)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앞의 책, 34쪽.

데 문제와 오류는 있다. 시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미와 예술에 관한 사상의 진화보다 체감의 변화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런 문제와 오류를 극복하려는 방편으로 과학적·이성적 논리와 사고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예술의 개념에 적용할 수도 없다. 영원불멸의 절대적인 신이 결부된 미나 주관적인 취향과 쾌와 결부된 미는 결국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3) 같은 맥락에서의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칸트와 그의 후계자 실러는 위의 (1)과 (2)항에서 논한 두 미학적 견해를 아우르고 관념의 결과로써의 예술, 즉 두 미학관을 같은 맥락에서 강조한다.²²⁾

인간은 자신 속에서 자연을 인식하고 자연 속에서 자신을 인식한다. 인간은 자신 외부의 자연에서는 진리를 찾고, 자신 속에서는 선을 찾는다. 진리는 순수 이성의 작업이고, 선은 실천 이성(자유)의 작업이다. 이 두 인식 수단 외에도 인간은 판단력(Urtheilskraft)이 있는데, 판단력은 개념이 없는 판단을 형성하며 욕구가 없는 만족을 낳는다. 바로 이 판단 능력이 미학적 감각의 기초이다. 칸트에 의하면 미란, 주관적 의미에서는 어떤 개념이나 실용적 이익이 없는 일반적인 쾌이며, 객관적 의미에서는 목적에 대한 어떤 표상이 없이도 수용될 수 있을 정도의 합-목적적인 대상이 가진 일정한 형식이다(칸트).

예술의 목적은 미이며, 그 미의 원천은 실용적 목적이 없는 쾌로 본다. 그렇다면 예술이란 일종의 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술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 외에 다른 목적을 갖지 않는 삶 자체의 미를 발현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실러, 2장 1절에서 이미 인용했다).

이 외에도 홈(Henry Home, Lord Kames, 1696~1782)과 햄스터하우스(François Hemsterhuis, 1720~1790) 등의 미학자도 두 미학관을 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칸트와 같은 결의 미학관을 가진다. 홈은 ‘미를 쾌로 인식’하는 ‘취향이 미의 정의’라면서 예술의 현실성에

22)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앞의 책, 34쪽.

방점을 두지만, 제한된 표현의 범위에서 논리력 또는 표현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풍부한 인상, 완전성, 힘, 다양성’ 등의 미의 요소를 함축해야 이상적인 예술이 된다고 강조한다.²³⁾ 험스터하워스는 “미가 최상의 쾌고 최상의 쾌는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관념을 제공하는 것”²⁴⁾이라고 말하면서 미와 쾌를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고 미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흄의 ‘제한된 표현’과 험스터하워스의 ‘최소의 시간에 최대의 관념’은 예술의 절제 미와 함축성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방만한 공간이나 시간으로 표현해도 예술의 조건에서 배제한다.

요약하면, 미에 관한 정의는 위에서 살펴본 두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관점은 미의 개념을 신과 결부시킨다. 즉 신이 완전하므로 신의 속성인 진·선·미가 예술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신에서 출발한 삶이나 철학적 관념의 보편성과 정당성을 미와 예술에 적용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미와 예술을 주관적인 취향과 쾌로 연관시켜 형이하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접근한다. 미와 예술을 단순히 쾌와 취향 같은 형이하학으로 범주화하면 매우 간명하고 명백해지지만, 이 관점은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도 포함하므로 예술의 범위는 무한대가 된다. 게다가 예술이 비도덕성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도 있게 된다.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미를 기반으로 한 예술은 종교적 주제를 가지고 종교적 용도로 창조되고 종교적 용도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쾌와 취향을 기반으로 하는 형이하학적인 미는 대체로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의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형이하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한 예술 역시 실리적 의도와 목적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미학관은 지금도 여전히 진화 중이다. 제2장 2절에서 이미 인용했듯이, 이 세상에는 ‘아름답지 않은 예술 작품’도 있고, 반대로 ‘예쁘지만 예술이

23)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앞의 책, 39쪽.

24)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앞의 책, 38쪽.

아닌 상품'도 있음을 알기에, 현대인은 더 이상 아름다운 이미지만을 예술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²⁵⁾

예술의 기본을 미로 본 과거와는 달리 현대는 추도 예술의 한 요소로 다룬다. 문광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와 추는 이제 구분되기 어렵다. 구분된다면 미에는 추의 요소가 상당히 섞여 있다. 예술미와 자연미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었다든가, 예술을 더 이상 미 개념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예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도 비예술적이고, 예술에 대한 논의도 문화산업의 틀 안에서 규격화된 상투어를 반복하는 것이다.”²⁶⁾

3. 음악의 대중화

앞선 제2장 2절에서, 바로크 시대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연주단과 연주회장의 최대화와 음악의 본격적인 예술화를 연계해서 논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음악의 대중화를 촉진했다는 역설적 관점에서 논한다. 먼저 ‘대중’과 ‘대중화’, ‘실용화’의 개념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굳이 학술적인 개념 설명보다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의를 준용한다. ‘음악의 대중화’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음악을 대중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중적 접근성과 친숙함 그리고 취향 또는 유행을 반영할 수 있지만, 자칫 ‘예술성’은 뒷순위의 가치로 전락하기도 한다.

1) 코랄, 작곡 기법의 대중화

유럽 역사의 큰 흐름은 ‘신(神)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제정에서 민주로’가 그 방향이었고 음악사 역시 그 흐름에 순응했다. 고대 그리스와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음악은 종교의 기능적 용도에서 특권

25) 이해완, 앞의 책, 44쪽.

26) 문광훈, 앞의 책, 70쪽.

층의 전유물로, 특권층의 전유물에서 일반시민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 이후 부를 가진 신흥계급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 계층이 되면서 그들을 위한 ‘오락성’의 공연 문화가 유행했다. 대형화한 오페라나 발레가 그런 예다. 20세기 이후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필두로 세상을 급변하게 하는 여러 현상이 있었고 다다이즘과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어졌다. 고대 그리스 이후 2천 년 이상의 오랜 세월 동안 고전의 근간이었던 ‘조화, 균형, 품위’의 개념은 퇴색했고 음악의 대중화는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는 일련의 거대한 대중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창작이 인간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술화 과정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미 앞선 제2장 2절에서 언급했듯이, 연주회장과 연주단이 점점 최대화하는 현상은 음악의 예술화를 재촉했고 필연적으로 음악의 학문적 발전을 동반했다. 게다가 그런 과정 중 예술적 요소와 대중적 요소를 아우르려는 노력도 있었으니 곧 대중이 쉽게 부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노래를 음악 전개에 직간접적으로 포함하는 기법이다.

(1) 코랄

르네상스의 종교개혁 내용 중 ‘회중 찬송(choral)’의 도입은 ‘음악의 대중화’로 이해할 수 있다.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의 코랄은 회중이 쉽게 따라 부르도록 단순한 선율로 이뤄진 유절형식으로, 규칙적인 리듬과 규칙적인 구(phrase)와 절(period)로 구성된 단순한 형식 등이 특징이다. 게다가 당시 라틴어로 된 그레고리오 성가(Gregorian Chant)와 달리 독일어 가사로 된 코랄은 회중이 쉽게 이해하면서 부를 수 있었다. 과거 종교개혁에서 회중 찬송(Choral)의 기본적인 구조로는 작곡가의 독창적인 악상을 전개하기에 한정적이므로 학구적·논리적으로 발전된 형식이 아

니었다. 형식의 발전과 논리적 전개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 뿐 그저 본능적인 ‘숨쉬기’를 단위로 하는 최소한의 형식이었다. 종교적인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코랄은 당대 팔레스트리나와 같은 보수적인 작곡가가 발전시킨 복잡하고 내밀한 구조의 다성기법(polyphony)과 대조되었다. 이는 르네상스 당시 음악의 문외한이던 일반 회중을 위한 배려로, 음악의 대중화라고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는 루터의 단선을 코랄을 4성부(SATB Harmonization)로 편곡했고 흔히 ‘바흐의 코랄’로 명명한다. 바흐의 코랄은 바로크 시대의 기능화성(Function Harmony)을 비롯한 전조와 불협화음의 처리, 종지(cadence) 등에 관한 이론을 체계화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바흐는 그의 코랄을 수난곡(Passion)과 오라토리오(Oratorio), 칸타타(Cantata) 등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종교적 작품에서 자주 사용했다. 루터의 개혁 정신을 기리고 회중 찬송의 전통을 반영하여 예술적인 종교 작품에서 청중의 감정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음악의 대중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대중적 요소

코랄의 대중적인 음악 요소를 작품에 활용한 예는 바로크 후대 작곡가의 기법에서도 발견된다. 베토벤 9번 교향곡(합창)의 4악장 주제인 ‘환희의 송가’와 브람스 교향곡 1번, 4악장의 주제 선율²⁷⁾이 그런 예로, 음악의 대중화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두 선율 모두 코랄 풍으로,²⁸⁾ 두 주제 모두 구와 절의 구분이 뚜렷한 단순한 선율에 수직적인 화성 진행이 특징이다. 바흐의 음악은 베토벤과 브람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브람스가 두 선배 작곡가를 존경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²⁹⁾ 그렇다

27) 김보균·나인용·이성삼, 『Grout 서양음악사』, 세광출판사, 1986, 670쪽.

28) 김보균·나인용·이성삼, 『Grout 서양음악사』, 세광출판사, 1986, 670쪽.

면 브람스는 바흐와 베토벤의 음악과 정신을 음악적으로 계승하고 나아가 대중을 배려하기 위해 코랄 풍인 ‘환희의 송가’의 음악적 인상을 연상시키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앞서 논한 코랄과 주제 선율의 사례와 결은 다르지만, 대중적 요소를 예술적으로 승화하려는 다른 예도 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5번, ‘터키풀로(Turkish)’와 베토벤의 크로이처(Kreutzer) 소나타가 그런 예다. 전자의 3악장 중간에 돌연히 나타나는 터키풀(alla turca)의 이국적인 부분³⁰⁾은 당시 유행하던 오스만 제국의 정예 군악대인 ‘예니체리(Janissary)’에서, 크로이처 소나타 피날레 악장의 음악적 동기는 이탈리아의 민속 춤곡에서 각각 영감을 받았다. 음악사전은 ‘고전(classic)’ 또는 ‘고전주의(classicism)’에 관한 개념 정의를 위해 ‘민속(folk)’이나 ‘대중적인 전통들(popular traditions)’은 제외한다고 명시한다.³¹⁾ 이 사전적 정의만 봐도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대중적 요소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음악의 대중화를 의도했음이 자명하다.

2) 헨델, 음악의 실용화와 대중화

18세기 예술은 이미 유럽의 시민 계급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했다. 이미 18세기 초, ‘교양’이 사회적 화두가 된 영국을 중심으로 문학과 음악 등이 대중적 성향을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 파급력은 컸다. 전원경은 영국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8세기에 영국의 시민 계급은 프랑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치와 경제, 예술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중략- 부유한 시민 계급은 문화에도 영향력을 미쳤다. 1700년대 전반 영국에서는 걸출한 두 소설 작품인 『로빈

29) 위의 책, 601쪽.

30) 현악기의 콜레노(col legno)와 스타카토 주법에 따른 분산화음의 타악기 같은 음향효과가 특징이다.

31) Sadie, Stanley. op. cit., p.169.

슨 크루소』와 『걸리버 여행기』가 등장하는데, 이 두 작품의 작가인 대니얼 디포(Daniel Defoe, 1660~1731)와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 1667~1745)는 토리당(Tory Party)과 휘그당(Whig Party) 양편에서 각 당의 강령을 담은 소책자를 쓰던 전력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대중 소설들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성향(특히 『걸리버 여행기』)을 보이고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1700년대 초반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스펙테이터(The Spectator)』와 같은 잡지들 덕분에 대중 소설의 파급력은 금세 영국의 신사 계층을 파고들었다. ‘교양’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영국 신사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 신사 계층은 음악회에 가서 헨델의 <메시아>에 열광했고 매달 잡지나 팸플릿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었으며 신대륙의 새로운 문물과 선진 농업 기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³²⁾

헨델(Georg Friedrich Händel, 1685~1759)은 음악에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삶과의 융화를 추구했다. 음악을 단순히 감상 목적만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용 매체로 헨델이 사용했다는 말이다. 그것은 그가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가지게 된 한 이유이기도 하다. ‘수상음악(Water Music)’과 ‘왕궁의 불꽃놀이(Royal Fireworks)’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Zadok the Priest)’ 등이 그런 예로, 국왕과 국가의 이미지를 상징하고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과 소통하려는 의도였다. 헨델이 영국으로 귀화한 이유 역시 음악으로 사회와 더 활발히 소통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독일 하노버 제후국의 궁정악장이던 헨델은 자신의 오페라에 대한 런던 시민의 열렬한 호응에 감복해서 1712년 아예 영국으로 귀화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런던에서는 이미 보헤미아 태생의 작곡가인 글루크(Christoph Gluck, 1714~1787)도 활동하고 있었다. -중략- 헨델이 고국 하노버를 버리고 섬나라 영국에 정착하게 된 것은 유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교양 있는 청중들이 그곳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노버에서 헨델의 위치는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음악을 작곡해야 하는 궁정 악장의 처지였다. 모든 음악은 실용적인 목적, 즉 제후의 연회나 결혼식, 교회의 미사 음악 등의 용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이런 목적 없이도 오케스트라나 합창단과

32) 전원경, 『예술, 역사를 만들다』, SIGONGSA, 2024, 282-284쪽.

함께 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시민 계급이 음악을 듣기 위해 기꺼이 돈을 내고 음악회장을 찾는 풍토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런던 시민들은 이미 한 세기 전에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열광했던 이들이었다. -중략- 청중을 위한 음악, 목적 없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던 런던의 풍토는 헨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 헨델은 30년 이상 런던에서 부유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다 영국의 국립묘지 격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혔다.³³⁾

17세기부터 이미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던 이탈리아 오페라가 영국에서도 인기를 누렸다. 그리고 오페라의 인기가 시들해질 무렵 종교적 내용의 오라토리오가 영국에서 유행했다. 헨델은 그의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로 연주회장에서 대중과의 소통을 원했다. 자신의 음악이 대중화되기를 원했다고 달리 표현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작곡가가 작품으로 대중과의 소통을 원하지만, 헨델은,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활동한 바흐에 비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음악의 대중화가 헨델의 주된 가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3) 사회적 대중화 현상

음악의 대중화는 사회적 현상으로 발현되기도 했다. 바로크에서 고전으로의 전환기에 유행처럼 확산했던 로코코양식, 1770년에서 1780년에 걸쳐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노도와 질풍(Sturm und Drang)’이라는 문학운동에서 천착한 작곡 풍, 그리고 낭만 시대 일반인들이 능동적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던 ‘음악동우회’ 등이 그런 사례다. 이런 사회적 현상은 일부 상위 계급 사회에서 음악의 학문화·예술화, 그리고 예술의 권위주의화, 나아가 이성과 논리의 시대적 헤게모니에 대한 반발이자 역사에 순응한 대중화였다.

33) 위의 책, 285-286쪽.

(1) 로코코양식

로코코 사조는 왕실에서 시작했지만, 왕족이 아닌 주로 영국과 프랑스의 귀족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예술을 누리는 계층이 점점 대중으로 확대되었다.

‘로코코’라는 말의 어원(Rocaille, 조가비 장식)에서 알 수 있듯이 로코코양식은 루이 15세의 애첩 폰파두르(Pompadour) 후작 부인의 살롱에서, 그리고 귀족 저택의 실내 장식에서 탄생했다. 처음에는 휘장, 식탁보, 가구 등의 장식을 가리키던 ‘로코코’는 점차 미술과 건축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로코코라는 말에서 풍기는 인상처럼 이 사조는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공허한 느낌을 주는데, 당시 사람들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 타조 깃털로 치장한 여인처럼 지나치게 가볍고 장식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귀족들은 로코코를 좋아했다. 그리고 이제 로코코는 왕실이 아닌, 귀족들의 여흥이 되었다.³⁴⁾

위 발취문에서처럼, 로코코양식은, 주로 당대의 중산층이 좋아하는 ‘부르주아식(style bourgeois)’ 표현으로, 장대한 표현보다는 장식성을 강조했다. 음악적으로는 바로크의 전형이던 (대중적 관점에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어려운 대위법 양식(Baroque counterpoint)은 한결 단순하고 쉬운 구조의 화성 양식(homophonic texture)으로 바뀌었다.³⁵⁾ 주로 류트와 하프시코드의 조합 또는 플루트를 포함한 실내악 또는 오페라-발레 등에서 사용하는 가벼운 형식(small-scale)을 택했다. 권위적인 격식에서 벗어나려는 로코코의 대중화 현상은 당시 갈랑트(Galant) 양식에서 잘 나타난다.³⁶⁾ 갈랑트의 음악은 반주가 가볍고(lightly accompanied) 구조가 뚜렷한 선율(periodic melodies)을 특징으로 하는 우아한 양식으로, 로코코 당시

34) 위의 책, 271쪽.

35) Miller, Hugh M. & Dale Cockrell. *History of Western Music*, NY: Harper Perennial, 1991, pp.121-122.

36) Randel, Don.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p. 712.

유행했다. 계몽주의의 이상에 따라 이전 시대의 정교하고 복잡한 대위법과는 달리 밝고 유쾌하고 ‘자연스러운(natural)’ 음악이다.³⁷⁾ 로코코양식은 바로크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음악을 점점 단순화했고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성을 강조함으로써 음악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2) ‘노도와 질풍’

‘노도와 질풍(Sturm und Drang)’은 고전주의의 이성과 질서에 반발하고 자유의지를 강조한 독일의 문학운동으로 사랑, 걱정, 고뇌, 분노, 슬픔 등 개인의 본능적인 감정을 강조했다. 예술가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핵심 가치였던 이 운동은 음악에도 영향을 끼쳤고 개인의 감정과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낭만주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음악과 문학적 질풍노도의 가장 적절한 유사점은 1770년대 독일 오페라와 음악극, 특히 ‘애정극(melodrama)’과 연관된다. 1760년대, 공포스러운 장면(scenes of terror)이 포함된 글루크의 발레나 오페라의 초기 작품은 질풍노도의 요소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표현의 강렬함과 긴장감은, 특히 18 세기의 표준이었던 ‘장엄(sublime)’이라는 미학적 개념과 관계가 있다.³⁸⁾

격렬하고 극적인 긴장감을 감정적인 표현 요소로 강조하여 기존의 비교적 조화 위주의 단순한 표현의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예를 들어, 분노, 절망, 불안 등 내면의 감정을 악상의 급격한 변화, 불협화음, 불규칙한 리듬, 격렬한 강세 등 다양한 표현을 개발해서 음악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런 표현을 강화하려고 단조성(예를 들어, f#단조의 ‘고별’, f단조의 ‘수난’)을 즐겨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경향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음악의 대중화를 촉진했고 후대의 베토벤과 낭만주의 작곡가들의 기법에도 영향을 끼쳤다.

37) Sadie, Stanley. op. cit., p.297.

38) Randel, Don. op. cit., p.811.

(3) 19세기 유럽의 시민 음악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자본에 의한 새로운 계급과 시민의 지위가 향상한 낭만 시대는 피아노가 일반가정에 보급되고 음악동우회가 사회적으로 활성화했으며 음악교육을 위한 종합 음악 기관도 생기기 시작했다.³⁹⁾ 이미 산업화한 영국을 필두로 시민 합창단(choral societies)이 새롭게 등장했고, 인쇄술의 발전과 독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체계(new systems for teaching the reading of music)의 보급으로 이런 분위기는 19세기 유럽 전반에 확산했다.⁴⁰⁾ 멘델스존(Felix Mendelssohn Bartholdy, 1809~1847)과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등의 작곡가들은 합창동우회(Gesellschaft der Musikfreunde)를 위해, 주로 자연과 사람의 감성을 주제로 하는 서정적인 시문학을 가사로 하는 합창곡을 작곡했다. 음악이 더 이상 수동적인 감상만의 목적이 아닌, 음악교육과 동우회 활동 등과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음악 행위에 참여하면서 음악의 대중화는 촉진되었다.

4) 최소주의 음악(minimal music)과 전자 음악(electronic music)

전통적으로 작곡가는 창작하고 연주자는 연주하고 청중은 감상하는, 이런 일련의 음악 행위는 작곡가와 연주자(들)가 음악 생산과 전달의 절대적인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전자 음향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대중음악은 ‘소리 조작 기술자’도 창작과 생산과 전달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맡는 새로운 ‘예술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현대의 대중음악은 이미 ‘소리, 기술, 개념의 융합체’로 인식되었으며, 그 제작·생산·전달 방식 또한 구조적으로 변했다.

20세기 전자 음악과 전위음악을 대표하는 슈톡하우젠(Karlheinz

39) 김춘미, 『서양음악문화사 강의』, 예종, 2005, 206~207쪽.

40) Sadie, Stanley. op. cit., p.163.

Stockhausen, 1928~2007)은 오늘날, 실제로 그의 의도였는지 알 수 없지만, ‘대중음악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슈톡하우젠의 학구적인 노력은 전자 음악을 하나의 표현 매체이자 음악적 어법으로 정립하는 데 이바지했다. 격동하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개념 자체도 진화하고 변했다. 전자 음악의 등장은 음악의 폭발적인 대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슈톡하우젠의 전자 음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단순한 효과음이 아닌 ‘음의 시간적 구성과 공간적 배치(Structural thinking)’, 음악을 시간 개념의 전개가 아닌 ‘순간 형식(Moment form)’ 등. 그는 전자 음악에 관한 21세기의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사유와 과제를 제시했다. 그의 창작은 ‘컴퓨터 음악’ 또는 ‘전자 음악’이라는 작업의 특성상 주로 스튜디오에서 이뤄졌고 녹음, 편집, 조작 등의 과정이 포함되었다.⁴¹⁾ 이런 그만의 독특한 창작 수단은 현대 대중음악의 생산 기술, 즉 다른 음악에서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하거나 변형해서 새로운 음악으로 만드는 ‘샘플링(sampling)’ 기법, 음악의 한 구간이나 소리를 반복하게 하는 ‘루프(loop)’ 기법, 여러 소리를 서로 섞는 ‘혼합(mixing)’ 기법, 잔향 효과를 위한 ‘리버브(reverberation)’ 기법 등의 제작(또는 조작) 기술 등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슈톡하우젠은 실험적인 작곡가를 넘어 음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기를 부여한 ‘사상가’이자 디지털화한 대중음악의 시조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그의 역사적 의미보다 기술만을 추출·발전시켜 대중화한 전자 음악, 더욱이 상품화된 현대의 대중음악은 ‘최대 수익’이 목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만큼 현란하고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소리로 청중을 각인하고 중독시켜야 한다. 그래서인지 전자화된 대중음악은 ‘소리의 반복’이 특징이다. 이렇게 최소화하고 단편화된 소리의 반복은 최소주의

41) Salzman, Eric. *Twentieth Century Music*, Prentice Hall, 1988, pp.179-182.

음악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그(사티)의 미학적 기반인 종교적 명상이나 신비주의는 최대주의의 화려한 화성 진행, 폭넓은 빠르기와 셈여림의 변화, 커진 연주단 규모와 장황한 연주 시간 등과 절대적으로 상충했다. 그러므로 사티의 음악은 이런 낭만 시대 최대주의에 대한 반발이 그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쇤베르크나 스트라빈스키와 같은 작곡가들의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학구적이고 어렵고 진지한 근대주의 음악에 대한 급제동이기도 했다.”⁴²⁾

1차 대전 후 허무주의와 다다이즘 예술운동에 조응하고 최소화한 음악 경향을 처음 시도하고 추구한 작곡가 에릭 사티(Éric Alfred Leslie Satie, 1866~1925)는 20세기 들어 점점 더 예술적·학문적으로 발전하는 근대주의 음악 경향에 반발하여 스스로 ‘대중 친화적’인 작품을 그의 음악 어법으로 삼았다.

이 장의 1절~3절에서 논했듯이, 바로크에서 낭만까지 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작곡가들의 시도는 다양하게 작품에서 표현되었다. 컴퓨터와 전자 음악에 지극히 학구적으로 접근했었던 슈톡하우젠, 그리고 그에 앞서 20세기 들어 사티가 주창한 최소주의 경향은 궁극적으로 오늘날 대중음악의 폭발적인 발전과 보급으로 이어진다. 오늘날의 대중음악이 있기까지 사회적 변화, 기술 발전, 미디어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마치 16세기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요인 중 하나였던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8~1468)의 인쇄술과 비교될 만큼 소셜미디어의 발전과 대중적 보급이 중대한 역할이었음은 두말할 필요 없다.

4.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의 역할

형이상학에서 형이하학으로 미학적 스펙트럼의 확장에 따라, 예술의 영역에는 논리적 구조와 전개뿐만 아니라 이미지의 묘사 역시 포함되기 시

42) 강효진·한상은, 앞의 논문, 162-163쪽.

작했다. 형이상학적 미학을 배경으로 한 음악은 진·선·미의 이념을 중심으로, 논리, 형식미, 비율,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등을 음악적 구성과 진행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형이하학적 미학을 기반으로 한 음악은 취향과 쾌를 미의 기준으로 삼고, 사실적 재현이나 모방을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미학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전자는 대중성의 결여라는 한계를, 후자는 예술성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각각 드러내게 되었다.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는 음악 발전의 두 축으로, 전자는 미적 가치를 고양하는 과정을, 후자는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음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의미한다. 음악사는 이 두 경향 중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화와 대중화의 절충적 균형이 적절하게 작용하면서 음악의 역사를 이끌었다. 즉 예술화와 대중화의 역학은 음악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음악사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형식적 우수성의 미학’ 또는 ‘사실적 재현(모방)의 미학’, 어떤 배경이든 균형을 위한 역학은 작용한다. 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절대음악의 형식은 기본 A-B-A'의 아치(arch)형으로 균형이라는 미학적 덕목이 핵심이다. 그리고 형식미는 작곡가의 진행 논리로 달성된다. 그러나 그런 절대적 형식이 작곡가의 악상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역할은 아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절대 형식은 판형(版型, template) 같은 역할이 아니라는 의미다. 절대 형식의 절정인 소나타형식만 봐도 제시부와 재현부의 두 주제가 필요조건이었다.⁴³⁾ 두 주제는 발전부에서 작곡가의 독창적인 악상(樂想)이 얼마든지 확장되고 발휘될 수 있다. 심지어 제시부의 도입부, 재현부의 코다에서도 작곡가의 악상을 재량껏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나타와 같은 절대음악

43) 전통적으로 제시부의 두 주제는 각각 다른 조성(주로 5도 관계) 관계이지만 재현부의 제2 주제는 원조로 회귀한다.

이라도 형식이라는 제약과 표현의 자유가 작곡가에게 동시에 주어진 셈이다. 문제는 무절제한 악상으로 아치형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아치형 구조가 파괴되어 더 이상 균형의 미가 발현되지 않는다면 결국 절대음악이란 개념도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므로 균형 조절과 악상의 표출은 작곡가의 몫이자 능력이다. 작곡가의 악성과 형식, 이 둘의 역학이 균형을 이뤄야 마침내 예술적 가치가 부여된다.

음악의 대중화와 예술화와의 역학적 균형이란 관점에서, 제3장에서 사례로 제시한 헨델의 실용적인 음악도 마찬가지다. 실용적인 목적으로 작곡되었지만, 당대의 미학과 예술적 경향을 반영하여 단순히 실용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수상음악’과 ‘왕궁의 불꽃놀이’ 모두 조곡(suite) 형식으로 다양성과 통일성의 균형이라는 미적 가치를 추구했다. 프랑스서곡(French Overture), 알르망드(allemande), 부레(bourrée), 혼파이프(hornpipe), 미뉴에트(minuet) 등으로 된 춤곡 구성은 ‘수상음악’과 ‘왕궁의 불꽃놀이’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되었다(Randel, 602쪽, 815쪽). 춤곡으로 된 여러 악장은 다양한 박자와 리듬과 빠르기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동시에 조곡이란 형식적 틀 안에서 통일성을 견지한다.

‘사실적 재현(모방)의 미학’의 경우, 낭만주의의 경향이었던 표제음악은 더 이상 아치 형식을 전개의 모범으로 삼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17세기부터 대중화한 오페라도 마찬가지다. 아리아와 합창 그리고 서곡과 간주곡 등, 이야기 전개의 상황 묘사가 오페라에서 음악의 주된 역할이었다. 이미 학문화된 화성법, 대위법, 관현악법 등, 음악 기법을 총망라한 작곡가들의 기량은 가히 ‘예술’이라고 할 만큼 섬세하고 화려하게 오페라의 장면과 상황을 묘사한다. 낭만 후기로 갈수록 ‘사실적 재현(모방)’ 기법은 더 발전한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오페라의 기악 반주는 결국 음악적 이미지들의 모음일 뿐 음악적인 진행 논리가 부족하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론 이야기의 줄거리(plot) 자체로 음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와 합창의 가사 없이 음악만 듣는다면 그렇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음악 자체에도 진행 논리를 더한다면 오페라는 한층 더 종합예술로 승화할 수 있다.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는 ‘유도동기(Leitmotiv, leading-motif)’라는 기법으로 그의 오페라를 설계했다. 오페라의 특정 인물이나 장소나 감정 또는 아이디어 등을 상징하는 동기를 만들고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음악의 지속성은 물론 진행의 체계(continuous and systematic)를 확립하기 위해서였다.⁴⁴⁾

비슷한 예로,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고전주의의 절대음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개 방법인 표제음악을 표방했다. ‘사실적 묘사’라는 표제음악의 특성상 관현악의 짜임새와 그로 인한 음향효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음색도 음악을 조직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⁴⁵⁾ 절대음악의 한 전형이던 교향곡에 표제라는 파격적인 진행 방법을 적용하면 자칫 주관적·감성적으로 치우쳐 논리 구성의 일관성이 약화할 수도 있었다. 그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베를리오즈(Hector Berlioz, 1803~1869)와 말러(Gustav Mahler, 1860~1911)와 같은 작곡가들은, 비록 두 작곡가의 사용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고정악상(idee fixe)’이라는 새로운 전개 방법을 택했다. ‘음악의 통일성’ 또는 ‘음악의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바그너의 ‘유도동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형이상학의 미학이든 형이하학의 미학이든 작곡가들은 일방적으로 편중된 역학은 본능적으로 거부했다.

음악적인 요소 역시 예술화와 대중화의 역학으로 작용했다. 제3장에서 논했듯이, 바흐는 대중적 요소인 코랄을 노골적으로 그의 작품에 차용 또는 모방함으로써 예술화와 대중화 모두 아울러왔다. 모차르트와 베토벤 그리

44) Scholes, Percy A. op. cit., p.568.

45) 로베르 J. 저, 채현경·최재천 역,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 궁리, 1997, 168쪽.

고 브람스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대중적 요소나 주제 선율을 직간접적으로 융화하고 아우르며 예술로 발전시켰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소홀하지 않았다.

음악적인 요소 외에 시대적인 역학도 작용했다. 예를 들어, 로코코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진지하고 기념비적인 바로크의 경향에 대한 반발의 역학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학은 오는 시대(고전)의 대표되는 작곡 경향인 단성양식(homophony)의 예술 어법으로의 진화로 작용했다. 그러므로 로코코양식을 단순히 ‘음악의 대중화’라는 역사의 단편으로만 볼 수 없다. 역사에서 예술화와 대중화의 역학이 시대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형식미가 절정이던 고전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낭만주의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전주의의 이성과 낭만주의의 감성, 이 두 음악적 사조의 역학이 만든 결과다. 베토벤에 이르러 소나타와 같은 절대적인 형식에서 음악을 예술적 경지의 절정에 올린 고전주의, 그리고 계몽사상과 합리주의,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영향권에 있던 ‘비합리적인’ 사회에서 비현실적인 삶을 동경하는 낭만주의, 이 두 사조의 역학이 두 음악 경향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예로, 사티의 최소주의는 (20세기 당시 관점에서) 대중과 괴리된 근대주의 음악, 그리고 정치적 편향성을 띤 음악에 대한 반발의 역학으로 볼 수 있다. 쇤베르크가 음렬 기법을 작품에 활용할 무렵 러시아는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했다. 나치즘, 그리고 나치즘의 핵심 인물이자 지도자 히틀러는 ‘불순한’ 음악을 거부했는데, 예를 들어, 브람스, 멘델스존 등 유대인 작곡가들의 음악과 공산주의 음악, 재즈, 무조성의 실험적인 모더니즘이나 혁신적인 음악 등을 포함한다.⁴⁶⁾ 사티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실험적

46) 김춘미, 앞의 책, 286쪽.

인 성향이 강했으므로 나치즘의 정책과 반대되었다. 게다가 그는 공산주의자로 전향했다고 자료는 증언한다.

열세 살에 파리 국립 음악원에 입학했다가 2년 반 만에 쫓겨났고, 열아홉 살에 다시 음악원에 입학했지만 역시나 선생들에게 인정 못 받고 음악원을 그만둔 후, 보병으로 자원입대, 들어간 지 몇 주 안 되어 군대가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차가운 밤 기독교적 신비주의 비밀결사 단체였던 ‘장미십자회’의 비공식 교회음악 감독으로 예식을 위한 음악을 작곡하다가 스스로 “안내자-예수의 도시 예술 교회(‘안내자-예수’는 Jesus-Christ에서 ‘Christ’ 대신 안내자 ‘Conducteur’를 써서 비튼 이름)”를 창시하고 교주와 회계를 겸임한 유일한 신도가 되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해체, 사회주의자였다가 사회주의 정치가, 장 조레스가 암살된 것에 분노해 공산주의자가 되어 코민테른에 가입, 죽기 직전 자신을 보러 온 신부에게 두 번이나 영성체를 주문하고 가톨릭 신자로 생을 마감.⁴⁷⁾

그렇다면 나치즘의 이념과 사티의 음악은 근본적으로 상충한다. 물론 시기적·지역적으로 나치즘의 직접적인 영향권과 상관없이 사티의 음악은 자칫 정치적으로 편중될 수 있었던 시대적 상황에 저항했고 당시 예술 음악 사조에 비판적 균형을 이루는 역학적 구실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음악의 대중화 현상은 제3장의 1절에서 4절에 걸쳐 작곡 기법, 실용화, 사회적 현상 그리고 새로운 음악 매개를 사례로 들어 논했다. 개념적으로 상충하는 두 요소, 즉 예술적 전개에 대중적 요소를 아우르는 작곡 기법으로 예술화와 대중화의 균형을 유지했다. 헨델의 실용 목적의 음악은 노골적인 대중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술적 형식도 아우르면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작곡가의 노력이라는 관점에서 논했다. 로코코나 질풍노도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예술화에 대한 대중화의 작용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예술화의 방법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자 음악이라는 새로운 매개는,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중음악에 편중된 현상에 이르게 한 듯 보인다. 그러

47) 송은혜, “자신의 음악을 펼칠 만한 곳을 찾아 평생을 떠돈 음악가, 에릭 사티”, 채널에스, 2021.03.19.

나 예술의 실용성이 현대 담론의 전제라면, 앞으로 음악의 예술화는 실용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역학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5. 결론

미와 예술 사조의 변천을 체계화하더라도 그 개념을 객관화하기에는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다. 예술의 미학 사조는 전통적으로 회화나 조각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미술에 관한 사상적 배경을 음악에 적용하기도 부담이다. 게다가 음악은, 미술과 달리, 작곡가만으로는 창조와 소통,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연주자라는 전달자가 있을 때 음악이 완성된다. 예술이 메타적 사유, 즉 평범한 사고 과정이나 개념 자체를 초월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별 이견이 없다. 음악의 진화 과정 역시 메타적 사유를 동력 삼아 이루어졌으며, 사유의 변천사가 곧 음악사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놀이와 같은 단순한 노래는 메타적 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음악의 예술화에 한계가 있다. 작곡의 주된 매개가 ‘노래’에서 기악으로 전환되면서 음악은 본격적으로 메타적 사유가 요구되었고 예술화될 수 있었다.

노래는 가사에 절대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다. 가사가 없다면 자체의 진행 동력이 없으므로 노래는 예술형식으로 발전할 수 없다. 낭만 시대의 슈베르트나 브람스, 슈트라우스 등과 같은 작곡가들은 아예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시문학을 가사로 썼고, 음악은 철저히 가사의 ‘사실적 묘사’에 충실함으로써 가곡을 예술로 승화할 수 있었다. 가사(대본)가 있는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등의 극음악은 이야기 그 자체가 일관된 주제이므로 음악은 이야기만 ‘사실적으로’ 수식하면 자연스럽게 진행의 일관성은 보장된다. 반대로 가사가 없는 기악은 일관된 진행을 위한 ‘우수한 형식’이 필요조건이고 그 논리의 근거가 ‘우수한 형식’이나 ‘사실적 묘사’였다. 그래서 단순한 ‘노래’ 수준을 넘어 음악을 메타적 사유의 결과로 승화하려는 작곡가의 작

풍을 굳이 구분한다면 결국 ‘논리적 사유’와 ‘사실적 묘사’로 귀결된다.

예술사에서 진화의 방향을 ‘사실주의에서 관념론으로’ 또는 ‘논리적 사유에서 사실적 묘사로’ 볼 수도 있지만, 창조적 예술 행위의 근거가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음악사 역시 이 두 사조, 즉 ‘우수한 형식’에서의 논리적 진행과 ‘사실적 표현’을 주된 두 축으로 삼고 진화했다. 그러나 사실주의의 사실적 묘사와 관념론의 논리적 사유, 이 두 예술관은 작가가 구현하려는 작품의 근거나 아이디어를 위해 취사선택할 문제지 우열이나 신구(新舊)의 문제는 아니다. ‘논리적 전개’는 ‘우수한 형식’을 만들고 역으로 ‘우수한 형식’이 있어야 ‘논리적 전개’가 가능하므로 ‘논리적 전개’와 ‘우수한 형식’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작곡가의 메타적 사유와 독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작품이 내포하는 메시지의 발견과 작품을 통한 새로운 미적 경험은, 작곡가가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암시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감상자의 몫이므로 굳이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논리적 전개든 사실적 묘사든 예술은 작가의 ‘사회·문화적 시각’이 반영된 메시지를 담아야 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감상자와의 소통이 예술의 여러 목적 중 하나라고 제2장 1절에서 논했다. 그 메시지는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의 삶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얻는 영감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식주와 같은 기본 삶의 개연성을 ‘대중성’, ‘실용성’이라고 한다면 ‘대중예술’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음악의 예술화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며 음악의 질적인 깊이를 더한다.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독창적인 표현의 자유, 복합적이지만 논리적인 구조를 통해 작가의 다양한 감성을 예술적 가치로 실현한다. 예술화한 음악은 감상자에게 사유를 요구하지만 때로는 난이도로 청중에게 괴리감을 느끼게도 한다. 반면 대중화한 음악은 친숙한 선율, 반복하는 리

듬, 명확하고 노골적인 메시지 등으로 대중과 쉽게 소통한다. 또한, 감각적이고 쾌의 요소를 극대화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친 상업성은 비윤리적이거나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심지어 아도르노는 예술 자체도 이미 산업화했고 미가 더 이상 예술의 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전히 예술화와 대중화에 관한 논의는 결론이 없다.

예술을 미와 연관시키려는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노력도 이젠 그다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예술은 소비 상품이거나 오락의 일종에 불과하고, 예술계 전체는 ‘문화산업’에 의해 관리되고 통합되었으며, 그렇게 된 지 이미 반세기 이상이나 지났다. 미와 추는 이제 구분되기 어렵다. 구분된다면 미에는 추의 요소가 상당히 섞여 있다. 예술미와 자연미의 구분이 애매하게 되었다든가, 예술을 더 이상 미 개념과 동일시할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다. 예술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도 비예술적이고, 예술에 대한 논의도 문화산업의 틀 안에서 규격화된 상투어를 반복하는 것이다.⁴⁸⁾

예술화와 대중화, 이 두 경향은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완하기도 한다. 예술화에 너무 치우치면 소수만의 전유물이 될 수 있고 대중성에 치우치면 일회성의 소비재로 전락할 수 있다. 제2장 제2절의 1항에서 허치슨은 “예술의 목적은 미(美)이며, 미의 본질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다양성과 통일성’은 분리될 수 없는 예술의 절대적 가치라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예술화와 대중화 역시 경쟁을 통한 승자독식의 구조가 아닌, 발전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역학관계를 형성해 왔음을 역사는 증명한다.

예술적이든 대중적이든 새로운 음악은 꾸준히 창조되고 생산된다. 음악을 관조하든 단순히 즐기든 실용 목적으로 사용하든 어쨌든 음악 행위는 사람만이 갖는 특성이자 능력이다. 역사에서 음악의 예술화와 대중화는 상호 역학적 관계를 통해 발전 지향적으로 발휘되었다. 그러나 예술 음악의 대중화나 대중음악의 예술화, 그 균형의 역학이 더 이상 작동하진 않

48) 문광훈, 앞의 책, 69-70쪽.

게 된 시점은 21세기, 최근 들어서부터다. 21세기 예술 음악은, 적어도 청중의 관점에서는, 20세기 근대주의의 경향을 답습하거나 모방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 작곡가의 깊은 예술적·철학적 고민과 그 결과물은 대중에게 외면받기 일쑤다. 대중에게 외면받는 예술은 작가와 일부 애호가만의 언어에 불과하다. 반면 대중음악은 전자 음악의 도입 이후 혁신적인 음향 기술과 시각적인 무대 연출,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 음악이 나아갈 길은 시대의 담론을 반영하여 실용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보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람의 역할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서 생산성은 증대하고 지식은 풍부해졌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은 무기력해지고 ‘인간성’은 퇴화하는 듯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지적이고 학문적인 다른 어떤 영역에서처럼, 음악에 관한 다양한 학구적인 논변은 음악, 나아가 예술에 관한 인문학적 소양을 심화·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주제와 논의는 아포리아의 성격을 지녀 심층적인 논의와 사고력 향상을 유발한다. 다만 예술에 관한 끊임없는 지적 호기심과 관심이 전제된다. 이 논문 역시 이런 유의 주제에 관한 여러 논변 중 하나로서 새롭고 발전된 또 다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김보균·나인용·이성삼, 『Grout 서양음악사』, 세광출판사, 1986.
- 김춘미, 『서양음악문화사 강의』, 예종, 2005.
- 로베르 J. 저, 채현경·최재천 역, 『음악은 왜 우리를 사로잡는가』, 궁리, 1997.
- 문광훈, 『예술의 유토피아(아도르노의 문제의식)』, 세창출판사, 2024.
- 이해완, 『인공지능은 예술을 꿈꾸는가?』, SIGONGART, 2024.
- 전원경, 『예술, 역사를 만들다』, SIGONGSA, 2024.
- 최은아, 『한슬리크 음악미학의 철학적 배경』, 예술, 2011.
- 톨스토이 N. 저, 이강은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2024.
- Miller, Hugh M. & Dale Cockrell. *History of Western Music*, NY: Harper Perennial, 1991.
- Randel, Don. *The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 Salzman, Eric. *Twentieth Century Music*, Prentice Hall, 1988.
- Sadie, Stanley. *The Notron/Grove Concise Encyclopedia of Music*, NY: W·W·Norton & Company, 1994.
- Scholes, Percy A. *The Oxford Companion to Music*,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논문

- 강효진·한상은, 「최소주의와 최대주의 관점에서 음악사적 접근」, 『음악교육공학』 제62집, 2025.

신문기사

- 송은혜, “자신의 음악을 펼칠 만한곳을 찾아 평생을 떠돈 음악가, 에릭 사티”, 채널예스, 2021.03.19.

■ 국문초록

미(美)의 관념을 전제로 하는 예술은 작가의 독창적인 형식과 논리 그리고 고도의 기교로 구현된다. 예술은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아름다워야 하고 작가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로 감상자와 소통한다. 음악의 예술화는 악기가 발달하고 평균율이 상용화하고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소위 ‘예술 음악(Musical Arts)’의 시대라는 바로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본다. 음악이 학문적·예술적으로 체계화하면서 미학적 관점에서 ‘형식의 우수성’과 ‘사실적 재현(또는 모방)’으로 구분한다. 절대음악을 표방한 바로크와 고전주의 그리고 20세기의 신고전주의와 음렬주의는 ‘형식의 우수성’; 그리고 낭만주의의 표제음악, 20세기의 인상주의와 표현주의는 ‘사실적 재현(또는 모방)’이 미학적 근간이다. 형식적 우수성의 미학은 신(神)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개입되고 관념의 기준은 형이상학, 즉 진·선·미로, 조화와 균형과 품위가 절대적인 표준이었다. 사실적 재현(모방)의 미학은 형이하학적(또는 경험적) 요소인 개인적 취향과 쾌(快)였다. 음악사에서 대중화는 대중적 요소를 통한 작곡 기법, 실용 목적의 작곡, 사회적 현상, 대중의 직접적인 음악 행위 참여, 그리고 최소주의 음악(minimal music)과 전자 음악(electronic music) 등에 의해 실현되었다. 형이상학에서 형이하학으로 미학적 스펙트럼의 확장은 음악의 이분화가 아닌 역사를 통한 균형의 역학이 작용했다.

주제어 ● 고전음악, 예술 음악, 음악사

■ Abstract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Artification and Popularization of Music

Kang, Hyojin /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rt that presupposes the concept of beauty is realized through the artist's original form and logic, as well as high-level technique. Art (in its traditional concept) must be beautiful and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message the artist intends to convey. The artification of music is considered to have begun in earnest from the Baroque period, the era of so-called 'Musical Arts,' when instruments developed, equal temperament became common, and an academic system was established. As music became academically and artistically systematized, it was divided from an aesthetic perspective into 'excellence of form' and 'factual representation (or imitation).' The Baroque and Classical periods, which advocated absolute music, and the Neoclassicism and Serialism of the 20th century, have 'excellence of form' as their aesthetic foundation, while the program music of the Romantic era and the Impressionism and Expressionism of the 20th century are based on 'factual representation (or imitation).' The aesthetics of formal excellence involve the intervention of an absolute being, God, and the criteria of concepts are metaphysics, namely truth, goodness, and beauty, with harmony, balance, and dignity being absolute standards. The aesthetics of factual representation (imitation) were based on the metaphysical (or empirical) elements of personal taste and pleasure. In music history, popularization has been realized through compositional techniques incorporating popular elements, composition for practical purposes, social phenomena,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musical activities, and through minimal music and electronic music. The expansion of the aesthetic spectrum from metaphysics to physics did not lead to the dichotomy of music but rather a dynamic of balance throughout history.

Keyword • Classical Music, Art Music, Music History

■ 논문투고일:2025.05.13. ■ 심사완료일:2025.06.30. ■ 게재확정일:2025.07.07. ■

신중국 문예정책에 따른 조선족 부채춤 작품의 양상 연구

김 천 수 · 이 주 희*

목 차

1. 서론
2. 신중국의 문예정책
3. 중국 조선족 부채춤의 형성 배경
4. 신중국 문예정책에 의한 중국 조선족 부채춤의 창작 양상
5. 결론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49년 신중국의 수립과 함께 중국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들어섰다. 이후 중국 정부는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수민족의 전면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민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은 각 민족 문화의 전승과 혁신을 촉진시켰으며, 조선족 무용이 새로운 역사적 발전 단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 김천수(제1저자) 중앙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무용학 박사수로
이주희(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공연예술창작학부 무용전공 교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은 ‘마오쩌둥 문예사상’을 전국 문예 노동자의 지도 이념으로 확립하였다. 이 사상은 예술은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특히 노동자·농민·군인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문예 창작은 인민의 투쟁과 현실 삶을 깊이 있게 반영하고, 혁명 의식을 전파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1978년 12월 18일,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집중하며 ‘개혁개방’ 전략을 처음 제시해 중국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렸다.¹⁾ 개혁개방의 시행은 중국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예술 분야 역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단일 이데올로기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원화 시장화 민족문화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발전 양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인 조선족 또한 사회 구조 조정의 영향으로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 방식에 뚜렷하게 변화하였다. 중국 조선족은 한반도에서 이주해 온 소수민족으로, 중국 사회와의 장기간에 걸친 교류와 융합 속에서 뚜렷한 특징을 지닌 민족문화를 점차 형성해왔다. 그 중에서도 춤은 조선족 문화의 중요한 표현 방식으로서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보여준다.²⁾ 조선 민족의 이주와 함께 손뽕춤, 학춤, 농악무, 부채춤, 장구춤 등 이러한 전통춤들은 조선족의 미적 의식과 민족적 성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창조되었다. 많은 전통 무용 중에서 부채춤은 독특한 조형미와 뛰어난 표현력으로 잘 알려져 있다.³⁾ 처음 중국에 전해진 부채춤은 단일

1) 吳光祥, 「1978年以來歷屆黨的三中全會與改革開放」, 世紀風采, 2024, p.1.

2) 朴永光, 『中國朝鮮族舞蹈史』,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23, p.1.

3) 정영주, 「중국 조선민족 무용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43쪽.

부채춤과 쌍부채춤을 모두 포함하며, 통칭하여 ‘부채춤’이라 불렸다. 그러나 무용가 최승희가 중국에서 교류, 교육, 공연 활동을 펼치면서 쌍부채춤이 점차 주류 형식으로 정착하였으며, ‘부채춤’과 ‘쌍부채춤’의 명칭과 표현 형식 또한 점차 통합되어 학술계와 실천 현장에서 혼용되었다.

부채춤은 한국과 중국 조선족 사회 모두에서 전승되어 왔으며 유사한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양국의 사회 제도와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창작 방식, 전승 경로, 예술적 풍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에서는 김백봉의 부채춤이 ‘정통’ 유파로 통용되고 있다. 중국에서의 부채춤은 최승희의 무용 이념과 기타 외래 무용 형식의 영향을 받아 점차 근현대적 산물로 발전하였다.⁴⁾ 중국 조선족 부채춤은 중국 사회 환경의 변화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구현하는 특정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최승희가 제시한 “예술은 정치에 봉사해야 한다.”는 이념은 신중국 건국 초기의 이데올로기와 부합하였다.⁵⁾ 이는 정치 사회적 주제와 내용에 맞는 표현 형식으로 조선족 부채춤 작품이 창작되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중국과 한국의 부채춤이 발전하는 경로에 본질적인 차이를 낳게 하였다.

신중국 수립 이후 중국 조선족의 부채춤은 항일전쟁, 신중국 수립, 문화대혁명 등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를 거치며 여러 차례 형태적 변화를 겪었다. 당시 조선족의 춤 형식은 민족의 단결과 항쟁 정신을 보여주었으며, 민족 해방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⁶⁾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연변문학예술연합회는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예술가들에게 “사고를 해방하고,

4) 전성희, 「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부채춤 비교 연구」, 『민속연구』 38집, 2019, 231쪽.

5) 顧也文, 『舞蹈：朝鮮舞蹈家崔承喜』, 上海文娛出版社, 1951, p.32.

6) 高仙玉, 「中國朝鮮族舞蹈與韓國民族舞蹈比較研究」, 中央民族大學, 2011, p.19.

짐을 내려놓으며, 속박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창작하라”고 촉구하였다. 이어 덩샤오핑(鄧小平)은 “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예에 대한 지도는 사회 발전의 법칙을 존중하고 예술이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도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신 시기에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한다.”는 예술 문화 정책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문예 작품은 인민 대중의 다양한 정신적·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조선족 부채춤은 점차 정치 중심의 표현 형식에서 벗어나, 춤 교육의 보급과 체계화에 힘입어 예술성을 지닌 무대 예술로 전환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교류가 활성화되었고 부채춤 스타일 또한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2016년 연변대학교에서 창작한 조선족 부채춤 작품 <마음의 날개>는 의상, 소품, 음악 등에서 예술적 혁신을 이루었으며, 한국 부채춤 스타일과 비슷한 예술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중국 조선족 부채춤은 한국 부채춤의 형식과 기법을 일부 수용하면서 예술적 독립성과 문화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부채춤의 문화적 기원과 전파 경로를 둘러싼 한중 학계의 더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중국 조선족 부채춤의 기원과 문화적 배경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고 형성 논리와 예술적 변천 경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부채춤과 관련된 선행연구 천호정(2013), 김근혜(2020), 안병주(2005) 등은 김백봉 부채춤의 문화적 보존과 창작적 계승 등을 연구하였다. 중국의 박영광(1992), 김성연(2017), 박서경(2022) 등은 부채춤의 기원과 전승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궁중무·교방무·민속무로 유형화하여 특징을 고찰하였다. 원채빈(2025), 양림준(2021)은 외부 문화 수용 과정에서 정체성과 독립성의 균형 문제가 존재한다고 논한 바 있다. 연구를 분석한 결과,

신중국 문예정책의 영향으로 정치 사회의 영향에 의해 창작된 조선족 부채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신중국 문예정책에 의한 중국 조선족 부채춤 작품의 변화 양상을 연구하고 예술 형식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 중 문화 교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향후 예술 창작과 국가 간 문화 교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을 기대한다.

2. 신중국의 문예정책

중국의 문예정책은 국가 문화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신중국 수립 이래 깊은 변화와 발전을 겪어왔다.⁷⁾ 초기 문예정책은 문예가 국가의 정치 목표를 지원해야 하며, 특히 사회의 계급 투쟁과 혁명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방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예술 스타일과 견해가 공존하도록 장려한다는 의미이다.⁸⁾ 이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의 실정을 반영하여 마르크스주의 문예 이론을 혁신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문예 발전에 더 큰 공간을 열어 주었으며 중국 문예 정책의 기초를 다지고 후속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1966년부터 10년간에 걸친 문화대혁명은 문예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정상적인 문예 창작 활동이 대량으로 금지되었고, 조선족 무용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사문사화(破四舊)’ 운동으로서 구사상, 구풍속, 구습관, 구문화를 타파하는 해당 운동은 이 시기 조선족의 민족의식, 문화 전통 및 풍습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부채춤은 봉건 미신의 표현 형태로

7) 王賢, 「新中國成立以來黨的文藝政策的歷史演變及啟示研究」, 西南石油大學, 2016, p.1.

8) 譚好哲, 任曉菲, 「中國共產黨百年文藝政策與文化領導權建設」,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21, p.14.

간주되어, 그 예술적 가치와 심미적 기능이 무시되거나 부정되었고, 전승과 창작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또한 조선족 전통무용의 발전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8년 12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중국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전면적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발전의 중심을 경제 건설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오랜 기간 계급투쟁을 핵심으로 삼았던 사고방식을 종식시키며 경제 발전과 현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시기를 열었다.⁹⁾ 개혁개방 이후, 문예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을 겪었으며, 국가는 점차 문예 창작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문예가 현실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며 경제 건설과 국민의 정신문화적 요구에 봉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문예가 “인민을 위해,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문예 혁신과 다양성 발전을 장려하였다.¹⁰⁾ 이러한 정책 조정은 문화 창작의 활력을 크게 불러일으켰으며, 각 민족 문화의 전승과 혁신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였다.

개혁개방 정책은 민족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문화의 변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민족 언어의 보호, 문화 발전 장려, 전통 계승을 통해 조선족 문화는 전면적인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11)

사회 구조와 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1980년, 덩샤오핑은 “문예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문예 작업 방침을 제시하였다.¹²⁾

9) 毛勝, 「中國改革開放的歷史過程及其世界影響」, 中國井岡山幹部學院學報, 2024, p.39.

10) 李曉歡, 「從管理到治理」, 南昌大學, 2020, pp.13-14.

11) 高仙玉, op. cit., p.45.

12) 薛景, 「改革開放以來我國文化體制改革研究」, 齊魯工業大學, 2024, p.21.

정책의 유도와 사회 전환이라는 두 가지 추진력 속에서, 중국 내 조선족은 교육, 미디어,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조선족의 공연 예술 형식은 점차 국가 문화 건설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았다. 조선족 부채춤도 이 시기에 발전을 이루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신중국 수립 초기의 문예 정책은 문예가 정치와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조선족 춤의 발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 조선족 예술가들은 주로 혁명 정신과 사회주의 가치를 고양하는 데 주력하였고, 전통 무용은 정책의 지도 아래 정리되고 재구성되어 시대정신을 보다 많이 반영하게 되었다.

개혁개방에 들어서면서 문예 정책은 점차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문예 창작이 장려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족 춤 역시 더 큰 발전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전통문화의 뿌리를 유지하면서도 현대 예술 요소를 융합하여 예술성과 전문성을 갖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신중국 문예 정책의 연장이자 개혁개방 문예 정책의 성공적인 실현이라 할 수 있으며, 시대 발전의 요구에도 부응하였다. 이와 같은 문예 정책의 발전과 변화는 조선족 부채춤 등 전통 무용예술에 추진력을 부여하며,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중국 조선족 부채춤의 형성 배경



[그림 1] 두만강과 압록강 위치¹³⁾

1860년부터 1869년 사이에 조선반도 북부는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었고, 일부 조선인들은 생계를 위해 두만강과 압록강[그림 1]을 넘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하였다.¹⁴⁾ 당시 중국 조선 양국 모두 봉쇄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지만, 조선족의 이주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그 후 약 1세기에 걸친 여러 차례의 이주와 이동을 통해 조선족은 중국 동북 지역에 정착하였으며, 독특한 민족 문화적 특성을 지닌 집단으로 형성되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1952년에는 조선족이

13) 조선멤버스, https://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04/20240904000006.html, 2025.05.20.

14) 郑升权, 「中國朝鮮族：從朝鮮移民到中國公民」, 延邊大學, 2008, p.3.

집단 거주하던 연변 지역에 조선족 자치구가 설립되었고, 1955년에는 연변 조선족자치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족은 중국의 공식 소수 민족으로 인정받았으며, 연변 지역에서의 자치권도 부여받게 되었다.¹⁵⁾

조선족의 이주와 더불어 그들의 민족 문화도 점차 중국으로 전파되었다. 당시의 조선 전통 무용 또한 이주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졌으며 민속무용과 일부 궁중무용 그리고 종교무용이 포함되었다.¹⁶⁾ 이주 후, 궁중무용과 종교무용은 점차 민간화 되었고, 민속무용과 융합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대중적인 형식으로 지역 사회에 스며들었다.

부채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조선족 초기의 부채춤은 오늘날의 형태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당시에는 부채를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춤을 ‘부채춤’이라 통칭하였으며, 주로 민간 행사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승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조선족의 부채춤은 체계화되고 예술성과 무대성을 갖춘 춤 형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 발전 과정에서 부채의 기능과 상징적 의미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1920년대에 전통 궁중무용과 민속무용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신무용이 한반도에서 등장하였다. 일부 예술가들은 이러한 ‘신무용’을 무대 예술로 발전시켜 극장에 올려 중국 순회공연을 하기도 하였다.¹⁷⁾ 이때 최승희는 1940~50년대에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공연, 창작 및 교육 활동을 펼쳤으며, 중국 관객들에게 조선무용의 예술적인 매력을 처음으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조선족 무용의 전파와 발전에 기초를 마련하였다.

1942년 8월, 최승희는 길림에서 칼춤, 부채춤, 사탕춤 등 작품을 공연

15) 강수옥, 「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 『디아스포라 연구』 7권 1호, 2013, 90쪽.

16) 王霖, 「中國朝鮮族新生態民俗舞蹈研究」, 延邊大學, 2014, p.13.

17) 朴永光, op. cit., p.25.

하였다.¹⁸⁾ 이 중 부채춤은 사용된 부채가 단순 부채인지 쌍부채인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이 시기를 중국 무대에 ‘부채춤’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중요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춤의 형식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부채’가 표현 도구로서 조선 예술가에 의해 처음 중국에 도입되어 공개 공연된 것은 중국 조선족 문화 체계에서 ‘부채춤’ 개념이 초기 형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44년 최승희는 중국에서 ‘동방무용연구소’를 설립하고 부채춤의 교육과 창작이 점차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최승희의 중국 제자인 이경자¹⁹⁾의 회고에 따르면, “그녀는 해당 연구소에서 오늘날 거의 동일한 형태의 부채춤을 배운 바 있다.”²⁰⁾ 비록 이러한 회고가 직접적인 문헌 자료로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중국 내 부채춤의 초기 교육 실천에 관한 중요한 구술 자료라 하겠다. 1948년, 최승희는 딸 안성희를 위해 무대 작품으로서의 부채춤을 정식으로 창작하였다. 이 작품은 구조, 동작, 미학적 양식 면에서 점차 성숙해졌으며, 이후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부채춤의 기원 및 창작 귀속 문제에 대해서는 학계 내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최승희 버전의 부채춤이 비교적 명확한 창작 계보와 초연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학계 일부에서는 김백봉이 1947년 이미 최승희의 무당춤에서 사용된 부채 도구에 영감을 받아 유사한 형태의 춤을 구상하였으며,²¹⁾ 1953년 자신의 무용 발표회에서 독

18) 金钟国、金昌浩、金山德：「中国朝鲜族文化活动」，民族出版社，1993，293쪽

19) 이경자는 1928년생으로, 최승희의 제자이다. 1948년 광주여자중학교에 재직하면서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경자무용연구소’를 설립하여 학생들에게 신무용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였다.

20) 신명숙, 「20세기 부채춤의 유형 및 특징 연구: 최승희, 김백봉, 장금도, 조선족의 부채춤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55호, 2019, 183-184쪽.

21) 안병주, 「김백봉<부채춤>의 구성원리 및 미적 특성」,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004, 1

무 형식으로 이를 무대에 올렸 다는 회고도 존재한다.

오늘날 한국 학계에서는 김백봉의 부채춤이 정통 계보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적 순서와 활동 범위를 고려할 때, 최승희는 중국에서 더욱 활발하게 창작 및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녀의 무용 스타일 또한 김백봉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중국 조선족의 부채춤은 오히려 최승희가 중국에서 구축한 교육 체계와 공연 형식을 주로 계승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손 부채춤은 전시 문화 공연을 통해 중국 조선족 집단 내에서 더욱 확산되었다. 1951년, 최승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연구반을 개설하였으며(이 연구반은 1952년에 1년간 운영 후 종료), 부채춤은 중국 조선족 사회 내에서 더 활발히 전파되었다. 1953년에는 최승희가 한국 강원도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위해 부채춤을 공연하였다(그림 2). 이 공연에서 사용된 부채는 전통적인 종이 재질에서 견고한 천 재질로 변경되었으며, 부채 골대 수는 38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다. 쌍부채의 표현 양식도 함께 등장하였다. 이러한 개량은 공기 저항을 줄이고 무용수들이 더욱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정으로 추정되며, 전통 부채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²²⁾

22) 신명숙, 앞의 논문, 185쪽.



[그림 2] 1953년 강원도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위해 <부채춤>²³⁾

비록 이 예술제가 중국에서 열린 것은 아니지만, 연구반 운영 시기와 무용 도구의 변화, 중국 내 이후 관련 작품들의 창작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개량된 부채춤 형태는 연구반 기간에 이미 초기 정형이 이루어졌으며, 실용성으로 인해 인정받아 계속 사용되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승희는 중국에서 무용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박영원(연변예술학원 창립자 중 한 명), 최미선(중앙가무단 무용예술가), 최금성(동방가무단 무용예술가), 김예화(연변예술학원 교수) 등 다수의 뛰어난 조선족 무용 교육자와 예술가를 양성하였다. 이들은 최승희가 확립한 부채춤 교재 체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조선족 부채춤의 전승과 혁신을 촉진하였으며, 부채춤은 점차 중국 조선족을 대표하는 민족 무용 형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동시에 중한 양국의 부채춤은 점차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며 각기 독특한 스타일과 특성을 형성하였다.

4. 신중국 문예정책에 의한 중국 조선족 부채춤의 창작 양상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문화대혁명 시기에 걸쳐 조선족 부채춤은 정치 선전 기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 조선족 부채춤은 단순한 공연

23) 『무용가 최승희 사진전: 도약 그리고 펼침』(서울: 수림문화재단, 2016).

형식에 그치지 않고, 사회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노동 열정을 고취시키며, 집단주의 정신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문화 예술 창작은 시대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문예 형식과 정치적 방향 사이에 일치된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 부채춤은 정치 선전 성격의 공연 형식에서 벗어나, 예술적 표현과 스타일의 다양성을 더욱 중시하며 발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 발전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조선족 문화의 혁신적 발전을 이루었다.

또한 연변문학예술가연합회 제2기 제3차 회의에서는 “사고를 자유롭게 대담하게 창작하자”는 문예 방향이 제시되었고, 조선족 무용가들은 이러한 정책에 부응한 사회 변화와 민중의 사상 감정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창작해 나갔다.

한편, 1951년 최승희가 중국 베이징에서 연구반을 개설 이후 학습이나 공연을 통한 부채춤 작품들은 거의 모두 ‘쌍부채춤’을 주요 내용과 형태로 삼았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 부채춤도 점차 ‘쌍부채춤’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정형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쌍부채춤’과 ‘부채춤’이라는 두 가지 용어가 서로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부채춤이 점차 다양하고 창의적인 예술적 양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1) 정치적 도구로서의 부채춤

1960년대 초반 중국의 문화 정책은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이념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며, 춤은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존경을 표현하는 중요한 예술적 도구로 활용되었다. 1961년에 창작된 작품 <향양화 태양을 따르다>(葵花向阳)[그림 3]는 집단주의를 표현하였다, 그 형식과 내용이 당시 사회·정치적 배경과 긴밀하게 결합되었다.



[그림 3] 무용극 <동방홍>의 서막 <향양화 태양을 따르다>²⁴⁾

70명의 여성 무용수로 구성된 이 작품은 해바라기를 모티프로 한 집단 무로, 전형적인 ‘마스게임’²⁵⁾ 형식을 따른다. 동작과 배열의 유기적인 변화는 집단주의적 가치와 진취적인 사회주의 정신을 시각적으로 표상하며, 전체적인 구성은 대칭성과 질서를 통해 공동체의 조직화된 단결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반주 음악으로는 사회주의 건설 내용을 담은 중국의 정치가요인 「동방홍」²⁶⁾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 조선족 부채춤의 구조와 주제는 강한 집단주의적 예술 표현을 담고 있으며,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 창작된 당시 문예 정책의 미학적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작품 <향양화 태양을 따르다>²⁷⁾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예술 창작의 정치적 기능 또한 잘 나타내 역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조선족의 뛰어난 예술적 감수성을 잘 표현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²⁸⁾

24) Baidu, <https://www.baidu.com>, 2025.05.20.

25) 마스게임(Mass Game)은 주로 군중체조, 집단체조 등 대규모 군중 집단 공연을 의미한다. 동작의 일치성과 집단 협력을 강조하며, 정치적 또는 이념적 선전을 보여주는 데 자주 활용된다.

26) 「동방홍」 가사에는 “동방이 붉게 물들고 태양이 떠오르니, 중국에 마오쩌둥이 나타났네, 그는 인민의 위대한 구세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7) 이인순은 1952년 최승희 무용 연구반을 졸업한 후, 베이징 중앙무용단과 동방무용단에서 상임 연출가로 활동하며 중국 조선족 무용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창작에서 전통 조선족 부채춤의 스타일을 계승하면서도, 사회주의 현실주의 요소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스타일을 형성했다.

28) 신명숙, 앞의 논문, 202쪽.

1966년부터 1976년에 걸친 문화대혁명 동안에는, 주로 영웅적 인물, 민족 단결, 인민 대중이 주제로 다루어지면서, 전통적인 민족 예술 형식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외에도 많은 무용 형식과 음악 작품들이 일시적으로 금지되었고 예술가들은 큰 정치적 압박을 받았다. 부채춤 또한 ‘구문화’로 비판받게 되면서 조선족의 민족적 자주성과 전통 문화는 더욱 약화되었다.

이 당시의 표현예술이란 사인방(四人幫)²⁹⁾에 의해 주도된 ‘모범극(樣板戲)’ 형식이었다. ‘모범극’이란 혁명 영웅과 프롤레타리아 사상을 찬양함으로써 정치 선전을 강화하려는 연극 형태로, 특정 주제와 내용을 엄격히 따르며 주로 노동자, 농민, 군인의 영웅 이야기 등의 형식이다. 조선족 부채춤 역시 예술 창작의 자유가 억제되었고, 인물을 찬양하고 모방하는 모범극 형식으로 공연할 것을 강요받았다.

高仙玉(2011) 연구에서 제시되어 있는 ‘모범극’ 작품으로는 1972년 윤자청의 창작 작품 <홍매화를 노래하다>(紅梅頌), 1972년 최옥서의 <간수원>(看水員), 1973년 강현주의 <부채춤>, 1976년 허명월의 <홍운>(紅雲) 등이 있다.³⁰⁾ 1976년에 창작된 <홍운>³¹⁾ [그림 4]에는 부채로 꽃 모양을 만들고 그 중앙에 중국 지도자인 주은래(周恩來) 총리 사진을 장식하여 혁명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찬양하는 상징적인 안무를 하였다. 이 작품은 당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부합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강한 감정적 공감을 주었다.

29) 사인방: 주요 구성원은 강청(江青), 왕홍문(王洪文), 장춘차오(張春橋), 야오원위안(姚文元)이다. 사인방은 많은 극단적인 정치적 행동을 추진했으며, 그 예로는 지식인을 억압하고, 문예계를 타격하며, 전통 문화를 파괴한 것 등이 있다.

30) 高仙玉, op. cit., p.39.

31) 허명월은 1935년에 태어났으며, 조선족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으로, 1936년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였고 1951년 중국희극학원 최승희 연구반에 입학하였다. 대표작인 부채춤 <홍운>은 광저우 교역회에서 처음 공개되었고, 다양한 간행물에 실렸을 뿐 아니라 국내외에서 폭넓은 호평과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모범극’의 창작 이념을 배경으로 한 영웅 인물의 형상화, 집단주의 정신의 구현, 예술의 정치적 봉사라는 창작 원칙을 강조하였다. 또한 작품의 대형 구성 및 변화와 통일된 리듬과 박자는 집단의 엄숙함과 혁명적인 분위기를 나타냈다. <홍운>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문예가 담당한 정치적 기능과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림 4] <홍운>³²⁾

신중국 수립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조선족 부채춤의 예술 창작은 많은 정치적·사회적 제약을 받았으며, 작품은 집단 단위로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였다. 그 내용은 공산당에 대한 충성과 혁명 정신을 찬양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예술적 표현은 크게 단순화되고 억제되었다. 원래의 예술적 특색은 거의 사라졌으며, 무용의 형식과 내용은 이념 전달에 치우쳤고, 무용 자체의 표현력과 문화적 내포는 소홀히 여겨졌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정치 선전의 도구로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예술적 가치와 창의성은 크게 제한되었다. 당시의 부채춤은 단순한 전통이 아닌 사회주의 리얼리즘 예술 이념을 결합하여 시대를 담은 무용 예술 형식 창조를 그 특징으로 볼 수 있다.

32)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예술사』, 서울대학교출판부, 319쪽.

2) 문화 및 교육 체계 변화에 의한 부채춤의 예술적 표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가 발전을 위해,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전략을 확립하고 정치 이데올로기에서 현실 경제 건설로 전환되었다. 문예 창작 분야도 정치적 내용에서 점차 벗어나, 노동과 생산 등 현실 생활이 드러나는 표현양식으로 변화되었다. 1980년대부터는 중국 전역에 걸쳐 ‘민족 뿌리 찾기’라는 문화적 조류가 일어났으며, 예술 창작은 민족적 특색을 지닌 표현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³³⁾ 조선족의 민족 문화 역시 정치적 목적의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생활 현실과 문화적 가치를 탐구하는 예술적 시도로 전환되었다.

1978년에 창작된 <농사 관리자>[그림 5]은 경제 건설 중심의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추어진 부채춤은, 여성 무용수가 중심이던 부채춤의 전통을 깨고 남성 무용수를 등장시켜 전통적인 창작 방식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농사관리원³⁴⁾이라는 역할로 등장하는 남성 무용수는, 당시 경제 건설이 중심이 되면서 부각된 남성사회를 과장되고 유머러스하게 표현되었다. 이는 개혁개방 이전의 정치적 색채가 강한 춤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에는 국가가 노동과 경제 발전을 핵심 정책을 반영한 내용과 문화 정책의 영향으로 부채춤에도 예술적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³⁵⁾

33) 高仙玉, op. cit., p.46.

34) 농사관리원은 농업 생산 활동 전반을 기획·감독·조정하는 행정적 혹은 관리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로, 일반적인 농업 노동자와는 구별된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집단농장(예: 인민공사) 또는 협동농장의 생산 관리를 책임지는 간부 혹은 책임자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35)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앞의 책, 327-328쪽.



[그림 5] <농사 관리자>³⁶⁾

개혁개방 이후 무용 교육 체계도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했다. 연변예술학원은 중국 조선족 무용 교육의 중요한 기지로서 최초 먼저 교육 과정 구조의 체계화를 시작했다. 이 시기에 조선족 부채춤도 교육 교재에 포함되어 발전과 개선을 이루었다. 조선족 부채춤 교육 교재는 신중국 초기에 최승희의 부채춤 기본 동작³⁷⁾을 정리한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최승희의 『조선족 민족무용 기본』를 참고한 교재로 김영화³⁸⁾의 『조선족 무용 ‘소도구’ 연구』, 이금순³⁹⁾의 『조선족 민간무용 기본』, 최금성⁴⁰⁾의 『조선족 민간무용

36)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앞의 책, 327쪽.

37) 최승희 부채춤의 대표적인 기본 동작

①부채를 돌리는 동작: 펼쳐서 돌리기, 마주 보며 돌리기, 반대로 돌리기, 위에서 돌려 감기, 앞으로 당겨 감기 등 포함. ②부채 눕히는 동작: 부채를 눕혀 돌리는 동작으로, 내밀어 눕히기, 어깨 위에 눕히기, 모아 눕히기, 위에서 모아 눕히기 등이 있음. ③부채 접고 펴는 동작: 접는 동작과 펴는 동작을 포함하며, 펴는 동작은 아래로 펴기, 비껴 펴기, 세워 펴기, 마주 보며 올려 펴기, 앉아 돌며 펴기, 활짝 펴기 등으로 세분됨. ④부채 떨리는 동작: 세워 떨기, 늘어뜨려 떨기, 접혀 눕혀 떨기, 눕혀 엮어 떨기, 눕혀 내밀며 떨기 등이 포함됨.

38) 김영화: 1973년 길림성 도문시 출생, 1986년 연변예술학교 무용과에 입학하였으며, 1999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서로는 『조선족 전통무용 소도구 무용 기본 교재』 등이 있다.

39) 이금순: 연변대학 초대 졸업생으로 1961년에 졸업하였으며, 『조선족 민족무용 기본』을 편찬·출판하였고, 『조선족 무용 교육 강령』 등의 편찬 및 수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40) 최금성: 1932년 3월 15일 출생, 1957년 연변대학 예술학교에 배치되어 조선족 민족무용 기본기와 조선족 민족무용을 주로 가르쳤으며, 1997년에 『중국 민족 민족무용 집성 길림 권』을 출판하면서 <부채춤> 등 자료를 집필하였다.

집성』가 대표적이다. 교재의 내용으로는 조선족 무용의 변천 과정과 대표적인 무용 동작 요소, 그리고 전통 무용 소도구의 동작 특징과 기본 사용법을 연구·정리·종합하여 독립적인 기본 훈련 체계 등을 담고 있다. 이상의 교재는 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걸쳐 비교적 완성도 높은 기법 체계와 교육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조선족 무용의 창작도 전통을 기반으로 한 다원화 형태와 현대화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정치, 경제 체제와 사회 개방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중국 조선족과 한국 간의 예술 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사회 개방 정책으로 인한 한중교류는 유학생 파견, 위문 공연 초청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99년에는 김백봉 교수가 연변대학교 무용학과에서 부채춤을 주제로 학술 강연을 개최하여 자신의 독특한 부채춤 스타일을 소개하였다.⁴¹⁾ 한국 부채춤은 예술적 형태미와 특징, 한국 전통 무용의 부드러운 곡선과 태극선의 부채 형태를 접목하여 ‘느림과 절제의 미’를 가지는 반면, 중국 조선족의 부채춤은 경쾌하고 민첩한 리듬감이 강한 동작 스타일과 표현력을 가지며, 한족, 발레, 현대무용 등의 다양한 무용 문화의 영향을 받아 문화 간 융합된 무용 스타일을 나타낸다.⁴²⁾

김백봉 교수의 교류를 통해 한국 부채춤의 매력을 소개함과 동시에 중국 조선족이 해당 무용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중한 민족 무용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고 양국이 민족무용의 전승과 혁신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무용은 점차 연변예술학교의 조선족 무용 교육과 창작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조선족 무용 교육에 한국 민속

41) 高仙玉, op. cit., p.156.

42) 전성희, 앞의 논문, 223쪽.

무용 요소가 도입되면서, 조선족 부채춤도 외래 무용 예술의 기법과 표현 방식을 받아들여 전통적 틀 안에서 현대적 창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6] <마음의 날개>⁴³⁾

2016년, 김해김⁴⁴⁾ 교수에 의해 창작된 <마음의 날개>[그림 6]는 최승희 부채춤을 기반으로 창작된 무용작품이다. 이 작품은 길상(吉祥)의 의미를 상징하는 ‘선학 동작’(仙鶴動作)을 융합하고,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정신성과 미학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자연미와 감정을 담아내는 한국 부채춤의 창작 기법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스타일은 동양 고전의 기품이 넘치는 우아함과 아름다움,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을 중시하는 동양 미학을 추구한다. 의상과 무용 동작 스타일 반주음악 등, 한국 전통 무용의 영향이 반영된 작품이라 하겠다.

또한 <마음의 날개>는 중국 조선족 연변대학에서 무용 교육 수업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무용 기량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중한 양국의 무용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⁵⁾ 특히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한국 전통무용이 중시하는 ‘부드러움 속의 고요함’(柔中

43) Bilibili, <https://b23.tv/ZG2QRij>. 2018.10.16.

44) 김해금은 연변대학교 예술학원 무용학과의 강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무용 경험을 작품에 반영하였다. 대표 작품으로는 연변대학교 예술학원 학생들이 공연한 <마음의 날개>가 있다.

45) 李婷, 「新时代朝鲜族舞蹈传播方式研究」, 延邊大學, 2021, p.19.

帶靜)과 ‘고요함 속의 움직임’(靜中有動)이라는 동양 미학의 핵심 개념을 습득한다. 이러한 미학적 원리는 절제된 움직임과 내면의 감정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식으로, 한국 무용 특유의 정서적 깊이와 예술적 표현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2000년대 이후 중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중국 조선족 부채춤의 스타일에도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더 많은 중국 학생들이 유학과 연수 등을 통해 한국 무용 스타일과 창작 이념을 깊이 학습하고, 중국 조선족 부채춤의 형식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화 간 예술 교류는 조선족 부채춤의 표현 양식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창의적 계승에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불어넣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신중국 문예정책에 의한 중국 조선족 부채춤 작품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그 발전 과정, 예술적 특성, 문화 교류 및 창작 실천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선족 부채춤의 표현 형식과 예술적 스타일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천해 왔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예술 창작 및 국가 간 문화 교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 조선족 부채춤은 신중국의 문예 정책에 따라 정치 선전 도구에서 예술적 표현 형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인다.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부터 문화대혁명 시기까지 조선족 부채춤은 국가 주도의 민족문화 체계에 포함되어, 주로 사회주의 이념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범극형식으로 활용되었으며, 작품 <붉은구름> 을 통해 잘 나타난다. 또한 모범극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부채춤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으로 <양화 태양을 따르다>를 사례로 들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문예 정책이 점차 유연해지고 표현의 폭이 넓어지면서, 부채춤은 정치적인 틀에서 벗어나 조선족 고유의 특성과 예술적 아름다움을 살린 무대 예술로 변화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선족 무용은 주제 선택, 무대 구성, 동작 표현 등에서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부채춤 역시 다양한 형식과 내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족 부채춤이 과거의 '정치 중심의 무용'에서 벗어나 '예술 중심의 무용'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고, 민족 문화를 표현하는 독립된 예술 장르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만들었다. 작품 <농사 관리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한중 수교의 진전과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중국 조선족과 한국의 민족무용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 중국 조선족 부채춤은 한국 부채춤의 의상 및 춤사위 등이 점차적으로 흡수하고 창의적이고 예술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 교류-실천 경험-예술 재창작'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한 한중 문화 교류의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단지 정책, 시대적 배경,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 교류를 통해 형성된 연계성과 창의성 또한 보여준다.

개혁개방 이후 문예정책에 의해 조선족 부채춤은 표현 형식과 예술적 기능에서 뚜렷한 변화를 겪었으며, 이는 그 예술적 생명력의 향상과 문화적 가치의 심화를 의미한다. 또한 국제무대가 활성화되면서 '민족 뿌리 찾기' 예술 창작이 시작되었고, 민족 특색을 살린 표현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부채춤 작품과 교육의 재건을 촉진하였다.

본 연구가 중국 조선족 부채춤의 발전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이문화 교류, 민족 예술 연구 및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해연구자와 실천가에게도 일정한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예술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顧也文, 『舞蹈:朝鮮舞蹈家崔承喜』, 上海文娛出版社, 1951.
金鐘國·金昌浩·金山德: 『中國朝鮮族文化活動』, 民族出版社, 1993.
朴永光, 『中國朝鮮族舞蹈史』,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23.

논문

- 강수옥, 「중국 조선족의 역사적 형성과 정체성」, 『디아스포라 연구』 7권 1호, 2013, 89-101쪽.
신명숙, 「20세기 부채춤의 유형 및 특징 연구: 최승희, 김백봉, 장금도, 조선족의 부채춤을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55호, 2019, 179-212쪽.
안병주, 「김백봉<부채춤>의 구성원리 및 미적 특성」,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8권 2호, 2004, 161-185쪽.
전성희, 「한국과 중국 조선족의 부채춤 비교 연구」, 『민속연구』 38집, 2019, 201-238쪽.
정영주, 「중국 조선민족 무용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高仙玉, 「中國朝鮮族舞蹈與韓國民族舞蹈比較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11.
李 婷, 「新时代朝鮮族舞蹈傳播方式研究」,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21.
李曉歡, 「從管理到治理」, 南昌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毛勝, 「中國改革開放的歷史過程及其世界影響」, 『中國井岡山幹部學院學報』, vol. 17, no. 4, 2024, pp.39-49.
譚好哲·任曉菲, 「中國共產黨百年文藝政策與文化領導權建設」, 『山東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no. 6, 2021, pp.1-13.
王 霖, 「中國朝鮮族新生態民俗舞蹈研究」,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王 賢, 「新中國成立以來黨的文藝政策的歷史演變及啟示研究」, 西南石油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吳光祥, 「1978年以來歷屆黨的三中全會與改革開放」, 『世紀風采』, no. 12, 2024, p.17-22.

薛 景, 「改革開放以來我國文化體制改革研究」, 齊魯工業大學 碩士學位論文, 2024.

郑升权, 「中國朝鮮族:從朝鮮移民到中國公民」,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08.

인터넷 사이트

조선멤버스, https://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04/2024090400006.html, 2025.05.20.

Baidu -홈페이지, <https://www.baidu.com>, 2025.05.20.

Bilibili -영상 페이지, <https://b23.tv/ZG2QRij> 2018.10.16.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중국 문예정책에 따라 변화한 중국 조선족 부채춤의 표현 형식과 예술적 양상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치 선전 도구로 활용된 부채춤의 예술적 전환과 문화 교류에 대한 통합적 분석이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자료와 대표 작품을 통해 정치 중심의 무용에서 예술 중심의 무용으로 변화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선족 부채춤은 개혁개방 이후 민족성과 창의성을 반영하며 무대예술로 발전하였고, 한중 문화 교류 속에서 새로운 예술적 양식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족 부채춤의 예술적 가치와 발전 논리를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민족예술 연구와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신중국 문예정책, 개혁개방, 중국 조선족, 부채춤 변화 양상,
정치·사회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Korean Chinese Fan Dance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Up

Quan-xiu kim / Chung-Ang University

Ju-hee Lee /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expressive form and artistic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Chinese fan dance under the cultural and artist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vious studies have insufficiently analyzed the artistic transformation of the fan dance and its role in cultural exchange, especially when used as a tool for political propagand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fan dance evolved from a politically centered performance to an artistically driven one, based on policy documents and representative works. The findings show that,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the Korean Chinese fan dance has reflected both ethnic identity and creativity, developing into a form of stage art. Moreover, it has formed new artistic styles through cultural exchang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By systematizing the artistic value and developmental logic of the Korean Chinese fan danc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future research on ethnic arts and related policy development.

Keyword • Cultural and Artistic Policie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Chinese Koreans, Patterns of Change in the Fan Dance, Politics and Society

■ 논문투고일:2025.05.31. ■ 심사완료일:2025.06.22. ■ 게재확정일:2025.07.14. ■

생성형 AI 기반 영상 미디어에 대한 수용자 주관성 연구

현 승 훈*

목 차

1. 연구 배경
2.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3.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4. 연구 방법
5. 연구 결과
6. 결론 및 제언

1. 연구 배경

기술 진보에 따른 인류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변화는 끊임없이 진보해 왔다. 단순한 구술 중심 문화서부터 활자, 전자 매체로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는 단순 정보 제공 방법을 넘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 구조, 정체성 그리고 사회 조직 등 인류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이러한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이라 정의하였다. 미디어의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세계와 관계를 맺는 인간의 인식 구조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그는 보았다. 이러한 변화의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AI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하

* 목원대학교 연극영화영상학부 교수

게 된다. AI는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아니다. 인간을 넘어선 지각과 판단 그리고 행동을 조율할 수 있는 고고화된 중개자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AI는 콘텐츠의 제작, 배급, 유통, 소비 등 전 영역에 있어 알고리즘의 자동화에 따라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제 콘텐츠는 인간에 의해 기획 제작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분석에 의해 예측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반응에 따라 감성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또한 인간은 이러한 플랫폼에 의해 사고, 감성, 행위 등 모든 것이 최적화 되고 있다. 이처럼 AI는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근본을 흔들고 동시에 미디어를 통한 시스템 작동 방법 그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자는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미디어 의존적 삶의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AI 기반 미디어의 중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알고리즘 중심성(algorithmic centrality)이다. 이는 다시 말해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해 오늘날의 수용자들이 대부분의 콘텐츠 정보를 소비하는 것이다. 자동 충전으로 익숙해진 유튜브, 피드 구성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개인화된 콘텐츠 큐레이션에 의해 작동하는 넷플릭스 영화 추천 시스템 등은 모두 이러한 알고리즘 방식에 의해 작동한다. 이제 알고리즘은 시청 시간, 위치 정보, 사용 빈도, 검색어 등의 소비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성향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구상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수용자의 ‘자율적 선택’을 모사하거나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수용자가 자신이 능동적 주체라고 ‘느끼게 만드는’ 점에 있다. 수용자는 알고리즘이 제시한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면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었다고 믿지만, 사실상 이는 기술 시스템에 의해 유도된 결정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주관성(subjectivity)은 더 이상 내면의 고유한 성질이나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 외부 기술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

고 변형되는 ‘생산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AI는 또한 수용자의 정서적 반응까지도 데이터로 환원하여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분석하려 한다. 수용자의 시선 방향, 마우스 움직임, 클릭 간격, 심지어 생체 신호까지도 감지하고 활용하는 감성 AI(Affective AI)의 발전은 인간 감정의 자동 해석 및 조작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즉, AI는 수용자의 인지-정서 시스템을 학습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설계하거나 광고를 배치하며, 심지어 인간의 기분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수용자의 생각과 주관적 감정, ‘자아감(selfhood)’까지도 시스템 외부의 예측 범위에 함께 포함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시 말해, 각각이 인간 주관성 분리와 경계 자체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체되고 있으며, 이는 인간 주체에 대한 개념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다시 한번 제고 해야 하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오늘날 인간은 기계와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또 학습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하이브리드 환경에 둘러 쌓여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AI 기술은 인간의 취향, 및 성향의 결정을 보조해 주는 도구를 넘어, 모든 인간의 결정과 판단의 전제와 그 기준 자체를 제시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주체성은 이제 더 이상 인간만의 내면적 자질로 설명되기 어려워지며, 기술과 함께 그 조건을 상호 구성적(co-constitutive)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동적 구조로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자율성 및 이성적 주체로의 인간 중심 철학에 대한 탈피이자 과감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제 주체는 인간 자신의 내면에서만 형성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 다시 말해 외부 시스템의 접촉과 데이터의 축적 및 흐름 그리고 알고리즘의 구성에 의해 구조화되는 존재가 된다. 인간

은 정보의 소비 주체가 아니라 정보의 소비 경로로 구성되는 하나의 노드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2.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AI의 등장은 기술 혁신의 단순한 수준을 넘어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인식 구조, 그리고 존재론적 조건 그 자체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AI가 매개하고 있는 미디어 주변 환경에서는 수용자의 지각과 감각, 행동과 선택 등이 알고리즘적 로직에 의해 지속적으로 분석, 추적되고 있으며, 결국 그 분석 결과에 기반한 맞춤형 인터페이스와 정보를 통해 수용자의 행동과 인식을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 안에 위치시키는 구조를 보인다.¹⁾ 알고리즘 구조는 수용자로부터 수용자의 반응과 선택이 스스로 ‘자율적’이라고 하는 환상을 갖게 만드는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²⁾

이러한 현상은 '생명정치(biopolitics)'와 '규율 권력(disciplinary power)'을 할하고 있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철학의 기술적 측면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³⁾ 이제 권력의 힘은 억압이 아니라 수용자 내면에 침투해 주체가 스스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그것의 핵심적인 매개로 알고리즘이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수용자는 여전히 스스로의 판단을 자신의 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AI 시스템에 의해 구성된 매카니즘적 흐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주관성은 그 독립성과 자율성을 점 점 상실해 나가게 되고

1) Zuboff, S.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New York: PublicAffairs, 2019.

2) Bucher, T. *If... Then: Algorithmic Power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3) Foucault, M.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Pantheon Books, 1977.

발전된 기술 환경에 더욱더 ‘정량화’되고 ‘내재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게 된다.⁴⁾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 환경은 전통적인 ‘주체성(subjectivity)’에 대한 개념을 위협한다. 근대 이후 합리적 이성에 기반을 둔 주체는 자율성의 존재로 여겨져 왔다.⁵⁾ 하지만 오늘날의 AI 기반 미디어에서는 수용자 주체성의 행동 경로가 통계적 예측으로 대체되고 감성적 데이터로 환원되며, 판단의 대부분의 기제가 알고리즘에 의해 설계되는 상황이 일상화된다.⁶⁾ 이로 인해 수용자의 감정과 욕망은 ‘선택된 것이 아니라 제안된 것’이 되고, 주체성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고 하기 보다는 알고리즘 데이터 패턴의 잔여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⁷⁾

AI 기술이 인간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수용자 주관성을 구성하는 조건들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미디어 이용자 연구는 수용자 분석의 틀 안에서, 메시지 해석의 다양성과 수용자의 능동성에 주목해 왔다. 특히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인코딩/디코딩 모델’은 수용자의 해석적 능동성을 강조하면서, 미디어 수용 과정을 능동적 실천의 영역으로 확장하였다.⁸⁾

그러나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환경에서 이러한 이론이 갖는 설명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수용자의 해석 주체성은 이미 알고리즘에 의해 사

4) Cheney-Lippold, J. *We Are Data: Algorithms and the Making of Our Digital Selves*, NYU Press, 2017.

5) Taylor, C.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6) Galloway, A. R.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MIT Press, 2006.

7) Rouvroy, A., Berns, T., & Carey-Libbrecht, L. “Algorithmic Governmentality and Prospects of Emancipation”, *Réseaux*, vol. 177, no. 1, La Découverte, 2013, pp.163-196.

8) Hall, S. “Encoding/decoding”, In *Culture, Media, Language*, S. Hall et al. eds. London: Routledge, 1980.

전 조건화되며,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은 점차 데이터 패턴으로 환원되고 있다.⁹⁾ 알고리즘은 개인의 선택을 ‘설계 가능한 변수’로 간주하며, 수용자의 주관성이 외재적 기술 논리에 따라 구조화되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및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문화연구적 수용자 이론을 AI 환경에 적합하게 재구성함으로써, 기술철학, 인지과학, 미디어 이론을 통합하는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한다.¹¹⁾ 특히 인간-기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주관성의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여, 현대 기술사회에서의 인간 정체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수용자들이 더 이상 단순한 콘텐츠 소비자’가 아니라, 알고리즘 시스템에 의해 예측되고 규정되는 ‘통계적 주체’가 되고 있다.¹²⁾는 측면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각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기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제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데이터 권력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촉진할 것이다.¹³⁾

또한 정치·윤리적 측면에서 기술이 주체 형성에 개입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유의 조건을 재정의한다. 이는 단지 인식론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성, 공공성 등의 정치적 가치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¹⁴⁾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주체-사회 간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AI 시

9) Gillespie, T. “The Relevance of Algorithms”, In *Media Technologies*, T. Gillespie et al. eds. MIT Press, 2014.

10) Striplas, T. “Algorithmic Cultu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18, no. 4-5, Sage, 2015, pp.395-412.

11) Hayles, N. K. *How We Became Posthu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12) Andrejevic, M. *Automated Media*, Routledge, 2020.

13) Noble, S. U. *Algorithms of Oppression*, NYU Press, 2018.

14) Couldry, N. & Mejias, U. A. *The Costs of Conne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9.

대의 ‘정치적 인간’ 개념 재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AI와 뉴미디어의 융합과 기술 매개적 환경의 전환

AI와 뉴미디어의 결합은 정보 기술사에서 단순한 연장선이 아닌 ‘질적 전환’의 계기로 평가된다. AI는 기존 디지털 미디어가 갖는 실시간성, 참여성, 상호작용성 등의 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것의 작동 원리를 데이터 기반 자동화로 치환한다. 특히 딥러닝 기반 콘텐츠 분류 시스템, 자연어 처리(NLP), 이미지 생성 알고리즘(예: GANs), 감정 분석 등의 기술은 미디어 경험 전반을 기계가 설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끈다.¹⁵⁾

AI는 콘텐츠를 단지 유통하거나 큐레이션하는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의 구조 자체를 학습하고 생성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기능한다. 이로 인해 미디어는 인간이 단독으로 설계하는 정보 공간이 아니라, 기계와의 협업을 통해 생산되는 혼성적 정보 생태계로 진화한다.¹⁶⁾

한편, 이러한 기술 환경은 미디어의 실재성(reality), 중개성(mediation), 존재론적 지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미디어 이론가 레브 마노비치(Lev Manovich)는 뉴미디어를 ‘알고리즘적으로 조작 가능한 표현 구조’로 정의하였다.¹⁷⁾ 이는 인간의 감각을 중재하는 미디어가 코드와 데이터에 의해 재구성되는 환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AI는 미디어 콘텐츠의 조작자이자, 수용자 인식 구조의 ‘보이지 않는 프로그래머’가 된다.

2) 알고리즘적 문화와 수용자 주체성의 재구성

15) McStay, A. *Emotional AI: The Rise of Empathic Media*, Sage, 2018.

16) Andrejevic, M. op. cit.

17) Manovich, L. *The Language of New Media*, MIT Press, 2001.

AI 기반 뉴미디어 환경에서 형성되는 ‘알고리즘적 문화’는 인간 경험의 구조를 데이터 기반 예측과 자동화된 반응 시스템으로 조직한다. 이 용어를 정립한 테드 스트리파스(Ted Striphas)는 문화가 알고리즘의 작동 로직에 따라 형성되며, 수용자는 정보 소비자이자 동시에 데이터 제공자, 프로파일링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¹⁸⁾

이러한 문화 속에서 주체성은 ‘데이터적 조건성(data-conditioned subjectivity)’ 속에서 형성된다. 이는 수용자의 판단, 취향, 정체성이 고정적이고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적 기획에 의해 재배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첰리-리폴드(John Cheney-Lippold)는 이 과정을 “통계적 정체성(statistical identity)”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즉, 플랫폼은 수용자의 실제 자아가 아닌,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아’를 생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콘텐츠와 상호작용 방식을 결정한다.¹⁹⁾

이러한 분석은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의 ‘호명(interpellation)’ 개념과도 연결된다. 수용자는 플랫폼에 접속하는 순간 이미 특정한 범주(예: 남성, 20대, 취향 A)로 호명되며, 이후의 콘텐츠 경험은 이 범주 내에서 알고리즘적으로 구조화된다. 이때의 주관성은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정이나 판단이라기보다, 시스템에 의해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경험적 효과’로 이해된다.²⁰⁾

3) 감정과 심리 소비의 기술적 조절

에바 일루즈(Eva Illouz)는 현대 자본주의가 감정과 심리를 새로운 생산 요소로 편입했다고 보며, 이는 소비자 경험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 방

18) Striphas, T. op. cit., pp.395-412.

19) Cheney-Lippold, J. op. cit.

20) Althusser, L.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식, 주체성 구성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²¹⁾ 그에 따르면 감정은 더 이상 주체의 내면적 자산이 아니라, 외부 시스템에 의해 유도되고 조정되는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기능한다.

AI는 이 과정을 기술적으로 자동화한다. 감정 AI는 인간이 표정, 음성 톤, 키보드 입력 속도 등 비언어적 데이터를 수집해 수용자의 정서 상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콘텐츠나 광고를 조정한다. 이는 수용자의 감정을 ‘상품화’하는 과정이며, 플랫폼은 그 감정 반응으로부터 다시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이다.²²⁾

이에 대해 사라 아흐메드(Sara Ahmed)는 감정이 단지 내면의 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순환되고 정치적으로 조직된다고 본다. 감정은 ‘접착제’처럼 특정 대상이나 이념에 응집력을 부여하며, 오늘날 이 접착 작용은 알고리즘과 감정 AI에 의해 기술적으로 매개된다.²³⁾ 이로 인해 감정은 더 이상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디자인된 감정’이자, ‘수용자 주관성의 조절 장치’로 기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포스트휴먼 주체성과 인간-기계 혼성체로서의 수용자

AI와 뉴미디어의 결합은 인간 주체의 존재론적 조건을 다시 쓰게 만든다. 캐서린 헤일스(Katherine Hayles)는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에서 인간 주체를 자율적 이성 존재로 보았던 근대적 모델을 비판하고, 인간이 정보, 코드, 기계와 얽힌 ‘혼성적 존재(hybrid subject)’라고 주장한다. 이제 포스트휴먼 이론은 비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넘어 생물학적 존재와 기계적 논리의 사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론은 AI가 오로지 물리적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적·인지적 형

21) Illouz, E. *Cold Intimacies: The Making of Emotional Capitalism*, Cambridge: Polity, 2007.

22) Zuboff, S. op. cit.

23) Ahmed, S.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Routledge, 2004.

성 과정에 깊이 있게 개입하는 환경을 설명하는 데 유효하다. 수용자는 이제 ‘물리적인 기계에 접속한 인간’이 아니라, ‘물리적 기계와 함께 구성된 생물체로서의 인간’으로서 기능한다.²⁴⁾

이와 유사하게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역시 그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해 인간, 기술, 코드, 장치 등을 모두 동등한 행위자(actor)로 작동하는 사회적 실천 구조를 가정한다.²⁵⁾ AI 시스템은 단지 배경 기술이 아니라, 수용자 주관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보아야 하며, 이로써 주체성은 기술-사회-신체의 상호 연결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4. 연구 방법

1) 분석 틀 구축: Q-methodology 기반 주관성 구성 분석

(1) Q 방법론의 개념과 철학적 기반 및 의의

Q 방법론(Q Methodology)은 1930년대 심리학자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된 연구 방법론으로, ‘개인의 주관성(subjectivity)’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유형화할 수 있는 독특한 도구이다.²⁶⁾ 스티븐슨은 기존의 심리학이 인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데 치중한 반면,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는 “주관성의 과학(the science of subjectivity)”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며 Q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을 과학적으로 구조화하는 측면에서 Q 방

24) Hayles, N. K. op. cit.

25) Latour, B.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6) Stephenson, W.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법론은 응답자의 인식을 “취향, 감정, 정서 및 자기인식” 등을 포함한 총체적 주관성으로 간주하며, 이를 외재화하고 구조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의 제한성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다. Q 방법론은 대표 표본이 아닌, 인식 유형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통계적 일반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진술문 구성의 민감성 때문에 Q-set의 품질에 따라 연구 결과가 결정되므로, 이론적 토대 없이 구성된 진술문은 연구의 타당성을 해칠 수 있으며, 요인 분석 후 유형을 해석하는 단계에서 연구자의 해석적 편향이 개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설 설정을 위한 연구에 더 적합한 형태의 방법론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 방법론은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서 구성되는 수용자 주관성이라는 복합적이고 주관적이며 기술-문화적으로 중첩된 주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AI 추천 시스템, 감정 피드백 알고리즘, 수용자 자율성 인식 등 이론적으로 구조화된 진술문을 기반으로 수용자의 인식 구조를 Q-sort를 통해 도출하고, 그 유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AI 시대의 인간 주체성 구성 방식을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2) 전통적 방법론과의 차이

Q 방법론은 "사람에 대한 요인 분석"(people as factors)을 수행하는 반면, 전통적인 양적 연구는 "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variables as factors)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Q 방법론은 전통적인 양적 연구방법에 비해 인식 유형의 정성적 해석과 정량적 구조화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²⁷⁾

27) Brown, S. R.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1980.

[표 1] 양적 연구방법론과 Q방법론의 차이점

항목	Q 방법론	전통적 설문(양적)
분석 단위	개인의 인식 구조 (주관성)	전체 집단의 평균적 경향
표본 개념	대표성보다 다양성 중시	통계적 대표성 요구
응답 방식	진술문 간 상대적 의미 부여	개별 진술문에 독립적 평가
분석 목적	인식 유형의 구조와 다양성 탐색	변수 간 인과 관계 규명
통계 방식	요인 분석 (사람 중심)	회귀, 상관관계 분석 (변수 중심)

(3) 주요 구성 요소

Q 샘플 (진술문 집합)은 연구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진술문의 모음으로써 일반적으로 30~60개 사이의 진술문이 적절하며, 이론과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P 샘플 (참여자 집합)은 Q-sort를 수행하는 참여자들. 일반화된 대표 표본이 아니라, 의미 있는 주관성 유형을 드러낼 수 있는 다양성이 확보된 인물군을 대상으로 한다. 대략 15~40명 수준이면 충분하다.²⁸⁾

Q sort (분류 행위)의 경우에는 각 참여자가 진술문을 특정 분포에 따라 정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보통 -4(매우 동의하지 않음)부터 +4(매우 동의함)까지의 강제 분포(forced distribution) 형태로 진행된다.

(4) Q 방법론의 구조와 절차

앞서 언급한 것처럼 Q 방법론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특성을 모두 지니는 ‘혼합형 연구 설계(hybrid design)’에 속한다. 연구자는 특정 주제에 대해 다양한 진술문(statement set; Q-set)을 구성하고, 참여자(P-set)는 이 진술문들을 ‘자신의 주관적 동의/비동의 정도에 따라 분류(Q-sort)’한다. 이 과정을 통해 개별적 주관성을 구조화된 형태로 외화시킬 수 있다.

28) Watts, S. & Stenner, P. *Doing Q 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Sage, 2012.

5. 연구 결과

1) 사례연구 대상 선정

Q 방법론은 일반화가 아닌 유형 도출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사례의 대표성이 아니라 주관성의 다양성과 분포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1) 연구 참여자(P 샘플) 선정 기준

Q방법론의 질적, 정성적 특성을 고려하여 총 참여자는 30명 내외로 수 설정하였다. 이는 Q 방법론에서 충분한 인식 유형 구조를 도출하는 데 적절한 수치다.²⁹⁾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AI 알고리즘이 가장 보편화된 세 가지 미디어(TikTok, YouTube, Instagram)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P샘플을 추출하였다.

- ① TikTok, YouTube, Instagram 등 AI 기반 미디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용자
- ② 연령대, 성별, 콘텐츠 취향이 다양한 수용자군
- ③ 자신의 감정, 선택, 정체성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수용자

(2) 분석 플랫폼

플랫폼별로 수용자 인식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자료 확보를 지향하였다.

- ① TikTok은 감정 피드백 중심 정동 반응 분석
- ② YouTube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신뢰도 및 인식 구조
- ③ Instagram은 정체성 표현과 감정 반응의 사회적 확산 구조

2) 실증연구 설계

(1) 자료 수집 절차

29) Brown, S. R. op. cit.

[표 2] Q방법론의 절차

단계	절차	목적
1단계: 진술문(Q샘플) 개발	진술문(Q샘플) 개발	이론적 범주 기반 진술문 구성 (30~40개)
2단계: 사전조사 및 인터뷰	사전조사 및 인터뷰	진술문의 명확성 검토 및 수용자 관점 확보
3단계: Q-sort 실시	Q-sort 실시	참가자가 진술문을 동의 정도에 따라 분류
4단계: 후속 인터뷰	후속 인터뷰	분류 이유, 감정 반응, 인식 차이 등에 대한 질적 보완 설명

(2) 분석 방법

첫째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은 Q-sort 결과를 분석하여 인식 유형(type)을 도출한다. 이는 ‘주관성 유형화’로 해석할 수 있고, 둘째 인식 유형 해석은 각 요인별로 공통적으로 선택된 진술문을 중심으로 해당 유형의 주관성 구조를 해석할 수 있었며, 마지막으로 보충 인터뷰 분석은 정서적 차이, 플랫폼별 인식 차이, 자기 정체성 인식의 양상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3) 최종 31개 Q샘플 진술문 목록

[표 3] 32개의 Q샘플

번호	진술문 내용
Q1	나는 AI가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자주 시청한다.
Q2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는 항상 내가 직접 찾는다.
Q3	나의 취향을 잘 반영하여 플랫폼이 추천해 주고 있다.
Q4	알고리즘이 내 감정 상태까지 예측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
Q5	내가 무엇을 좋아할지 AI가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다.
Q6	내가 선택할 때 미디어 알고리즘은 내 선택을 제한한다고 느낀다.
Q7	나는 유튜브나 틱톡에서 자주 ‘끌린다’는 느낌을 받는다.
Q8	내 감정에 따라 플랫폼이 콘텐츠를 바꾸는 것 같다.
Q9	AI 기반 추천은 나의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킨다.

Q10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걸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는다.
Q11	나는 기계가 내 취향을 판단하는 게 놀랍다.
Q12	때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콘텐츠도 추천된다.
Q13	플랫폼을 사용할수록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명확해지는 것 같다.
Q14	나의 감정은 알고리즘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한다.
Q15	내가 본 콘텐츠에 따라 플랫폼이 나를 규정하는 것 같다.
Q16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는 알고리즘이 '길들인' 결과일 수 있다.
Q17	플랫폼은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처럼 꾸며놓았다고 느낀다.
Q18	나는 내 감정이 점점 기술에 의해 조율된다고 느낀다.
Q19	플랫폼을 사용할수록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 같다.
Q20	기술은 나의 취향을 확대시켜준다.
Q21	반복된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나를 규정하고 있다.
Q22	나는 기술 없이도 지금과 같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Q23	알고리즘이 나를 데이터로만 본다고 느낀다.
Q24	나는 플랫폼에서 단지 제공해주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Q25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플랫폼이 보여준 콘텐츠로 다시 생각하게 된다.
Q26	추천 시스템은 내 관심사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Q27	나는 나 자신이 기술과 함께 변하고 있다고 느낀다.
Q28	나는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와는 달랐을 것이다.
Q29	나는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나의 감정을 형성한다고 느낀다.
Q30	알고리즘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Q31	나는 플랫폼의 흐름에 따라 나도 모르게 선택하고 있다.

3) 연구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 주관성의 특성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알고리즘 자율 수용형'이다 이 유형은 기술을 자율성의 확장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알고리즘 자체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이다.

두 번째로 '기술 비판적 저항형'이다 이 유형은 자신의 감정 조작과 선

택 유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스스로 주체성의 위협을 쉽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휴먼 자기반영형’은 인간과 기계 경계의 흐려짐을 수용하며, 기술적 자기 형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 하는 유형이다.

이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알고리즘 윤리 설계, 수용자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등 다채로운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플랫폼 설계자는 모든 수용자가 기술에 대한 인식을 동일하게 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한 다층적 인터페이스 설명과 설계 그리고 가능한 추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게 된다.

(1) 요인 간 상관관계

[표 4] 요인 간 상관관계 표 (Factor Correlation Matrix)

	유형1 (수용형)	유형2 (비판형)	유형3 (자기반영형)
유형1	1.00	0.26	0.39
유형2	0.26	1.00	0.21
유형3	0.39	0.21	1.00

유형1과 유형3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높아, 기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공통된 태도가 일부 공유되어 있고, 유형1과 유형2, 유형2와 유형3은 낮은 상관을 보여 주관성 인식 방향의 분리성이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2) 유형별 인자 가중치표 (Factor Loadings by Participant)

아래는 P샘플 32명의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을 나타내고 있는 표이다. 일반적으로 ± 0.40 이상이면 유의미한 적재로 보고, 해당 요인에 ‘고유하게 소속됨’을 의미한다.

[표 5] P샘플별 인자 가중치

수용자 ID	유형1 (비판형)	유형2 (자기반영형)	유형3 (수용형)	주 유형
P01	0.112362036	0.719731697	0.219598183	유형2(비판형)
P02	0.773235229	0.046798356	0.017425084	유형1(수용형)
P03	0.180334504	0.79398197	0.006175348	유형2(비판형)
P04	0.636680902	0.063701733	0.05454749	유형1(수용형)
P05	0.091272673	0.658245828	0.129583506	유형2(비판형)
P06	0.673272369	0.041848158	0.087643395	유형1(수용형)
P07	0.136820995	0.702846888	0.059902135	유형2(비판형)
P08	0.177724371	0.013935124	0.634104825	유형3(자기반영형)
P09	0.019515478	0.284665661	0.76167947	유형3(자기반영형)
P10	0.091384131	0.029301634	0.688030499	유형3(자기반영형)
P11	0.03661147	0.78186408	0.010316556	유형2(비판형)
P12	0.077633994	0.704013604	0.093513323	유형2(비판형)
P13	0.164013084	0.055456337	0.755026565	유형3(자기반영형)
P14	0.784374847	0.268448205	0.179369994	유형1(수용형)
P15	0.026547751	0.665066066	0.013568187	유형2(비판형)
P16	0.116603187	0.08140471	0.671350665	유형3(자기반영형)
P17	0.084280353	0.760439396	0.042277267	유형2(비판형)
P18	0.022365193	0.639743136	0.231673431	유형2(비판형)
P19	0.001656635	0.745801434	0.212057203	유형2(비판형)
P20	0.623173812	0.022213396	0.107539719	유형1(수용형)
P21	0.61271167	0.186989438	0.099269407	유형1(수용형)
P22	0.093294697	0.097554997	0.727511494	유형3(자기반영형)
P23	0.742648957	0.141664478	0.035878274	유형1(수용형)
P24	0.228235515	0.168383159	0.698759119	유형3(자기반영형)
P25	0.621578285	0.128262306	0.007625738	유형1(수용형)
P26	0.009428756	0.701714138	0.094306794	유형2(비판형)
P27	0.751110228	0.074787669	0.123114877	유형1(수용형)
P28	0.06863945	0.023093973	0.632244257	유형3(자기반영형)
P29	0.774292118	0.242436114	0.190021127	유형1(수용형)
P30	0.241101623	0.055971018	0.707868448	유형3(자기반영형)
P31	0.242232047	0.622010385	0.095401042	유형2(비판형)
P32	0.068380549	0.128132337	0.772146117	유형3(자기반영형)

※ 각 참여자는 세 요인 중 하나에만 고유 적재되도록 ‘순수 요인 참여자(pure loaders)’로 선별하였고, 유형1의 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유형3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뚜렷한 구조를 보였다.

(3) 요인별 설명 변량 (Explained Variance by Factor)

[표 6] 유형별 설명 변량의 차이

요인	고유 참여자 수	설명 변량 (%)	누적 설명 변량 (%)
유형1(수용형)	13명	22.4%	22.4%
유형2(비판형)	11명	19.1%	41.5%
유형3(자기반영형)	8명	14.5%	56.0%

※ 세 요인으로 전체 분산의 약 56%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이 독립적이고 해석 가능한 인식 유형으로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다.

(4)요인 분석 결과 요약

총 32명의 Q-sort 자료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인식 유형(Factor)이 도출되었다. 세 유형은 전체 분산의 56%를 설명하고 있다.

[표 7] 각 유형별 설명력

요인	유형명	참여자 수	설명력 (%)
유형1	알고리즘 자율 수용형	13명	22.4%
유형2	기술 비판적 저항형	11명	19.1%
유형3	포스트휴먼 자기반영형	8명	14.5%

(5) 유형별 주관성 구조 해석

① 유형1. 알고리즘 자율 수용형

● 긍정적 의견

Q1 (+4): 나는 AI가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자주 시청한다.

Q3 (+3): 나의 취향을 잘 반영하여 플랫폼이 추천해 주고 있다.

Q13 (+3): 플랫폼을 사용할수록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명확해지는 것 같다.

◎ 부정적 의견

- Q6 (-3): 내가 선택할 때 미디어 알고리즘은 내 선택을 제한한다고 느낀다.
Q21 (-4): 반복된 방식으로 알고리즘이 나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이 유형은 AI 추천 시스템 자체를 긍정하고 신뢰하며, 자기의 미디어를 통해 습득하는 모든 이해를 기술을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을 자율성 위협 보다는 확장된 선택지 제공의 도구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② 유형2. 기술 비판적 저항형

● 긍정적 의견

- Q6 (+4): 내가 선택할 때 미디어 알고리즘은 내 선택을 제한한다고 느낀다.
Q14 (+3): 나의 감정은 알고리즘에 의해 조절된다고 생각한다.
Q24 (+3): 나는 플랫폼에서 단지 제공해주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뿐이다.

◎ 부정적 의견

- Q3 (-4): 나의 취향을 잘 반영하여 플랫폼이 추천해 주고 있다.
Q30 (-3): 알고리즘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요컨대 이 유형은 기술이 개인의 자율성과 감정적 주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한다. 감정 조절, 선택의 강제성, 자기 규정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디지털 환경 속 자기 정체성의 왜곡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③ 유형3. 포스트휴먼 자기반영형

● 긍정적 의견

- Q27 (+4): 나는 나 자신이 기술과 함께 변하고 있다고 느낀다.
Q25 (+3):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플랫폼이 보여준 콘텐츠로 다시 생각하게 된다.
Q29 (+3): 나는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나의 감정을 형성한다고 느낀다.

◎ 부정적 의견

- Q2 (-4):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는 항상 내가 직접 찾는다.
Q22 (-3): 기술 없이도 지금과 같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유형은 인간-기계 상호작용이 정체성과 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며, 기술과 함께 구성되는 포스트휴먼적 자아를 수용하고 있다. 자율성과 타율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기 인식을 반성적으로 사유하고자 한다.

(6) 유형별 요약표

[표 8] 유형별 특성 요약

진술 번호	진술 내용	유형1	유형2	유형3
Q1	나는 AI가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자주 시청한다.	+4	-1	+1
Q6	내가 선택할 때 미디어 알고리즘은 내 선택을 제한한다고 느낀다.	-3	+4	+1
Q14	나는 알고리즘이 내 기분을 조절한다고 느낀다.	0	+3	+2
Q25	플랫폼 콘텐츠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생각한다.	+1	+1	+3
Q27	나는 기술과 함께 나 자신이 변하고 있다고 느낀다.	0	-1	+4

(7) 유형별 주관성 구조의 심층 해석

① 알고리즘 자율 수용형

(Algorithmic Autonomy Acceptance Type)

참여자 수: 13명

● 핵심 태도

이 유형의 참여자들은 AI 기반 미디어 추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콘텐츠 선택을 스스로의 의지로 수행하고 있다고 느낀다. 알고리즘은 ‘도구’가 아니라 취향을 반영하고 자아를 확장시켜주는 유능한 조력자로 여겨진다.

● 진술 동의 경향

“나의 취향을 잘 반영하여 플랫폼이 추천해 주고 있다.” (+3)

“플랫폼을 사용할수록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명확해지는 것 같다.” (+3)

“나는 AI가 추천해주는 콘텐츠를 자주 시청한다.” (+4)

“기계가 내 취향을 판단하는 게 놀랍다.” (+2)

“추천 시스템은 내 관심사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2)

● 진술 반대 경향

“추천 알고리즘은 내 선택을 제한한다고 느낀다.” (-3)

“알고리즘은 나를 반복된 방식으로만 규정한다.” (-4)

“기계가 내 감정을 읽는다는 사실이 불편하다.” (-2)

● 인식 구조 분석

이 유형은 AI 추천 시스템을 통한 ‘자기 발견(self-discovery)’의 기제로 미디어 기술을 수용한다. 수용자는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나의 새로운 취향’, ‘숨겨진 관심사’를 발견한다고 느낀다. 이들에게 기술은 자율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며, 인간의 취향과 감정을 정확하게 읽는 능력에 감탄과 신뢰를 보인다.

● 주체성 구성 방식

이들은 주체를 선택하는 자아, 확장된 자아로 인식하며, 기술에 의해 일부 영향을 받더라도 그것을 위협이 아닌 편의로 간주한다. 기술은 자신의 일상적 감각을 정리하고 조직하는 ‘보조 기억’이자 ‘확장된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② 기술 비판적 저항형

(Technological Resistance & Critical Agency Type)

참여자 수: 11명

● 핵심 태도

이 유형은 알고리즘 시스템이 수용자의 감정, 선택, 정체성에 개입하며 조작한다는 위협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감정 조절, 선택 제한, 자기 동일성 왜곡 등의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며, 미디어 기술을 비판적 거리에서 바라본다.

● 진술 동의 경향

“추천 알고리즘은 내 선택을 제한한다고 느낀다.” (+4)

“나는 알고리즘이 내 기분을 조절한다고 느낀다.” (+3)

“내 콘텐츠 선택은 플랫폼에서 ‘제공된 옵션’ 중 하나일 뿐이다.” (+3)

“플랫폼은 내가 직접 선택하는 것처럼 꾸며놓았다고 느낀다.” (+2)

“기계가 내 감정을 읽는다는 사실이 불편하다.”(+2)

● 진술 반대 경향

“알고리즘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3)

“나의 취향을 잘 반영하여 플랫폼이 추천해 주고 있다..”(-4)

“기술이 나의 취향을 확대시켜준다.”(-2)

● 인식 구조 분석

이들은 스스로 ‘위장된 자율성’을 비판한다. 스스로 수용자는 자유롭게 판단, 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상 이러한 행위는 플랫폼이 알고리즘에 의해 설계한 선택지 내에서의 제한된 결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감정을 조작하거나 스스로의 선택인양 위장하는 선택의 기만성에 대해 불쾌감이 뚜렷하며, ‘기계에 인간의 감정을 맡긴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크다.

● 주체성 구성 방식

이 유형은 내면적 판단을 우선시하며 주체의 ‘자기결정성’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알고리즘이 인간을 위협한다고 느끼고 있다. 인간의 주체성은 ‘비판적 형태를 갖추고 기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술은 ‘자기 동일성(self-consistency)’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고 생각하고 있다.

③ 포스트휴먼 자기반영형

(Posthuman Self-Reflective Type)

참여자 수: 8명

● 핵심 태도

이 유형은 인간이 기술과 긴밀히 얽혀 있으며,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 정체성, 자아 인식이 구성된다는 점을 성찰적 태도로 인식한다. 이들은 기술을 단순히 수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포괄한다.

● 진술 동의 경향

- “나는 나 자신이 기술과 함께 변하고 있다고 느낀다.” (+4)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플랫폼이 보여준 콘텐츠로 다시 생각하게 된다.” (+3)
 “나는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나의 감정을 형성한다고 느낀다.” (+3)
 “기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와는 달랐을 것이다.” (+2)
 “알고리즘이 나를 데이터로만 본다고 느낀다.” (+2)

● 진술 반대 경향

-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는 항상 내가 직접 찾는다.” (-4)
 “기술 없이도 지금과 같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3)
 “나는 기술 없이도 지금의 나와 같았을 것이다.” (-3)

● 인식 구조 분석

이 유형은 인간이 기계와 함께 구성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며, 감정과 정체성도 그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조정된다고 수용한다. 자율성과 타율성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기술에 대한 비판과 수용 사이의 경계에서 반성적 사고를 한다.

● 주체성 구성 방식

유형3의 주체는 고정적이고 선형적인 자아가 아니라, 기술과 함께 진화하는 네트워크적·역동적 자아이다. 이들은 인간-기계 혼종성(hybridity)을 기회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플랫폼 기반 자기서사(self-narrative)’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9] 각 유형별 비교 요약

항목	유형1 수용형	유형2 비판형	유형3 자기반영형
기술 인식	신뢰와 활용	조작과 위협	변형과 공존
자율성 인식	강화됨	위장됨	상대적/유동적
감정 경험	인정하지만 불편하지 않음	기술적 개입에 불편함	기계와 감정의 공구조 수용
자기 인식	나의 취향을 명확히 함	기술에 의해 왜곡됨	기술과 함께 구성됨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	효율적이며 보조적임	비판적이고 경계적	반성적 자기 수용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에 따르면, AI 기반 미디어 환경에서 수용자의 주관성은 단순한 형태가 아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로 환원되었고 이러한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알고리즘 자율 수용형’ 유형은 기술에 대한 믿음과 함께 알고리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두 번째, ‘기술 비판적 저항형’은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서의 기술 개입을 강하게 반발하며 알고리즘에 따른 선택과 감정 조작 유도의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술에 대해 거리감을 두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휴먼 자기반영형’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인간과 기계의 구분을 거부하고 앞으로 미래 사회 및 인간 소통의 발전적 측면의 일부로 기술을 자기 형성 과정의 일부로 반영하는 포스트휴먼적 인식 구조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AI의 등장은 과거 일방적 정보 전달을 넘어, 수용자와의 정서적 교감, 선택 그리고 주체성의 형성에 매우 깊게 관여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포스트휴먼 자기반영형’에서 나타난 것처럼, 인간과 함께 내면적 주체의 구성에 적극 관여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유형이 나타나고 있음은 인간과 기계의 혼성적 정체성이 이제는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플랫폼 설계 및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서 실천적인 함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디어 수용자 연구의 이론적 확장 가능성의 함

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행연구로서의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전과 다르게 수용자가 기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동일한 알고리즘 환경에서도 서로 다른 경험과 자기 형성의 경로가 나타난다는 점은, 수용자 주권 강화와 윤리적 기술 설계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일방적 수용으로 그 동안 인식되어 왔던 미디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용자 개개인의 가치관, 미디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진화 등 사회적 경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수용자의 주관성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미래 AI 기술 생태계에 인간이 적응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미디어 교육 방향에 있어 효율적이며 윤리적인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간 주체성의 본연의 가치를 잃고 기술 중심의 논의에만 집중하기 쉬운 현시점에서 수용자의 취향 및 주관성에 대한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 미디어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 문헌

국내 문헌

- 김순은, 『Q 방법론과 사회과학』, 부산: 도서출판 금정, 2007.
- 김흥규,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조성미, “[CES 2025] “메타버스 한물갔다 하면 서운하죠”…AI 바람에 올라탄 XR”, 연합뉴스, 2025.01.07.
- 김현민, “오노마에이아이, 2024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서 과기정통부장관 표창 수상”, 전자신문, 2025.01.06.

외국 문헌

- Ahmed, S. *The Cultural Politics of Emotion*, Routledge, 2004.
- Althusser, L.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 Andrejevic, M. *Automated Media*, Routledge, 2020.
- Brown, S. R. *Political Subjectivity: Applications of Q Methodology in Political Science*, Yale University Press, 1980.
- Bucher, T. *If... Then: Algorithmic Power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Cheney-Lippold, J. *We Are Data: Algorithms and the Making of Our Digital Selves*, NYU Press, 2017.
- Couldry, N. & Mejias, U. A. *The Costs of Connection*,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9.
- Foucault, M. *Discipline and Punish*, New York: Pantheon Books, 1977.
- Galloway, A. R.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MIT Press, 2006.
- Gillespie, T. “The Relevance of Algorithms”, In *Media Technologies*, T. Gillespie et al. eds. MIT Press, 2014.

- Hall, S. "Encoding/decoding", In *Culture, Media, Language*, S. Hall et al. eds. London: Routledge, 1980.
- Hayles, N. K. *How We Became Posthuma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 Illouz, E. *Cold Intimacies: The Making of Emotional Capitalism*, Cambridge: Polity, 2007.
- Kerry Flynn, Sara Fischer. "Ad tech deals soar on upbeat forecasts", Axios, 2024.11.26.
- Latour, B.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Lauren Forristal, "Anamorph's generative technology reorders scenes to create unlimited versions of one film", TechCrunch, 2024.02.28.
- Manovich, L. *The Language of New Media*, MIT Press, 2001.
- McStay, A. *Emotional AI: The Rise of Empathic Media*, Sage, 2018.
- Noble, S. U. *Algorithms of Oppression*, NYU Press, 2018.
- Rouvroy, A., Berns, T., & Carey-Libbrecht, L. "Algorithmic Governmentality and Prospects of Emancipation", *Réseaux*, vol. 177, no. 1, La Découverte, 2013, pp.163-196.
- Sara Fischer & Kerry Flynn. "Omnicom to buy IPG, creating world's largest ad agency", Axios, 2024.12.09.
- Stephenson, W.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Striphas, T. "Algorithmic Cultur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vol. 18, no. 4-5, Sage, 2015, pp.395-412.
- Taylor, C.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YouTube - XREAL One - The Best Video Display AR Glasses Take A Huge Leap Forward, <https://youtu.be/xHdGpg-X6JE?si=7dm8MLnqQB1fUIYT>
- Watts, S. & Stenner, P. *Doing Q 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Sage, 2012.

Zuboff, S.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New York:
PublicAffairs, 2019.

■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영상 미디어 기술이 수용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미디어의 발전 특히 AI 미디어 생태계의 급부상은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은 물론 배급유통에 있어, 기존 전통적인 미디어 생태계와는 다르게 소비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 대한 주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수용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 방법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 추천 및 선택 선별의 알고리즘 기반의 AI 시스템은 수용자들의 성향을 바꾸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맞춤형 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수용자들은 미디어에 대한 의존이 아닌 주체적 선택의 경향으로 그 흐름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본 연구는 ‘수용자’라는 다소 수동적인 존재를 생성형 AI 기반의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나아가 미디어를 이해하며 해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사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연구의 P샘플은 총 32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문헌적 고찰과 인터뷰를 통해 검증된 31개의 Q샘플(진술문)을 추출하여 Q 분류를 시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총 세 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먼저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알고리즘 자율 수용형’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AI 기반 미디어 추천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콘텐츠 선택을 스스로의 의지로 수행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주체적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알고리즘은 ‘도구’가 아니라 취향을 반영하고 자아를 확장시켜주는 유능한 조력자로 이 유형은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로 ‘기술 비판적 저항형’은 알고리즘 시스템이 수용자의 감정, 선택, 정체성에 개입하며 조작한다는 위협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감정 조절, 선택 제한, 자기 동일성 왜곡 등의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하며, 미디어 기술을 비판적 거리에서 바라보고 있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포스트휴먼 자기반영형’은 인간이 기술과 긴밀히 얽혀 있으며,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 정체성, 자아 인식이 구성된다는 점을 성찰적 태도로 인식한다. 이들은 기술을 단순히 수용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포괄하고 있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

한 결과는 향후 생성형 AI 기반의 생태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그리고 AI 미디어 교육의 방향 및 지침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 생성형 AI, 영상 미디어, 수용자 주관성

■ Abstract

A study on user subjectivity for generative AI-based video media

Hyun, Seung Hoon /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generative AI video media technology, which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in recent years, is affecting the audience. The development of media, especially the rapid rise of AI media ecosystems, is not only changing the actors i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media content, but also fundamentally changing the way audiences perceive media. In particular, algorithm-based AI systems for automatic recommendation and selection a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changing the disposition of audiences, and within this personalized media ecosystem, audiences are shifting away from dependence on media and toward self-selection.

Through this change, this study used the Q methodology to examine how the somewhat passive ‘receivers’ of Jonjack-generated AI-based media are actively changing, understanding, comprehending, and interpreting media as they encounter AI-based media. The P-sample of the study was selected from a total of 32 participants, and 31 Q-samples (statements) were extract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interviews, and Q-categori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ree types were identified. First, the “algorithmic autonomous acceptanc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can be seen as a subjective type in which most participants perceive AI-based media recommendation systems positively and feel that they are in control of their own content choices. They see algorithms not as “tools,” but as capable assistants that reflect their tastes and extend their sense of self. The second, the “techno-critical resister,” has a strong sense of threat that algorithmic systems intervene and manipulate their emotions, choices, and identity. As a result, they are sensitive to issues such as emotional regulation, limited choice, and distorted self-identity, and view media technologies from a critical distance. Finally, the posthuman

self-reflective type recognizes that humans are intimately intertwined with technology and that their emotions, identity, and self-perception are constructed through their interactions. They don't simply accept or reject technology, but embrace it as part of their identity. In sum,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shed new light on how to formulate policies for the future recipients of generative AI-based ecosystems and the direction and guidance of AI media education.

Keyword • AI, Digital Video Media, User Subjectivity

■ 논문투고일:2025.04.06. ■ 심사완료일:2025.06.22. ■ 게재확정일:2025.07.14. ■

재매개를 통한 예술적 상상력 연구 : 웹툰 <정년이>의 드라마화를 대상으로 *

이 수 현**

목 차

1. 서론
2. 웹툰 <정년이>에 나타난 GL서사와 여성 연대의 의미
3. TV드라마 <정년이>의 여성영웅서사와 자아실현의 완성
4. 재매개로 확장된 <정년이>의 예술적 상상력과 그 의미
5. 결론

1. 서론

문화산업(cultural industries)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오늘날 콘텐츠 산업의 무한 확장을 불러오고 있다. 대체 문화산업이 무엇 이기에 콘텐츠 생산과 소비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가?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산업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¹⁾ 즉,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가 디지털 기술과 맞물려 다양한 미디

* 본 논문은 목원대학교 제10차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대회(“문화예술과 교양 I”)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이수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창의융합교양학부 부교수

1) 국가법령정보센터-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857&efYd=20250423#0000.html>, 2025.05.04.

어 플랫폼을 타고 그 범위를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미디어학자 헨리 젠킨스(Henry Jenkins)는 문화산업의 특징으로 ‘미디어 컨버전스(convergence)’를 꼽는다. 미디어 컨버전스란, 미디어 간 단순한 기술적 융합이 아니라, 하나의 콘텐츠가 여러 미디어 사이를 유동적으로 흘러 다니는 것이다. 이때 콘텐츠와 미디어의 관계는 1:1이 아닌, 1:多 혹은 多:多의 관계를 보인다.²⁾ 예컨대, 하나의 뉴스가 신문, 웹사이트, 모바일 앱, 뉴스 포털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전달되기도 하고, 소비자는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SNS에 기사를 공유하기도 하며, 기사와 관련한 숏츠(Shorts)를 만들기도 한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급부상하게 된 까닭 역시 문화산업의 컨버전스 현상에서 비롯된다. 보통 스토리텔링은 ‘이야기하다’로 번역하지 않는데, 이는 구술시대의 이야기하기와 디지털 기술 시대의 이야기 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오늘날 스토리텔링은 “전통적인 이야기 행위에서 나아가 매체를 다중적으로 활용하는 문화산업 시대의 이야기 활동 전반”³⁾을 의미한다. 문화산업의 컨버전스 현상을 가능케 하는 것이 스토리텔링이기에 매체 간 융합을 거쳐 콘텐츠가 재구성되는 양상을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스토리텔링’이나 ‘트랜스미디어(trans-media) 스토리텔링’의 용어로 접근하기도 한다.⁴⁾ 미디어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둘러싼 여러

2) Henry, Jenkins 저, 김정희원·김동신 역,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33-36쪽.

3) 최시한, 『스토리텔링』,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4, 71쪽.

4)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각색’ 이론이 지니는 한계에서 벗어나, 미디어 콘텐츠를 수평적 관계에서 보려는 연구에서 언급된다. 동일한 이야기를 여러 매체에서 변형하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기존 ‘각색’에 가깝다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콘텐츠마다 각각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김민경, 「매체 전환의 관점에서 살펴본 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크로스미디어와 트랜스미디어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9, 27-41쪽.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젠킨스의 『컨버전스 컬처』 이후 주목 받았는데, 다매체로 분기된 콘텐츠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콘텐츠는 다양한 미디어 간 이행을 통해 변용되고 확장되며 거대한 서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매체로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서사적 변용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다. 이른바, ‘소설의 영화화’, ‘고전문학의 현대적 변용’, ‘매체 전환에 따른 각색의 양상’ 등의 연구들은 1990년대부터 학위논문을 비롯해 다양한 학술논문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들 연구는 대개 ‘각색(adaptation)’ 이론에 근거하여 내용(story)이 변하거나 매체 특성에 따른 형식(discourse)의 변화를 통해 각색물이 원작에 충실하거나, 혹은 전혀 다른 주제를 전달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분석의 치밀함과 논리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각색 이론을 적용한 논의는 원작과 각색물 간 위계질서를 내포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오늘날 미디어 환경은 젠킨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미디어를 유영(遊泳)하면서 보이는 기술적·문화적 융합(convergence)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매체로 전환되면서 보이는 서사적 변이는 단순히 내용과 형식이 변화된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예컨대, 콘텐츠 제작자는 당대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수용자의 문화적 기호 등을 고려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므로 콘텐츠 분석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볼터(Jay David Bolter)와 그루신(Richard Grusin)이 제안한 ‘재매개(remediation)’ 이론을 적용하여, 웹툰 <정년이>와 TV드라마 <정년이>의 서사에 나타난 문화적 함의를 분석하고자 한다.⁵⁾ 재매개 이론에 따르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

강조한다. 조희영,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스토리세계 확장 전략 연구」, 『만화 애니메이션 연구』 통권71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23, 426쪽.

5) 웹툰의 드라마화에 대한 연구는 TV드라마 <미생>(2014)이 가장 많은데, 주로 제라르 쥬네트의 서사담론이나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개념을 적용해 텍스트 간

는 기존 미디어를 단순히 대체하거나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하거나 재구성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며 독자적인 양식을 구축해나간다.⁶⁾ 이를 미디어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미디어 ‘콘텐츠’로 확장시키면, 웹툰에서 그려진 이야기가 TV드라마로 이행되는 과정은 원작의 서사를 흡수하고 재구성하면서 경쟁하는, 즉 미디어 콘텐츠 간 상호작용의 원리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관점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TV드라마가 원작에 충신했거나 혹은 원작의 주제를 축소시켰다는 것에서 나아가 콘텐츠 해석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디어 간 역동적 관계를 설명하는 재매개 개념을 적용하여, 원작 웹툰이 TV드라마로 ‘재매개’ 될 때 예술적 상상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매체 전환이 단지 이야기의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동시대 사회문화적 코드와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2. 웹툰 <정년이>에 나타난 GL서사와 여성 연대의 의미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네이버에 연재된 웹툰 <정년이>(서이레 글·나문 그림)는 1950년대 여성국극을 소재로, 배우가 되고 싶은 윤정년과 국극 단원들의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여성국극을 그린 최초의 웹툰’이

변이양상을 분석한다. 정혜경, 『웹툰 <미생>과 드라마 <미생>의 서사담론 분석을 통한 세계관 비교』,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3집 2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김미라,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웹툰 <미생>의 드라마 <미생>으로의 재매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편,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 이론을 적용해 웹툰의 드라마화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그중 김은영(2016)의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는 웹툰 <미생>이 웹드라마와 TV드라마로 재매개 되는 과정을 분석하며 디지털 서사의 특성과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김은영, 『웹툰 <미생>의 재매개 과정에서 나타난 디지털 서사의 변주』, 『미디어, 젠더&문화』 31권 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 6) Jay D. Bolter·Richard Grusin 저, 이재현 역,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8쪽.

라는 특이성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연재되는 동안 9.8점 이상의 높은 평점을 유지했다. 작품성도 인정받아 ‘2019 오늘의 우리 만화’에 선정되었고, ‘2020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콘텐츠상’, ‘2024 제21회 부천만화대상’ 등을 수상했다. 또 높은 인기에 힘입어 총 10권의 단행본(문학동네)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연재된 웹툰의 내용 그대로 출간한 단행본을 분석 텍스트로 삼았다.

1) GL서사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의 사랑과 연대

웹툰 <정년이>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목포 출신의 윤정년이 ‘매란극단’에 들어가 예인으로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린다. 윤정년은 가난이 지긋지긋해 ‘돈을 가마니로 벌’ 요량으로 매란에 들어가지만 국극을 연기하면서 점차 진정한 예술인으로 거듭난다. ‘여성국극’이라는 작품의 소재만 놓고 본다면, 미성숙한 주인공이 국극 최고의 스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성장서사로 읽힌다. 그러나 웹툰 <정년이>의 중심 플롯은 윤정년과 권부용의 사랑(GL: Girls’ Love)⁷⁾이다. 윤정년이 절정의 연기력을 보인 「쌍탑전설」의 ‘아사달’은 연출가 백도영의 말처럼 “단 한 사람을 위한 왕자”이고, 연기를 끝낸 ‘왕자’ 윤정년이 달려간 곳에는 그 ‘단 한 사람’, 권부용이 있다.

7) GL(Girls’ Love)이란 좁게는 여성 간의 성애적 로맨스, 넓게는 여성 간의 깊은 유대나 친밀성을 다루는 작품의 일체를 말하는데, 웹툰과 웹소설 시장에서 정식 명칭으로 사용되며 하나의 작품군을 이루고 있다. 일본에서는 ‘백합(百合, Yuri)’이라고 부른다. 박보람, 「퀴어 여성 GL 향유자들의 문화실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1, 1쪽.



[그림 1] 『정년이』 10, 최종화: 나의 팬, 나의 배우

권부용은 윤정년이 국극단의 정식 연구생이 되기 전부터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1호팬’을 자처하는 인물이다. 그는 윤정년이 ‘군졸1’을 맡아 과한 연기로 극을 망쳤을 때 합창단의 노래를 통해 ‘소리의 조화’를 깨닫게 하고, 떡목이 된 윤정년이 찾김에 대본을 바다에 던지자 주저 없이 물속에 뛰어들기도 한다. 여성을 좋아하는 성적 취향을 가졌지만 권부용은 단 한 번도 윤정년에게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는다. 도리어 애써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아버지가 정한 대로 이민형과의 결혼을 감행하려고까지 한다.

정년: 참말로? 참말로 결혼한다고? 그럼 넌... 왜 목포에 왔었어? 왜 날 찾아왔어? 왜 나한테 화냈어? 나한테 왜... 왜 그랬어?

부용: 여자애였으니까.

정년: 뭐?

부용: 여자애는 여자애를 만나지만 여자는 남자를 만나. 남자가 필요해.

정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부용아, 난... 난 그냥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이제 그러면 안 돼?⁸⁾

권부용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확인한 윤정년은 같이 있고 싶다 말하지만, 부용은 “정 힘들면 날 미워해.”라며 애써 정년을 밀어낸다. ‘여자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권부용의 말은 어릴 적 자신이 들었던 어른들의 가르침

8) 서이레·나문, 『정년이』 9, 문학동네, 2024, 96-97쪽.(밑줄: 인용자)

(“남자가 여자를 완성한다”, “남자만이 여자를 여자로 만든다”)이었고, 이는 1950년대 남성 중심의 사회적 규범을 상징한다. 윤정년을 사랑하면서도 이민형과의 결혼을 강행하려는 권부용의 태도는 당시 사회 규범 안에서 자신의 진심을 숨겨야 했기 때문이다.

웹툰 <정년이>를 관통하는 이야기 축이 윤정년과 권부용의 GL서사라는 것은 권부용 캐릭터의 역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이 작품에서 단순히 윤정년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권부용은 윤정년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그가 진정한 예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으로 자신 또한 정년을 만나 크게 변화하는 인물이다.⁹⁾ 따라서 권부용은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공 윤정년의 상대역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놓인다. 이러한 사실은 작품의 후반 등장하는 권부용의 1인칭 내레이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 권부용의 1인칭 내레이션

서사적 상황	내레이션 ¹⁰⁾
윤정년과의 첫 만남	그 애는 나 같았다. 작고, 연약하고, 겁을 먹었다. 나와 닮은 얼굴을 하고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정년의 연기를 보고 다시 펜을 잡음	아주 오랜만이였다. ‘왕자 윤정년’을 떠올리는 순간, 머릿속이 이야기로 터져나갈 것 같아서. 도저히 쓰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다.
오직 정년을 위해 ‘쌍탑전설’을 완성함	난 그때 지독한 마법에 걸린 것이 분명하다. 에로스의 화살이나, <한여름 밤의 꿈>에 나온 사랑의 묘약 같은. 세상 어디에도 윤정년의 왕자보다 중요한 건 없었다.
목포로 내려가 떠목이 된 정년과 만나 화해함	네가 좋아. 넌 순진하지. 막 태어난 강아지처럼 매일 사고를 쳐. 혼나고 실수하고 쫓겨나고 또 혼나고. 그런데도 넌 돌아와.(중략)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넌 내 곁에 있으려고 고집을 부릴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난 날처럼.

9) 권부용은 자신이 쓴 글이 남학생 이민형의 이름으로 둔갑해 상을 받는 ‘문예지 사건’ 이후 마음을 닫고 펜을 놓는다. ‘진심은 가치가 없다’고 믿었던 부용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 글을 쓰게 만드는 인물이 윤정년이다.

10) 서이레·나몬, 『정년이』 10, 문학동네, 2024, 25쪽, 56쪽, 71-73쪽, 81-83쪽.

웹툰 <정년이>에서 등장인물의 1인칭 내레이션이 등장하는 것은 권부용이 유일하다. 권부용과 윤정년의 첫 만남부터 떡목이 된 정년이 괴로워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부용의 시점에서 회상 장면으로 제시되는데, 이때 부용의 내레이션은 정년을 향한 그녀의 감정을 독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그런데 윤정년과 권부용의 GL서사는 일반적인 퀴어 로맨스물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웹툰 <정년이>에는 두 사람 외에도 GL 관계에 있는 인물이 여럿 등장한다. 매란의 스타 문옥경과 서혜랑은 한 집에서 부부처럼 동거하고, 극단 배우 백도앵과 임숙영 역시 우정 이상의 미묘한 감정을 교류한다.¹¹⁾ 이는 웹툰 <정년이>에서 보이는 GL서사가 단순히 동성의 사랑이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끈끈한 연대 의식을 내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실제 1950년대 여성국극인들은 결혼과 출산 등으로 국극계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만, 웹툰 <정년이>는 이런 현실을 고증하기보다 꿈을 향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과정에서 싹트는 사랑의 감정을 묘사하는 데 집중한다. 그렇기에 파혼을 한 권부용과 윤정년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결말은 여성공동체가 가졌던 연대의 힘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결과라 할 수 있다.¹²⁾ 웹툰 <정년이>는 주요 인물들의 GL서사를 통해 당대 가부장적 사회규범에 균열을 내는 동시에 ‘여성들의 감정적 유대와 연대의

11) 백도앵과 임숙영의 GL서사는 단행본 『정년이』 5-6권에 ‘부록: 조연의 일’을 통해 별도의 에피소드로 그려진다. 백도앵을 향한 임숙영의 감정은 “너는 내 왕자님이었다. 그 애의 등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독백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12) 웹툰 <정년이>에 나타난 여성공동체의 의미를 실제 여성국극의 역사와 비교 분석한 송소라에 따르면, 여성공동체 안에서 불화와 반목이 강조된 것은 여성국극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당대 사회적 시선에 기인한다. 그는 웹툰 <정년이> 결말에서 실제와 다르게 여성국극의 재건으로 마무리한 것은 여성공동체가 지닌 연대의 힘을 적극적으로 재맥락화한 작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송소라, 『웹툰 <정년이>를 통해 본 여성공동체 서사의 재맥락화 양상과 의미』, 『어문학』 161집, 한국어문학회, 2023, 158쪽.

지'라는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2) 사회적 타자화에 따른 정체성의 균열 및 자기 역압

웹툰 <정년이>가 여성공동체를 통해 연대의지를 강조한 것은 1950년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기인한다. 윤정년과 권부용의 사랑이 완성되는 지점은 예술가로서 각자의 꿈(배우, 극작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권부용은 오직 윤정년을 위해 「쌍탑전설」¹³⁾을 쓰고, 윤정년은 '단 한 사람' 권부용을 향한 아사달을 연기하며 '새로운 왕자'가 된다. 그런데 이들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인물 중에는 당시 여성들이 겪은 사회적 타자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캐릭터들이 있다. 정년에게 남자 연기에 대해 조언하는 고 사장, 정년의 짝선배이자 「쌍탑전설」의 연출자 백도앵, 권부용의 모친 이경자가 그들이다.

고 사장은 원래 15세부터 식모 일을 하며 주인집 아씨의 도움으로 글자를 익히고 문학을 좋아했던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는 우연히 들어간 문예지 낭독회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은 후 양복을 입고 '남자' 행세를 하고 다닌다. 고 사장은 남장을 들켜 얻어맞은 적이 있는데도 남장을 고집하는 이유를 묻는 정년에게 "세상은 거대한 여성국극 무대 같다"고 말한다.

재밌지 않니? 세상은 거대한 여성국극 무대 같아. 이성적이고 용감하고 근육질인 남자와,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가녀린 여자. 사람들은 여자와 남자를 연기하며 살지. 국극배우처럼.

하지만 평범한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은 느끼고 말아.

'피곤하다.', '답답해.' '이건 내가 아냐.' '이 지긋지긋한 연극. 때려치우고 싶어.'¹⁴⁾

13) 웹툰 <정년이>에서 권부용이 쓴 「쌍탑전설」은 “꺼져가던 여성국극을 다시 일으킨 명작 중의 명작”으로 표현된다. 서이레·나몬, 『정년이』 10권, 문학동네, 2024, 237쪽.

14) 서이레·나몬, 『정년이』 2, 문학동네, 2024, 103-105쪽.

고 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연기’한다고 말한다. 남장을 하는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을 연기하고 있다는 그의 말에는 사회가 만들어놓은 성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한 ‘개인’으로 대접받고 싶은 소망이 담겨 있다. 웹툰 <정년이>에서 주변인물에 불과한 고 사장의 서사는 꽤나 집중적으로 다뤄지는데, 이는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장’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고 사장은 성 역할의 전복을 통해 사회적 타자화를 극복하려 하지만, 결국 남복을 하고 남성을 연기하는 정체성의 균열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매란국극단 단원 임숙영과 GL 관계에 있는 백도앵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외동딸로 기생 출신의 어머니를 둔 인물이다. 그는 ‘대대손손 나룻밥 먹은 집안’만 내세우는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를 이해하지만, 자신과 같은 나이에 기생 일을 하는 문옥경에게는 거부감을 갖는다. 또 문옥경의 연기를 보고 국극 배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리와 춤을 갈고뺏지는 않는다. 국극의 최고 스타이자 한때는 기생이었던 문옥경을 향한 백도앵의 반감은 “도앵이 넌 소리 못하는 너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옥경의 말에 폭발하고 만다.



[그림 2] 『정년이』 4, 제20화: 드러난 진심

백도앵은 단장 강소복의 오해로 매란을 나오게 되는데, 이를 알고 찾아 온 윤정년에게 자신이 왜 국극을 선택하게 됐는지, 문옥경을 왜 미워했는지 들려준다.

국극이라고 했지... 나도 하고 싶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난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개량 다르게... 기
생도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서 왕자가 될 수 없었다. 여자가 미워서.¹⁵⁾

‘여자가 미워서 왕자가 될 수 없었다’는 백도앵의 고백은 한때 남성에게 웃음을 파는 기생이었던 문옥경을 향한 경멸 때문에 ‘왕자’ 역을 두고 배우로서 경쟁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후회이다. 기생 출신 어머니를 가졌기에 같은 기생 출신인 문옥경을 마음속으로 거부하는 백도앵의 태도는 타자화된 여성성을 자신에게서 분리시키고 싶은 속내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그가 예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억제하게 만든다. 국극을 사랑하면서도 ‘소리 팔고 춤 파는’ 기생에 대한 혐오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사회적 타자화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타자화되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고 사장은 ‘남장’을 택하고 백도앵은 ‘왕자’를 포기한다. 각자의 방법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현실에 대응하려 했지만, 이들의 선택은 결국 타자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회적 타자로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살퍼불 권부용의 모친 이경자는 고 사장, 백도앵과 달리 사회적 타자화에 대한 적극적 저항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는 체념한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현실에 순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하지만 자신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꿈을 품고 있는 딸에게 조언을 건넬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을 내비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사람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작가를 꿈꿨던 이경자는 극작가 권영섭과 결혼해 맘껏 작품을 쓰지만, 자신의

15) 서이레·나몬, 『정년이』 5, 문학동네, 2024, 67-69쪽.

글이 모두 남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현실에 좌절하며 술에 취해 산다. 그녀는 작가적 역량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인물이다. 이경자가 술의 힘을 빌려 내뱉는 “내 글 내놔, 이 도둑놈아”라는 외침은 지워진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절규에 가깝다. 하지만 여성의 공적 진출이 제한되었던 1950년대에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아픈 환자’ 취급으로 돌아온다.

고 사장, 백도앵과 달리 이경자는 체념에 가까운 순응을 택함으로써 여성이 타자화되는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수동적 이미지였던 그녀는 결정적인 순간 딸에게 조언을 함으로써 권부용이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 윤정년에게 달려가도록 만든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하니? 결혼하고 싶다면 계단을 내려갈 용기만 내.

싫으면 밖으로 나갈 용기만 내. 용기가 적은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진짜 부끄러운 건 용기가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야.¹⁶⁾

권부용은 어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에 힘입어 결혼식장을 나와 윤정년에게 달려가고, 결국 파혼을 선택함으로써 윤정년과의 사랑을 획득한다. 고 사장과 백도앵이 각자의 방식으로 남성 중심 사회에 대응하고자 했지만 결국 여성의 타자화를 극복하지 못한 것과 달리, 이경자는 자신의 억압 기제를 자각하고 딸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변화의 희망을 남겨놓는다. 이는 웹툰 <정년이>가 정체성 균열과 자기 억압을 통해 당대 여성이 겪어야 했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비판의식과 함께 여성의 타자화 극복에 대한 가능성을 섬세하게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3. TV드라마 <정년이>의 여성영웅서사와 자아실현의 완성

웹툰 <정년이>를 원작으로 한 TV드라마 <정년이>는 2024년 10월부터

16) 서이레·나몬, 『정년이』 10, 문학동네, 2024, 176-177쪽.

11월까지 총 12부작으로 tvN에서 방영되었다. 1회 시청률은 4.8%였지만 4회 12.7%를 보였고, 이후 꾸준히 두 자릿수를 유지해 마지막회는 16.5%를 달성했다. 높은 시청률만큼 화제성도 컸는데, 방영 당시 디즈니플러스 ‘글로벌 TV쇼 부문 TOP10’을 비롯해 미국 타임지가 발표한 ‘2024 최고의 K드라마 2위’에 오르기도 했다.¹⁷⁾ 윤정년 역을 맡은 배우 김태리 또한 ‘2024 서울콘 에이판 스타 어워즈 대상’ 및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최우수연기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과 흥행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 장에서는 TV 드라마 <정년이>가 단순히 원작을 어떻게 변용했는지가 아니라, 재매개를 통한 예술적 상상력 구현을 위해 어떠한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1) 여성영웅서사를 통한 주요 인물의 정체성 찾기

TV드라마 <정년이>는 “여성국극단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배경으로 한 정년과 영서, 두 국극 천재의 성장기”¹⁸⁾라는 기획의도에서 알 수 있듯이, 윤정년과 허영서 간 갈등 중심의 성장담을 다룬다. 모친 채공선의 천재성을 물려받은 윤정년은 문옥경의 연기를 보고 국극에 매료돼 모친의 반대를 뿌리치고 고향을 떠나 매란에 들어간다. 소리 한 번 배우지 못한 윤정년은 그곳에서 십년 넘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허영서를 만나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 주인공이 진정한 예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쟁쟁한 라이벌의 등장은 극적 재미를 위한 필수 장치이다. 윤정년과 허영서의 경쟁은 ‘천재적 예술가’와 ‘노력형 예술가’의 대결구도를 보이며 드라마의 시청률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두 사람의 경쟁 구도만 놓고 본다면, 윤정년이 실력과 허영서를 만나 좌절과 성취를 반복한 끝에 ‘스타 배우’가 되는 성장서사

17) 이혜진, “<정년이>, 국내외 주요 시상식 동시 노미네이트, 연속 수상 기대감 ↑”, 국제뉴스, 2025.04.08.

18) TV드라마 <정년이> 홈페이지, <https://tvn.cjenm.com/ko/Jeongnyeon/special/about>, 2025.05.10.

로 읽힌다. 하지만 드라마 <정년이>는 윤정년과 허영서 간 경쟁 심리를 부각하는 대신 윤정년이 자신의 예술적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정년은 천재적 목소리를 가졌음에도 ‘떡목’이 되어버린 현실에 절망하지만,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 “빈 소리를 몸짓으로 아주 차고 넘치게 채울 것”이라고 말하며 극복의지를 보인다. 국극 배우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목소리의 상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마침내 진정한 예인으로 우뚝 서는 윤정년의 모습은 여러모로 여성영웅의 모습을 닮아 있다. 모린 머독(Maureen Murdock)에 따르면 여성영웅의 여정은 남성영웅과 차이가 있으며, 외부 세계의 정복이 아닌 내면의 분열과 상처의 치유, 자기 발견과 통합을 목표로 하는 순환적 여정이다.¹⁹⁾ 머독은 여성영웅의 여정을 10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여기에 드라마 <정년이>에서 윤정년이 겪는 여정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TV드라마 <정년이>에 나타난 여성영웅 여정

단계	내용
① 여성성과의 분리	- 문옥경의 ‘왕자’ 연기를 보고 국극에 매료됨 - 어머니, 언니를 떠나 매란국극단에 들어옴
② 남성성과의 동일시 및 동료 모으기	- 경쟁자 허영서, 조력자 홍주란을 만남 - ‘춘향전’의 ‘방자’ 역을 맡게 됨. 자신만의 ‘방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함
③ 시련의 길	- ‘방자’ 역을 훌륭하게 소화하지만, 다방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매란에서 쫓겨남 - 방송국 PD에게 이용당하고 매란으로 돌아옴 - ‘자명고’의 ‘군졸1’ 연기로 극의 흐름을 망침
④ 성공이라는 환상	- ‘자명고’ 대본을 놓고 모든 인물의 소리와 연기 연습에 매진함 - 홍주란 대신 ‘구슬아기’ 역을 맡아 허영서의 무대 실수를 커버함
⑤ 죽음에 대한 자각	- 합동공연 ‘바보와 공주’ 오디션을 준비함 - 허영서-홍주란의 연기를 보고 조바심을 냄 - 동굴에서 무리하게 연습하던 중 피를 토함

19) Maureen, Murdock. *The Heroine's Journey-Woman's Quest for Wholeness*, Boulder: Shambhala, 1990, pp.5-6.

⑥ 신에게로의 하강	- 아픈 몸으로 오디션을 강행함 - 처절한 소리와 연기로 보는 이를 놀라게 함 - 오디션에 떨어지고 병원에 실려감
⑦ 여성성과의 재결합을 위한 갈망	- ‘떡목’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함 - 매란국극단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감 - 내면의 소리(환청)에 고통스러워함
⑧ 모녀관계의 치유	-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모친과 갈등함 - 채공선(母)의 한이 담긴 ‘추월만정’을 들음 -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빈 소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깨달음
⑨ 상처 입은 남성성 치유	- 매란 복귀 후 거리 공연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추월만정’을 꼭 채워서 부름 - 「쌍탑전설」 오디션에서 ‘아사달’ 역으로 뽑힘
⑩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	- 무대에서 완벽한 ‘아사달’ 연기를 선보임 - 새롭게 출발하는 매란의 ‘새로운 왕자’가 됨

윤정년은 문옥경이 연기한 ‘호동왕자’를 보고 처음 국극에 발을 들이는 데, 이는 여성성에서 벗어나 ‘남역’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픈 정년의 욕망을 의미한다. 정년은 처음으로 맡은 ‘방자’ 역할을 위해 남장을 하기도 하고, 영서의 ‘방자’ 연기를 흉내 내기도 한다. 허영서는 극단 연습생 공연의 ‘남역’을 놓고 윤정년과 경쟁을 벌이지만 안타고니스트로서 기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창고에 갇힌 정년을 꺼내주어 오디션을 보게끔 만들고, 떡목이 된 정년에게 “내가 다시 무대에 오를 때까지 언제까지고 내가 꼭 기다릴게”라며 위로를 건넨다. 요컨대, 허영서와 윤정년은 ‘성악 천재의 딸’과 ‘판소리 천재의 딸’이라는 대결 구도 속에 있지만 우정과 연대의 깊은 관계성을 보인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윤정년을 고통과 좌절에 빠지게 하는 이는 윤정년 자신이다. 그는 다방에서 노래를 부르다 매란에서 쫓겨나고, ‘스타’로 키워준다는 방송국 PD의 말에 현혹되기도 한다. 또 ‘군졸1’을 맡아 마치 주인공 같은 연기를 펼치며 극의 흐름을 깨버리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정년이 예인으로 가는 여정에서 성장과 한계를 체험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③ 시련의 길’이 외적 시련과 내적 시험을 통해 국극 배우 윤정년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⑤ 죽음에 대한 자각’과 ‘⑥ 신에게로의 하강’은 그가 소리를 잃음으로써 예인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단계가 된다. 정년은 오디션을 준비하는 동안 무리하게 연습하다 피를 토하고 소리를 잃는다. 그동안 무대에서 선보인 연기의 성공이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하며 정년은 자아의 붕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그를 구원하는 사람은 모친 채공선이다. 동이 틀 무렵 바닷가에서 채공선은 정년에게 ‘무(無)’를 노래한 명창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선: 정정렬 선생님은 타고난 떡목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거칠어도 힘 있는 소리로 바뀌나부렀지. 그러니 듣는 사람 귀에는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다 채워져서 들릴 수밖에. 그래서 사람들은 선생님이 없는 소리, 무(無)를 부른다고 했었다.

정년: 없는 소리... 무(無)를 부른다...

공선: 정년이 나는 빈 소리를 뭇으로 채울라냐?

정년: 어머니, 어머니 무언으로 채워서 불렀겠어?

공선: 나라는... 눈물로 채울거나, 한숨으로 채울거나...²⁰⁾

채공선은 떡목이 되어 돌아온 정년에게 ‘빈 소리’에 대해 알려주며 회한 섞인 소리로 ‘추월만정’을 부른다. 난생 처음 모친의 소리를 듣던 정년은 때마침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의 ‘빈 소리’를 찾게 된다. 이는 모계적 전통을 통해 억눌리고 상처 받은 자아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모친의 구원을 받은 윤정년은 다시 매란으로 돌아와 거리 공연에서 자신만의 ‘빈 소리’를 꼭 채운 ‘추월만정’을 선보이며 관객의 마음을 울린다. 화려한 무대도, 분장과 의상도 없는 소박한 거리 공연에서 윤정년은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내면에서 우러나는 소리와 연기를 선보인다.

드라마 <정년이>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은 그동안 윤정

20) TV드라마 <정년이> 10화, 최효비 극본, 정지인 연출, tvN, 2024.11.10. 방송.

년이 경험한 상처 입은 남성성(‘온달’ 연기의 무리한 연습)의 치유이자, 억눌렸던 여성성(‘심청’의 울림 있는 소리)과의 재결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쌍탑전설」의 ‘아사달’을 통해 윤정년이 매란의 ‘새로운 왕자’가 되는 드라마의 엔딩 장면은 ‘㉔ 남성성과 여성성의 통합’이자, 진정한 예인으로서 윤정년의 자기 발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TV드라마 <정년이>는 진정한 예인이 되기 위한 윤정년의 여정을 중심으로, 그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합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여성영웅서사로 그려낸다.

2) 극중극 및 훈련 과정을 통한 예인으로서의 성장

TV드라마 <정년이>는 거의 매회 차 극중극(劇中劇)²¹⁾과 배우들의 훈련신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시청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1950년대 여성국극을 텔레비전 안으로 들여온다. 매란에서 쫓겨난 윤정년이 방송국에서 가수로 데뷔하는 에피소드(4화)와, 떡목이 된 후 방황하다 고향에 내려가는 에피소드(9화)를 제외한 나머지 회차에는 여성국극 무대(극중극) 혹은 국극 배우들의 훈련 장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특히 극중극 장면은 단순한 공연 재현을 넘어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와 예인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서사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TV드라마 <정년이>에 등장하는 극중극과 훈련 신을 회차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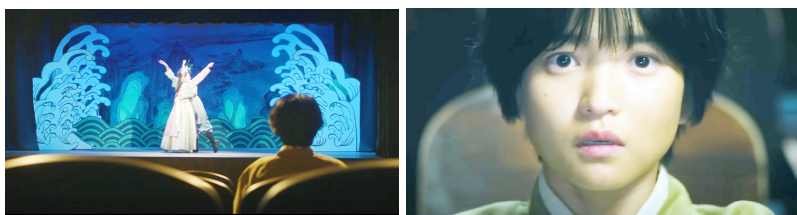
21) 극의 구조로 볼 때 극 중 현실에 해당하는 극을 ‘틀극(frame play)’이라고 하고, 그 안에 포함된 극을 ‘극중극(劇中劇, play within a play)’이라고 부른다. 극중극이 틀극에 삽입되는 방식에 따라 완전 삽입구조, 병렬식 구조, 해체된 삽입구조로 나눌 수 있다. 이용복, 「극중극의 특성 및 그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연극학』 통권46호, 한국연극학회, 2012, 201쪽. 드라마 <정년이>에 나타난 극중극은 ‘병렬식 구조’에 해당한다.

[표 3] TV드라마 <정년이>의 극중극 및 훈련 신

회차	극중 극, 훈련 신	서사적 연계성
1	[극중극] 「자명고」 무대 - 문옥경(호동), 서혜랑(낙랑)	- 윤정년이 문옥경의 연기를 보고 국극에 매료됨(入社)
2	[훈련 신] 「사철가」 - 윤정년 vs 허영서	- 「사철가」를 부르는 정년과 영서 (정년과 영서의 첫 만남)
3	[극중극] 「춘향전」 무대 - 윤정년(방자), 허영서(몽룡)	- 정년의 관객을 사로잡는 ‘방자’ 연기에 놀라는 영서
5	[훈련 신] 「자명고」 오디션, 연습 - 윤정년(군졸1), 허영서(고미결)	- 영서의 약점(모친의 기대)을 알려주는 정년
6	[극중극] 「자명고」 무대 - 문옥경(호동), 홍주란(구슬아기), 허영서(고미결), 윤정년(군졸1)	- 영서의 성장(홍주란의 조력) - 정년의 실패(과도한 연기)
7	[극중극] 「자명고」 무대 - 윤정년(구슬아기), 허영서(고미결)	- 정년의 성장(‘비워내는 연기’에 대한 깨달음)
8	[훈련 신] 「바보와 공주」 - 허영서 vs 윤정년 - 윤정년 오디션(온달)	- 영서와 정년의 대결 구도 - 정년의 좌절(목소리를 잃음) - 영서의 성장(극한의 연기-정년)
10	[극중극] 「바보와 공주」 무대 - 문옥경(온달), 서혜랑(평강)	- 매란국극단의 위기(국극계를 떠나는 문옥경)
11	[훈련 신] 「추월만정」, 「춘향가」 - 윤정년, 허영서의 거리 공연	- 한계를 극복하는 정년(‘빈 소리’를 ‘몸짓’으로 채움) - ‘진짜 연기’를 깨닫는 영서
12	[훈련 신] 「쌍탑전설」 - 윤정년 vs 허영서 [극중극] 「쌍탑전설」 무대 - 윤정년(아사달), 허영서(달비)	- ‘새로운 양자’로 탄생하는 정년(진정한 예인으로 거듭남) - 약점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연기를 찾은 영서

드라마 1화에 등장하는 「자명고」 무대는 시청자에게 1950년대 여성국극을 처음 선보이는 장면이자, 윤정년을 국극의 세계로 진입하게 만드는 서사적 장치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문옥경과 서혜랑의 연기는 난생처음 국극을 접한 정년에게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제작진은 「자명고」 무대를 바라보는 정년을 마치 텅 빈 객석에 홀로 앉아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연출함으로써 ‘여성국극’이라는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入社)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정년은 문옥경의 ‘호동왕자’ 연기를 보고 난 후 저녁에 홀로 이를

복기하며 국극에 대한 매혹과 배우로서의 욕망을 발견하게 된다.



[그림 3] TV드라마 <정년이> 1화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TV드라마 <정년이>에 등장하는 극중극과 훈련 신들은 모두 윤정년과 허영서의 성장 서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2화에서 두 사람은 첫 만남에 ‘사철가’를 번갈아 부르며 상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향후 상호 경쟁과 자극 속에서 둘의 관계가 본격화될 것을 암시한다. 예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윤정년은 자신이 범한 과오(목소리 상실)를 극복하고, 허영서는 타인의 기대(모친의 강압)에서 벗어나 본인의 연기를 찾아간다. 가령, 윤정년은 6화 극중극 ‘자명고’ 무대에서 과장된 연기로 실패를 경험하고, 7화 극중극 ‘자명고’ 무대(6화와 다른 무대)에서 절제된 연기와 감정 제어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한다. 허영서의 경우, 8화 ‘바보와 공주’ 오디션에서 극한의 연기를 펼치는 정년의 모습과 11화 거리 공연에서 ‘추월만정’을 짝 채워 부르는 정년을 보고 ‘진짜 연기’가 무엇인지 점차 깨닫게 된다. 특히, 11화에 등장하는 거리 공연 신은 떡목이 된 윤정년이 ‘빈 소리’를 짝 채우면서 진정한 예인으로 거듭나는 장면이자, 허영서가 내적 갈등을 끝내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장면으로서 의미가 있다. 마지막 회인 12화 ‘쌍탑전설’ 오디션에서 허영서는 혼신의 힘으로 자신만의 ‘아사달’을 연기하는데, 이는 정년을 통해 ‘진짜 연기’는 소리의 기교나 몸짓의 화려함이 아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성찰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림 4] TV드라마 <정년이> 11화, 12화

이처럼 드라마 <정년이>의 극중극 및 훈련 장면은 윤정년과 허영서의 경쟁과 자극, 실패와 극복 서사에 중요한 지점을 매개하며 두 사람이 예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이러한 장면들은 텔레비전이라는 시청각 매체의 특징을 십분 활용하여 시청자에게 생소한 ‘여성국극’을 감각적으로 복원한다. 1950년대 여성국극은 당시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²²⁾ 오늘날 전해지는 자료는 거의 없다. 드라마 <정년이>는 사라진 공연예술을 소재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시청자에게 감상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공연을 보는 드라마’라는 독자적 정체성을 구축한다.²³⁾ 특히 매란의 ‘새로운 왕자’ 윤정년이 ‘아사달’을 연기한 「쌍탑전설」은 서사적 클라이맥스이자, 예술적 성취의 정점으로 작품의 완성도와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TV드라마 <정년이>는 예인으로서 윤정년과 허영서의 성장 서사 안에 무대 위의 연기(극중극)와 무대 밖의 훈련 신을 긴밀하게 교차시키며, 여성국극을 사라진 문화가 아닌 ‘살아 숨 쉬는 문화’로

22) 1950년대 여성국극은 팬들이 남역 배우에게 혈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 보편적일 만큼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이 당시 국극배우들은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팬들이 식사와 의복을 챙기기도 했다. 윤현종, “1950년대 국극 팬들, 혈서까지 보내... <정년이> 원작 웹툰, 이렇게 만들었다”, 한국일보, 2024.10.27.

23) 드라마 <정년이>는 여성국극의 매력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 ‘극중극’에 힘을 쓰는 전략을 취한다. <정년이>를 연출한 정지인 감독은 “무대의 커튼이 열리는 순간, 마치 놀이공원에 처음 입장하는 듯한 기대감과 흥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며 당시 최고의 오락거리 중 하나였던 여성국극을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다고 말한다. 정민경, “[인터뷰] <정년이> 정지인 감독, 무대 커튼이 열리는 순간, 흥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미디어오늘, 2024.11.30.

복원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4. 재매개로 확장된 <정년이>의 예술적 상상력과 그 의미

이 장에서는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이론에 근거하여 TV드라마 <정년이>가 웹툰 <정년이>의 답습을 넘어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TV드라마 <정년이>는 원작 웹툰을 단순히 영상 매체로 전환한 결과물이 아니라, 원작의 기본 플롯을 유지하면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수성과 수용자의 시대적 감성에 기반하여 재구성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재매개 이론에 따르면 모든 미디어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보이고, 새로운 미디어는 기존 미디어의 형식과 기능을 흡수, 변형, 재현하는 과정을 거쳐 정체성을 구축한다.²⁴⁾ 따라서 웹툰 <정년이>의 서사가 드라마화 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서사적 변주는 미디어 간 상호작용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허술한 각색’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²⁵⁾

웹툰 <정년이>에서 윤정년과 권부용의 사랑은 서로의 꿈과 성장을 이뤄나가는 데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GL서사는 단순한 귀여움이 아니라, 여성의 인권이 낮았던 1950년대 사회적 억압에 대응하는 여성 연대를 상징한다. 그런데 TV드라마 <정년이>에서는 권부용 캐릭터와 GL서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윤정년과 허영서의 대결 구도를 기반으로, 천재적 재능을 지닌 정년이 실패와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의 여성영웅서사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에 대해 “원작 웹툰이 귀여운 서사를 다룬

24) Jay D. Bolter·Richard Grusin 저, 이재현 역, 앞의 책, 18쪽.

25) TV드라마 <정년이>는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던 만큼 방영 후 원작과 달라진 서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누리꾼들은 윤정년과 GL 관계에 있는 권부용이 드라마에서 삭제됨으로써 ‘극 전체의 완성도가 떨어졌다’거나 ‘허술한 각색’으로 ‘원작을 모욕하는 결말’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박지윤, “국극단 거처가 요정이 되다니... <정년이> 원작 파괴 결말 논란”, 한국일보, 2024.11.22.

만큼 드라마도 쿼어 여성서사를 가시화해야 한다²⁶⁾ 라는 주장은 미디어 간 재매개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원작 중심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드라마 <정년이>는 예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윤정년과 허영서를 통해 경쟁과 연대, 갈등과 화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좀 더 보편화된 여성영웅서사 전략을 취한다. 이때 허영서는 윤정년의 예술적 성장을 자극하는 경쟁자이자 조력자로 기능함으로써 웹툰 <정년이>의 권부용 캐릭터를 흡수한다. 허영서 역시 윤정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동안 자신을 묶어댈던 모친의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예인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드라마 <정년이>는 ‘매란국극단’이라는 여성공동체 안에서 윤정년과 허영서 두 사람의 감정적 연결을 우정과 연대로 확장시킨다. 웹툰 <정년이>가 1950년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서 GL서사를 그렸다면, TV드라마 <정년이>는 변화된 시대의 문화적 감수성 속에서 새로운 여성영웅서사를 표방한다. 요컨대, 웹툰 <정년이>의 드라마화에 나타난 서사적 변이는 여성의 연대의식보다 개인의 자아실현이 더욱 중요한 오늘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드라마가 원작의 GL서사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좀 더 대중적이고 보편화된 여성영웅서사로의 전환을 통해 예술적 상상력을 구현한 것이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TV드라마 <정년이>가 원작 웹툰을 재매개하는 과정에서 보인 예술적 상상력의 가장 강력한 결과물은 ‘극중극’이라 할 것이다. 영상 자료나 공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대중에게는 생소한 ‘여성국극’을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체 안으로 끌어와 시청각적 몰입을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26) 피라(Pyrrha), “<정년이>, 소리치는 웹툰과 침묵하는 드라마”, 여성신문, 2024.11.20.



[그림 5] 극중극 「춘향전」(左), 「쌍탑전설」(右)의 한 장면

TV드라마 <정년이>에 등장하는 여성국극은 「춘향전」, 「자명고」, 「바보와 공주」 그리고 「쌍탑전설」이다. 제작진은 이들 작품에 대해 별도의 연출자를 두고 고증을 거쳐 4~5차례 촬영하는 등 상당히 공을 들여 연출한다.²⁷⁾ 어느덧 망각의 저편으로 사라진 ‘1950년대 여성국극’이라는 공연예술을 마치 현재 시점에서 관람하는 듯한 시청각적 몰입을 통해 실재감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²⁸⁾



[그림 6] 극중극 「자명고」(左), 「바보와 공주」(右)의 한 장면

극중극을 통해 기억에서 사라진 공연예술의 미학과 정서를 재현하는 드라마의 전략은 주요 인물 구성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웹툰 <정년이>가 윤정년, 권부용, 허영서를 중심으로 윤정년의 성공과 사랑을 다루었다면,

27) 송윤경, “드라마인가, 공연 실황인가... 화제의 <정년이>”, 주간경향, 2024.11.25.

28) 제작진은 현재도 OTT 플랫폼에 따로 편집한 ‘극중극’을 제공하여 수용자들이 여성국극을 온전히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드라마 방영 당시에는 국극 무대 중심의 콘텐츠가 화제를 몰고 오며 공개 2주 만에 누적 조회 수 1천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신영은, “<정년이>, 영상 누적 조회 수 3억 뷰 돌파”, 스타투데이, 2024.11.06.

드라마 <정년이>는 윤정년, 허영서와 함께 문옥경, 서혜랑을 주요 인물로 전면에 배치한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 극중극에서 문옥경과 서혜랑의 비중이 작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가령, 「바보와 공주」에서 문옥경(온달)과 서혜랑(평강)은 여성국극 특유의 젠더 전복적 미학과 연극적 상상력을 강렬하게 표현한다. 국극계를 떠나기로 결심한 문옥경은 서혜랑과 함께 자신의 마지막 작품에서 최고의 연기를 펼치는데, 이들의 연기가 주는 감동은 해당 회차 방영시간(70분)의 약 30%에 해당하는 20여 분 동안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전달된다.

TV드라마 <정년이>의 서사 전략과 공연예술의 재현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가 지닌 대중성 및 시청각적 특성과 결합하여 예술적 상상력을 새롭게 구현한 사례로 읽을 수 있다. 진정한 예인으로 거듭나는 주인공의 여정과 잊혀진 공연예술의 미학을 동시대 대중과 공유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웹툰 <정년이>와 이를 원작으로 한 TV드라마 <정년이>를 대상으로, 드라마가 원작 웹툰을 ‘재매개(remediation)’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예술적 상상력과 문화적 함의를 지니는지 분석하였다. 볼터와 그루신이 제안한 재매개 이론은 기존 ‘각색(adaptation)’ 이론이 지닌 원작 중심 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매체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 드라마 <정년이>가 원작 웹툰의 쿼터 서사를 삭제함으로써 세계관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매체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고 있음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웹툰 <정년이>는 윤정년과 권부용 중심의 GL서사를 통해 1950년대 젠더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여성의 연대의지를 강조한다. 당시 여성국

극은 공연이 열리는 극장에 인파가 몰릴 정도로 흥행을 주도했지만,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여전히 현모양처에 국한되어 있었다. 웹툰 <정년이>에서는 국가적으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동했던 당대 사회에서 여성이 타자화되는 현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드러난다. 고 사장과 백도영은 유교적 사회의 보수적인 성 관념에 도전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기를 택한 이경자는 딸에게 용기 있는 조언을 함으로써 희망의 가능성을 남겨 놓는다.

TV드라마 <정년이>는 윤정년과 권부용의 GL서사 대신 천재적 역량을 지닌 윤정년이 외부의 시련을 넘어 진정한 예인으로 거듭나는 여성영웅서사 전략을 취한다. 윤정년은 허영서와의 경쟁과 연대, 모친 채공선과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며 예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한다. 모린 머독이 제시한 ‘여성영웅의 여정’에 부합하는 이러한 서사 전략은 여성공동체의 연대보다 개인의 주체적 자아실현이 더 중요해진 오늘날 수용자의 사회문화적 기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드라마 <정년이>는 극중극(劇中劇) 및 국극배우들의 훈련 신을 통해 기억에서 사라진 여성국극을 시청각적으로 재현함으로써 공연예술의 미학과 정서를 감각적으로 복원한다. 특히, 기존 국극계의 ‘왕자’였던 문옥경 주연의 「바보와 공주」, 그리고 국극계의 ‘새로운 왕자’가 된 윤정년 주연의 「쌍탑전설」은 무대 조명, 음향, 배우의 동작과 호흡까지 세밀하게 연출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 공연을 관람하는 것 같은 몰입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출 전략은 TV드라마 <정년이>의 고유한 정체성과 미학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웹툰 <정년이>와 TV드라마 <정년이>는 ‘재매개’의 핵심 내용, 즉 새로운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를 흡수하고, 변형하며, 경쟁하는, 상호 역동적 관계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드라마는 원작 웹툰의 주요 플롯(윤정년의 성장)을 전유하되, 오늘날 수용자가 폭넓게 공감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

아실현'에 초점을 둔 여성영웅서사로 치환하고, 시청각적 매체의 특수성을 살려 사라진 공연예술에 실재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변화는 원작의 주제 의식을 축소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예술적 상상력이 재구성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웹툰 <정년이>와 TV드라마 <정년이>는 '원작 충실도'의 기준을 넘어 미디어의 특성, 수용자의 기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예술적 상상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서이레·나문, 『정년이』 1-10, 문학동네, 2020-2024.
- 최시한, 『스토리텔링』,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4.
- Henry, Jenkins 저, 김정희원·김동신 역, 『컨버전스 컬처』, 비즈앤비즈, 2008.
- Jay D. Bolter·Richard Grusin 저, 이재현 역, 『재매개: 뉴미디어의 계보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Maureen, Mrudock. *The Heroine's Journey-Woman's Quest for Wholeness*, Boulder: Shambbala, 1990.

논문

- 김은영, 「웹툰 <미생>의 재매개 과정에서 나타난 디지털 서사의 변주」, 『미디어, 젠더&문화』 31권2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45-80쪽.
- 김미라,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사례 연구: 웹툰 <미생>의 드라마 <미생>으로의 재매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15, 130-140쪽.
- 김민경, 「매체 전환의 관점에서 살펴본 콘텐츠 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크로스미디어와 트랜스미디어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19.
- 박보람, 「귀여 여성 GL 향유자들의 문화실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21.
- 송소라, 「웹툰 <정년이>를 통해 본 여성공동체 서사의 재맥락화 양상과 의미」, 『어문학』 161집, 한국어문학회, 2023, 143-179쪽.
- 이용복, 「극중극의 특성 및 그 의미에 대한 연구」, 『한국연극학』 통권 46호, 한국연극학회, 2012, 199-232쪽.
- 정혜경, 「웹툰 <미생>과 드라마 <미생>의 서사담론 분석을 통한 세계관 비교」,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3집 2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22, 147-189쪽.

조희영,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스토리세계 확장 전략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통권71호,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23, 425-453쪽.

신문기사

박지윤, “국극단 거처가 요정이 되다니... <정년이> 원작 파괴 결말 논란”, 한국일보, 2024.11.22.

송윤경, “드라마인가, 공연 실황인가... 화제의 <정년이>”, 주간경향, 2024.11.25.

신영은, “<정년이>, 영상 누족 조회 수 3억 뷰 돌파”, 스타투데이, 2024.11.06.

윤현종, “1950년대 국극 팬들, 혈서까지 보내... <정년이> 원작 웹툰, 이렇게 만들었다”, 한국일보, 2024.10.27.

이혜진, “<정년이>, 국내외 주요 시상식 동시 노미네이트, 연속 수상 기대감↑”, 국제뉴스, 2025.04.08.

정민경, “[인터뷰] <정년이> 정지인 감독, 무대 커튼이 열리는 순간, 흥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미디어오늘, 2024.11.30.

피라(Pyrrha), “<정년이>, 소리치는 웹툰과 침묵하는 드라마”, 여성신문, 2024.11.20.

인터넷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문화산업진흥기본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65857&efYd=20250423#0000.html>, 2025.05.04.

TV드라마 <정년이> 홈페이지, <https://tvn.cjenm.com/ko/Jeongnyeon/special/about>, 2025.05.10.

기타

TV드라마 <정년이>, 최효비 극본, 정지인 연출, tvN, 2024.10.12. ~2024.11.17.(12부작)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웹툰 <정년이>와 이를 원작으로 한 TV드라마 <정년이>를 대상으로, 드라마가 원작 웹툰을 ‘재매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예술적 상상력과 문화적 함의를 규명한 글이다. 이를 위해 기존 ‘각색’ 이론이 지닌 원작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미디어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 볼터와 그루신의 재매개 이론을 적용하여 두 작품의 서사 전략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TV드라마가 원작 웹툰의 서사와 주제의식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매체 특성과 수용자의 문화적 기호를 반영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서사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웹툰 <정년이>는 1950년대 여성국극을 소재로, 윤정년과 권부용의 GL 서사를 통해 당대 젠더 권력에 대항하는 상징적 의미로서 여성의 연대를 강조한다. 또한, ‘남장’을 선택한 고 사장, 여자가 싫어 ‘왕자’를 포기한 백도앵 등의 인물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타자화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드러내는 한편, 이경자 캐릭터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의 가능성도 남겨 놓는다. TV드라마 <정년이>는 원작 웹툰의 GL 서사를 답습하지 않고, 천재적 재능을 지닌 윤정년이 진정한 예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여성영웅서사로 재구성한다. 또한 ‘극중극’과 훈련 재현을 통해 대중에게 잊혀진 1950년대 여성국극을 감각적으로 복원한다. 특히, 실제 공연을 방불케 하는 무대 연출은 ‘공연을 보는 드라마’라는 고유의 미학과 정체성을 획득하는 데 기여한다.

TV드라마 <정년이>는 원작 웹툰의 주요 플롯을 전유하면서도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대중적 기호를 반영해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낸다. 이러한 변화는 원작의 주제를 단순히 축소하거나 왜곡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 간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매체 환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예술적 상상력의 발현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 시대에 ‘원작 충실도’ 평가에서 벗어나 재매개 이론을 적용해 콘텐츠 분석의 틀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재매개, 예술적 상상력, 여성국극, GL 서사, 여성영웅서사

■ Abstract

A Study on Artistic Imagination through Remediation : the case of the TV drama adaptation of the webtoon ‘Jeongnyeoni’

Lee, Su Hyun /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This study explores the artistic imagination and cultural implications manifested in the remediation process of the webtoon Jeongnyeoni into a television drama. Applying Bolter and Grusin's theory of remediation, it analyzes how the drama reconfigures the webtoon's narrative not by diminishing its themes but by adapting them to the medium-specific aesthetics and audience sensibilities of television.

The original webtoon emphasizes female solidarity against 1950s gender hierarchies through a GL narrative between Yoon Jeongnyeon and Kwon Buyong, and introduces characters like the cross-dressing President Go and Baek Doaeng, who rejects traditional roles, to critique women's social marginalization. The drama, in contrast, reframes the GL narrative as a female hero narrative centered on Jeongnyeon's artistic growth, and revives the forgotten tradition of 'Female Gukgeuk' (women's national drama) through play-within-play techniques and performance scenes, establishing a unique aesthetic as a 'drama that watches a performance'.

By integrating the webtoon's core narrative with the expressive capacities of television, the drama does not distort the original but demonstrates artistic imagination shaped by intermedia interaction and social-cultural context. This study contributes to content analysis in the cultural industries by shifting the focus from fidelity to the source toward a remediation-based framework.

Keyword • remediation, artistic imagination, Female Gukgeuk, GL narrative, female hero narrative

■ 논문투고일:2025.05.28. ■ 심사완료일:2025.06.20. ■ 게재확정일:2025.07.07. ■

진주오광대 탈 연구

: 탈 제작자 황병권의 활동을 중심으로

박 연 수*

목 차

1. 서론
2. 탈 제작자 황병권의 진주오광대 탈 복원 과정
3. 복원 이후 진주오광대 탈의 변화 양상과 의의
4. 결론

1. 서론

진주오광대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탈춤¹⁾이며, 총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과장은 5명의 신장이 춤추는 오방신장무 과장, 제2과장은 5명의 문둥이가 등장하는 문둥이 과장, 제3과장은 양반·말뚝이 과장, 제4과장은 중 과장, 제5과장은 할미 과장이다.²⁾

진주에는 크게 세 가지의 오광대가 전승되었다고 전해진다. 첫 번째는 진주 시내에서 토박이들이 놀았던 토박이 오광대, 두 번째는 과거 진양군

* 박연수 중앙대학교 문화재학과 민속학전공 박사 수료

1) 탈춤은 탈놀이, 탈놀음, 가면극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는 한국의 '탈춤'이라고 명명한 점과 편의 상을 위해 본고에서는 '탈춤'으로 통일하도록 한다.

2) 정병훈, 『진주 오광대 탈놀음』, 지식산업사, 2007, 51쪽.

도동면 하대리였던 현재 진주시 하대동에서 전승되던 도동오광대, 세 번째는 유랑예인집단인 솟대쟁이패가 놀았던 떠돌이 오광대가 그것이다. 이중 솟대쟁이패의 떠돌이 오광대는 현재 사라진 상태고, 세 오광대가 동시대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진주가 솟대쟁이패의 본거지였고, 도동오광대 연희자들이 진주 토박이 오광대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점을 보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진주오광대는 토박이 오광대에 일부 도동오광대의 영향을 받아 전승되고 있다고 전해진다.³⁾

진주오광대는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에 전승이 중단되다가 1998년에 복원에 성공한다. 1960년대에 여타 탈춤처럼 진주오광대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30여 년 후인 1997년 제2회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실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진주오광대 복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삼광문화연구재단과 대학 탈춤 동아리 출신 지역민을 비롯한 진주 시민들이 모여 1998년 1월 진주오광대복원사업회를 발족하였다. 당시 유일한 생존 연희자였던 배또문준⁴⁾의 증언, 남아 있던 4가지의 재담 채록본과 30여 개의 탈을 활용하고, 탈춤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재연 작업을 수행하여 마침내 그 해 제3회 진주탈춤한마당에서 복원 공연을 선보인다. 진주오광대는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3년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現 무형유산)으로 지정, 2022년에 여타 17개의 탈춤과 함께 ‘한국의 탈춤’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⁵⁾

진주오광대는 60여 년간 단절로 인해 현실적으로 옛 방식 그대로의 복

3) 해당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 집문당, 1986.’과 ‘정상박, 「진주지역 오광대 전승 양상」, 『배달말』 22권 1호, 배달말학회, 1997.’ 참고.

4) 배또문준은 본래 도동오광대 연희자였으며, 진주오광대 복원 사업에 참여 후 진주오광대보존회 예능보유자가 된다.

5) 정병훈, 앞의 책, 15-20쪽.

원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탈춤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은 물론 진주 시민들도 동참하여 복원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 이는 무형유산으로의 지정까지 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탈춤 연구사에서도 학술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진주오광대는 다른 지역의 탈춤과 비교했을 때 논의가 적은 편이며, 특히 탈춤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탈’에 대한 선행 연구 자체도 탈춤 관련 연구 내에서도 미미하다. 탈 또는 가면을 주제로 한 선행 연구는 크게 탈 자체에 대한 이론적·상징적 연구를 했거나,⁶⁾ 탈춤에서 사용되는 탈을 주제로 한 연구⁷⁾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후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개

6) 김종해, 「탈(가면)의 정신의학-탈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 5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82; 임재해, 「탈이 지닌 종교적 의미와 주술적 기능」, 『민속연구』 4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4; 김길수, 「탈의 상징미학」, 『사회과학연구』 9권,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임재해, 「암각화를 통해 본 탈의 기원과 그 기능의 변모」, 『민속연구』 7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7; 조운경, 「원시예술 가면의 초현실주의적 미학」, 『프랑스학연구』 85호, 프랑스학회, 1997; 최은아, 「유럽문화사에 나타난 가면과 정체성의 관계 연구(1)」, 『헤세연구』 44권, 한국헤세학회, 1997; 이성재, 「가면(假面)에 나타난 경계(境界)-能面の 연기(演技)와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4권 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이선형, 「가면, 그 진실한 얼굴」,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9권,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2; 남기성, 「탈(假面)-감춤을 통한 드러남의 미학」,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김지원, 「한국춤에서 가면의 역할과 상징에 관한 의미 해석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72호, 한국언어문화예술학회, 2020 등 다수.

7) 이두현, 「한국의 가면」, 『동아문화』 5권,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6; 최상수, 『한국 가면의 연구』, 성문각, 1984; 심우성 글·박옥수 사진, 『탈』, 대원사, 1994; 전경옥, 『한국의 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태학사, 1996; 김훈, 「캐릭터사업을 위한 안동 하회탈의 시각화」,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1호, 한국디자인학회, 1999; 김완배, 「하회탈의 조형미와 그 제작과정」, 『아시아민족조형학보』 6권 1호,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06; 김윤미·구자명, 「한국 전통탈의 분장효과와 미적가치-봉산탈과 하회탈을 중심으로-」,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4권 2호,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2008; 임재해 등, 『하회탈』, 2 한국인의 얼굴, 민속원, 2005; 김은영, 「산대탈의 전승 현황과 완보/말뚝이의 변천 양상: 산대놀이의 변천 과정 재구를 위한 시론」, 『구비문학연구』 31호,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 고재성·김현기, 「전통문화를 활용한 디자인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하회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권 1호, 2011; 정

별 주제로는 하회탈의 선행 연구가 가장 다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회탈을 제외한 개별 탈 연구로 김은영은 기존 산대놀이 탈과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산대놀이 탈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 중인 산대탈의 전승 현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면서 산대탈의 유형과 특징을 보완하였다. 그는 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한 이후로 탈춤에서 탈 연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고 인식되는 학계의 분위기와 새로운 탈 유물이 발견되지 못하여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에 아쉬움을 표했다. 사진실은 산대놀이 변천 과정을 정리하고자 완보/말뚝이를 중심으로 산대탈의 전승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효녕은 송파산대놀이 연희자였던 허호영이 제작했던 송파산대놀이 탈의 변모 과정 분석을, 남진아는 무형유산 지정 전후를 중심으로 고성오광대 연희용 탈의 변화 양상을 통해서 이것이 연희환경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았다. 진주오광대 탈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김수현의 학술논문이 유일하다. 그는 진주오광대 탈의 수집 시기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그중에 문둥이 과장에 등장하는 5명의 문둥이가 사용하는 탈인 오문둥탈에 집중하여 조형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송석하·최상수가 수집한 탈에 대한 설명으로 진주오광대 복원 이전의 과거에 사용했던 탈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나, 오문둥탈의 조형성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복원 과정 혹은 그 이후의 진주오광대 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혜정, 「전남지역 잡색놀이 속의 탈의 의미」, 『남도민속연구』 23권, 남도민속학회, 2011; 김수현, 「진주오광대 문둥탈의 유형과 조형성」, 『민족미학』 12권 1호, 민족미학회, 2013; 안영지, 「한국 하회탈과 일본 노멘의 형태와 제작기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이효녕, 「허호영 제작 송파산대놀이 탈의 실재와 그 특징」, 『한국민속학』 70권, 2019; 남진아, 「고성오광대 연희용 탈의 변화 양상」, 『공연문화연구』 41호, 한국공연문화학회, 2020; 이정근, 「하회탈의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6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0; 김은영, 「산대탈의 유형과 특징」, 『한국민속학』 74권, 한국민속학회, 2021;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국보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2024 등 다수.

본고에서는 진주오광대 탈을 복원 과정과 복원 이후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진주오광대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탈 제작자이자 연희자인 예능보유자 후보 황병권이 있다. 그는 진주오광대 복원 작업에서 탈 제작을 담당했고, 현재도 진주오광대보존회 내에서 유일하게 탈을 제작하고 있다. 먼저 탈 제작자이자 연희자인 황병권을 진주오광대와 관련한 활동 이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한다. 그다음에는 진주오광대 탈을 어떻게 복원했는지, 복원 이후 변화한 양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술한 후 진주오광대 탈의 복원과 변화 양상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다만 진주오광대를 복원하는 과정에 탈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비교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히며, 진주오광대 탈을 사진, 구술자료, 문헌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2. 탈 제작자 황병권의 진주오광대 탈 복원 과정⁸⁾

1) 진주오광대 탈 제작자·연희자 황병권

진주오광대 예능보유자 후보⁹⁾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탈 제작과 연희를

8) 진주오광대보존회에서 발간한 “『진주오광대』(형평출판사, 2002)”에서 진주오광대의 복원 이전과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주오광대 탈을 소개한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진주오광대 탈 복원 과정과 관련된 내용과 이미 지 활용은 황병권의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탈 복원과 관련하여 활용되는 사진은 “진주오광대보존회, 『진주오광대』(형평출판사, 2002)”와 황병권으로부터 제공 받은 사진 위주로 정리해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참고로 “진주오광대보존회, 『진주오광대』(형평출판사, 2002)”는 진주오광대 전승교육사 남성진으로부터 제공 받았다. 이 지면을 통해 남성진·황병권 두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9) 황병권이 예능보유자 후보로 선정될 당시 경상남도 전승 체계에는 예능보유자와 전승교육조교 사이에 예능보유자 후보가 있었다. 2013년 7월 28일 경남도민일보 “[전통을 잇다] 진주 ‘광대탈방’ 황병권 대표”라는 제목의 기사에 전승교육조교로 소개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예능보유자 후보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서정인, “[전통을 잇다] 진주 ‘광대탈방’ 황병권 대표”, <경남도민일보>, 2013.07.28.)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진주오광대보존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가 진주오광대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된 시기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제1회 진주탈춤한마당을 주관하던 문화예술단체인 ‘큰들문화예술센터’에서 활동하던 지인을 통해 합류했다. 당시 탈 제작 경험이 전무한 대학생이었던 황병권은 제1회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실시하는 일종의 거리굿 ‘조선 천지탈 행렬’에 사용될 대형 스티로폼 소재의 탈 70~80개를 직접 만들었다. 비록 얼굴에 쓰는 용도로 작업한 탈은 아니었으나, 황병권이 앞으로 진주오광대의 탈을 제작하는데 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듬해인 1997년 제2회 진주탈춤한마당의 학술 심포지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진주오광대 복원 사업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하였다.

진주오광대 복원 배경으로는 1990년대에 진주 지역의 문화를 가꾸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삼광문화연구재단’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으로 ‘진주탈춤한마당’을 개최하였는데, 한국의 탈춤 축제로는 진주의 탈춤 한마당이 최초였다. 여기에 진주오광대를 복원함으로써 진주가 진주오광대의 본고장임을 깨우치고자 탈춤 한마당을 개최한 의도도 내포되어 있었다. 1997년 제2회 진주탈춤한마당의 학술 심포지엄 이후 그해 9월에 제1회 진주탈춤한마당 참여자들이 모여 복원 사업을 위한 모임을 구성했는데, 이때 황병권은 당시 삼광문화연구재단 이사장이었던 김수업의 제안으로 진주오광대 복원 사업에서 탈 제작을 맡게 되었다.¹⁰⁾

삼광문화연구재단과 진주 시민이 모여 1998년 1월에 진주오광대복원사업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진주오광대 탈, 재담, 춤, 연희, 음악, 복식 등의 재연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문하였다. 탈의 경우 전경옥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던 진주오광대 탈을 사진으로 정리해서 편찬한 저서를 기반으로, 여기에 국립중앙박물관 측에서도 협조

10) 정병훈, 앞의 책, 15-17쪽.

하여 학계 전문가들과 탈 제작자들의 자문을 통해 황병권이 제작하였다. 약 1년 동안의 작업으로 제3회 진주탈춤한마당 기간인 1998년 5월 23일 남가람문화거리 야외공연장에서 처음으로 진주오광대 재연 발표 공연을 선보였다.¹¹⁾ 이때 황병권도 연희자로 출연했다.

이후 2000년에는 진주오광대복원사업회가 ‘진주오광대보존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까지도 진주오광대 전승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¹²⁾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복원과 동시에 입회하여 사무국 업무를 꾸준히 맡고 있다.¹³⁾ 그는 이 외에도 2004년에 탈 제작자로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여 진주오광대 복원 사업 때 재현해 낸 진주오광대 탈과 창작탈¹⁴⁾ 전시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 활성화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인 대상으로 한 진주오광대 탈 및 창작탈 만들기 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2) 황병권의 진주오광대 탈 복원 과정

황병권은 1997년 진주오광대 탈 복원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탈에 대한 완전한 자료가 없어 난항을 겪던 중, 1996년에 문화체육부(現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기획하고 전경옥이 집필한 『한국의 탈』이라는 저서에 진주오광대 탈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송석하가 1930년대에 진주오광대 탈 10여 점을 비롯하여 총 50여 개를 수집한 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 최상수가 수집한 진주오광대 탈이 몇 점 있다는 이야기도 들

11) 정병훈, 앞의 책, 18-19쪽.

12) 정병훈, 앞의 책, 20쪽.

13) 1997년에 진주오광대 복원하고 쪽 사무국 일원으로서 업무를 맡았으며, 사무국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하여 학업으로 1년 반 정도 잠시 중단한 시기 외에는 계속 담당했다고 밝혔다(황병권, 진주오광대 예능보유자 후보, 사무국장, 2024년 12월 20일 면담).

14) 창작탈은 전통탈 제작 기법으로 재해석하여 만든 탈과 진주 백정 형평운동을 소재로 한 창작탈춤 <백정> 등장인물의 탈을 전시하였다.

었다. 황병권은 진주시를 통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진주오광대 탈을 촬영·실측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고, 두 박물관의 협조로 1998년에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2월 27일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진주오광대 탈에 대한 촬영과 1차 실측을 무사히 완료하였다.¹⁵⁾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한 탈은 오방신장 5점, 문둥이 5점, 웅생원 1점, 차생원 1점, 노장 1점으로 총 13점이며 나무로 제작되었다. 최상수는 진주오광대 탈을 총 29점을 수집¹⁶⁾했으나 황병권이 1998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 방문했을 당시 실제로 확인했던 탈은 총 13점의 목탈 뿐이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보관된 탈은 오방신장 6점, 문둥이 5점, 어덩이 1점, 무시르미 1점, 노장 1점, 할미 1점, 순사 검 남소무 2점 해서 총 17점¹⁷⁾으로, 바가지로 만든 문둥탈 5점을 제외하고 모두 종이로 만들어졌다. 황병권이 1차 실측 및 촬영한 사진 중에서 남아 있는 기록으로 국립민속박물관 탈은 총 5점, 국립중앙박물관 탈은 총 14점이다.¹⁸⁾

그가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각각 진주오광대 탈을 기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진주오광대보존회, 『진주오광대』, 형평출판사, 2002, 261쪽.

16) 29점의 탈 목록으로는 오방신장(목탈) 5점, 오방신장(종이탈) 5점, 오문둥이(목탈) 5점, 오문둥이(바가지탈) 5점, 생원님(목탈) 1점, 웅생원(목탈) 1점, 차생원(바가지탈) 1점, 중(목탈) 1점, 상좌(종이탈) 1점, 무시르미(바가지탈) 1점, 어덩이(바가지탈) 1점, 소무(종이) 2점이다(김수현, 앞의 논문, 78쪽에서 인용).

17) 송석하가 수집한 탈은 본래 19점이었으나 그 중 2점이 소실된 상태로 알 수 없어 황병권이 직접 확인한 탈은 총 17점이다.

18)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탈과 관련하여 기존에 자료를 보관하던 외장하드의 고장으로 상당수가 소실되었다고 밝혔다(2024년 12월 20일 면담).

[표 1]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진주오광대 탈(최상수 수집)

탈 사진					
이름	오방신장탈 (동방청제장군)	오문둥탈(1)	오문둥탈(2)	생원탈	용생원
재질	나무	나무	나무	나무	나무
크기(cm)	높이 55× 너비 25	높이 27× 너비 20	높이 27× 너비 20	높이 25.5× 너비 15	높이 26× 너비 18

[표 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진주오광대 탈(송석하 수집)

탈 사진							
이름	중앙황제 장군(1)	남방적제 장군	문둥이 (향탈)	문둥이 (적탈)	문둥이 (청탈)	문둥이 (백탈)	문둥이 (흑탈)
재질	종이	종이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크기(cm)	높이 74× 너비 27.5	높이 74× 너비 27.5	높이 28× 너비 24	높이 24× 너비 24	높이 28× 너비 27	높이 24× 너비 24	높이 28× 너비 27.5
탈 사진							
이름	중앙황제 장군(2)	어덩이	무시르미	상중	할미	순사 겸 남소무(1)	순사 겸 남소무(2)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cm)	높이 74× 너비 27.5	높이 32.5× 너비 22	높이 32.5× 너비 22	높이 26× 너비 22	높이 28× 너비 23	높이 26.5× 너비 21	높이 26.5× 너비 21

위의 표들은 황병권이 박물관에 방문해서 진주오광대 탈을 촬영하고 기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황병권이 주어진 시간 내에 직접 자를 이용해 탈의 크기를 재서 기록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 상세한 실측 과정을 담은 모

습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최상수가 수집한 탈의 경우 오방신장탈과 오문동탈은 비록 현재 모습의 진주오광대 탈과는 일부 차이가 있어도 유사한 양상이 있으나, 생원탈과 웅생원탈은 현재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먼저 동방청제장군은 치켜 올라간 눈꼬리에 양 눈알은 주변에 금색으로 둘렀다. 입은 작게 벌려 있고 그 사이에 송곳니가 팔(八)자로 그려져 있으며, 송곳니와 입 주변, 턱의 수염 부분도 금색으로 칠해져 있다. 오문동탈(1)은 청색, 오문동탈(2)는 백색으로 바탕을 칠했다. 오문동탈(1)은 양 눈의 위치가 비교적 대칭에, 입도 덜 비뚤어져 있고 이가 가지런히 박혀 있는 반면에 오문동탈(2)는 양 눈의 위치가 비대칭에 윗송곳니가 오문동탈(1)에 비해 강조되었다. 생원탈은 누런 바탕색에 눈썹은 검고 눈썹 끝이 치켜 올라가 있다. 눈 테두리와 눈알은 검정색으로 그렸고 코는 크고 입은 웃고 있으며 코 밑과 턱에는 수염을 붙였던 구멍이 여러 개 있다. 웅생원탈은 생원탈보다 얼굴이 길고 가름하다. 전반적으로 생원탈과 비슷하나 입 모양이 팔(八)자형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코 밑과 턱에는 수염을 붙였던 구멍이 여러 개 있다.¹⁹⁾

반면에 송석하 수집 탈은 현재의 진주오광대 탈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중앙황제장군 탈은 2점이 남아 있는데, 위의 중앙황제장군(1)은 수염 끝이 휘어져 있는 반면 중앙황제장군(2)는 수염 끝이 뾰족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중앙황제장군 탈을 추가적으로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둥이 흑탈의 경우 바탕색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 오방신장탈과 오문동탈은 오방색의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본래 흑색이어야 하나 당시에 오방색 관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병권이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당시 두 기관

19) 진주오광대보존회, 앞의 책, 115-116쪽.

에서는 공통적으로 진주오광대의 말뚝이탈이 없었다. 최상수는 문둥탈을 대신 쓰고 말뚝이는 문둥탈과 겸용이라고 설명하였고,²⁰⁾ 김수현은 동아일보 1934년 신문 기사에 말뚝이가 쓰고 나온 탈은 문둥탈로 확인하여 사실상 최상수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였다.²¹⁾ 송석하의 수집탈 목록에도 말뚝이탈이 등장하지 않는데, 정작 송석하가 1934년에 채록한 대사본에서는 제3과장 도입부에 바가지탈을 쓴 말뚝이가 등장하여 문둥이를 마편(馬鞭)으로 쫓아낸다고 나온다. 이는 말뚝이탈이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송석하 수집탈에서 소실된 2점의 탈을 두고 황병권을 비롯하여 선학들은 그 2점이 생원탈과 말뚝이탈이라고 보는 반면, 김수현은 생원과 말뚝이는 다른 배역의 탈과 겸용해서 사용한 점과 탈에 표기된 번호 목록에서 순서상으로는 생원과 말뚝이일 가능성은 낮고 소무탈과 상좌탈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²⁾

말뚝이탈 존재 유무에 대한 선학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필자의 생각을 크게 두 가지 가설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말뚝이를 문둥탈과 겸용해서 사용했을 경우이다. 사실 진주오광대를 비롯하여 오광대 내에서는 말뚝이는 양반과 더불어 놀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말뚝이를 할 때 문둥탈을 겸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그러나 복원 과정에서 진주오광대 탈을 확인할 당시 말뚝이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탈춤은 탈을 쓰고 노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당시에 등장인물에 대한 탈 자체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송석하는 진주오광대를 관람했으나 해당 공연이 매년 자연적으로 전승되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 부흥을 위한 기획 공연을 관람한 점,²³⁾ 박용근의 구술에

20) 진주오광대보존회, 앞의 책, 65쪽.

21) 김수현, 앞의 논문, 84쪽.

22) 김수현, 앞의 논문, 75쪽.

23) 송석하, 「南鮮 假面劇의 復興氣運-晉州人士의 誠意적 企劃」, 동아일보, 1934,

의존해서 대사본을 채록한 점 때문에 대사본의 내용이 실제 공연과는 다를 수 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두 번째는 말뚝이탈이 원래 별도로 존재했으나 소실된 경우이다. 동아일보 1934년 4월 22일 신문에서 말뚝이가 생원, 차생원, 웅생원, 할미광대와 같이 찍힌 사진이 있다. 해당 사진은 다음과 같다.²⁴⁾



[그림 1] 1934년 4월 22일 동아일보에 실린 진주오광대

[그림 1]에서 왼쪽부터 생원, 말뚝이, 차생원, 웅생원, 할미광대 순서로 서 있다. 말뚝이탈은 원형에 윗송곳니가 강조된 모습이 언뜻 보면 문둥탈과 흡사해 보인다. 그러나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이 흐릿하여 탈의 자세한 모습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어쩌면 말뚝이탈이 원형에 윗송곳니를 강조한 문둥탈과 유사한 모습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송석하가 채록한 대본에서는 제3과장 도입부에서 말뚝이는 문둥이가 있을 때 등

4월; 『韓國民俗考』, 일지사, 1960, 374쪽.(여운항, 「진주오광대의 복원과 정통성 확보 과정」,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3쪽에서 재인용).

24)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동아일보 1934년 4월 22일자 신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4042200209103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34-04-22&officeId=00020&pageNo=3&printNo=4802&publishType=00010>, 2025.04.16.

장하기 때문에 말뚝이의 문둥탈 검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말뚝이탈에 대한 필자의 소고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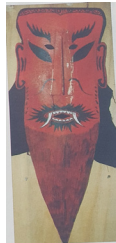
1) 말뚝이탈은 문둥탈과 검용해서 사용했으며, 실제 연희했을 때 당시 내용은 송석하 채록 대사본과 차이가 있다.

2) 말뚝이탈은 문둥탈과 유사한 형태로 별도로 존재했었으나, 소실된 상태여서 남아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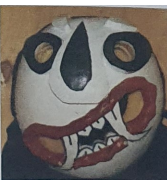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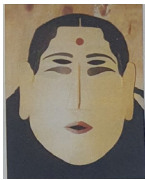
어쨌든, 진주오광대를 복원하는 과정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말뚝이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병권은 말뚝이탈을 재현할 때 문헌자료와 전문가의 고증에 기반하고 문둥탈의 이미지를 일부 참고하여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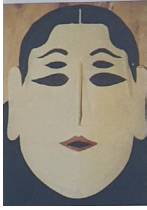
1996년 제1차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진주오광대 복원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되고 약 2년간 추진 과정을 통해 마침내 진주오광대 탈 복원에 성공하며, 해당 탈로 그 해 개최한 제3회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진주오광대 복원 공연에서 활용된다. 1998년에 복원한 진주오광대 탈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²⁵⁾

[표 3] 1998년에 복원한 진주오광대 탈 목록

탈 사진				
이름	오방신장 (중앙황제장군)	오방신장 (동방청제장군)	오방신장 (남방적제장군)	오방신장 (서방백제장군)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cm)	높이 74×너비 27.5	높이 74×너비 27.5	높이 74×너비 27.5	높이 74×너비 27.5

25) [표 3]에 정리한 생원탈은 1999년에 제작되었다. 최초 복원 당시 생원탈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Ⅲ. 복원 이후 진주오광대 탈의 변화 양상'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탈 사진				
이름	오방신장 (북방흑제장군)	오문둥이(황탈)	오문둥이(청탈)	오문둥이(적탈)
재질	종이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크기(cm)	높이 74×너비 27.5	높이 28×너비 25.5	높이 29×너비 25	높이 27×너비 24.5
탈 사진				
이름	오문둥이(백탈)	오문둥이(흑탈)	어당이	무시르미
재질	바가지	바가지	종이	종이
크기(cm)	높이 28.5×너비 25	높이 28×너비 30	높이 32.5×너비 22	높이 20.5×너비 19
탈 사진				
이름	생원	말뚝이	차생원	옹생원
재질	바가지	바가지	종이	종이
크기(cm)	높이 31×너비 27	높이 36.5×너비 32.5	높이 41×너비 22	높이 30.7×너비 22
탈 사진				
이름	영양공주 검 팔선녀 1	난양공주 검 팔선녀 2	팔선녀 3	팔선녀 4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cm)	높이 26.5×너비 21	높이 26.5×너비 21	높이 26.5×너비 21	높이 26.5×너비 21

탈 사진				
이름	팔선녀 5	팔선녀 6	팔선녀 7	팔선녀 8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cm)	높이 26.5×너비 21	높이 26.5×너비 21	높이 26.5×너비 21	높이 26.5×너비 21
탈 사진				
이름	노장(중)	상좌	순사 검 남소무 1	순사 검 남소무 2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cm)	높이 26×너비 22	높이 23×너비 21	높이 26.5×너비 21	높이 26.5×너비 21
탈 사진				
이름	할미	의원	봉사	무시르미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cm)	높이 28×너비 23	높이 30.8×너비 22.5	높이 25.5×너비 21	높이 20.5×너비 19

황병권은 1차 복원에서 총 32점의 탈을 제작할 때 송석하가 수집한 탈과 사진을 모본으로 삼았다. 그 배경에는 1997년 제2회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실시한 학술 세미나에서 진주오광대 복원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학자들 사이에서 당시 남아 있던 네 가지의 대사본(정인섭본·송석하본·최상수본·이명길본) 중에 송석하본이 그나마 정확한 기록을 남겼다고 평가했고, 아

울러 송석하가 탈과 탈 사진을 남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송석하 수집 탈을 복원에 활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⁶⁾

황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송석하 수집 탈을 실측·촬영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복되는 탈은 제외하고 16점의 탈을 제작하였고, 나머지 16점의 탈은 최상수가 수집한 탈에서 이미지를 차용하였다. 그중에서도 송석하·최상수가 공통적으로 보유하지 않았던 탈은 오광대 전승 계통에서 진주오광대와 가까운 가산오광대탈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새롭게 제작하였다. 진주오광대 탈만의 특징이 특히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으로 종이탈은 눈이 4개라는 점이다. 송석하가 수집한 탈 중 종이탈(오방신장·어딩아·무시르미·노장·할미·순사 겸 남소무)은 모두 눈이 4개였기 때문에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이는 방상씨탈을 참고하면서, ‘형상으로서의 눈 2개’와 ‘연희자가 밖을 보기 위해 만든 구멍 2개’로 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팔선녀는 본래 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탈춤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복원을 계기로 탈을 새로 만들었다. 그런데 생원탈의 경우 최상수 수집 탈 목록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송석하가 1934년에 동아일보에 발표한 진주오광대 사진을 기반으로 최상수가 목제탈을 별도로 제작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⁷⁾ 황병권은 생원탈도 가산오광대 탈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눈은 두 개로 만들면서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말뚝이탈은 앞서 언급했듯이 문동탈의 이미지를 차용했기 때문에 일부 유사한 특징이 반영되었다.

26) 진주오광대보존회, 앞의 책, 165-1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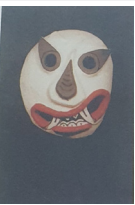
27) 진주오광대보존회, 앞의 책, 3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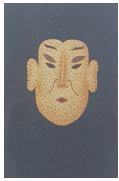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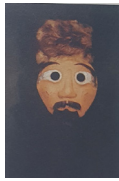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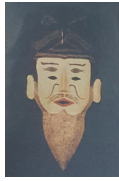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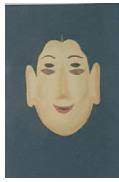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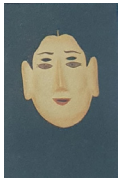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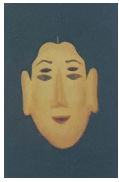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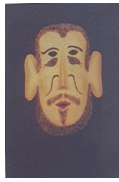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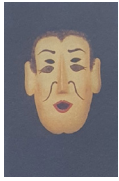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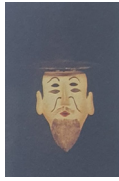
3. 복원 이후 진주오광대 탈의 변화 양상과 의의

1) 복원 이후 진주오광대 탈의 변화 양상

1998년 제3회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진주오광대 복원 및 재현을 성황리에 마친 후, 황병권은 2000년부터 2001년 중반기까지 기간에 걸쳐 진주오광대 탈에 가장 큰 변화를 준다. 재질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했으나 평면으로 제작했던 1차 복원 때와는 다르게 2차 복원에서는 탈의 형태를 입체로 바꿔 제작하였다. 평면탈은 연희자가 착용하기에 불편한 감이 있어 보다 편안한 착용을 위해 입체로 변경한 것이다. 약 2년 간의 작업 끝에 새로 제작한 진주오광대 탈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 4] 복원 이후 2000~2001년에 제작한 진주오광대 탈

탈 사진					
이름	오방신장 (중앙황제장군)	오방신장 (동방청제장군)	오방신장 (남방적제장군)	오방신장 (서방백제장군)	오방신장 (북방흑제장군)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 (cm)	높이 74× 너비 27.5	높이 74× 너비 27.5	높이 74× 너비 27.5	높이 74× 너비 27.5	높이 74× 너비 27.5
탈 사진					
이름	문둥이 (황탈)	문둥이 (청탈)	문둥이 (적탈)	문둥이 (백탈)	문둥이 (흑탈)
재질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바가지
크기 (cm)	높이 28× 너비 25.5	높이 29× 너비 22.5	높이 27× 너비 24.5	높이 28.5× 너비 25	높이 28× 너비 30

탈 사진					
이름	무시르미	어딩이	말뚝이	생원	차생원
재질	종이	종이	바가지	바가지	종이
크기 (cm)	높이 20.5× 너비 19	높이 32.5× 너비 22	높이 38× 너비 35	높이 28.5× 너비 26.5	높이 41× 너비 22
탈 사진					
이름	웅생원	영양공주 겸 팔선녀 1	난양공주 겸 팔선녀 2	팔선녀 3	팔선녀 4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 (cm)	높이 30.7× 너비 22	높이 26.5× 너비 21	높이 26.5× 너비 21	높이 26.5× 너비 21	높이 26.5× 너비 21
탈 사진					
이름	팔선녀 5	팔선녀 6	팔선녀 7	팔선녀 8	노장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 (cm)	높이 26.5× 너비 21	높이 26.5× 너비 21	높이 26.5× 너비 21	높이 26.5× 너비 21	높이 26× 너비 22
탈 사진					
이름	상좌	무시르미	할미	의원	봉사
재질	종이	종이	종이	종이	종이
크기 (cm)	높이 23× 너비 21	높이 28× 너비 23	높이 28× 너비 23	높이 30.8× 너비 22.5	높이 30.8× 너비 22.5

2000~2001년에 걸쳐 완성된 진주오광대 탈은 1998년에 복원한 탈과 비교했을 때 입체감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²⁸⁾ 일부 탈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데, 문둥이와 말뚝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문둥이는 눈꼬리가 더 올라가고 이목구비의 경계가 분명해졌는데, 말뚝이는 처음 복원한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졌다. 비교적 좌우 대칭을 이루었던 복원 당시의 탈과는 다르게 복원 이후의 말뚝이탈은 좌우 비대칭 형태에 좌우 볼에는 갈색 털을, 턱에는 흰 수염을 부착하였다. 그리고 오방신장탈과 문둥탈처럼 윗송곳니를 강조하여 귀면형의 탈에 가까워졌다. 할미탈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탈의 머리 부분에 비녀를 꽂아 할미의 외모적인 특징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남소무’ 배역을 삭제하였다. 대사본 중 모본으로 삼는 송석하본과 복원에 일부 참고한 이명길본에서도 남소무가 등장하여 1998년에 진주오광대 탈을 복원할 당시 ‘순사 겸 남소무’ 탈을 복원하였다. 그러나 진주오광대보존회 측에서 극의 진행상 남소무의 등장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무렵부터 남소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수본에서는 ‘남소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고 ‘소무’라고만 등장하는데, 최상수는 기생조합이 진주오광대를 주관했을 때 소무가 나오는 제4과장 중놀음에 기생들이 팔선녀라 하여 맨얼굴로 등장해 춤을 추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본래 남성들이 해오던 진주오광대에서 성별 구분을 위해 남성 연희자가 연행하는 소무를 남소무, 기생들이 연행하는 소무를 여소무로 인식하고 여기서 남소무와 여소무가 함께 어울려 추는 장면이 비릇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였다.²⁹⁾ 중요한 점은 진주오광대보존회에 의해 남소무가 제

28) 황병권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에 여유를 두고 탈에 변화를 줬다고 밝혔다. 그는 탈 2차 제작을 마친 시기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나 2001년 10월에 2차로 복원한 탈을 쓰고 공연한 사진을 통해서 대략 2001년 6~7월경에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2025년 2월 25일 전화 면담 실시).

외되고 마찬가지로 남소무와 검용으로 사용했던 순사도 본래 제2과장 문 등놀음에서 마지막에 등장했으나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황병권도 해당 탈을 더 이상 제작하지 않았다.

진주오광대보존회는 2000~2001년 무렵에 수정한 탈을 20년 이상 진주 오광대 연희에 사용해 오다가 황병권이 2022~2023년 약 2년의 기간에 걸쳐 진주오광대 연희용 탈을 새로 제작하여 교체한다. 교체한 탈의 이미지는 기존과 동일하나 진주오광대 연행 시 팔선녀는 주로 여성 연희자가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크기(높이 26.5cm × 너비 21cm)보다 조금 작게 제작하였다.³⁰⁾



[그림 2] 2022~2023년에 제작한 팔선녀탈(필자 직접 촬영)

그런데 진주오광대 탈 중에서 생원탈과 말뚝이탈만 별도로 다른 시기에 새로 제작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진주오광대를 전승하면서 두 배역의 탈의 변화 양상이 가장 큰데, 생원탈과 말뚝이탈의 변화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29) 진주오광대보존회, 앞의 책, 26쪽.

30) 황병권, 진주오광대 예능보유자 후보, 사무국장(2024년 12월 20일 면담).



[그림 3] 1998년 진주오광대 복원 공연 때 사용한 생원탈



[그림 4] 1999년에 제작된 생원탈 [그림 5] 2001년 이후 제작된 현재 생원탈

먼저 생원탈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주오광대에서 제3과장 양반·말뚝이 과장에서 양반(생원)이, 제5과장 할미과장에서 영감이 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은 제5과장인 할미과장으로 배역으로는 ‘영감’이 생원탈을 착용하였다. 1998년 제3회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진주오광대 복원 공연 때 착용했던 생원탈은 파란색이다. 황병권이 생원탈을 복원할 당시 구체적인 자료의 부재인 상태에서 제작하였다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 이듬해에 [그림 4]의 모습으로 변경하여 새로 만들었다.³¹⁾ [그림 4]의 생원탈은 2001년까지 사용되었다가 생원의 특징인 ‘쳐진 이목구비, 불만스러운 성격’을 보다 더

31) [그림 3]의 사진은 “정병훈, 『진주 오광대 탈놀이』, 지식산업사, 2007, 16쪽.”에서 인용하였다. 진주오광대 복원 사업 때 제작했던 생원탈에 대한 자료는 현재 부재 상태이다. 따라서 해당 탈의 자료는 사실상 저 사진이 유일하다. 초창기 생원탈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황병권은 탈의 색상만 다르고 이목구비나 이미지 면에서는 [그림 4]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2025년 3월 5일 전화 면담).

강조하고자 새롭게 제작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는 탈이 [그림 5]이다. [그림 4]의 생원탈은 눈알이 동그랗고 눈의 흰자위 부분만 팔(八)자형에 코는 삼각형이고 입은 꼭 다문 모습인 반면에 [그림 5]의 생원탈은 눈썹과 눈이 모두 아래로 처지고 눈은 전반적으로 반달형에 코는 원형이고 입술을 두툼하게 하여 불만스러워하는 느낌을 강조하였다.



[그림 6] 1998년에 복원한 말뚝이탈



[그림 7] 2000~2001년에 제작된 말뚝이탈



[그림 8] 2001년 이후 제작된 현재 말뚝이탈

말뚝이탈은 1998년에 복원되고 ([그림 6]) 2000~2001년에 걸쳐 변경했으나 2001년 이후 생원탈에 변화를 줄 때 비슷한 시기에 새롭게 다시 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말뚝이탈은 초기에 제작할 당시 문둥탈의 이미지를 참고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둥탈과 유사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듯하다.

[그림 6]의 말뚝이탈은 코가 특히 강조되고 비교적 인간형의 탈에 가까운 반면에 [그림 7]과 [그림 8] 말뚝이탈은 [그림 6]과 비교했을 때 송곳니를 부각하여 귀면적인 느낌이 강조되고 눈썹과 볼, 턱에 털이 추가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림 7]의 말뚝이탈은 좌우 비대칭이었으나 [그림 8]은 비교적 대칭으로 변경되었다. 말뚝이탈 제작에 참고했던 문둥탈이 좌우 비대칭이고 코가 삼각형인데 [그림 7]은 문둥탈의 그러한 특징을 갖추고 있어 비슷한 이미지를 피하고자 이목구비는 대칭에 가깝게, 코는 상대적으로 둥근

형태로 변경하여 [그림 8]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진주오광대 탈 복원 및 변화의 의의

진주오광대는 무형유산 지정과 원형 보존을 목적으로 학자들이 당시 생존 연희자들과 함께 주축이 되어 복원했던 다른 지역의 탈춤과는 다르게 탈춤을 통해서 민족문화운동을 실시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진주 시민들과 함께 복원하였다.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승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탈춤을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탈춤이 내포하는 의미와 가치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 의(義)와 실천을 중시하는 진주의 역사적·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진주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표상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맥락과 맞물리면서 진주오광대 복원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상박은 “진주 사람들은 역시 진주 사람들답다.”고 극찬한 바 있다.³²⁾ 진주오광대와 관련한 특징들은 곧 진주오광대 탈에도 이어진다.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탈을 복원할 때 기존에 남아 있던 자료를 기반으로 오광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을 참고하면서, 탈 제작자로서 각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고려하여 이미지를 반영한 진주오광대만의 탈을 제작하였다. 다만 탈을 재현하는데 송석하 수집 컬렉션을 참고했으나 보통 탈춤에서 사용되는 탈은 놀이를 준비할 때 새로 제작되어 모든 놀이가 끝나고 마지막에 태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탈은 많지 않다. 특히 송석하가 수집한 탈들은 1934년에 진주오광대 부흥을 위한 기획 공연을 관람하고 수집했다는 점 때문에 과거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모습의 진주오광대 탈이라고 보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진주오광대를 복원할 당시 기준으로 참고했던 송석하 수집 컬렉션이 사실상 전통탈 역할을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진주오광대 탈의 복원도 마찬가지로 전통을

32) 진주오광대보존회, 앞의 책, 312쪽.

재창출하여 현재를 만들어가고 형식 그 자체보다는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고 실천하는데 중요시한 점이 진보적이고 실천을 중시하는 진주 지역의 고유성이 반영된 탈임을 보여준다. 다만 진주오광대 탈을 복원하고 재창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에 대해서 자료가 부재하고, 현재 전승되고 있는 여타 탈춤에서 등장하는 인물과 비슷한 유형의 탈과 비교했을 때 상이한 특징을 부여하여 이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³³⁾

진주오광대 탈의 복원과 복원 이후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에서 제시하는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무형유산법에서 주목해야 할 조항은 제1장 제1조와 제3조이다. 제1장 제1조에서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명시하였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典型)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며, ‘민족정체성 함양(1호),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2호),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3호)’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³⁴⁾ 그리고 유네스코 협약 제2조 제1항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세대 간 전승되고 공동체·집단·개인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 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고 정의하였다.³⁵⁾

33)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탈에 변화를 주고 나서 정상박으로부터 생원탈이 다소 창작탈 느낌이 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2024년 12월 20일 면담).

3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무형유산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20309호, 2024. 2. 13., 타법개정]

35)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국문 번역본,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c%86%8c%ea%b0%9c/%eb%ac%b4%ed%98%95%eb%ac%b8%ed%99%94%ec%9c%a0%ec%82%b0%ec%86%8c%ea%b0%9c/>, 2025.03.12.

즉, 두 법령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을 정리하자면 “무형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존중하여 인류 문화의 발전에 기여 해야 한다.”이며, 이를 통해서 무형유산이 보유한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탈을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복원하였고, 복원 이후에도 탈을 박제화하지 않고 변화를 주었다. 이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전형’에 부합하고, 무형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 어쩌면 채희완이 언급한 ‘저장된 실체’와 관련하여, ‘탈’이라는 유형의 틀 속에 ‘변화’라는 요소를 넣어 창조했다고 볼 수 있겠다.³⁶⁾

황병권은 또한 진주오광대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어도 탈춤은 물론 탈도 박제화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탈에 조금씩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하며, 진주오광대 탈이 무형유산의 한 부분으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진주오광대는 전승하면서 탈이 일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어쩌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서 추구하는 가치 중 하나인 ‘문화의 다양성과 인간의 창조성’, 다르게 말하면 ‘변화’를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등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탈 제작자로서 황병권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탈을 단순히 탈춤에서 사용되는 소모품으로서 인식하기보다 탈에 관한 자체적인 연구가 활발해져야 하며, 탈 제작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탈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6) 채희완, 「영남예술의 미적 세계 탐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 - 통영승전무를 대상으로 한 통학문적 접근」, 『한국학논집』 46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16쪽 ; 「1930년대 봉산탈춤의 탈과 춤의 한 면모 - 임석재 소장 1936년 봉산탈춤 사리원 공연 16mm 필름 해설 및현행탈춤과 비교분석 -」, 『무형유산학』 1권 2호, 무형유산학회, 2016, 68쪽.

4. 결론

본고는 진주오광대 탈을 주제로 복원과 변화 양상을 탈 제작자 황병권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복원에 참여해서 현재에도 진주오광대보존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존회 내에서 유일하게 탈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탈춤에서 탈은 단순히 연희용 소모품이 아닌 정체성 그 자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따라 탈 제작자도 그만큼 중요하며, 특히 황병권의 경우 진주오광대 탈과 관련하여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이력과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탈춤과 연희자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듯이, 탈과 탈 제작자에 관한 연구가 보다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진주오광대 탈은 1996년 제1회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진주오광대 복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논의된 이래로 2년여 사업 기간 끝에 재현하여 1998년 제3회 진주탈춤한마당에서 진주오광대 공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황병권은 탈을 복원하기에 앞서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최상수 수집 탈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송석하 수집 탈을 모두 실측·촬영하였는데, 진주오광대 복원 기본 뼈대를 잡을 때 송석하의 자료를 참고하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송석하의 수집 탈과 사진을 모본으로 삼아 재현하였다. 그리고 송석하가 보유하지 않은 나머지 배역의 탈은 최상수가 수집한 탈과 가산오광대 탈의 이미지를 참고하여 진주오광대만의 탈을 새롭게 제작하였다. 복원 과정 당시 현존하지 않던 말뚝이탈의 경우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문둥탈을 검용해서 사용했거나, 문둥탈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전문가의 고증을 통해 문둥탈의 이미지를 일부 차용하여 새롭게 제작하였다.

1998년에 진주오광대 복원 공연을 실시한 후, 황병권은 평면이었던 진

주오광대 탈을 2000년부터 2001년에 작업한 입체 형태로 새로 변경해서 제작했으며, 이 시기에 진주오광대보존회 측에서 ‘순사’와 ‘남소무’ 배역을 삭제하여 해당 탈을 제작하지 않게 되었다. 이 무렵에 제작했던 탈을 20여 년 동안 사용해 오다가 황병권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로 작업한 탈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특히 생원탈과 말뚝이탈은 복원 이래부터 두 번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탈을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복원하였고, 특히 탈을 제작할 때 진주오광대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충실히 하되, 동시에 박제화를 경계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는 무형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존중하여 인류 문화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협약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무형유산으로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황병권이 진주오광대 탈에 변화를 주면서 제작하는 활동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무형유산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탈 제작자로서 행동하는 현상이라고 인식해서 봐도 될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진주오광대 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작성하였다. 진주오광대가 1998년에 복원되고 나서 약 30년의 기간에 탈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다루려고 노력했으나 복원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자료의 한계로 상세히 다루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본고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탈춤의 탈에 대한 자체적인 후속 연구가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논의하였다. 탈을 단순히 탈춤에서 부속품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독자적으로 활용되는 양상³⁷⁾이 보다 확장되었으면 한다.

37)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특별전시로 2023년에 탈을 주제로 전시(전시명: MASK-가면의 일상日常, 가면극의 이상理想)를 한 사례가 있다. 탈을 단독 주제로 활용한 좋은 선례라 생각되며, 국립민속박물관 사례와 같이 탈을 주제로 한 학술 및 연구 활동이 활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참고 문헌

단행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국보 안동 하회탈 및 병산탈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 2024.

심우성 글·박옥수 사진, 『탈』, 대원사, 1994.

임재해 등, 『하회탈, 그 한국인의 얼굴』, 민속원, 2005.

전경옥, 『한국의 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태학사, 1996.

정병훈, 『진주 오광대 탈놀이』, 지식산업사, 2007.

정상박, 『오광대와 들놀이 연구』, 집문당, 1986.

진주오광대보존회, 『진주오광대』, 형평출판사, 2002.

최상수, 『한국 가면의 연구』, 성문각, 1984.

논문

고재성·김현기, 「전통문화를 활용한 디자인 형태분석에 관한 연구-하회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7권 1호, 2011, 51-56쪽.

김길수, 「탈의 상징미학」, 『사회과학연구』 9권, 순천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7, 93-111쪽.

김수현, 「진주오광대 문동탈의 유형과 조형성」, 『민족미학』 12권 1호, 민족미학회, 2013, 69-100쪽.

김완배, 「하회탈의 조형미와 그 제작과정」, 『아시아민족조형학보』 6권 1호, 아시아민족조형학회, 2006, 174-182쪽.

김윤미·구자명, 「한국 전통탈의 분장효과와 미적가치-봉산탈과 하회탈을 중심으로-」,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4권 2호,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 2008, 135-144쪽.

김은영, 「산대놀이 탈 연구」, 『민속학연구』 27호, 국립민속박물관, 2010, 35-62쪽.

- _____, 「산대탈의 유형과 특징」, 『한국민속학』 74권, 한국민속학회, 2021, 89-134쪽.
- 김종해, 「탈(가면)의 정신의학-탈의 성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 5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82, 103-114쪽.
- 김지원, 「한국춤에서 가면의 역할과 상징에 관한 의미 해석적 연구」, 『한국언어문화』 72호, 한국언어문화예술학회, 2020, 97-121쪽.
- 김 훈, 「캐릭터사업을 위한 안동 하회탈의 시각화」, 『Archives of Design Research』 31호, 한국디자인학회, 1999, 203-212쪽.
- 남기성, 「탈(假面)-감춤을 통한 드러남의 미학」,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1-132쪽.
- 남진아, 「고성오광대 연희용 탈의 변화 양상」, 『공연문화연구』 41호, 한국공연문화학회, 2020, 257-284쪽.
- 사진실, 「산대탈의 전승 현황과 완보/말뚝이의 변천 양상: 산대놀이의 변천 과정 재구를 위한 시론」, 『구비문학연구』 31호, 한국구비문학회, 2010, 465-506쪽.
- 안영지, 「한국 하회탈과 일본 노멘의 형태와 제작기법」,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1-100쪽.
- 여운향, 「진주오광대의 복원과 정통성 확보 과정」,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89쪽.
- 이두현, 「한국의 가면」, 『동아문화』 5권,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1966, 211-216쪽.
- 이선형, 「가면, 그 진실한 얼굴」, 『프랑스문화예술연구』 39권,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012, 443-464쪽.
- 이성재, 「가면(假面)에 나타난 경계(境界)-能面의 연기(演技)와 표현방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34권 1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7, 129-155쪽.
- 이정근, 「하회탈의 예술적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6권 3호,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20, 331-340쪽.
- 이효녕, 「허호영 제작 송파산대놀이 탈의 실재와 그 특징」, 『한국민속학』 70권, 2019, 7-35쪽.
- 임재해, 「탈이 지닌 종교적 의미와 주술적 기능」, 『민속연구』 4호,

-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4, 35-49쪽.
- , 「암각화를 통해 본 탈의 기원과 그 기능의 변모」, 『민속연구』 7호,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7, 85-98쪽.
- 정상박, 「진주지역 오광대 전승 양상」, 『배달말』 22권 1호, 배달말학회, 1997, 257-279쪽.
- 정혜정, 「전남지역 잡색놀이 속의 탈의 의미」, 『남도민속연구』 23권, 남도민속학회, 2011, 385-408쪽.
- 조윤경, 「원시예술 가면의 초현실주의적 미학」, 『프랑스학연구』 85호, 프랑스학회, 1997, 171-196쪽.
- 채희완, 「영남예술의 미적 세계 탐구를 위한 방법론의 모색-통영 승전무를 대상으로 한 통학문적 접근」, 『한국학논집』 46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2, 7-47쪽.
- , 「1930년대 봉산탈춤의 탈과 춤의 한 면모 -임석재 소장 1936년 봉산탈춤 사리원 공연 16mm 필름 해설 및 현행탈춤과 비교분석-」, 『무형유산학』 1권 2호, 무형유산학회, 2016, 31-73쪽.
- 최은아, 「유럽문화사에 나타난 가면과 정체성의 관계 연구(1)」, 『헤세연구』 44권, 한국헤세학회, 1997, 187-212쪽.

신문기사

- 서정인, “[전통을 잇다] 진주 ‘광대탈방’ 황병권 대표”, 경남도민일보, 2013.07.28.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뉴스 라이브러리-동아일보 1934년 4월 22일자 신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34042200209103005&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34-04-22&officeId=00020&pageNo=3&printNo=4802&publishType=00010>, 2025.04.16.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국문 번역본, <https://heritage.unesco.or.kr/%ec%9c%a0%ec%82%b0%ec%86%8c%ea%b0%9c/%eb%ac%b4%ed%98%95%eb%ac%b8%e>

d%99%94%ec%9c%a0%ec%82%b0%ec%86%8c%ea%b0%
9c/, 2025.03.12.

■ 국문초록

본고는 진주오광대 탈을 주제로 복원과 변화 양상 및 의의를 탈 제작자 황병권의 활동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였다.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복원에 참여해서 현재에도 진주오광대보존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존회 내에서 유일하게 탈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황병권의 경우 진주오광대 탈과 관련하여 결코 빠질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이력과 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본 후, 그가 작업한 진주오광대 탈 복원 및 변화 양상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황병권은 진주오광대 탈을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중요시하면서 복원하였고, 탈의 박제화를 경계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에 집중하는 ‘전형’에 부합하고, 무형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존중하여 인류 문화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유네스코 무형유산 협약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을 단순히 탈춤에서도 사용되는 소모품으로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탈에 관한 자체적인 연구와 탈 제작자의 목소리에 주목해야 한다.

주제어 • 진주오광대, 탈, 황병권, 복원, 변화, 의의

■ Abstract

A Study on the Masks of the Jinju Ogwangdae(Masked Play and Dances) : Focus on the activities of mask maker that Hwang Byeong-Gwon

Park, Yeonsu /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discusses the restoration, changes and significance of Jinju Ogwangdae masks,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mask maker Hwang Byeong-Gwon. Hwang Byeong-Gwon participated in the restoration of the Jinju Ogwangdae and is currently a member of the Jinju Ogwangdae Preservation Society. He is the only person in charge of mask making within the Preservation Society. In the case of Hwang Byeong-Gwon, he is an indispensable figure in the Jinju Ogwangdae mask, so we also looked into his history and activities, we discussed the restoration and changes in the Jinju Ogwangdae masks that he worked on.

Hwang, Byeong-Gwon restored the Jinju Ogwangdae mask while emphasizing its current meaning and value, and continuously changed it while being wary of taxidermy of the mask. This can be seen as conforming to the ‘typical’ of focusing on the ‘essence’ that constitutes the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nforming to the UNESCO convention of creatively inheriting and respec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ursu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Therefore, we should pay attention to our own research on masks and the voices of mask makers, rather than simply recognizing masks as consumables used in masked play dances.

Keyword • Jinju Ogwangdae, mask, Hwang Byeong-Gwon, restoration, change, significance

■ 논문투고일:2025.05.01. ■ 심사완료일:2025.06.25. ■ 게재확정일:2025.07.07. ■

황해도굿 공수의 양상과 의미

홍 태 한*

목 차

1. 머리말
2. 황해도굿 공수의 종류
3. 공수의 특징과 연행자에 따른 공수의 선택
4. 맺음말 - 황해도굿판 공수 양상의 변화

1. 머리말

한국 무당굿은 신령과 인간의 중간 존재로 무당이 주재한다. 무당은 인간에게 신령¹⁾의 말을 내리는데 이를 공수라고 한다. 공수는 신탁(神託)으로 해석되는데, 초월존재인 신령이 무당을 빌어 굿청에 들어와 인간의 소망에 대한 말을 내리는 것으로 강신무굿판에서 공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수를 인간에게 내리는 신령의 의사 표현이라고 보면, 굿을 의뢰한 재가집의 소망에 대한 답을 신령이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를 통해 재가집은 자신의 소망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굿을 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됨

* 경상국립대학교 민속예술무용학과 강사

- 1) 신(神)을 지칭한다. 굿판에서는 ‘신’보다 ‘신령’을 사용하고 있어서 신령이라고 칭한다.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수는 신령의 뜻을 전달해주는 발화자로서 무당(만신)²⁾과, 이를 수용하는 청자로서 재가집이 필수적이다. 굿판에 나타나는 말의 대부분이 공수이다. 그동안 한국 무속연구를 주도한 분야가 국문학분야여서 공수를 무가라고 지칭하여 연구하였다. 문학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문학적 구성을 가진 무가, 무속신화 또는 서사무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실제 공수에 대한 연구 성과는 많지 않다. 황해도굿을 연구하면서 공수를 긴공수, 흘림공수 등으로 나눈 양종승의 연구,³⁾ 공식 공수와 개별 공수로 공수의 종류를 나눈 후 공수의 말하기 방식, 공수가 설득력을 가지게 된 연유 등을 서울굿을 중심으로 살핀 홍태한의 연구 성과⁴⁾가 공수에 대한 연구의 전부이다.

공수는 재가집보다 무당을 중심에 두고 설정된 개념으로 굿판에서도 무당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사용한다. 재가집은 신이 내리는 말씀 정도로 공수를 이해하고 있어 공수가 내리는 상황, 종류, 말하기 방식 등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재가집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굿을 청하였으므로 굿의 목적에 부합하는 말을 무당이 내리면 그를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하지만 무당은 다양한 말하기 방식을 바탕으로 굿의 효과를 전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수의 형식과 내용에 상당한 마음을 쓴다. 굿판에 나타나는 공수는 공식적인 표현도 있지만 재가집의 사정에 맞춰서 무당이 즉흥적으로 내리는 공수가 대부분이어서, 공수의 전형적인 틀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것도 공수 연구의 부진에 영향을 주었다. 굿판이 재가집 중심으로 흘러가면서,⁵⁾ 노래

2) 무당은 굿을 담당하는 무속인을 지칭하는 일반 명사이다. 만신은 황해도굿을 담당하는 무당을 황해도굿판에서 부르는 일반 명사이다. 이 글에서 황해도굿을 담당하는 무속인은 만신이라고 칭하고 일반적인 의미의 무속인은 무당이라고 칭한다.

3) 양종승, 『한국의 무속-서울-황해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9, 87쪽.

4) 홍태한, 「강신무굿판의 공수의 의미와 기능」, 『남도민속연구』 21권, 남도민속학회, 2010, 339-365쪽.

와 춤보다 재가집의 소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 중심으로 굿이 연행되고 있어 공수가 실제 굿 연행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지만, 무당과 재가집의 일대일 대화체가 주가 되면서 공수의 형식적인 틀을 정립하기 어려워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다. 한국 무속 연구가 주로 무당과 굿거리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굿을 찾는 재가집을 중심에 둔 연구가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수의 종류가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는 굿은 황해도굿이다. 서울굿에서는 공수의 종류를 지칭하는 용어 자체가 굿판에 없지만 황해도굿판에는 긴공수, 서린공수, 허리공수, 흘림공수로 나누기도 하고, 높은공수와 얇은공수로 나누기도 하여 공수에 대한 인식이 각별하다. 이 글에서는 황해도굿판에 나타나는 공수의 양상을 정리한 후 공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의미를 찾기로 한다. 황해도굿을 연행하는 만신에 따라 공수를 지칭하는 용어가 서로 달라 혼동을 주기도 하고, 공수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공수를 내리는 만신도 있다. 이 글에서 살피는 공수의 종류는 그동안 글쓰기가 황해도굿판에서 만난 여러 만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황해도굿은 결례⁶⁾에 따라 굿 연행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굿거리의 초반부에 연행하는 <쇠열이타령>에 대한 인식도 달라⁷⁾ 굿 연행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동일한 공수를 부르는 명칭이나 개념이 다른 것은 황해도굿의 실상을 바탕으로 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글에서는 2020년대 현재 황해도굿판에서 공수의 개념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신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5) 과거에는 재가집이 굿을 청하면 날짜를 가려 굿날을 잡았지만, 지금은 굿을 청하면 곧장 굿을 진행한다. 돈이 굿판의 중심이 되면서 굿 비용을 부담한 재가집의 사정에 맞춰 굿을 연다. 재가집이 바라는 바를 중심에 두고 굿거리까지 조정하기도 하여 굿판의 중심이 재가집이 되었다고 한다.

6) 황해도굿에서 입무 과정을 중심으로 만신의 계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7) <쇠열이타령>은 굿의 초반부에 신령을 모셔 뜻을 묻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결례에 따라 부르기도 하고 부르지 않기도 한다. 홍태한, 「황해도굿 쇠열이타령의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103-125쪽. 참조.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공수의 종류와 개념을 다르게 인식하는 만신도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공수에 대한 개념이나 이를 굿판에서 활용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글을 전개한다. 공수의 종류와 명칭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공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활용 방식은 동일하다고 본다.

황해도굿 공수는 높은공수와 얇은공수로 나뉜다. 높은공수는 개별 굿거리에서 신령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공수로 대개 굿거리 초반부에 등장한 신령이 나오자마자 내리는 공수이다. 서울굿의 공식적인 공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령이 자신의 정체와 굿에 온 목적 등을 말한다. 재가집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는다. 신령이 재가집에게 초점을 맞추어 내리는 개별 공수는 얇은공수라고 한다. 높은공수의 ‘높은’은 신령이 지체가 높은 신령에 대해 말하기 때문에 ‘높은’이라고 한 것이고, 얇은공수의 ‘얇은’은 신령보다 지체가 낮은 인간에 초점을 맞춘 공수여서 ‘얇은’이라고 한다.

얇은공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긴공수, 서린공수, 허리공수, 흘림공수로 나누는데, 만신에 따라 각종 공수의 개념이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공수의 종류와 명칭이 다양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긴공수는 굿을 하는 도중에 나와야 할 곳에 내리는 공수로 내용이 길다. 그래서 주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내용으로, 굿 경비를 부담하고 굿을 연 재가집에게 주로 내린다. 긴공수를 줄여서 주는 공수를 서린공수라고 하는데 이는 재가집을 포함하여 굿판에 온 여러 사람에게 내리는 공수이다. 긴공수는 신령이 재가집에게 길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개별 굿거리에서 신령이 재가집에게 초점을 맞추어 자세하고 길게 설명하는 공수이다. 굿을 열게된 연유와 재가집의 사정, 굿판에 온 재가집 식구들의 구성과 형편 등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굿 연행 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것도 설명한다. 장황하고 길어서 긴공수라고 한다. 서린공수는 긴공수가 끝난 후 재가집 이외의 신도에게 말하거나, 재가집에게 미처 다하지 못한 것을 전달할 때

나오는 공수이다. 굿춤을 추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공수를 허리공수라고 하고, <쇠열이타령>을 부른 후 쇠를 열 때⁸⁾ 불쑥 나오는 공수를 흘림공수라고 한다. 허리공수와 흘림공수는 긴공수와 서린공수보다 발화 내용이나 분량이 짧다. 아래에서 황해도굿의 공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렇게 다양한 공수가 존재하는 연유를 굿판의 질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황해도굿 공수의 종류

황해도굿에서 신령과의 관계 속에 나눈 공수의 종류로 높은공수와 얇은공수가 있다. 높은공수는 개별 굿거리에서 신령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내리는 공수이다. 황해도굿은 만세받이무가나 또는 긴만세받이무가, 자진만세받이무가로 청배를 한 후⁹⁾ 긴장단에 맞춰 긴소리 청배가 이어지고 본격적으로 재가집에게 공수를 내리며 굿이 이어진다. 이때 처음 나오는 공수가 높은공수이다. 높은공수는 ‘높은’이 지칭하듯 개별굿거리에 들어온 신령이 굿의 흐름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리는 공수이다. <산천거리>에 나타난 높은공수를 살펴본다. <산천거리>에는 여러 신령이 들어오는데 다음은 장군신령이 처음 들어와 내리는 공수이다.

네 오나 먼산 장군에 사산장군 열세영산의 본당장군 아니나
네 오나 대주의 본산장군은 황해도 하고는
덕물산에 최일장군 아니나
구월산에 신장군 마누라 대주본산 백두산에도 신장 장군님
잘 받으시고 ○씨 대주 장군님이 들어서서 도와줄 때
본줄 잡아 인줄 잡아 이 놀이 신사 장군님의 조공이요
조상님전 대접일 때
네 오나 먼산장군이라도 바닷가의 임장군은 조기를 받지만

- 8) 황해도굿의 악기인 제금을 바닥에 굴려 신령의 뜻을 확인하거나, 양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뺨은 후 신을 청하는 것을 쇠를 연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기술한다.
- 9) 황해도굿에서 여러 신령을 호명하면서 청하는 무가를 만세받이무가라고 한다. 만세받이무가에는 형식에 따라 긴만세받이무가, 자진만세받이무가가 있다.

내륙의 산천 장군님들은 육고기를 받는데
아직 소곳이라서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지만
안사두고 두남뒹서 흘러흘러 넘기고
장군님 오실 적에 ○씨 대주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
사업문도 열어주고 악한 사람은 제쳐주고
좋은 사람 선한 사람만 ○씨 대주 옆에서
장군님이 지켜주고 도와 줄 적에
오냐 다 아바이도 건강주고 갱소년 시켜주고
네 오냐 다 이 고랑산은 골막산 아니냐
골막산의 산천 장군님도 잘 받으시고
○씨 대주를 도와준다고 여쭙라¹⁰⁾

발화의 주체가 장군신령으로 되어 있다. 재가집의 개별적인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온 장군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오늘 열리는 곳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일반적인 내용만 밝힌다. 재가집이 곳을 열게 된 연유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내리기보다 지금 들어온 신령의 성격과 오늘 여는 곳의 일반적 정보를 내린다.

얇은공수는 신령이 재가집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공수이다. 높은공수가 곳거리에서 신령이 들어올 때만 나오는 공수인 반면, 얇은공수는 재가집에게 수시로 내리는 공수이다. 얇은공수는 형식이나 내리는 시점에 따라 긴공수, 서린공수, 허리공수, 흘림공수로 나눈다. 이미 높은공수를 통해 지금 들어온 신령이 누구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다시 신령의 정체를 말하지 않고 곳을 열게 된 재가집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얇은공수이다. 먼저 얇은공수 중에서 긴공수를 살펴본다.

할아버지 본 조정은 수원하고 팔달산에도 신령님이 잘 받으시고
2차분향은 황해도하고 개성땅에 자리를 잡아 공부도 많이 하고
전쟁이 나기 전에는 집안 식구들은 개성 땅에 살면서도

10) 강석정, 『한국의 무가13-철물이곳』, 민속원, 2019, 30-31쪽. 이 책은 글쓴이가 전체 내용을 감수하여 실제 곳에서 나오는 공수와 차이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주 자료로 활용한다.

본인은 서울을 왔다갔다 하다가 6.25 사변이 나서 전쟁 통에
죽게 되고 고생고생만 하시다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내 고향 산천에도 묻히지를 못하시고
전쟁통에 38선이 그어져 있어서 시신조차 수습을 못하고
지금도 구천을 떠도는 니 할아버지(.....)
니 할머니는 갓은 고생 다하고 니 아버지 키우면서
마음 고생 갓은 고초 겪고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고
얼마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니 엄마는 먹지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니네 삼 형제 키우다가 암으로 불쌍하게 돌아가신 니 엄마(....)
니 큰형은 지금도 니가 주는 용돈으로 잘살고 있으니 걱정마라
너무 걱정 하지 말고 예 헤 오나
니 둘째형은 니 사업 뒷받침 잘하니 걱정 없고
우리 ○씨 대주는 지금 하는 엘리베이터 사업은
대기업에 협력업체라 십 년은 끄떡없는 사업이다(....)
아무 탈 없고 공장 터는 아주 좋으니
확장을 더 크게 해서 움직이지 말고¹¹⁾

재가집의 가족 상황을 길게 설명하면서 지금 처한 사정을 하나하나 살
핀다. 재가집 형제를 하나하나 살펴 다가올 일에 대한 전망을 알려준다. 재
가집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를 공수에 담아 내린다. 식구가 많은 경
우에는 상당 시간을 들여 모든 가족을 거명하면서 공수를 길게 내려 긴공
수라고 한다. 긴공수는 대부분 설명조이다. 재가집의 입장에서 자신이 처
한 처지와 가족 구성을 바탕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정보까지 제시하고 있
어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긴공수는 재가집에게 굿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장치가 된다. 낯선 굿판에 선 재가집에게, 재가집이 알고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굿의 상황이 자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서린공수는 긴공수를 짧게 줄여서 내리는 공수이다. 마을굿이나 진적

11) 위의 책, 25-26쪽.

굿처럼 다수의 사람이 굿판에 참가할 때 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개인굿에서는 여러 조상이 들어오는 경우 한 조상이 짧게 자신의 소회를 밝히는 데에 보인다. 다음은 <초감흥거리>의 서린공수의 예이다.

할머니가 들어왔다 올 손자 너무나 반갑구나
이렇게 니가 철이 들어서
조상님 대접할 줄 꿈에나 생각 못했는데
기특하고 대견하고 용하구나 이 할머니가 잘 받고 도와주고
옷 한 벌 잘 받아 입고 니 할아버지랑 잘 있으니 걱정말구¹²⁾

<초감흥거리>에는 여러 조상이 들어와 차례차례 공수를 내린다. 여러 조상이 연이어 들어오므로 긴공수를 내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재가집의 입장에서 보면 실감나게 와닿는 내용이 많지 않아 조상이 내리는 말을 길게 말하지 않고 줄여서 서린공수를 내린다. 위에 예로 든 서린공수는 할머니가 들어와 내리는 공수이다. 할머니보다 앞서 할아버지가 들어왔고 뒤를 이어 부모, 삼촌, 고모 등이 들어와 공수를 내리기 때문에 긴공수가 아닌 서린공수를 내렸다. 또한 서린공수는 형식이 짧아 굿판에 참석한 다수의 사람에게 내리기 편리한 공수이다. 굿판에 온 모든 이에게 공수를 내리는데, 긴공수를 모두 내리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 굿 비용을 부담한 재가집과 다른 이들의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긴공수를 재가집에게만 내리고 서린공수는 재가집 이외의 모든 이에게 내려, 재가집과 재가집이 아닌 이와 구별하는 만신의 목적이 드러나기도 하는 공수이다.

흘림공수는 <쇠열이타령>이 끝난 후 불쑥 나오는 공수이다. 개별 굿거리에서 들어온 신령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오늘 이루어지는 굿의 전체적 흐름을 알려주는 공수이다. <산천거리>에서 <쇠열이타령>을 부른 후 곧장 불쑥 나온 공수를 들어본다.

12) 위의 책, 45쪽.

네 오냐 다 팔도 신령님 모시고 신의 애기 들어서서
 ○씨 대주의 조상님들
 내 고향 산천은 ○○도 하고 ○○땅 아니냐
 아버지 본산은 개성하고는 덕물산인데
 내 고향 산천에 묻혀 있고 가보지도 못하는 내 고향이지만
 본산에서 잘 받으시라고 신의 애기 들어서서
 이 놀이 신사 영천 아니잖나
 이번 신사에 내 고향 본주 본산에서 잘 받으시고
 ○씨 대주의 산천 신령님을 모십니다.
 아 예 예 헤
 팔도명산 신령님 하강하실 때 이 본향신령님 아 예 예 헤¹³⁾

흘림공수는 신령의 소회를 중심으로 생각을 전하고 굿에 들어온 신령의 존재성을 드러내지만 재가집의 입장까지 헤아려 그 사정을 공수에 반영한다. 위 무가에 나오는 ‘내’는 이 거리에 들어온 신령님이면서 재가집을 의미한다. 본산은 재가집의 근본이 되는 신령으로 재가집의 뿌리가 되는 신령이다. 그래서 ‘내’라는 말에는 신령과 재가집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공수의 종반에 ‘팔도명산 신령님 하강하실 때’라는 내용이 있어 이 공수가 <쇠열이타령>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쇠를 열어 신령이 굿청에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신령이 하강한다.’는 말과 연결되어 신령이 굿청에 들어옴을 공수로 나타낸다.

허리공수는 굿춤을 주는 중간중간에 불쑥 나오는 공수로 형식이 매우 짧다. 굿춤을 추던 만신은 신명이 오르자 춤을 멈추고 재가집의 사정에 맞는 말을 순간순간 내린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굿춤을 추다가 그날 열고 있는 굿덕¹⁴⁾에 대해 짧게 내리는 공수이다. 허리공수는 재가집의 사정에 맞춰 ‘걱정 마라 사업수 풀린다.’, ‘망자 좋은 데 가니 걱정 마라.’ 등으로 나오는 공수이다.

13) 위의 책, 24쪽.

14) 굿을 한 후 효험이 있을 때 이를 일러 ‘굿덕’이라고 한다.

황해도굿을 연행하는 만신은 이처럼 다양한 공수를 굿판의 흐름이나 재가집과의 관계 속에 선택하여 내린다. 각각의 공수는 나름의 특징이 있으며 공수의 활용에는 만신의 다양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3. 공수의 특징과 연행자에 따른 공수의 선택

높은공수는 굿판에 들어온 신령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이날 열리는 굿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내리는 공수로 내용이 상당히 길다. 높은공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날 진행되는 굿의 전반적 흐름과 함께 굿거리 구성 방식, 굿거리의 세부 내용 등을 숙지해야 한다. 굿판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을 ‘문서’라고 하는데, 굿을 잘하는 무당에게 ‘문서가 좋다.’고 표현한다. 문서가 좋다는 것은 굿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있다는 의미로 높은공수를 내리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높은공수를 내리는 만신은 신령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한 공식적인 관용구도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첫 머리에는 개별 굿거리에 들어온 신령의 정체를 나타내는 관용구가 등장한다.

내 오냐 높은 궁으로 칠성님 얇은 궁으로 제석님 아니시나
궁든 칠성 위하든 칠성 바래든 칠성 아니시나
사해바다로 용궁칠성이야 ○씨 대주의 조상칠성이구나¹⁵⁾

내 오냐 제석님 본이 어디시냐 서천서역이 본일 때
앞바다도 열두바다 뒷바다도 열두바다
스물네바다 이십사강을¹⁶⁾

칠성신령이 들어오게 되면 칠성에 대한 관용적인 설명과 이번에 들어온 칠성신령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알려준다. 제석신령이 들어온 경우도 동일하다.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은 오랫동안 황해도굿판에 종사한 만신이

15) 강석정, 앞의 책, 60쪽. <칠성거리>의 칠성 긴공수.

16) 위의 책, 64쪽. <칠성거리>의 제석 긴공수.

라면 누구나 알지만 황해도굿에 입무한 지 오래되지 않은 만신은 쉽게 연행할 수 없다. 높은공수 연행에는 굿판에서의 경력과 함께 다양한 무속 지식이 활용된다.

이러한 무속에 대한 지식은 얇은공수의 하나인 긴공수에도 활용된다. 긴공수가 재가집의 여러 사정을 헤아려 길게 내리는 공수이지만, 신령의 말씀임을 드러내야 한다. 이때 만신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관용구이다. 다음은 관용구의 몇 가지 예이다.

명만 주면 복없이 살고 복만 주면 명없이 살고
(명과 복을 모두 주겠다는 의미의 공수)
금같은 내 손주 은같은 내 손주
(조부모 조상이 들어와 재가집을 지칭하는 공수)
물 아래 천량 낚아주고 물 위에 천량 휘어들어
(모든 재물을 가져다주겠다는 공수)

긴공수는 재가집의 사정을 헤아려 내리는 공수여서 개인사에 대한 표현이 많지만 관용구가 있어 긴공수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긴공수라고 하여 만신이 재가집에 맞춰 공수를 내리지만, 그 저변에는 무속 지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긴공수를 통해 만신의 무속에 대한 지식의 총합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다양한 관용구가 내림으로 인해 만신이 내리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신령의 말임을 나타낸다. 최근 무당 굿판을 찾는 이들은 과거와 달리 무속에 대한 지식의 폭이 좁다. 관용구가 적절하게 사용됨으로 인해 공수의 어휘를 풍부하면서 낮설게 하여 신비감을 높이기도 한다.

서린공수는 긴공수를 줄인 것으로 재가집에게 다시 내리기도 하지만, 진적굿이나 마을굿처럼 굿판에 여러 사람이 참석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루 내리는 공수이다. 진적굿은 황해도굿 만신이 주기적으로 여는 만신을 위한 재수굿으로, 진적굿을 여는 만신과 함께 황해도굿에 종사하는

여러 만신들, 단골 신도들이 상당수 참석한다. 재가집이 별도로 없어서 굿판에 온 모든 이들에게 차례로 공수를 내린다. 비록 긴공수보다 분량은 짧지만, 굿판에 온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내리는 공수여서 만신의 입장에서 는 쉽지 않은 공수이다. 서린공수를 주는 경우 만신은 그날 처음 만난 재가 집이나 만신에게 짧은 말이지만 정곡을 찌르는 내용을 내려야 한다. 서린 공수를 주는 만신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순발력과 즉각적인 대응력이다. 주저하는 순간 만신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게 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공수를 바로 내려야 인정을 받는다. 긴공수를 줄여서 준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만신의 대응 능력이 평가되는 공수가 된다.

허리공수는 굿이 진행되는 도중 순간순간 내리는 공수로 만신의 영험력이 드러나는 공수이다. 고정된 형식이 없이 재가집에게 가장 필요한 공수를 내리는 것으로, 대부분 그날 굿을 연 재가집의 사정을 헤아리고 소망 달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일러주는 공수이다. ‘이번에 입찰해라.’, ‘그 사람 믿지 마라.’ 등의 공수를 내리는데 재가집의 호응은 다른 공수보다 훨씬 적극적이다. 장황한 설명없이 한두 마디로 재가집의 사정을 바탕으로 앞날의 상황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허리공수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만신의 능력은 영험함으로 자칫 재가집의 사정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굿의 목적 달성이 위태로울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공수이다.

흘림공수는 <쇠열이타령>을 부른 후 의례적으로 내리는 공수이다. <쇠열이타령>은 쇠를 열기 위해 부르는 노래로 쇠열이는 황해도굿의 의미있는 연행으로 굿을 하는 만신이 하늘과 땅의 신령들에게 굿이 열림을 아뢰고 굿문을 여는 의식이다. 쇠를 연다는 것은 신령이 오늘 굿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으로 대개 황해도굿의 무구인 제금을 땅에 굴려 신령의 뜻을 점치거나, 양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신을 청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쇠

를 열어 신령이 들어오면 본격적인 굿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흘림공수는 쇠를 열고 들어온 신령이 그날 행하는 굿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가볍게 전달한다. 흘림공수는 <쇠열이타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신령을 굿청에 모신 만신의 당당함을 바탕으로 굿의 전반적인 흐름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을 알려주는 공수이다. <쇠열이타령>을 통해 신령을 굿청에 모셨고, 흘림공수를 통해 그것을 재가집에게 일러준다.

긴공수는 만신의 무속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공수이고, 서린공수는 만신의 즉각적인 대응능력이 필요한 공수이다. 허리공수는 만신의 영험함을 나타내는 공수이고 흘림공수는 의례적인 내용을 전달하여 만신의 무계를 나타내는 공수이다. 얇은공수는 이처럼 다양한 만신의 능력을 재가집에게 드러내는 굿판의 장치가 된다. 만신이 곧 신령임을 보이는 높은공수와 함께 황해도굿판을 연행하는 만신의 다양한 가치를 나타낸다.

이처럼 황해도굿의 공수에는 황해도굿 만신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 내재되어 있음이 보인다. 황해도굿 공수는 공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표 1] 공수의 종류와 무당의 능력 상관성

공수 종류		내용	무당의 능력
높은공수		신령의 정체 표현	신령과 무당의 동일시
얇은공수	긴공수	재가집의 사정 진술	무속 지식의 활용과 관용적 표현 사용
	서린공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내용 전달	즉각적인 대응 능력
	허리공수	핵심 내용 전달	영험함
	흘림공수	신령이 굿청에 들어움을 알림	의례에 대한 인식과 공식적인 대응

황해도굿에 참여하는 만신은 경관만신과 후관만신으로 나눈다. 경관만신은 재가집과의 관계 속에 굿을 연 만신으로,¹⁷⁾ 굿판을 주도하는 만신이

17) 이를 일러 ‘굿을 뗀다.’라고 한다.

다. 경관만신은 재가집에게 굿 비용을 받아 모든 굿에 필요한 물품과 제물을 준비하고, 굿하는 장소, 시간을 결정한 후 굿에 참여할 만신과 장구재비, 징재비를 정한다. 굿은 경관만신 혼자 연행할 수 없어 서너 명의 만신이 필요한데 이때 경관만신에게 불려온 만신을 후관만신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송만신, 청자만신으로도 불리는데 이들은 경관만신을 도와 굿을 연행하고, 경관만신의 의도에 따라 굿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관만신은 굿의 초반부에서 모든 굿정보를 알려주고 후관만신은 이를 수용하여 굿을 진행하면서 경관만신의 의도를 반영한다. 경관만신은 높은공수에 밝아야 하고, 굿판에 온 다양한 사람들에게 서린공수를 적절하게 내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킨다. 재가집에게 상세한 사정을 풀어내면서 굿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리는 긴공수도 경관만신이 주도한다.

후관만신은 경관만신이 제공한 정보를 허리공수에 반영하여 재가집에게 전달한다. 후관만신은 경관만신이 일러준 정보를 넘어서는 허리공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경관만신이 굿을 주도하고 있으며 재가집과의 관계 속에 굿을 열었기 때문이다. 후관만신을 이 굿판에 올 수 있게 청한 이도 경관만신이어서 후관만신은 경관만신과의 관계 속에 굿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굿판을 주도하는 경관만신이 모든 굿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후관만신이 그를 넘어서거나 새로운 공수를 내리게 되면 후관만신과 경관만신의 관계가 틀어진다. 그렇게 되면 후관만신은 다시 경관만신의 부름을 받을 수 없어 허리공수를 내리더라도 경관만신을 부각하는 한도 내에서 내린다.

경관만신과 후관만신의 차이가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이 흘림공수이다. 흘림공수는 <쇠열이타령> 이후에 의례적으로 내리는 공수인데 <쇠열이타령>은 모든 굿거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쇠열이타령은 황해도굿의 <산거리>, <초감흥거리>, <칠성거리>에서만 연행된다. 이 세 굿거리는 황해도굿의 초반부에 연행하는 굿으로 황해도굿의 핵심적인 거리이다. <산거리>는 <

상산맛이>라고도 하는 거리로 산천의 여러 신령과 부군, 도당 등 지역신령을 모시는 거리이다. <초감흥거리>는 만 신령을 굿청에 모셔드려 좌정시킨 후 여러 신령을 대접하면서 굿의 시작을 아뢰는 거리이다. <칠성거리>는 하늘의 신령인 칠성, 제석 등을 모셔 굿의 목적을 아뢰고 명과 복을 청하는 거리이다. <산거리>, <초감흥거리>, <칠성거리>는 차례대로 이어서 연행하는 굿으로 굿의 핵심적인 지역신령과 하늘의 신령을 모셔 소망을 아뢰면서 이의 성취를 기원하고, 여러 신령을 굿청에 모시는 의미가 있다. 다른 굿거리는 <쇠열이타령>이 없고 이 세 굿거리에만 <쇠열이타령>이 있다는 것은 이 세 굿거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¹⁸⁾

세 굿거리는 대부분 경관만신이 담당한다. 경관만신의 기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후관만신이 맡을 수 있지만, 이경우에도 후관만신은 경관만신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경관만신의 입장을 잘 헤아려 굿을 진행한다. 흘림공수는 경관만신이 <쇠열이타령>과 함께 자신의 비중을 나타내는 중요한 공수가 된다. 쇠를 열어 신령을 굿청에 부른 경관만신은 자신이 곧 신령과 하나가 되었음을, 신령과 소통하고 있음을 재가집에게 보일 수 있다. 흘림공수는 공수의 내용이 재가집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관만신이 가지고 있는 신령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공수이다.

4. 맺음말 - 황해도굿판 공수 양상의 변화

황해도굿도 최근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¹⁹⁾ 결례를 중심으로 무

18) 홍태한, 「황해도굿 쇠열이타령의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103-125쪽. 참조.

19) 황해도굿이 변화상에 대해서는 한 차례 살핀 바 있다. 홍태한, 「황해도굿의 현재적 변화상과 전망」, 『남도민속연구』 35권, 남도민속학회, 2017, 235-258쪽. 참조.

업 활동을 하기보다는 무형유산 지정 종목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황해도굿의 체계를 학습하기보다 재가집의 욕구에 부응하여 기본적 흐름만 익혀 실제 굿을 맡으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음악과 춤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면서, 재가집에게 내리는 공수 또한 간략화되고 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높은공수의 축소와 얇은공수의 증가이다. 굿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면서 신령을 명확하게 굿판에 내세우기보다는 곧장 재가집에게 필요한 공수를 내리는 데 중점을 둔다. 굿의 중심이 만신에 있지 않고 굿 비용을 부담한 재가집에 있어서 재가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공수를 곧장 내린다. 경관만신이 모든 굿을 주재하는 것이 황해도굿의 오랜 전통이지만, 굿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경관만신이 후관만신을 여럿 불러 굿을 열 수 있게 되면서, 경관만신이 굿 연행을 주도하지 않게 되고, 높은공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 굿을 열고 굿을 주도하는 것이 경관만신이지만, 실제 굿 연행을 담당하지 않아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높은공수를 굳이 내리지 않아도 굿을 이어진다. 높은공수가 약화되고 얇은공수 중심으로 굿이 연행되지만 재가집의 핵심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긴공수는 사라지는 추세이다. 다소 의례적일 수도 있는 긴공수를 내리기보다 재가집이 원하는 공수를 곧장 내린다. ‘걱정하지 마라 이 사업 잘된다.’, ‘이번 일 잘 풀린다.’는 식의 답을 곧장 내린다. 굿을 연 재가집이 굿판에 올 때, 과거에는 여러 명이 함께 와서 긴공수는 핵심 재가집이 듣고 나머지는 서린공수를 들었다 최근에는 재가집이 주로 혼자 오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어 서린공수를 내릴 기회도 줄어든다. 긴공수, 서린공수라는 인식 자체가 만신 뿐만 아니라 재가집에도 없게 되면서 단순하게 공수를 준다는 인식이 주가 되었다. 재가집이 원하는 바에 맞춰 공수를 내리면 되어서 다양한 공수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쇠열이타령>에 대한 인식도 약화되면서 흘림공수가 생략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 황해도굿 만신들에게 공수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허리공수 형태의 공수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과거와 달리 굿을 연행하는 중간에 내리는 공수만을 허리공수라 부르지 않고, 굿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내리는 모든 공수의 형식이 허리공수이다. 짧고 간결하게 재가집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수를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양한 공수의 형태를 중심으로 만신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 이 굿판에 표출되었지만, 공수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면서 만신이 가지고 있는 무속 지식보다, 재가집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수를 내리는 능력이 중심이 되었다. 황해도굿의 일반적인 흐름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그를 굿 연행에 반영하던 만신이 아닌, 재가집에 초점을 맞추는 만신이 굿을 주도하게 되면서, 굿거리의 급격한 변화가 있게 되고, 굿 연행 시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다. 황해도굿은 1박2일간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영업용 굿당에서 굿을 연행하더라도, 첫날 굿당에 들어가 상을 차리고 모든 굿 준비를 마친 후 굿당에 머물면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둘째 날에 재가집이 굿당에 들어오면 격식을 갖추어 굿을 연행하였고, 황해도굿에 종사하는 이들은 굿하는 날 전날 굿당에 들어간다는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당일 굿준비를 마치고 곧장 이어서 굿을 연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사소할 수 있는 굿의 원칙이 흔들리면서, 공수의 종류를 통해 나타났던 만신의 다양한 능력도 이제는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공수의 종류를 나누고 그에 부응하여 굿을 연행한다는 것은 굿이 가지고 있는 엄정함의 준수이다. 공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이를 굿 상황에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하기보다는 재가집의 요구에만 맞추는 것은 굿이 가지고 있는 엄정함이 사라진다는 의미로, 사회문화의 흐름에 맞춘 무당굿의 적응일 수도 있지만, 전형성을 갖추고 나름의 원칙을 지키는 굿을 점차 찾기 어렵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공수의 종류를 나누어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은, 황해도굿이 지금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 공수이기 때문이다. 좀더 다양한 굿의 연행 양상을 바탕으로 황해도굿의 변화상을 살피면 공수가 가진 의미가 좀더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글쓴이의 과제가 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강석정, 『한국의 무가13-철물이굿』, 민속원, 2019.

양종승, 『한국의 무속-서울·황해도편』, 국립민속박물관, 1999.

논문

홍태한, 「강신무굿판의 공수의 의미와 기능」, 『남도민속연구』 21권, 남도민속학회, 2010, 339-365쪽.

——, 「황해도굿 쇠열이타령의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2호, 동아시아고대학회, 2021, 103-125쪽.

——, 「황해도굿의 현재적 변화상과 전망」, 『남도민속연구』 35권, 남도민속학회, 2017, 235-258쪽.

■ 국문초록

이 글은 황해도굿판의 공수(신령이 인간에 내리는 말)의 종류와 특징, 의미를 살핀 글이다. 황해도굿에는 신령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높은공수’와 인간에게 신령의 뜻을 알려주는 ‘얇은공수’가 있다. 얇은공수에는 긴공수, 서린공수, 허리공수, 흘림공수가 있다. 긴공수는 재가집(신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길게 내리는 공수로 무당이 가지고 있는 무속 지식을 활용하고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서린공수는 굿판에 온 여러 사람에게 내리는 공수를 무당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필요로 한다. 허리공수는 굿을 연행하는 도중에 내리는 공수로 영험함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흘림공수는 신령이 굿청에 들어옴을 알리는 것으로 굿의 의례성을 나타내면서 공식적인 대응 능력을 보여준다. 황해도굿의 다양한 공수 형식에 무당의 여러 능력이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는 공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면서 대부분 허리공수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다양한 공수의 형태를 중심으로 만신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굿판에 표출되었지만, 공수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면서 만신이 가지고 있는 무속 지식보다, 재가집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수를 내리는 능력이 중심이 되었다.

주제어 • 강신무굿, 공수, 황해도굿, 무속 지식, 무당, 만신

■ Abstract

The aspect and meaning of Hwanghaedogut Gongsu

Hong Teahan /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types,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gongsu (words that spirits give to humans) of Hwanghaedogut. In Hwanghaedogut, there are ‘nopeun-gongsu’ in which the spirit expresses its existence and ‘yateun-gongsu’ in which humans are informed of the spirit’s meaning. gin-gongsu, seorin-gongsu, heorit-gongsu, and hullim-gongsu are examples of yateun-gongsu. Gin-gongsu is an airlift that specifically lowers the situation of jaegajip (Shindo), and utilizes the shaman’s knowledge and tolerant expression. Seorin-gongsu requires the shaman’s ability to immediately respond to the airlift that is given to several people who come to the gutpan. The heorit-gongsu conveys the core content based on the spirit’s spirituality with the airlift that is dropped during the performance of the gut. Hullim-Gongsu shows the official response ability by indicating the ritual of the gut by indicating that the spirit enters the gut. Several abilities of shaman appear in the various forms of airlift in Hwanghaedogut. However, as the perception of airlift has weakened, most of them are changing into the form of waist gongsu. In the past, the various knowledge and experiences of mansin were expressed in the gutpan, centering on various types of airlift, but as the perception of the type of airlift disappeared, the ability to give airlift in response to the demand of homebody became more central than the shamanic knowledge.

Keyword • gangshinmugut, gongsu (words that spirits give to humans), gongsu, Hwanghaedogut, shaman's knowledge, shaman, manshin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 가 소비자의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 디자인 태도의 매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김 유 빈 · 김 혜 균*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및 절차
4. 실증분석 결과 및 논의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현대 소비자는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각각이 아닌 통합된 이미지로 인식하며, 이를 자기 표현과 감성 전달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부합하는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은 시각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감성 마케팅 전략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뷰티 산업 전반에서 통합 스타일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와 학계 모두에서 소비자 반응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며, 여전히 의상, 헤어, 메이크업을 개별 요소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 김유빈(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의상학과 석박사통합과정
김혜균(교신저자)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경영학과 교수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통합된 시각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해석과 감정적 반응, 가치 인식의 구조적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은 심미성, 기능성, 창의성과 같은 디자인 평가 요소가 소비자의 감정, 태도,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해 왔다(Bloch et al., 2003,¹⁾ Hekkert & Leder, 2008,²⁾ Fiore et al., 2005³⁾).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단일 제품이나 개별 디자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토탈 스타일링처럼 통합된 시각 자극에 대한 소비자 반응 구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디자인 평가 요소가 소비자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었으나, 디자인 태도를 매개로 한 인지-정서-가치의 전이 과정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다. 디자인 태도는 소비자의 내적 감정과 평가를 반영하며, 궁극적으로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 이는 ABC 모형(Affect-Behavior-Cognition) 및 VAB 모형(Value-Attitude-Behavior)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첫째, 기존의 단일 요소 중심 분석에서 벗어나, 의상, 헤어, 메이크업이 통합된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을 하나의 시각 자극으로 설정하여 소비자 반응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디자인 평가 요소가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자인 태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Bloch, P. H., Brunel, F. F., & Arnold, T. J.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entrality of visual product aesthetics: Concept and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9, no. 4, 2003, pp.551-565.

2) Ibid., pp.551-565.

3) Fiore, A. M., Kim, J., & Lee, H. H. "Effect of image interactivity technology on consumer responses toward the online retailer",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 19, no. 3, 2005, pp.38-53.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질문을 제시한다:

첫째,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는 소비자의 디자인 가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디자인 태도는 이 영향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통합 스타일링에 대한 소비자 반응 구조를 체계화하고, 실무적으로는 디자인 기반의 감성 마케팅 전략 및 맞춤형 토탈 코디네이션 서비스 개발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1)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개념 및 구성요소

토탈 코디네이션(Total Coordination) 스타일링은 의상(fashion), 헤어스타일(hairstyle), 메이크업(makeup)이라는 세 가지 시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스타일링 전략이다.⁴⁾ 이들은 각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소비자의 외적 이미지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와 같은 스타일링은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적합한 이미지를 구성하며, 감성적 의미와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각 언어로 기능한다.⁵⁾ 단순히 시각 요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TPO라는 맥락 속에서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하나의 완결된 이미지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⁶⁾

4) 유한나·최경실, 「영화 시상식에 나타난 토탈 코디네이션의 형태와 색채 분석: 의상, 메이크업, 헤어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27권 제1호, 한국색채학회, 2013, 61-75쪽.

5) 최수경, 「토탈 패션을 위한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제61권 제3호, 한국복식학회, 2011, 103-114쪽.

6) Hekkert, P. & Leder, H. "Product aesthetics", In Schifferstein, H. N. J. & Hekkert, P. eds. *Product Experience*, Elsevier, 2008, pp.259-285.

첫째, 의상은 전체 스타일의 구조와 분위기를 결정짓는 중심 요소로, 실루엣, 컬러, 소재를 통해 스타일의 기초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는 체형과 개성, 컬러 이미지의 조화를 고려하여 조형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각적 틀을 제공한다.⁷⁾

둘째, 헤어스타일은 얼굴형과 조화를 이루며 개성을 표현하는 시각적 수단으로, 형태·컬러·질감을 통해 인상을 보완하고 스타일의 통일성을 강화한다.⁸⁾

셋째, 메이크업은 디테일과 색감으로 인상을 구체화하고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이며, 감성적 표현의 핵심 수단으로서 얼굴을 통해 스타일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⁹⁾

이처럼 세 요소는 단순한 시각 자극을 넘어, 소비자의 감성·정체성을 표현하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로 기능한다. 따라서 토탈 코디네이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시각적 속성의 조합을 넘어 소비자의 총체적 인식 구조와 반응 경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표 1]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구성요소 및 주요 속성

구성요소	개념 정의	주요 속성	참고문헌
의상 (Fashion)	전체 스타일의 구조 및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심 요소	실루엣, 컬러톤, 소재감	허진애 & 공차숙 (2011), 최수경(2011)
헤어스타일 (Hair)	얼굴형과 조화를 이루며 개성 및 역할을 시각적으로 보완하는 요소	얼굴형 보완, 개성 반영, 조화성	유한나 & 최경실 (2013)
메이크업 (Makeup)	컬러감과 디테일을 통해 인상을 구체화하며 스타일링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	디테일 구성, 표정 강조, 색상 활용	최수경(2011)

7) 허진애·공차숙, 「Girl group의 토탈 코디네이션에 표현된 이미지 연구: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11, 157-165쪽.

8) 유한나·최경실, 앞의 논문, 61-75쪽.

9) 최수경, 앞의 논문, 103-114쪽.

2)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은 소비자에게 심미적 만족뿐 아니라 정제성, 실용성, 감성적 가치까지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 속성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주요 디자인 평가 요소는 다음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표 2]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

평가 요소	개념 정의	참고문헌
심미성	스타일링이 시각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인식되는 정도	Hekkert & Leder (2008), Holbrook (1999), Li & Zhang, 2021
조화성	의상, 헤어, 메이크업이 톤·무드·스타일 측면에서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연출된 정도	
창의성	스타일링이 참신하고 독창적이라고 인식되는 정도	
기능성	스타일링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 TPO에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정도	
자기표현력	스타일링을 통해 자신의 개성, 정체성,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	
전문성	스타일링이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완성도 있게 연출되었다고 평가되는 정도	

첫째, 심미성은 스타일링이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세련되게 인식되는 정도로, 조화와 균형을 통해 소비자의 미적 만족을 유도하는 핵심 요인이다.¹⁰⁾ 둘째, 조화성은 의상, 헤어, 메이크업 등 구성 요소 간 톤, 무드, 스타일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의미하며, 전체 스타일의 일체감을 높인다.¹¹⁾ 셋째, 창의성은 기존의 틀을 벗어난 독창적인 표현이나 조합을 통해 스타일링이 얼마나 새롭고 참신하게 느껴지는지를 나타낸다.¹²⁾ 넷째, 기능성은 스

10) Hekkert, P. & Leder, H. "Product aesthetics", op. cit., pp.259-285.

11) Li, Y. & Zhang, X. "An exploration of how creativity,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are related to product design: A case study of design experts' evaluations", *Research in Engineering Design*, vol. 32, no. 1, 2021, pp.1-18.

12) Ibid., pp.1-18.

타일링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 상황(TPO)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요소로, 착용의 편의성과 실용성을 포함한다. 다섯째, 자기표현력은 스타일링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과 감정, 개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스타일링의 심리적 가치와 밀접하다.¹³⁾ 여섯째, 전문성은 스타일링의 전반적인 완성도와 디테일이 전문가 수준의 세련됨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며, 고급 이미지 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준다.

3) 디자인 태도 (Design Attitude)

디자인 태도는 소비자가 스타일링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평가와 전반적인 반응 성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제품 또는 스타일링에 대한 호감도, 신뢰감, 감정적 유대감, 개인적 취향과의 일치성 등을 포함한다.¹⁴⁾ 소비자는 스타일링이 제공하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형성하고, 이러한 감정은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태도로 전이된다. 특히 Townsend et al.(2013)¹⁵⁾의 연구에 따르면, 제품 디자인의 형태(form)와 기능(function)은 소비자 평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영향력은 브랜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스타일링이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정서적 공감을 유도할 경우, 소비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4) 디자인 가치 인식 (Perceived Design Value)

디자인 가치 인식은 소비자가 스타일링을 통해 지각하는 기능적 효용,

13) Holbrook, M. B. *Consumer value: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research*, London: Routledge, 1999. pp.37-39.

14) Mitchell, A. A. & Olson, J. C. "Are product attribute beliefs the only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s on brand attitud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3, 1981, pp.318-332.

15) Townsend, C., Montoya, M. M., & Calantone, R. J. "Form and function: A matter of perspectiv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28, no. 3, 2013, pp.374-377.

감성적 만족감, 상징적 의미 등 다양한 차원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¹⁶⁾¹⁷⁾ 기능적 가치 측면에서는 스타일링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밀착형 연출을 제공한다고 인식될 때 그 가치가 더욱 강화된다. 감성적 가치의 경우, 스타일링이 즐거움이나 기분 전환 등 정서적 만족을 제공하면 소비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¹⁸⁾ 또한, 상징적 가치는 스타일링이 자아 표현이나 사회적 이미지 형성의 수단으로 활용될 때 발생하며,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은 소비자가 TPO에 맞는 외적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성과 자기표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자인 가치 인식을 형성한다.¹⁹⁾

3.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의 구성

본 연구의 핵심은 소비자가 지각하는 디자인 평가 요소가 디자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가 다시 디자인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는 심미성, 조화성, 창의성, 기능성, 자기표현력, 전문성 등 총 여섯 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기존 연구들(Bloch et al., 2003;²⁰⁾ Creusen & Schoormans, 2005;²¹⁾ Homburg et

16) Zeithaml, V. A.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vol. 52, no. 3, 1988, pp.2-22.

17) Luchs, M. G. & Swan, K. S. "Perspective: The emergence of product design as a field of marketing inquiry",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28, no. 3, 2011, pp.327-345.

18) Holbrook, M. B. op. cit., pp.37-39.

19) Luchs, M. G. & Swan, K. S. op. cit., pp.327-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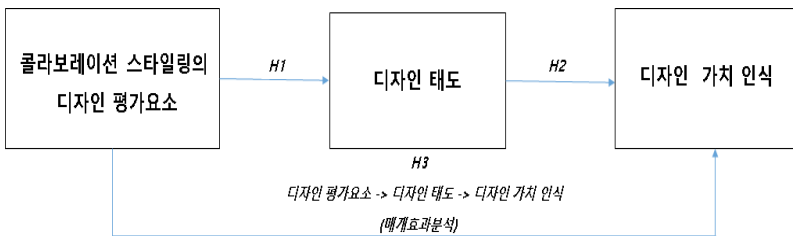
20) Bloch, P. H., Brunel, F. F., & Arnold, T. J. op. cit., pp.551-565.

21) Creusen, M. E. H. & Schoormans, J. P. L. "The different roles of product

al., 2015;²²⁾)을 바탕으로 각적 요소가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 품질 인식,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Zeithaml(1988)²³⁾과 Luchs and Swan(2011)²⁴⁾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품질 및 태도 인식은 가치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지-정서-가치의 연계 구조를 전제로, 디자인 평가요소 → 디자인 태도 → 디자인 가치 인식으로 이어지는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구조화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소비자는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시각적 요소를 평가함으로써 감정적 반응과 전반적인 태도를 형성하며, 이는 다시 가치 인식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러한 인식 구조에서 디자인 태도가 긍정적 감정과 신뢰, 호감 등을 유도하며, 소비자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임을 제시한

appearance in consumer choic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22, no. 1, 2005, pp.63-81.

22) Homburg, C., Schwemmle, M., & Kuehnl, C. “New product design: Concept,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arketing*, vol. 79, no. 3, 2015, pp.41-56.

23) Zeithaml, V. A. op. cit., pp.2-22.

24) Luchs, M. G. & Swan, K. S. op. cit., pp.327-345.

다.²⁵⁾²⁶⁾²⁷⁾²⁸⁾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1: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는 소비자의 디자인 태도에 정(+)²⁵⁾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소비자의 디자인 태도는 디자인 가치 인식에 정(+)²⁶⁾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는 디자인 태도를 매개로 하여 디자인 가치 인식에 간접적인 정(+)²⁷⁾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 수집 및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본 연구는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가 디자인 태도와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화된 자가기입식 설문조사(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의상, 헤어, 메이크업이 통합되기 전의 모습과 스타일링이 완료된 후의 모습을 각각 보여주는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 전·후 비교 이미지를 자극물로 제시하였으며, 응답자는 이를 관찰한 후 디자인 평가 요소, 디자인 태도, 디자인 가치 인식에 대한 인식을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문항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자인 평가 요소 6개(심미성, 조화성, 창의성, 기능성, 자기표현력, 전문성), 매개변수(디자인 태도), 종속변수(디자인 가치 인식)를 포

25) Bloch, P. H., Brunel, F. F., & Arnold, T. J. op. cit., pp.551-565.

26) Townsend, C., Montoya, M. M., & Calantone, R. J. op. cit., pp.374-377.

27) Mitchell, A. A. & Olson, J. C. op. cit., pp.318-332.

28) Zeithaml, V. A. op. cit., pp.2-22.

함하였다.

모든 항목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5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2) 조사 대상 및 표본 설계

조사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의상·헤어·메이크업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토털 코디네이션 스타일링 서비스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여성 소비자로 설정하였다. 이는 경험 기반의 신뢰도 높은 지각 반응 확보를 위한 목적이다.

표본은 연령, 직업,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구성되었으며, Google Forms를 통해 전국 단위의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이며, 총 307부의 응답 중 불성실 응답 및 무응답을 제외한 275부가 최종 유효 표본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설문지 구성 및 측정 도구

설문지는 총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구성되었다:

첫째, 디자인 평가 요소는 6가지 하위 요인(심미성, 조화성, 창의성, 기능성, 자기표현력, 전문성)을 기준으로 총 24문항

둘째, 디자인 태도는 호감도 및 긍정 감정 관련 5문항

셋째, 디자인 가치 인식은 기능적, 감성적, 상징적 가치로 구분된 6문항

모든 문항은 이론적 개념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4) 분석 절차 및 통계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설문 응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토 및 가설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단계 통계 분석 절차를 수행

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표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측정 문항의 구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수행하였으며,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신뢰도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측정 변수 간 선형 관계를 확인하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기준으로 회귀분석의 전제 조건을 검토하였다.

연구가설은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독립변수(디자인 평가 요소)와 종속변수(디자인 가치 인식) 간의 직접 효과, 그리고 매개변수(디자인 태도)의 간접 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및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22)²⁹⁾의 PROCESS Macro(version 4.0)를 활용하였으며¹⁾, 분석에는 다음 두 가지 모델이 적용되었다.

첫째, Model 4: 디자인 평가 요소가 디자인 태도를 매개로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간접효과 검증

둘째, Model 14: 디자인 관여도가 매개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이 분석 전반에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5,000회 반복하여 사용하였으며, 간접 및 조절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과 95% 신뢰

29) Hayes, A. F.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22. pp.34-38.

구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 간 인과구조와 조절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본 연구의 실증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및 논의

1)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징

실증분석은 총 275부의 유효 설문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연구 설계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는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20대(21.1%), 30대(29.8%), 40대(26.5%), 50대 이상(22.5%)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73.8%, 미혼이 26.2%였고, 학력은 대학 졸업(39.3%)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전문대 졸업(26.5%), 대학/대학원 재학(20.4%), 고졸 이하(9.1%), 대학원 졸업(4.7%)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400만500만 원 미만(28.2%)과 300만400만 원 미만(27.8%)이 가장 많았고, 그 외 500만 원 이상(22.9%), 200만~300만 원 미만(17.5%), 200만 원 미만(3.6%) 순이었다.

[표 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여성	275	100.0	연령	20대	58	21.1
결혼 유무	미혼	72	26.2		30대	82	29.8
	결혼	203	73.8		40대	73	26.5
학력	고졸이하	25	9.1		50대 이상	62	22.5
	전문대 졸업	73	26.5	소득 (월)	200만원 미만	11	3.6
	대학/대학원 재학	56	20.4		200만원~300만원 미만	48	17.5
	대학 졸업	108	39.3		300만원~400만원 미만	76	27.8
	대학원 졸업	13	4.7		400만원~500만원 미만	77	28.2
					500만원 이상	63	22.9

2) 측정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1)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 디자인 평가 요소

본 연구는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에 대한 구성 타당성과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디자인 평가 요소는 선행연구(Bloch et al., 2003;³⁰⁾ Hekkert & Leder, 2008;³¹⁾ Homburg et al., 2015³²⁾)를 바탕으로 심미성, 조화성, 창의성, 기능성, 자기표현력, 전문성의 6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수를 이론에 근거하여 고정(fixed)한 상태에서 EFA를 수행하였다.

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Varimax 회전 방식을 적용하였고, 요인 적재량 .60 이상을 기준으로 문항을 유지하였다. 모든 문항은 고유값 1 이상인 요인에 안정적으로 적재되었으며, 6개 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약 80%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은 KMO 지수 .93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 = 5243.27$, $df = 276$, $p < .001$ 로 확인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각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846~.882로, 모든 요인이 .80 이상을 상회하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0) Bloch, P. H., Brunel, F. F., & Arnold, T. J. op. cit., pp.551-565.

31) Hekkert, P. & Leder, H. "Product aesthetics", op. cit., pp.259-285.

32) Homburg, C., Schwemmler, M., & Kuehnl, C. op. cit., pp.41-56.

[표 4]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변수	하위 요인	요인 변수	요인 적재량	고 유 값	분산 설명력 (%)	Cronbach's α
디자인 평가 요소	심미성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감각적인 스타일	.828	3.98	16.6	.882
		세련되고 조화로운 전체 이미지	.817			
		색상 및 구성 요소의 미적 조화	.801			
		시각적 만족감을 주는 통합된 스타일	.812			
	조화성	의상, 헤어, 메이크업의 일체감	.792	3.45	14.4	.861
		요소 간 일관된 톤과 무드	.764			
		컨셉트의 통일성과 조화로운 연출	.788			
		이질감 없는 완성도 높은 구성	.829			
	창의성	참신하고 독특한 스타일 요소	.870	3.27	13.6	.873
		기존과 차별화된 개성 표현	.861			
		창의적인 컨셉트 또는 포인트 반영	.813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스타일링	.826			
	기능성	일상생활에서의 실용성	.846	3.02	12.6	.846
		활동성에 적합한 스타일 구성	.785			
		유지·관리의 용이성	.823			
		착용 시 편안하고 유용한 느낌	.838			
	자기 표현력	개성과 정체성 표현 가능	.841	2.87	11.9	.862
		자신만의 스타일 반영에 적합	.857			
		자아 표현 수단으로 적절한 구성	.808			
		착용자의 캐릭터와 조화되는 이미지	.819			
	전문성	전문가 수준의 스타일 연출	.853	2.68	11.1	.879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구성	.791			
		전체적인 마무리의 완성도	.812			
		고급스럽고 기획력 있는 스타일링	.822			

총누적 분산 = 80.2%, KMO = 0.931, Bartlett's $\chi^2 = 5243.27$, df = 276, $p < .001$

(2) 디자인 태도 및 디자인 가치 인식

디자인 태도와 디자인 가치 인식은 각각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변수로,

별도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디자인 태도(5문항)는 고유값 4.92, 설명된 분산 70.3%, 요인 적재량 .811~.873의 안정적인 구조를 보였으며, Cronbach's $\alpha = .886$, KMO = .907, Bartlett의 $\chi^2 = 1326.51$, $df = 21$, $p < .001$ 로 분석의 적합성과 높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디자인 가치 인식(6문항)은 고유값 4.64, 설명된 분산 69.1%, 요인 적재량 .804~.869를 나타냈고, Cronbach's $\alpha = .873$, KMO = .893, Bartlett의 $\chi^2 = 1124.68$, $df = 15$, $p < .001$ 로 내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5] 디자인 태도 및 디자인 가치 인식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측정 변수	요인 변수	요인 적재량	고유값	분산 설명력 (%)	Cronbach's α
디자인 태도	스타일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	.811	4.92	70.3	.886
	개인적 호감 및 선호도	.828			
	신뢰감 있는 스타일 구성	.873			
	전반적 만족도 및 추천 의향	.837			
	미적 기준과의 일치 여부	.819			
KMO = 0.907, Bartlett's $\chi^2 = 1326.51$, df = 21, p <.001					
디자인 가치 인식	실용적이고 유용한 스타일링	.869	4.64	69.1	.873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 가능	.853			
	감정적 만족과 긍정적 경험	.836			
	착용 시 즐거움과 기분 전환	.821			
	개성 및 정체성 표현 수단	.804			
	사회적 이미지 제고 효과	.814			
KMO = 0.893, Bartlett's $\chi^2 = 1124.68$, df = 15, p <.001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 변수인 디자인 평가 요소, 디자인 태도, 디자인 가치 인식은 각각 충분한 요인 적재량과 고유값, 높은 누적 분산 설명력, 그리고 내적 신뢰도를 나타내어 구성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측정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가설 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주요 변수들 간의 기초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디자인 평가 요소의 6개 하위 요인(심미성, 조화성, 창의성, 기능성, 자기표현력, 전문성)과 디자인 태도, 디자인 가치 인식을 포함한 총 8개의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사전에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성이 확인된 측정도구에 기반하였다.

[표 6]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 디자인 평가 요소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심미성	조화성	창의성	기능성	자기 표현력	전문성	디자인 태도	디자인 가치 인식
심미성	1.000							
조화성	.537**	1.000						
창의성	.492**	.544**	1.000					
기능성	.286*	.364**	.518**	1.000				
자기표현력	.478**	.496**	.507**	.303*	1.000			
전문성	.293*	.452**	.553**	.416**	.537**	1.000		
디자인 태도	.603**	.581**	.624**	.335**	.596**	.578**	1.000	
디자인 가치 인식	.449**	.408**	.569**	.290*	.537**	.426**	.682**	1.000

※ 주: N = 275, Pearson 상관계수 기준, *: $p < .05$, **: $p < .01$

상관관계 분석 결과, 모든 디자인 평가 요소는 디자인 태도 및 디자인 가치 인식과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창의성과 디자인 태도 간에는 가장 강한 상관관계($r = .624$, $p < .01$)**가 확인되었으며, 자기표현력($r = .596$, $p < .01$)**과 심미성($r = .603$, $p < .01$) 역시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소비자가 창의적이고 감성적이며 자기표현적인 스타일링으로 인식할수록 해당 스타일링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됨을 시사한다.

또한, 디자인 태도는 디자인 가치 인식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강한 정적 상관관계($r = .682, p < .01$)를 보여, 소비자의 감정적 반응이 인지된 가치로 전이되는 경로의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디자인 평가 요소 중 기능성($r = .335, p < .01$), 전문성($r = .578, p < .01$)과 디자인 태도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디자인 가치 인식과의 관계에서는 전문성($r = .426, p < .01$), 기능성($r = .290, p < .0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 모형(즉, 디자인 평가 요소가 디자인 태도를 통해 디자인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로 가정)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증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기능하며, 이어지는 회귀 및 매개효과 검증의 전제로서 충분한 적합성을 제공하였다.

4) 가설 검증: 매개효과 분석 결과

(1) 가설 1 검증 결과

가설 H1을 검증하기 위해,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를 구성하는 6개 하위 속성(심미성, 조화성, 창의성, 기능성, 자기표현력, 전문성)을 독립변수, 디자인 태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7]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 디자인 평가 요소와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t	p	공산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	VIF
심미성	.212	.067	.213	3.16	.002**	.612	1.634
조화성	.095	.06	.101	1.58	.115	.643	1.555
창의성	.288	.071	.289	4.08	.000**	.587	1.702
기능성	.056	.058	.058	.97	.333	.675	1.481
자기표현력	.184	.068	.182	2.71	.001**	.624	1.602

전문성	.091	.064	.095	1.42	.158	.631	1.585
$R^2=.156$, Adjusted $R^2=.137$, $F=8.25$, $p=.000$							

※ 종속변수: 디자인 태도, *: $p < .05$, **: $p < .01$

회귀분석 결과, 디자인 평가 요소 중 창의성($\beta = .289$, $p < .001$), 심미성($\beta = .213$, $p = .002$), 자기표현력($\beta = .182$, $p = .001$)은 디자인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스타일링을 창의적이고 미적으로 우수하며 자아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할수록, 해당 스타일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적 반응이 형성됨을 시사한다.

반면, 조화성($p = .115$), 기능성($p = .333$), 전문성($p = .158$)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디자인 태도 형성에 있어 기능적 완성도나 균형감보다는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전체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2 = .156$, Adjusted $R^2 = .137$ 로 나타났으며,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8.25$, $p < .001$). 회귀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성이 이를 뒷받침하며, 모든 독립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Byun et al. (2018)³³⁾의 연구와도 일치하며, 디자인 중심 소비자들이 제품의 심미성과 창의성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이러한 속성이 소비자 정체성과 부합할 때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설 H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창의성 중심의 디자인 속성이 소비자 인식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2) 가설 2 검증 결과

33) Byun, K.-A., Jones, R. P., & Wooldridge, B. R. "It is not always about brand: Design-driven consumers and their self-expression",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vol. 43, 2018, pp.296-303.

가설 H2를 검증하기 위해, 디자인 태도를 독립변수로, 디자인 가치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 디자인 태도가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β)	t	p	공산성 통계량	
	B	표준오차				공차	VIF
디자인 태도	.713	.055	.682	13.02	.003**	1.0	1.0

$R^2=.465$, Adjusted $R^2=.463$, $F=169.52$, $p=.000$

※ 종속변수: 디자인 가치 인식, *: $p < .05$, **: $p < .01$

분석 결과, 디자인 태도는 디자인 가치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beta = .682$, $t = 13.02$, $p = .003$). 조정 결정 계수(Adjusted R^2)는 .463으로, 전체 변량의 약 46.3%가 디자인 태도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공차(Tolerance)와 VIF가 각각 1.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가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에 대해 긍정적인 정서적·인지적 태도를 가질수록, 해당 스타일링의 기능적 유용성, 감성적 만족감, 상징적 의미를 더욱 높게 인식하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높은 회귀 계수와 유의한 t값은 디자인 태도가 디자인 가치 인식의 핵심 선행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주요 선행연구들과도 이론적 맥락을 공유한다. Kim et al.(2021)³⁴⁾은 순환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및 위험 인식이 제품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구매 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혔으며, Shi et al.(2021)³⁵⁾은 제품 디자인의 심미성이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과 인지

34) Kim, I., Jung, H. J., & Lee, Y. "Consumers' value and risk perceptions of circular fashion: Comparison between secondhand, upcycled, and recycled clothing", *Sustainability*, vol. 13, no. 3, 2021, p.1208.

35) Shi, A. Q., Huo, F. R., & Hou, G. H. "Effects of design aesthetics on the perceived value of a product",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2, 2021,

된 가치를 높여 소비자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Luchs and Swan(2011)³⁶⁾은 제품 디자인이 단순한 외형을 넘어 소비자의 의사결정과 가치 판단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디자인 태도가 소비자의 가치 인식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 경로임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나아가 디자인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전략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소비자 가치 제고를 위한 실무적 접근의 핵심임을 시사한다.

(3) 가설 3 검증 결과

본 연구는 Hayes(2018)의 절차 기반 매개효과 분석(regression-based approach)을 바탕으로,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디자인 평가 요소가 디자인 태도를 매개로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에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이 5,000회 반복 적용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이 함께 제시되었다.

[표 9] PROCESS Macro (Model 4) 매개효과 분석 결과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총 간접 효과	Boot SE	LLCI (95%)	ULCI (95%)	직접 효과 (B)	직접효과 유의성 (p)	간접효과 유의성 여부
디자인 평가 요소	디자인 태도	디자인 가치 인식	.426	.054	.327	.538	.287	.002	유의함 (p < .01)

R² = .465, Adjusted R² = .463, F = 169.52, p = .000

※ 분석 방법: PROCESS Macro (Model 4), Bootstrapping = 5,000회 반복, 신뢰수준 = 95%

분석 결과, 디자인 평가 요소가 디자인 태도를 통해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26(Boot SE = 0.054)으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

p.67-80.
36) Luchs, M. G. & Swan, K. S. op. cit., pp.327-345.

간 [0.327, 0.538]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접효과 역시 유의한 수준($B = 0.287$, $p = 0.002$)으로 나타나, 간접경로와 직접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 모형은 부분 매개(partial mediation) 형태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디자인 평가 요소가 소비자의 디자인 태도를 매개로 하여 디자인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H3)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 Shi et al.(2021)³⁷⁾은 제품 디자인의 심미성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유도하며, 이러한 감정이 제품에 대한 인지된 가치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uchs and Swan(2011)³⁸⁾은 제품 디자인이 소비자의 지각과 태도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마케팅 요소로 작용하며, 디자인 특성과 소비자 가치 지각 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다양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자인 태도가 소비자의 가치 인식 형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경로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디자인 평가 요소 → 디자인 태도 → 디자인 가치 인식이라는 연쇄적 인과 경로의 타당성을 입증함으로써 가설 H3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디자인 요소가 소비자의 정서적·인지적 평가 과정을 매개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총체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37) Shi, A. Q., Huo, F. R., & Hou, G. H. op. cit., pp.67-80.

38) Luchs, M. G. & Swan, K. S. op. cit., pp.327-345.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가 소비자의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자인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은 의상, 헤어, 메이크업이 통합된 형태의 패키지형 서비스로, 최근 뷰티 및 패션 분야에서 소비자의 자기표현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소비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모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심미성, 조화성, 창의성, 기능성, 자기표현력, 전문성의 여섯 가지 디자인 평가 요소가 디자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디자인 태도가 다시 디자인 가치 인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설정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해당 스타일링 서비스를 경험한 20세 이상 여성 소비자 27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PROCESS Macro(Model 4)를 활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가설 H1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창의성, 심미성, 자기표현력은 디자인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조화성, 기능성, 전문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감성적이고 표현적인 속성이 소비자 태도 형성에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가설 H2는 유의하게 지지되었으며, 디자인 태도는 디자인 가치 인식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조정된 설명력은 46.3%로 확인되어 디자인 가치 인식의 핵심 예측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셋째, 가설 H3에 대한 PROCESS Macro Model 4 분석 결과, 디자인 평가 요소가 디자인 태도를 매개로 디자인 가치 인식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미치는 부분 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Bootstrap 5,000회 반복 분석에서 95% 신뢰구간(LLCI~ULCI)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 연구들이 제품 디자인이나 개별 패션 아이템 중심이었다면, 본 연구는 복합적 스타일링 소비 경험에 기반하여 디자인 소비 연구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장하였다. 둘째, 디자인 태도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논의는 있었으나, 이를 디자인 평가 요소와 소비자 가치 인식 간의 간접 경로로 실증한 사례는 드물었으며, 본 연구는 Hayes(2022) Hayes, A. F. op. cit., pp.34-38.

의 절차 기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정량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기존 연구들이 단일 속성 중심의 평가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6가지 다차원 요인으로 구성된 디자인 평가 체계를 실제 소비 경험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 차별적인 기여를 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의성, 심미성, 자기표현력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만큼 감성적·창의적 디자인 요소에 집중한 스타일링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디자인 태도가 디자인 가치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의 내면적 만족과 자아정체성 표현을 고려한 브랜딩 전략이 중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실제 서비스 경험자들의 일관된 인식 및 반응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맞춤형 토탈 코디네이션 서비스 및 플랫폼 개발의 실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통합형 스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패션·뷰티·메이크업 관련 종사자들은 소비자의 자기표현 욕구 충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기획이 소비자 충성도 제고에 유리함을 인식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조사 대상이 20세 이상 여성에 한정되어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이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세분화된 집단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다. 둘째, 단일 스타일링 이미지를 자극물로 활용하여 다양한 스타일링 유형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복수 자극물 기반의 후속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기반하여, 소비자 행동의 장기적 변화나 충성도 형성 경로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종단 연구나 실험 기반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유한나·최경실, 「영화 시상식에 나타난 토탈 코디네이션의 형태와 색채 분석: 의상, 메이크업, 헤어로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논문집』 제27권 제1호, 한국색채학회, 2013, 61-75쪽.
- 허진애·공차숙, 「Girl group의 토탈 코디네이션에 표현된 이미지 연구: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지』 제12권 제1호, 한국인체미용예술학회, 2011, 157-165쪽.
- 최수경, 「토탈 패션을 위한 의복이미지, 메이크업이미지, 헤어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제61권 제3호, 한국복식학회, 2011, 103-114쪽.
- Bloch, P. H., Brunel, F. F., & Arnold, T. J.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centrality of visual product aesthetics: Concept and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29, no. 4, 2003, pp.551-565.
- Byun, K.-A., Jones, R. P., & Wooldridge, B. R. "It is not always about brand: Design-driven consumers and their self-expression",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vol. 43, 2018, pp.296-303.
- Creusen, M. E. H. & Schoormans, J. P. L. "The different roles of product appearance in consumer choic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22, no. 1, 2005, pp.63-81.
- Fiore, A. M., Kim, J., & Lee, H. H. "Effect of image interactivity technology on consumer responses toward the online retailer",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 19, no. 3, 2005, pp.38-53.
- Hayes, A. F.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22. pp.34-38.
- Hekkert, P. & Leder, H. "Product aesthetics", In Schifferstein, H. N. J. & Hekkert, P. eds. *Product Experience*, Elsevier, 2008,

pp.259-285.

Holbrook, M. B. *Consumer value: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research*, London: Routledge, 1999.

Homburg, C., Schwemmler, M., & Kuehnl, C. "New product design: Concept, measurement, and consequences", *Journal of Marketing*, vol. 79, no. 3, 2015, pp.41-56.

Japutra, A., Molinillo, S., & Wang, S. "Aesthetic or self-expressiveness? Linking brand logo benefits, brand stereotypes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vol. 44, 2018, pp.191-200.

Kim, I., Jung, H. J., & Lee, Y. "Consumers' value and risk perceptions of circular fashion: Comparison between secondhand, upcycled, and recycled clothing", *Sustainability*, vol. 13, no. 3, 2021, p.1208.

Li, Y. & Zhang, X. "An exploration of how creativity,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are related to product design: A case study of design experts' evaluations", *Research in Engineering Design*, vol. 32, no. 1, 2021, pp.1-18.

Luchs, M. G. & Swan, K. S. "Perspective: The emergence of product design as a field of marketing inquiry",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28, no. 3, 2011, pp.327-345.

Mitchell, A. A. & Olson, J. C. "Are product attribute beliefs the only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s on brand attitude?",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3, 1981, pp.318-332.

Shi, A. Q., Huo, F. R., & Hou, G. H. "Effects of design aesthetics on the perceived value of a product",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2, 2021, p.67-80.

Townsend, C., Montoya, M. M., & Calantone, R. J. "Form and function: A matter of perspective",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28, no. 3, 2013, pp.374-377.

- Townsend, J. D., Kang, W., Montoya, M. M., & Calantone, R. J. "Brand-specific design effects: Form and function",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vol. 30, no. 5, 2013, pp.994-1008.
- Zaichkowsky, J. L. "Measuring the involvement constru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2, no. 3, 1985, pp.341-352.
- Zeithaml, V. A.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vol. 52, no. 3, 1988, pp.2-2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의 디자인 평가 요소가 소비자의 디자인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디자인 태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1년 이내 해당 서비스를 경험한 여성 소비자 27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요인분석, 회귀분석, PROCESS Macro(Model 4)를 통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디자인 평가 요소 중 창의성, 심미성, 자기표현력은 디자인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조화성, 기능성, 전문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디자인 태도는 디자인 가치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효과 분석 결과 디자인 평가 요소는 디자인 태도를 매개로 가치 인식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융합적 스타일링 경험을 반영하여 소비자 인식 구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소비자 특성과 자극물을 반영한 확장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토탈 코디네이션 스타일링, 디자인 평가 요소, 디자인 태도, 디자인 가치 인식, 소비자 인식, 매개효과

■ Abstract

The Influence of Design Evaluation Factors in Total Coordination Styling on Perceived Design Value : An Empirical Study on the Mediating Role of Design Attitude

Kim, Yu Been / Sungkyunkwan University

Kim, Hye Kyun / Woosong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design attitu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sign evaluation factors of total coordination styling and consumers' perception of design value. A structured survey was conducted with 275 female consumers aged 20 and older who had experienced total coordination styling services within the past year. The research model was validat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ROCESS Macro (Model 4).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design evaluation factors, creativity, aesthetics, and self-expression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design attitude, whereas harmony, functionality, and professionalism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Design attitude had a strong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design value and served as a key mediating variable. Furthermore, the mediation analysis confirmed that design evaluation factors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design value perception via design attitud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mpirical understanding of consumer perception structures by incorporating the integrated design experience of total coordination styling. Based on the findings,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diverse consumer groups and multiple types of styling stimuli to enhance generalizability and practical application.

Keyword • Total Coordination Styling, Design Evaluation Factors, Design Attitude, Perceived Design Value, Consumer Perception, Mediation Effect

■ 논문투고일:2025.05.31. ■ 심사완료일:2025.07.15. ■ 게재확정일:2025.07.18. ■

손드하임 뮤지컬의 캐릭터 정체성의 형성과 사회적 의미

박 문 희*

목 차

1. 서론
2. 본론
 - 1) 캐릭터의 정체성
 - 2) 스토리텔링에서 캐릭터 정체성의 역할
 - 3) 뮤지컬 캐릭터의 정체성 형성의 의미
 - 4) 손드하임 뮤지컬 캐릭터의 정체성
 - 5) 손드하임의 캐릭터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의미
3. 결론

1. 서론

“Stephen Sondheim, *Titan of the American Musical*, Is Dead at 91” - NY Times

“Stephen Sondheim, *the Broadway legend*, has died at 91” - NPR

“*Musical theatre icon* Stephen Sondheim dies at 91” - BBC

“Towering *musical theater master* Stephen Sondheim dies at 91” - AP

“Stephen Sondheim, *legendary Broadway composer and lyricist*, dies at 91” - NBC

* 목원대학교 공연콘텐츠학부 부교수

“Stephen Sondheim, *theater icon who reshaped musicals*, dies at 91” - PBS

“Stephen Sondheim, *central figure in American musical theater*, dies at 91” - Washington Post

“Stephen Sondheim, *master of musical theater*, dead at 91” - CNN

2021년 11월 26일 미국의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은 손드하임(Stephen Sondheim)의 죽음이었다. ‘중심인물’ ‘전설’ ‘뮤지컬의 대가’ ‘뮤지컬의 거인’ ‘뮤지컬의 상징’ 등으로 불린 손드하임은 뮤지컬에서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작곡가이자 작사가다. 이전의 뮤지컬과는 다른 캐릭터와 내러티브, 혁신적인 작곡으로 유명한 손드하임은 뮤지컬 장르의 지형을 재편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손드하임의 뮤지컬은 단순한 대중 오락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며 예술적, 학문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손드하임이 2021년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혁신적인 기법은 여전히 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기준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는 수많은 작곡가들이 그의 영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그의 스타일을 자신들의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서사 구조의 단편화, 대화적이고 심리적인 가사, 그리고 전통적인 조성과 리듬을 깨뜨리는 실험적 기법들은 현대 뮤지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Hamilton>의 린 마누엘 미란다(Lin-Manuel Miranda)는 손드하임의 리듬적 복잡성과 서사의 단편화를 발전시켰으며, <Dear Evan Hansen>의 벤지 파섹(Benj Pasek)과 저스틴 폴(Justin Paul)은 심리적 깊이와 열린 결말, 그리고 일상 대화체의 가사를 적극적으로 차용했다. 또한 <Hadestown>의 애나이스 미첼(Anaïs Mitchell)은 손드하임의 주제적 어두움과 비전통적인 곡 구조를 계승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손드하임이 뮤지컬 장르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그의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현대 뮤지컬의 발전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현재 브로드웨이가 점점 더 내면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드하임의 컨셉뮤지컬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2017년 인터뷰에서 미란다는 손드하임의 뮤지컬 스토리텔링 접근법이 <해밀턴>의 캐릭터 서사와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방식에 영감을 주었다고 밝힌 바 있다.¹⁾

손드하임의 뮤지컬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고민을 탐구하며, 이는 현대 사회의 심리적, 사회적 맥락에서 더욱 깊이 공감된다. 그의 작품 속에서 다루어지는 사랑, 헌신, 존재적 불안,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Company>는 현대인의 연애 불안, 데이트 문화, 결혼에 대한 재정의를 반영하며, <Sweeney Todd>는 복수와 정의, 그리고 트라우마의 영향을 탐구한다.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는 창작자의 정체성과 개인적 만족, 그리고 예술과 현실의 경계를 다루며, <Assassins>는 정치적 환멸과 폭력의 문제를 분석한다. 이러한 주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맞닿아 있으며, 손드하임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뮤지컬이 현대 사회를 반영하고 비판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브로드웨이와 서양 뮤지컬이 점점 더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손드하임이 개척한 복합적인 캐릭터 분석과 정체성 문제는 현대 창작자들에게 필수적인 학습 대상이 된다. 그의 작품을 연구하는 것은 그의 유산을 새로운 예술적 맥락에서 보존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뮤지컬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예술적, 철학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장르

1) <https://www.classical-music.com/features/artists/lin-manuel-miranda>, 2024.02.10.

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뮤지컬 손드하임의 대표작 <Company>의 캐릭터 정체성 형성을 통해 손드하임 뮤지컬이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Company>는 포스트모던 환경 속에서 캐릭터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전형적인 작품으로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모호함을 반영하는 그의 심오한 능력을 입증하는 증거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밝히고, 뮤지컬의 포스트모던 감성이 어떻게 뮤지컬의 영역 내에서 캐릭터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하고 재구성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2. 본론

1) 캐릭터의 정체성

정체성(identity)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 구성하는 상황에서 어떤 독자성을 표현, 성취하고자 하는 개인의 시도'²⁾이고, 둘째, '정체성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 정체성은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할 수 있다.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신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개인'으로서 존재한다는 자각을 한다.'³⁾고 한다. 또한, 맥라클린(Robert L. Mclaughlin)의 경우 정체성이 지식과 언어를 통해 구조화되며 인종, 성별, 섹슈얼리티, 계급, 종교 등과 같은 사회적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고 주장⁴⁾한

2)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848&cid=60657&categoryId=60657>, 2024.01.22.

3) Wikipedia Encyclopedia,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B2%B4%EC%84%B1>, 2024.01.10.

4) Robert L. Mclaughlin, *Stephen Sondheim and The Reinvention of the*

다. 즉, 정체성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한 인간이 타인과 상호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적극적인 노력인 것이다.

캐릭터의 정체성도 다르지 않다. 캐릭터는 실제로는 단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존재이고, 대본 안에 추상적인 윤곽으로만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캐릭터를 살아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이유는 캐릭터가 ‘행동(action)’을 가지고 있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이며 그 노력의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또는 시간의 흐름에서 캐릭터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작가는 이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주제(theme, 내용)’와 ‘구조(structure, 형식)’의 결합을 통해 구체화 되기 때문에 캐릭터 정체성의 탐구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주제’는 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 중심사상일 뿐만 아니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집약이고, 인물의 행동, 진술, 사상 등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조’는 주제를 정렬하는 방식, 주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 있는 것⁵⁾이기에 ‘주제’와 ‘구조’ 다른 말로 ‘내용’과 ‘형식’을 하나로 집약하여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캐릭터이고 캐릭터가 작품 속에서 그런 전달을 하는 이유와 동기를 설명하는 것이 캐릭터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2) 스토리텔링에서 캐릭터 정체성의 역할

고든(Joanne Gorden)은 ‘손드하임이 지친 사업가들과 그들의 아내들로 구성된 전형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 관객이 도피를 위해 극장으로 도

American Musical, Ridgewood Rd: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16, p.2016.

5) 박문희, 「컨셉뮤지컬에서 컨셉의 개념과 관객의 역할」, 교양교육연구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vol. 9, 2022, 264-265쪽.

망쳤던 바로 그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70년대의 메마른 환멸을 마주했다면서 도피가 뮤지컬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었다.⁶⁾라고, 설명한다. 즉, 현실의 문제에 지친 관객들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사는 뮤지컬의 주인공을 보며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극장을 찾던 그들에게 손드하임의 뮤지컬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1960년대 로저스와 해머스타인(Rodgers and Hammerstein)의 ‘통합뮤지컬(integrated musical)’의 미학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손드하임에게 이전의 뮤지컬과 이별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가운데 핵심은 관객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한 경험을 하는 캐릭터의 등장이었다. 왜냐하면, 캐릭터는 뮤지컬에서 스토리텔링의 기본이고, 관객이 내러티브에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캐릭터 정체성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캐릭터의 정체성은 극적 서사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정체성은 단순히 캐릭터의 이름이나 직업, 외형적 특징을 넘어 그들의 내면적 가치관, 동기, 변화,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의 역할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즉, 캐릭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끊임없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서사를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 캐릭터의 정체성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극이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결정한다. 특히, 정체성의 혼란과 변화는 드라마틱한 긴장감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다. 예를 들어, <Les Miserable>의 ‘장 발장’은 죄수에서 시장, 그리고 성자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이를 통해 극적 긴장과 감동을 만들어 낸다.

6) Joanne L. Gorden, *Art Isn't Easy: The Theater of Stephen Sondheim*, New York: Da Capo Press, 1992, p.3.

셋째, 캐릭터의 정체성은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메시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뮤지컬 <Billy Elliot>에서 ‘빌리’의 정체성은 가난한 탄광촌에서 자란 소년이지만, 그는 자신이 춤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꿈과 사회적 환경의 충돌이라는 작품의 메시지가 더욱 명확해진다.

넷째, 관객이 특정 캐릭터에게 감정이입 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자신과 연결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체성이 뚜렷한 캐릭터일수록 관객의 감정적 몰입이 강해지고, 작품이 끝난 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⁷⁾ 예를 들어, <Dear Evan Hansen>에서 ‘에반 핸슨’의 정체성 즉, 거짓을 이용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외로운 소년은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캐릭터의 정체성은 작품의 연출 방식과 스타일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Hamilton>에서는 주인공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민자 정체성이 강하게 부각 되며, 이 이유로 힙합이라는 현대적 음악 스타일이 선택되었다.⁸⁾ 즉, 캐릭터의 정체성은 단순한 개별 요소가 아니라 극 전체의 미학적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정체성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작품의 구조, 주제, 연출, 감정적 울림 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정체성이 명확한 캐릭터는 더 깊이 있는 갈등을 만들고, 이야기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궁극적으로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연극이든 뮤지컬이든, 캐릭터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은 단순한 설정 작업이 아니라, 작품의 본질을 탐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7) McKee, R. Story: Substance, Structure, Style and the Principles of Screenwriting. HarperCollins. 1997, p.59.

8) <https://www.classical-music.com/features/artists/lin-manuel-miranda>, 2024.10.31.

3) 뮤지컬 캐릭터의 정체성 형성의 의미⁹⁾

비어텔(Jack Viertel)은 그의 저서 『The Secret Life of the American Musical: How Broadway Shows Are Built』에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일정한 구조적 패턴을 따르며, 이 패턴이 캐릭터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뮤지컬 속 캐릭터는 단순히 대사와 행동을 통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과 서사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정체성을 구축하며 변화한다. 비어텔은 이를 분석하기 위해 ‘Opening Number’, ‘I Want Song’, ‘Conditional Love Song’, ‘11 O’Clock Number’ 등 주요 곡들이 캐릭터의 정체성 형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뮤지컬의 첫 번째 곡인 ‘Opening Number’는 단순히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기본 정체성과 그들이 속한 환경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곡을 통해 관객은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며, 앞으로 그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암시를 받는다. 예를 들어, <Hamilton>의 ‘Alexander Hamilton’에서는 주인공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야망을 키우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가 역사적 인물로 성장하는 것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 될 것임을 예고한다. <Into the Woods>의 ‘Prologue: Into the Woods’는 여러 동화 속 캐릭터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노래하며, 각각의 정체성이 초반부에 설정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초반부에서 캐릭터의 기본 정체성이 설정되었다면, ‘I Want Song’에서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욕망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비어텔은 이 곡이 뮤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캐릭터의 목표와

9) 이 장은 다음의 저서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Jack Viertel, *The Secret Life of the American Musical: How Broadway Shows Are Built*, Sarah Crichton Books, 2017.

동기가 명확하게 표현되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순간, 관객은 그의 여정에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된다. <The Little Mermaid>의 'Part of Your World'에서 '에리얼'은 단순한 인어가 아니라 인간 세계에 대한 동경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며, 그녀의 정체성이 이 곡을 통해 더욱 구체화 된다. <Wicked>의 'The Wizard and I'에서는 '엘파바'가 단순한 마녀가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는 인물임이 드러나며, 그녀의 정체성이 이후의 서사 속에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암시한다.

캐릭터의 정체성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구체화 된다. 이러한 과정을 표현하는 곡이 'Conditional Love Song'이다. 비어텔은 이 노래가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캐릭터의 정체성이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캐릭터가 자신의 정체성을 타인의 시선을 통해 다시 정의하는 순간이며, 종종 기존의 가치관과 충돌하기도 한다. <Oklahoma!>의 'People Will Say We're in Love'에서 로리와 커리는 서로에게 끌리지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이 사랑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화할지를 암시한다. <West Side Story>의 'Tonight'에서는 토니와 마리아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지만, 서로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뮤지컬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캐릭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순간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곡이 '11 O'Clock Number'이다. 비어텔은 이 곡이 캐릭터가 자신을 둘러싼 갈등을 직면하고, 정체성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Gypsy>의 'Rose's Turn'에서 '로즈'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욕망과 후회를 토해내듯 노래하는데, 이 장면을 통해 그녀의 정체성이 단순한 '자식을 성공시키려는 어머니'에서 '자신도 무대의 중심이 되고 싶

었던 인물'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Dream Girls>의 'And I Am Telling You I'm Not Going'에서 '에피'는 떠나려는 연인과 싸우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그녀의 정체성이 희생적인 존재에서 자기 확신을 가진 인물로 변화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하면, 비어텔이 주장하는 바는 캐릭터의 정체성이 뮤지컬의 구조적 패턴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것이다. 캐릭터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부에서 기본 정체성이 설정되고, 욕망과 갈등을 거쳐 관계 속에서 발전하며, 마지막 순간에 변화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뮤지컬에서는 단순한 대사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캐릭터의 감정과 변화가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지만, 가사가 달라지거나, 감정의 변화에 따라 곡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Les Misérables>의 'Who Am I?'에서는 장 발장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Into the Woods>의 'No One Is Alone'에서는 캐릭터들이 처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와 삶을 바라보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비어텔의 연구는 뮤지컬에서 캐릭터 정체성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서사 구조와 음악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캐릭터는 작품의 시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I Want Song'에서 목표를 설정하며,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탐색하고, '11 O'Clock Number'에서 변화된 자신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과정은 대사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될 수 없는 캐릭터의 심리를 음악적 요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관객이 캐릭터의 감정과 내면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비어텔의 분석은 현대 뮤지컬이 단순한 오락적 장르를 넘어, 정체성

과 변화라는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탐색을 수행하는 예술 형식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손드하임 뮤지컬 캐릭터의 정체성

(1) 손드하임 뮤지컬 캐릭터의 특징과 정체성

손드하임 뮤지컬 캐릭터들은 기존의 캐릭터들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프랜시스(Ben Francis)는 ‘손드하임 뮤지컬의 캐릭터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즉흥성으로 가득 찬 세계에 맞추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며 … 인간의 마음은 그 상태에 머물기에는 너무 복잡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¹⁰⁾이라고 한다. 즉, 캐릭터란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단일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갈등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협상하고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밀러(Scott Miller)의 연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그의 저서『Strike Up the Band: A New History of Musical Theatre』는 뮤지컬 캐릭터의 정체성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저서이다. 밀러는 뮤지컬이 단순한 오락 장르가 아니라 각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면서 진화한 예술 형식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뮤지컬 속 캐릭터의 정체성도 시대별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점점 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초기 뮤지컬 캐릭터들은 단순한 유형적 역할에 머물렀지만, 클래식 뮤지컬 시대를 거치며 캐릭터들은 더 개성적이고 현실적인 심리적 갈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현대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캐릭터들은 정체성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

10) Ben Francis, “Careful the Spell You Cast: Into the Woods and the Uses of Disenchantment”, In *The Oxford Handbook of Stephen Sondheim*, Gordon, R.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p.350-264.

며, 때로는 기존 사회적 규범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변화는 뮤지컬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예술 형식임을 보여주며, 캐릭터 정체성이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시대적 가치관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형성되는 개념¹¹⁾임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손드하임 뮤지컬 캐릭터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손드하임의 캐릭터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경향이 있다. 즉, 일차원적이거나 쉽게 분류할 수 있는 캐릭터는 거의 없다. 그는 인간 본성의 내적 투쟁, 모순, 복잡성을 탐구하여 깊이와 뉘앙스가 있는 캐릭터를 창조한다. 둘째, 손드하임은 종종 모호한 동기, 욕망 또는 도덕성을 가진 캐릭터를 등장시킨다. 이들은 상반된 감정을 느끼거나 도덕적으로 모호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캐릭터에 깊이와 사실감을 더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객의 인식에 도전을 준다. 셋째, 손드하임의 캐릭터는 완벽한 영웅이나 주인공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약점,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인간적이고 공감할 수 있다. 이러한 취약함은 종종 캐릭터의 행동을 이끌고 개인적인 여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이는 기존의 캐릭터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다. 넷째, 손드하임의 많은 뮤지컬에는 안티히어로 또는 중대한 결점¹²⁾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한다. <Sweeney Todd>의 '스위니'나 <Company>의 '로버트' 같은 캐릭터는 고결한 영웅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한다. 이들의 복잡성과 도덕적 모호함은 관객에게 캐릭터 정체성의 양면성과 씩씩하게 만든다. 다섯째, 손드하임의 캐릭터는 심리적 복잡성¹³⁾

11) Scott Miller, *Strike Up the Band: A New History of Musical Theatre*, Heinemann Drama, 2006, p.222.

12) 여기에서의 결점은 Hamartia 즉, 의도하지 않은 실수나 결함, 결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Hamartia의 전제는 완전무결하고 고결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13) New York Times의 평론가 Ben Brantley는 손드하임의 캐릭터는 '어두운 감정과 심리적 갈등(dark emotions and psychological conflict)'을 탐구한다

으로 유명하다. 손드하임은 캐릭터의 심리적 측면을 탐구하여 동기, 두려움, 욕망, 내적 갈등을 탐구한다. 그는 종종 내면의 독백, 내성적인 노래, 사고 과정에 대한 심리적 통찰을 제시하고, 캐릭터의 정체성에 여러 층을 더하여 관객이 캐릭터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다면적 캐릭터로 만들어 준다. 마지막으로, 음악과 캐릭터의 통합을 들 수 있다. 손드하임의 스타일은 음악과 캐릭터의 완벽한 통합을 포함한다. 손드하임의 가사는 단순히 장식적인 것이 아니라 캐릭터 개발에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다. 손드하임은 노래가 캐릭터의 내면을 드러내는 도구라 설명하며, 노래는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상태를 드러내야 한다¹⁴⁾고 말한다. 즉, 손드하임 뮤지컬의 등장인물은 노래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내면의 세계를 드러낸다.

(2) 손드하임 캐릭터의 차이점

손드하임의 캐릭터는 기존의 다른 뮤지컬의 캐릭터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손드하임의 작품 중 컨셉뮤지컬을 상징하는 뮤지컬인 <Company>의 주인공 ‘로버트’의 예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뚜렷하고 단일한 행동(main action)이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연애관이나 사랑 이야기가 뚜렷한 다른 뮤지컬 주인공은 사랑의 성취를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벌이지만 ‘로버트’는 다르다. <Company>에서 ‘로버트’의 이야기는 여러 커플에 대한 관찰과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동반자를 찾지만, 자신만을 위한 로맨틱한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관계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는 데 더 중점을 둔다.

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다층적인 캐릭터, 감정적으로 풍부하고 심리적 깊이가 있는 캐릭터인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복잡한 캐릭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https://www.playbill.com/article/legendary-composer-stephen-sondheim-dead-at-91>, 2024. 02. 23.

14) Stephen Sondheim, *Finishing the Hat*, New York: Knopf., 2010, p.16.

둘째, ‘내적 갈등’이 중심을 이룬다. <Company>에서 ‘로버트’의 갈등은 헌신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동반자 관계에 대한 열망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다. 다른 뮤지컬 주인공들은 사회적 압력, 적대자 또는 외부 목표와 같은 외부 장애물이나 외적 갈등에 직면한다. ‘로버트’의 갈등은 대부분 내적 갈등으로, 그의 여정을 더 내성적이고 심리적으로 이끌고 있다.

셋째, 앙상블과 주인공의 차이가 없다. <Company>는 앙상블 중심의 뮤지컬로, ‘로버트’가 다양한 삽화식¹⁵⁾ 구성 및 캐릭터를 연결하는 실타래 역할을 한다. 주인공이 중심이 되는 다른 뮤지컬과 달리, ‘로버트’는 관계와 결혼의 다양한 측면을 대표하는 다양한 캐릭터들과 무대를 공유한다.

넷째, 캐릭터 아크¹⁶⁾가 부재하다. 이는 첫 번째 특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많은 뮤지컬 주인공이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변화하는 캐릭터 아크를 경험하지만, <Company>에서 ‘로버트’의 여정은 좀 더 미묘하고 개방적이다. 그의 성장은 명확한 해결이나 깨달음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캐릭터 개발에 대한 이러한 미묘한 접근 방식은 더 극적이고 노골적인 변화를 보이는 다른 주인공과 차별화된다.

다섯째, 감정적 거리감을 들 수 있다. ‘로버트’의 캐릭터는 종종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그가 관찰하는 관계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묘

15) 각각의 사건들이 개연성이나 필연성 없이 단편적으로 연결된 이야기 구성을 의미한다. 이야기 속 삽화(에피소드)들이 유기적 통합성이나 인과관계 없이 나열되어 있으므로 ‘산만한 구성’, ‘이완된 구성’이라고도 한다. ‘견고한 구성’, ‘유기적 구성’과는 대비되는 용어이다. (두산백과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76715&cid=40942&categoryId=32862>)

16) https://en.wikipedia.org/wiki/Character_arc#CITEREFGerke2010 A character arc is the transformation or inner journey of a character over the course of a story. If a story has a character arc, the character begins as one sort of person and gradually transforms into a different sort of person in response to changing developments in the story. (이야기의 줄거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등장인물의 변화 또는 내면의 여정을 말한다. 인물은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 변화에 따라 점차 다른 특성의 인물로 변화한다.)

사된다. 그는 관계를 갈망하지만, 일정 수준의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여 복잡성을 더하고 감정적으로 투자하거나 열정적인 주인공과 다른 점이다.

(3) 손드하임 작품의 캐릭터 정체성 형성의 특성

① 캐릭터 정체성과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성

프레드릭(Jordan Fredericks)은 ‘손드하임은 자기의 삶과 포스트모던적 관점을 장르에 통합함으로써 뮤지컬에 새로운 시각을 불어넣었고, 이를 통해 뮤지컬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며 새로운 스타일의 궁극적인 영향력 있는 중심인물이 되었다.’¹⁷⁾고 하며 손드하임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연결하였다. 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특징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리오타르(Jean-François Lyotard)는 포스트모더니즘을 ‘메타내러티브에 대한 불신’으로 정의하며, 이는 문화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웅장한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더 이상 정체성을 동질적인 구조로 총체화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¹⁸⁾한다. 포스트모던적 관점에서 정체성은 자아가 배경과 사회적 성향에 의해 형성된 견고한 정체성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며 파편화, 불연속성, 내면과 외면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는 특징이 있는 과정이라는 것¹⁹⁾이다.

손드하임의 등장인물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은 주체의 내면화에 있다.

17) Jordan Fredericks, “Sondheim: His Influence on Musical Theatre”, *The Research and Scholarship Symposium*, 15, 2018, p.12.

18) Jean-François Lyotard,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p.24.

19) Robert G. Dunn, *Identity Crisis: A Social Critique of Postmodern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p.64.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 기반에서 주체란 근대 이후 인위적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주체는 권위를 잃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캐릭터에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노래는 더 이상 플롯(플롯이 있다면)의 전진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해설, 성찰, 과정의 역할을 한다. 다른 뮤지컬의 경우 'I want song'이나 'I am song'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개인의 감정을 극대화하여 관객에게 강한 지지를 요구하지만, 손드하임의 캐릭터는 이를 관철할 필요도 목적도 없다.

또한, 포스트모던 맥락에서 거대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발전시킨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 이후 주체, 진리, 총체성 등 거대담론의 불신과 회의에 근거한 포스트모더니즘에 있어 개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 캐릭터의 선택은 그 순간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이 역사가 한 방향으로 돌이킬 수 없이 진행된다는 믿음에서 어떻게 멀어지는지를 보여준다.²⁰⁾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주요 개념인 '수행적(performative)'²¹⁾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근본적인 현실과 충돌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캐릭터의 자아와 자신의 기대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손드하임은 이 아이디어를 '자기지시성(self-referentiality)'²²⁾이라는 포스트모던

20) J. Peter Burkholder, Donald Jay Grout, & Claude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7th ed. London: W. W. Norton, 2006, p.959.

21) 수행적이라 함은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함으로써(발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던 의미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22) 과거에는 어떤 대상이 작품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이 작품 바깥에 이미 존재했지만, 오늘날 예술은 자신을 예술로 만들어 주는 정의를 자기 안에서 품고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더니즘의 등장 이후 재현적 예술은 막을 내리고 예술작품들은 비재현적 양식을 취하기 시작하며, 예술작품은 자신 바깥의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적 성격을 잃고 단지 자기 자신을 지시하는 자기지시성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적 장치와 연결한다. 맥라클린은 자기지시성이 포스트모던 예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즉 예술이 세계를 가리키는 자신을 가리키는 것²³⁾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관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원칙이 캐릭터의 정체성과 스토리텔링에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됐는가?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선형적인 내러티브에 도전하고 파편화와 해체를 수용한다. 포스트모던 뮤지컬의 캐릭터는 전통적인 서사를 따르지 않고 파편화된 내러티브 안에 존재하거나 더 큰 퍼즐의 조각으로 작용한다. 비선형적인 구조를 가진 <Company>는 이러한 포스트모던적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 둘째, 포스트모던 뮤지컬은 종종 아이러니와 자기지시성을 사용하여 연극과 캐릭터 묘사의 인공성에 대해 논평한다. 캐릭터는 제4의 벽을 허물거나 정체성의 구성적 특성을 강조하는 메타 연극적 순간에 관여할 수 있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정체성에 대한 고정된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유동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포스트모던 뮤지컬의 등장인물은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의 유동성과 복잡성을 반영하여 여러 면에서 상충되는 정체성과 투쟁한다. 마지막으로, 거대 내러티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거대한 내러티브와 이데올로기에 도전한다. 포스트모던 뮤지컬의 캐릭터는 사회적 규범과 기대에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인물로 묘사되어 정체성과 신념 체계를 미묘하게 탐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뮤지컬의 캐릭터 정체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 왔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캐릭터 묘사에 새로운 원칙과 도전을 도입했다. 이러한 역사적 변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스티븐 손드하임의 <Company>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정체성과 현대 사회의 맥락에서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3) Robert L. McLaughlin, op. cit., p.4.

② <Company>의 캐릭터 정체성 형성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탐구

35번째 생일을 맞이한 ‘로버트’는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그는 뉴욕의 번잡하고 분주한 익명성을 배경으로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을 완전히 정의한다. 뮤지컬은 ‘로버트’가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여러 순간을 동시에 표현하는 삽화식 형식으로 전개된다. <Company>는 내용과 스타일 면에서 손드하임의 첫 번째 진정한 포스트모던 뮤지컬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에 대한 포스트모던 사회의 투쟁과 개인의 통합과 일관성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논의의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뚜렷한 스토리라인은 없지만 손드하임은 ‘공연이 일정 기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일어난다고 주장²⁴⁾한다. 그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장면들은 결혼한 친구들, 여자 친구와 자신에 대한 로버트의 관찰을 보여주며 공연을 하나로 묶어 연대순의 선형 플롯의 필요성을 제거한다. 또한, 밴필드(Stephen O. Banfield)는 <Company>가 삽화식 구성의 형태를 취하며, 내러티브나 줄거리를 배제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삽화식은 입체파 그림처럼 관객에게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일관되게 제시된 주제에 동시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함으로써 손드하임은 주제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었고 <Follies>와 같은 후기 작품에 영감을 줄 수 있었다. 또한, 밴필드는 이를 통해 뮤지컬에서 캐릭터 개발과 구조적 완결성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인다.²⁵⁾

<Company>는 일련의 개별 장면을 통해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뮤지컬은 ‘물려받은 확실성이 불신받고 전통적인 내러티브가 실패한’ 문화에서

24) Stephen Sondheim, op. cit., p.166.

25) Banfield, Stephen. *Sondheim's Broadway Musical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의미를 찾는 포스트모던적 딜레마를 극화²⁶⁾한다. <Company>의 비선형적 구조는 기존의 선형적 스토리텔링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선택은 여러 캐릭터를 동시에 전개하여 각 캐릭터의 정체성과 캐릭터가 '로버트'의 삶과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캐릭터의 정체성은 일련의 스냅샷을 통해 드러나며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묘사가 가능하다. <Company>의 비선형적 구조에서 캐릭터 형성은 시간의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 관객은 관계의 다양한 단계에서 등장인물을 만나며 그들의 기쁨, 갈등, 불안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비선형성은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 유동적이고 진화하는 구성물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개념을 강조한다.

캐릭터화에 노래와 가사 사용은 전형적인 손드하임 방식으로 <Company>는 노래와 가사를 사용하여 캐릭터의 동기와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각 캐릭터의 뮤지컬 넘버는 그들의 욕망, 좌절,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스티븐 손드하임의 스토리텔링 능력의 핵심은 노래와 가사를 혁신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Company>의 각 캐릭터는 내면의 생각, 욕망, 갈등이 드러나는 음악적 순간에 의해 정의된다. 이 노래들은 등장인물의 감정적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되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손드하임의 가사는 캐릭터 묘사의 백미다. 가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캐릭터의 전개에 필수적인 요소다. 가사의 선택, 음악의 박자, 노래를 통해 전달되는 감정의 깊이는 캐릭터의 정체성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관객은 캐릭터에 공감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된다.

또한, <Company>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 내재된 모호함과 복잡성을 탐구한다는 점이다. 캐릭터의 동기는 다면적인데, 이는 정체성이

26) Robert L. McLaughlin, op. cit., p.66.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향과 욕망의 산물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을 반영한다. <Company>는 캐릭터 동기의 모호함과 복잡성을 탁월하게 묘사한다. '로버트'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은 다면적인 욕망과 상충되는 감정과 씨름한다. 이러한 상충되는 동기는 정체성에 깊이를 더하고 정체성이 단순한 분류로 쉽게 환원될 수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개념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Sorry-Grateful'에서 등장인물들은 결혼에 대한 상반된 감정을 표현한다. '넌 항상 미안해, 넌 항상 고마워'와 같은 대사는 관계의 역설과 양면성을 강조하며 캐릭터 정체성의 다면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관객에게 인간의 감정과 동기의 복잡성을 고려하도록 유도하며, 점점 더 개인화되는 사회에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살펴본다. 고든은 <Company>가 '한 시대의 불쾌감, 현신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에서 벗어나는 한 세대의 무력한 두려움'을 탐구²⁷⁾한다고 설명한다.

<Company>는 뮤지컬이라는 가상의 세계와 관객의 현실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에 도전하는 상호텍스트성²⁸⁾과 자기지시성의 순간에 관여하며, 이러한 순간은 캐릭터의 정체성을 다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기여한다. 'Company'라는 곡에서 '로버트'는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며 제4의 벽을 허물고 있다. 그는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누구를 위한 거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 메타 연극적인 순간은 관객에게 관계의 본질과 뮤지컬 자체에서 묘사되는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는 캐릭터의 정체성과 배우의 정체성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캐릭터 표현의 구성적 특성을 강조한다. 또한 'Side by Side'/"What Would We Do without

27) Joanne L. Gorden, op. cit., p.39.

28) 독창적인 원본은 없으며 텍스트들이 서로 결합된 텍스트들만 있다는 것이다.(Jacques Derrida)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끌어다 결합하여 사용하는 패스티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You?’라는 노래가 나오는 동안 출연진은 다른 공연에서 스티븐 손드하임의 자작곡을 메들리로 연주한다. 이러한 텍스트 간 참조는 뮤지컬의 풍부한 역사를 기념하고 손드하임 자신의 공헌을 인정하여 출연자의 캐릭터 정체성에 다른 층위를 추가한다.

5) 손드하임의 캐릭터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의미

로버트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다. 이 개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건조하게 진행되는 관찰적인 해설로 공연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Company>는 풍자나 감정이 아니라 아이러니를 정의하는 최초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손드하임도 동의²⁹⁾한다. 디마르티노(Loredana Di Martino)는 아이러니를 ‘포스트모더니즘 의식의 중심 모드’³⁰⁾라고 설명한다.

<Company>는 5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현대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공연이 되고 있다. 이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이유는 단순히 음악적 완성도 때문만이 아니라, 작품이 다루는 주제가 여전히 현대인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인공 ‘로버트’의 정체성 형성과 결혼과 독신 사이에서의 고민은 21세기의 개인들에게도 여전히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1970년대는 개인주의가 부상하고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회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였다. <Company>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며, 결혼이 더 이상 당연한 선택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의 영역이 되었음을 강조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발전이 중요해지면서, 결혼을 인생의 필수 요소로 여기지

29) Stephen Sondheim, op. cit., p.166.

30) Loredana Di Martino, “Postmodern Irony”, *The Encyclopedia of Humor Studies*, Salvatore Attardo.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14, p.590.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결혼이 반드시 안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더욱 명확해졌다. ‘로버트’는 작품 내내 결혼과 독신 사이에서 방황하며, 작품이 끝날 때까지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결혼을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른다. 친구들의 조언을 듣고 결혼을 고민하지만, 결혼한 친구들조차 각자의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그는 결혼을 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21세기 현대인들도 비슷한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결혼이 성인이 된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택지가 많아진 만큼 오히려 어떤 것이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점점 더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결혼과 독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로버트의 모습은 여전히 현대인의 삶을 반영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Company>가 21세기에도 현대적인 이유는 단순히 주제의 보편성 때문만이 아니다. 작품이 전통적인 뮤지컬의 서사 구조를 해체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인 뮤지컬처럼 기승전결의 서사를 따르지 않는 비선형적 서사는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이 명확하게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협상되는 과정이라는 개념과 연결된다. 또한 로버트의 정체성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탐색 되는 과정이라는 점이, 현대인의 정체성 문제와 유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이 포스트모더니즘적 서사 구조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뮤지컬 서사와 성장 서사를 해체했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Company>는 결혼과 독신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인간관계와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재구성되는지를 탐색하는 작품이다. 로버트의 방향은 단순한 개인적 고민이 아니라, 21세기 현대인들도 여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 문제를 반영한다. 이처럼 <Company>는 특정 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주제를 다루는 뮤지컬로 자리 잡고 있다.

손드하임의 작품에서 캐릭터들은 단순한 서사적 요소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탐색하고 형성하는지를 반영하는 존재이다. 그는 전통적인 뮤지컬의 감상적인 서사를 탈피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심리적으로 복합적인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현대인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했다. 그의 작품에서 캐릭터는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존재이며, 모순과 갈등 속에서 성장과 좌절을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개인의 정체성 탐색 과정을 반영하며, 관객이 캐릭터와 함께 고민하고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손드하임의 뮤지컬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현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깊이 탐색하는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이 현대적 가치를 지닌 채 지속적으로 재해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3. 결론

손드하임의 작품에서 정체성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협상 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 이는 전통적인 성장 서사를 따르는 기존의 뮤지컬과 차별화되는 요소로,

<Company>는 인물의 내면적 갈등과 심리적 변화를 통해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탐색한다. <Company>에서 로버트의 정체성 형성은 단순한 목표 지향적 성장 서사가 아니라, 삽화적 구조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뮤지컬 주인공들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는 방식과 달리, 로버트는 주변 인물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반추한다.

특히 손드하임은 비선형적 서사와 음악적 기법을 활용하여 로버트의 정체성이 유동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기존 뮤지컬에서 'I Want Song'은 주인공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순간이지만, <Company>에서는 이 역할을 하는 'Being Alive'가 작품의 마지막에 등장하며, 로버트가 결혼과 독신을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복잡한 요소로 인식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손드하임의 가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캐릭터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도구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로버트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 방식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의 정체성 개념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전통적인 서사 구조와 인물의 고정된 정체성을 해체하며, 개인의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임을 강조한다. 로버트 역시 명확한 캐릭터 아크(character arc)를 따르지 않으며, 그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과 주변 인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된다. 또한, <Company>에서 캐릭터의 정체성은 개별적인 자아 탐색의 과정이면서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는 손드하임 뮤지컬 캐릭터의 중요한 특징으로, 그들은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기보다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 논문을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Company>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서사 구조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내러티브 방식을 해체하며, 캐릭터 정체성을 보다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한다. 삽화식 구성, 비선형적 서사, 자기지시성, 아이러니 등은 모두 작품이 현대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정체성이 단순한 목표 지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시각을 반영한다. 더 나아가, 손드하임이 창조한 캐릭터들은 기존의 전형적인 뮤지컬 인물들과는 차별화되는 복잡성과 심리적 깊이를 지니고 있다.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단순히 외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등과 모순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 가운데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손드하임의 뮤지컬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예술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그의 작품이 여전히 현대적 가치를 유지하며, 오늘날에도 관객과 학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특히, 브로드웨이와 뮤지컬 산업이 점점 더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손드하임이 개척한 복합적인 캐릭터 분석과 정체성 문제의 탐구는 현대 뮤지컬 창작자들에게도 필수적인 학습 대상이 된다.

손드하임의 작품에서 캐릭터들은 단순한 서사적 요소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탐색하고 형성하는지를 반영하는 존재이다. 그는 전통적인 뮤지컬의 감상적인 서사를 탈피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심리적으로 복합적인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현대인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했다. 그의 작품에서 캐릭터는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는 존재이며, 모순과 갈등 속에서 성장과 좌절을 반복하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개개인의

정체성 탐색 과정을 반영하며, 관객이 캐릭터와 함께 고민하고 해석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손드하임의 뮤지컬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현실이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깊이 탐색하는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오늘날에도 그의 작품이 현대적 가치를 지닌 채 계속해서 재해석되는 이유이며, <Company>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뮤지컬에서 캐릭터의 정체성 형성이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주제임을 인식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자아, 관계, 사회적 규범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탐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향후 뮤지컬에서 손드하임에 대한 세밀한 주제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Banfield, Stephen. *Sondheim's Broadway Musical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3.
- Bauman, Zygmunt. *Postmodern Ethics*,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1993.
- Burkholder, J. Peter, Donald Jay Grout, & Claude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7th ed.* London: W. W. Norton, 2006.
- Di Martino, Loredana. "Postmodern Irony", *The Encyclopedia of Humor Studies*, Salvatore Attardo.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14.
- Dunn, Robert G. *Identity Crisis: A Social Critique of Postmodernity*,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8.
- Fernandez, Julian. *Stephen Sondheim: Identity Construction in the Contest of Postmodernism*, University of Birmingham Thesis M.A, 2022.
- Francis, Ben. "Careful the Spell You Cast: Into the Woods and the Uses of Disenchantment", In *The Oxford Handbook of Stephen Sondheim*, Gordon, R.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Fredericks, Jordan. "Sondheim: His Influence on Musical Theatre", *The Research and Scholarship Symposium*, 15, 2018.
- Gorden, Joanne L. *Art Isn't Easy: The Theater of Stephen Sondheim*, New York: Da Capo Press, 1992.
- Mclaughlin, Robert L. *Stephen Sondheim and The Reinvention of the American Musical*, Ridgewood Rd: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16.
- Miller, Scoot. *Strike Up the Band: A New History of Musical Theatre*,

Heinemann Drama, 2006.

Kaye, Nick. *Postmodernism And Performance*,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94.

Lyotard, Jean-François.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4.

Sondheim, Stephen. *Finishing the Hat*, New York: Knopf, 2010.

_____. *Look, I Made a Hat*, New York: Knopf, 2011.

Viertel, Jack. *The Secret Life of the American Musical: How Broadway Shows Are Built*, Sarah Crichton Books, 2017.

논문

박문희, 「컨셉뮤지컬에서 ‘컨셉’의 개념과 관객의 역할」, 『지식과 교양』 9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2, 259-282쪽.

신문기사

Freya Parr, “Lin-Manuel Miranda: ‘Anyone who tells you Sondheim isn’t an influence on them is lying’”, BBC Music Magazine, 2025.01.03. <https://www.classical-music.com/features/artists/lin-manuel-miranda>

Robert Simonson, “Legendary Composer Stephen Sondheim Dead at 91”, Playbill, 2021.11.26. <https://www.playbill.com/article/legendary-composer-stephen-sondheim-dead-at-91>

인터넷 사이트

문학비평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30848&cid=60657&categoryId=60657>

위키백과 - 정체성, <https://ko.wikipedia.org/wiki/%EC%A0%95%EC%B2%B4%EC%84%B1>

Wikipedia - Character arc, https://en.wikipedia.org/wiki/Character_arc#CITEREFGerke2010

■ 국문초록

손드하임(Stephen Sondheim)의 작품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지형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복잡한 캐릭터, 비전통적인 서사 구조, 실험적인 작곡 기법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정립했다. 손드하임의 뮤지컬은 오늘날에도 강한 예술적, 학문적 영향을 미치며, 현대 뮤지컬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참고점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손드하임 뮤지컬에서 캐릭터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의 의미를 탐구한다. 특히 그의 대표작 <Company>를 중심으로, 포스트모던 환경 속에서 캐릭터 정체성이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하고 재구성되는 방식을 고찰한다. 손드하임의 캐릭터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또한, 캐릭터 정체성이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는 개념임을 강조한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체성 개념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고정된 자아 개념을 부정하고, 정체성을 유동적이고 다층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한다. 손드하임의 캐릭터들은 기존의 뮤지컬 인물들과 달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리고 캐릭터 정체성이 단순한 내러티브적 요소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예술적 담론임을 밝힌다.

손드하임의 뮤지컬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탐구하는 중요한 예술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정체성 형성 과정이 뮤지컬이라는 장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하며, 향후 뮤지컬 연구에서 손드하임의 세밀한 주제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주제어 • 손드하임, 캐릭터, 캐릭터 정체성, 정체성 형성,
포스트모더니즘.

■ Abstract

The Formation of Character Identity in Sondheim's Musicals and Its Social Significance

Park, Moonhee / Mokwon University

Stephen Sondheim's impact on musical theatre transcended entertainment, reshaping Broadway with complex characters, unconventional narratives, and innovative musical techniques. His influence continues to shape contemporary musical theatre, inspiring creators to explore structural fragmentation, psychological depth, and experimental approaches.

This study examines the formation of character identity in *Company*, analyzing how Sondheim challenges traditional notions of identity in a postmodern context. Unlike conventional protagonists with clear developmental arcs, Sondheim's characters engage in ongoing self-exploration, negotiating between societal expectations and personal desires. *Company* employs non-linear storytelling and fragmented structure to emphasize identity as fluid and evolving, with *Being Alive* positioned at the end to disrupt the typical "I Want Song" convention. Sondheim's use of self-referentiality, irony, and ensemble-driven storytelling further deconstructs the classical hero's journey.

From a postmodern perspective, *Company* critiques grand narratives and instead focuses on personal struggles with relationships, commitment, and self-definition. Bobby's uncertainty reflects modern anxieties about identity in an evolving social landscape. Ultimately, Sondheim's works serve as critical cultural commentaries, challenging fixed notions of selfhood and societal norms. His structural and thematic innovations continue to influence musical theatre, underscoring his lasting legacy in the genre's evolution.

Keyword • Sondheim, Character, Character Identity, Formation of Identity, Postmodernism.

■ 논문투고일:2025.05.03. ■ 심사완료일:2025.06.18. ■ 게재확정일:2025.07.29. ■

존 듀이의 이론으로 바라본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참여적 미학성 :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신 광 민 · 조 준 희*

목 차

1. 서론
2.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이론적 배경
 - 2.1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 2.2 관조(觀照)에서 참여로의 전환: 참여적 미학성
3.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역사적 전개
 - 3.1 기원과 전사: 고대 그리스에 나타난 참여적 미학과 듀이의 ‘경험의 통합성’
 - 3.2 르네상스-19세기: 예술-일상의 단절과 관객의 수동화
 - 3.3 근대적 형성: 20세기 실험극과 듀이 미학의 실천적 부활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20세기 후반 이후 동시대 미학은 예술의 본질과 경계에 대한 인식의 붕괴와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한다. 아서 단토(Arthur Danto, 1924~2013)는 그의 저서 『예술의 종말 이후(After the End of Art)』에서 더 이상 예술

* 신광민(제1저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조준희(교신저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부 교수

을 규정하는 단일한 역사적 내러티브나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플루럴리즘(Pluralism)’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했다. 단토는 예술이 전통적 미적 기준이나 양식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사회적 맥락과 개념, 그리고 관객의 해석에 따라 의미가 확장되는 열린 장(場)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했다.¹⁾ 이러한 변화는 예술의 자율성과 순수성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예술이 사회적·정치적 현실과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주목하는 동시대 미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촉진했다.

이러한 미학적 전환의 흐름 속에서 ‘참여적 미학(Participatory Aesthetics)’이 부상하였다. 참여적 미학은 예술의 가치를 창작자 개인의 표현이나 완성된 작품에만 두지 않고, 관객·참여자·공동체가 예술 생산과 의미 구성의 주체로 부상하는 구조를 강조한다.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 1971~)은 그의 저서 『인공지옥(Artificial Hells)』에서 참여적 예술이 “관객을 작품의 공동 창작자이자 해석자”로 재위치시키는 미학적 전환을 이끈다고 분석한다.²⁾ 이러한 흐름은 예술의 미학적 가치가 창작과정의 상호작용과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재정립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여적 미학이 본격적으로 확장된 배경은 20세기 정치적·사회적 변화와 예술계 내부의 미학적 전환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시민권 운동,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등 다양한 사회 운동은 예술이 단순한 미적 대상이나 창작자의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실천과 공동체적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연극 역시 기존 텍스트 중심, 작가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1) Arthur C. Danto 저, 장민한 역, 『예술의 종말 이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13-40쪽.

2) Claire Bishop,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London: Verso, 2012, pp.1-39.

신체와 물질, 과정 중심의 미학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베르톨트 브레히트(Bertolt Brecht, 1898~1956)나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 1896~1948)의 연극과 같은 다양한 실험적 연극 운동이 등장해 관객의 참여와 각성, 공동체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극은 사회적 소통과 변화를 위한 실천적 예술로 자리매김하며, 참여적 미학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다. 이들은 연극의 본질을 무대 위의 완성된 예술 작품보다는, 참여와 경험, 집단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재정의하며, 연극이 사회적 변화와 공동체적 치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처럼 미학적·실천적 전환은 연극이 단순한 예술적 표현을 넘어, 교육, 치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연극은 학교 교육, 심리치료,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되며, 참여와 협력, 집단적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변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연극치료(Drama Therapy), 교육연극(Educational Theatre), 커뮤니티 연극(Community Theatre) 등은 연극의 참여적 미학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분야에서 연극의 속성은 개인의 성장과 치유, 집단의 소통과 연대,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등 실질적 변화를 촉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연극 예술의 참여적 미학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또 새로운 방향성을 대표하는 우산 개념이 바로 어플라이드 시어터(Applied Theatre, 이하 AT)이다. AT는 연극의 교육적·사회적 가치에 주목하여 발전한 다양한 연극적 실천을 총칭한다. 특히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 특히 사회·문화적 소외 계층이 직접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예술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연극은 미적

경험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소통과 치유,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감과 연대의 장으로 확장된다. 그 결과,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촉구하는 힘을 지닌 예술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AT는 동시대 연극이 직면한 위기와 한계에 대한 대안적 실천으로도 주목받는다. 기존의 무대 중심, 소수 관객을 대상으로 한 미학 중심의 연극에서 벗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일상의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열린 예술로서,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고 예술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가 강조한 '삶의 경험으로서의 미적 경험'처럼 AT는 예술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탐색·해결하는 대안적 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T에 대한 국내 연극계의 논의와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국내 AT에 대한 논의는 최근 들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인 범주에 국한되어 있으며, 특히 AT의 역사적 배경과 미학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AT에 대한 개념과 이론에 관한 연구는 김숙현의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미학과 윤리: 2000년대 이후 주요 논점과 그 함의」, 서나영의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이론과 실제」, 신광민·조준희의 「어플라이드 시어터로서의 국내 노동연극 특성 연구」,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치유적 특성 연구: 사이코드라마와 연극치료의 '역할' 개념을 중심으로」, 그리고 실천적 사례에 대한 연구는 김현정의 「응용연극의 실천과 확장 가능성 연구-‘역압받는 사람들의 연극 공간-해’의 토론연극 <숙자이야기>를 중심으로-」, 최영주의 「산책자 담론과 응용연극의 관점에서 본 거리걷기 공연-〈제로 리: 퍼블릭〉을 중심으로」가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개별 실천 사례나 특정 영역(연극치료, 교육연극 등)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필자는 AT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AT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미학적·사회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이론적 배경인 ‘2.1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는 존 듀이의 경험 미학을 토대로 AT의 참여와 일상성 그리고 경험 과정에서 수반되는 가치를 재정립하였다. 이어서 ‘2.2 관조(觀照)에서 참여로의 전환: 참여적 미학성’에서는 아놀트 벌리언트(Arnold Berleant, 1932~)의 이론을 토대로 참여적 미학 개념과 전통적인 미학과의 차별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본 후, 참여적 미학의 특성이 도드라지는 AT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3장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역사적 전개’에서는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연극의 참여적 미학성을 AT의 역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AT가 단순히 예술적 실험이 아닌 인간의 집단적 경험과 사회적 소통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AT가 어떻게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해왔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오늘날 AT가 예술과 사회의 경계를 허물며 삶의 다양한 영역과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 동시대의 대안적 예술로 주목받고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이론적 배경

1) 존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존 듀이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로, 실용주의 학문을 현대 교육 및 사회 이론에 접목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의 철학은 ‘경험을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민주주의 확장의 도구로 재정의하였다. 특히 그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1916)에서 “교육은 삶 그 자체”라는 명제를 가지고 전통적 교육 체계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토대가 되었다.³⁾ 그의 철학은 예술로도 넘어와 예술과 삶의 경계를 해체한다. 듀이는 자신의 저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미적 체험을 신체적 상호작용과 공동체적 참여로 해석함으로써 예술을 ‘일상적 경험의 정제된 형태’로 규정하였다.⁴⁾ 이러한 듀이의 사상은 교육·예술·정치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추구했으며, 그의 실용주의적 인식론은 동시대 사회·과학과 예술 이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존 듀이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예술을 삶의 연장선상에서 재정의하며 예술의 사회적 실천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술을 박물관이나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일상적 경험의 정제된 형태로 보았으며 이는 AT의 참여적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예술에 대한 논의는 그의 철학 발전의 마지막 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미학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의 ‘경험철학’은 한층 더 완성도를 갖추게 되었고, 그 결정체가 바로 『경험으로서의 예술』에 담겨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듀이는 다른 철학자들과는 달리 ‘예술’을 철학의 한 부분으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미학으로서 그의 철학을 완성했다는 점이다.

『경험으로서의 예술』에 나타난 그의 미학적 논의는 인간의 유기체성과 질적인 성질(질성), 그리고 상호작용 원리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⁵⁾ 듀이는 인간존재의 의미를 전통 철학의 관념론과 종교에서 찾지 않고,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을 유기체로 간주하고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고 있다.⁶⁾ 듀이의 관점에서 예술은 하나의 생명체 또는 유기체이며, 그는 인간의

3) John Dewey 저,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14, 22-23쪽.

4) John Dewey 저, 이재연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세상, 2003, 10-13쪽.

5) 장재녕·이상용,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경험’에 대한 의미 고찰」, 『한국도자학연구』 18권 1호, 한국도자학회, 2021, 92쪽.

6) 김기수, 「존 듀이 관점에서의 음악 매개와 표현」, 『음악교육』 6호, 한국유초등음악교육학회, 2006, 134-135쪽.

유기체성을 예술 발생의 근원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듀이의 관점에서 모든 예술은 유기체와 주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 관계는 예술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이다. 이때 인간은 ‘시간성’과 ‘공간성’ 안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지속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경험을 발전시킨다.⁷⁾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듀이는 전통적 미학에서 주장해 온 인간의 유기체성과 예술의 분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듀이의 유기체적 관점은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그의 철학과 사상의 핵심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유기체성은 단순한 생물학적 개념을 넘어 인간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가치 형성의 근본 원리로 작용하며, 듀이 사유 체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은 경험의 주체인 유기체와 객체인 환경이 능동적으로 작용하여 경험을 생성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성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때 개인의 내적 조건(욕구, 능력, 충동)과 외적 조건(환경, 사물)이 상호작용하여 ‘상황’을 형성한다. 유기체들은 환경과의 대립과 갈등의 요소들을 직면하고 경험한다. 인간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대립과 갈등의 요소를 극복하고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생명체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균형을 맞추고 무너지며 회복하는 것을 반복한다. 그것은 이러한 혼란의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조화와 균형을 맞춰나가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존 듀이는 예술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창작자는 무너진 조화와 균형을 찾고 회복하는 순간을 잘 포착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은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고 간섭과 방해가 생기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즐기까지 한다. 창작자

7) 김다정,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나타난 일상적 경험의 실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존 듀이의 경험 예술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16쪽.

8) 장재녕·이상용, 앞의 논문, 93쪽.

는 환경과의 간섭과 방해를 통한 긴장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긴장이 가져올 가능성 때문에 저항과 긴장을 좋아한다.⁹⁾

이처럼 예술의 과정은 균형과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듀이에게 예술 작품은 창작자의 생존적 경험과 맞닿아 있으며, 더 넓은 차원에서 인간과 환경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질적 특성(질성)은 이성이나 감성과는 대비되는 용어로 찬란함, 우아함과 같은 일종의 지각적 특성(정서)이라 볼 수 있다. 영국의 경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주장에 따르면 제 1성질은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수량, 모양, 무게와 같은 것이다.¹⁰⁾ 제 2성질은 맛과 촉감, 소리와 같이 물체 자체의 성질 또는 주관적 관념을 이야기하는 감각적 특성이라고 말한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서 찬란함과 우아함과 같은 경험자의 ‘느낌(정서)’으로 갖게 되는 제 3성질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대두된다. 듀이는 이러한 제 3성질이 질적 특성과 유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지각적 특성이 미적 경험과 깊게 연관된다고 주장한다.¹¹⁾ 듀이가 질적 특성을 정서와 같은 것으로 본 이유는 어떠한 상황의 경험적 성질은 사고(思考)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성은 이성적 사고의 전 단계로, 경험의 즉각적·직관적 차원을 다룬다. 듀이의 질성은 순간적인 감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질성’은 경험의 주체가 경험의 과정 속에서 포착하고 그 경험적 상황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성질을 의미한다.¹²⁾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할 때, 이러한 심미적 질성이 중심이 되어 행위자와 환경과의 역동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9) John Dewey 저, 이재언 역, 앞의 책, 41쪽.

10) John Locke 저, 이재한 역, 『인간 오성론』, 서울: 다락원, 2009, 143쪽.

11) John Dewey 저, 이재언 역, 앞의 책, 42-43쪽.

12) 이은미, 「듀이 美學의 教育學的 解釋」,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4쪽.

듀이가 말하는 ‘경험’은 단순히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일상적인 행위’라기보다 ‘살아 움직이는 과정’인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높이 올라가는 순간이 있다. 이때 아이는 몸을 움직이고 바람을 느끼며(해보는 일), 동시에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집중하고 두려움(당하는 일)을 겪는다. 이때 행동과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전체 과정이 바로 듀이가 말하는 경험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이 김치찌개를 태우는 실수를 했으면, 이 경험을 토대로 다음엔 불 조절을 신경 써서 더 나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듀이는 이러한 과정(과거-현재-미래)이 하나로 이어진 학습의 고리를 강조한다.

이처럼 존 듀이의 경험 미학은 AT가 참여와 일상성, 그리고 과정을 핵심적 가치로 삼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재정립한 것이다. 기존의 예술관이 미적 대상의 소비에 머물렀다면, AT는 듀이의 철학을 중심으로 ‘경험의 공동 창조’에서 ‘사회적 행동 촉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예술이 사회적 기여의 매커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듀이의 철학은 단순히 학술적 개념을 넘어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재설계한 방법론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AT는 이러한 이론을 중심으로 예술을 사회 문제 해결 프로세스로 재정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듀이의 경험론은 다음으로 살펴볼 아놀드 벌리언트의 참여적 미학으로 확장된다. 벌리언트는 듀이의 경험론을 확장하여 예술을 고립된 관조의 대상이 아니라, 신체와 감각, 그리고 환경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참여적 경험의 장으로 재정의한다. 이로써 예술은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는 과정이 되며, 이는 AT가 지향하는 집단적 창작과 공동체적 유대, 실천적 변화를 이론적으로 뒷

받침한다.

2) 관조(觀照)에서 참여로의 전환: 참여적 미학성

전통적인 미학에서는 예술 작품과 감상자, 주체와 객체를 분리하여 예술을 ‘관조’의 대상으로 여겼었다. 하지만 동시대 미학에서는 예술 경험이 감상자가 예술의 장(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술가·작품·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이에 환경 미학자 아놀드 벌리언트는 이를 ‘참여적 미학’이라고 명명하며 예술의 의미와 미적 가치는 작품 자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예술이 발생하는 상황과 그 상황에 참여하는 주체의 경험적 과정에서 생성된다고 강조한다.¹³⁾ 즉, 예술은 ‘보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분리된 지각이 통합되는 공감각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미학에서는 감상자가 예술 작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실용적 목적이나 개인적 감정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미적 특질만을 바라보는 ‘무관심한 관조(Disinterested Contemplation)’를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예술 작품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며, 감상자는 수동적이고 관조적인 입장에서 작품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적 경험은 일상적 경험과 구분되며, 예술은 삶과 분리된 특별한 영역으로 간주된다.

반면 참여적 미학은 예술 경험이 삶의 경험과 분리될 수 없으며, 예술이 발생하는 ‘미적 장(Aesthetic Field)’에서 감상자, 예술가, 예술 대상이 경계 없이 어우러지는 상호작용이 핵심임을 강조한다. 벌리언트에 따르면 미적 경험은 고립된 지각자의 관조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활동이 지각적으로 통합된 공감각적(Synesthetic) 경험이다.¹⁴⁾ 예술의 의미와 가치는

13) Arnold Berleant. *Art and Engagement*,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1991, p.39.

14) 백영주, 「현대예술의 연행적 양상과 참여적 환경: 아놀드 벌리언트의 '관여' 개념을 바탕으로」, 『기초조형학연구』 11권 1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0, 198쪽.

작품 자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참여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적 미학은 예술을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와 상황으로 바라본다. 감상자는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환경에 개입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주체로 간주되는 것이다. 예술의 장에서는 예술가와 감상자, 그리고 물질적인 예술 대상이 능동성과 수동성을 주고받으며 그 상황 자체가 ‘상황으로서의 예술’이자 퍼포먼스(Performance)가 된다. 이 과정에서 예술의 가치와 의미는 참여와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새롭게 형성된다. 궁극적으로 참여적 미학은 예술 경험을 일상과 연속된 실천으로 확장하며 예술의 사회적·환경적 맥락, 그리고 참여자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는 예술이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실천을 통해 공동체적 의미와 미적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벌리언트의 ‘참여적 미학’은 예술과 삶, 주체와 객체, 환경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며 얽혀드는 통합적 경험의 장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벌리언트의 주장은 듀이의 이론에 영향을 받고 확장된 것으로, 벌리언트 역시 자신의 경험 개념이 듀이에게 빚지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듀이가 경험을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으로 강조한 점은 참여적 미학 이론의 핵심을 이룬다.¹⁵⁾

이처럼 벌리언트는 듀이의 경험론을 바탕으로 미적 경험의 장을 환경과 사회적 맥락까지 확장함으로써 오늘날 AT와 같은 참여적 예술 실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T는 참여적 미학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하는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볼 수 있다. AT는 전통적인 극장 연극과는 달리 예술적 실천이 특정한 사회적 목적이나 공동체적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참여 기반’

15) Arnold Berleant. *Aesthetics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2005, p.23.

의 연극 형태를 말한다. 특히 무대 위의 공연을 분리된 관객이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고전적인 방식이 아닌 참여자들이 직접 연극의 창작과정에 개입하고, 그 경험을 통해 사회적·개인적 변화를 도모하는 연극 형태이다. 그렇기에 AT는 교육, 치유, 사회 변화, 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학교나 지역사회, 병원이나 교도소와 같은 일상적 공간에서 실천되고 있다.

AT의 핵심은 바로 ‘참여’와 ‘상호작용’이다. 참여자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연극의 공동 창작자이자 실천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연극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 과정에서 연극은 고정된 텍스트나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와 환경, 그리고 공동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즉, AT는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삶과 예술, 주체와 객체, 창작자와 관객의 구분을 해체한다. 또한 이러한 특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자의 경험이 예술적 가치로 존중받는 것을 지향하는 ‘예술적 경험의 민주화’와도 직결될 수 있다. 이는 전통적 미학이 강조해온 ‘관조적 거리두기’와는 달리 참여적 미학이 중시하는 ‘체현된 경험’과 ‘상호적 실천’의 원리를 구현한다. AT에서는 연극적 행위가 일상적 경험과 맞닿아 있으며, 참여자들은 자신의 신체, 감정, 기억, 사회적 맥락을 연극의 재료로 삼아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다. 이러한 실천은 참여자와 환경, 공동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과정’으로서의 미적 경험을 중시하게 한다. 즉, 미적 경험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참여와 소통, 협업의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AT의 미학은 주체와 객체, 관찰자와 환경의 이분법을 넘어 환경 속에 몰입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미적 경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벌리언트의 ‘참여적 미학’과 맞닿아 있다.

궁극적으로 AT는 사회적 실천과 예술적 경험의 경계를 허물며, 예술이 공동체의 문제 해결, 개인과 사회의 치유, 교육, 사회적 변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는 연극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타인

과의 관계를 재구성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예술은 더 이상 특별한 공간이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과 사회 속에서 누구나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열린 장’으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AT는 참여적 미학의 예술 실천 행위라 볼 수 있다. 이는 예술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참여와 상호작용,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장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AT는 예술의 사회·윤리적 책임과 공동체적 가치, 그리고 참여자의 주체적 경험을 중시하며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3.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역사적 전개

AT는 동시대에 생성된 일시적 예술 현상이 아닌 인류 사회와 밀접하게 공존해온 오랜 실천적 전통이다. 고대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중세의 성극, 근대의 실험 연극을 거쳐 동시대의 토론 연극에 이르기까지, AT는 항상 관객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AT를 단순히 우산 용어, 또는 ‘참여형 공연’으로 축소 해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AT의 뿌리가 고대 공동체 예술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찰함으로써, 그 본질이 단순한 예술적 실험이 아닌 인간의 내재적인 집단적 경험과 사회적 소통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AT의 역사적 전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T가 각 시대의 정치·경제적 구조 변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9세기 산업화 시대에는 노동자 계층의 권리 향상을 위한 도구로, 20세기 전쟁 이후에는 트라우마 치유의 매개체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는 AT의 형식과 목적을 재정의했으며, 이러한 유연성은 오늘날 AT의 교육, 의료, 정치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체계

화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확장할 것이다.

또 AT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관객이 연극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다. 르네상스 이후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강화되며 사라진 관객의 직접적 참여는, 20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연극의 실험적 시도들과 보알의 토론 연극(Forum Theatre)에서 부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미학적 회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수동적 소비 문화에 대한 대안적 예술 철학의 등장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예술에게 요구하는 능동적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탐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개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분석을 넘어 미래 예술 교육의 실천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코러스는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는 집단적 예술 경험을 제공했고, 19세기 민중극은 계몽과 교화의 기능을 발휘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들은 오늘날 포스트휴먼 시대의 기술 중심의 예술 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신체적 경험과 공동체적 유대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따라서 AT의 역사를 연구하여 참여와 소통, 공동체적 실천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참여형 예술의 모델이자 하나의 장르로서 AT를 재인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AT의 역사를 고찰하여, 존 듀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동시대 연극에 이르기까지, AT가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하고 변화하였는지 분석할 것이다. 먼저 ‘3.1 기원과 전사: 고대 그리스에 나타난 참여적 미학과 듀이의 ‘경험의 통합성’에서는 그리스 극에 나타난 유기적 흐름, 하나의 경험, 공동체 참여적 미학과 AT와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3.2 르네상스-19세기: 일상과 예술의 단절과 관객의 수동화’

에서는 공연의 상업화와 관객과의 단절에 대한 듀이의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3.3 근대적 형성: 20세기 실험극과 듀이 미학의 실천적 부활’에서는 브레히트, 아르토, 그리고 다양한 실험극에 나타난 듀이 미학의 실천적 형태들을 토대로 AT를 독해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AT의 역사를 통해 관객의 직접적 참여를 통한 연극, 디지털 시대 수동적 소비 문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예술로서 AT의 가능성을 고찰할 것이다.

1) 기원과 전사: 고대 그리스에 나타난 참여적 미학과 듀이의 ‘경험의 통합성’

(1) 공간적 일체감과 ‘유기적 흐름(Experiential Continuum)’

존 듀이의 ‘유기적 흐름’ 개념과 고대 그리스 극장의 공간적 일체감은 다음과 같은 층위에서 연결될 수 있다. 우선 그리스 극장은 관객석(Theatron), 무대(Orchestra), 배경(Skene)이 지형과 조화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공간은 단순히 소리를 증폭하는 음향 장치를 넘어 “경관(Landscape)과 드라마의 상호침투적 관계”¹⁶⁾를 구현했다. 이는 단순히 관객이 연극의 서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자연경관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으로 ‘예술적 경험’과 ‘자연적 경험’의 경계를 해체한다. 이는 듀이가 주장한 “예술은 경험의 정제된 형태”라는 명제로 독해할 수 있다.¹⁷⁾ 또한 계단식 좌석의 물리적 배열은 관객의 시야와 청각을 집중시켜, 듀이의 ‘감각적 총체성’을 유도했다. 이는 관객을 ‘보는 자’가 아니라 공간 전체에 ‘신체적으로 개입된 참여자’로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듀이는 예술 경험이 생명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렇듯 그리스 극장에서는 합창단의 움직임, 배우의 연기, 관객의 반

16) Thanos Vovolis. *Acoustical Masks and Sound Aspects of Ancient Greek Theatre*, Stockholm: Dramatiska Institutet, 2009, pp.155-156.

17) John Dewey 저, 이재언 역, 앞의 책, 80-90쪽.

음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공간적 구조 속에서 실시간으로 순환하며 경험의 유기적 흐름을 생성하였다. 특히 관객을 둘러싼 원형 구조의 무대는 단절 없는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였다. 근대의 프로시니엄 무대는 관객을 수동적 감상자로 소외시키는 반면 그리스 극장은 듀이가 비판한 ‘경험의 분절화’를 거부한 것이며, 계층 구분 없는 좌석 배열은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예술적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적 경험의 민주화’ 이념을 선택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¹⁸⁾ 궁극적으로 공간적 일체감은 단순한 물리적 특성이 아니라 ‘경험의 유기적 흐름’을 가능케 하는 미학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스 극장은 듀이의 이론이 추구하는 ‘예술과 삶의 통합’을 공간적으로 실현한 원형적 모델로, AT의 참여적 미학이 단순히 형식적 실험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욕망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2) 카타르시스와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

듀이의 ‘하나의 경험’과 카타르시스를 참여적 미학의 층위에서 해석하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는 관객의 참여적 몰입을 통해 성취되는 미학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카타르시스는 비극을 통해 관객이 연민과 공포 같은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고, 이 감정이 예술적 과정을 통해 정화(Purification)되거나 배설(Purgation)됨으로써 정신적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¹⁹⁾ 이 과정에서 관객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극 중 인물의 운명과 갈등에 깊이 몰입하며 자신의 감정과 윤리적 태도를 재점검하게 된다. 즉, 카타르시스는 관객의 내면적 참여와 감정적 동화가 전제될 때 성취되는 미학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카타르시스는 개인의 감정 정화에 그치지 않고, 관객이 극 중 인물

18) Grammatas Theodore, *Drama and Theatre in Ancient Greece. A Database and a Spectators' School.*, International Theatre Conference, 2022, p.67. available at theodoregrammatas.com

19) Aristoteles 저, 천병희 역, 『시학』, 서울: 문예출판사, 2002, 37쪽.

의 고난과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과 도덕적 태도를 재해석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²⁰⁾ 듀이 역시 예술 경험이 개인의 내적 변화와 더불어 공동체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극을 본 시민은 감정의 해방을 넘어, 더 나은 인간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타르시스에는 참여적 미학의 사회적 층위와도 연결된다. 카타르시스는 관객의 감정적 참여와 몰입, 내적 정화, 자기 성찰, 공동체적 성장, 해방감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미학 경험이기 때문이다. 듀이의 ‘하나의 경험’은 카타르시스의 구조와 본질을 해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다. 듀이의 ‘하나의 경험’은 예술이 삶의 문제와 감정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경험의 흐름이 하나의 의미로 수렴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간주한다. 이러한 점에서 카타르시스는 예술적 경험의 완결성과 해방감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고전적 예시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극의 플롯은 관객을 사건에 몰입하게 만들었다가 절정과 해소를 통해 모든 사건이 해결되도록 구성한다. 이로써 관객은 긴장과 해방, 혼란과 명료함을 순차적으로 겪으며, 감정적·이성적 통합을 이루는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된다. 듀이는 예술적 경험이 ‘시작-전개-갈등-종결’의 유기적 흐름을 가질 때 비로소 통합된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보았는데, 이는 비극이 카타르시스를 유도하는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¹⁾

(3) 코러스와 공동체적 참여

고대 그리스 연극의 코러스(합창단)는 참여적 미학의 핵심적 원형이자, 공동체적 실천의 상징적 장치로 기능했다. 합창단은 단순한 배경음악이나

20) 송영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 나타난 감정의 “카타르시스(catharsis)”의 다양한 의미」, 『인문학연구』 38권 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407쪽.

21) John Dewey 저, 이재언 역, 앞의 책, 85-87쪽.

장식적 존재가 아니라 극의 내러티브를 해설하고 등장인물과 관객 사이의 정서적·윤리적 매개자 역할을 수행했다.²²⁾ 코러스는 극 중 사건에 대한 집단적 목소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객이 단순한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극적 경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특히 노래와 춤, 그리고 오케스트라 공간에서의 집단적 움직임은 관객과 배우,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해체하고 연극이 공동체 전체의 경험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는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 개념인 예술 경험이 개인적·감각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공동체적 층위에서 완성된다는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듀이는 예술이 ‘삶의 경험을 통합하고 개인이 사회적 맥락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라고 보았는데 합창단이 바로 이러한 미학적·사회적 통합의 장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²³⁾

코러스의 공동체적 참여는 연극의 사회적 실천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디오니소스 축제와 같은 국가적 축제에서 연극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적 행사였고 코러스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공동체의 가치와 문제의식을 예술적으로 표출했다. 이는 동시대 AT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적 소통과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AT 역시 연극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관객과 배우,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가 예술 창작 주체가 되어 ‘참여적 미학’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고대 그리스 연극의 코러스와 본질적 특성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고대 그리스 연극의 코러스는 예술이 공동체적 소통과 집단적 성찰, 사회적 실천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과 동시에 AT가 지향하는 참여적 미학과 사회적 실천의 역사적인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2) 이만희, 「그리스 코러스 기능의 전복-솔로르사노의『신의 손』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0권 1호,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3-6쪽.

23) John Dewey 저, 이재언 역, 앞의 책, 36쪽.

2) 르네상스-19세기: 예술-일상의 단절과 관객의 수동화

(1) 르네상스 연극에 나타난 관객의 수동화와 단절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주의 미학을 부활시킨 동시에 연극의 제도화가 본격화되었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프로시니엄 무대 또는 액자무대(Proscenium Stage)는 관객과 배우의 물리적 경계를 강화했으며, 중앙 집권식 관람 구조는 극장을 엘리트 중심의 예술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특히 조르조 바사리(Giorgio Vasari, 1511~1574)가 설계한 바사리 회랑(Corridoio Vasariano)은 메디치 가문이 피티 궁전과 베키오 궁정을 비밀리에 이동하는 통로로, 가문의 권력과 시민과 단절된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중세 길드 극장의 공동체적 협업 모델이 해체되고, 예술이 통치자의 권위 강화 도구로 전용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극이 더 이상 공동체적 축제나 집단적 경험의 장이 아니라, 작품-배우-관객이 분리된 파편화된 구조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대의 환상성과 원근법적 무대 장치, 조명 등은 관객을 현실에서 분리된 ‘다른 세계’로 안내했으며, 관객은 작품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창조적으로 개입하는 대신, 연극의 완성된 결과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 국한되었다.

(2) 계몽주의 연극의 한계와 듀이의 비판

계몽주의 연극은 18세기 유럽,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성과 비판적 사고, 사회 개혁의 이상을 예술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중요한 사조였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연극을,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 부패, 종교적 맹신 등 현실의 문제를 비판하고 대중에게 새로운 사상과 이념을 전달하는 공공의 장으로 활용했다. 극장은 단순한 오락의 공간을 넘어 사회적 대화와 토론, 계몽의 장으로 기능하며 다양한 계층이 모여 현실 세계의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소가 되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 연극은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첫 번째로 연극은 사회적 메시지 전달에 치중하면서도 관객의 적극적 참여와 경험의 통합을 실현하지 못했다. 즉, 관객은 여전히 수동적 수용자에 머물렀고 무대와 객석 예술가와 관객, 예술과 일상 은 분리된 채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로 극장은 점차 규격화되고 의례화된 행동을 강요하는 계급적 공간으로 변모하며, 자유로운 축제 정신과 공동체적 소통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연극은 사회적 비판과 계몽의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예술적 경험의 참여성과 일상과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듀이는 자신의 저서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이러한 계몽주의 연극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듀이는 예술이 삶과 분리될 때 미적 경험은 제한적이고 파편화될 수밖에 없으며, 예술 경험은 예술가, 작품, 감상자,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감상자를 수동적이고 정적인 존재로 한정하는 시도를 거부하고 예술이 공동체의 삶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듀이에 따르면 예술은 현실의 문제와 관심,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받으며, 관객은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²⁵⁾ 이러한 듀이의 비판은 AT와 같은 참여적 예술 실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3) 19세기 상업 극장과 연극의 상품화: 예술-일상의 단절

19세기 상업 극장의 등장은 연극의 상품화를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관객을 점점 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이 시기 산업혁명과 도시화, 자본

24) 송기정, 「18세기 프랑스의 살롱문화와 여성의 문화정체성」, 『한국프랑스학논집』 76권, 한국프랑스학회, 2011, 56-59쪽.

25) John Dewey 저, 이재언 역, 앞의 책, 316쪽.

주의의 확산은 극장 환경과 연극 행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연극은 더 이상 공론장이나 공동체적 소통의 장이 아니라 흥행과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오락 공간으로 재편되었다. 연극의 ‘흥행’이라는 개념은 1900년대 초 극장이 ‘공중회동’(집회)이나 계몽의 공간에서 ‘유희’와 ‘소비’의 공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²⁶⁾ 이러한 과정에서 관객은 무대 위에서 완성된 결과물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했고, 연극은 점차 오락성과 대중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적 산업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극이 공동체적 소통과 사회적 실천의 복합적 기능을 상실하고, 오로지 흥행과 이윤 추구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단일 기능의 유희 공간으로 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관객은 작품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거나 사회적 토론에 참여하는 주체가 아니라, 상업적인 오락물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객체로 전환되었다.

존 듀이는 이러한 근대 연극의 상품화와 관객의 수동화를 비판했다. 듀이는 예술 경험이 예술가, 작품, 감상자,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예술이 삶과 분리될 때 미적 경험은 제한적이고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²⁷⁾ 그는 예술이 공동체의 삶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감상자는 작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재해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⁸⁾ 이러한 듀이의 비판은 오늘날 AT와 같은 참여적 예술 실천을 이끌었다. AT는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예술적 창작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다. 이는 19세기 상업 극장이 심화시킨 관객의 수동화와 예술-일상 단절을 듀이의 경험 미학과 결합해 동시대적으로 극복하는 대안적 예술 실천이라

26) 권정희, 「근대 연극장의 재편과 ‘흥행’ 개념- ‘연행’에서 ‘흥행’으로-」, 한국극예술학회, 『한국극예술연구』 42권, 한국극예술학회, 2013, 25-27쪽.

27) John Dewey 저, 이재언 역, 앞의 책, 35쪽, 43쪽.

28) John Dewey 저, 이재언 역, 앞의 책, 36쪽.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근대적 형성: 20세기 실험극과 듀이 미학의 실천적 부활

(1)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듀이 미학의 부활

20세기 연극의 혁신적 전환점 중 하나는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서사극이라고 할 수 있다. 브레히트는 전통적 아리스토텔레스식 연극이 관객의 감정이입과 일시적 카타르시스에 머물러, 현실 비판과 사회적 각성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연극을 현실의 모순을 드러내고 관객이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는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특히 서사극의 핵심인 ‘소외 효과(Verfremdungseffekt, 또는 거리두기)’는 배우와 관객 모두가 극적 상황과 인물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며, 관객이 단순한 감정적 몰입자가 아닌 능동적 관찰자이자 사회적 주체로 기능하도록 유도하였다. 배우는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지 않고, 인물과 자신 사이의 거리를 의식적으로 드러내며 관객 역시 극의 전개와 사회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한다. 이를 통해 연극은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 관객이 사회 변혁의 주체로서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²⁹⁾

이러한 서사극은 듀이의 이론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듀이는 예술이 예술가뿐만 아니라 작품, 관객, 환경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며 예술 경험은 비판적 성찰과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될 때 그 본질적 의미를 획득한다고 보았다.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바로 이러한 듀이 미학의 실천적 부활로, 연극을 통한 사회적 각성과 집단적 경험의 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브레히트의 서사극은 동시대 AT와 같은 참여적 실천적 예술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AT는 관객이 연극의 수동적 소비자가

29) 이승진,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연극치료」,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지』 10회,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2016, 51-53쪽.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실천적 변화를 이끄는 적극적인 참여자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그 미학적 실천을 계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아르토의 잔혹극과 신체성의 미학

앙토냉 아르토의 잔혹극(Théâtre de la Cruauté)은 20세기 연극에서 언어 중심의 서구적 전통을 근본적으로 전복하고, 신체와 감각,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예술 경험을 강조한 대표적 실험이었다. 아르토는 희곡과 언어에 의존하는 기존 연극을 거부하고, 무대 위에서 배우의 신체, 움직임, 소리, 조명, 공간 등 모든 감각적 요소를 총동원해 관객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물질 언어의 창조’를 추구했다. 그는 연극이 ‘창조 행위 자체여야 하며,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임을 주장하며, 배우와 관객 모두가 극적 상황을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하도록 유도했다.³⁰⁾ 아르토의 잔혹성은 단순한 폭력이나 선정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잔혹성’을 삶의 본질적 고통, 인간 실존의 근원적 갈등을 직면하는 태도이자 예술이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위선을 폭로하고 치유하는 힘으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했다.³¹⁾ 이러한 연극에서의 관객은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라 신체적·감각적으로 몰입하고 각성하는 존재로 변화하며 연극과 삶의 경계를 해체한다.

아르토의 미학은 듀이의 이론과 깊게 맞닿아 있다. 듀이는 예술이 ‘감각적 총체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된다고 보았으며, 예술 경험은 삶과 분리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통합의 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르토의 연극은 바로 이러한 듀이 미학의 실천적 구현으로 언어와 이성의

30) Antonin Artaud 저, 이선형 역, 『연극과 그 이중』, 서울: 지만지드라마, 2021, 203쪽.

31) 위의 책, 181-183쪽.

한계를 넘어 신체와 감각 집단적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예술과 삶의 통합을 시도했다. 나아가 아르토의 연극은 AT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AT는 연극을 사회적 치유, 집단적 성찰, 실존적 변화의 도구로 활용하며 관객과 배우 모두 ‘경험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아르토가 강조한 신체적 참여, 즉각적인 감각 경험, 예술과 삶의 경계 해체는 오늘날 AT가 추구하는 참여적 미학과 실천의 선구적 모델로 평가된다. 실제로 동시대 연극치료, 토론 연극 등은 아르토와 듀이의 미학을 결합해 예술이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내면적 치유를 동시에 실현하는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3) 즉흥극과 집단 창작: 리빙시어터와 오픈시어터 등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등장한 리빙시어터와 오픈시어터는 관객-배우 간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 집단 창작 운동으로 평가받았다. 리빙시어터는 1947년 설립되어 무정부주의적 성향과 사회 혁명적 의식을 바탕으로 연극을 단순한 공연이 아닌 삶과 정치가 결합된 실천의 장으로 전환했다. 오픈시어터 역시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배우와 연출과 극작가가 공동으로 대본을 창작하고 배우의 신체성을 강조하여 자발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한 대표적인 실험 극단 중 하나이다. 리빙, 오픈시어터는 고정된 대본과 무대 장치를 배제하고 즉흥성과 신체적 표현을 극대화하여 배우와 관객이 심리적·물리적으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집단적 경험을 창출했다. 관객은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라 공연에 직접 참여하는 ‘공동 창작자’로서 기능하며, 공연은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생성되는 ‘살아있는 예술’로서 자리매김했다. 이들은 사회적·정치적 주제를 탐구하면서도 극장 공간을 최소화한 빈 무대에서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연극을 집단적 창작과 참여의 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실험 단체들의 실천은 듀이의 경험 미학이 벌리언트의 ‘참여적

미학'으로 확장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벌리언트는 예술 경험이 단순한 관조가 아니라 예술가, 작품, 관객, 환경 간의 유기적/상호적으로 얽히는 '참여적 장'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다. 즉, 리빙시어터와 오픈시어터가 지향한 즉흥적 창작과 관객의 능동적 참여,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는 바로 이 참여적 미학의 현대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빙시어터와 오픈시어터의 즉흥적 공동 창작과 관객 참여는 듀이의 '경험의 통합성'과 '삶과 예술의 연속성'을 실제로 구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들은 관객을 단순히 수동적 감상자가 아닌 공연의 의미 형성과 사회적 변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 변환시켰다. 이처럼 실험 집단들의 실천은 동시대 AT가 지향하는 참여적 미학과 사회적 실천의 이론적 토대가 되며 예술이 공동체적 소통과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준다.

(4) 토론 연극과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태동

20세기 후반 브라질 극작가 아우구스토 보알(Augusto Boal, 1931~2009)에 의해 창안된 토론 연극은 AT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통적 연극과 달리 관객이 단순한 수동적 감상자가 아니라 관객-배우(Spect-Actor)로 직접 무대에 참여하여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참여적 연극이다.³²⁾ 보알은 토론 연극을 통해 억압과 불의를 다루는 사회적 갈등을 무대 위에서 재현하고, 관객이 극의 전개에 개입함으로써 현실 문제에 대한 집단적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과정은 연극을 단순한 공연이 아닌 사회적 대화와 실천의 장으로 변환시켜 관객과 배우 간의 경계를 허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보알의 토론 연극은 벌리언트가 말한 '참여적 미학'의 실천적 완성으로, 관객이 예술의 공동 창작자이자 사회 변혁의 주체로 변모하게 되는 지향점

32) Augusto Boal 저, 김미혜 역, 『억압받는 자들의 연극』(Theatre of the Oppressed), 헨리 토러 편, 서울: 열화당, 1979, 139쪽.

을 보여준다. 토론 연극은 관객이 자신의 경험과 문제 의식을 예술적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예술 경험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성찰과 변혁으로 확장되도록 한다. 이는 AT 전반에 내재된 핵심 원리이며, 예술이 사회적 정의와 교육적 변화를 촉진하는 도구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토론 연극은 듀이의 경험 미학을 실천적 차원에서 구현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으며, 동시대 AT의 이론적·실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20세기 실험극의 다양한 흐름은 모두 전통적 연극의 관객 수동화와 예술-일상 분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실험극은 관객을 단순한 감상자가 아닌, 공연의 의미 형성과 사회적 변혁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존 듀이의 경험 미학은 예술 경험이 예술가, 작품, 관객, 환경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예술과 삶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20세기 실험극의 미학적·사회적 실천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벌리언트의 참여적 미학은 20세기 실험극의 무대와 객석의 해체, 집단적 창작 방식의 도입, 즉흥성과 우연성의 수용, 그리고 신체적·감각적 경험의 강조 등 다양한 미학적 실험을 통해 예술과 일상의 통합과 그것의 실천을 자극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예술 경험을 고립된 관조가 아닌, 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강화한다. 특히 벌리언트의 참여적 미학은 듀이의 경험론을 계승·확장하여 예술의 본질을 신체적·감각적·환경적 참여 속에서 실현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AT가 다양한 집단적 창작과 관객 참여를 통해 예술 경험을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궁극적으로 AT는 20세기 실험극의 전통과 듀이, 벌리언트의 미학적 통찰을 계승·발전시키며 연극을 사회적 치유와 교육, 공동체적 성찰과 변혁의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 AT는 참여적 미학을 실현하며 예술 경험을 개인

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실천과 연결한다. 이를 통해 연극은 삶의 문제를 탐구하고, 사회적 정의와 변화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매개체로 자리매김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존 듀이의 이론과 참여적 미학성을 적용하여 AT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2장 1절 듀이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는 인간의 유기체성, 질성, 상호작용 원리를 중심으로 듀이 미학의 핵심을 분석하고, 예술 경험이 일방향적인 감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듀이의 미학은 AT가 이론과 실천을 융합하여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재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경험의 공동 창조와 사회적 행동 촉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절에서는 아놀드 벌리언트의 이론을 통해 ‘참여적 미학’ 개념과 전통 미학의 주체-객체 분리에서 벗어난 동시대 미학의 전환을 살펴보고, 예술이 ‘관조’에서 ‘경험’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듀이의 이론과 참여적 미학성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부터 20세기 보알의 토론 연극에 이르기까지 내재된 AT의 참여적 미학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였다.

연극의 참여적 미학성은 고대 그리스의 코러스와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시작되어, 르네상스-19세기 관객의 수동화를 거치며 단절되다가, 19세기 후반 독일의 노동자 극단이나 20세기 실험극을 통해 재발견되었다. 고대 그리스 연극은 관객과 배우, 공동체가 신화와 음악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총체적 예술’이었으나, 근대 이후 프로시니엄 무대와 상업 극장의 등장은 관객을 무대와 분리된 수동적 감상자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브레히트의 서사극, 아르토의 잔혹극, 리빙시어터나 오픈시어터의 즉흥적 창작 등 20세기 실험극은 관객을 예술 경험의 주체로 전환시키며 듀이가 주장한 ‘경

힘으로서의 예술’을 실천적으로 부활시켰다. 이를 통해 예술은 다시 삶과의 연속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실천의 도구로 기능하게 되었다.

본고는 연극의 참여적 미학성을 듀이의 경험 미학을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AT의 역사적 전개를 통해 그 이론적, 실천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기존의 연극사를 관객의 역할과 예술과 일상의 관계의 변동에 주목함으로써 연극의 사회적, 공동체적 기능 중심으로 재해석하였다. 특히 AT가 단순한 연극 장르의 하나가 아니라 예술과 교육, 치유, 사회 변혁을 연결하는 동시대적 실천의 장임을 밝힘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책임과 실천적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이는 연극 연구뿐만 아니라 예술교육, 문화정책,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T의 이론적 확장과 실천적 적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T는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며 오늘날 교육, 치료, 사회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천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관객이 ‘관객-배우’로 참여하는 토론 연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시어터, 소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양한 연극들은 예술이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매개체임을 입증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증폭된 현대인에게 AT는 공동체적 유대감과 적극적 소통을 복원하는 대안적 예술 형식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면의 제약 상, 서구 중심의 연극사 서술에 편중되어 비서구 지역의 참여적 미학 전통을 포괄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전통 공연 예술에서 나타나는 관객 참여 양상은 고대 그리스나 20세기 실험극과 차별된 맥락을 지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비서구 지역의 참여적 연극 전통을 비교·고찰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더불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과 AT의 결합 가능성에 관

한 연구와 예술과 정치, 교육, 복지의 융합적 연구를 시행한다면, 참여적 미학의 이론과 실천을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비서구 지역의 참여적 연극 전통에 대한 비교 분석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가능성에 관한 심층적 논의를 실행하도록 하겠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아리스토텔레스 저, 천병희 역, 『시학』, 서울: 문예출판사, 2002.
- 아서 단토 저, 장민한 역, 『예술의 종말 이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7.
- 앙토냉 아르토 저, 이선형 역, 『연극과 그 이중』, 지만지드라마, 2021.
- 아우구스토 보알 저, 헨리 토러 편, 김미혜 역, 『억압받는 자들의 연극』(Theatre of the Oppressed), 서울: 열화당, 1989.
- 존 듀이 저,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14.
- _____, 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세상, 2003.
- 존 로크 저, 이재언 역, 『인간 오성론』, 서울: 다락원, 2009.
- Arnold Berleant. Art and Engagement,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1991.
- _____. Aesthetics and Environment, London: Routledge, 2005.
- Claire Bishop.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London: Verso, 2012.

논문

- 김기수, 「존 듀이 관점에서의 음악 매개와 표현」, 『음악교육』 6호, 한국유초등음악교육학회, 2006, 133-153쪽.
- 김다정,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에 나타난 일상적 경험의 실천적 특성에 관한 연구: 존듀이의 경험 예술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숙현,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미학과 윤리-2000년대 이후 주요 논점과 그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79호 1권, 한국연극학회, 2021, 195-228쪽.
- 김영운·조준희, 「인간-AI 공동창작 공연예술 특성 연구: 국내 AI 공연예술 작품을 중심으로」, 『지식과 교양』 14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397-424쪽.

- 김현정, 「응용연극의 실천과 확장 가능성 연구-‘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의 토론연극<숙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16호 2권, 한국교육연극학회, 2024, 1-31쪽.
- 서나영, 「어플라이드 씨어터(Applied Theatre)의 이론과 실제」, 『연극교육연구』 29호, 한국연극교육학회, 2016, 193-220쪽.
- 권정희, 「근대 연극장의 재편과 ‘흥행’ 개념- ‘연행’에서 ‘흥행’으로-」, 『한국극예술연구』 42호, 한국극예술학회, 2013, 13-52쪽.
- 백영주, 「현대예술의 연행적 양상과 참여적 환경: 아놀드 벌리언트의 ‘관여’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기초조형학회』 11권 1호, 2010, 193-207쪽.
- 송기정, 「18세기 프랑스의 살롱 문화와 여성의 문화정체성」, 『프랑스학논집』 76권, 한국프랑스학회, 2011, 55-84쪽.
- 송영진,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론에 나타난 감정의 “카타르시스(catharsis)”의 다양한 의미」, 『인문학연구』 38권 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1, 389-425쪽.
- 신광민·조준희, 「어플라이드 시어터로서의 국내 노동연극 특성 연구-민주화 시대 노동연극을 중심으로-」, 『연극교육연구』 48호, 한국연극교육학회, 2024, 79-104쪽.
- _____,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치유적 특성 연구: 사이코드라마와 연극치료의 ‘역할’개념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23권 1호, 한국예술교육학회, 2025, 501-516쪽.
- 이만희, 「그리스 코러스 기능의 전복-솔로르사노의 『신의 손』을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0권 1호,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 연구소, 2009, 1-26쪽.
- 이승진, 「브레히트의 서사극과 연극치료」,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지』 10회,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2016, 50-62쪽.
- 이은미, 「듀이 美學의 教育學的 解釋」,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장재녕·이상용, 「존 듀이(John Dewey)의 ‘경험’으로서의 예술’에서 ‘경험’에 대한 의미 고찰」, 『한국도자학연구』 18호 1권, 한국도자학회, 2021, 85-99쪽.
- 최영주, 「산책자 담론과 응용연극의 관점에서 본 거리걷기 공연-〈제로

리:퍼블릭>을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59호, 한국드라마학회, 2019, 193-232쪽.

Grammatas Theodore. *Drama and Theatre in Ancient Greece. A Database and a Spectators' School.*, International Theatre Conference, 2022. available at theodoregrammatas.com

Vovolis Thanos. *Acoustical Masks and Sound Aspects of Ancient Greek Theatre*, Stockholm: Dramatiska Institutet, 2009, pp.155-156.

■ 국문초록

20세기 후반 이후 동시대 미학은 예술의 본질과 경계에 대한 근본적 재고와 함께, 플루럴리즘과 참여적 미학의 부상이라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 아서 단토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예술은 더 이상 단일한 내러티브나 고정된 미적 기준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사회적 맥락과 개념, 그리고 관객의 해석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되는 열린 장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의 자율성과 순수성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을 해체하고, 예술이 사회적·정치적 현실과 어떻게 교차하는지에 주목하는 동시대 미학의 흐름을 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존 듀이의 경험 미학과 벌리언트의 참여적 미학은 예술 경험이 예술가, 작품, 관객, 환경 간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실현되며, 예술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실천과 공동체적 변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러한 미학적 전환은 연극 분야에서 관객 참여, 집단 창작, 신체적·과정 중심의 미학으로 구체화 되었고, 어플라이드 시어터는 예술의 교육적·치유적·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예술 경험을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대표적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역사적 전개와 이론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동시대 연극으로서의 어플라이드 시어터의 기능과 미학적 함의를 조망한다.

주제어 • 어플라이드 시어터, 존 듀이, 경험 미학, 참여적 미학

■ Abstract

The Participatory Aesthetics of Applied Theatre through the Theory of John Dewey : Focusing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pplied Theatre

Shin, Kwang Min / Dongguk University

Cho, Joon hui / Dongguk University

Since the late 20th century, contemporary aesthetics has witnessed a fundamental rethinking of the nature and boundaries of art, with the rise of pluralism and participatory aesthetics. As Arthur Danto pointed out, art is no longer defined by single narrative or fixed aesthetic criteria, but has become an open field where its meaning expands according to social context, concepts, and audience interpretation. This shift has spurred a current of contemporary aesthetics that deconstructs the old paradigm of art's autonomy and purity and focuses on how art intersects with social and political realities. In this process, John Dewey's experiential aesthetics and Berleant's participatory aesthetics provide theoretical support for the social practice and communal transformation of art by emphasizing that the experience of art is realized in the organic interaction between artist, work, audience, and environment, and that art and life are inseparable. This aesthetic shift has been embodied in audience participation, collective creation, and physical and process-oriented aesthetics in theatre. Moreover, Applied Theatre has become a prominent practice that emphasizes the educational, healing, and social roles of art and extends artistic experience into communal practice in diverse life contexts. By comprehensively examining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Applied Theat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unction and aesthetic implications of Applied Theatre as a contemporary theatre.

**Keyword • Applied Theatre, John Dewey, Experiential Aesthetics,
Participatory aesthetics**

■ 논문투고일:2025.05.31. ■ 심사완료일:2025.07.09. ■ 게재확정일:2025.07.14. ■

1950년대 미국 서부의

쿨 재즈의 형성과 발전

: 웨스트 코스트 출신 뮤지션들의
음악적 혁신과 유산을 중심으로

주 소 은*

목 차

1. 서론
2. 재즈의 역사와 쿨재즈의 기원
3. 1950년대 미국 서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주요 인물
4. 서부 해안에서의 쿨재즈 발전과 영향
5. 결론

1. 서론

1950년대 중반까지 재즈(Jazz)의 중심지는 주로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였으나, 이 시기에 미국 서부 해안,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웨스트 코스트 재즈(West Coast Jazz)’ 혹은 ‘쿨 재즈(Cool Jazz)’라고 불리는 새로운 양식의 재즈가 탄생하였다. 쿨 재즈는 이전의 비밥(Bebop) 스타일이 가진 격렬하고 빠른 즉흥연주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절제되고 서정적인 사운드와 여유롭고 느슨한 리듬을 추구했다.¹⁾ 또한, 쿨 재즈는 당시 서부 해안 지역 특유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결합하여 이전과는 구별되

* 주소은(제1저자) 배재대학교 주시경교양대학 중점교육부 교수

1) Gioia, Ted. *West Cost Jazz: Modern Jazz in California, 1945-1960*, Wellington: Kelburn Library Press, 1998b.

는 재즈의 새로운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쿨 재즈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당시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이 장르의 형성과 확산에 중심적 역할을 한 주요 뮤지션들의 음악적 혁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쿨 재즈는 기존의 비밥 스타일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절제된 화성 구성과 섬세한 편곡, 비교적 느린 템포를 특징으로 삼아 서부 해안만의 독특한 음악적·문화적 정체성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 스타일은 현대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1950년대 미국 서부 해안에서 쿨 재즈의 형성에 영향을 준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주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쿨 재즈를 주도한 주요 뮤지션들은 어떠한 음악적 혁신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재즈 음악의 발전과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음악적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병행하여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걸쳐 본격적으로 전개된 서부 해안 쿨 재즈의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 1926-1991), 쳇 베이커(Chet Baker, 1929-1988), 게리 멀리건(Gerry Mulligan, 1927-1996),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 1920-2012) 등 이 시기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적 활동과 혁신 사례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당시 서부 해안 재즈 신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음악적 실험과 그 유산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재즈의 역사와 쿨 재즈의 기원

1) 재즈의 정의와 초기 발전

재즈(Jazz)는 20세기 초 미국 남부의 항구 도시인 뉴올리언스(New Orleans)에서 탄생하여, 미국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로 성장하였다.²⁾ 재즈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전통 음악과 유럽의 음악 기법이 융합된 장르로서, 폴리리듬(Polyrhythm), 콜 앤 리스폰스(Call-and-Response), 블루노트(Blue Note) 등 흑인 음악의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표현 방식과 유럽의 화성 구조, 악기 편성, 기보 중심의 음악 언어가 결합하여 형성된 음악이다.³⁾ 이러한 복합적 음악적 기반 위에 래그타임(Ragtime), 블루스(Blues), 흑인 영가(Negro Spirituals) 등 다양한 요소가 추가되면서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시카고(Chicago)와 뉴욕(New York) 등으로 점차 확산되었다.⁴⁾

이 시기 재즈의 발전에서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했던 음악가 중 한 명이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 1901-1971)이다. 그는 뉴올리언스에서 시작하여 시카고와 뉴욕에서 활약하며 뛰어난 즉흥연주 기법과 탁월한 연주 기교를 선보임으로써 재즈의 예술적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한편, 1920년대 미국은 이른바 스윙(Swing)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시기 재즈는 주로 10~20명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빅밴드(Big Band)를 중

2) Gioia, Ted. *The History of Jazz*,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 Sadie, Stanley & Tyrrell, Joh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4) Schuller, Gunther. *The Swing Era: The Development of Jazz 1930-1945*,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심으로 하여 대중음악으로 널리 확산되었다.⁵⁾ 특히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 1899-1974), 베니 굿맨(Benny Goodman, 1909-1986), 카운트 베이시(Count Basie, 1904-1984) 등의 음악가들은 화려하고 정교한 사운드를 통해 당시 미국 사회가 겪고 있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 위기 속에서 청중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였다.

2) 비밥 재즈의 등장과 주요 특징

194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재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빅밴드 구성 유지가 어려워지고, 음악적 지향 또한 ‘유흥’에서 ‘예술’로 점차 바뀌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인하여, 재즈 음악가들도 전쟁에 징집되었다. 전쟁의 징집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한 빅밴드는 충분한 인원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빅밴드는 규모가 크고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쟁 시기의 경제적 압박 속에서 작은 그룹으로 축소하게 되었다. 결국 빅밴드는 4~6인조의 소규모 그룹으로 축소되었으며, 백인들을 즐겁게 해주는 목적이던 스윙 음악의 본질을 벗어나, 개인의 즉흥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며 유흥 음악에서 감상용 예술 음악으로 발전하게 된다. 음악평론가 Ted Gioia에 따르면, 이러한 비밥(Bebop)은 재즈의 예술성을 한 단계 높였고,⁶⁾ 복잡한 화성과 빠른 템포, 활발한 즉흥연주라는 특징을 보였다. 비밥 재즈는 이전 재즈와 다른 비밥 스케일(Bebop Scale)을 새로 만들어냈다. 기본적인 7음 음계(Major, Minor Scale)에 반음(Cromatic)을 하나 추가하여 8음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2박자 리듬(8분음표 기준)에서 강박(Strong Beat)에 조화스런 구성음이 위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의 스윙 재

5) 남정우, 「쿨(cool)의 미학: 미감적 이념(ästhetische Idee)의 전환- ‘쿨 스타일 재즈음악’의 경우-」, 『인문과학논총』 제39권 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27-259쪽.

6) Gioia, Ted. op. cit., 2011.

즈와는 완전히 다른 음악적 언어였다. 이를 대표하는 찰리 파커(Charlie Parker, 1920-1955), 디지 길레스피(Dizzy Gillespie, 1917-1993) 등 비밥 뮤지션들은 기존 재즈의 형식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고, 이러한 비밥 스케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즈 화성 기법을 획기적으로 확장하였다.

3) 쿨 재즈의 탄생과 발전 과정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내 자본주의 대중문화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되었다. 이 시기에 ‘쿨(cool)’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온도 개념을 넘어 새로운 태도와 스타일을 함축하는 문화적 상징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재즈 영역에서도 쿨 재즈(Cool Jazz)라는 흐름이 형성되었는데, 그 시발점으로는 1948년 마일즈 데이비스가 결성한 노넷(Nonet)이다. 노넷은 1949~1950년에 걸쳐 녹음된 《Birth of the Cool》에서 이러한 경향을 결정적으로 드러냈다.⁷⁾ 이 앨범은 쿨 재즈의 대중화와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명반으로 평가받는다. 노넷의 앨범은 비밥(Bebop)과는 대비되는 보다 절제되고 세련된 편곡과 음색을 강조하며, 조용하고 부드러운 톤, 대위법적 접근, 그리고 유려한 멜로디 라인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찰리 파커와 디지 길레스피 등 비밥 거장들이 만든 급진적이고 강렬한 연주 스타일과는 차별화된 것이었다. 《Birth of the Cool》은 길 에번스(Gil Evans, 1912-1988), 게리 멀리건(Gerry Mulligan, 1927-1996), 리 콘니츠(Lee Konitz, 1927-2020), 존 루이스(John Lewis, 2000-2001), 케니 클락(Kenny Clarke, 1914-1985) 등의 재즈 거장들이 참여하여 연주하였다. 이러한 스타일의 변화는 재즈가 단순한 클럽 음악을 넘어 보다 세련된 사운드를 지향하는 예술 장르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쿨은 느긋하고 비브라토를 제거한 대위법에 따른 절제된 선율로 아이

7) Davis, Miles & Troupe, *Quincy. Miles: The Autobiography*, New York: Simon & Schuster, 1989.

젠하워 시대의 대학생과 백인 청중들을 빨아들여 긍정성의 상징이 되었다.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의 인종 음악으로 소비와 유통되던 재즈는 할리우드와 쿨을 통해 부유하고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로 변모했고 청중들은 열광했다. 그래서 로버트 와그너(Robert Wagner, 1930~현재)와 같은 정상급 영화 배우도 쿨 재즈 연주가 쳇 베이커의 헤어스타일을 흉내내기에 이르렀다.⁸⁾ 쿨 재즈는 비밥이 지닌 날카롭고 급진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보다 절제되고 세련된 편곡과 음색을 강조하였다. 특히 대학생 및 백인 청중에게 특히 호응을 얻었으며, 이후 전후 미국 사회에서 재즈의 새로운 동향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3. 1950년대 미국 서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주요 인물

1) 서부 해안의 사회·문화적 변화교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로스앤젤레스(LA)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지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인구 유입으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크게 증대되었다.⁹⁾ 특히 LA는 영화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전 세계 예술인들이 모여들었고, 이는 재즈를 포함한 음악 전반에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¹⁰⁾ 또한 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한 인종 차별은 흑인·백인 뮤지션 간 교류를 촉진하여,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배경이 되었다.¹¹⁾ 이는 쿨 재즈가 형

8) DeVeaux, S. & Giddins, G. *Jazz*,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9.

9) Gioia, Ted. *West Coast Jazz: Modern Jazz in California 1945-1960*,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10) MacDonald, Laurence E. *The Invisible Art of Film Music: A Comprehensive History*, New York: Ardsley House, 1998.

11) Gioia, Ted. *West Coast Jazz: Modern Jazz in California 1945-1960*,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a.

성·발전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지역의 온화한 기후와 개방적인 문화적 분위기는 동부의 뉴욕과는 다른 독자적인 음악 스타일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서부 해안에서는 뉴욕의 비밥(Bebop)처럼 빠르고 격렬한 즉흥연주보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스타일이 선호되었으며, 이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West Coast Jazz)의 탄생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 쳇 베이커(Chet Baker), 스탠 게츠(Stan Getz, 1927-1991), 아트 페퍼(Art Pepper, 1925-1982) 등과 같은 주요 연주자들이 등장하며, 1950년대 미국 서부의 재즈 신(Scene)은 하나의 독립된 음악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¹²⁾

2) 웨스트 코스트 쿨 재즈의 주요 인물

마일즈 데이비스(Miles Davis, 1926-1991)

마일즈 데이비스는 주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그의 대표적 음반 《Birth of the Cool》 제작 당시 참여한 멤버들 가운데 상당수가 서부 해안 출신 뮤지션들이었다는 점에서 웨스트 코스트 쿨 재즈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데이비스는 쿨 재즈가 이후 백인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본래 흑인 음악이 가진 정체성이 희석되고, 백인 음악가들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나와 같은 흑인들이 개척한 음악 스타일을 백인들이 가져가서 그들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이 이 모든 걸 새롭게 만들어낸 것처럼 행동했다.”¹³⁾ 라고 언급하며, 흑인 음악이 백인 음악 산업에 의해 상업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12) Lees, G. *Cats of Any Color: Jazz Black and White*,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3) Davis, Miles. & Troupe, Quincy. op. cit.

특히 그는 쿨 재즈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쳇 베이커(Chet Baker)나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과 같은 백인 연주자들이 웨스트 코스트 쿨 재즈의 대표 인물로 부각된 점에 분노하였다. 데이비스는 이러한 현상을 흑인 뮤지션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음악 스타일이 백인 음악계의 이미지로 소비되고, 정작 흑인 연주자들은 소외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인식하였다. 그는 당시 미국 음악 산업 구조가 백인 연주자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하여, 흑인 음악가들이 업계 내에서 차별받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불만은 데이비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하드 밥(Hard Bop)과 모달 재즈(Modal Jazz)로 음악적 방향성을 전환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1950년대 후반 재즈 신은 비밥(Bebop)의 복잡하고 형식적인 연주 방식을 벗어나 보다 감성적이고 직접적인 표현 방식을 추구하며 하드 밥과 모달 재즈로 전환하였다.¹⁴⁾ 하드 밥은 블루스(Blues), 가스펠(Gospel), 리듬 앤 블루스(R&B) 등 흑인 음악 전통의 영향을 받아 강렬한 감정 표현과 역동적이고 리듬 중심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¹⁵⁾ 한편 모달 재즈는 기존의 복잡한 코드 진행 대신, 선법(Mode)에 기반한 즉흥성을 강조하여 연주자들에게 더욱 자유롭고 개성적인 표현 공간을 제공하였다.¹⁶⁾ 이는 당시 미국 사회의 변화와 재즈 연주자들의 새로운 창작적 욕구가 결합된 결과였다.

데이비스는 하드 밥을 통해 흑인 음악의 본래 뿌리를 강조하면서, 웨스트 코스트 쿨재즈의 부드럽고 세련된 스타일과는 차별화된, 보다 정통적인

14) 남정우, 「하드밥(Hard Bop) 스타일 재즈음악과 예술지각양식의 변화」, 『대중음악』 통권 27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21, 127-155쪽.

15) 남정우, 앞의 논문, 2021, 135-140쪽.

16) 남정우, 「‘음악적 소리’의 구성에서 ‘선법’ 이념의 발전: 모달재즈의 미학적 원리-칸트의 예술철학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통권 33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24, 179-205쪽.

고 강렬한 흑인 음악의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¹⁷⁾

첷 베이커(Chet Baker, 1929-1988)

첷 베이커(Chet Baker)는 트럼펫 연주자이자 보컬리스트로, 서부 해안 쿨 재즈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음색을 내세워 쿨 재즈의 서정적 특징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1953년 색소폰 연주자 게리 멀리건과 함께 선보인 '피아노 없는 쿼텟(Piano-less Quartet)'은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전형적인 사운드를 정립한 중요한 사례였다.¹⁸⁾ 첷 베이커는 화려한 기교보다는 섬세한 표현력과 감성적인 멜로디를 강조하였으며, 그의 연주 스타일은 서정성과 절제미가 돋보였다. 특히 그의 트럼펫 톤은 전통적인 비브라토를 최소화하고, 부드럽고 공기감 있는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서부 해안의 재즈 스타일과 잘 어울리며, 동부의 거친 비밥 스타일과는 대조적인 느낌을 주었다¹⁹⁾ 또한 보컬리스트로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으며, 《My Funny Valentine》과 같은 대표곡을 통해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감미롭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그의 보컬은 나른하면서도 감미로운 음색으로 유명했으며, 이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가 보다 부드럽고 대중적으로 다가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²⁰⁾

게리 멀리건(Gerry Mulligan, 1927-1996)

게리 멀리건(Gerry Mulligan)은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로서 《Birth of the Cool》 세션에 참여하여, 당시 재즈계에서 비교적 생소했던 부드럽고

17) Gioia, Ted. op. cit., 2011.

18) Hentoff, Nat. ed. *DownBeat Magazine*, Elmhurst: Maher Publications, 1953.

19) Gioia, Ted. op. cit., 1997.

20) Jeroen, De Valk. *Chet Baker: His Life and Music*, Berkeley Hills Books, California, 2000.

21) Davis, Miles & Troupe, Quincy. op. cit.

균형 잡힌 톤을 강조하였다.²¹⁾ 기존의 바리톤 색소폰은 무겁고 둔탁한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었으나, 멀리건은 이를 보다 가볍고 유연한 톤으로 연주하며 웨스트 코스트 쿨 재즈의 핵심적인 사운드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그는 1952년부터 쳇 베이커(Chet Baker)와 함께 ‘피아노 없는 쿼텟(Piano-less Quartet)’을 결성하여 서부 해안 재즈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체화했다. 피아노 없이 색소폰과 트럼펫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이 편성은 재즈 앙상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쿨 재즈의 특징인 유려한 화성과 섬세한 앙상블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멀리건은 이후 트럼본 연주자 밥 브룩마이어(Bob Brookmeyer, 1929-2011)와의 협업을 통해 더 정교한 편곡과 화성적 탐구를 시도하였으며, 이는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²²⁾ 그의 음악적 스타일은 절제된 감성과 부드러운 흐름을 강조하는 쿨 재즈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동시대 바리톤 색소폰 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멀리건의 유산은 단순한 연주 기법을 넘어 재즈 편곡과 앙상블 형성 방식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의 독창적인 접근방식은 이후 많은 재즈 뮤지션들에게 영감을 주었다.²³⁾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 1920-2012)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1959년 발매한 《Time Out》 앨범을 통해 재즈계에 변박자(5/4, 9/8 등) 실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²⁴⁾ 이는 기존의 4/4 박자 중심의 재즈 전통에서 벗어난 혁신적

22) Lees, G. op. cit.

23) Yanow, S. *Jazz on Record-The First Sixty Years*, Backbeat Books, Guilford, 2003.

24) Clark, P. *Dave Brubeck: A Life in Time*, Boston, Massachusetts: Da Capo Press, 2020.

인 시도로, 특히 앨범 수록곡 《Take Five》는 5/4 박자를 활용한 최초의 대중적으로 성공한 재즈곡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으며, 재즈가 학문적·예술적 차원을 지향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²⁵⁾ 브루벡의 음악은 유럽 클래식 화성과 구조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하며, 기존의 재즈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작곡 기법을 강조하였다. 그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세련되고 지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그는 폴 데스몬드(Paul Desmond, 1924-1977)와의 협업을 통해 부드러우면서도 실험적인 사운드를 구축했으며, 이는 서부 해안의 쿨 재즈 스타일과도 깊이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브루벡은 흑인 베이스리스트 유진 라이트(Eugene Wright, 1923-2020)와의 협연을 고수하며, 당시 미국 사회에서 만연했던 인종 차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950~60년대에는 인종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였으며, 일부 공연장에서는 백인과 흑인 연주자들의 동반 출연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브루벡은 이러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진 라이트를 밴드의 정식 멤버로 유지했으며, 이는 음악을 통해 인종 평등을 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로 평가된다.²⁶⁾

브루벡의 이러한 음악적, 사회적 기여 덕분에 그는 단순한 연주자를 넘어 재즈의 예술적, 윤리적 가치를 확장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실험적인 박자 구성과 클래식적 접근법은 이후의 재즈 음악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웨스트 코스트 재즈의 지적이고 혁신적인 면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된다.²⁷⁾

25) Gioia, Ted. op. cit., 2011.

26) David Ake. *Jazz Matters: Sound, Place, and Time Since Bebop*,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27) Yanow, S. *Jazz on Record-The First Sixty Years*, Backbeat Books, Guilford, 2005.

4. 서부 해안에서의 쿨 재즈 발전과 영향

1) 서부 해안 쿨 재즈의 음악적 특징

1950년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해안 재즈 신(Scene)은 영화·음악 산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 비교적 관대한 인종 환경, 중산층의 문화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되어 동부의 비밥과는 다른 특색을 띠었다.²⁸⁾ 구체적으로 쿨 재즈는 클래식 음악 기법과 정교한 편곡, 안정된 템포와 부드러운 음색을 적극 수용하여, 한층 정제되고 실험적인 사운드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²⁹⁾ 이러한 스타일은 웅장한 사운드를 요구하는 영화 음악 및 스튜디오 녹음 환경과도 잘 어울려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서부 해안 재즈는 유럽 클래식 음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특히 대위법(Counterpoint)과 폴리포니(Polyphony) 기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³⁰⁾ 이는 동부 비밥에서 주로 사용되던 단선율 즉흥연주(Monophonic Improvisation)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비밥이 빠른 템포와 급진적인 리듬 변화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서부 해안 쿨 재즈는 비교적 안정된 템포와 여유로운 스윙감을 유지했다. 이러한 리듬적 특성 덕분에 웨스트 코스트 쿨 재즈는 보다 편안하고 세련된 감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당시 미국 중산층 청중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요소가 되었다.³¹⁾ 서부 해안 쿨 재즈는 비밥보다 한층 더 실험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을 중심으로 변박자와 독창적인 화성을 적극적으로

28) Gioia, Ted. *West Coast Jazz: Modern Jazz in California 1945-1960*, Oxford University Press, Great Clarendon Street, 1992.

29) Kernfeld, Barry.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Jazz, 2nd Edition*,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30) Gridley, M. *Jazz Styles: History and Analysi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1997.

31) The Lighthouse Cafe-History, <https://www.thelighthousecafe.net/history#:~:text=%28Stars,2025.03.20>.

으로 활용했다. 이러한 시도는 쿨 재즈가 단순한 즉흥연주의 장르에서 벗어나 보다 구조적이고 정교한 음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으며, 재즈의 예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³²⁾

2) 쿨 재즈의 대중화와 클럽·캠퍼스 문화

1950년대 미국 서부 해안의 재즈 클럽들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예술적 창작 공동체로 기능하였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인근 허모사 비치(Hermosa Beach)의 ‘라이트하우스 카페(The Lighthouse Café)’와 샌프란시스코의 ‘블랙호크(The Black Hawk)’ 클럽은 쿨 재즈 신(Scene)의 산실로서, 새로운 스타일을 실험하고 발전시키는 장으로 큰 역할을 했다. 이들 공간에서는 연주자들이 상시적으로 모여들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즉흥연주를 펼쳤으며, 클럽의 분위기와 환경 자체가 쿨 재즈의 미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재즈 클럽은 공연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하나의 문화 공동체이자 실험실로 기능함으로써, 쿨 재즈의 미학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이 상호 연결되는 독특한 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이트하우스 카페의 사례는 이러한 공간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1949년 하워드 럼지(Howard Rumsey)가 주도한 일요일 잼 세션으로 시작된 이 해변 클럽은 곧 서부 해안 재즈의 중심지로 부상했다.³³⁾ 낮에는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수영복 차림 그대로 들어와 밤늦게까지 재즈를 만끽할 정도로, 라이트하우스에는 일상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³⁴⁾ 연주자들은 이러한 캐주얼한 환경 속에서 부담 없이 모여들어 긴 즉흥 합주를 이어갔고, 클럽 측은 시간을 엄격

32) Clark, P. *Dave Brubeck: A Life in Time*, Boston, Massachusetts: Da Capo Press, 2020.

33) The Lighthouse Cafe-History, op. cit., 2025.03.20.

34) Ivana Ng, “The Lighthouse Cafe: West Coast Jazz By The Beach”, uDiscoverMusic, 2025.05.29.

히 구분하지 않고 하루 반나절 넘게 지속되는 잼 세션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공연은 정해진 레퍼토리를 연주하고 끝나는 형식적 무대라기보다, 연주자들이 끊임없이 주제와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즉흥적 대화 혹은 리허설과도 같은 양상을 띠었다.³⁵⁾ 라이트하우스의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운 비교적 큰 편성의 앙상블 사운드는 관객을 음악 속에 몰입시키며 열띤 공동 경험을 만들어냈는데, 이러한 에너지 넘치는 현장감은 뉴욕의 빌리지 뱅가드 등이 보여주던 보다 실내악적인 분위기와 대비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서부 해안 연주자들은 당시 일반적인 콤보 편성(4~5인조)을 넘어서는 옥텟(Octet), 텐텟(Tentet) 등의 대규모 편성을 즐겨 활용하여 풍부한 울림을 추구했고, 이는 라이트하우스와 같은 친밀한 클럽 공간에서 한층 입체적인 음향 경험을 선사하였다.³⁶⁾

이처럼 라이트하우스 카페는 서부 해안 쿨 재즈의 새로운 미학을 집단적으로 실험하는 장이었다. 이곳의 하우스 밴드인 ‘라이트하우스 올스타즈(All-Stars)’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지역 연주자들이 수시로 합류하여 연주를 펼쳤다. 이를 주도한 림지는 동료 연주자들과 함께 매주 새로운 편곡과 선율 모티브를 시도하며 쿨 재즈의 레퍼토리와 스타일을 다듬어 나갔다.³⁷⁾ 예컨대 피아니스트 햄프턴 호즈(Hampton Hawes, 1928-1977)와 색소포니스트 스탠 게츠(Stan Getz) 등의 음악가들은 라이트하우스에서 서부 해안 특유의 세련되고 구조적인 편곡 기법을 연마했으며, 컨템포러리 레코드의 제작자 레스 코에닝(Les Koenig)은 이 클럽의 올스타즈를 기용해 여러 장의 라이브 음반을 녹음함으로써 그 실험적 성과를 남겼다. 관객들은 따듯

35) Ibid., 2025.05.29.

36) MasterClass-West Coast Jazz Guide: 3 Characteristics of West Coast Jazz, <https://www.masterclass.com/articles/west-coast-jazz-explained>, 2025.03.20.

37) Ivana Ng, op. cit., 2025.05.29.

한 네온 불빛 아래서 비치타월을 두른 채 연주에 맞춰 손가락으로 비트를 새기는 등, 해변 문화의 일상이 재즈 공연과 한데 어우러진 풍경을 만들어 냈다. 라이트하우스가 “서부의 재즈 코너(Jazz Corner of the West)”란 별칭을 얻은 것도 이처럼 해안 지역의 생활공간과 예술공간이 결합된 독특한 공동체적 분위기 덕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서부 해안 쿨 재즈의 역사를 간직한 라이트하우스 카페는 2016년 영화 『라라랜드』에서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며, 그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샌프란시스코의 블랙호크 클럽 역시 창작 공동체로서의 재즈 공간의 전형을 보여준다. 1949년에 개업한 블랙호크는 1963년 문을 닫기까지 서부 해안에서 가장 활발한 재즈 클럽 중 하나로 명성을 떨쳤다. 이 클럽은 초기에는 무명에 가까웠던 연주자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어 신진 재즈 인재를 요람 역할을 했다. 실제로 피아니스트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 트리오의 블랙호크에서의 첫 장기 공연을 통해 입소문을 얻으며 클럽의 간판 밴드로 성장했고, 이들의 드러머였던 칼 제이더(Cal Tjader, 1925-1982)는 이곳에서 비브라폰 연주로 전업하여 이후 라틴 재즈를 개척하는 등 음악적 커리어를 꽃피웠다.³⁸⁾ 또한 쳇 베이커와 게리 멀리건 같은 쿨 재즈 거장들 역시 이 클럽 무대를 통해 서부 해안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런 점에서 블랙호크는 단순히 유명 연주자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서로 교류하며 성장하는 창작 공동체였다.

블랙호크 클럽의 사회문화적 개방성도 주목할 만하다. 이 클럽은 인종과 계층을 불문하고 모든 음악 애호가를 맞이하여, 다양한 사회집단이 재즈를 매개로 어울리는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다. 재즈 평론가 랄프 글리슨

38) Gary Kamiya, “The Blackhawk: San Francisco’s greatest jazz club”, San Francisco Chronicle, 2022.04.29.

은 “블랙호크의 딱딱한 의자와 작은 테이블에는 러시아 선원, 영국 시인, 일본인 재즈 연주자, 쿠바 혁명가, 권투 챔피언, 정치인 등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앉았다”고 회고하며, 오페라 관객의 턱시도 차림 신사부터 택시 운전사와 대학생까지 모든 이가 한 줄로 서서 입장할 만큼 민주적인 분위기를 갖춘 곳이었다고 평했다.³⁹⁾ 블랙호크의 운영자들은 철저히 음악에 중점을 두어 연주자들을 존중했고, 상업적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음악 자체에 헌신된” 공간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음향이 뛰어났던 블랙호크에서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쿼텟이나 모던 재즈 쿼텟(MJQ) 등이 마이크 없이도 연주를 펼쳤으며, 연주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술적 자율성은 블랙호크를 당대 최고의 라이브 명소로 거듭나게 했고, 마일스 데이비스와 델로니어스 몽크(Thelonious Mink, 1917-1982) 등의 전설적인 라이브 음반들이 이곳에서 녹음되어 재즈사에 남았다.⁴⁰⁾

한편 블랙호크 클럽은 인종적 경계를 허무는 사회적 역할도 담당했다. 1940년대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인종 차별로 인해 대부분의 흑인 재즈 연주자들이 흑인 거주 지역인 필모어(Fillmore) 지구의 클럽에서만 활동해야 했고, 주요 음악가 조합도 인종이 분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9년 문을 연 블랙호크는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흑인 연주자들을 정기적으로 무대에 올린 선구적 공간이었다. 이를 통해 샌프란시스코 재즈 신은 보다 다양하고 풍요로운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블랙호크를 전국적 명소로 만든 데이브 브루백은 1950년대 말 자신의 콰르텟에 흑인 베이시스트 유진 라이트(Eugene Wright)를 영입한 후, 인종차별적인 공연장 출입 제한에 맞서 그러한 조건의 남부 공연을 거부하는 등 재즈계의 인

39) bid., 2022.04.29.

40) Andre Torrez, “San Francisco’s famed Blackhawk jazz club showcased Black excellence”, FOX LOCAL, 2023.02.24.

종 통합을 위한 사회운동에도 앞장섰다. 블랙호크 클럽의 세대 교류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 클럽에는 미성년자 관객을 위해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구역(무대와 떨어져 닭장 모양 철망으로 구분된 일명 “치킨와이어” 섹션)이 마련되어 있었고, 고교생과 대학생들도 연주를 관람할 수 있었다. 당대 보수적인 시 당국은 청소년이 재즈 클럽에 드나드는 것을 문제 삼아 1961년에 일시적으로 이 구역을 폐쇄하기도 했으나, 재즈 팬들과 언론의 반발로 곧 재개방되는 일이 있었다.⁴¹⁾ 이 일화는 블랙호크를 중심으로 한 서부 해안 재즈 문화가 단순한 유흥이 아닌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새로운 문화 현상으로 부상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LA의 라이트하우스와 SF의 블랙호크 같은 서부 재즈 클럽들은 편안하면서도 개방적인 공간 분위기 속에서 음악적 실험과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쿨 재즈의 절제되고 구조적인 미학이 꽃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던 것이다.⁴²⁾

3) 레코드 레이블과 대중매체를 통한 확산

서부 해안 쿨 재즈의 발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음반 산업의 성장이었다. 당시 뉴욕 중심의 대형 레이블과는 달리, 서부 해안에서는 ‘Pacific Jazz Records’와 ‘Contemporary Records’ 같은 독립 레이블이 설립되었으며, 이들은 쿨 재즈의 사운드를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레코드 회사들은 서부 해안의 독자적인 레이블로서 고품질 녹음과 디자인을 활용하여 쿨재즈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다. ‘Pacific Jazz Records’는 리처드 보크(Richard Bock, 1927-1988)와 찰스 램프킨(Charles Lampkin, 1913-1989)에 의해 1952년 설립되었으며, 주로 쳇 베이커, 게리 멀리건 등의 앨범을 발매하며 서부 해안 쿨 재즈의 대표적인 사운드를 구축했으며, 1951년 설립된 ‘Contemporary Records’는 창립자인

41) Gary Kamiya, op. cit., 2022.04.29.

42) Ivana Ng, op. cit., 2025.05.29.

레스 코에닝(Les Koenig, 1917-1977)은 스테레오 녹음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재즈 음반과 차별화된 고품질 사운드를 제공하며 절제된 사운드가 특징인 쿨 재즈를 돋보이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⁴³⁾ 이들 레이블은 스테레오 녹음, 세련된 재킷 디자인, 라이브 녹음 방식 등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서부 해안의 쿨 재즈가 보다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빌보드(Billboard) 차트에 오르는 재즈 앨범이 늘어나면서,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부 해안 레이블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⁴⁴⁾

레코드 레이블 외에도, 1950~60년대 미국에서는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가 대중음악을 확산하는 주요 매체로 자리 잡았으며, 쿨 재즈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었다.⁴⁵⁾ 1950년대 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재즈 전문 방송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학 라디오 방송국(KUCR, KCSM 등)이 쿨 재즈의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⁴⁶⁾

텔레비전에는 1950년대 후반부터 쳇 베이커, 데이브 브루벡 등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대했다.⁴⁷⁾ 쿨 재즈는 1950~60년대의 영화 음악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예로, 《Man with the Golden Arm》(1955, 엘머 번스타인 작곡)은 쿨 재즈의 긴장감 있는 사운드가 범주 영화에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며,⁴⁸⁾ 《Elevator to the Gallows》(1958, 마일스 데이비스 작곡)은 프랑스 누벨바그 영화에서 마일

43) Schuller, Gunther. op. cit., 1989.

44) Porter, Lewis. *Jazz: A Century of Change*, New York: Schirmer Books, 1997.

45) Yanow, S. op. cit., 2003.

46) Gordon, Robert. *Jazz West Coast: The Los Angeles Jazz Scene of the 1950s*, London: Quartet Books, 1986.

47) Monson, Ingrid. *Saying Something: Jazz Improvisation and Intera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48) Schuller, Gunther. op. cit., 1989.

스 데이비스가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위한 즉흥연주가 특징이며, 쿨 재즈의 즉흥적 요소를 활용한 작품으로 유명하다.⁴⁹⁾ 이처럼 서부 해안의 쿨 재즈는 미디어 산업과 결합하면서 보다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성공이 이후 재즈의 지속적인 산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⁵⁰⁾

4) 쿨 재즈가 미국 음악사에 미친 영향

쿨 재즈는 단순한 재즈의 한 하위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20세기 중엽 미국 음악사의 전반적인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 쿨 재즈의 부상과 전성기는 때마침 음반 산업과 음향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대중문화 지형의 변화를 동반하였고, 그로 인해 쿨 재즈는 재즈계 바깥의 영역에서도 폭넓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첫째로, 음반 산업과 녹음 기술 측면에서 쿨 재즈의 시대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1948년 컬럼비아 레코드사가 33⅓ RPM 장시간(LP) 음반을 상용화하면서 대중음악 시장은 싱글 위주에서 앨범 단위로 급속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쿨 재즈 음악가들은 이 새로운 LP 포맷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이전보다 길고 복잡한 곡 구성과 정교한 편곡을 음반 한 면에 담아낼 수 있었다.⁵¹⁾ 실제로 《Birth of the Cool》 세션에서 나온 곡들은 초창기에는 78RPM 싱글로 발매되었으나, LP 시대가 열리자 1957년에 비로소 하나의 앨범으로 편집되어 나오면서 그 진가를 제대로 알릴 수 있었다. 이는 녹음 매체의 발전이 쿨 재즈의 예술성을 보존·전달하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이다.⁵²⁾ 또한 1950년대 말에 도입된 스테레오 녹음과 다중 채널 기술

49) Stowe, D. W. *Swing Changes: Big-Band Jazz in New Deal America*, Cambridg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50) Kernfeld, Barry. *The New Grove Dictionary of Jazz*, Oxford University Press, Great Clarendon Street, ,2003.

51) Tim J. Anderson. *Making Easy Listening: Material Culture and Postwar American Record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52) Ashley, Kahn. *Kind of Blue: The Making of the Miles Davis Masterpiece*,

은 재즈 음향의 입체감을 향상시켜 주었는데, 섬세한 음량 변화와 악기간의 공간적 배치를 중시하는 쿨 재즈에 특히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데이브 브루벡 콰르텟(Dave Brubeck Quartet)의 걸작 《Time Out》(1959)은 최첨단 스테레오로 녹음되어 피아노, 색소폰, 베이스, 드럼의 소리가 현장감 있게 분리되는 효과를 냈고, 이를 통해 감상자들은 복잡한 폴리리듬과 앙상블을 보다 선명히 즐길 수 있었다.⁵³⁾ 음향의 향상은 단순한 기술적 부가가치가 아니라 쿨 재즈 음악 그 자체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여, 하이파이 오디오 애호가들 사이에서 쿨 재즈 레코드가 각광받기도 했다. 나아가 멀티트랙 녹음 등 녹음 기법의 혁신은 재즈 음악가들의 표현 영역을 넓혀 주었는데, 빌 에반스(Bill Evans, 1929-1980)가 1963년 앨범 《Conversations with Myself》에서 오버더빙(Overdubbing)을 활용해 혼자서 다중 녹음을 한 사례는 재즈 분야에서 당시 획기적인 시도로 주목받았다.⁵⁴⁾ 이러한 시도는 첨단 녹음 기술이 예술적 창의성과 맞물려 구현된 것으로, 쿨 재즈 시기 이후 재즈 음악이 산업 기술과 조응하며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대중문화와 매스미디어 영역에서 쿨 재즈는 재즈에 대한 인식을 쇄신하고 폭넓은 청중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재즈 음악가는 대중매체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는 편이었으나, 쿨 재즈의 인기와 더불어 상황이 달라졌다. 특히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쿨 재즈 연주자들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재즈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마니아층만의 음악이 아니게 되었다. 그 상징적 사건으로 흔

Boston, Massachusetts: Da Capo Press, 2000.

53) Steve Hoffman Music Forums - Music Corner, <https://forums.stevemhoffman.tv/forums/music-corner.2/>, 2025.03.20.

54) Chicago, Illinois: *Downbeat Magazine*, Elmhurst: Maher Publications, 1963.

히 언급되는 것이 1954년 데이브 브루벡의 타임지 표지 등장이다. 데이브 브루벡은 서부 해안 재즈 신을 대표하는 백인 피아니스트로서, 1950년대 초부터 대학 투어 등을 통해 젊은 층에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의 쿼텟이 1954년 《Time》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함으로써, 브루벡은 루이 암스트롱(1949년)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타임지 표지에 오른 재즈 음악가가 되었다.⁵⁵⁾ 이 일은 재즈 음악이 미국 주류 언론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과 조명을 받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브루벡 본인은 인터뷰에서 “내 친구 듀크 엘링턴이 나보다 먼저 표지에 나왔어야 했는데…”라고 겸손히 회고했지만,⁵⁶⁾ 《Time》 지는 굳이 최신 유행이던 서부 해안의 젊은 재즈인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재즈를 시대의 첨단 문화로 부각시켰다. 이처럼 쿨 재즈 스타들의 등장은 재즈를 대중문화의 전면으로 이끌어냈고, 재즈 음악가들이 더 이상 변두리 예술가가 아니라 전국구 문화 아이콘으로 대우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부 해안 중심으로 일어난 쿨 재즈 열풍이 전국적 인지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방송과 영화 등 매체를 통한 확산도 빼놓을 수 없다.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활동하던 많은 쿨 재즈 연주자들은 헐리우드 영화산업 및 텔레비전, 광고 음악 분야로 진출하여 그들의 세련된 재즈 사운드를 대중에게 각인시켰다.⁵⁷⁾ 예를 들어, 헐리우드 작곡가로 전향한 웨스트코스트 재즈 출신 연주자들은 1950년대 후반부터 영화 배경음악에 재즈를 도입하여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고, TV 시리즈나 상업 광고 음악에서도 부드러운 재즈 편곡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크로스오버 행보는

55) John, Fordham. *Jazz Heroes*, London: BBC Books, 1991.

56) NPR-A Blog Supreme, <https://www.npr.org/sections/ablogsupreme>, 2025.03.10.

57) Joachim E, Berendt. *The West Coast Jazz*, Boston, Massachusetts: Da Capo Press, 1984.

쿨 재즈가 지닌 접근성 있고 로맨틱한 이미지 덕분에 가능했는데, 덕분에 미국 대중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 속에서 재즈의 세련된 음색을 접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학가와 지식인층에서도 쿨 재즈에 대한 호응이 높았다. 브루벡의 경우 ‘Jazz at College’ 투어를 통해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공연을 개최하였고, 이는 재즈가 단순 유흥 음악을 넘어 품격 있는 예술 음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부 평론가들은 재즈를 “미국의 고전음악”으로 격상시켜 부르기기도 했는데, 이러한 담론의 배경에는 쿨 재즈를 통해 재즈가 지적인 감상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깔려 있었다.

셋째로, 쿨 재즈는 미국 대중음악의 미학적 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이전 세대까지의 미국 대중음악, 이를테면 스윙 시대의 댄스 빅밴드나 1950년대 초반의 소프트 팝에서는 에너지와 단순명료한 멜로디, 그리고 분명한 비트감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쿨 재즈의 인기와 더불어 대중의 미학적 선호도가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대중은 강렬하고 흥겨운 음악뿐만 아니라 차분하고 세련된 음악에도 매력을 느끼게 되었으며, 음악 감상의 문맥에서 ‘세련미’와 ‘여유로운 분위기’가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였다. 예컨대 1960년대 초 미국에서 불어닥친 보사노바 열풍은 쿨 재즈 미학이 대중음악에 스며든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1962년 스탠 게츠와 찰리 버드(Charlie Byrd, 1925-1999)가 발표한 앨범 《Jazz Samba》는 미국에서 보사노바 붐을 일으켰고, 1963년 마침내 빌보드 팝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대성공을 거두었다.⁵⁸⁾ 이는 재즈 사운드, 특히 부드러운 쿨 사운드가 미국 팝 시장에서 얼마나 보편적인 호소력을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같은 해 게츠와 브라질 뮤지션들이 협연한 《Getz/Gilberto》앨범에서

58) 네이버 블로그 ‘Letters from a traveler’-Charlie Byrd의 라이브 앨범 Byrd at the Gate(1963년), <https://s-oom.tistory.com/4901>, 2025.03.10.

탄생한 “The Girl from Ipanema”는 전국적인 히트곡이 되어, 영어가 아닌 포르투갈어 가사를 포함하고도 미국 대중이 열광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이런 일련의 성공을 통해 라틴 재즈, 보사노바의 미묘한 하모니와 여유로운 리듬이 미국 대중음악의 일부로 완전히 흡수되었고, 이는 쿨 재즈가 마련한 정서적 토양 위에서 꽃핀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쿨 재즈는 미국 대중음악 전반의 편곡과 사운드 미학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다. 1960년대 이후의 많은 팝, 록 작품들에서 복잡한 재즈 화성을 차용하거나 관악기 편성을 세련되게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는 쿨 재즈를 통해 대중음악에 유입된 조형미의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컨대 1970년대의 록/팝 그룹인 스틸리 댄(Steely Dan)은 재즈 화성 어법을 곡의 창작에 적극 도입하여 세련된 사운드를 구축하였고, 이는 “재즈적인 세련미”가 대중음악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1980년대에 등장한 스무스 재즈(Smooth Jazz) 역시 쿨 재즈의 후손이라 할 만한 장르로, R&B와 팝에 기반을 두면서도 부드럽고 정제된 재즈 사운드를 전면에 내세워 라디오 친화적인 성인 취향 음악으로 인기를 얻었다. 스무스 재즈의 편안하고 세련된 분위기는 쿨 재즈가 개척한 미학을 상업적으로 극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쿨 재즈가 미국 대중음악계에 남긴 유산의 하나로 평가된다.

정리하자면, 쿨 재즈는 재즈 사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과 미학을 제시하여 후대 재즈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음반 산업과 대중문화의 맥락에서도 재즈의 위상 제고와 미학적 지평 확장을 이끌어 냈다. 서부 해안의 한 지역 스타일로 출발한 쿨재즈는 1950년대의 음반 기술 진화와 맞물려 전국적인 사랑을 받는 음악이 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 대중들은 재즈를 일상의 일부이자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음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후 수십 년간 재즈와 대중음악 사이의 경계는 점차

허물어져 갔는데, 이러한 흐름의 출발점에 바로 쿨 재즈의 공헌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쿨 재즈가 심어놓은 절제와 세련미의 미학은 오늘날까지 다양한 음악 장르에 스며들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 음악사 속에서 그 의미는 시대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5) 현대 음악과 재즈 교육에 남긴 유산

1940년대 비밥 재즈가 하나의 예술적인 현상으로서 진가를 인정받게 되는 첫 신호탄을 쏘았지만, 그 인기는 곧 쿨 재즈로 전향되며, 자신들의 음악적 능력을 정통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었다. 쿨 재즈 음악인들은 재즈에도 클래식과 같은 전문학교나 콘서트가 필요하다는 욕구로 발전하며, 1950년대 들어서면서 더욱더 재즈를 클래식 음악에 접근시키기를 바라는 뮤지션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⁵⁹⁾ 데이브 브루벡(Dave Brubeck)의 폴리리듬과 변박자 실험은 철저한 클래식 음악에 기초한 것으로 현대 재즈 작곡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건터 쉐러(Gunther Schuller, 1925-2015)의 "Third Stream"은 1957년 그가 처음 제안한 음악적 개념으로, 클래식 음악(제1스트림)과 재즈(제2스트림)를 융합하여 만든 새로운 음악 장르(제3스트림)를 의미한다. 클래식과 재즈의 크로스오버적 융합을 시도하며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제시했다.⁶⁰⁾ 이러한 시도는 당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오늘날의 장르 융합 음악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후 키스 자렛(Keith Jarrett, 1945-)이나 빌 에반스(Bill Evans, 1929-1980)와 같은 피아니스트들은 쿨 재즈 특유의 섬세한 화성 진행과 서정적 접근법을 이어받아 현대 재

59) 김중희, 「기타리스트 Jim Hall의 음악분석: 'Careful'과 'Waltz New'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권 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4024-4211쪽.

60) Schuller, Gunther. *Musings: The Musical Worlds of Gunther Schuller*,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즈 피아노의 전범을 세웠다.⁶¹⁾

또한 체계적인 재즈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여, 레니 트리스타노(Lennie Tristano, 1919-1978)의 교육 방법론 도입으로 1950년대부터 체계적인 재즈 즉흥연주 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이는 현대 재즈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⁶²⁾ 1957년 미국 최초의 공식적인 재즈 학위 과정을 도입한 버클리 음악대학에서는 1966년 현재 이름인 'Berklee College of Music'으로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쿨 재즈가 축적한 학구적 기법과 편곡 기법을 재즈 교육 과정에 편입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 재즈 교육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가속화하였다. 당시 버클리 음대의 교수였던 조지 러셀(George Russell, 1923-2009)의 "리디안 크로매틱 컨셉(Lydian Chromatic Concept of Tonal Organization, 1953)" 연구 발표는 재즈 화성 이론의 체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⁶³⁾ 또 다른 재즈 교육자 제이미 애버솔드(Jamey Aebersold, 1939-)는 1966년부터 플레이 어 롱 'Play-A-long' 시리즈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133권의 시리즈가 출간되었으며, 전 세계 재즈 교육에서 표준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⁶⁴⁾ 이후 1965년 맨해튼 음악학교에서 재즈 프로그램을, 1969년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재즈 학과를 설립하며, 재즈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⁶⁵⁾

61) Porter, Lewis. op. cit.

62) Shim, E. *Lennie Tristano: His Life in Music*,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63) Tim J. Anderson. op. cit.

64) Murphy, Dan. "Jazz Studies in American Schools and Colleges: A Brief History", *Jazz Educators Journal*, vol. 26, no. 3, Manhattan: National Association of Jazz Educators (NAJE), 1994.

65) Prouty, K. *Knowing Jazz: Community, Pedagogy, and Canon in the Information Age*, Oxford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12.

5. 결론

본 연구는 1950년대 미국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웨스트 코스트 재즈(West Coast Jazz), 즉 쿨 재즈(Cool Jazz)의 음악적·역사적 중요성을 분석하고, 이 장르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뮤지션들의 음악적 혁신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재즈의 발전 과정을 개괄하고, 쿨 재즈의 형성 및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담당했던 마일즈 데이비스, 쳇 베이커, 게리 멀리건, 데이브 브루벡 등 대표적 인물들의 음악적 특성과 혁신적 기여를 분석하였다.

재즈의 역사는 뉴올리언스에서 시작하여 시카고와 뉴욕을 거치며 발전하였고, 비밥(Bebop)의 등장과 함께 예술적 표현이 극대화되었다. 그러나 비밥의 복잡하고 격렬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보다 절제되고 서정적인 표현을 추구한 쿨 재즈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환경과 만나, 미국 서부 해안 특유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특히 서부 해안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 환경은 쿨 재즈 특유의 세련된 미학과 실험적 음악 언어가 형성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마일즈 데이비스가 주도한《Birth of the Cool》앨범은 쿨 재즈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쳇 베이커와 게리 멀리건이 중심이 된 ‘피아노 없는 쿼텟(Piano-less Quartet)’은 이 장르의 사운드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데이브 브루벡은 변박자 사용과 유럽 클래식 음악의 구조적 요소를 접목하여 쿨 재즈를 더욱 지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뮤지션들의 음악적 혁신은 쿨 재즈가 단지 지역적 스타일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적 재즈 흐름과 미국 대중음악 전반에 걸쳐 깊고 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했다.

쿨 재즈가 지닌 음악적 특징, 즉 정교한 편곡, 절제된 즉흥연주, 섬세한 화성 구조 등은 이후 등장한 모던 재즈, 퓨전 재즈, 보사노바와 같은 다양한 음악 장르의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빌 에반스나 키스 자렛과 같은 현대 재즈 거장들의 음악적 스타일 형성에도 중대한 토대를 제공하였다. 또한, 당시 음반 산업 및 음향 기술 발전과 결합하여 LP 음반의 대중화, 스테레오 녹음 기술 발전을 통해 재즈 음악의 음향적 완성도를 높이고 상업적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데이브 브루벡의 《Time》 잡지 표지 등장과 같은 사례는 쿨 재즈가 재즈 음악의 위상과 대중적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대표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또한 쿨 재즈는 미국 사회 내 재즈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고급 예술 음악으로서의 재즈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라이트하우스 카페(The Lighthouse Café)와 블랙호크(The Black Hawk)와 같은 서부 해안의 클럽들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예술적 창작 공동체로 기능하였으며, 이러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음악적 실험은 쿨 재즈의 미학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서부 해안의 쿨 재즈는 할리우드 영화와 대중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재즈 교육 시스템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쳐 현대적인 재즈 교육의 초석을 다졌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쿨 재즈가 미국 재즈사에서 하나의 단순한 하위 장르를 넘어 음악 산업, 음향 기술, 대중문화, 재즈 교육 분야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끼쳤음을 명확히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 특히 쿨 재즈와 인종 문제의 깊은 관계, 동부와 서부 재즈 신 간의 상호교류 등과 같은 보다 심화된 사회적·역사적 분석은 향후 연구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현대 음악에서 쿨 재즈 미학이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고 발전하는지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명하는 작업 또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Anderson, Tim J. *Making Easy Listening: Material Culture and Postwar American Record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6.
- Ake, David. *Jazz Matters: Sound, Place, and Time Since Bebop*,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3.
- Berendt, Joachim E. *The West Coast Jazz*, Boston, Massachusetts: Da Capo Press, 1984.
- Clark, P. *Dave Brubeck: A Life in Time*, Boston, Massachusetts: Da Capo Press, 2020.
- Davis, Miles & Troupe, Quincy. *Miles: The Autobiography*, New York: Simon & Schuster, 1989.
- DeValk, Jeroen. *Chet Baker: His Life and Music*, California: Berkeley Hills Books, 2000.
- DeVeaux, S. & Giddins, G. *Jazz*,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2009.
- Chicago, Illinois: *DownBeat Magazine*, Elmhurst: Maher Publications, 1953.
- Chicago, Illinois: *DownBeat Magazine*, Elmhurst: Maher Publications, 1963.
- Fordham, John. *Jazz Heroes*, London: BBC Books, 1991.
- Gioia, Ted. *The History of Jazz*,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Gioia, Ted. *West Coast Jazz: Modern Jazz in California 1945-1960*,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Gioia, Ted. *West Coast Jazz: Modern Jazz in California 1945-1960*,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a.
- Gioia, Ted. *West Coast Jazz: Modern Jazz in California 1945-1960*,

-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Gioia, Ted. *West Cost Jazz: Modern Jazz in California, 1945-1960*, Wellington: Kelburn Library Press, 1998b.
- Gordon, Robert. *Jazz West Coast: The Los Angeles Jazz Scene of the 1950s*, London: Quartet Books, 1986.
- Gridley, M. *Jazz Styles: History and Analysis*, Upper Saddle River: Prentice Hall, 1997.
- Hentoff, Nat. ed. *DownBeat Magazine*, Elmhurst: Maher Publications, 1953.
- Kahn, Ashley. *Kind of Blue: The Making of the Miles Davis Masterpiece*, Boston, Massachusetts: Da Capo Press, 2000.
- Kernfeld, Barry.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Jazz, 2nd Edition*,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Kernfeld, Barry.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Jazz*,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Lees, Gene. *Cats of Any Color: Jazz Black and White*,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MacDonald, Laurence E. *The Invisible Art of Film Music: A Comprehensive History*, New York: Ardsley House, 1998.
- Monson, Ingrid. *Saying Something: Jazz Improvisation and Intera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Porter, Lewis. *Jazz: A Century of Change*, New York: Schirmer Books, 1997.
- Prouty, K. *Knowing Jazz: Community, Pedagogy, and Canon in the Information Age*, Oxford, Mississippi: University Press of Mississippi, 2012.
- Sadie, Stanley & Tyrrell, Joh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Schuller, Gunther. *Musings: The Musical Worlds of Gunther Schuller*,

-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The Swing Era: The Development of Jazz 1930-1945*, Great Clarendon Street: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Shim, Eunmi. *Lennie Tristano: His Life in Music*,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 Stowe, David W. *Swing Changes: Big-Band Jazz in New Deal America*, Cambridg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 Yanow, Scott. *Jazz on Record – The First Sixty Years*, Guilford: Backbeat Books, 2003.
- _____. *Jazz on Record – The First Sixty Years*, Guilford: Backbeat Books, 2005.

논문

- 남정우, 「쿨(cool)의 미학: 미감적 이념(ästhetische Idee)의 전환- ‘쿨 스타일 재즈음악’의 경우 -」, 『인문과학논총』 제39권 2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27-259쪽.
- 남정우, 「하드밥(Hard Bop) 스타일 재즈음악과 예술지각양식의 변화」, 『대중음악』 통권 27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21, 127-155쪽.
- 남정우, 「‘음악적 소리’의 구성에서 ‘선법’ 이념의 발전: 모달재즈의 미학적 원리-칸트의 예술철학을 중심으로」, 『대중음악』 통권 33호, 한국대중음악학회, 2024, 179-205쪽.
- 김중희, 「기타리스트 Jim Hall의 음악분석: ‘Careful’과 ‘Waltz New’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권 9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3, 4024-4211쪽.
- Murphy, Dan. “Jazz Studies in American Schools and Colleges: A Brief History”, *Jazz Educators Journal*, vol. 26, no. 3, Manhattan: National Association of Jazz Educators (NAJE), 1994.

신문기사

- Andre Torrez, “San Francisco's famed Blackhawk jazz club

1950년대 미국 서부의 쿨 재즈의 형성과 발전
: 웨스트 코스트 출신 뮤지션들의 음악적 혁신과 유산을 중심으로 | 주소은

showcased Black excellence”, FOX LOCAL, 2023.02.24.
<https://www.ktvu.com/news/san-franciscos-famed-blackhawk-jazz-club-showcased-black-excellence>

Gary Kamiya, “The Blackhawk: San Francisco’s greatest jazz club”, San Francisco Chronicle, 2022.04.29.
<https://www.sfchronicle.com/vault/portalsofthepast/article/The-Blackhawk-San-Francisco-s-greatest-jazz-17135567.php#:~:text=booked%20in%20several%20jazz%20acts%2C,became%20known%20as%20Latin%20jazz>

Ivana Ng, “The Lighthouse Cafe: West Coast Jazz By The Beach”, uDiscoverMusic, 2025.05.29. <https://www.udiscovermusic.com/stories/the-lighthouse-west-coast-cool-jazz-feature/#:~:text=Francisco%2C%20began%20to%20splinter%20off,soaked%20vibes>

인터넷 사이트

The Lighthouse Cafe-History, <https://www.thelighthousecafe.net/history#:~:text=%28,Stars>, 2025.03.20.

MasterClass-West Coast Jazz Guide: 3 Characteristics of West Coast Jazz, <https://www.masterclass.com/articles/west-coast-jazz-explained>, 2025.03.20.

Steve Hoffman Music Forums - Music Corner, <https://forums.stevemoffman.tv/forums/music-corner.2/>, 2025.03.20.

NPR-A Blog Supreme, <https://www.npr.org/sections/ablogsupreme>, 2025.03.10.

네이버 블로그 ‘Letters from a traveler’-Charlie Byrd의 라이브 앨범 Byrd at the Gate(1963년), <https://s-oom.tistory.com/4901>, 2025.03.1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50년대 미국 서부 해안에서 발전한 쿨재즈의 역사적·사회적 맥락과 음악적 혁신을 고찰하였다. 서부 해안 지역의 영화산업 성장, 중산층의 문화적 욕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종 간 협업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비밥과 구별되는 독자적 재즈 스타일을 탄생시켰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Birth of the Cool》을 시작으로 챗 베이커, 게리 멀리건, 데이브 브루벡 등은 클래식 기법과 재즈 화성을 결합한 절제된 사운드와 실험적 편곡을 통해 쿨재즈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Pacific Jazz Records'와 같은 레이블과 재즈 클럽들은 이러한 음악적 혁신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했다. 본 연구는 쿨재즈가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창적 스타일을 형성했으며,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이루었고,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 가능성을 열었다는 문화적 의의를 확인하였다.

주제어 ● 재즈, 쿨재즈, 웨스턴 재즈, 재즈와대학교육, 마일스 데이비스, ...

■ Abstract

The Rise and Evolution of Cool Jazz in 1950s American West: Musical Innovations and Legacy of West Coast Jazz Musicians : Focusing on the musical innovations and legacy of musicians from the West Coast

Joo, So Eun / Pai Cha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development of cool jazz on the American West Coast during the 1950s. The region's unique environment-growing film industry, middle-class cultural aspirations, and relatively free interracial collaboration-created a jazz style distinct from bebop. Miles Davis's *Birth of the Cool* and musicians like Chet Baker, Gerry Mulligan, and Dave Brubeck established cool jazz's identity through a restrained sound that merged classical techniques with jazz harmonies. The research confirms that cool jazz developed a unique style based on regional traits and contemporary conditions, successfully balanced popular appeal with artistic depth, and pioneered the fusion of jazz with a variety of other genres, establishing its lasting cultural significance.

Keyword • Cool Jazz, Bebop, West Coast Jazz, Miles Davis, ...

머신 쉼쳐 시대의 예술과 기술의 성찰적 만남

: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Comedian>을 활용한 교양교육

김 성 희*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한 철학적 고찰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Comedian>을 중심으로
4. <Comedian> 기반 교양수업의 융합적 학습 구조와 교육적 함의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오늘날 인간과 기술의 경계는 빠르게 재조정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기술적 환경은 인간의 감각과 사고, 창작의 방식에 점차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이 단순히 효율적 도구로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문화적 의미와 실천의 가능성을 매개하는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술의 영역 또한 이러한 전환에서 예외가 아니며, 창작 주체, 작품의 의미, 수용 방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 기존에는 예술이 작가의 의도나 고유한 물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과학철학교육위원회 교수

질성을 중심으로 정의되었다면, 최근에는 기술 매개성과 참여적 유통의 과정을 통해 예술성이 협상되고 재구성되는 경향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는 이러한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 기술이 감각과 해석, 윤리적 성찰의 조건에 개입하면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화적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이 개념은 기술과 예술, 사회적 맥락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얽혀 있음을 전제하며, 예술의 존재 방식이 플랫폼, 알고리즘, 사용자 참여 등 복합적 요소들에 의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의 설치작품 <Comedian>(2019)은 머신 컬처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바나나를 테이프로 벽에 부착한 이 작품은 발표 직후 SNS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밈(meme)으로 확산되었으며, 다수의 패러디와 해시태그를 유도하면서 기존의 예술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촉발했다. 이 과정은 예술의 의미가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기술적 유통과 수용자의 반응 속에서 점차적으로 협상되고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디지털 밈 문화와 플랫폼 알고리즘이 예술적 가치의 확산과 변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새롭게 사유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교양교육의 내용과 구조에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통적인 교양교육은 주로 인문학적 해석과 윤리적 성찰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오늘날 학습자들이 접하는 문화적 경험은 점점 더 기술적으로 매개되며, 참여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머신 컬처 개념은 이러한 변화를 비판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지만, 이를 교양교육 설계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실천적 모델로 구체화한 시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를 철학적·문화론적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기술·예술·사회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맥락을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둘째, <Comedian>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 예술의 수행성, 밈 문화, 유통 구조, 수용자 반응을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가 기술문화 환경에서 예술을 해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하며, 참여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양수업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정보 사회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넘어서, 인간의 감각과 윤리, 창작이 어떤 조건에서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을 마련하려는 데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교양교육이 정보 전달을 넘어 철학적 해석과 문화적 실천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논의하며, 머신 컬처 개념을 학습자의 비판적·창의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실천적 토대로 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머신 컬처(Machine Culture)의 개념과 철학적 토대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라는 용어는 20세기 후반 디지털 미디어 연구와 기술철학의 발전 속에서 점진적으로 등장해 왔다. 초기에는 기계적 매체가 갖는 상징적·문화적 영향(Manovich, 2001)과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사회적 의미(Gunkel, 2012)를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후 Parikka(2015)는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를 단순히 코드나 알고리즘의 산물로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장치가 지닌 광물적·지질학적 기반과 물질적 조건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을 인간의 수동적 도구로만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을 넘어, 기

술 자체를 감각과 해석, 윤리적 구성의 주체로 보려는 이론적 전환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머신 컬처(Machine Culture)의 개념을 사례적·맥락적으로만 다루어 온 경향이 있으며, 이를 독립적이고 일관된 체계로 발전시키거나 교육 연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특히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머신 컬처(Machine Culture)가 학습자의 지각과 가치관, 비판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연구의 공백으로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개념을 철학적·문화론적 차원에서 재정의하고, 교육적 실천에 활용 가능한 이론적 틀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특정 학파나 단일 이론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존재론적·미학적·사회철학적으로 재구성해 온 다음과 같은 철학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째, 노버트 위너(Norbert Wiener)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1948)에서 인간과 기계를 피드백 체계로 동일시하며,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를 정보구조 중심의 기능적 사고로 전환하였다. 둘째, 마셜 맥루언(McLuhan, 1964)은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에서 미디어를 인간 감각의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인식과 경험의 조건 자체로 보며,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전환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Deleuze & Guattari, 1980)는 『천 개의 고원(A Thousand Plateaus)』을 통해 기술, 기호, 감각, 코드가 결합해 창발적 구조를 이루는 ‘기계배치(machine assemblage)’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넷째,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 1991)는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We Have Never Been Modern)』에서 기술 객체를 인간과 대등한 의미 생산의 행위자로 간주하며,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망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제시했다.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는 이처럼 기술을 단순한 매개나 수단이나, 존재론적 구성요소이자 문화적 주체로 간주하는 관점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기술과 인간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재정의되는 관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양교육에서도 단순히 기술 활용 능력을 가르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기계 공동 감각의 형성과 해석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범위를 확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플랫폼 기반의 문화 환경에서 학습자는 기계를 단순히 사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술적 조건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윤리적 판단을 고민하는 감각적 시민으로 자리할 수 있다.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는 이러한 교육적 요청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개념들로 기능할 여지가 있다.

2) 디지털 수행성과 예술의 의미 구성

예술은 더 이상 작가의 의도나 물질적 형태에 고정된 표현이 아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는 작품의 의미가 관객의 반응, 알고리즘의 유통 구조, 기술적 매개의 반복적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과정적 예술’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디지털 수행성(Digital Performativity)’이다. 디지털 수행성은 기술적 맥락 속에서 예술이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반복적 반응과 유통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고 재정의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교양교육에서 단순한 기술 리터러시를 넘어서, 인간-기계 공동 감각의 형성과 그 해석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은 교양교육에서 단순히 예술 감상을 넘어, 예술의 존재 방식과 구성 조건을 성찰하는 이론적 기초로 기능한다. 특히 학습자들은 수동적인 감상자에서 벗어나, 기술 매개 사회에서 예술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해석자이자 문화 시민으로 참여하게 된다. 디지털 수행성은 머신 컬처(Machine Culture)의 하

위 개념이자 실천적 표현 양식으로, 예술이 기술, 사회, 감각, 정체성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준다.

결국 머신 컬처(Machine Culture)와 디지털 수행성은 기술사회의 예술 실천이 감정, 윤리, 정체성, 소유의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조직하는지를 설명하며, 교양교육에서 학습자가 기술 환경 속에서 문화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틀을 제공한다. 이는 교양교육이 정보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철학적 사유와 기술적 감각을 결합한 융합형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한 철학적 고찰: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Comedian>을 중심으로

1) <Comedian>의 예술적 맥락과 디지털 문화 속 수행성

2019년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서 공개된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의 <Comedian>은 현대예술계에서 유례없는 반향을 일으켰다. 평범한 바나나 하나를 회색 덕트 테이프로 벽에 부착한 이 설치물은 단순한 조형물이었음에도 12만 달러에 판매되었고, 이후 다른 관람객이 바나나를 떼어 먹는 행위, 복수의 복제품 등장, SNS 밈(meme)으로의 확산 등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였다. 이 작품은 물리적 실체 이상의 ‘문화적 사건’으로 작동하며, 예술의 본질, 창작의 조건, 작품성과 진정성에 대해 일련의 근본적 질문을 유도했다.

<Comedian>의 중요한 예술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정적인 결과물로 고정되기보다는 해석과 반응을 거치며 점차 재구성되는 ‘과정적 예술’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방식은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이 1917년 <샘>(Fountain)을 통해 예술과 일상, 기호와 사물의 관계를 전복적으로 질문했던 시도를, 현대 디지털 문화의 맥락에서 새롭게

게 연상하게 한다. 다만 뒤샹의 레디메이드는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공간에 의해 작품으로 인정되었던 반면, <Comedian>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탈 중심화된 환경 속에서 수용자의 반복적 반응과 참여에 따라 예술적 의미가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디지털 미디어가 작동하는 새로운 의미 구성 메커니즘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유튜브 영상, 트위터 밈(meme), 인스타그램 패러디 등은 모두 작품의 해석적 층위를 추가하며, 기존의 예술 감상 구조를 교란시킨다. 특히 “나도 만들 수 있다”는 식의 대중적 패러디는 작품의 엘리트성을 해체하며, 예술의 경계를 수평화하는 참여적 수행성으로 전환시킨다(Milner, 2016).

이러한 맥락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가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에서 제시한 ‘수행성(performativity)’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버틀러는 젠더가 본질적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의 반복적 수행을 통해 구성되는 결과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디지털 예술 환경에서 예술 자체가 사회적 해석과 기술적 반응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논의와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Comedian>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완결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수용자의 해석과 반응이 반복되면서 의미가 형성되는 ‘사회적 퍼포먼스’의 장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Comedian>은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은 언제 성립하는가, 예술은 누구에 의해 구성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디지털 사회의 기술적 조건 속에서 다시 제기하고 탐색한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교양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과정은 예술 감상의 차원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문화적 실천과 성찰로 사고의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 기술 매개성과 밈(meme) 문화: 예술의 유통, 수용, 가치의 재편

〈Comedian〉은 디지털 밈(meme) 문화의 핵심적인 사례로서, 예술의 가치가 어떻게 사회적 네트워크와 기술 인프라 속에서 재구성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작품은 공개 직후 트위터, 인스타그램, 레딧,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십만 개의 파생 콘텐츠를 양산하였으며, 단순한 조형물이 기술적 매개를 통해 ‘미디어 사건(media event)’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확산은 하워드 레인골드(Howard Rheingold, 2002)가 제시한 ‘참여 문화(participatory culture)’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이 정보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계를 해체하고, 수용자가 작품의 의미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Comedian〉은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 유통되고, 밈(meme)으로 반복되며, 사용자에 의해 전유되고 패러디되는 과정을 통해 예술성을 획득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은 작품의 확산과 해석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튜브 추천 시스템, 인스타그램 피드 구성, 트위터 트렌드와 같은 기술 기반 큐레이션 구조는 〈Comedian〉의 수용 방식과 의미 구성 경로를 일정 부분 선형화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벤야민(Walter Benjamin, 1936)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에서 원본의 아우라가 해체된다고 논의했다면, 오늘날에는 원본 자체가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유통 구조에 의해 기획되고 조율되는 예술 형식이 등장하고 있다.

〈Comedian〉은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 사례다. 이 작품의 예술성은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권위보다 플랫폼상의 확산성과 사회적 반응을 통해 정당화되며, ‘예술’이라는 명명 자체도 수용자와 기술 시스템이 협상하는 과정의 결과로 드러난다. 이는 들뢰즈의 ‘다중적 발생’ 개념(Deleuze, 1994)과도 맞물리며, 예술이 단일 의미체가 아닌, ‘다중의 흐름’ 속에서 구성되는 존재론적 사건이라는 점을 재확인시킨다. 실제로 〈Comedian〉의 디지

텔 밈(meme)화 과정은 구체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이 공개된 직후 약 한 달 동안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ComedianBanana가 7만 건 이상 생성되었고, 유튜브에서는 ‘Banana Art Meme’이라는 제목의 패러디 영상이 누적 200만 회 이상 조회되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BananaArt’ 해시태그가 수만 건의 사용자 생성 이미지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틱톡에서는 작품을 모방하거나 풍자하는 짧은 영상이 글로벌 밈(meme)으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데이터는 <Comedian>이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플랫폼 알고리즘과 사용자의 반복적 패러디를 통해 ‘네트워크적 문화 사건’으로 기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예술 작품이 디지털 밈(meme)화와 알고리즘 유통망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맥락화되는 과정은, 머신 컬처(Machine Culture)의 관점에서 예술과 기술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실증하는 핵심 사례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Comedian>은 예술의 가치 판단, 창작 주체, 수용 구조 모두가 기술문화적 조건에 의해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며, 교양교육은 이러한 기술-문화 복합체 속에서 예술을 성찰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해야 한다. 학습자는 예술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기술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의미화되는지를 비판적으로 탐구할 수 있어야 한다.

3) 예술의 창작 주체성과 철학적 문제: 인간-기계-사회의 경계 재구성

전통적인 예술 담론은 창작자, 작품, 수용자로 구분되는 삼분 구조를 중심으로 두고, 예술의 정체성과 가치를 설명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예술이 주로 창작자의 의도와 작품의 고유한 속성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이해되곤 했다. 그러나 <Comedian>의 사례는 이 같은 구분이 기술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유동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작품은 기술적 플랫폼, 디지털 유통망, 수용자의 해석과 반응 등 다양한 요소

가 상호작용하며 예술적 의미가 점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은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가 제시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과 논의의 접점을 형성한다. 라투르에 따르면, 사회는 인간과 비인간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며, 기술적 객체(플랫폼, 알고리즘, 전시 공간 등)도 의미 생산에 참여하는 동등한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Comedian〉은 창작자 카텔란의 의도뿐 아니라, 바나나와 테이프라는 물질적 요소, 미술관이라는 제도적 맥락, SNS 알고리즘과 언론 담론, 사용자 참여와 같은 다층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얹혀 작품의 예술성을 구성하는 사례로 분석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교양교육에서도 예술의 개념과 역할을 재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학습자는 예술을 고정된 결과물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 머무르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기술적·사회적 조건에서 생성되고 해석되는지를 비판적으로 탐색하는 참여적 분석자의 위치에 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탐색에는 기술 인프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정보 윤리적 감수성과, 수용자 반응 메커니즘을 해석하려는 비판적 태도, 창작 주체성의 분산성을 성찰하는 철학적 사고가 함께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Comedian〉은 예술이 단일한 정체성을 갖는 실체라기보다는, 사회적·기술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협상되고 구성되는 하나의 네트워크적 사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교양교육에서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교육적 구조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4. 〈Comedian〉 기반 교양수업의 융합적 학습 구조와 교육적 함의

1) 수업 설계의 철학적 기반과 교육목표

디지털 기술이 감각, 인지, 문화의 구조를 재편하는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시대에 교양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의 장을 넘어서,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개념을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 수업의 주요 목표는 학습자가 기술과 예술의 접점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며,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이 예술과 사회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는 데 두고자 한다. 특히 머신 컬처(Machine Culture)의 핵심 요소(기술적 매개성, 참여적 수행성, 알고리즘적 유통, 밈(meme)적 재생산)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며, 단일 사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디지털 예술 사례를 병행함으로써 주제의 확장성과 깊이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순히 디지털 아트의 일반적 특성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라는 분석 틀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점차적으로 기르게 될 것이다. 수업 설계의 철학적 전제는 예술이 고정된 창작물이라기보다는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작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재구성되는 동적 사건일 수 있으며, 기술이 단순한 수단을 넘어서 문화 생산과 해석의 주체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 기초한다. 또한 학습자는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라기보다는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를 실천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 아래, 문제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방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디지털 사례를 통해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개념을 비판적으로 적용하고 재구성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융합적 사고의 촉진을 위한 교양 수업 설계의 원리

본 수업은 총 15주차로 구성되며, 도입(1-2주차), 탐색(3-7주차), 실천(9-14주차), 성찰(15주차)의 네 단계로 나뉜다. 각 단계는 단순 이론 전달보다는 질문 형성, 탐구, 적용, 반성을 순환적으로 경험하도록 구상되었다. 수

업은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개념을 일관된 분석 틀로 두며, 다양한 전공의 교수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과 개념을 간결하게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도입 단계에서는 머신 컬처(Machine Culture)와 <Comedian> 사례를 시각자료 중심으로 소개하며, “기계가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주제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탐색 단계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 밈(meme) 문화, 저작권 등의 쟁점을 가벼운 이론 설명과 참여 중심 활동으로 다루고, 학습자가 조회수·해시태그 등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 분석해 보도록 유도한다. 실천 단계에서는 조별 밈(meme) 제작, 감각 경험 탐구, 창작 프로젝트 등을 포함하며, 기술적 매개성과 참여적 재구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된다. 성찰 단계는 “나는 기술 시대에 어떤 예술 시민인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기말 성찰 에세이를 작성하며 마무리된다.

이러한 학습 구조는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단일 사례에 국한하지 않고, AI 예술, NFT, SNS 밈(meme) 등 다양한 사례를 비교해 보면서 주제의 확장성과 해석의 폭을 넓히려는 방향을 지닌다. 학습자는 디지털 문화 속에서 예술의 의미와 가치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탐구하며, 스스로의 관점을 형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평가 체계는 개념 해석력, 비판적 분석력, 창의적 구성력, 협업 및 성찰 역량 등을 여러 기준으로 구분해 학습자의 성취를 점검하고,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정보 전달을 넘어서, 기술·예술·문화가 교차하는 영역에 대한 성찰적 탐색과 참여적 학습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수업 설계는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라는 낯선 개념을 보다 친숙하게 풀어가면서도, 교양교육이 단순 정보 수용을 넘어 감각적·

철학적·윤리적 사유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표 1] <Comedian> 기반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교양수업의 강의구성(안)

주차	수업주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
1	강의소개 및 문제제기	- 수업 목표와 구성 안내. <Comedian> 영상 감상 및 첫인상 토론 - “예술이란 무엇인가?” 질문 던지기
2	기술과 예술: 머신 컬처 (Machine Culture) 개념	- 머신 컬처(Machine Culture)의 철학적 배경 및 주요 용어 설명 - 소그룹 질문 나누기 및 토론
3	예술의 정의와 수용자 역할	- <Comedian> 사례 심화 - ‘예술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 소개 - 나만의 예술 사례 소개 및 발표
4	플랫폼 알고리즘과 예술 유통	- 유튜브/SNS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사례 학습 - 주요 데이터(조회수, 해시태그) 조사 및 토의
5	밈(meme) 문화와 의미 생성	- 밈(meme)(패러디) 영상 감상 - 밈(meme)의 확산 구조 분석 및 분석 보고서 작성
6	AI와 창작의 경계	- AI 그림 생성 체험(Midjourney 등) - 인간 vs AI 창작 비교 토론
7	기술과 윤리	- NFT와 저작권 사례 소개 - “누가 예술의 주인인가?” 토론 및 발표
8	중간고사	
9	밈(meme) 제작 실습	- 조별 밈(meme) 제작 실습 - 제작 과정에 플랫폼 알고리즘 적용 방안 모색
10	공공예술과 정치성	- 공공예술, 정치적 예술 사례 소개 - “예술은 감동인가, 메시지인가?” 토론 및 발표
11	감각의 재구성	- VR, 인터랙티브 예술 영상 감상. - “기술이 감각을 바꾸는가?” 토론 및 발표
12	프로젝트 설계 I	- 조별 프로젝트 주제 정하고 계획서 작성 시작(활동지 제공)
13	프로젝트 설계 II	- 조사, 콘텐츠 제작. 교수자 피드백 제공
14	최종 프로젝트 발표	- 조별 발표 및 동료 평가
15	기말고사	

3) 평가 방식과 역량 기반 교육 효과

본 수업은 기존의 암기식 지식 전달 중심 평가에서 탈피하여, 학습자의 사고 과정과 실천 능력을 중심으로 한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분

석 역량 기반의 형성 평가 구조를 중심에 둔다. 특히,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라는 철학적 개념과 디지털 예술이라는 사례를 연결해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어 있는 만큼, 단일 정답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관점에서의 해석적 일관성과 개별적 관점의 창의성을 함께 측정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첫째, 개념 해석력은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디지털 수행성(performativity), 기계배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 등 핵심 이론 개념을 학습자가 실제 사례에 적절히 연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는 단순한 개념 이해 수준을 넘어서, 이론을 구체적 맥락에 적용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해석 능력을 확인하려는 시도이다. 둘째, 비판적 분석력은 〈Comedian〉과 같은 사례를 사회적·기술적 맥락 속에서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철학적·윤리적 함의에 주목할 수 있는지를 평가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단편적 감상이나 직관적 해석을 넘어서, 구조적 조건에 대한 통합적 성찰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셋째, 창의적 구성력은 기존의 해석틀이나 표현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문제에 대한 전복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수업 후반의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이러한 창의성이 실제 콘텐츠 기획이나 시각적 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넷째, 플랫폼 분석 및 데이터 해석 역량은 학습자가 유튜브·SNS·밈(meme) 문화의 구체적 데이터를 조사·분석하고, 알고리즘의 영향 메커니즘을 사례에 적용해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다섯째, 협업 및 토론 역량은 공동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면서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공동의 결과물을 효과적

으로 구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이 평가는 개인의 사고 역량뿐 아니라, 공적 담론의 구성자로서의 태도에 대한 부분도 포함한다. 여섯째, 성찰적 글쓰기 역량은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경험한 인식 변화나 개념적 전환을 언어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주관적 감상을 표현하기보다는, 구체적 사례나 개념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성찰을 전개하는 능력을 중시한다.

이러한 여섯 가지 평가 역량은 학습자의 다양한 사고와 실천 능력을 다면적으로 조망하고, 평가 기준과 도구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평가 구조는 학습자가 단순 지식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 해석의 주체이자 의미 생산자로 성장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수업은 단지 기술적 트렌드나 예술 실천을 분절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학습자의 감각,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찰하게 함으로써, 21세기 교양교육이 요구하는 세 가지 핵심 역량인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시민적 통찰력’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는 구조로 기능할 수 있다.

4) 교양교육적 의의와 수업 설계의 확장 가능성

<Comedian>을 중심에 둔 본 교양수업은 현대미술의 이해에 한정되기보다는, 기술사회에서 예술이 지닐 수 있는 존재론적·윤리적 의미를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성찰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개념을 추상적 이론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디지털 밈(meme), 인공지능 창작물, SNS 알고리즘 유통 등 구체적 문화현상과 연결함으로써, 학습자가 학문적 개념과 일상적 경험 사이의 접점을 탐색할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교양교육의 교육적 함의를 몇 가지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와 문화 해석 역량을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측면에서, 본 수업은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을 넘어서, 플랫폼이 형성하는 감각과 수용 방식,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문화적 조건을 성찰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술·문화 융합 시대의 시민적 역량을 교양교육의 한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둘째, 철학·예술·기술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점에서, 수업은 전통적 지식 전달 방식과 다른 교육 모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미학, 기술철학, 미디어이론, 문화연구의 개념들을 하나의 학습 흐름에 통합함으로써, 학습자가 복잡한 문제를 다층적으로 바라보고 다양한 해석틀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셋째, 문제기반 학습과 실천적 탐구 활동은 학습자가 수동적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참여적 학습자로서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민주적 사고, 윤리적 판단, 문화적 감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교양교육의 방향성과도 일정 부분 접점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본 수업은 예술비평, 디지털 인문학, 미디어문화론, 기술윤리 등 다양한 교양과목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수자의 전공과 무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념 구조와 활동, 평가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한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시대의 교양교육은 기술과 예술의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두 분야가 교차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탐구하는 교육적 시도를 요구할 수 있다. 학습자가 본 수업을 통해 성찰하게 되는 것은 예술의 정의나 기술의 기능을 넘어서, 기술문화 속에서 자신의 감각과 판단, 윤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수업은 21세기 교양교육이 지향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는 하나의 사례로 참고될 수 있을 것이

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라는 이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과 예술,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새롭게 구성되는 동시대 문화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양교육의 구조와 내용, 철학적 전제를 실천적으로 재설계하는 교육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작품 <Comedian>을 중심 사례로 삼아, 예술의 의미 구성, 기술 매개성, 수용자 참여, 창작 주체의 분산성 등을 분석하고, 이 모든 요소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문화적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입체적으로 고찰하였다.

기존의 예술 개념이 작가 중심의 창작물, 고정된 오브제, 감상의 대상이라는 전통적 전제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면, <Comedian>은 단일한 창작자 의도가 아닌, 기술적 유통, 알고리즘 기반 확산, SNS 수용자 반응 등의 복합적 조건 속에서 예술성을 구성하는 사례로 기능한다. 이 작품은 더 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구성되고 재해석되는 ‘과정적 사건’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예술이 기술과 사회적 반응의 네트워크 속에서 어떻게 수행적으로 생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은 전환은 단지 예술의 정의를 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사회에서 인간의 감각, 판단, 윤리, 창의성 자체가 어떤 조건에서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사유하게 만든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안된 ‘<Comedian> 기반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교양수업’은 단순한 콘텐츠 중심 강의가 아니라, 이론과 사례, 실천과 성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순환적 교육 구조로 설계되었다. 수업은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개념의 철학적 배경을 제시하면서도,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실제 경험과 연결하여 사유할 수 있도록 질문 중심의 학습 흐름을 택하였으며, 디지털 밈(meme), AI 예술, 플랫폼 유통과 같은 일상적 사례를 통해 문제의식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학습자는 수업 전반에서 감상자나 지식 수용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이자 의미 구성자로 전환되어, 스스로 기술 환경 속 예술 실천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수행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교양교육 모델은 결론에서 논의된 다섯 가지 실천적 제언을 단순한 권고사항에 그치지 않고, 수업 설계의 중심 목표이자 운영의 핵심 원리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 다섯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질문 중심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비판적 사고력을 점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 기술·예술·철학을 통합적으로 탐구하며 다층적 해석력을 확장할 수 있는 학습 구조를 고려하였다. 셋째, 일상적 디지털 문화를 분석하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촉진할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시민적 통찰과 윤리적 판단 역량이 학습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심화될 수 있는 교육적 맥락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참여와 실천을 중심에 두는 역량 기반 평가 체계를 수업 설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원리들은 학습자의 감각, 사고, 윤리, 창작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토대로 작용할 여지를 가진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단일 사례 중심 수업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에도 주목하였다. <Comedian>만으로 머신 컬처(Machine Culture)의 전 영역을 충분히 다루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사례를 병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함께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AI 기반 이미지 생성 사례, SNS 밈의 확산과 수용자 반응, 디지털 설치 예술, NFT 기반 창작물 등이 보조 사례로 제시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유연하게 구성하였

다. 이러한 사례들의 병행적 적용은 특정 콘텐츠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학습자가 보다 넓은 맥락에서 주제를 탐색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한 개괄적 서술을 넘어서, 구체적 평가 기준과 세부 지표를 표 형태로 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성취를 비교적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수업의 실천적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설계는 <Comedian> 사례에 한정되지 않으며, 머신 컬처 개념을 사유하는 학습 모형으로 확장 가능성을 내포한다. 다양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교양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 활용 범위를 열어두고 있으며, 향후 AI 예술이나 디지털 미디어 비평 등 인접 분야의 교양교육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Comedian>은 단일한 예시를 넘어, 기술사회에서 예술의 의미 구성 방식과 주체성, 수용 구조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사회 속에서 교양교육은 기존의 ‘지식의 교양’을 넘어서, 기술에 의해 재조정되는 감각과 예술의 윤리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성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하나의 수업 설계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을 시도하였으며, 학습자가 기술문화적 환경을 해석하고, 자신만의 관점과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적 실천을 구상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향성은 교양교육이 단순 정보 소비를 넘어서, 의미 구성의 참여와 비판적 관여를 지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육 설계는 다양한 학습자가 철학적 질문을 공유하고, 창의적

해석과 실천적 탐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교양교육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검토될 여지를 갖는다.

■ 참고 문헌

- 노버트 위너 저, 김재영 역, 『사이버네틱스: 동물과 기계의 제어와 커뮤니케이션』, 일다, 2024.
- 마셜 맥루언 저, 김성기·이한우 역, 『미디어의 이해』, 민음사, 2002.
- 발터 벤야민 저, 최성만 역, 『기계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도서출판 길, 2007.
- 브뤼노 라투르 저, 홍철기 역,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2009.
- 오스틴 저,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오스틴의 언어철학 의미론 화용론』, 서광사, 1992.
- 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 2024.
-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저, 김재인 역, 『천 개의 고원』, 새물결, 2001.
- 질 들뢰즈 저,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 하워드 라인골드 저, 김광수 역, 『넷스마트』, 문학동네, 2014.
- 하이데거 저, 이기상 역, 『기술과 전향』, 서광사, 1993.
- Auslander, Philip. *Liveness: Performance in a Mediatized Culture*, Routledge, 2008.
- Bishop, Claire.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Verso Books, 2012.
- Gunkel, David J. *The Machine Ques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I, Robots, and Ethics*, MIT Press, 2012.
- Latour, Bruno.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Lepecki, André. *Exhausting Dance: Performance and the Politics of Movement*, London: Routledge, 2006.
- Manovich, Lev. *The Language of New Media*, MIT Press, 2001.
- Milner, Ryan M. *The World Made Meme: Public Conversations and Participatory Media*, MIT Press, 2016.

Parikka, J. *What is Media Archaeology?*, Cambridge: Polity Press, 2012.

Parikka, J. *A Geology of Medi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5.

Rheingold, Howard.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Basic Books, 2002.

Salter, Chris. *Entangled: Technology and the Transformation of Performance*, Cambridge: MIT Press, 201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기술 환경 속에서 예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성되고 구성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양교육에 적용 가능한 수업 설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머신 컬처(Machine Culture)는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며 문화적 의미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구조적 변화의 양식으로 이해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철학적·문화론적 관점에서 개념화하고자 하였다.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설치작품 <Comedian>을 중심 사례로 삼아, 디지털 수행성, 밈(meme) 문화, 플랫폼 알고리즘 등 기술 매개 예술의 주요 쟁점을 고찰하였다. 특히 <Comedian>은 수용자의 반응과 기술적 유통망을 통해 예술성이 점진적으로 구성되는 ‘과정적 예술’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인간-기계-사회 간 상호작용 속에서 예술의 의미가 협상되고 생산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머신 컬처(Machine Culture) 개념에 기초한 융합형 교양수업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자가 기술-문화 환경에서 예술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며 수행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구조를 모색하였다. 수업은 질문 중심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결합하여,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구성력, 시민적 감수성을 함께 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이는 교양교육의 방향성을 재고하는 하나의 실천적 사례로 참고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머신 컬처, 디지털 수행성, 교양교육, 기술 매개 예술,
융합교육

■ Abstract

Reflective Encounters Between Art and Technology in the Age of Machine Culture : Designing a Liberal Arts Course Using Maurizio Cattelan's "Comedian "

Kim, Seong Hee /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art is generated and constituted within technological environments by focusing on the concept of Machine Culture, and proposes a new liberal arts course model based on this framework. Machine Culture refers to a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which humans and technologies co-create cultural meaning. Grounded in philosophical and cultural perspectives,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key issues of technology-mediated art—such as digital performativity, meme culture, and platform algorithms—through the case of Maurizio Cattelan's installation work "*Comedia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rocedural art*," "*Comedian*" reveals how the meaning of art emerges through interactions among users, platforms, and social discourse, rather than through the artist's intent alone. Building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esents a liberal arts course model rooted in Machine Culture, enabling learners to critically interpret and performatively engage with art in a digitally mediated world.

The course is structured around inquiry-based and project-based learning, designed to foster critical thinking, creative construction, and civic sensitivity. This model offers a practical response to the epistemological and pedagogical shifts required in twenty-first-century liberal arts education.

Keyword • Machine Culture, Digital Performativity, Liberal Arts Education, Technology-Mediated Art, Convergent Education

■ 논문투고일:2025.05.31. ■ 심사완료일:2025.07.09. ■ 게재확정일:2025.07.16. ■

고등학교 중국어 수업에서 온라인 문화교류 수업과 원어민 교사 협력 학습의 성과

김 성 훈*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21세기 들어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은 20년 이상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2024년 양국 교역 규모는 2,729억 달러에 달했다(한국무역협회, 2025). 2025년에도 대중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2025).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한국의 대중 수입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25).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어는 단순한 외국어를 넘어 양국의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하

* 김성훈(제1저자)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겸임교수, 유신고등학교 중국어 교사

였으며, 청소년들에게도 실용적 가치가 높은 언어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교육계에서도 중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다(정준모, 2019). 이는 단지 학습 목적뿐 아니라, 중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확장하는 데도 기여한다. 실제로 외국어 학습은 언어뿐 아니라 사회의 가치, 규범, 생활 양식을 포괄하는 문화적 맥락과 함께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이다(Geertz, 1973). 특히 중국어 학습의 경우, 언어 습득의 효율성과 흥미를 높이기 위해 문법과 어휘 외에도 중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박종삼, 2020).

이러한 통합적 학습에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이다. 원어민 교사는 언어적 정확성과 문화적 맥락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학생들이 실제 언어 사용 능력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방기위, 배기형, 2021). 원어민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학생들의 발음과 억양 능력 및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정준모, 2019).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모델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윤열, 2016). 온라인 문화 교류 수업과 프로젝트형 학습은 물리적 제한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실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 증진에 효과적이다(이천, 정추회, 2011). 또한 프로젝트형 학습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기존의 전통적 수업 방식과는 차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 및 온라인 문화 교류 수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드물다. 특히 원어민 교사의 실시간 상호작용이 학생의 발음

과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이 학생의 학습 동기와 흥미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 및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수업이 고등학생의 중국어 발음·표현 능력과 학습 동기·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 교사의 참여가 고등학교 중국어 학습자의 발음 및 표현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둘째,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활동이 고등학교 중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및 흥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온라인 문화 교류 기반의 프로젝트형 수업이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학습 모델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Y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 및 온라인 문화 교류 프로젝트 수업이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이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모델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탐색하고, 향후 중국어 교육의 혁신적 모델 개발과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제2외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학습의 중요성

제2외국어 교육에서 문화 학습은 단순히 언어 능력 향상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언어는 특정 사회의 사고방식, 행동 양식, 사회적 규범을 담고 있어 문화적 맥락의 이해 없이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Deardorff, 2006).

따라서 학습자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갖추는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Byram(1997)은 제2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를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타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와 상호 존중이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Deardorff(2006)는 이러한 능력을 ‘지식’, ‘태도’, ‘기술’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식은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태도는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기술은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글로벌 시대에 외국어 학습자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자리 잡았다.

Hammerly(1987)는 외국어 학습에서 문화 교육을 정보문화, 행동문화, 성취문화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보문화는 역사, 지리, 주요 인물과 같은 지식 영역을 다루고, 행동문화는 일상생활의 행동 양식과 예절을, 성취문화는 예술과 문학 등 사회적 성과물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행동문화는 실생활 의사소통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어의 경우 언어 자체가 중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중국어의 인사말이나 숫자 표현, 호칭 체계 등은 중국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예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金兌垠, 李知恩, 2017). 언어만을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문화적 맥락을 간과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히려 문화적 실례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 학습에서는 반드시 언어와 문화가 통합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Byram(1997)은 외국어 학습의 목적이 단지 언어적 기능 향상이 아니라 타문화를 깊이 이해하며 자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은 학습자가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타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구체적인 교수 방법으로는 중국의 전통 명절, 예술, 음식과 같은 문화 체험 활동을 교실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영화, 드라마, 노래와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현대 중국의 사회적 변화와 문화적 특징을 접하게 하는 것도 문화적 맥락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

2) 원어민 교사의 역할과 협력 학습

제2외국어 교육에서 원어민 교사는 단순한 언어 모델을 넘어 언어와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협력 수업 환경에서 원어민 교사는 목표 언어의 리듬, 억양, 발음뿐 아니라 언어에 담긴 문화적 맥락을 학습자에게 전달하여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을 촉진한다(Richards & Schmidt, 2002). 이는 비원어민 교사나 자동화된 학습 도구가 제공하기 어려운 원어민 교사만의 고유한 교육적 장점으로 평가된다.

원어민 교사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는 실시간 피드백을 통한 학습자의 언어적 오류 교정이다. 원어민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실수를 인지하고 교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원어민 교사는 단순한 언어적 교정뿐만 아니라 언어 표현에 내재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관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yram, 1997). 이는 학습자가 목표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문화적 편견을 벗어나 타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특정 표현이나 어휘가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유래했는지 설명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협력 수업 환경에서 원어민 교사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실질적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Krashen(1985)의 입력 가설에 따르면, 학습자는 실제적인 언어적 입력을 통해 언어를 더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언어적 입력을 제공하는 가장 적합한 자원으로,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며 자율적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민찬규와 김미영(2004)은 소그룹 협력 학습 환경에서 원어민 교사의 참여가 학습자의 언어 사용 빈도와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원어민 교사는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eardorff(2006)에 따르면, 상호문화적 소통 능력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역량으로, 제2외국어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원어민 교사는 학습자들이 목표 언어의 문화적 맥락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상호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형성하도록 이끈다(Byram, 1997). 이러한 환경은 학습자가 글로벌 시민으로서 언어와 문화를 함께 습득하고 타문화 이해 능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원어민 교사는 협력적이고 상호작용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Kramsch(1993)는 언어 학습이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질 때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협력 수업에서 원어민 교사는 언어와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3)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의 이론적 토대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교수법으로, 협력 능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21세기 핵심 역량을 배양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은모 외, 2021). 이러한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의 이론적 토대는 구성주의 학습이론, 문제중심학습(PBL), 협력학습,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에 기반한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의 핵심 기초로서,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구성주의적 접근에서 학습자는 팀을 이루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갖추게 된다. 특히 디지털 도구와 온라인 협업 플랫폼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협력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문제중심학습(PBL)은 학습자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교수법으로서,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형성한다(Barrows & Tamblyn, 1980). 온라인 환경에서의 PBL은 학습자가 다양한 디지털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Kang, 2021). 이를 통해 학습자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협력학습은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의 또 다른 핵심적 토대로서, 학습자들이 상호작용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한다(Johnson & Johnson, 1999). 온라인 협력학습 환경은 디지털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실시간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Shih & Tsai, 2017). 이러한 실시간 상호작용 환경은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역시 중요한 요소다. Zoom, Google Docs, Padlet, Jamboard 등의 디지털 협업 도구는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과 자료 공유를 촉진하여 학습 몰입도와 효과성을 높인다(성은모 외, 2021). 또한 디지털 도구는 자료 수집, 분석, 문제 해결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하여 학습자들이 프로젝트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은 학습자가 실제 문제 해결을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협력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수업 환경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유지하며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Bao, 2020). 다만, 이 수업 방식은 팀원 간 의사소통의 한계, 교수자의 피드백 부족, 기술적 문제 등의 제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플립러닝(flipped learning)과 같은 보완적 교수 전략과 디지털 협업 도구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교수-학습 환경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수업 운영

본 연구는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Y고등학교 2학년 중국어 I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Y고등학교는 제2외국어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어 I 수강생 130명 가운데 20개 조(각 학급별 4개 조)를 선정하였다. 이 중 절반인 10개 조가 중국 텐진사범대학 한국어학과 대학생들과 온라인 문화 교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직접 참여한 인원은 한국 측 42명(학생), 원어민 교사 1명, 중국 측 대학생 11명 및 지도교수 1명으로 구성했다. 연구 참여 학생들은 중국어 학습 경험과 문화 교류 활동에 대한 관심을 고려하여 선발하였으며,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특성은 성별, 학업 성취도, 중국어 학습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으로 구성했으며, 평균 학업 성취도는 B+ 수준으로 중국어 학습에 대한 열의가 비교적 높은 집단이었다. 학업 성취도는 수학 및 과학을 제외한 주요 과목의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기초 이상의 중국어 학습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15명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어 초급부터 중급 수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수업은 2024년 5월 6일부터 6월 21일까지 약 6주간 진행하였으며, 정규 수업과 방과 후 수업을 결합하여 운영하였다. 수업 목표는 학생들이 중국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중국 대학생들과의 실시간 교류를 통해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데 있었다. 전체 수업은 정규 수업, 방과 후 수업, 온라인 문화 교류 수업의 3단계로 진행하였다.

정규 수업 활동의 첫 2주간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수업 목적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각 조별 주제 선정 및 발표 준비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조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한국 문화 소개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더우인’ 조는 케이팝과 중국인 멤버를 소개하기로 했고, ‘잘생긴 형제들’ 조는 훈민정음과 세종대왕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은 선정된 주제를 조사한 후 원어민 교사의 지도 아래 발표문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발음을 연습하였다.

[표 1] 한국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통해 정한 조 이름과 발표주제

	조이름	발표주제
A조	帅哥们	한국에서 유행하는 인기 동영상 소개
B조	더우인	케이팝과 중국인 멤버 소개
C조	서O권	한국의 교육 및 놀이 문화
D조	만리장성	유신학원의 소개
E조	니츠판로마	한국의 먹거리와 문화재 소개

F조	마오타이조	한국의 태권도 소개
G조	잘생긴 형제들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소개
H조	위대한 맛의 고장	한국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음식 문화 소개
I조	양꼬치 앤 칭따오	한국 고등학교의 일과 소개 및 학교 소개
J조	YS 중국문화 조	한국의 대표기업 소개

방과 후 수업은 5~6주차에 걸쳐 매주 2회, 총 4차시에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원어민 교사로부터 실시간 발음 교정과 표현 피드백을 받으며 발표문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발표 내용과 관련된 문화적 맥락을 시각적으로 전달할 동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실제 교류 수업에서 활용할 준비를 하였다.

온라인 문화 교류 수업은 6월 후반 약 2주간 텐센트 미팅(Tencent Meeting)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한국 학생들은 중국어로, 중국 학생들은 한국어로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는 양국 학생들 간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양꼬치 앤 칭따오’ 조는 한국 고등학교의 하루 일과를 소개하며 중국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중국 학생들은 전통 음식을 소개하면서 상호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러한 실시간 교류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언어 사용 기회를 제공했으며, 원어민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함께 학생들의 언어적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2) 심층면담과 수업 관찰 방법

본 연구는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학습 및 온라인 문화 교류 수업이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수업 관찰을 실시하였다. 특히 발음·표현 능력 향상, 학습 동기와 흥미 변화, 문화적 이해 증진 등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심층면담은 수업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면담은 수업 시

작 전에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에 가지는 기대와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면담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이번 프로젝트형 수업에서 기대하는 학습 경험은 무엇인가?’ 둘째, ‘중국 학생과의 소통에 대한 기대감은 무엇인가?’ 셋째, ‘본인의 중국어 능력 향상 목표는 무엇인가?’를 질문하여 학생들의 초기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였다.

2차 면담은 수업 종료 후 실시하였으며, 각 조의 대표(조장) 및 적극적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구체적 경험과 의견을 수집하였다. 주요 질문은 첫째, ‘수업 전후 중국어 발음과 표현 능력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둘째, ‘중국 학생과의 실시간 교류가 학습 동기와 흥미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셋째,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의 장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로 구성하였다.

수업 관찰은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과 원어민 교사의 피드백이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관찰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어민 교사의 발음 교정 피드백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발표 준비 과정과 실제 발표 시 나타나는 발음의 정확성, 억양, 표현 능력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셋째, 중국 학생과의 온라인 실시간 교류 중 나타난 학생들의 언어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전략을 관찰하였다. 수업 관찰은 연구자가 현장에서 비참여자로서 이루어졌으며, 연구 목적에 맞춰 주요 내용을 관찰 기록지에 질적으로 기술하였다.

3) 자료 분석 및 질적 분석 방법

수집된 면담과 관찰 자료는 질적 연구의 일반적 분석 방법인 주제별 코딩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발음과 표현 능력 향상

학생들이 수업 전후로 발음 정확성 및 유창성에서 보인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원어민 교사의 피드백이 학생들의 반복적인 발음 오류(성조, 강세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2) 학습 동기 및 흥미 변화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태도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자기결정성 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하여, 실시간 문화 교류 활동이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동기와 참여 태도를 어떻게 촉진했는지 살펴보았다. 면담 및 관찰 자료에서 학습 동기를 촉진한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범주화하였다.

(3) 문화적 이해 증진 및 상호문화적 감수성 향상

학생들이 중국 학생과의 실시간 소통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키운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Byram(1997)의 상호문화적 소통능력개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화적 이해 확장과 새로운 관점 습득 과정을 면담 및 관찰 자료에서 추출하고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다. 연구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들은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자료는 익명화하여 암호화된 환경에서 보관하였다. 연구 종료 후 모든 자료는 안전하게 폐기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익명으로만 보고하였다.

4. 연구결과

1)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학습이 발음 및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중국어 발음 및 표현 능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참여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수업 전후 발음 정확성, 억양 유창성, 표현 능력의 변화를 질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추가로 면담 대상 학생의 응답을 통해 정성적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먼저, 발음 정확성 측면에서 성조(특히 3성 및 경성) 및 권설음 등 발음 난도가 높은 음운에 대한 교정 효과가 두드러졌다. 수업 전 학생들은 대부분 3성 및 경성의 혼동이 빈번했으나, 원어민 교사의 반복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이후 성조 구별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하였다. 예컨대 학생 A는 면담에서 “처음에는 ‘韩国(한국)’과 ‘美国(미국)’의 성조를 구분하지 못했으나 교사의 지속적 교정을 통해 명확히 발음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업 관찰 과정에서도 전체 학생의 성조 오류가 수업 후반으로 갈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통해 확인했다.

억양과 유창성 또한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수업 후 현저히 개선되었다. 학생들은 처음 수업에서 문장 단위의 자연스러운 억양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교사의 실제 발화를 모방하고 즉각적 피드백을 받으며 문장의 리듬과 흐름을 점진적으로 익혔다. 면담에서 학생 B는 “교사의 억양을 따라 하면서 문장 발음이 더욱 자연스러워졌다”며, 억양 습득의 실질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수업 관찰에서도 초기에 억양 사용이 어색했던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말기에는 억양과 문장 리듬의 안정적인 사용을 보이는 변화를 기록할 수 있었다.

표현 능력의 향상도 의미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수업 초기 대부분의 학생은 기초 문장 표현에 그쳤으나, 수업 진행 중 교사가 제공한 문장 구조 및 표현법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 덕분에 수업 후반부에는 복합적이고 상황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학생 C는 면담에서 “처음엔 단순 문장밖에 말하

지 못했는데, 교사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통해 표현이 풍부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수업 관찰에서도 발표 시 학생들의 표현 능력이 초기 단순 서술에서 점차 복잡한 구조와 적합한 어휘 사용으로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언어적 자신감 또한 교사의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크게 증진했다. 특히 권설음 등 어려운 발음을 반복 교정 받으며 자신감을 회복한 사례를 다수 관찰했다. 예를 들어, 학생 D는 “권설음 발음을 자주 틀렸지만 교사가 매번 바로잡아 주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면담과 수업 관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이러한 자신감 증가는 발음 정확성과 표현의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전체 학생 42명의 수업 전후 관찰 평가에서는 발음 정확성, 억양 유창성, 표현 능력 모든 항목에서 수업 후반에 유의미한 질적 향상이 확인하였다. 특히 면담으로 얻은 개별 학생 사례들은 양적 결과와 상호 보완적인 정성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표 2]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학습이 발음 및 표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역	수업 전 특징	수업 후 특징	면담 사례
발음 정확성	3성 및 권설음 등 주요 음운에서 반복적 오류 발생	음운 오류 횟수 현저히 감소, 정확한 성조 사용 증가	학생 A: “성조 발음이 분명해졌다”
억양 및 유창성	억양 흐름이 부자연스럽고 문장 전체의 리듬 부족	억양 흐름 안정화, 문장 리듬 자연스러워짐	학생 B: “억양 사용이 훨씬 편해졌다”
표현 능력	기초 문장 중심의 단순 표현 사용	복잡한 문장구조 및 구체적 표현 증가	학생 C: “표현의 다양성이 늘어났다”
자신감	어려운 발음 반복 오류로 자신감 결여	반복 피드백으로 자신감 회복 및 적극성 증가	학생 D: “피드백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다”

원어민 교사의 협력 학습은 고등학생의 중국어 발음 정확성, 억양 유창성, 표현 능력의 질적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이 학생들의 언어적 자신감과 학습 동기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중국어 교육에서 원어민 교사의 협력적 피드백을 포함한 수업 방식은 효과적 학습 모델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가 학습 동기 및 흥미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중국어 학습 동기와 흥미에 미친 영향을 심층면담과 수업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전체 참여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문화 교류 수업 전후의 학습 태도, 참여도, 문화적 관심도의 질적 변화를 평가하고, 대표 학생의 면담 자료를 통해 정성적 분석을 보완하였다.

먼저,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활동은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 동기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전 학생들은 대부분 교재 중심의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보였으나, 실시간 문화 교류 수업 이후 중국 학생들과 실제 소통을 경험하면서 학습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였다. 예컨대 학생 A는 “중국 대학생과의 실제 대화를 통해 중국어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습에 대한 흥미가 크게 높아졌다”고 진술하였다. 전체 학생의 수업 참여 관찰 결과에서도 교류 활동 이후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 빈도와 중국어 활용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화적 흥미와 호기심의 측면에서도 교류 활동 이후 학생들의 관심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초기 수업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고 피상적이었으나, 실시간 소통을 통해 중국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전통문화를 직접 접한 후 중국 문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

는 관심을 보였다. 면담에서 학생 B는 “중국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중국의 일상과 전통 음식 등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고 강조하였다. 전체 학생 관찰 자료에서도 수업 후반 중국 문화 관련 질문과 토론 참여가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하였다.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 형태는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 태도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학생들은 이전의 교재 중심 수업에서는 수동적이었으나, 프로젝트 기반 수업에서는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학습 참여가 증가하였다. 수업 관찰에 따르면, 초기 학생들은 수업 준비에서 교사의 지시를 주로 따랐으나, 후반부에는 자율적으로 팀 내에서 자료 조사와 발표 준비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학생 C는 면담에서 “교과서만 배우는 것과 달리 직접 조사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고, 수업 참여가 더 활발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실시간 질의응답 활동을 통한 학습 성취감 향상도 두드러졌다. 학생들은 중국 학생과의 실시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자신의 언어 능력을 실제로 검증받고, 의사소통에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 면담에서 학생 D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실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국어가 늘었다는 성취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수업 관찰에서도 학생들의 답변 정확성, 발언 빈도, 의사 표현의 구체성이 후반부로 갈수록 크게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 학생 42명의 수업 전후 관찰 평가에서 학습 동기, 문화적 관심, 자율적 참여, 성취감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대표 학생의 면담을 통해 개별적 사례들을 정성적으로 보완하였다.

[표 3]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가 학습 동기 및 흥미에 미친 영향

분석 영역	수업 전 특징	수업 후 특징	면담 사례
학습 동기	교재 중심의 수동적 참여	실제 소통을 통한 적극적 참여 증가	학생 A: “실제 대화를 통해 학습 필요성 인식”
문화적 관심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문화 이해	문화에 대한 구체적 관심과 호기심 증가	학생 B: “중국 일상생활을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
자율적 참여	교사의 지시에 의존적	자율적인 자료 조사 및 발표 준비 증가	학생 C: “직접 조사하며 학습에 적극 참여”
학습 성취감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 부족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자신감 및 성취감 증가	학생 D: “질의 응답에서 중국어 향상을 느꼈다”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수업은 고등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크게 촉진하였으며, 실제 의사소통 경험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참여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향후 중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수업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 태도 형성에 효과적인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의 학습 성과와 학습 모델로서의 가능성

본 연구는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이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면담과 수업 관찰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참가 학생 42명의 수업 전후 학습 참여 태도, 동기 수준, 문화적 이해도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표 학생 면담 자료로 정성적 분석을 보완하였다.

먼저,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은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증가시켰다. 수업 전 관찰에서 학생들은 주로 교재 중심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프로젝트형 수업 이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발표를 준비하는 능동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면담에서 학생 A는 “직접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 준비를 하며 중국어 학습에 흥미를 느꼈다”고 언급했다. 전체 학생 대상 수업 참여 관찰에서도

수업 후반부로 갈수록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적극성과 참여도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활동은 학생들의 문화적 관심과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유의미하게 높였다. 초기 수업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었지만, 교류 활동 후 중국 학생들과 실제 대화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이해가 증대되었다. 면담에서 학생 B는 “중국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어 흥미로웠고, 중국어뿐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졌다”고 응답하였다. 관찰 자료에서도 수업 후반부에 학생들이 중국 문화 관련 질문과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확인하였다.

특히 실시간 질의응답은 학생들에게 중국어 활용의 실제적 경험을 제공하며 학습 성취감과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중국어 사용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냈으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중국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자 자신감을 획득하였다. 학생 C는 면담에서 “중국 학생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질문에 반응해주어서 중국어에 자신감을 가졌다”고 언급했다. 전체 학생 수업 관찰 결과, 수업 초기에 비해 후반부 학생들의 질의응답 참여 횟수와 발언의 구체성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프로젝트형 수업의 학습 성과는 참여도, 문화적 이해도, 실질적 언어 능력 향상, 학습 동기 강화의 네 가지 영역에서 명확한 변화를 보였다.

[표 4] 프로젝트형 수업의 학습 성과 변화

분석 영역	수업 전 특징	수업 후 특징	면담 사례
학습 참여도	교재 중심의 수동적 참여	자료 조사와 발표 준비의 능동적 참여 증가	학생 A: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여도가 높아졌다”

문화적 이해도	제한적이고 피상적인 이해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과 이해 증대	학생 B: “중국의 일상생활과 전통문화가 흥미로웠다”
실질적 언어능력	중국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 부족	실제 의사소통을 통한 자신감과 표현 능력 증가	학생 C: 질의응답으로 중국어 표현 자신감이 생겼다”
학습 동기 강화	학습 목적성 불분명, 낮은 흥미	실시간 교류를 통해 학습 동기와 성취감 증가	학생 D: “실제 대화 경험으로 중국어 학습 의욕이 생겼다”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은 고등학생들의 중국어 학습 성과 향상과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적 교수 모델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실질적 의사소통과 문화적 이해 능력을 통합적으로 증진하는 데 탁월한 가능성을 보였다. 이는 향후 제2외국어 교육에서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이 지속 가능한 혁신적 교육 모델로서 적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사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중국어 수업에서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학습과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활동이 학생들의 발음 및 표현 능력, 학습 동기, 그리고 문화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원어민 교사의 실시간 피드백과 협력 수업은 학생들이 중국어 발음과 억양의 정확성을 높이고, 언어 사용의 유창성과 표현력을 크게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성조와 발음 등 중국어의 핵심적인 언어 요소를 교정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언어적 자신감과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실시간 문화 교류 활동은 학생들의 중국어 학습 동기와 흥미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였다. 중국 대학생들과의 실제 의사소통 경험은 학생들이 중국어 학습의 필요성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교재 중심의 전통적인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소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와 자기주도적 학습 태

도가 크게 증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중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증가하여 문화적 이해와 상호문화적 감수성이 함께 향상되었다.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은 학생들의 상호작용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조별 활동과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의 기회를 가졌고, 발표 준비와 실시간 교류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였다.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웠으며, 언어와 문화가 통합된 학습 경험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학습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이 기존의 전통적 교실 수업에 비해 실제적인 소통 경험과 풍부한 상호작용을 제공하며 중국어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유의미한 학습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및 실시간 문화 교류를 활용한 수업 방식은 학생들이 언어 및 문화 학습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특정 학교와 제한된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학교 환경과 학년, 학습 수준의 학생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어 외에 다양한 제2외국어 과목에서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을 적용하여 비교 연구를 수행하면 외국어 교육 전반에서 해당 모델의 활용 가능성과 효용성을 더욱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정책적 관점에서는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의 체계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학습 및 온라인 문화 교류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문화적

경험과 실질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문화적 이해 능력을 증진하는 이 같은 혁신적인 교수·학습 모델이 미래 교육의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 프로젝트형 수업이 학습 동기와 학습 성과 간에 어떤 구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적 이해와 상호작용이 외국어 학습 성과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을 더욱 정교하게 탐구하여 온라인 문화 교류와 프로젝트 기반 수업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적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김민영, 「중국인 보조교사의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사연수 교육과정 개선방안」, 『중국어교육과연구』 36호, 2022, 103-126쪽.
- 김은경,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한 한문과 융합 수업 구현 사례」, 『한문교육 논집』 51호, 2018, 157-206쪽.
- 노승숙·서은희, 「PBL을 활용한 ‘중국어 번역 실습’ 수업 사례 분석」, 『중국문화연구』 60호, 2023, 125-148쪽.
- 민찬규·김미영, 「소그룹 협력 학습 활동이 학생들의 영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외국어교육학회지』 12권 1호, 2004.
- 박종삼, 「문화의 자유로움 재음미」, 『문화산업연구』 20권 4호, 2020, 21-25쪽.
- 박찬욱, 「중국어의 위상변화와 한국의 중국어교육 방향에 대한 일고」, 『중국학』 57호, 2016, 1-19쪽.
- 방기위·배기형, 「외국어 교육에서 원어민 교사의 역할과 중요성」, 『외국어교육연구』 12권 2호, 2021, 45-59쪽.
- 산업통상자원부 - 글로벌 무역통계 서비스 K-stat, https://stat.kita.net/?utm_source=chatgpt.com, 2025.
- 서은영,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중국어 팀티칭 수업 연구」, 『경기교육 논총』 17호, 2008, 175-217쪽.
- 성은모·최지은·백민정, 「비대면 온라인 프로젝트학습 교수학습모형 개발 연구」, 『교육방법연구』 33권 1호, 2021, 227-270쪽.
- 심지언, 「플립러닝 기반 중국어 독해 수업 사례 연구」, 『한중언어문화 연구』 75호, 2025, 133-158쪽.
- 안병삼, 「PBL을 활용한 ‘중국현대소설선독’ 수업 사례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권 5호, 2022, 327-351쪽.
- 윤열,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 외국어 교육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과학』 23권 4호, 2016, 12-30쪽.
- 이덕주·조미아, 「고등학교 도서관의 협력수업 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권 3호, 2012, 231-251쪽.

- 이서이·한용수, 「대학에서의 하이브리드 교육 문화」, 『철학·사상·문화』 39호, 2022, 322-337쪽.
- 이천·정추희, 「중국문화 교육과 전파: 당대 시각과 내실」, 『언어문사 응용』 11권 1호, 2011, 117-124쪽.
- 임규섭, 「중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및 상대국에 대한 인식 변화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3권 1호, 2015, 297-333쪽.
- 장은영, 「협동학습 모형을 활용한 중국어 고문 교육 연구」, 『중국학』 60호, 2017, 177-190쪽.
- 정준모, 「한국 공자학원 중국어 교육 현황과 특징에 대한 소고」, 『중국어 교육연구』 19권 62호, 2019, 101-123쪽.
- 조미아, 「PBL을 적용한 사서교사와 중국어 교과교사의 협력수업 사례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권 2호, 2014, 65-88쪽.
- 진 현, 「어휘학습전략이 중국어 어휘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어교육 과연구』 44호, 2024, 299-318쪽.
- 한국개발연구원, 『2010년대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경제안보에 대한 함의 (KDI 정책연구 보고서 No. 2025-03)』, 2025,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8830.
- 한국무역협회, 『2024년 중국 경제·무역 동향 및 2025년 전망』, 2025, <https://www.kita.net/board/overseasMarket/overseasMarketDetail.do?boardType=2&no=40378>.
- 한희창·이효영, 「중국어 원어민을 활용한 원격수업 사례 연구」, 『중국어언어 연구』 101호, 2022, 345-368쪽.
- Bao, W. "COVID-19 and Online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A Case Study of Peking University", *Human Behavior and Emerging Technologies*, vol. 2, no. 2, 2020, pp.113-115.
- Barrows, H. S. & Tamblyn, R. M. *Problem-Based Learning: An Approach to Medical Education*,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0.
- Byram, 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7.
- Deardorff, D. K. "The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0, no. 3, 2006, pp.241-266.
- Geertz, C.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New York: Basic Books, 1973.
- Hammerly, H. *Synthesis In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s*, Blaine: Second Language Publications, 1987.
- Johnson, D. W. & Johnson, R. T.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Learning*, Boston: Allyn and Bacon, 1999.
- Kang, K.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Effective University Clas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 31, no 1, 2021, pp.29-58.
- Kramsch, C.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Krashen, S.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1985.
- Richards, J. C. & Schmidt, R. *Longman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London: Longman, 2002.
- Shih, W. L. & Tsai, C. Y. “Students’ Perception of a Flipped Classroom Approach to Facilitating Online Project-Based Learning in Marketing Research Courses”, *Australas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3, no 5, 2017, pp.32-49.
- XIAOYAN AN, 「CPIK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중국어교육과연구』 44호, 2024, 393-412쪽.
- 金兌垠·李知恩, 「현행 대학교육의 교직이수과목에 대한 고찰: 중어중문학과 개설 교과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중국어 문학논집』 106호, 2017, 169-197쪽.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 학습 및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수업이 고등학생의 중국어 발음 및 표현 능력, 학습 동기와 문화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Y고등학교 2학년 중국어I 수강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중국 톈진사범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과 온라인 실시간 문화 교류 수업을 운영하고, 심층면담과 수업 관찰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원어민 교사의 실시간 피드백은 학생들의 중국어 발음 정확성과 유창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중국 학생들과의 실시간 교류 활동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 교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중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상호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문화적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협력 학습과 실시간 문화 교류를 결합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 제2외국어 교육에서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이해력을 높이는 효과적 학습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교육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 원어민 협력 학습, 온라인 프로젝트 기반 학습, 중국어 발음
및 표현 능력, 학습 동기 및 흥미, 상호문화적 감수성

■ Abstract

The Effects of Online Cultural Exchange and Collaborative Learning with Native Teachers in High School Chinese Classes

Kim, Sung Hun / Ajou University, Yushin High School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ollaborative learning with native-speaking teachers and real-time online cultural exchange classes on high school students' Chinese pronunciation, expressive skills, learning motivation, and cultural understanding. The participants were 130 second-year students enrolled in Chinese I at Y High School in Gyeonggi Province, who participated in online cultural exchanges with students from Tianjin Normal University'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classroom observations. The findings revealed that native teachers' real-time feedback significantly enhanced students' pronunciation accuracy and fluency. Additionally, real-time interactions with Chinese university students notably increased learners' motivation and interest. Students directly experienced Chinese culture, foster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d deepening their cultural understanding.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of online project-based classes combining native-speaking teacher collaboration and cultural exchanges, and suggest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to systematically implement such approaches in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Keyword • Native-speaking teacher collaboration, online project-based learning, Chinese pronunciation and expressive ability, learning motivation and interest, intercultural sensitivity

■ 논문투고일:2025.05.12. ■ 심사완료일:2025.07.09. ■ 게재확정일:2025.07.09. ■

창의 교과 교양 수업에서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 대학생들의 참여도의 매개효과에 근거하여

김 병 선*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결과 및 논의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AI가 주도하는 미래 사회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공동체적 인성, 포용적 리더십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통합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¹⁾ 이는 교양교육이 현대 사회의 복합적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교과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지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양교육이 지닌 효용성과 가치는 교과 그 자체보다는 실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렸다.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 1) 윤정진 외, 「대학생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창의인성 융복합교육에 관한 기초연구」, 『교양교육연구』 15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17쪽.

이러한 맥락에서 협력학습은 교양 수업에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하나의 실천전략이 될 수 있다. 협력학습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력, 책임감, 사회성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 학습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문제 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교수 방식 수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수업에서 협력학습은 학습자의 주도성과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여러 교과목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협력학습으로 인해 대학생들은 일정 수준의 피로감, 부담감 등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곤 한다.²⁾ 그럼에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주도성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면서,³⁾⁴⁾ 협력학습의 경쟁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존의 협력학습 관련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들의 협력학습에 대한 인식, 태도, 만족도 등을 탐색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⁵⁾⁶⁾⁷⁾ 이 연구들은 협력학습의 전반적 수용성과 학습자 반응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지만, 협력학습이 학습자의 구체적인 핵심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한다. 더구나 창의성, 인성, 리더십과 같은 통합적 역량 요소들

- 2) 임혜원,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소집단활동 운영 방안」, 『교양교육연구』 17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231쪽.
- 3) 최성용·최지연, 「운영관리 과목에 팀 기반 학습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증진 효과에 관한 연구」, 『상업경영연구』 30권 6호, 한국상업경영학회, 2016, 13쪽.
- 4) 류현숙·김지영,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9권 1호,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22, 45쪽.
- 5) 김병선·이준길, 「은유 분석을 통한 대학생들의 소그룹 활동 인식 연구」, 『교사교육연구』 62권 4호, 부산대학교교과교육연구소, 2023, 441쪽.
- 6) 김선주, 「협업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 연구」, 『교양교육연구』 12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17쪽.
- 7) 이정옥·신혜원, 「성찰일지를 통해 살펴본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6권 4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24, 57쪽.

창의 교과 교양 수업에서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들의 참여도의 매개효과에 근거하여 | 김병선

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학습자 참여도와 같은 정의적 요소가 어떤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접근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1학기 개설된 창의 융합 교양 교과목인 ‘창의는 흐른다’ 수업에서 협력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이라는 핵심역량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도를 매개로 하여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참여도를 독립변수의 단순 결과가 아닌 심리적, 행동적 과정의 매개변수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작동 경로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은 대학생들의 핵심역량(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생들의 참여도는 협력학습과 핵심역량(창의성, 인성, 리더십)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본 연구가 관련 분야의 이론적 공백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협력학습의 교육적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2. 이론적 배경

1) 협력학습의 개념과 교육적 효과

협력학습은 소규모 집단 안에서 학습자들이 함께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상호작용 중심의 학습 방식이다.⁸⁾ 이

8) D. W. Johnson & R. T. Johnson.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learning*, Boston, MA: Allyn & Bacon, 1999, pp.5-10.

과정은 단순한 공동 학습을 넘어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 개별적인 책임 수행,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집단 내 성찰, 그리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포함한다. 또한, 협력학습은 참여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 중심의 전통적 수업 방식을 극복하고 상호 존중과 공동 책임을 기반으로 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학습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단순한 활동 중심 수업이 아닌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핵심 교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양교육과 같이 다양한 전공과 배경의 학생들이 함께 학습하는 맥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도출하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를 증명한 국내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김효원(201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창의적 인성이 협력적 조절을 매개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협력학습 맥락에서 분석하였다.⁹⁾ 분석 결과, 창의적 인성이 협력적 조절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성이 입증되었고, 창의적 인성은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협력적 조절을 통한 간접적 영향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대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협력학습 기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김세경(2021)은 협동학습 역량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¹⁰⁾ 연구 결과, 협동학습 역량은 창의적 능력, 창의적 성향, 그리고 인성과 유의한 정적 상

9) 김효원, 「협력학습에서 여대생의 창의적 인성과 창의적 문제해결 간의 관계: 협력적 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창의적교육연구』 16권 4호,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16, 139쪽.

10) 김세경, 「대학생의 협력학습 역량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746쪽.

관을 나타냈고, 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창의적 능력의 단독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창의적 성향은 협동학습 역량과 인성 간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수행하였다. 창의적 능력과 창의적 성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구조도 확인되는 성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창의성의 하위 요소를 세분화하여, 대학생 인성 함양 과정에서 협동학습 역량의 구조적 역할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김혜진과 염명숙(2014)은 독서와 토론 중심의 교양수업이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함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¹¹⁾ 특히, 행동적 전략인 자기목표 설정, 자기관찰, 자기단서 활용과 자연적 보상 전략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조절하고,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리더십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교수, 학습 전략으로서 협력적 활동과 자기주도적 사고를 결합한 수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협력학습의 구조적 관계

전언에서 밝히듯 협력학습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교수전략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그 효과를 단순히 결과 중심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수업 맥락에서는 학습자의 동기, 수업 환경, 참여도, 상호작용 방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¹²⁾ 따라서 이들 간의 내적 관계와 영향 경로를 구조

11) 김혜진·염명숙, 「독서와 토론 교양 수업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양교육연구』 8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513쪽.

12) J. Biggs, “From theory to practice: A cognitive systems approach”,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12, 1999, pp.73-75.

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창의성, 인성, 리더십과 같은 전인적 역량은 단일 요인의 영향보다는 학습자의 참여 과정과 상호작용 방식에 의해 매개되거나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협력 학습의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관계 분석을 통한 이론적 탐색은 필수적이다. 협력학습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한 연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경수(2022)는 대학생들의 능동적, 협력적 학습경험, 교수-학생 상호작용, 역량향상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¹³⁾ 연구 결과, 협력적 학습경험은 역량향상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매개로 할 경우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역량 중심 교육에서 학습자의 능동성과 협력 경험이 핵심 경로로 작동함을 시사하며, 효과적인 교수-학습 설계를 위해 협력학습 기반 수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을 보여준다.

주영주와 고경이(2016)는 학습경험을 전조, 과정 및 결과의 3단계로 구조화한 Biggs의 3P 모형에 기반하여 협력 학습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¹⁴⁾ 그들에 의하면, 성취동기와 교수학습의 질은 학습자의 심층적 학습접근방식과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다시 팀 성과와 개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협력학습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협력 학습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 13) 임경수, 「대학생의 능동적·협력적 학습경험, 교수-학생 상호작용, 역량향상 간의 구조적 관계」,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권 6호,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2, 1052쪽.
- 14) 주영주·고경이, 「협력학습에서 성취동기, 교수학습 질, 학습접근방식,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권 3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85쪽.

창의 교과 교양 수업에서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들의 참여도의 매개효과에 근거하여 | 김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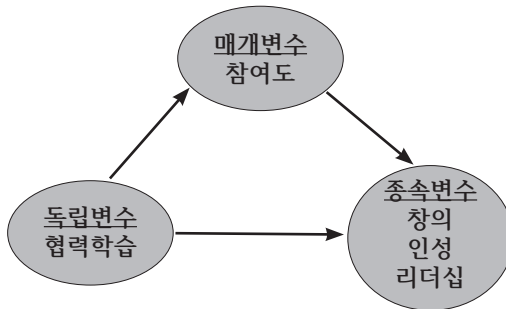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는 협력학습의 효과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학습자의 정의적, 인지적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 메커니즘 분석은 여전히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협력학습이 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협력학습 참여도의 매개적 역할을 구조적 관계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역량기반 교수-학습 설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협력학습 기반의 창의 교과 수업이 대학생의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양적 연구로 설계되었다. 특히, 학습자 참여도가 이들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함께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하여 변수 간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적 관계를 반영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1] 협력학습, 참여도, 창의성·인성·리더십 간 구조적 관계 모형

2) 연구참여자

연구 대상은 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교의 교양 교과목인 ‘창의는 흐른다’ 수업에 참여한 대학생 51명이다. 참여자의 전공 분포는 인문계열 15명, 공학계열 5명, 간호학 2명, 스포츠 12명, 의료융합 10명, 사범대학 5명, 자율전공 2명으로 구성되었다. 성별은 남학생 37명, 여학생 14명이고, 학년은 1학년 21명, 2학년 13명, 3학년 11명, 4학년 6명이다. 다음 [표 1]은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정보이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포본 수	비율(%)	총계
전공	인문계열	15명	29.41%	51명 (100%)
	공학계열	5명	9.80%	
	간호학	2명	3.92%	
	스포츠	12명	23.53%	
	의료융합	10명	19.61%	
	사범대학	5명	9.80%	
	자율전공	2명	3.91%	
학년	1학년	21명	41.18%	51명 (100%)
	2학년	13명	25.49%	
	3학년	11명	21.57%	
	4학년	6명	11.76%	
성별	남학생	37명	72.55%	51명(100%)
	여학생	14명	27.45%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총 51명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기에 다소 적은 규모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분석 모형이 복잡하지 않은 경우, 50명 이상의 표본으로도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수업 절차

PBL 기반의 협력학습은 단순한 소집단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습자들이 실제 사회나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소그룹 내에서 협력적으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제시해보는 과정을 통해 사고력, 의사소통력, 협업 능력, 자기 주도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PBL 기반의 협력학습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업이 구성된다. 우선 학습자들에게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문제 상황이 제시되며, 이는 정답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선정된다. 학습자들은 소그룹으로 구성된 팀 내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협력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한다.

연구를 위해 본 수업은 총 8 주간 진행되었으며, PBL 기반의 협력학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1~2 주차에는 수업 개요 및 창의성과 PBL 개념을 소개하였고, 3 주차에는 조편성과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통해 조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조 편성은 성별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5~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장 역할은 주제별 활동마다 순환하여 모든 학생이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주차부터는 PBL 과제를 제시하여 7 주차까지 조별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8 주차에는 각 조가 활동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별 회의는 교실뿐만 아니라 교내 카페나 공원 등에서도 자유롭게 진행되었으며, 교수자는 존중과 허용의 대화법을 안내하여 인성적 측면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4)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협력학습, 창의성, 인성, 리더십, 학습자 참여도를 측정

하기 위해 각 요소별로 5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설문 도구를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표 2]에서와 같으며, 선행연구¹⁵⁾¹⁶⁾¹⁷⁾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설문 조사는 9 주차에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 대면으로 실시되었다.

[표 2] 협력학습, 창의성, 인성, 리더십, 학습자 참여도 문항

영역	문항번호	문항내용
협력 학습	Q1	나는 협력학습 활동에서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활발히 나누었다.
	Q2	조별 과제 수행 시 서로 도우며 과제를 완수했다.
	Q3	협력학습은 나의 학습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Q4	협력학습은 다양한 사고방식을 접하게 해주었다.
	Q5	협력학습을 통해 나의 문제해결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느낀다.
창의성	Q6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을 즐긴다.
	Q7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한다.
	Q8	기존의 방식보다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싶다.
	Q9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Q10	일상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자주 생각해낸다.
인성	Q11	나는 협력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한다.
	Q12	갈등이 있을 때 인내심을 갖고 해결하려 한다.
	Q13	공동의 목표를 위해 책임을 다하려 노력한다.
	Q14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려 한다.
	Q15	약속을 잘 지키고 성실히 행동하려 한다.
리더십	Q16	나는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다.
	Q17	집단 내에서 조화를 이끌고자 노력한다.
	Q18	구성원 간 의견을 조정하고 의사결정을 주도한 적이 있다.
	Q19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려 한다.

15) 이진화·이진솔,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과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효
능감 연구」, 『영어학』 18권 2호, 한국영어학회, 2018, 249-250쪽.
16) 권다남·배예나, 「대학생의 경험학습·협력학습·탐구학습 척도 개발 연구」, 『교육
혁신연구』 34권 3호, 교육발전연구소, 2024, 271쪽.
17) 최미숙,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이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권 8호, 한국산학기술학
회, 2019, 446쪽.

창의 교과 교양 수업에서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들의 참여도의 매개효과에 근거하여 | 김병선

	Q20	리더로서 팀원들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도우려 한다.
학습자 참여도	Q21	나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Q22	수업 외 시간에도 과제를 위해 조원들과 소통했다.
	Q23	조별 활동에서 나는 맡은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
	Q24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발적으로 복습하거나 탐색했다.
	Q25	수업 시간에는 집중하여 활동에 몰입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학생 참여도가 단순한 수업 참여 수준을 넘어서, 핵심역량 간 인과적 구조를 매개하는 중추 변수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자기 주도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핵심역량이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은 예비 문항 작성 후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구체적으로, 교육심리 및 교육평가 전공 교수 2인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절성과 명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검토는 수정된 델파이(Delphi) 기법을 활용하여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익명 의견 수렴과 피드백 반영 과정을 통해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5) 자료 수집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으며, Pearson의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협력 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학습자 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1)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협력학습, 창의성, 인성, 리더십, 학습자 참여도 등 주요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각 변인의 평균값은 모두 4.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참여도($M = 4.20$)와 인성($M = 4.18$)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성숙한 태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모든 변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0.8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들이 내적 일관성이 우수하고, 심리, 교육학적 속성 측정에 적절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수행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기초자료로서의 적합성을 뒷받침한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변수	문항수	평균(M)	표준편차(SD)	신뢰도 (Cronbach's α)
협력학습	5	4.12	0.45	0.89
창의성	5	4.05	0.50	0.91
인성	5	4.18	0.42	0.88
리더십	5	4.10	0.47	0.90
참여도	5	4.20	0.43	0.92

2) 상관관계 분석

Pearson 상관분석 결과, 협력학습은 창의성($r = .62, p < .001$), 인성($r = .58, p < .001$), 리더십($r = .65, p < .001$), 그리고 학습자 참여도($r = .70, p < .001$)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참여도($r = .70$)와의 상관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협력학습 경험이 학습자의 수업 몰입이나 주도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협력학습은 핵심역량 요소인 창의성, 인성, 리더십과도 각각 높은

창의 교과 교양 수업에서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들의 참여도의 매개효과에 근거하여 | 김병선

상관을 보인다. 이는 협력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 공유, 사회적 책임, 역할 수행 경험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는 협력학습이 단일 교수 전략을 넘어 전인적 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됨을 뒷받침하며 이후 수행될 구조방정식 분석의 이론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주요 변수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협력학습	창의성	인성	리더십	참여도
협력학습	1	0.62**	0.58**	0.65**	0.70**
창의성		1	0.55**	0.60**	0.60**
인성			1	0.57**	0.57**
리더십				1	0.63**
참여도					1

** $p < .001$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협력학습이 참여도를 매개로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모형은 양호한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CFI = .95, TLI = .93, RMSEA = .05). 이는 연구모형이 관측된 자료에 비교적 잘 부합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협력학습은 학습자 참여도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 = .70, p < .001$), 참여도는 각각 창의성($\beta = .60, p < .001$), 인성($\beta = .57, p < .001$), 리더십($\beta = .63, p < .001$)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학습이 학생들의 핵심역량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참여도는 이 관계를 매개하는 핵심 경로로 작용함을 실증적으로 입증한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학습 활동이 단순한 참여를 넘어 학생들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리더십 발현의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적용한 PBL 기반 협력학습은 실제 문제해결 중심의

과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과제의 주도권과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리더십 역량을 자연스럽게 강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도는 리더십 발현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단순한 교실 참여 이상의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창의성, 인성, 리더십 간 경로계수가 모두 .57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은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협력학습이 단일 역량이 아닌 전인적 성장 요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지닌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협력학습의 효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본 연구가 설정한 구조모형의 타당성을 지지한다. 상세한 경로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경로	표준화 계수(β)	P 값
협력학습 → 참여도	0.70	<.001
참여도 → 창의성	0.60	<.001
참여도 → 인성	0.57	<.001
참여도 → 리더십	0.63	<.001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PBL 협력학습에 기반한 창의 교과 교양 수업이 대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리더십 역량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학습자 참여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협력학습은 대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리더십과 같은 핵심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관계에서 학습자 참여도는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협력학습이 직접적으로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도가 다시 전인적 역량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협력학습이 학습자의 정의적, 인지적 특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교수 전략임을 시사한다. 특히 참여도는 단순한 수업 참여의 수준을 넘어 역량 중심 교육 성과를 실현하는 결정적 변수로 기능함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는 교양 수업에서 협력학습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 환경이 대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협력학습은 학습자 참여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0, p<.001$). 이는 협력학습이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Johnson & Johnson(2017)의 연구에서 협력학습이 학습자의 참여와 몰입을 증진시킨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둘째, 학습자 참여도는 창의성($\beta=0.60, p<.001$), 인성($\beta=0.57, p<.001$), 리더십($\beta=0.63, p<.001$)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역량의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특히, 학습자 참여도가 높을수록 창의적 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리더십 발휘 등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은이(2010)의 연구에서 학습자의 참여도가 창의성과 인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부합한다.¹⁸⁾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협력학습이 학습자 참여도를 통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18) 정은이, 「리더십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이론과 창의적 리더의 대학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권 2호,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10, 135쪽.

는 학습자 참여도가 협력학습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즉, 협력학습이 직접적으로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학습자 참여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서 학습자 참여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영주와 고경이(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통해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학생 참여도가 단순한 수업 참여 수준을 넘어서, 핵심역량 간 인과적 구조를 매개하는 중추 변수로 기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핵심역량이 실질적으로 연계되고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창의성, 인성, 리더십이 단편적 역량이 아닌 상호 촉진적 역량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교양교육 설계에 있어 역량 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양 교과 수업에서 PBL에 기반한 협력 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편성 시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하여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조장 역할을 순환시켜 모든 학생이 리더십을 경험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교양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대학과 전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매개변수를 고려한 연구를 통해 협력학습의 효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수전략(예를 들면, 코칭기반 학습, 블렌디드 러닝)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참여도의 매개효과를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창의 교과 교양 수업에서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들의 참여도의 매개효과에 근거하여 | 김병선

있다. 이와 함께 성격, 성별, 학업 성취도 등 학습자의 개인차 변인을 고려한 후속 연구는 참여도의 역할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권다남·배예나, 「대학생의 경험학습·협력학습·탐구학습 척도 개발 연구」, 『교육혁신연구』 34권 3호, 교육발전연구소, 2024, 261-287쪽.
- 김병산·이준길, 「은유 분석을 통한 대학생들의 소그룹 활동 인식 연구」, 『교사교육연구』 62권 4호, 부산대학교과학교육연구소, 2023, 439-450쪽.
- 김선주, 「협업에 관한 대학생의 인식 연구」, 『교양교육연구』 12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11-37쪽.
- 김세경, 「대학생의 협력학습역량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5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 746-754쪽.
- 김효원, 「협력학습에서 여대생의 창의적 인성과 창의적 문제해결 간의 관계: 협력적 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창의적교육연구』 16권 4호, 한국창의력교육학회, 2016, 139-154쪽.
- 김혜진·염명숙, 「독서와 토론 교양 수업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양교육연구』 8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4, 513-540쪽.
- 윤정진·김경은·윤미승·장재진, 「대학생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창의인성 융복합교육에 관한 기초연구」, 『교양교육연구』 15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11-28쪽.
- 이진화·이진솔, 「영어과 예비교사들의 창의역량과 창의교육에 대한 인식 및 효능감 연구」, 『영어학』 18권 2호, 한국영어학회, 2018, 239-259쪽.
- 임경수, 「대학생의 능동적·협력적 학습경험, 교수-학생 상호작용, 역량향상 간의 구조적 관계」,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6권 6호,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2, 1052-1064쪽.
- 류현숙·김지영,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비판적 사고성향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9권 1호,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22, 42-51쪽.
- 이정옥·신혜원, 「성찰일지를 통해 살펴본 협동학습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6권 4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24,

창의 교과 교양 수업에서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이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대학생들의 참여도의 매개효과에 근거하여 | 김병선

55-67쪽.

임혜원,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소집단활동 운영 방안」, 『교양교육연구』 17권 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227-238쪽.

정은이, 「리더십에 대한 대학생들의 암묵적 이론과 창의적 리더의 대학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권 2호,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10, 135-162쪽.

주영주·고경이, 「협력학습에서 성취동기, 교수학습 질, 학습접근방식, 학습자간 상호작용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6권 3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85-103쪽.

최미숙, 「대학생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이 인성과 자아존중감 및 리더십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권 8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441-448쪽.

최성용·최지연, 「운영관리 과목에 팀 기반 학습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증진 효과에 관한 연구」, 『상업경영연구』 30권 6호, 한국상업경영학회, 2016, 1-23쪽.

D. W. Johnson & R. T. Johnson. *Learning together and alone: Cooperative competitive and individualistic learning*, Boston, MA: Allyn & Bacon, 1999.

J. Biggs. "From theory to practice: A cognitive systems approach", *Higher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vol. 12, 1999, pp.73-86.

■ 국문초록

본 연구는 PBL에 기반한 협력학습이 대학생들의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학습자 참여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 1학기 강원도 소재 대학의 교양 교과목 ‘창의는 흐른다’ 수업에 참여한 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업은 문제기반학습(PBL)을 기반으로 한 협력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도구로는 협력학습, 참여도, 창의성, 인성, 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한 5점 Likert 척도의 설문 문항이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과 AMOS 24.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력학습은 참여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도는 창의성, 인성, 리더십에 각각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학습자 참여도가 협력학습과 핵심역량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협력학습이 대학 교양교육에서 전인적 역량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참여도를 고려한 교수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 협력학습, 참여도, 창의성, 인성, 리더십, 구조방정식 모형

■ Abstract

The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Based on PBL in a Creativity-Based Liberal Arts Course on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Character, and Leadership : Ba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Engagement

Kim, Byungsun /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based on PBL on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character and leadership,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student engagement in these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were 51 students enrolled in the liberal arts course Creativity Flows, offer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25 at a university in Gangwon Province. The course was structured around problem-based learning and cooperative learning activities. Survey instruments were developed to assess cooperative learning, engagement, creativity, character, and leadership to show that each instrument used the scal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6.0 and AMOS 24.0,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findings revealed that cooperative learning significantly influenced student engagement, subsequentl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reativity, character, and leadership. Furthermore, the SEM results confirmed the mediating effect of eng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operative learning and core competencies. This study highlights the potential of cooperative learning as an effective pedagogical strategy in liberal arts education to foster holistic development,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student engagement into instructional design.

**Keyword • Cooperative Learning based on PBL, Engagement, Creativity,
Character, Leadershi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논문투고일:2025.05.26. ■ 심사완료일:2025.07.08. ■ 게재확정일:2025.07.08. ■

교과목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삶”의 개설 의미와 강의 진행 결과 분석

이 정 환*

목 차

1. 서론
2. 강의 진행방법과 강의 내용 검토
3. 토론 내용
4. 발표 내용
5. 강의 결과 분석
6.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 2024년 대학 내 4차산업 관련 새로운 강의를 개설하는 과정과 실제 수업을 통한 적용, 도출된 결과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교과목 개설 의미와 목표를 알아보고 강의 내용과 설문 분석을 통해 교과목의 장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교과목 개설 의미와 필요성

현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제는 더 이상 새롭지 않을 정도로 보편적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 배재대학교 중점교육부 부교수

기술이 융합되는 것이 핵심 목표이며,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을 내다 본다.¹⁾ 2020년에 유행한 코로나는 우리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대해 거부감이 없다. 학교에는 원래 온라인 수업이 있었으나 전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학교 당국을 비롯한 교수자나 학생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우리는 당황했고 적응해야만 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우리들의 삶에 대한 방식을 강제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전 세계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다. 온라인이라는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세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기업의 경우 집에서 근무하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학교에서 수업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잠시나마 전 세계가 온라인이라는 세계로 연결된 순간이었다. 그 여파로 지금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일부 기업의 경우 여전히 재택근무를 선호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때 잠시나마 4차 산업혁명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 4차 산업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4차 산업은 무엇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여러 가지 궁금증과 불안감이 동시에 다가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양과목으로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과목개설은 적절한 것일까?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처음에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처럼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나 기업 혹은 국가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패권의 중심에 4차 산업이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미중의 갈등은 앞으로 누가 먼저 4

1) 정 민,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성장 원동력으로』, 현대경제연구원, 2016, 9쪽.

차 산업을 선점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것임을 보여준다. 때문에 미중은 서로 양보하기 어렵고, 그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우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4차 산업에 집중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미래세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는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양교과목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교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관련 산업을 학습함으로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2024년 1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인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삶"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제 강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먼저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 강의 계획서와 실제 수업에서 적용된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이론적인 부분을 강의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비교 검토할 것이다. 실제로 적용되는 강의 내용은 강의 계획서 내용과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강의 진행 방법과 강의 내용 검토가 주가 될 것이다. 둘째, 설문을 통해 수업의 강의 내용과 방법을 분석한다. 설문을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짚어보고 수업의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나은 수업이 될 수 있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강의 진행방법과 강의 내용 검토

1) 이론적인 모색과 고민

주지하다시피 코로나는 교육현장에서 수업 형태를 급속하게 변화시

켰다. 일부 수업에서 선도적으로 시도되었던 수업 방식이 보편화 되며,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과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문제 중심(PBL, Problem Based Learning) 수업, 프로젝트 기반(PBL, Project-based Learning) 등의 교수법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²⁾ 본격 논의에 앞서 교수법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교수법은 크게 전통적인 교수법과 새로운 교수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교수법의 특징은 수업을 가르치고, 자료를 제공하고, 과제와 테스트를 통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 새로운 교수법인 거꾸로 하는 수업(플립드 러닝)은 수업 전에 주제에 대한 자료(비디오 포함)을 보거나 읽고 검토하고,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고, 리서치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교실에서 토론이나 다양한 형태의 수업에 참여한다. 플립러닝의 경우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좋지만, 미리 수업 자료를 보지 않고 참여할 경우 학습 참여가 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한국의 학생들에게 환영받는 교육법과는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다.³⁾

이처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학습법이 개발되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상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플립러닝이 그중의 하나인데 미리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널리 알려진 미네르바 학교의 경우도 일종의 플립러닝 학습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학생이 미리 학습을 해오지 않을 경우 예상과

2) 수업디자인연구소 - 미래형 수업의 담론, <https://eduhope88.tistory.com/420>, 2024.06.19.

3) 이동엽,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설계모형 탐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85-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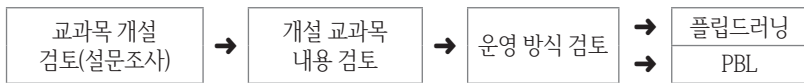
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본 교과목은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우리 학교에 맞는 학습법이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하나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1) 학습 모델 검토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삶” 교과목을 개설하면서 프로젝트기반 학습과 플립드 러닝 특징을 살펴보고 혼용된 학습 방법 검토해보기로 했다.

[표1] 교과목 검토와 운영 방식



①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의 기본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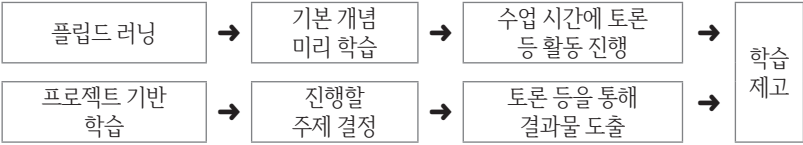
전통식 방식은 교실에서 강의 후 숙제로 심화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플립드 러닝은 강의 전에 미리 강의 내용을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 토론, 프로젝트 기반 학습, 실험 등 활동 중심으로 학습을 심화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플립드 러닝의 강점은 학생 중심의 학습과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이 가능해져 학습의 깊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계획하는 태도를 배우게 된다.

②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d Learning) 학습 개념

PBL 학습 방법은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문제를 탐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학습하는 것으로 실제적 문제 중심, 학습자 주도, 팀워크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택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특징에 주목하였다. 여기에는 당연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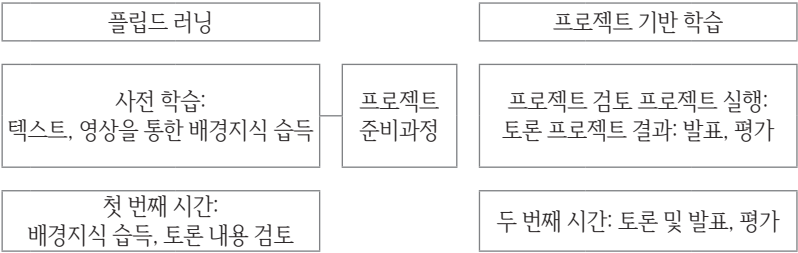
[표 2] 운영 방식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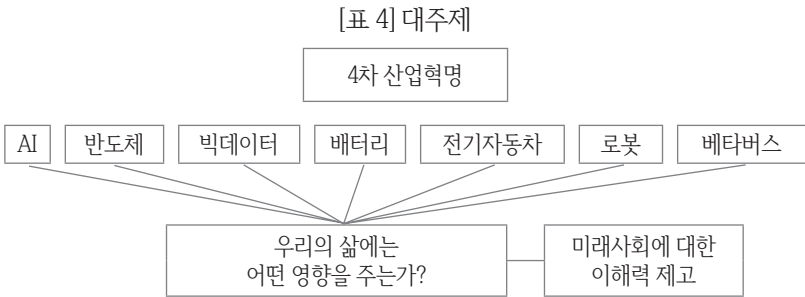
③ 플립드 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 적용 모색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삶” 교과목 주제는 커다란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큰 프로젝트 주제 안에 실천할 각각의 프로젝트가 설정된 구조로 되어 있다.

[표 3] 운영 방식 적용 방안



[표 3]은 플립드 러닝과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본 교과목에 적용한 모델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토론과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서 토론 전에 사전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 학습이란 말 그대로 강의 전에 하는 것을 의미하나 본 교과목의 특성상 수업 시간을 나누어 한 번은 사전 학습 형식으로, 또 한 번은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즉 첫 번째 시간은 플립드 러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시간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토론 주제는 학생들이 정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이 큰 주제이고, 그 아래 AI, 전기차 등의 작은 주제를 두어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2) 구체적인 내용과 토론

[표 5] 주제(PBL 적용) 선정과 토론(플립드 러닝 적용)

AI	AI의 개념, 발전상황, 사회속의 AI 등에 대해 학습
	AI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토론 진행 예) 사라질 직업, 연관된 산업
AI 관련기업	대표적인 관련 기업 학습-이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미국, 중국, 한국, 유럽, 일본 등의 AI에 대한 투자, 준비, 비용 등에 대해 학습
	관련 기업에서 적용한 AI에 대해 학습-예) 챗GPT, 제미나이, 생명공학, 자동차, 로봇 등
반도체	반도체의 개념, 종류
	AI와 반도체의 관계
반도체와 AI	관련 기업
	AI에서 반도체는 왜 중요한가? 관련 기업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AI
	AI에서 빅데이터는 왜 중요한가? 관련 기업의 현황 조사

배터리	배터리와 환경문제, 배터리와 전기차, 배터리와 AI
	배터리의 주요 재료, 삼원계와 LFP의 차이, 전고체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와 AI
	자율주행과 AI, 관련 기업 현황
로봇	로봇과 AI
	로봇의 가능성, 생명공학과 로봇, 관련 기업 현황
메타버스	메타버스와 현실세계, 블록체인 기술
	가상세계를 이용한 치료, 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신재생 에너지, SMR	에너지공급문제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원전은 안전한가? 원전과 재생에너지 단가 비교

2) 강의 내용 검토

(1) 강의 방법

앞에서 이론적인 모색과 고민을 통해서 여러 수업 방법을 살펴보았다. 실제 강의에서는 여러 교육법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⁴⁾

수업에 적용한 교수법은 1주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해당 주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앞에서 다룬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4) 조원 구성(27명)은 다음과 같다. 1조(3명): 김민(2) 게임공학, 김예린(4) 행정학, 김세욱(4) 정보통신공학/ 2조(5명): 박종혁(2) 게임공학, 서성진(2) 심리상담학, 박시온(2) 게임공학, 우소용(4) 국어국문한국어교육, 신현우(2) 웹툰학부/ 3조(5명): 이성표(3) 철도건설공학, 윤동민(3) 사이버보안학, 이성민(4) 드론로봇공학, 이성규(3) 원예산림학, 윤찬식(4) 사이버보안학/ 4조(4): 이용빈(3) 경찰법학, 이재훈(2) 전기공학, 장호준(4) 원예산림학, 장원준(2) 전자공학/ 5조(6명): 최영준(3) 무역물류경영학, 최해로(4)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 홍민규(3) 신소재공학, 전동석(2) 드론로봇공학, 이찬희(1) 일본학, 전대호(2) 전자공학/ 6조(4명): 홍성환(4) 본건의료보건학, 김시우(3) 중국통상학, 송하영(4) 사이버보안학, 최주희(4) 일본학.

진행했으며, 보고서로 그 결과를 확인했다. 보고서 검토는 첫 번째 시간에 간단한 토론을 통해 진행했다. 토론의 큰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세부적인 토론 내용은 스스로 정하도록 했다.

토론과 보고서는 6개 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토론은 대부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조원 중에 결석이 발생하거나 참여도가 낮은 등 토론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평가는 중간고사, 토론, 발표로 구성하였다. 발표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안에서 자유롭게 정했고, 수업의 기본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플립드 러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2) 강의계획서 내용

[표 6] 주차별 강의 주제

주차	내용
1	오리엔테이션
2	AI
3	AI와 사물인터넷
4	반도체
5	반도체와 AI
6	빅데이터, 빅데이터와 AI
7	배터리
8	중간고사
9	배터리, 전기자동차
10	전기자동차와 AI
11	로봇
12	로봇과 AI
13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14	신재생에너지, 소형원자로, 핵융합
15	기말고사-발표

(3) 강의 주제에 따른 문제의식

다음은 강의와 토론할 문제의식에 대한 내용이다.

① AI

AI는 디지털 시대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AI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 정도이다. 디지털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디지털 생태계는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다. CPU와 메모리 등이 대표적이다. 메모리는 0과 1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다. 디지털 혁명의 특징은 정보와 통신의 자유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 많은 나라들이 AI시대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 그런가?

디지털 혁명과 AI혁명은 어떻게 다른가?

AI는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것으로 후에는 인간의 뇌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생성형 AI가 대표적이고 여기서 다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등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라질 직업군도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AI시대를 맞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반도체, 전기.

AI와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② 반도체

반도체는 AI시대에서 어떤 존재인가? 왜 우리는 반도체를 알아야 하는가? 반도체가 들어있지 않은 전자 제품은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전자 제품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반도체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나? 반도체를 구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HBM의 사용에 따라, AI가 고도화하면서 전기와 반도체가 소모되고 발열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며, 발열 문제는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한다.

AI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GPU는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HBM이 필수적이다. HBM은 현재 SK가 선두에 나서며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은 브로드컴과 AMD와 연계하며 엔비디아에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③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AI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미국이 가장 앞서있고, 유럽, 중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앞다투어 데이터 센터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터 센터가 없다면 AI시대로 진입하지 못할 것이다. 데이터 센터에는 고성능의 칩, 즉 반도체가 들어간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의 GPU이고 SK나 삼성의 HBM이다. 문제는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운용하는데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전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도 데이터 센터 건립의 큰 걸림돌이다.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발열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으로는 발열을 잡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칩 설계가 있다. 한국의 퓨리오사 같은 경우 엔비디아에 비해 전력 손실이 1/4 정도로 알려져 있다.

④ 배터리

최근 배터리는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면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배터리의 응용분야는 자동차, 비행기, 로봇 등등 무궁무진하다. 특히 충전해서 사용하는 2차 전지의 응용 범위는 자동차에서 ESS까지 매우 넓게 퍼져 있으며 앞으로 성장세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즉 2차 전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배터리는 크게 한국에서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삼원계와 중국의 LFP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삼원계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면 인산철(LFP)은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 LFP는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많은 자동차 기업이 원하는 편이다. 배터리의 큰 문제는 폭발성이다. 충돌할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가 일어나기 쉽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 그리고 폭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⑤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활약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삼원계든 인산철이든 혹은 수소든 전기가 있어야만 자동차가 움직인다. 전기차는 AI와 결합하여 완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 자율주행이 가장 앞선 나라는 어디일까? 한국, 일본,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자율주행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⑥ 로봇

최근 각종 매체나 지면을 보면 어렵지 않게 로봇과 관련된 소식을 접하게 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4년간 약 31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물가와 인건비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를 감행한 이유는 미국의 소비를 높게 보기 때문이지만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이기도하다. 즉 전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를 최소화한 것이다. 따라서 로봇에는 AI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집마다 냉장고처럼 로봇이 필요한 시대는 머지 않았다.

⑦ 메타버스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것은 코인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렇다. 비트코인에 적용된 기술은 블록체인인데, 현재의 기술로는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화폐를 만들려고 한다. 디지털 화폐는 중앙이 통제하는 것인데, 원래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설정하고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 또 메타버스는 웹툰에서 다루는 게임 속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세상을 구현하게 될 것이다. 가상세계가 또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다. 가상세계를 통해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현실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⑧ 신재생에너지

AI시대가 도래하면서 전 세계는 전력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환경파괴에 따른 기후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SMR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고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광처럼 그 비용이 저렴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상 풍력이나 수소를 이용한 발전소도 주목받고 있다.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전력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구나 우주에 존재하는 자기력을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토론 내용

토론은 6조로 나누어 10차례 진행하였다. 다음은 5조를 중심으로 정리한 보고서 요약본이다.

1차 토론 주제: AI의 장점과 단점 및 4차산업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미래와 변화

최영준	장점 1.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 (여가시간 확보) 2.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교육용 시스템 가능 3. ai를 이용한 교육용 시스템 제작 가능 (인간에 비해 객관적 교육이 가능) 단점 1. ai를 고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2. 아직 상용화가 덜 된 단계라 사용하기에는 이른 느낌이다.
최혜로	장점 1. 단순 노동력을 ai가 대체 할 수 있다. 단점 1. 너무 많은 ai의 대체화로 사람의 사고를 유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2. 개인정보 유출이 쉽게 진행 될 수 있다. 3.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
홍원규	장점 1. ai가 대신 일을 대체하여 그 시간 동안 본인의 시간 확보. 2. 스마트 홈 기능으로 외부에서 가스와 전기를 통제할 수 있어 안전에 더 좋은 영향을 준다. 3. 자동차 자동 전·후진 기능으로 장어진 혹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쉽게 탑승 가능. 단점 1. 너무 많은 일을 ai가 하여 사회초년생들의 일자리 박탈. 2. 전문가조차도 ai가 일을 대신하여 임금이 줄어듦. 3. 스마트 홈 기능이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전동석	장점 1. 목소리 ai를 통해 고인의 목소리 재구성을 통해 유족분들에게 그리움을 달랠(옛날에 돌아가신 가수 노래도 재구성 가능) 2. ai 선생님과 인간 선생님의 협동으로 인한 더욱 좋은 교육 시스템 기획 가능. 3. ai의 자체적인 인터넷 제작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자료 수집 및 정보를 토대로 한 인터넷이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 검색 가능. 4. ai 교육 프로그램을 시스템 구축하여 모든 ai가 세대 갈등을 보완할 수 있음. 단점 1. 목소리 ai의 딥페이크 기능을 사용한 피싱 범죄 발생.
이찬희	장점 1. 특정 산업에서는 ai를 100% 활용 가능한 분야가 생기고 있다. 단점 1. ai가 보안에 취약할 수 있고 악의적인 사용으로 산업 스파이로 사용 가능성 2. 유튜브에서는 100% 활용한다 해도 일부 산업에서는 활용하기에는 아직 이른다. 3. ai가 버전마다 다르듯 ai에서 세대 차이가 날 수 있다. 교육용으로 쓰기에는 어떤 ai를 쓰냐에 따라서 교육 정도도 각기 다르다.

[그림 1] 1차 5조 활동 요약본

3차 토론 주제: 국외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대하여

최영준	- 엔비디아의 GPU는 AI에서 핵심적인 반도체이다. 우리나라도 비메모리 분야에서 외국 기업을 참고해서 부족한 점을 보강해야 한다. - 일본의 라피더스의 성장에 있어서 TSMC라는 대만 반도체 업체가 삼성을 견제하기 위해서 힘을 쓴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최해룡	- 메모리 반도체에 AI에 클라우드 기능을 이용하여 AI가 클라우드의 업무 분산을 통해 대량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2023년 3분기 CINNO 리서치에 따르면 Top 1 네덜란드 아스마이어 (ASML), Top 2 미국 응용재료 (AMAT), Top 3 미국 범람 (LAM), Top 4 일본 : Tokyo Electron (TEL), Top 5 미국 커레이(KLA)의 형태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 외국 기업 중 인텔은 유연한 제품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 주문형칩 시장을 활성화하고 패키지 기술의 혁신과 응용력의 확장은 반도체업종의 광활한 발전 전망을 높인다.
홍진규	-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메모리 사업은 확연히 차이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메모리에서는 1등을 달리고 있지만 비메모리에서는 인텔의 CPU, MSI의 메인보드를 뛰어넘을 수 없고 아직은 가성비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들을 해결한다면 우리나라도 외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전동석	- 라피더스에서 AI를 들여오면서 삼성의 대규모 생산이 아닌 소규모 및 한정 생산으로 외국 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은 지난 삼성에서 SSD 및 메모리의 초반에 한정 생산과 비슷한 체제를 이룬다. 하지만 라피더스도 상용화나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굳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소량 생산을 계속 밀지는 않을 것이다. - 라피더스는 삼성과는 달리 대규모 물량 수주 방식에서 소규모 생산과 품질의 질을 높여 틈새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에 첨단 칩 양산에 성공하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일본만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 일본에서 라피더스는 일본 반도체의 희망이며 2027년에는 무려 2나노미터의 공정을 목표로 제시하며 여러 기업으로부터 흥미와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
이찬희	- 현재 알리나 아마존에서 신생 기업을 투자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은 엔트로픽이다. - 실제로 소규모 신생 기업에서 AI 반도체 생산에서 엔비디아 보다 약 6분의 1정도 저렴하게 만들어 낸 반도체 품목도 존재한다.
전대호	- 라피더스의 소규모로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방식은 일본의 문화적 특징과 관계되어 있다. - 라피더스 일본 기업은 외국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뜨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에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심지어는 소니나 토요타 등 일본내 기업에서 협업을 이루고 있고 국외 기업인 미국에서도 투자를 유치하며 협업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 TSMC와 라피더스의 협업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삼성의 메모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 라피더스가 소규모 생산에는 한정 생산에도 매력트가 있다. 한정 생산을 함으로써 가격을 올리고 그점에서 충분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림 3] 3차 5조 활동 요약본

10차 토론 주제: 메타버스, 블록체인(비트코인)

최영준	- 네이버 제페토는 증강현실을 접목한 아바타 서비스. <u>마켓플레이스</u> 플랫폼, 소셜미디어 기능, 게임과 이벤트 공간(월드) 4가지 <u>컨텐츠</u>를 갖추고 있다. - 제페토의 한계에는 월드 내에 <u>최대 인원</u> 수용자가 한계가 있으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도 매우 적다. - 그나마 최대 수용자를 늘린 <u>크루</u>라는 공간은 최대인원이 4900명이지만 채팅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 제페토 내 캐시가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바타 외상 제작이나 아이템 <u>모네타링</u> 등 다양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 - 제페토의 익명성으로 이상한 사진이나 채팅이 늘어나고 있다.
최해로	메타버스 장점. - 사람들 사이의 융합. - 기회와 도전 제공. - 사회의 발전과 진보 촉진 기여. - 탐구심화된 경제 체제. - 안정성이 <u>높다</u>. 메타버스의 단점 - 안전 문제. - 사회 문제. - 중독성.
홍인규	-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앙 데이터 장치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를 서로에게 공유함으로써 거래를 할 수 있게 마련한 장치이다. - 이후 나온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로 정보 공유 범위를 일부 사용자에게 한정하면서 이를 이용한 금융 범죄나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 블록체인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가상 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거래를 할 때 정부가 개입하여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u>검은 돈</u>일 경우 환전해주지 않는 방식이 있다. - <u>검은 돈</u>의 출처를 우회하기 위하여 가상 화폐를 여러 번 분할하여 유통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정부의 눈을 속이는 방식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
전동석	- <u>불량</u>
이찬희	- 메타버스가 한참 인기일 때 수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의 단어를 이용한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가 매우 많았다. - 가상현실에만 너무 의존한 메타버스가 너무 많이 생겨나고 있으며 진정한 의미의 메타버스에 대한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 국내에서 투자한 메타버스나 젤버리에 투자한 메타버스에서의 초창기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u>만고</u> 인기가 유지되지 않고 초반에만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대호	- 비트코인은 기존에는 정부를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u>구입</u>이 가능한 방식이었지만 ETF의 방식을 통해 주식을 통한 <u>구입</u>이 가능해지고, <u>구입</u> 방식이 더욱 편해지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 비트코인에 4년마다 반감기가 오면서 노동력 대비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차 상승하였다. - 금융시장에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이용률이 늘어나고 비트코인의 가치도 덩달아 상승하였다.

[그림 4] 10차 5조 활동 요약본

첫 번째 토론 주제는 AI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AI와 관련해서 자동화, 사라질 직업, 자율주행, 스마트홈, 스마트팜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궁금해하며 토론해 임했다.

5조의 경우 학생A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분야를 맡아 조사할지 정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좋아 보였다. 미리 조원의 책임자를 정해 둔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토론 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3조의 경우 다른 조에 비해서 보고서 제출이 가장 빨랐다. 5조는 토론에서도 적극적이었지만 보고서 내용도 매우 충실했다. 2조의 경우도 토론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보고서 내용도 충실했다. 그 외 4, 5조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으나 일부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조는 1조와 6조였다. 같은 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자주 결석하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토론도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조원들의 구성은 전공학과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나 살펴본 바에 의하면 큰 차이는 없었다. 오히려 전공과 상관없이 관심 여부에 따라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토론 및 발표 등이 양호했다.

4. 발표 내용

발표는 보고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6개 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도록 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조.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그림 5] 1조 발표내용

교과목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삶”의 개설 의미와 강의 진행 결과 분석 | 이정환

2조.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	메모리 반도체 (Memory Semiconductor)	비메모리 반도체 (Non-memory Semiconductor, System Semiconductor)																								
• 용도 : 정보 저장 • 종류 : DRAM, SRAM, NAND 플래시 • 집 구조 : 상대적으로 간단함 • 생산적 특성 : 소용량 대량생산 •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 미세 선경계, 양산능력 (하드웨어 측면) • 경쟁력 : 선형기술의 개발, 자본, 설비 • 시장점유율 : 30~40%	RAM (Random Access Memory) • 용도 : 컴퓨터의 주보 역할을 하며, 정보를 저장하고 실행 • 특징 :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저장하고 빠르게 접근 할 수 있게 되었다. • 종류 : DRAM, SRAM, NAND 플래시 • 생산적 특성 : 소용량 대량생산 •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 : 미세 선경계, 양산능력 (하드웨어 측면) • 경쟁력 : 선형기술의 개발, 자본, 설비 • 시장점유율 : 30~40%	<table><tr><th></th><th>CPU</th><th>AP</th><th>DDI</th><th>CIS</th></tr><tr><td>• 용도</td><td>컴퓨터의 주보 역할을 하며, 정보를 저장하고 실행</td><td>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td><td>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역할</td><td>보통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이미지로 디지털화하는 역할</td></tr><tr><td>• 특징</td><td>클럭 속도, 코어 수, 캐시 메모리 용량에 따라 성능이 결정</td><td>CPU, GPU,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합하여 성능을 결정</td><td>해상도, 색상 표현, 전력 효율성 등이 중요</td><td>해상도, 감도, 전력 소비 등이 중요</td></tr><tr><td>• 제조사</td><td>Intel, AMD, ARM 등</td><td>Qualcomm, Samsung, Apple 등</td><td>삼성, LG, Novatek 등</td><td>Sony, Samsung, OmniVision 등</td></tr></table>		CPU	AP	DDI	CIS	• 용도	컴퓨터의 주보 역할을 하며, 정보를 저장하고 실행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역할	보통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이미지로 디지털화하는 역할	• 특징	클럭 속도, 코어 수, 캐시 메모리 용량에 따라 성능이 결정	CPU, GPU,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합하여 성능을 결정	해상도, 색상 표현, 전력 효율성 등이 중요	해상도, 감도, 전력 소비 등이 중요	• 제조사	Intel, AMD, ARM 등	Qualcomm, Samsung, Apple 등	삼성, LG, Novatek 등	Sony, Samsung, OmniVision 등				
	CPU	AP	DDI	CIS																						
• 용도	컴퓨터의 주보 역할을 하며, 정보를 저장하고 실행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역할	보통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이미지로 디지털화하는 역할																						
• 특징	클럭 속도, 코어 수, 캐시 메모리 용량에 따라 성능이 결정	CPU, GPU, 메모리 컨트롤러를 통합하여 성능을 결정	해상도, 색상 표현, 전력 효율성 등이 중요	해상도, 감도, 전력 소비 등이 중요																						
• 제조사	Intel, AMD, ARM 등	Qualcomm, Samsung, Apple 등	삼성, LG, Novatek 등	Sony, Samsung, OmniVision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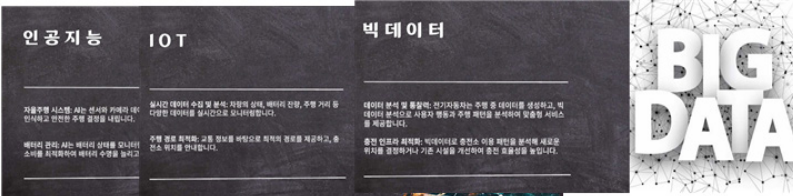
[그림 6] 2조 발표 내용

3조. 딥페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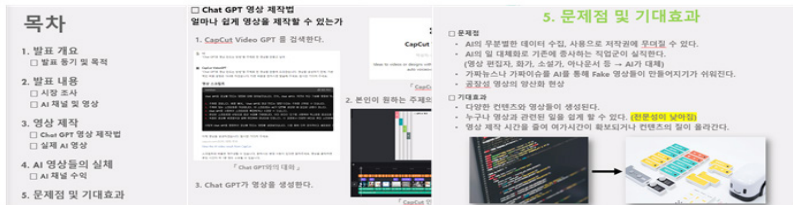
[그림 7] 3조 발표 내용

4조. 전기차와 4차 산업혁명



[그림 8] 4조 발표 내용

5조.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한 영상제작



[그림 9] 5조 발표 내용

다. 영상을 5분 정도로 할애하고 나머지는 직접 발표를 진행했으면 더 좋을 것이다. 5조는 챗GPT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AI의 활용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는 발표였다. 6조는 차량용 반도체가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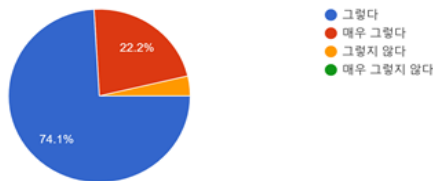
5. 강의 분석 결과

1) 설문 내용

설문은 모두 10문항으로 진행되었으며 27명이 참여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② AI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였다. ③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해하였다. ④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하였다. ⑤ 배터리 산업에 대해 이해하였다. ⑥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해 이해하였다. ⑦ 로봇 산업에 대해 이해하였다. ⑧ 메타버스에 대해 이해하였다. ⑨ 토론 및 발표 수업 방식은 어떠했나? ⑩ 수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적어 주세요.

2) 설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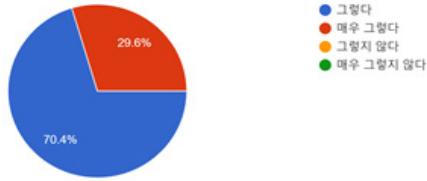
1. 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응답 27개



[그림 11] 4차 산업혁명 이해 문항 결과

수업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부분은 그렇다 74.1%, 매우 그렇다는 22.2%로 나와 96.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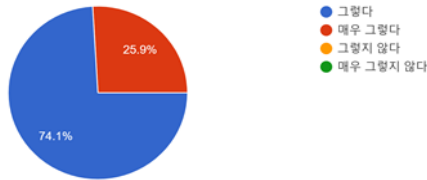
2. AI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였다
응답 27개



[그림 12] AI에 대한 문항 결과

2번 문항에서 그렇다 70.4%, 매우 그렇다 29.6%가 나왔다. 합하면 100%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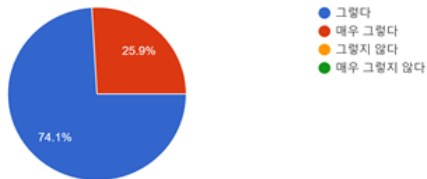
3. 반도체 산업에 대해 이해하였다
응답 27개



[그림 13] 반도체에 대한 결과

3번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부분은 그렇다 74.1%, 매우 그렇다 25.9%가 합치면 100%이 나와 매우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4. 빅데이터에 대해 이해하였다
응답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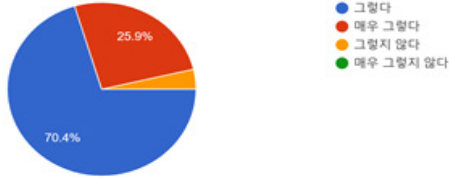


[그림 14] 빅데이터에 대한 문항 결과

4번 빅데이터에서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74.1%, 25.9% 나

와 매우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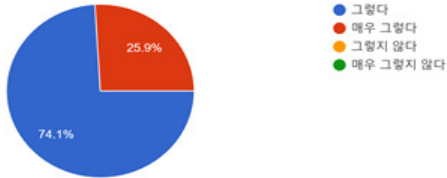
5. 배터리 산업에 대해 이해하였다
응답 27개



[그림 15] 배터리 산업에 대한 문항 결과

5번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70.4%, 25.9%가 비교적 긍정적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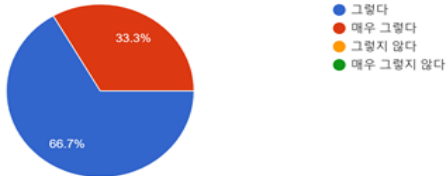
6.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해 이해하였다
응답 27개



[그림 16]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문항 결과

6번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74.1%, 25.9%가 나왔으며 부정적인 경우는 나오지 않았다.

7. 로봇 산업에 대해 이해하였다
응답 2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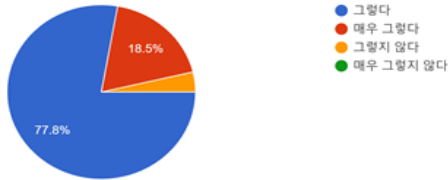


[그림 17] 로봇 산업에 대한 문항 결과

7번 로봇 산업에 대한 설문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66.7%, 33.3%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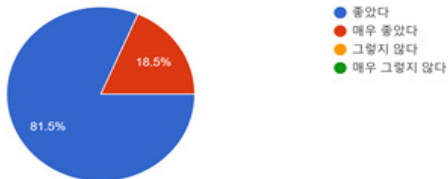
8. 메타버스에 대해 이해하였다
응답 27개



[그림 18] 메타버스에 대한 문항 결과

8번 메타버스에 대한 경우는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77.8%, 18.5%가 나와 합계96.3%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9. 토론 및 발표 수업 방식은 어떠했나?
응답 27개



[그림 19] 토론 및 발표 수업에 대한 결과

9번 토론과 발표 수업에 대한 설문에서는 ‘좋았다’, ‘매우 좋았다’가 각각 81.5%, 18.5%가 나와 토론과 발표 수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번의 경우는 주관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조별 인원수 중에서 결석할 경우 재조정 필요성이나 수업의 난이도를 조정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매주 토론이 어려웠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설문 결과 4차 산업혁명이나 관련 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앞에서 언급한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7] 설문 결과

문항번호	주제	긍정 응답률(그렇다 + 매우 그렇다)
1	4차 산업혁명	96.3%
2	AI	100%
3	반도체 산업	100%
4	빅데이터	100%
5	배터리 산업	96.3%
6	전기자동차 산업	100%
7	로봇 산업	100%
8	메타버스	96.3%

9번 문항은 주제와 관련이 없어 제외하였다.

3) 통계 분석

첫 번째 기술적 통계를 통해 평균 및 표준편차와 긍정 응답 비율을 살펴 볼 수 있다. 평균 및 표준편차에서 각 문항별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수업 주제별 이해도 및 수업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AI 문항(2번)의 평균 점수는 4.3, 표준편차는 0.5로 분석된다.

긍정 응답 비율은 각 문항에서 긍정적 응답(4, 5)의 비율로 계산하면 모든 문항에서 긍정 응답률이 96.3% 이상 나왔다.

두 번째 상관 분석에서는 각 주제에 대한 이해도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관심 분야 간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와 메타버스의 상관계수: $r = 0.75$ (상관 있음).

결론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였으며, 특히 AI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수업 방식(토론 및 발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개선점을 반영하여 조별 활동의 유연성과 수업 난이도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결론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되었다. 일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행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가 교양과목으로 선정되어 한 학기 동안 진행할 수 있었다. 본 교과목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려면 유관 산업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에 필자는 AI,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메타버스, 빅데이터, 로봇 분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다. 처음 시작하다 보니 수업 방식이나 수업 내용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았던 학기였다. 하지만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은 다소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다. 과제가 지나치게 어려우면 쉽게 흥미를 잃게 되어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에 수업 내용의 깊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토론에서 깊이보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변화하는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하였다. 주제가 다양하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학생들은 스스로 조절하며 소통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해결했다. 토론을 거치면서 4차 산업혁명 분야가 학생들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기우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의 설문 결과의 1번과 2번의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3번의 반도체, 4번의 빅데이터, 5번의 배터리, 6번의 전기자동차, 7번의 로봇, 8번의 메타버스 등에서도 각각 100%, 100%, 96.3%, 100%, 100%, 96.3%의 결과가 나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산업 분야를 수업을 통해 잘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인 매주 진행한 토론 및 보고서 작성과 발표의 경우는 문항 9번에서 ‘좋았다’가 81.5%, ‘매우 좋았다’는 18.5%가 나와 매우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주 진행하는 토론과 보고서 작성을 무리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보고서 작성의 경우도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양질의 내용을 다루어서 놀랄 정도였다. 예를 들어 AI와 관련된 발표에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교수를 언급하며 교수자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또 앞으로 반도체 기업이 성장하려면 주문형 칩 생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것도 매우 정확한 관점이었다. 최근 삼성이 고전한 이유 중의 하나가 주문형 칩 서비스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교수자의 강의 내용보다도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발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4차 산업에 대해 교수자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고 넓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설문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산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 한다. 앞으로도 본 교과목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을 이해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기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수업에서 다양한 이론적인 방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후속 작업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다카하시 도루 저, 김은혜 역, 『로봇 시대에 불시착한 문과형 인간』, 한빛비즈, 2018.
- 손현덕, 『손현덕의 구석구석 4차 산업혁명 탐구』, 매일 경제 신문사, 2016.
- 안병태·정화영,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길벗캠퍼스, 2023.
- 정 민, 『2016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성장 원동력으로』, 현대경제연구원, 2016.
- 최재용·김민서·김지수·이규숙·임명숙·천은주·한승훈·홍승현, 『미래 변화의 물결 4차 산업혁명』, 미디어북, 2019.
- 클라우스 슈밥 저,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메가스터디북스, 2016.

논문

- 김금숙, 「문제중심학습(PBL)을 활용한 한국문화 수업 사례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3권 제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1-29쪽.
- 김동률, 「대학교양수학의 플립러닝과 플립 PBL 효과성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권 6호, 한국융합학회, 2018, 209-215쪽.
- 방진하·이지현,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의 교육적 의미와 수업 설계에의 시사점 탐색」, 『韓國敎員敎育研究』 31-4호, 한국교원교육학회, 2014, 299-319쪽.
- 이동엽,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교수학습 설계모형 탐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83-92쪽.
- 이선재, 「AI 반도체 기술 동향과 산업생태계」, 『ICT Standard Weekly』 제1127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3, 1-6쪽.
- 임희주, 「대학 교양수업에서 플립러닝의 최근 연구 동향 분석」, 『인문사회21』 제13권 제3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2, 2379-

2388쪽.

신문기사

- 김우용, “가트너가 2024년 주목하라는 10대 전략 기술”, 지디넷코리아, 2023.10.17. <https://zdnet.co.kr/view/?no=20231017093559>
- 김주완, “리벨리온이 설립 4년도 되지 않아 2800억원 투자받은 비결”, 한경, 2024.02.15.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130091i>
- 류상우, “AI 경쟁력 美·中 싸늘이…상위 20개 기업 중 한국 단 두 곳”, 더리포트, 2023.05.31.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39>
- 안광훈, “[Focus] ‘소형 모듈원자로(SMR)’가 뭐길래”, 기계설비신문, 2021.05.24. <https://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12>
- 오경진, “中 배터리 ‘글로벌 공습’ 무섭네”, 서울신문, 2022.05.3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1016010>
- 이나리,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HBM 기술·성능 우위 놓고 '기싸움'”, 지디넷코리아, 2023.07.28. <https://zdnet.co.kr/view/?no=20230728132908>
- 이상덕·이선희·조광현·강민경, “[세상을 바꾸는 빅데이터 ①] 빅데이터기업 美 5000개 vs 韓 100개”, 매일경제, 2019.11.05. <https://www.mk.co.kr/news/it/9052827>
- 이창현, “가트너가 선정한 2024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헬로티, 2023.10.17. <https://www.hellot.net/news/article.html?no=83009>
- 장경윤, “AMD, AI 소프트웨어기업 '노드.ai' 인수...엔비디아 추격 고삐”, 지디넷코리아, 2023.10.11. <https://zdnet.co.kr/view/?no=20231011081600>
- 주하은, “소형모듈 원자로,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일까?”, 시사IN, 2021.12.1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22>
- 최리노, “[반도체의 이해 1편]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역사적

사건들 (1/7)”, SK하이닉스 뉴스룸, 2023.04.20. <https://news.skhynix.co.kr/rino-choi-column-1/>

인터넷 사이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메타버스 알아보기, <https://atic.ac/metaverse/sub1.do>

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 가트너가 선정한 2023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https://news.samsungdisplay.com/33897?type=main>, 2022.12.07.

수업디자인연구소 - 미래형 수업의 담론, <https://eduhope88.tistory.com/420>, 2024.06.19.

제로베이스 - 빅데이터 활용 사례 5가지, 카카오 / 오늘의집 / 당근마켓 데이터 분석 실무 알아보기, https://zero-base.co.kr/event/media_insight_contents_DS_bigdata_examples

포스코그룹 뉴스룸 - 2차전지의 필수품 ‘리튬’, 왜 중요할까?, <https://newsroom.posco.com/kr/2%EC%B0%A8%EC%A0%84%EC%A7%80%EC%9D%98-%ED%95%84%EC%88%98%ED%92%88-%EB%A6%AC%ED%8A%AC-%EC%99%9C-%EC%A4%91%EC%9A%94%ED%95%A0%EA%B9%8C/>, 2022.08.04.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1년 중국 로봇산업 정보,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90427, 2021.09.13.

KOTRA 해외시장뉴스 - 중국 로봇산업,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Gbn=403&bbsSn=403&pNttSn=177409, 2019.10.15.

■ 국문초록

본 논문은 2024년 1학기에 개설된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삶” 교과목에 대한 개설 의미와 강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형이고 앞으로 관련 산업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교양과목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토론과 보고서 및 발표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설문을 통한 강의에 대한 분석이다.

실제 진행한 강의 내용과 강의 계획서상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같다. 매주 수업은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을 위한 준비작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토론과 보고서 작성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 수업의 마지막에는 발표를 진행하여 4차 산업혁명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설문은 총 10가지 문항으로 진행하였으며, 1~9 문항은 객관식으로 진행하였고, 10번째 문항은 본 교과목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는 방식을 취했다. 설문을 통해 학생들은 본 교과목의 목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긍정적임을 확인했다.

주제어 • 교과목,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반도체

■ Abstract

Analysis of the meaning of opening the cours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ur Lives” and the results of the lecture

Lee Jung Huan / Pai Chai University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meaning of the opening and lectures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Our Life” course opened in the first semester of 2024.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ready in progress, and related industries will receive attention in the futur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re is a need for liberal arts courses to prepare for this.

This paper is largely composed of two aspects. One is about discussions, reports, and presentations, and the other is the analysis of lectures through surveys.

The actual contents of the lecture and the contents of the lecture plan are basically the same. Each week, the class was divided into two sessions. The first time corresponds to preparation for the second time. Discussion and report writing were effective in enhancing the understand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t the end of the class, the presentation was made to confirm and organize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10 questions, and 1 to 9 questions were conducted with multiple choice, and the 10th question took a method of describing opinions on this subject. Through the survey, students confirmed that their understanding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al of this course, was positive.

Keyword • Subjec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Electric Vehicle, Semiconductor

■ 논문투고일:2025.05.28. ■ 심사완료일:2025.07.09. ■ 게재확정일:2025.07.14. ■

교양대학 중심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의 가치와 한국적 적용 방향 : 해외 주요 대학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오 경 은 · 한 규 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해외 대학의 교양대학 중심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례
분석과 시사점
5. 한국 대학 교양교육에의 적용 방향
6. 결론

1. 서론

21세기 고등교육의 핵심 과제로 대학의 '제3의 사명'인 지역사회 연계와 사회적 책임이 부상하면서, 교양교육은 비판적 사고와 시민성 함양을 넘어 실천적 문제해결의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실제 지역문제를 교육 과정에 통합하고, 학생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혁신적 교육모델로 주목받고 있다.¹⁾

* 오경은 (제1저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조교수
한규은(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조교수

1) Ernest L. Boyer. *The scholarship of engagement, Building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Engagement*, Routledge, 2023, pp.15-25.

특히 주목할 점은 해외 주요 대학에서 이러한 교과가 개별 전공이나 단과대학이 아닌 교양대학 중심으로 운영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Kuh가 고등교육의 효과적 교육실천으로 규정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교양교육 기관 주도로 제도화되는 현상은, 교양교육이 지닌 간학문적 통합성과 전교생 접근성이라는 구조적 이점에서 비롯된다.²⁾

그러나 한국 대학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 교육이 주로 특정 전공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양대학이 갖는 고유한 가치와 역할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재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교양대학 중심 접근이 지닌 교육적·행정적 장점과 그 실천적 구조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해외 주요 대학의 교양대학 주도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한국 대학 교양교육 맥락에 적합한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대학에서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를 교양대학이 주도하는 교육적·행정적 근거와 실제 운영상의 장점은 무엇인가? 둘째, 지속가능한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과 유지에서 교양대학이 갖는 구조적 이점과 고유한 기여는 무엇인가? 셋째,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체계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실천 가능한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단순한 해외 사례 소개를 넘어, 교양대학이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서 담당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규명하고, 교양교육의 현대적 가치를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2) George D. Kuh. *High-impact educational practices: What they are, who has access to them, and why they matter*; vol. 9.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8, pp.11-13.

2. 이론적 배경

1) 교양교육의 본질과 현대적 전환

교양교육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자유 시민 교육에서 시작되어 중세의 자유 학예, 근대의 인문교육을 거쳐 오늘날의 포괄적 교양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보여 왔다. Newman이 『The Idea of a University』에서 제시한 교양교육의 이상은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학문 추구였지만, 현대에 들어 교양교육은 보다 실천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³⁾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20세기 후반 이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고등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있다. Kronman은 현대 교양교육이 직면한 위기를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실제적 삶과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⁴⁾

Kuh는 21세기 교양교육의 목표를 지식, 기능, 개인적·사회적 책임의 통합적 발달로 정의하며, 특히 실용적 추론과 책임있는 행동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다.⁵⁾ Nussbaum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를 "민주적 시민성"의 함양으로 규정하고, 비판적 사고, 세계시민 의식, 서사적 상상력의 세 가지 핵심 능력을 제시했다.⁶⁾

이러한 교양교육의 현대적 전환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천적 학습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Colby et al.은 교양교육이 지적 발달과 시민

3) John Henry Newman. *The Idea of a University*, London: Aeterna Press, 2015, pp.76-90.

4) Anthony T. Kronman. *Education's End: Why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Given Up on the Meaning of Lif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37-90.

5) George D. Kuh. op. cit., pp.1-8.

6) Martha C. Nussbaum.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p.1-11.

적 발달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실 밖 실제 세계에서의 학습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⁷⁾ 이러한 교양교육의 현대적 전환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교양대학 중심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가 단순한 교육방법론의 혁신을 넘어 교양교육 본질의 현대적 구현임을 시사한다.

2) 교양교육기관의 제도적 특성과 교육적 가치

교양교육기관은 현대 고등교육에서 학부교육의 기초를 담당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전인적 교육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교양교육기관은 대규모 연구중심대학 내에서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으로 설립되어, 전공교육과 구별되는 고유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한다.

교양교육기관의 핵심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학문적 접근과 통합적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간학문적 교육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용적 해답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 영역 창출에 기여하는 21세기 고등교육의 핵심 요소다. Spelt et al.의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에서도 간학문적 교육이 학문간의 경계 횡단 기술과 간학문적 사고 능력 개발에 필수적임을 입증했다.⁸⁾ 둘째, 전인적 교육 목표를 추구한다. Cope et al.의 연구에 따르면, 교양교육은 학생들을 "전인적 인격과 직업 역량, 시민 의식을 갖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이는 대학의 사명과 목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⁹⁾ 셋째, 유연하고 적응적인 교육과정 운

7) Anne Colby et al., *Educating for Democracy: Preparing Undergraduates for Responsible Political Engage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pp.167-190.

8) Eimear H. Spelt et al., "Teaching and Learning in Interdisciplinary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 21, no. 4, 2009, pp.365-378.

9) Michael R. Cope et al., "Experiences With General Education: How Sense of Community Shapes Students' Perceptions", *SAGE Open*, vol. 11, no. 4, 2021, DOI: 10.1177/21582440211050399.

영이 가능하다. Huber는 교양교육이 전통적인 학과 중심 교육과 달리 "학문적 분화의 문제에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 영역을 개방하는" 유연성을 갖는다고 분석했다.¹⁰⁾ 넷째,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참여를 강조한다. 교양교육기관은 학생들 간의 공동체 의식 형성을 통해 교육 만족도와 사회적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¹¹⁾

이러한 특성들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서 독특한 장점을 제공한다. Spelt et al.에 따르면, 간학문적 교육은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문적 지식 통합 능력을 함양한다고 강조한다. 현대의 지역사회 문제들은 단일 학문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교양교육의 간학문적 전통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한다.

교양교육기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교육과정의 유연성이다. 전공 교육의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구조와 달리, 교양교육은 사회 변화와 학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 이러한 유연성은 혁신적 교육 실험을 가능하게 하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형태의 교육적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 무엇보다 교양교육의 전교생 접근성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다. 모든 학부생이 교양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현행 대학 체계에서, 교양교육기관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소수의 특별한 활동이 아닌 대학 교육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교양교육기관이 갖는 중립적 위치도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서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특정 전공이나 학과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 위치에서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할 수 있

10) Ludwig Huber. "From general education to interdisciplinary studies", *Higher Education Policy*, vol. 15, no. 1, 2002, pp.19-31.

11) Michael R. Cope et al., op. cit., DOI: 10.1177/21582440211050399.

다. 이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형성에 핵심적 요소가 된다. 또한 교양교육기관의 전 대학적 영향력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확산과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학부생이 교양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현행 대학 체계에서, 교양교육기관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광범위한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기관의 고유한 특성들은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를 단일 전공 중심이 아닌 교양대학 중심으로 운영할 때의 구조적 우위를 명확히 보여준다.

3) 지역기반 교육과 시민교육의 이론적 발전

지역기반 교육의 이론적 토대는 20세기 초 Dewey의 경험주의 교육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Dewey(1916)는 『Democracy and Education』에서 교육이 실제 생활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민주적 공동체 생활을 학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그의 핵심 통찰인 학습은 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현대 지역기반 교육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 Dewey의 교육철학은 1960년대 Freire의 비판적 교육학과 만나면서 더욱 급진적이고 사회 변혁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Freire는 『Pedagogy of the Oppressed』에서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고, 학습자와 교육자가 함께 세계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문제제기식 교육을 제안했다.¹³⁾ 이는 지역사회 문제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방식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실천적 방법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Kolb의 경험 학습 이론이다. Kolb는 학습을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순환 과정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학습 순환 모델은 지역사회

12) John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16, pp.14-27.

13)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1970, pp.71-85.

회 연계 교육에서 학생들이 현장 경험을 어떻게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한다.¹⁴⁾

이러한 교육 이론의 발전은 현대 교양교육이 시민교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Colby et al.은 『Educating for Democracy』에서 효과적인 시민교육이 지적 학습과 실천적 참여,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⁵⁾ 사회참여학습은 이러한 통합적 시민교육의 구체적 실현 방식 중 하나로 발전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적 발전 과정은 교양대학이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를 통해 Dewey의 경험주의, Freire의 비판적 교육학, Kolb의 경험학습 이론을 통합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임을 뒷받침한다.

4)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교양교육의 공공적 역할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논의는 Boyer의 『Scholarship Reconsidered』에서 제시된 참여의 장학 개념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Boyer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라는 전통적 사명에 더하여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⁶⁾ 또한 Fitzgerald et al.은 대학의 사회적 참여를 "민주주의 강화와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학의 적극적 협력"으로 정의하며, 이것이 단순한 사회봉사나 지식 전수를 넘어 "공동 지식 창조"와 "상호 역량 강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⁷⁾

14) David A. Kolb.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4, p.50.

15) Anne Colby et al., *Educating for Democracy: Preparing Undergraduates for Responsible Political Engage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2010, pp.25-42.

16) Ernest L. Boyer. op. cit., pp.11-20.

17) Hiram E. Fitzgerald et al., "The Centrality of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and Engagement*, vol.

교양교육은 이러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실현에서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Hartley & Saltmarsh는 교양교육의 공공적 목적을 강조하며, 교양교육이 개인의 지적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공공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⁸⁾ 교양교육이 갖는 간학문적 접근 능력, 비판적 사고 전통, 윤리적 성찰 문화, 민주적 대화 경험, 다양성 존중 정신 등은 사회적 참여에 특히 적합하다. 최근 들어 이러한 논의는 "공공 교양교육" 또는 "시민 교양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교양대학이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실현하는 핵심 주체로서, 공공적 가치 창출과 민주적 시민성 함양이라는 이중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해외 주요 대학의 교양대학 중심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 운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교양대학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교육철학, 제도적 특성, 사회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으로, Yin이 제시한 바와 같이 현상과 맥락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 사례연구가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다.¹⁹⁾ 특히 Stake의 집합적 사례연구 접근을 활용하여 복수 사례를 통해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이론화를 추구하였다.²⁰⁾

20, no. 1, 2016, pp.233-244.

18) Nancy L. Thomas & Matthew Hartley. "Higher education's democratic imperative",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no. 152, 2010, pp.99-107.

19) Robert K. Yin,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8, pp.1-16.

20) Robert E. Stak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5, pp.3-12.

사례 선정은 Patton의 목적적 표집 전략 중 극한 사례 표집과 최대 변이 표집을 결합하여 이루어졌다.²¹⁾ 구체적으로는 교양교육의 핵심 가치인 간학문성, 비판적 사고, 시민성 함양이 명확히 구현되고, 최소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University Studies, 영국 브라이튼 대학의 Community University Partnership Programme,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Community Internship 프로그램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Lincoln & Guba의 삼각측량 원칙에 따라 학술논문, 대학 공식문서, 프로그램 평가보고서, 교육과정 자료 등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²²⁾ 주요 자료원으로는 학술 논문, 대학 공식 보고서, 교육과정 안내서, 외부 인증기관의 평가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동료심사 학술논문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식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였으며, Braun & Clarke의 주제분석법을 사례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하였다.²³⁾ 분석은 먼저 개별 사례 내 분석을 통해 각 프로그램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후 사례 간 비교분석을 통해 교양대학 중심 접근의 공통적 특성과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21) Michael Quinn Patton.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5, pp.267-271, p.278.

22) Yvonna S. Lincoln & Egon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5, pp.305-306.

23) Virginia Braun & Victoria Clarke.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 3, no. 2, 2006, pp.77-101.

4. 해외 대학의 교양대학 중심 지역사회 연계 교육 사례 분석과 시사점

1)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University Studies 프로그램

포틀랜드 주립대학(Portland State University)의 University Studies 프로그램은 1994년 설립 이래 교양교육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합한 혁신적 모델로 발전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교양교육 기관으로서 전 대학 차원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며, 특히 4학년 과정인 Senior Capstone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교육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University Studies의 설립 배경에는 1990년대 초 미국 고등교육계의 교양교육 위기에 대한 성찰이 있었다. Boyer Commission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많은 대학들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면서 학부교육, 특히 교양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²⁴⁾ 포틀랜드 주립대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독립적 기관을 설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천적 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하였다.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University Studies 프로그램은 1994년 설립 이래 교양교육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합한 혁신적 모델로 발전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교양교육 기관으로서 전 대학 차원의 교양교육을 담당하며, 특히 4학년 과정인 Senior Capstone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교육의 선도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²⁵⁾

Senior Capstone은 모든 학부생이 졸업 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6학점 과정으로, 매년 약 240개 강좌가 개설되며 4,0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

24) Boyer Commission. *Reinventing Undergraduate Education: A Blueprint for America's Research Universities*,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98, pp.1-13.

25) Ibid., pp.1-13.

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이다.²⁶⁾ 각 강좌는 환경 지속가능성, 공중보건, 교육 불평등, 난민 문제, 주거 정책 등 포틀랜드 지역의 실제 문제를 주제로 하며, 학생들은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구체적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교육과정은 Kolb의 경험학습 이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8-10주간의 이론 학습, 25-40시간의 지역사회 현장 참여, 체계적 성찰과 결과 발표의 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²⁷⁾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측면에서 University Studies는 독특한 접근을 취한다. Arthur & Zapoura Newton-Calvert의 분석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지역 비영리기관,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들의 활동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교육과정 설계와 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²⁸⁾ 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는 다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Senior Capstone은 매년 200개 이상의 강좌를 통해 수천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실천적 학습을 통해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전인적 성장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²⁹⁾ 학생들은 환경 지속가능성, 공중보건, 교육 불평등, 난민 문제 등 다양한 사회 이슈에 직접 참여하면서 학문적 지식과 시민적 실천을 통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

26) Portland State University-Senior year capstone, <https://www.pdx.edu/university-studies/senior-year-capstone>, 2025.05.29.

27) David A. Kolb. op. cit., p.20-38.

28) Deborah Smith Arthur & Zapoura Newton-Calvert, "Online Community-Based Learning as the Practice of Freedom: The Online Capstone Experience at Portland State University", *Metropolitan Universities Journal*, vol. 25, no. 3, 2015, pp.135-158.

29) Zapoura Newton-Calvert et al., "Successes,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from Twenty Years of Community-Based Learning Capstones", *Metropolitan Universities Journal*, vol. 25, no. 3, 2015, pp.5-23.

사회 연계 교육은 Kerrigan이 주장하듯 학생들의 시민의식 향상과 진로 성찰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교양교육이 추구하는 전인적 성장의 효과를 보여준다.³⁰⁾

2) 영국 브라이튼 대학의 Community University Partnership Programme

브라이튼 대학(University of Brighton)의 Community University Partnership Programme(CUPP)은 2003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2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영국 교양교육과 지역사회 연계의 선도적 사례이다.³¹⁾ 이 프로그램은 학생-지역사회 참여의 모범 사례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Millican & Bourner는 이를 고등교육 교육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³²⁾ CUPP의 설립 배경에는 1990년대 후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안한 중도 정치철학과 지역재생 정책이 있었다. Putnam의 사회적 자본 이론이 정책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대학이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³³⁾ 브라이튼 대학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여 기존의 일방적 지식 전수 모델을 넘어 지식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양교육을 개발하였다.

CUPP의 핵심은 Community Engagement Modules로, 이는 다양한 학과의 학부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 선택과목으로 운영된다. CUPP의

30) Seanna M. Kerrigan. "Sustaining Change: Successes,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from Twenty Years of Empowering Students through Community-Based Learning Capstones", *Metropolitan Universities Journal*, vol. 26, no. 3, 2015, pp.5-23.

31) Juliet Millican & Tom Bourner. *Learning to Make a Difference: Student-Community Engagement and th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Leicester: NIACE, 2014. pp.1-9.

32) Ibid., pp.1-9.

33)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pp.402-414.

핵심은 Community Engagement Modules로, Hart & Northmore는 이 프로그램을 대학-지역사회 참여의 모범 사례로 분석하였다.³⁴⁾ 이는 다양한 학과의 학부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양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며, 현재 1,000명 이상의 학생과 500개 이상의 지역사회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다. 이 모듈들은 단순한 사회봉사가 아닌 참여적 행동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친다.³⁵⁾

교육철학적으로 CUPP는 Freire의 "문제제기식 교육" 모델을 충실히 따른다.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교수자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과 달리, 이 프로그램에서는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함께 탐구하고 학습한다.³⁶⁾ Millican & Bournier는 학생-지역사회 참여가 고등교육의 역할 변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하며,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조와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³⁷⁾

CUPP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지식의 공동 생산개념의 실천이다. 이는 Nowotny et al.이 제시한 Mode 2 지식생산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학문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전문가 지식과 시민 지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접근법이다.³⁸⁾ 학생들은 프로젝트 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34) Angie Hart & Simon Northmore. "Auditing and evaluating 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Lessons from a UK case study", *Higher Education Quarterly*, vol. 65, no. 1, 2011, pp.34-58.

35) University of Brighton-Public and Community Engagement, <https://www.brighton.ac.uk/about-us/your-university/community-partnerships/index.aspx>, 2025.05.29.

36) Paulo Freire. op. cit., pp.71-85.

37) Juliet Millican & Tom Bournier. "Student-Community Engagement and the Changing Role and Context of Higher Education", *Education + Training*, vol. 53, no. 2/3, 2011, pp.103-112.

38) Helga Nowotny, Peter Scott, & Michael Gibbons. *Re-thinking Science:*

터 살아있는 지혜를 배우는 동시에, 자신들의 학문적 분석 능력을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시킨다.

특히 주목할 점은 Nowotny et al.이 제시한 Mode 2 지식생산 이론에 기반한 지식의 공동 생산 개념의 실천이다.³⁹⁾ 학문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 전문가 지식과 시민 지식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지역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사회참여 의식 제고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⁴⁰⁾

3)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Community Internship 프로그램

그리피스 대학(Griffith University)의 Community Internship은 2010년 도입된 호주 최초의 학점 인정 지역사회 봉사 교과로, 교양교육과 직업 준비를 통합한 독특한 모델을 제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고등교육의 고용가능성 담론과 시민교육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적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로그램의 설계 배경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형태의 역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Barrie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일반적 역량이 전통적인 학문적 지식과 실무적 기술을 넘어 적응적 전문성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⁴¹⁾ 그리피스 대학의 Community Internship은 이러한 적응적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시민적 참여와 직업적 준비를 통합하는 접근을 취한다. 프로그램의 운영 체계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리피스 대학의 Community Internship 프로그램은 현재 350여 개의

Knowledge and the Public in an Age of Uncertainty, Cambridge: Polity Press, 2001, pp.89-102.

39) Ibid., pp.89-102.

40) Angie Hart & Simon Northmore. op. cit., pp.55-57.

41) Simon C. Barrie, "A Research-Based Approach to Generic Graduate Attributes Policy",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vol. 23, no. 3, 2004, pp.262-264.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운영이 가능한 것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과 지역사회 수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이다.⁴²⁾

교육과정의 구조는 실용주의적 교양교육 철학을 반영한다. 학생들은 먼저 사회문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윤리적 고려사항을 학습한 후, 최소 50시간의 현장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교육,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접근은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와 시민적 역량 발달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피스 대학의 접근에서 독특한 점은 상호 학습 개념의 강조이다. Gelmon et al.이 지적한 바와 같이, 효과적인 지역사회-대학 파트너십은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자-수혜자 관계를 넘어 상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⁴³⁾ 그리피스 대학의 Community Internship 프로그램은 이러한 원칙을 구현하여, 학생들이 지역사회 기관에 인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관 구성원들로부터 실무 지식과 사회적 통찰을 얻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상호성은 교양교육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육적 효과 측면에서 Community Internship은 특히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진로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

42) Griffith University-Community Internship, <https://www.griffith.edu.au/arts-education-law/community-internship>, 2025.05.29.

43) Sarena D. Gelmon et al., "Community-University Partnerships for Mutual Learning",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vol. 5, 1998, pp.97-107.

44) Sarah-Jane Gregory, Faith Valencia-Forrester, & Ben Cameron. "Students-as-Partners Creating Flexible Internship Experiences with the Community Partner, Scouts Qld", STARS Conference, 2019, DOI:10.1080/00091383.2017.1266805.

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조정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교양대학 중심 접근의 특성과 성공 요인

세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교양대학 중심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핵심적 특성과 성공 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교육적 우위성이다. 교양교육의 간학문적 전통은 Klein이 지적한 21세기 사회문제의 복잡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⁴⁵⁾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도시 환경 문제 접근이 보여주듯, 교양교육은 다차원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통합한다. 또한 Chickering & Reisser가 제시한 대학생 발달의 핵심 영역들이 지역사회 연계 교육을 통해 효과적으로 촉진되며,⁴⁶⁾ Dewey가 강조한 "성찰적 사고"의 전통이 경험을 의미 있는 학습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⁴⁷⁾

둘째, 행정적 효율성과 제도적 안정성이다. 교양교육 기관은 특정 전공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중재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⁴⁸⁾ 브라이튼 대학 CUPP의 20년 이상 지속성은 이러한 중립성의 결과이다. 또한 교양교육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능력과 전 대학적 영향력은 광범위한 참여와 지속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⁴⁹⁾

45) Robert Frodeman, Julie Thompson Klein, & Carl Mitcham. *The Oxford Handbook of Interdisciplina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15-30.

46) Arthur W. Chickering & Linda Reisser. *Education and Identity*,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3, pp.20-41.

47) John Dewey. op. cit., pp.145-157.

48) Sarena D. Gelmon et al., op. cit., p.102.

49) Vanessa R. Levesque & Cameron P. Wake. "Organizational change for sustainability education: a case study of one university's efforts to create and implement institution-wide sustainability compet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vol. 22, no. 3, 2021, pp.497-515.

셋째, 문화적 적응성이다. 미국의 개인주의적 맥락에서는 개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영국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을, 호주의 실용주의 문화에서는 고용가능성과 시민성의 통합을 추구하는 등, 교양교육의 보편적 가치가 각 문화적 맥락에서 창의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는 Nussbaum이 강조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이라는 교양교육의 본질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⁵⁰⁾

넷째, 통합적 운영 체계이다. 세 사례 모두 명확한 교육철학과 비전, 강력한 제도적 지원, 진정한 상호 학습 파트너십, 지속적인 성찰과 개선의 문화를 공통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는 교양대학 중심 접근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교육철학, 제도 설계, 사회적 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체계적 접근임을 시사하며, 한국적 적용에서도 이러한 다차원적 요소들의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5. 한국 대학 교양교육에의 적용 방향

1) 한국 교양교육의 현실과 도전

먼저 한국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대학들이 나름의 체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세대학교는 사회참여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봉사 교과목(교양선택, P/NP 평가)을 운영하는 동시에, 고등교육혁신원의 연세사회혁신가 인증제를 통해 교과와 비교과를 연계한 통합적 사회혁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워크스테이션 프로그램에는 연간 211개 팀, 1,196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양대학교는 2018년부터 사회혁신센터에서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한 사회봉사 교과목을 운영하여 연간 약 3,000여 명의 학생이 1,300여 개 협력기관과

50) Martha C. Nussbaum., op. cit., p.8.

함께 2시간의 필수 소양교육과 30시간의 현장활동을 통해 1학점을 취득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2018년 국내 최초로 사회혁신융합전공을 신설하여 36학점의 다중전공 과정을 통해 사회혁신학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호크마교양대학과 사회봉사팀의 협력으로 사회봉사 I, II, III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각 단계마다 이론수업 6시간과 사회봉사활동 26시간으로 구성된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대학교 역시 기초교육원과 글로벌사회공헌단을 통해 사회봉사 1, 2, 3 교과목을 일반교양으로 운영하여 재학 중 최대 3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특정 센터나 부서 중심으로 운영되어 교양대학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들이 교양대학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한 것과 달리, 한국의 경우 개별 기관의 독립적 노력에 머물러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주로 졸업 요건 충족이나 학점 취득에 집중되어 있어, 포틀랜드 주립대학이나 브라이튼 대학에서 보는 바와 같은 비판적 성찰을 통한 시민적 성장이나 지역사회와의 지속적 파트너십 형성에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한국 대학 교양교육이 처한 독특한 맥락이 자리하고 있다. ACE사업 이후 대부분 대학이 교양대학 체제로 전환하고 교수법 혁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교양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취업 중심의 실용적 교육과 인문학적 소양 교육 사이에서 교양교육의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이다. 둘째,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 대한 체계적 접근보다는 개별 교수나 부서 단위의 산발적 시도에 그치고 있

다. 셋째, 교양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보다는 전공 준비나 취업 역량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이라는 공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교육 환경의 특성은 지역사회 연계 교육 도입에 구조적 도전을 제기한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교양교육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전문 인력과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부족하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경쟁에 집중하는 교육 문화로 인해 공동체 지향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이다.⁵¹⁾ 그러나 앞서 분석한 해외 사례들이 보여주듯, 이러한 도전은 각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창의적 적응을 통해 극복 가능하며, 특히 한국의 교육 문화와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개선을 넘어 교양교육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교양대학 중심의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2) 교수학습 방법의 한국적 적용

한국의 교육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해외 사례에서 확인된 교육 방법론의 직접 이식보다는 창의적 재구성이 요구된다.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체계적 성찰 활동은 한국 학생들에게 익숙한 학습 일지 문화와 결합될 수 있다. 한국 학생들은 이미 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일기 쓰기와 포트폴리오 작성에 익숙하므로, 이를 Dewey가 강조한 비판적 성찰의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⁵²⁾ 초기에는 단순한 활동 기록에서 시작하여 점차 경험의 의미 탐구, 이론과 실천의 연결, 미래 행동 계획 수립으로 심화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다.

51) 이정옥, 「교양교육 운영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S대 교양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권 5호, 2017, 507-508쪽.

52) John Dewey,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 Boston, MA: D.C. Heath & Co Publishers, 1933, pp.9-13.

이러한 성찰 중심 학습은 자연스럽게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브라이언 대학의 참여적 행동연구 방법론은 한국 교육의 강점인 모둠 활동 전통과 연결점을 갖는다. 다만 전통적인 역할 분담식 모둠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공동 탐구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피스 대학의 상호 학습 모델이 시사하듯, 학생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실천적 지혜를 배우는 동시에 학문적 관점을 제공하는 쌍방향 학습 구조가 한국적 맥락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 학생들의 정답만을 찾으려 하는 문화이다. 이는 복잡하고 정답이 없는 지역사회 문제를 다루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오히려 깊이 있는 탐구의 동력이 될 수 있다. 문제중심학습(PBL) 도입 시 초기에는 교수자가 명확한 탐구 틀과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패를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⁵³⁾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요구한다.

3) 지역사회 파트너십 구축 전략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체계적인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독특한 지역사회 구조는 해외와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한국의 강한 행정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대학이 지역 발전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실제 정책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⁵⁴⁾ 도시재생 프로젝트,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 축제 기획 등은 학생들

53) 박경원, 「문제중심학습(PBL)의 교실 적용 난점과 해결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5권 1호, 88-90쪽.

54) 김지은,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1권 3호, 2010, 80-81쪽.

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된다.

이와 함께 최근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교양교육의 가치와 특히 잘 부합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영리 추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조직들과 협력하여 지역 문제 해결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사회적 임팩트를 측정하는 프로젝트는 이론과 실천을 통합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은 독특한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승자, 전통 공예 장인, 향토사 연구자 등과의 협력은 문화유산의 현대적 재해석과 활용이라는 창의적 과제를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지역 문화 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하며, 한국적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파트너십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4) 문화적 적응과 한국적 특성화

한국적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방법론과 운영 체계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 공동체 형성 방식의 조정이다. 한국 학생들에게 익숙한 팀 기반 학습 문화를 활용하되, 단순한 과제 분담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하는 협력적 탐구 과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서구의 개인주의와 달리 '우리' 의식이 강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에 있어 양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명확하여 지역사회를 '남'으로 인식할 위험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우리'로 받아들여지면 강한 유대와 헌신을 보인다.⁵⁵⁾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대학 내 학습공동체를 먼저 견고히

55) 박혜경·김상아,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형성하고, 이후 학습 공동체를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지역 주민을 '확장된 우리'로 인식하도록 하는 단계적 접근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사회를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둘째, 지속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가 중요하다. 일회성 방문이나 단기 활동보다는 학기 전체를 통한 지속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과 이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학습 자원으로 활용하는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특히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관계는 단순한 업무적 연결을 넘어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과 지역 주민 간의 인간적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을 프로그램에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과 가시화와 인정 체계의 구축이다. 한국 학생들의 성취 지향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기여 활동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인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적 성공과 사회적 기여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단순한 봉사시간 기록을 넘어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창의적 아이디어, 지역사회에 미친 실질적 영향, 개인적 성장과 성찰의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면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의미 있는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 교육 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 대학생들에게 익숙한 선배-후배 멘토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연계 교육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고,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비교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vol. 42, no. 3,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6-7쪽.

결되는 통합적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제도적 지원 체계와 실행 계획

앞서 논의한 교육적 혁신과 문화적 적응이 지속가능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제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 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은 예외 없이 강력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 교수 지원은 제도적 변화의 출발점이다. 지역사회 연계 교육은 전통적 강의식 수업과 전혀 다른 역량을 요구하므로, 체계적인 교수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교수법을 소개하고, 선도 교수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직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수들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 체계의 확립이다. 이러한 활동을 연구 및 교육 성과와 동등한 가치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교수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 지원 체계는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활동 전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활동 중에는 교수와 현장 멘토의 이중 지도 체계를 통해 학문적 성찰과 실천적 학습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활동 후에는 포트폴리오 작성, 성과 발표회, 우수 사례 시상 등을 통해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지속적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⁵⁶⁾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 체계도 중요하다. 교양교육원 내에 지역사회 연계 교육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파트너십 개발과 관리,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성과 측정과 개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은 효율적 운영의 기반이 되며, 안전

56) 박화춘, 「아카데미 서비스 학습을 통한 대학과 사회의 연계 교육」, 『성인계속교육연구』 9권 3호, 81-82쪽.

관리 체계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대학을 보호하는 필수 요소다.⁵⁷⁾

마지막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모든 혁신의 전제 조건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이나 지역연계 플랫폼 사업 등을 활용하고, 중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칭 펀드나 기업 후원을 확보하며, 장기적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자체 예산에 편입시키는 단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될 때, 한국 대학 교양교육은 단순한 기초 소양 교육을 넘어 시민적 역량과 공공적 가치를 기르는 진정한 전인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양교육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 성장을 추구하는 이 접근은 21세기 고등교육이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과 공동체 기여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한국적 해답이 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해외 주요 대학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양교과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교양대학 중심 접근의 독특한 가치와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 영국 브라이튼 대학, 호주 그리피스 대학의 사례는 교양교육이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데 있어 어떤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교양교육의 본질적 특성이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조응한다는 사실이다. 간학문적 전통은 복잡한 지역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전

57) 김수영 외,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대학공간 공유 방안 연구-6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9권 3호, 2021, 10-15쪽.

인적 교육 철학은 학생들의 지적 성장과 시민적 성숙을 동시에 추구하며, 성찰 중심의 학습 문화는 단순한 봉사 활동을 깊이 있는 변혁적 경험으로 승화시킨다. 이는 교양교육이 단지 전공 교육의 보조적 역할에 머물지 않고, 대학 교육의 핵심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⁵⁸⁾

더욱 흥미로운 발견은 교양대학이라는 제도적 플랫폼이 갖는 실질적 장점이다. 특정 학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중립적 위치는 다양한 지역사회 파트너와의 균형 잡힌 관계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은 급변하는 사회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모든 학생이 거쳐 가는 교양교육의 보편성은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소수의 특별한 활동이 아닌 대학 교육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세 나라의 사례가 보여준 문화적 적응성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동일한 교육 철학이 미국의 개인주의적 맥락에서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 기여의 균형으로, 영국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에서는 사회정의 실현의 도구로, 호주의 실용주의 문화에서는 고용가능성과 시민성의 통합으로 구현되는 모습은 교양교육의 보편성과 특수성이 어떻게 창의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적 적용에 있어서도 맹목적 모방이 아닌 창의적 재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물론 본 연구는 2차 자료에 의존했다는 방법론적 한계를 갖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 지역사회 파트너들의 솔직한 평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영어권 자료에 치중함으로써 각 문화권의 고유한 교육 담론과 미묘한 뉘앙스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교육 전통과

58) Tracy M. Soska, "University and communities in partnership: Exploring the roots and current trends of higher education community engagement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Policy reforms and practice*, Rotterdam: Sense Publishers, 2015, pp.105-125.

서구 모델의 접점을 찾는 작업은 더 깊이 있는 후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 교양교육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교양교육을 대학의 주변부가 아닌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사회와의 연계를 부가적 활동이 아닌 교육의 본질적 요소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다. 한국의 교양교육이 여전히 교양을 상식 정도로 폄하하거나 전공 진입을 위한 징검다리로만 여기는 현실에서, 본 연구가 제시하는 비전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분명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모델과 전략들이 실제 한국의 대학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돌은 없을지, 제도적 관성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일부 선도적 대학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한국적 맥락에 맞는 고유한 모델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대학은 더 이상 상아탑에 안주할 수 없다. 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대학의 지식과 젊은이들의 열정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교양교육은 바로 그 접점에서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전공의 좁은 시야를 넘어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하며, 지식의 습득을 넘어 지혜의 실천을 지향하는 교양교육의 이상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가 한국 대학 교양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양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 모델은 단기적 유행을 넘어 한국 고등교육의 구조적 혁신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상당한 제도적, 문화적 도전을 수반하지만,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사회적 책무를 통합적으로 실현하려는 이

교양대학 중심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와 한국적 적용 방향
: 해외 주요 대학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오경은·한규은

접근법은 한국 대학이 21세기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Boyer, Ernest L. *The Scholarship of Engagement, Building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Engagement*, Routledge, 2023.
- Boyer Commission. *Reinventing Undergraduate Education: A Blueprint for America's Research Universities*,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98.
- Chickering, Arthur W. & Linda Reisser. *Education and Identity*,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3.
- Colby, Anne, Elizabeth Beaumont, Thomas Ehrlich, & Josh Corngold. *Educating for Democracy: Preparing Undergraduates for Responsible Political Engage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2010.
- , Thomas Ehrlich, Elizabeth Beaumont, & Jason Stephens. *Educating Citizens: Preparing America's Undergraduates for Lives of Moral and Civic Responsibility*, San Francisco: Jossey-Bass, 2003.
- Dewey, John. *Democracy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1916.
- .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 Boston, MA: D.C. Heath & Co Publishers, 1933.
- Freire, Paulo.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1970.
- Frodeman, Robert, Julie Thompson Klein, & Carl Mitcham. *The Oxford Handbook of Interdisciplina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Kolb, David A.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4.

- Kronman, Anthony T. *Education's End: Why Our Colleges and Universities Have Given Up on the Meaning of Lif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 Kuh, George D. *High-Impact Educational Practices: What They Are, Who Has Access to Them, and Why They Matter*, vol. 9,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2008.
- Lincoln, Yvonna S. & Egon G. Guba.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1985.
- Millican, Juliet & Tom Bournier. *Learning to Make a Difference: Student-Community Engagement and the Higher Education Curriculum*, Leicester: NIACE, 2014.
- Newman, John Henry. *The Idea of a University*, 1852. London: Aeterna Press, 2015, pp.76-90.
- Nowotny, Helga, Peter Scott, & Michael Gibbons. *Re-thinking Science: Knowledge and the Public in an Age of Uncertainty*, Cambridge: Polity Press, 2001.
- Nussbaum, Martha C. *Not for Profit: Why Democracy Needs the Humanit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 Patton, Michael Quinn.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4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5.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Soska, Tracy M. "University and Communities in Partnership: Exploring the Roots and Current Trends of Higher Education Community Engagement in the United States", *Community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Policy Reforms and Practice*, Rotterdam: Sense Publishers, 2015.
- Stake, Robert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7.

논문

김수영·박송아·김정우·이상홍,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를 위한 대학공간 공유 방안 연구: 6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9권 3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21, 3-16쪽.

김지은,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시카고 캠퍼스 지역협력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11권 3호, 서울연구원, 2010, 69-86쪽.

박경원, 「문제중심학습(PBL)의 교실 적용 난점과 해결방안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15권 1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2, 81-102쪽.

박혜경·김상아,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권 3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5-37쪽.

박화춘, 「아카데미 서비스 학습을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 『성인계속교육연구』 9권 3호,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2018, 65-86쪽.

이정옥, 「교양교육 운영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S대 교양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481-517쪽.

Barrie, Simon C. "A Research-Based Approach to Generic Graduate Attributes Policy",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vol. 23, no. 3, 2004, pp.261-275.

Cope, Michael R., Kayci M. Muirbrook, Jorden E. Jackson, Paige N. Park, Carol Ward, Curtis Child, & Jonathan A. Jarvis. "Experiences With General Education: How Sense of Community Shapes Students' Perceptions", *SAGE Open*, vol. 11, no. 4, 2021, DOI: 10.1177/21582440211050399.

Fitzgerald, Hiram E., Karen Bruns, Steven T. Sonka, Andrew Furco, & Louis Swanson. "The Centrality of Engagement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Outreach*

- and Engagement*, vol. 20, no. 1, 2016, pp.233-244.
- Gelmon, Sarena D., Barbara A. Holland, Sarena D. Seifer, Amy Shinnamon, & Kari Connors. "Community-University Partnerships for Mutual Learning", *Michigan Journal of Community Service Learning*, vol. 5, 1998, pp.97-107.
- Hart, Angie & Simon Northmore. "Auditing and Evaluating University-Community Engagement: Lessons from a UK Case Study", *Higher Education Quarterly*, vol. 65, no. 1, 2011, pp.34-58.
- Huber, Ludwig. "From General Education to Interdisciplinary Studies", *Higher Education Policy*, vol. 15, no. 1, 2002, pp.19-31.
- Kerrigan, Seanna M. "Sustaining Change: Successes,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from Twenty Years of Empowering Students through Community-Based Learning Capstones", *Metropolitan Universities Journal*, vol. 26, no. 3, 2015, pp.11-32.
- Levesque, Vanessa R. & Cameron P. Wake. "Organizational Change for Sustainability Education: A Case Study of One University's Efforts to Create and Implement Institution-Wide Sustainability Compet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vol. 22, no. 3, 2021, pp.497-515.
- Smith Arthur, Deborah & Zapoura Newton-Calvert. "Online Community-Based Learning as the Practice of Freedom: The Online Capstone Experience at Portland State University", *Metropolitan Universities Journal*, vol. 26, no. 3, 2015, pp.135-158.
- Spelt, Eimear H., Harm J. A. Biemans, Hilde Tobi, Pier A. Luning, & Martin Mulder. "Teaching and Learning in Interdisciplinary Higher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vol. 21, no. 4, 2009, pp.365-378.

Thomas, Nancy L. & Matthew Hartley. "Higher Education's Democratic Imperative",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no. 152, 2010, pp.99-107.

인터넷 사이트

Griffith University-Community Internship, <https://www.griffith.edu.au/arts-education-law/community-internship>, 2025.05.29.

Portland State University-Senior Year Capstone, <https://www.pdx.edu/university-studies/senior-year-capstone>, 2025.05.29.

University of Brighton-Public and Community Engagement, <https://www.brighton.ac.uk/about-us/your-university/community-partnerships/index.aspx>, 2025.05.29.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해외 주요 대학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양교과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교양대학 중심 접근의 교육적·행정적 가치를 탐구하고 한국 대학 교양교육에의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 포틀랜드 주립 대학, 영국 브라이튼 대학, 호주 그리피스 대학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교양대학 중심 접근은 간학문적 전통과 전인적 교육 목표의 효과성, 중립적 위치의 파트너십 구축 역량, 민주적 지식 공동 생산 모델, 문화적 맥락의 창의적 적응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우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 적용 방안을 다섯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구조적 특성 분석, 성찰 중심 학습의 한국적 재구성, 지역 파트너십 전략, 집단주의와 정 문화의 창의적 활용,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본 연구는 한국 교양교육이 시민적 역량과 공공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교양교육,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 교양대학, 지역사회 연계 교육, 대학의 사회적 책무

■ Abstract

Community Problem-Solving Curricula in Liberal Arts Education : Values and Directions for Korean Implementation Based on International University Case Studies

Oh, Gyungeun / Sangmyung University

Han, Kyueun /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community problem-solving liberal arts courses at major overseas universities to explore the educational and administrative value of a liberal arts college centered approach and propose application strategies for Korean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Through qualitative case studies of Portland State University (USA), University of Brighton (UK), and Griffith University (Australia), the research identified four key advantages of the liberal arts college-centered approach: effectiveness of interdisciplinary traditions and holistic educational goals in addressing complex community issues; capacity for sustainable partnership building through neutral positioning and flexible operational systems;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partnership models based on mutual learning and knowledge co-production; and creative adaptability to cultural contex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Korean application strategies across five dimensions: analysi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liberal education, Korean reconstruction of reflection-centered learning and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approaches, partnership strategies with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creative utilization of Korean characteristics such as collectivism and *jeong* culture, and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support systems encompassing faculty-student-administrative-financial aspects.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demonstrates that liberal education can play a pivotal role in fulfilling universities' social responsibilities in the 21st century. It is significant for revealing the essential alignment between Korea's *hongik-ingan* ideal and the public nature of modern liberal education, and

교양대학 중심의 지역공동체 문제해결형 교과목의 가치와 한국적 적용 방향
: 해외 주요 대학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오경은·한규은

for presenting concrete pathways for Korean university liberal education to develop beyond basic literacy education toward education that cultivates civic competency and public values.

Keyword • Liberal Arts Education, Community-Based Problem-Solving Courses, College of Liberal Arts, Community-Engaged Education, University Social Responsibility

청소년 인문 소양 교육 활성화 방안

: ‘청소년 인문교실’ 사례 중심으로*

강 경 균**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청소년의 성장에 있어 인문학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 인문학은 청소년에게 삶을 향한 질문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게 하며(김경집, 2016), 그 속에서 길을 잃은 청소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긍정적인 삶의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다. 또한 인문학은 청소년에게 윤리적 판단력을 키우고 ‘인간다움’을 성찰하는데 도움을 준다. Ricoeur에 따르면 서사를 통해 인물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의도를 확인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문화에 내재한 도덕과 관련하여 평가를 내릴 수 있어(Ricoeur, 김

* 본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연구보고24-수시03)’ 연구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강경균(제1저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식·이경래 역, 1999: 137), 청소년은 서사 속 부정적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성찰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시민의 성숙한 판단력과 책임 의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함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김겸, 이진남, 2018 :34).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과 추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판단과 추론 능력의 발달을 위해서는 풍부한 상상력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Nussbaum, 정영목 역, 2018: 35).

인문학은 서사 속 갈등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기와 타자, 현실과 세계를 이해하고 성찰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Ricoeur, 김웅권 역, 2006), 만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대화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나와 타인의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라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공동체 역량은 우리나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 뿐만 아니라, OECD 2030 프로젝트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인간다움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 문화와 공동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것,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가 인문학적 사고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 또한,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를 기반으로 판단과 추론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은 인문학적 사고를 증진시킨다(김겸, 이진남, 2018 :43). 이처럼 인문학은 청소년이 삶에 대하여 성찰하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며 행복을 느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문학을 통해 형성된 삶에 대한 태도는 ‘나다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삶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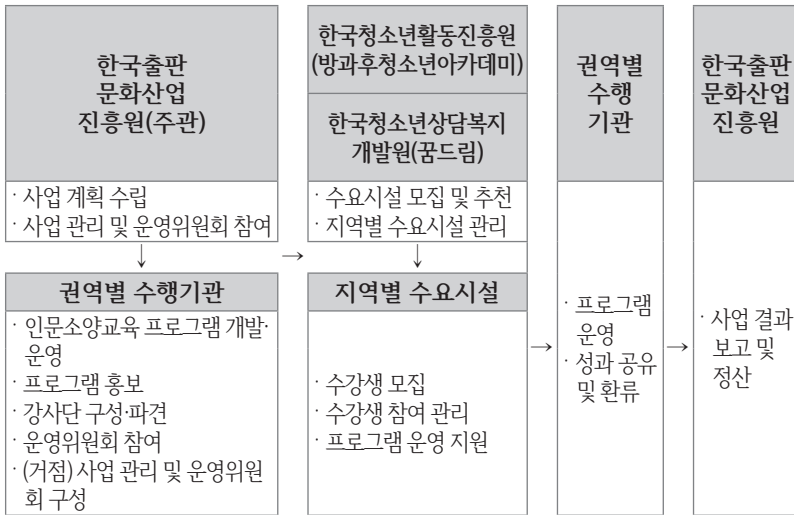
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문학의 청소년에게 끼치는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인문 교육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 대상의 인문 소양 교양의 확대와 인문 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도 도서관, 공공기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인문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적 필요성과 인문 사업 확대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인문교육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꿈드림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인문·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인문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 2022년 시범사업(20개소), 2023년 사업 확대(70개소)를 통해 청소년 대상 인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사업추진을 통해 확인한 효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는 ‘게임과몰입청소년 대상 인문프로그램’을 시범운영, 2025년 이후에는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의 효과를 질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추후 청소년 대상 인문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인문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과 함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점을 포함한 활성화 방안을 탐색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 개요



[그림 1]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2023~2025) 추진체계¹⁾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은 2022년 2개 권역(경기/광주·전남) 총 20여 개 청소년 수요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권역별 수행기관 5곳을 선정하여 3년간(2023년~2025년) 주관하여 운영한다. 2023년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은 2022년 2개 권역(경기/광주·전남) 총 20여 개 청소년 수요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사업의 확대 및 지역별 거점 구축 필요성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5개 권역별(서울·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 사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2)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계획 비교 분석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사업계획(안)』, 2024.

청소년 인문교실 분석을 사업계획의 영역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성과목표, 대, 운영방식, 프로그램 구성, 수요 시 설 운영, 후속 관리 및 환류 방안 마련, 기대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계획 비교 분석

구분	2023년 사업계획 ²⁾	2024년 사업계획 ³⁾
사업 내용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성과 목표	정 량 적	• 총 70개(5개 권역×14곳) 수요시설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모집 기관 10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모집 기관 4기관 • 총 900차시(1차시 2시간, 총 1,800시간) 운영 • 수혜대상 12,700명(연인원) * 2023년 참여자 수(12,377명)의 3% 상향 설정 • 만족도 80점 * 2023년 만족도 점수(78.3점)의 3% 상향 설정
	정 성 적	• 권역별 운영을 통한 장기적 청소년 인문교육 기반 마련 및 프로그램 확산 • 자아존중감·자기표현력 등 성과지표의 당초 대비 상승 • 권역별 운영을 통한 장기적 청소년 인문교육 기반 마련 및 프로그램 확산 • 사업대상 확대를 위해 신규 대상 발굴 및 전문강사 확보방안 마련 등
대상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초등 4학년~중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운영 방식	• 수요시설(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한 수요 청소년 모집·지원 • 수요시설은 협업기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의 연계 선정 • 수요시설-협업기관-수행기관(지역 대학 등) 연계하여 권역별 추진 • 5개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으로 구분하여 대학 또는 전문기관을 각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선정	

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계획(안)』, 2023.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자료, 2024.

운영 방식	• 권역별 수행기관 장기계속계약(계약 기간 3년)을 통한 사업 안정성 확보 • 거점수행기관(수도권 운영 기관) 선정을 통한 권역별 수행기관·수요시설 공동 세부분영지침 마련 및 공동 성과관리 지표 마련, 만족도 조사 등 추진 • 수행기관은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구성하여 권역 내 14개 내외 기관(각 권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계 10곳, 꿈드림 연계 4곳, 총 70개 기관 내외)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 • 권역별 수행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구성하여 수요시설 선택에 따라 제공(권역별 수행기관) 사업 운영 방침 따라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구성하며 제시 → [(협업기관) 수요시설 접수 및 선정]→(수요시설) 프로그램 신청]→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 수도권 운영기관이 거점수행기관이 되어 권역별 대표 업무 수행 - 권역별 수행기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수요시설의 요청에 맞게 프로그램 제공(권역별 수행기관) 프로그램 기획(강사 구성포함) 제시 → (협업기관) 수요시설들에게 사업내용 고지, 신청접수, 선정→ (권역별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관리(권역별 사업책임자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업관련 설문(사전, 사후 조사 /만족도조사 등) 진행 관리, 강사 관리·교육, (필요시) 권역별 우수 강사 교류, 사업 공동 홍보자료 배포
프로그램 구성	• 수요자 특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한 다양화·모듈화(수행기관은 수요시설 및 수요자의 특성, 주제,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장기(8차시, 16시간), 단기(4차시, 8시간), 초단기(1회)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	• 수요자 특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한 다양화·모듈화(수행기관은 수요시설 및 수요자의 특성, 주제,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장기(8차시, 16시간) ▲일회성(1차시, 2시간) -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프로그램 제공 예정, 수행기관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정 및 환류 체계 마련(연중)]
수요 시설 운영	• 수요시설 간 공통 운영지침 준수 - 권역별 프로그램(안) 확인 후 연간 최대 제공 범위 내* 신청·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연계 연 최대 2개 프로그램 지원(반기별 각 8차시, 총 16시간 내외) ▲꿈드림 연계 연 최대 3개 프로그램 지원(반기별 각 4차시, 총 8시간 내외 및 초단기 프로그램), 단,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담임·책임교사 지정을 통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수요 청소년 출석 관리, 운영 상황 보고 등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1명의 학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함	• (수요시설 운영) 수요시설들은 ‘공통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 권역별 프로그램(안) 확인 후 연간 최대 제공 범위 내 신청·운영 - 방과 후 아카데미: 연 최대 2개 프로그램 지원(총 16차시, 32시간), 꿈드림: 최대 · 4개 프로그램 지원(최대 4회, 총 8시간) - 프로그램 연속 참여 시설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 성장·성과 추적

후속 관리 및 환류 방안 마련	· 주요 청소년 대상 참여 수기 공모 및 우수작 시상·포상을 통한 참여도 제고 · 성과공유회 추진 및 만족도 조사	· 주요 청소년 대상 '제 2회 참여 수기 공모전'(9월초)(2022년 1회 공모전 개최) 및 우수작 시상·포상을 통한 사업 참여도 제고 · 사업 효과성 측정(사전·사후 설문조사)을 통한 2025년 사업 개선 · 2024년 사업 효과성 측정 지표(2023년 문화관광연구원의 성과측정지표 연구결과(2023년)를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할 예정임) · 성과공유회를 통한 사업성과 확산 · 권역 주관처와 협력, 지역 인문기관(전문가)들과 인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 개선 자문 등 추진(권역별 운영위원회와 협력 추진 가능)
기대 효과	· 인문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기 삶의 질 제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본질적·장기적 사회안전망 제공 · 청소년의 비판적 사유 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공감 능력, 상상력, 문해력 등의 증대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사회 갈등 요소 해소, 인문정신문화 확산	· 인문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기 삶의 질 제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본질적·장기적 사회안전망 제공 · 청소년의 비판적 사유 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공감 능력, 상상력, 문해력 등의 증대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사회 갈등 요소 해소, 인문정신문화 확산 · 새로운 인문소양을 갖춘 새로운 인재상의 요구 충족 및 공교육 내 인문소양교육 공백 지원 · 청소년 인문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인문정신문화 저변 확대

먼저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인문프로그램 운영이다. 성과 목표는 정량적, 정성적인 목표로 구분되며, 수요시설 운영, 프로그램 수, 수혜 인원로 구성되어 있다. 정성적인 목표는 장기적 청소년 인문교육 기반 마련 및 프로그램 확산과 사업 확대를 위한 신규대상 및 전문강사 확보 방안 마련이 제시되어 있다. 2023년에 비해 2024년의 성과목표는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대상 및 프로그램 만족도의 점수를 상향 설정하였으며, 정성적 평가에 있어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신규 대상 발굴 및 전문 강

사 확보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대상은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 (초등 4학년~중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후 대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운영 방식에 있어 수요시설은 협업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협약을 맺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공모 및 선정 하여 운영한다. 또한 수행기관이 5개 권역(수도권, 충청, 강원, 경상, 전라, 등)에서 선정되어 3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구성하여 권역 내 14개 내외 기관(각 권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계 10개 기관, 꿈드림 연계 4개 기관, 총 70개 기관 내외)에서 프로그램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수행기관 중 수도권 운영기관이 거점수행기관이 되어 권역별 대표 업무 수행하고 있다. 거점수행기관의 역할은 권역별 수행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수요시설의 요청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프로그램 관리 권역별 사업책임자 중심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업관련 설문 진행 관리, 강사 관리·교육, 권역별 우수 강사 교류, 사업 공통 홍보자료 배포 등을 운영하는 것이 추가되어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의 프로그램 구성은 수요자 특성 및 교육효과를 고려한 다양화·모듈화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23년의 장기, 단기, 초단기의 프로그램을 장기(8차시, 16시간), 일회성(1차시, 2시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제공하며, 수행기관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수정 및 환류 체계 마련하여 운영한다. 수요시설 운영은 공통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권역별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연간 최대 제공 범위 내에서 신청·운영하며, 프로그램 연속 참여 시설을 지정하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참여 이후 성장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사업의 후속 관리 및 환류 방안 마련을 위해, 본 프로

그럼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측정하여 추후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또한 성과공유회를 통한 사업성과 확산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사업 효과성 측정 지표를 새롭게 구성하여 효과성을 측정하며, 권역 주관처와 협력, 지역 인문기관(전문가)들과 인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업 개선 자문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본 사업의 기대 효과는 2023년과 2024년 공통적으로 인문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소년기 삶의 질 제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본질적·장기적 사회안전망 제공, 청소년의 비판적 사유 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공감 능력, 상상력, 문해력 등의 증대 및 이를 통한 다양한 사회 갈등 요소 해소, 인문정신문화 확산이다. 2024년 사업계획(안)의 기대효과로는 새로운 인문소양을 갖춘 새로운 인재상의 요구 충족 및 공교육 내 인문소양교육 공백 지원, 청소년 인문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인문정신문화 저변 확대 등으로 제시되었다.

3) 청소년 대상 인문·문화프로그램 사업 성과 분석

(1)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사업 권역별 주요성과

2023년에 실시한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사업의 성과로는 정부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표 2] 2023년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사업 권역별 주요성과⁴⁾

권역	수요 시설(개)	프로그램 참여 연 인원(명)	실참여 인원(명)	프로그램 진행 횟수(회)	프로그램 운영 시간	프로 그램 기획	청소년 인문강사 발굴
수도권	16	2,668	485	180	360	32	24
강원권	13	2,325	651	200	400	25	21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2024, 22쪽.

충청권	11	2,049	415	180	360	9	3
전라권	16	3,193	882	194	388	23	19
경상권	14	2,400	410	176	352	21	16
합계	70	12,635	2,843	930	1,860	110	83

또한, 청소년 인문·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5개 권역(강원, 충청, 전라, 경상,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며, 인문사업 관련 전문기관(3개 기관)과 지역 대학(2개 기관)에서 운영하였으며, 소외계층 청소년(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연계, 초등(5~6학년)/중등)과 학교 밖 청소년(중등 연령)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는 장기(8차시), 학교 밖 청소년에는 단기(4차시) 및 초단기(일회성)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 융합 분야로 목표영역과 핵심활동에 따라 운영하였다 또한, 권역별 운영시설에서 청소년 인문문화 프로그램 강사를 프로그램 분야별로 발굴하였다. 본 사업의 수요시설은 총 70개 기관에서 프로그램(소외계층청소년 62개 기관, 학교밖청소년 8개 기관)이 운영하였으며, 구체적인 권역별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2) 청소년 대상 인문·문화프로그램 효과성 및 만족도 분석

2023년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 및 만족도, 프로그램 강사 만족도, 시설 담당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참여자 1,582명, 강사 71명, 시설담당자 81명으로, 권역별(수도권, 충청, 강원, 전라, 경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기 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4~5회차 이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 사전 조사는 2023 7월 ~9월, 사후 조사는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별 만족도는 청소년 78.3점[필요성(72.4), 구성 및 주제(76.6), 강사평가(82.6), 만족도(80.2), 기대성과(77.6)], 시설담당자 87.7점[프로그램 평가(88.2), 만족도(88.1), 성과(86.3)], 강사 86.6점[사업 평가(87.3), 만족도(86.4), 성과(85.9)]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으로 인문 리터러시의 경우, 사전과 사후 평균 비교 결과 10.2점 상승하였으며(사전 72.0, 사후 78.6),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사전/ 사후 평균 비교 결과는 6.6점(사전 72.0, 사후 78.6) 상승하였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30-32).

4) 소결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사업을 통해 청소년 인문교실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23년 사업계획과 2024년 사업계획(안)의 프로그램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본 사업은 취약계층 청소년(초등 4학년~중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 계획에서 수혜 대상 인원 목표를 2023년에 비해 3% 상향 설정하였으며, 만족도 또한 3% 상향 설정을 하였다. 이러한 정량적 목표는 사업의 인원 수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인문 문화 확산과 프로그램 수혜자의 효과성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사업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한 사업 모집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모집을 하고 있다. 2024년 계획(안)에서는 사업의 대상 확대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기관뿐만 아니라 인문소양에 대한 취약계층 및 교육복지가 요구되는 청소년을 위한 대상 확대가 요구된다. 이러한 목표는 정부기관의 사업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

셋째, 2024년 계획(안)에는 전문 강사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전문 강사는 본 사업을 운영하는 권역별 운영기관 5곳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요시설(총 70개)에서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 강사 확보 방안 마련은 프로그램 질의 전문성, 강사 확보의 안정성과 관련되며 강사 만족도 및 프로그램의 질 향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문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인문문화 활성화에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본 사업의 운영방식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의 연계를 통해 선정된 수요시설-협업기관-수행기관(지역 대학 등)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5개 권역(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에 선정된 수행기관이 대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거점수행기관(수도권 운영 기관) 선정을 통한 권역별 수행기관·수요시설 공통 세부운영 지침 마련 및 공통 성과관리 지표 마련, 만족도 조사 등 추진하고 있으며, 권역별 프로그램은 담당 지역의 수요시설의 요청에 맞게 프로그램 제공(강사 구성 포함)하고 있다. 지역별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강사 구성 등의 인문교육 관련 사업의 역량에 대한 효과가 높아질 것이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요시설 역시 인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관심과 수요시설에 대한 인지도 등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섯째, 본 사업의 기대효과로서 청소년기 삶의 질 제고, 청소년의 비판적 사유 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공감 능력, 상상력, 문해력 등의 증대 등이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청소년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의 운영의 성과 및 효과로서 취약계층 청소년에 본질적·장기적 사회안전망 제공, 이를 통한 다양한 사회 갈등 요소 해소, 인문정신문화 확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여섯째, 이상의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 그리고 기대효과를 통해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청소년기 삶의 질 제고, 청소년의 비판적 사유 능력, 자아존중감, 자기표현력, 공감 능력, 상상력, 문해력 등의 역량 변화, 지역사회 인문문화 확산 역량, 운영기관의 역량으로 효과성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청소년 인문교실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 인문소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 인문교실에 참여하여 사업을 운영한 전국 5개 권역 운영자, 시설운영자, 강사들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사업에 참여한 운영자들의 경험 탐색을 통하여 본 사업을 운영하면서 아쉬운 점,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 인문학 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인문교실 운영자 대상 효과성 분석을 위해 청소년 전국 5개권역(서울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 운영자를 대상으로 그룹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참여 청소년의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한 시설담당자의 수기집 15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에서 청소년 인문학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교육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3] 2023년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사업 권역별 주요성과

연구대상	내용	일시	비고
운영자 1	서울권 운영자 2인	24.07.05	효과성 분석 / 활성화 방안
운영자 2	충청권 운영자 2인	24.08.06	
운영자 3	경상권 운영자 2인, 강사 1인	24.08.23	
운영자 4	강원권 운영자 2인	24.08.26	
운영자 5	광주권 운영자 2인	24.09.11	

수기집	시설 운영자 수기집 15편	-	활성화 방안
다큐멘터리 ⁵⁾	인문교실 홈페이지 탑재된 자료	24.02.25	
동영상 ⁶⁾	인문교실 홈페이지 탑재된 자료	24.01.09	
전문가 A	정부부처 대상 청소년 및 영재 교육 사업 경험 10년 이상	24.06.20	
전문가 B	정부기관 과장, 중등교육 및 사업 관련 25년 이상	24.06.28	
전문가 C	인문학 관련 박사논문, 대학교 강의 및 초등학교 강의	24.06.28	

청소년 인문교실 운영자 대상 효과성 및 활성화 방안 분석을 위한 심층면접 대상자는 각 권역 운영자 2인과 지역사회 강사 1명, 전문가 3인 총 14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각 30분~60분 정도 실시하였다. 또한 시설 운영자 대상으로 실시한 수기공모전의 수기집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특히 시설 운영자 대상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심층면접가이드 라인은 이론적 고찰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청소년 인문교실 운영자 효과성 분석을 위한 심층면접 가이드 라인

영역	질문 내용
운영 기관 의 효과성	· 본 사업을 운영 함에 있어 기관에서의 발전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 본 사업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기관의 역량 - 본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설 및 인원의 변화된 역량 - 1년차, 2년차 운영하면서 사업에 대한 장기적 계획
지역사회 효과성	·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떠한 기관과 협업을 하였습니까? · 지역사회 인적·물적 인프라의 확대가 어떻게 발생하였습니까? · 지역사회의 협업의 어려움과 한계는 무엇이었습니까?

5) 유튜브 - 인문360 <[2023 청소년 인문교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si=rutnU-dp6hIZklCV&v=Gq4wAc4MB7M&feature=youtu.be>, 2024.08.25.

6) SBS -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340회 <인문학의 쓸모 내 삶의 나침반을 찾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sundaydocum/vod/52376/22000523044>, 2024.08.25.

청소년의 효과성	· 청소년에게 인문 교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번 활동으로 청소년이 본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 본 활동에 대하여 추후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인문교실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운영자 및 강사를 대상으로 운영 기관의 효과성, 지역사회의 효과성 그리고 청소년의 효과성으로 영역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인문교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의 개선방안, 아쉬운 점 등을 질문하였으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은 ‘청소년 대상 인문교실의 필요성’,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자료의 분석 및 타당성 검증

청소년 인문교실의 효과성 분석을 위하여 참여한 연구참여자 11명의 심층면담 자료를 수집하여 전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사된 자료와 시설 운영자의 수기집, 인문교실 사업 홈페이지에 탑재된 인문학 관련 다큐멘터리 및 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범주화 분석을 통해 분석을 시작하였다.

자료의 분석 틀은 청소년 인문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2장에서 제시한 효과성 분석 영역인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및 효과성, 권역별 운영시설 및 수요시설의 역량 향상, 지역사회 인문·문화환경 개선의 영역과 본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준으로 주제를 도출하고 범주화하였다.

[표 5]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운영자 대상 효과성 분석 틀

영역	내용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및 효과성	· 프로그램 만족도 · 프로그램 효과성
권역별 운영시설 및 수요시설의 역량 향상	· 청소년 인문 강사 발굴 · 연간 운영 계획의 변화 · 프로그램 재구성 및 프로그램 변화 · 청소년 관련 문제 해결 효과 ·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지역사회 인문 · 문화환경 개선	· 물적·인적 자본 확충 · 인문적 문화 향유 및 역량 증진 · 지역사회의 대외적 네트워크 형성 · 지역사회의 인문문화 인프라 활용 ·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인문문화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방안	· 아쉬운 점 및 개선할 점 · 청소년 대상 인문학의 필요성 ·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확대 방안

자료에 대한 분석은 전사된 자료로부터 개념을 도출하여 범주화 하였다. 효과성 및 만족도, 권역별 운영시설 및 수요시설의 역량 향상, 지역사회 인문·문화환경 개선의 영역은 중복된 개념을 추상화하여 영역과 내용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는 각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 분석하여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인문학 및 질적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2인 및 수기, 다큐멘터리, 인터뷰 간의 다각적 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4. 연구의 결과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운영자를 대상으로 효과성을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분석 틀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및 효과성, 권역별 운영시설 및 수요시설의 역량 향상, 지역사회 인문·문화환경 개선의 영역과 그 내용을 기준으로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는 운영자 대상 개선 방안, 청소년 대상 인문학의 필요성,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표 6] 청소년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관련 범주화 결과

영역	내용	주제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및 효과성	프로그램 만족도	· 지속적인 수업을 하고 싶고 다른 곳에도 추천함 ·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즐겁고 만족스러움 · 강사가 재미있고 열정 있게 가르쳐 줌
	프로그램 효과성	·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고 자신있게 표현함 ·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전달력 있게 공유함 · 지역에 대한 새로운 앎을 통해 소속감과 자부심이 생김 · 나와 타인의 이해로 서로 알아감 협동심과 공동체 · 의식이 향상되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 · 올바른 습관과 바른 인성을 배움 · 더불어 살면서 당당하고 행복한 법에 대해 알려줌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함 ·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자신만의 사유의 틀을 만들어 냄 · 건강한 가치관을 갖고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생각을 갖게 함 · 인문학의 딱딱함이 말랑해지고 쉽게 다가감 · 문해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깊게 이해함
권역별 운영 시설 및 주요 시설의 역량 향상	청소년 인문 강사 발굴	· 지역 인문 활동가를 섭외함 · 대학 내 인문 관련 학과에서 강사를 모집함 · 강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 경험이 있는 강사를 섭외함 · 원거리로 인해 해당 지역 강사를 구함 · 지역 기반 청소년과 인문학을 주제 운영 단체 섭외함
	연간 운영 계획의 변화	· 연간 사업이 일정 계획과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됨 · 지속적 사업으로 효율성이 생김
	프로그램 재구성 및 프로그램 변화	· 지역과 연계되어 프로그램을 제안함 · 수요시설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재구성함 · 강사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함 · 교육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함 ·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도와 호응도를 확인하고 반영함
	청소년 관련 문제 해결 효과	· 인문학에 대한 지루함과 괴리감이 없어짐 · 비대면활동의 익숙함으로 문해력 저해와 관계 맺기 어려움 해결 · 다문화 이해를 통해 교육적 요구를 해소함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 인문 주제 관련 연구 모임을 진행함 · 인문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역량을 증진함 · 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조언과 특강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됨 · 지역 전문강사와 역량 강화 세미나로 인문 소양 쌓음 · 분야별 워크숍을 통해 지식과 이해의 폭이 넓어짐
	물적·인적 자원 확충	· 실무 인원이 충족됨 · 기관 내 팀 및 운영사무국이 생김 · 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험자가 사업에 투입됨
인문적 문화 향유 및 역량 증진		·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낌 · 지역 인문 공동체 구축사업과 연계함 · 취약계층에 인문학을 접할 수 있게 해줌

지역 사회 인문· 문화 환경 개선	지역사회의 대외적 네트워크 형성	· 수요기관을 자체 발굴함 · 지역 학교(초,중,고)를 발굴하여 운영함 · 인문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되는 계기가 됨 · 지역의 대안학교, 영화관, 지역아동센터, 한국학진흥원,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운영함 · 작가, 지역 강사, 청소년 업계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확산
	지역사회의 인문문화 인프라 활용	· 지역 강사와 지역 인프라가 함께 도움됨 · 지역의 관광 및 역사적 지역을 활용 · 지역 인맥과 단체를 통해 확장해 나감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인문문화 프로그램 개발	· 지역 강사가 지역 및 시설을 이해함 · 지역에 담겨 있는 역사적 배경과 이야기 흐름을 수업에서 풀어줌 · 지역 사회를 관찰하며 자긍심 갖는 프로그램 개발함
인문 교실 활성화 방안	운영자 대상 개선 방안	· 강사 발굴 및 양성 관련 지표가 필요함 · 사회 리더 양성을 위해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음 · 고등학교 학생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함 · 사업 자료 축적과 발전을 위해 2년 운영이 지속되길 희망함 · 5개 권역에서 17개 시도권역으로 사업 확장이 필요함
	청소년 대상 인문학의 필요성	· 나와 타인의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함 · 비판적 사고와 토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함양 · 문학 속 인물들과의 공감을 통해 판단과 윤리의 문제 간접 체험함 · 만남을 통해 자신을 성찰 할 수 있는 귀한 대화의 기회를 갖음 · 자발적인 독서를 통해 독자로서의 즐거움을 찾게 함 · ‘인간다움’을 성찰하는데 극대화 함 · 미래 문해해결력을 키우는 위함 · 인간적으로 가슴에 따뜻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 됨 · 나 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줌 ·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사고의 힘을 배울 수 있음 · 힘들 때 버티게 해주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줌 · 세상을 행복하게 보는 렌즈를 가짐 · 삶을 살아가는 가치를 공감 · 마음의 힘을 기름 · 삶의 방향성을 찾음 · 철학적인 성찰 거리를 찾는 과정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확대 방안	· 학교에서 인문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 인문학적 사고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개발 · 일반계고에서 입시 준비가 아닌 인문학적인 책 읽기가 요구됨 · 인문학적 고민은 나와 사회의 차이를 줄여주는 완충장치임 ·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이 필요함 · 직업계고 교육과정에 인문학적 교육이 결핍되어 있음 · 직업계고 학생에게 자존감 회복의 기회 제공 · 직업계고 교사 중심 인문학 공모전 사업이 요구됨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확대 방안	· 직업기초능력이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관계가 높음 · 직업기초능력의 평가 주제로서 인문학 융합 프로젝트 · 전문교과 교사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사업이 필요함 · 직업계고 학생에게 연구이나 문화활동의 지원이 필요함 · 과기부의 KSOP에도 접근할 수 있음 · 특허청 IP-CEO 사업 프로그램에 인문학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경험한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및 효과성 영역의 운영자가 경험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강사가 재미있고 열정적으로 가르쳐줘 다른 곳에도 추천하고 싶음'으로 도출되었고, 프로그램 효과성으로는 본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인문학이 딱딱함이 말랑해지고 쉽게 다가오며 문해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문학 작품을 깊이 이해하며 접할 수 있게 되었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고 자신있게 표현하며 구체적으로 전달력 있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새로운 앎을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생겼으며, 나와 타인의 이해로 서로 알아가며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사회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권역별 운영시설 및 수요시설의 역량 향상 영역에서 청소년 인문 강사 발굴의 내용에서 도출된 주제는 인문 강사 발굴의 목적은 강사 양성과, 강사 충족, 원거리 강의 지원 등의 이유에 의해 대학 등 기관 및 청소년과 인문학을 운영하는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맥을 통해 강사를 모집하며 강사를 발굴함으로 나타났다. 연간 운영 계획의 변화로는 본 사업이 3년간의 사업 중 2년째 운영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프로그램 자료 확보로 2차년도 운영의 효율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재구성 및 프로그램 변화의 내용으로는 본 사업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강사와 협의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주요 시설의 대상 및 환경 등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적으로 취약한 부분 및 집중도와 호응도를 확인하며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관련 문제 해결 효과에서는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운영자와 청소년들은 인문학에 대한 지루함과 괴리감이 없어지고, 비대면활동의 익숙함으로 문해력 저해와 친구 및 또래 간 관계 맺기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학생 및 친구들과의 이해를 통해 교육적 요구를 해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는 본 사업을 시작하면서 권역별 운영국에서는 인문 주제 관련 연구 모임을 진행하며 전시회, 강연, 포럼, 도서전 등에 참여하고 구성된 위원회에서의 전문가 특강과 조언 그리고 분야별 워크숍, 지역전문 강사 역량강화 세미나 등으로 인문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물질·인적 자본 확충에서는 본 사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시설의 실무 인원이 충족되고, 기관 내 팀 및 운영사무국이 개설되었으며, 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험자가 사업에 투입되어 사업이 운영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지역사회 인문·문화환경 개선의 영역으로 인문적 문화 향유 및 역량 증진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취약계층에 인문학을 접할 수 있게 하며, 지역 인문 공동체 구축사업과 연계하며 지역사회 인문 역량을 증진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지역사회의 대외적 네트워크 형성에서는 운영국이 본 사업의 수요기관을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기관과는 별도로 자체 발굴함에 따라 지역 학교(초,중,고), 대안학교, 대안학교, 영화관, 지역아동센터, 한국학진흥원 등과 연계하여 사업의 대상을 확장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지역사회의 인문문화 인프라 활용에서는 지역사회 강사가 지역의 관광 및 역사적 지역 등을 활용하여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

런 지역 인맥과 단체를 통해 인문문화 인프라를 확장해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인문문화프로그램 개발에서는 강사가 지역 및 시설을 이해하고 관찰하며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이야기의 흐름을 수업에서 활용하여 인문문화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역의 자긍심을 높임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인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활성화 방안에서 먼저 운영자 대상 개선 사항에서는 평가 지표와 관련하여 강사 발굴 및 양성 관련 지표가 필요하고, 사회 리더 양성을 위해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과 특히 고등학교 학생에게 사업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사업 자료 축적과 발전을 위해 추후 2년 운영이 지속되길 희망하였으며, 해당 운영국의 거리상의 한계로 사업 운영국이 5개 권역에서 17개 시·도 권역으로 사업 확장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청소년 인문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인문교실의 효과성에서와 같이 나와 타인의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고, 인문학이 비판적 사고와 토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역량 함양되며, 문학 속 인물들과의 공감을 통해 판단과 윤리의 문제 간접 체험하고 만남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자발적인 독서를 통해 독자로서의 즐거움을 찾게 하고, '인간다움'을 성찰하는데 극대화하고, 인간적으로 가슴에 따뜻한 느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며, 나 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사고의 힘을 배울 수 있으며, 힘들 때 버티게 해주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세상을 행복하게 보는 렌즈를 가질 수 있어 청소년에게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확대 방안으로는 먼저 학교에서 인문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개발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위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필요함에 따라 일반계고에서 입시 준비가 아닌 인문학적인 책 읽기가 요구되어 일반계고에서의 인문학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들 대상의 인문학 사업의 확대를 통해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에게 인문학적 고민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전문교과와 일반교과와의 균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직업기초능력의 평가 주제로서 인문학 융합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고, 직업계고 학생에게 연구이나 문화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교과 교사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사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학교에 처한 상황들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교사 동아리,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다양한 인문학적 지원을 함으로써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외계층 잠재 영재 학생 발굴하여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성장 지원하는 프로그램(KSOP)과 특허청의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IP-CEO) 사업 프로그램에서 인문학이 교육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영재 학생 대상으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인문소양 함양과 인문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을 하나의 사례로 사업에 참여한 운영자 및 지역 강사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요시설 운영자의 수기집, 인문교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큐멘터리, 홍보 동영상에서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여 인문교실 사업을 통한 효과와 청소년 인문소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

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인 학생 뿐만 아니라 시설 담당자 또한 인문학이 쉽고 가까이 다가왔고, 청소년들은 지역에 대한 새로운 앎을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생겼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사회 속에서 당당하고 행복하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의 강사와 지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지역에 대한 새로운 앎을 통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이 증진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인문학의 주제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소재를 적극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권역별 운영시설 및 수요시설의 역량 향상 영역에서 청소년 인문 강사 발굴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개인과 단체의 연계를 통해 강사를 모집하고 발굴함을 알 수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이 단순히 강사 발굴에만 있지 않고 지역사회 강사를 발굴하고 양성함으로 인문학의 네트워크를 증진시키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간 운영 계획의 변화로는 본 사업이 1차년인 2023년에 이어 2차년도 운영되는 것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2차년도인 2024년에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에 도움이 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수요시설의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요구 및 인문학 수업의 특징을 본다면 본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의 특성상 강사와 프로그램을 협업하고 재구성함에 따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수요시설의 대상 및 환경 등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본 사업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이 증진되었으며,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적으로 취약한 부분 및 집중도와 호응도를 확인하며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단순히 참여로서 운영에서의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변화 및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평가로서 추후 사업의 운영

에 적극 반영하여 수요시설 사전 답사 및 모니터링 관련 운영이 구체화 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인문학에 대하여 다양한 접근과 홍보가 필요하며,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 사회의 문제 해결로서 인문학에 대한 사업의 확대가 요구된다.

지역사회 인문·문화환경 개선의 영역으로 인문적 문화 향유 및 역량 증진에서는 인문학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에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취약계층에 인문학을 접할 수 있게 하며, 지역 인문 공동체 구축사업과 연계하며 지역사회 인문 역량을 증진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사업이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인문학 활동 기관 등 지역사회의 인문학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인적 물적 인프라가 활성화되었다. 아울러 학교 안에서 프로그램과 특히 고등학교 학생에게 사업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청소년 인문교실 확대 방안으로는 학교에서 인문 주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자료 개발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교과와 비교과에서 인문학에 접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문학적 교육이 교육과정 내에 부족한 특성화고에서의 인문학에 대한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으로 직업기초능력의 평가 주제로서 인문학 융합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고, 직업계고 학생에게 연구이나 문화 활동의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교과 교사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기회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교실의 운영자 및 강사에게 있어서 전문성을 함양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인문교육에 대한 전문가 특강, 분야별 워크숍, 지역전문강사 역량강화 세미나 등이 활발히 운영되어야 겠다. 둘째, 청소년 인문교실에 대한 권역별 공통적

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5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역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함께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에 기준이 되는 표준화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대상으로 직업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추후 인문교실의 효과성 고려해 볼 때 고립은둔 청소년, 위(Wee)센터 등으로의 확대와 다양한 청소년 공간에서 인문학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김경집, 『엄마 인문학』, 꿈결, 201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4년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사업계획(안)』, 2024.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3년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계획(안)』, 2023.
- _____, 『2023년 청소년 인문·문화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2024.
- Nussbaum, M. C. 저, 박용준 역, 『시적 정의』, 궁리, 2013.
- _____, 정영목 역, 『인간성 수업: 새로운 전인교육을 위한 고전의 변론』, 문학동네, 2018.
- Ricoeur, P. 저, 김웅권 역, 『타자로서 자기 자신』, 동문선, 2006.
- _____, 김한식·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 1』, 문학과 지성사, 1999.
- Strauss, A. & Corbin, J. 공저, 김수지·신경림 공역, 『근거이론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1996.

논문

- 김겸·이진남, 「시민교육으로서의 인문학적 사고와 대화 교육 모델 개발」, 『사고와 표현』 11권 2호, 2018, 33-64쪽.
- 박경희, 「청소년소설 서사를 활용한 청소년인문학 프로그램 연구」, 『인문사회21』 13권 3호, 2022, 2463-2478쪽.
- 이진오, 「청소년 치유인문학 사례기반 교재 탐색」, 『철학논집』 46호, 2016, 265-316쪽.
- 정문성·석문주·모경환·김혜경·박새롬, 「문화예술교육 효과성 연구」, 『열린교육연구』 20권 1호, 2012, 165-194쪽.

인터넷 사이트

- 유튜브 - 인문360 <[2023 청소년 인문교실] 홍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si=rutnU-dp6hIZkICV&v=Gq4w>

Ac4MB7M&feature=youtu.be, 2024.08.25.

SBS - 일요 특선 다큐멘터리: 340회 <인문학의 쓸모 내 삶의 나침반을 찾다>, <https://programs.sbs.co.kr/culture/sundaydocum/vod/52376/22000523044>, 2024.08.25.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의 효과를 질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인문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계획 분석과 청소년 인문교실 관련 참여자와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질적 자료를 통하여 청소년 대상 인문사업의 운영의 효과성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청소년 인문교실 운영자 대상 효과성 분석을 위해 청소년 전국 5개권역 운영자를 대상으로 그룹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참여 청소년의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한 시설담당자의 수기집 15편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에서 청소년 인문학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교육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분석은 전사된 자료로부터 개념을 도출하여 범주화하였다. 효과성 및 만족도, 권역별 운영시설 및 수요시설의 역량 향상, 지역사회 인문·문화환경 개선의 영역은 중복된 개념을 추상화하여 영역과 내용에 따라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활성화 방안의 경우에는 각 전문가의 의견을 심층 분석하여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재현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결과에 대하여 동료 검증 및 다각적 검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만족도 및 효과성, 권역별 운영시설 및 수요시설의 역량 향상 (청소년 인문 강사 발굴, 프로그램 재구성 및 프로그램 변화, 청소년 관련 문제 해결 효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물적·인적 자본 확충), 인문교육 활성화 방안(운영자 대상 개선 방안, 청소년 대상 인문학의 필요성, 청소년 인문교실 사업의 확대 방안)이 도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직업계고에서의 인문교육 활성화, 학교에서의 교과와 비교과에서 인문학에 접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인문 소양, 청소년 인문교육,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인문 소양 교육

■ Abstract

Strategies for Enhancing Youth Humanities Education : Focusing on the 'Youth Humanities Class' Case Study

Kang, KyoungKyoony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easures to revitalize humanities culture programs targeting adolescents by qualitatively deriving the operational effects, focusing on cases from the Youth Humanities Class project. To this end,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project plan for the Youth Humanities Class, and the effectiveness and activation strategies for humanities programs targeting adolescents were examined through various qualitative data—including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project operators, and experts involved with the Youth Humanities Class project. For data collection, in-depth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operators from five region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the Youth Humanities Classroom program. Additionally, 15 handwritten accounts from facility coordinato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longside the youth participants were analyzed. To explore enhancing measures for this program,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xperts who operate and educate youth humanities-related programs in government agencies and academia. Data analysis involved deriving concepts from transcribed materials and categorizing them. For the areas of effectiveness and satisfaction, capacity enhancement of regional operating and demand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community humanities and cultural environment, overlapping concepts were abstracted to derive themes according to areas and content. In the case of activating measures, each expert's opinions were analyzed in-depth to derive meaningful themes that could represent ways to revitalize the Youth Humanities Classroom program. The validity of the data analysis results was verified through peer review and triangul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study identified participants' satisfaction and the program's effectiveness; capacity improvements for operating and

demand facilities in each region (including the discovery of youth humanities instructors, program reorganization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solving youth-related issues, enhancement of members' professionalism, and expansion of tangible and human resources); and identified humanities education activation strategies (such as improvement measures for program operators, the necessity of humanities subjects for youth, and ways to expand the Youth Humanities Class project).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to promote humanities education at vocational high schools and to offer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encounter humanities both through curricular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at school.

Keyword • Youth Humanities Literacy, Youth Humanities Education, Humanities Education Program for Youth, Liberal Arts Education

■ 논문투고일:2025.05.30. ■ 심사완료일:2025.07.14. ■ 게재확정일:2025.07.17. ■

현대 사회에 있어 관례(성년식) 필요성에 대한 고찰 : 책임의식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언

서 원 혁*

목 차

1. 서론
2. 관례 또는 성년식에 대한 설문조사
3. 설문 결과에 기초한 성년식 필요 여부 확인
4. 성년식의 올바른 방향성 탐구
5. 결론 및 인성 교육 프로그램 제언

1. 서론

빠른 변화로 인해 현대사회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개인 정체성 혼란과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 정립이 늦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희미해지는 등 개인에서 사회로의 전환이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있어 성년이라는 실질적 의미와 상징은 점점 사라지고 성년 의식도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성인이 된다는 사실이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적 의례를 통해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자각

* 서원혁(단독저자) 충남대학교 강사

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던 것이 바로 ‘관례(冠禮)’였다. 관례는 주대(周代)부터 시작된 중국의 성년례(成年禮)로서 남자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그 자질을 갖추게 되면 20세에 종묘에서 의식을 거행하였다.¹⁾ 관례는 유교 전통 사회에서 남성이 성년이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그에 맞는 예절과 책임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통과 의례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관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젊은 세대는 매우 드물며, 성년이 되는 과정은 단순한 생물학적 성숙이나 법적 구분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으로서의 주제적 인식, 사회적 자각, 책임 의식, 도덕적 성숙 등에 대한 체험적 교육이나 사회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전통적 의례나 현대의 성년식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당사자로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관례 즉 성년식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여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관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도출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년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 성년식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 탐구한다. 아울러 성년식이 여전히 유효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 재구성 방안을 제시하여 본 연구가 기존의 연구보다 한층 실질적 연구가 되도록 할 것이다.

1) 『禮記』, 「內則」 “十年出外就傅 宿於外學書記 …… 十有三年學樂誦詩舞勺 成童舞象學射御 二十而冠 始學禮”; 노인숙, 「冠禮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 - 儀禮와 禮記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3집, 동아인문학회, 2015, 406-407쪽 참조.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관례나 성년례, 성년 의식과 관련된 논문은 의식, 복제, 차례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 논문 중 본 논문은 주제와 관련하여 성인(成人), 윤리적 의미, 인성, 현대 성년식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서영의 「성년례(成年禮)의 사회 윤리적 의미와 성인이행기의 교육역할 연구」에서는 성년례를 올리는 기본 정신에 대한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전통 성년례인 관례의 절차에 담긴 윤리적 의미를 고찰하여 전통 성년례와 함께하는 ‘성인되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성인은 처음이지’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7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2회와 6회 차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도록 구성되었다. 나와 부모의 관계성, 나에 대한 집중, 사회 속 나의 태도와 역할에 대하여 사전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성년례의 의미를 파악한 후 전통 성년례를 시행하게 되며, 사전교육의 내용과 성년례를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후교육으로 마무리하게 된다.²⁾ 송미화의 「관례(冠禮)의 전통과 인성교육적 함의」에서는 본명을 대신하여 지어주는 자(字)와 그 의미를 설명하는 자설(字說)의 현대적 의의가 매우 크기에 이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자(字)를 짓는 의미와 자의 상세한 뜻을 전달하는 자설을 지어 주면서 일생동안 명심하고 지켜가야 할 가치와 규범을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이 인생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³⁾ 노인숙의 「冠禮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 - 儀禮와 禮記를 중심으로」에서는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의 단계에서 인성교육과 덕성교육을 강화하여 성인 준비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이 필요하며, 성인식을 자신과 사회

2) 조서영, 「성년례(成年禮)의 사회 윤리적 의미와 성인이행기의 교육역할 연구」, 『동양고전연구』 97집, 동양고전학회, 2024, 480-482쪽 참조.

3) 송미화, 「관례(冠禮)의 전통과 인성교육적 함의」, 『대동철학』 89집, 대동철학회, 2019, 54-60쪽 참조.

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이를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인식의 방향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관례의 의의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보면 도덕성의 확립과 시민의식의 함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선진화의 문턱을 넘기 위하여서는 경제적 성취 이외에 정직, 배려, 준법, 감사 등 시민의식의 선진화가 중요하기에 이런 의미에서 성년식을 하루 행사로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전통 관례에서 살리면 좋을 가치를 살려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⁴⁾ 김은희의 「전통 성년례의 현대적 의의」에서는 대학에서는 교육의 책무가 있는 만큼 각 대학에서 전통 성년례를 주관할 부서를 개설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강사를 초빙해서 상시로 성년례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며 성년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 조창규의 「유가 관례의 문화 해석」은 유가의 관례는 ‘사회적 관계의 획득’을 중시하는 문화적 의례 방식임을 표방한다고 밝힌다. 관례에서 행해지는 삼가(三加)례의 축사와 초례의 축사에서 모두 “어린 시절과 단절을 통해 성인으로 통합되어 성인의 문화를 습득하고 혈연 집단 내의 역할을 수행하여 세대를 계승하고 지속하라”는 당부가 함축되어 있으니, 역시 ‘사회적 관계의 획득’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⁶⁾ 이문주의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 분석」에서는 전통관례가 현대적 성인의식을 제정하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통 관례의 변잡한 모든 절차를 거치지는 않더라도 절차에 담긴 의미를 참가자들이 이해하고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거기에 걸 맞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관례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전통 관례의 재

4) 노인숙, 앞의 논문, 436-438쪽 참조.

5) 김은희, 「전통 성년례의 현대적 의의」, 『동양학연구』 9집, 원광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3, 190-191쪽 참조.

6) 조창규, 「유가 관례의 문화해석」, 『대동학문화27』, 대동학문화회, 2007, 415-416쪽 참조.

구성을 주문하기도 했다.⁷⁾ 염숙의 「전통관례(계례)의 의미 속에서 현대 성년례의 방향모색」에서는 현대사회에서도 전통 의식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실적 상황과 조건에 맞는 성년례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현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의식의 절차로 바꾸어 바람직한 성년례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⁸⁾ 이희재의 「한국의 전통 관례와 성인의 의미」에서 오늘날 핵가족화의 과보호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들 상황을 볼 때 성년기에 진입했음에도 여전히 아이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성인의 의미를 성적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개념으로만 파악하여 성인의 의미를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 관례의 이름을 성년례로 바꾸고 20세에 국한할 필요 없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자(字)를 지어주고 정장을 착용한 성년식을 거행케 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⁹⁾ 학위논문으로는 김연희, 『傳統冠禮의 成人의 의미와 현대화 방안 연구』, 석사논문, 성균관대, 2022와 김은희, 『韓國 傳統成年禮에 관한 研究』, 박사논문, 원광대학교, 2015, 황미선, 이은영, 『한국성년례 복식의 형태와 의미』, 석사논문, 배제대, 2013, 김혜경, 『傳統冠禮와 現代 成年禮 服飾 研究』, 박사논문, 성균관대, 2008. 등이 있다.

본 연구자가 진행하는 이번 연구의 특징은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성년의식인 관례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서도 이것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

7) 이문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교사상연구』 17집, 한국유교학회, 2002, 15-16쪽 참조.

8) 염 숙, 「傳統冠禮(笄禮)의 意味속에서 現代成年禮의 方向摸索」, 『차문화·산업화』 2집, 국제차문화학회, 2006, 17-20쪽 참조.

9) 이희재, 「韓國의 傳統冠禮와 成人의 意味」, 『동양예학』 5집, 동양예학회, 2000, 152-154쪽 참조.

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틀을 달리하면서도 실질적 대안을 마련코자 하는 노력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관례 또는 성년식에 대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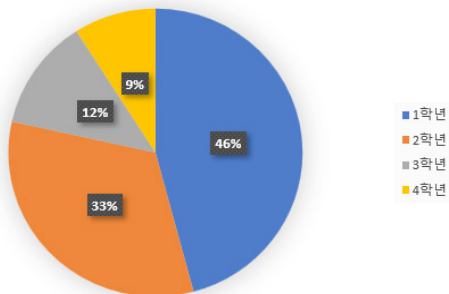
1) 설문조사에 대한 기본 설명

설문 대상은 대전 소재의 대학을 재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 진행은 2025년 4월 14일에서 2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 진행 방식은 구글폼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제목은 “성년이 된 이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년 의식 인식 조사-로 하였다. 질문을 세 가지 테마로 하여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기본정보로 2가지 질문을 하였다. 1. 학년, 2. 성별이다. 두 번째는 대학생의 성년 인식을 묻는 질문으로 5개 문항이다. 3. 당신은 자신이 성년(成年)이라고 느끼십니까?, 4. 성년이 되었다고 느낀 시점은 언제입니까?, 5. 성년이 된 이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입니까?, 6. 성년이 된 이후, 본인이 가장 필요로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7. 현재 당신은 성년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등이다. 세 번째는 성년 의식인 관례와 관련된 질문이다. 본 연구 논문의 주제인 성년 의식 즉, 관례의 필요성 등에 대한 5가지 질문을 진행했다. 8. 성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기념하거나 의식을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9. 당신은 성년 의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0. 성년 의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등 객관식 3개를 질문했다, 이어 주관식 설문으로 2개를 질문하였다. 11. 성년 이후 삶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무엇인가? , 12. 성년 의식인 관례 또는 성년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의견을 물어보았다. 아래는 각각의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2) 설문조사 내용 및 결과

(1)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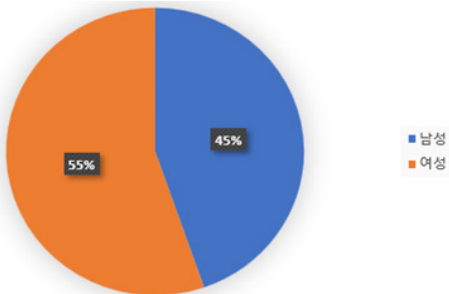
[표 1] 응답자 학년



▶ 설문조사 응답자의 학년은 1학년 66명으로 45.8%, 2학년 47명으로 32.6% 등으로 113명으로 78.4%를 차지했다. 나머지 3학년 18명 12.5%, 4학년 13명 9% 순이었다.

(2) 성별을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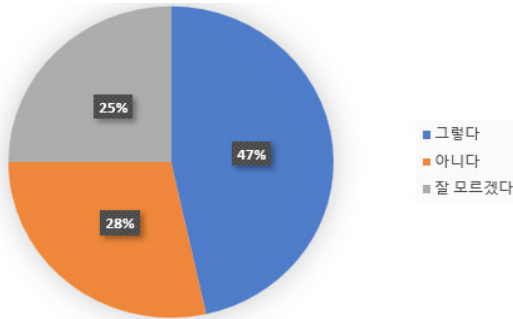
[표 2] 응답자 성별



▶ 성별은 여성이 78명으로 54.2%를 차지했고, 남성이 63명으로 43.8%를 차지했으며 명시하지 않은 학생도 3명으로 2.1%를 차지했다.

(3) 당신은 자신이 성년이라 느끼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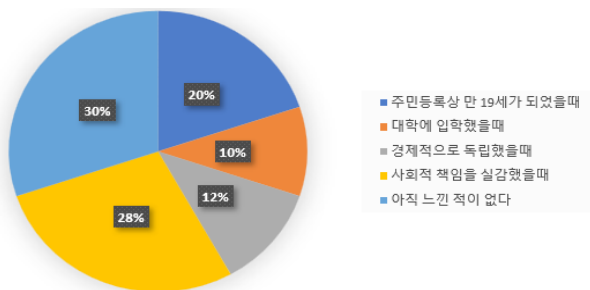
[표 3] 응답자 성별



▶ 144명의 응답자중 67명이 자신을 성인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해 46.5% 를 차지했고 ‘아니다’라는 답변은 41명으로 28.5%를 차지했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학생도 36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1/4 정도가 나이 나 신체적 성숙도는 어느 정도 도달 되었으나 실제에 있어 성인인지 아닌 지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자신이 스스로 성인인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53.5%의 학생이 부정 응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에 와서 연령이나 신체 성숙도, 활동성 등이 성인에 버금가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성인이 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확신을 갖지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표 속에서 찾을 수 있다.

(4) 성년이 되었다고 느낀 시점은 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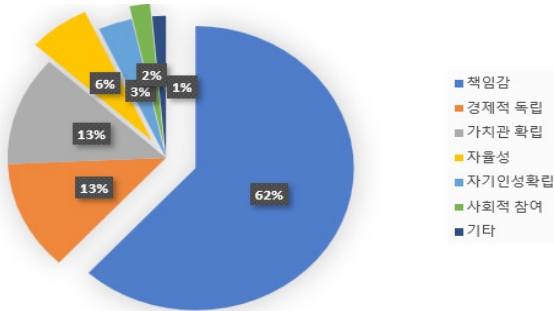
[표 4] 성년 인지 시기



▶ 144명의 응답자 중 자신이 성년이 되었다고 느낀 시점에 대해 28.5%인 41명이 “아직 느낀 적이 없다”고 선택해 가장 많은 학생이 답했다. 이어 38명인 26.4%가 “사회적 책임을 느낄 때”라고 답했고 18.8%인 27명이 “주민등록상 만 19세가 되었을 때”라 응답했다. 11.1% 16명이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때라고 답했고 9.7%인 14명은 “대학에 입학했을 때”라고 답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느낀 적이 없다”는 응답이 28.5%인 41명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성인이 된 시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느낀 적이 없다”가 단일 응답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눈여겨볼만 하다.

(5) 성년이 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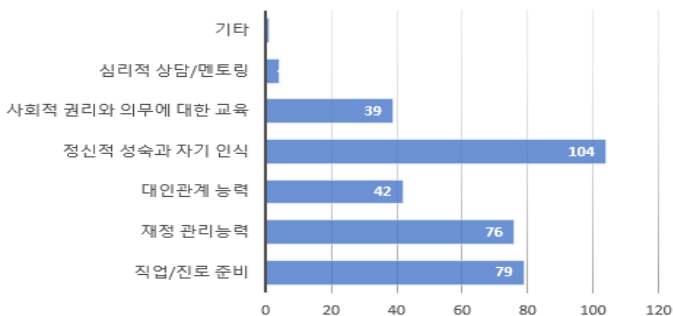
[표 5] 성년이 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 성년이 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에 대해, 응답자 144명 중 89명인 62%가 “책임감”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경제적 독립”과 “가치관 확립” 등이 18명으로 13%를 차지했다. “자율성” 9명 6%, “자기인성확립” 5명 3%, “사회참여” 3명 2% 순으로 나타났다.

(6) 성년이 된 후 본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중복 가능)

[표 6] 성년이 된 후 본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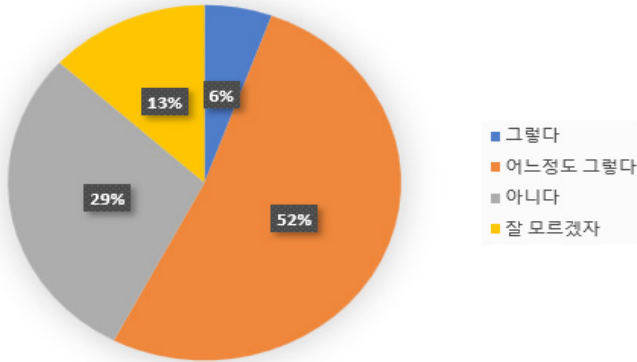


▶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성인이 된 후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바로 “정신적 성숙과 자기 인식”으로 104명 72.2%가 답했다. 이어 직업/진로

준비에 79명인 54.9%, 재정 관리 능력에 76명인 52.8%가 응답했다. 이어 대인관계능력 42명으로 29.2%,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 39명으로 27.1% 등으로 나타났다.

(7) 현재 당신은 성년으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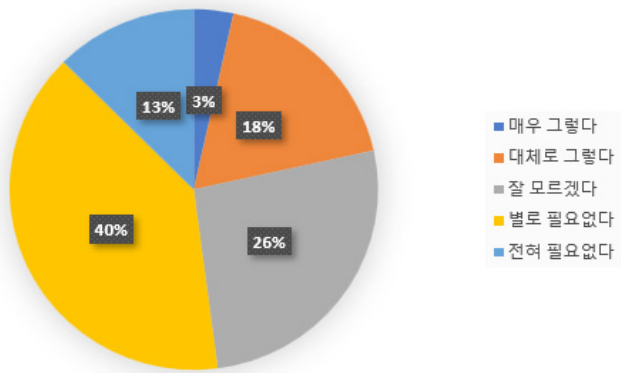
[표 7] 현재 당신이 인지하는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 현재 성년으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절반정도인 75명 52.1%의 학생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아니다”라고 답하는 학생도 42명 29.2%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잘 모르겠다” 도 19명 13.2%가 응답했으며 “그렇다”고 답한 학생은 8명 5.6%에 그쳤다.

(8) 성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기념하거나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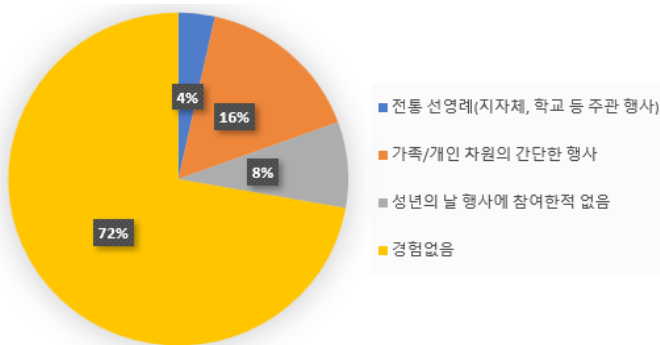
[표 8] 성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기념하는 것의 필요성 여부



▶ 응답자인 대학생들은 성년의식이나 관례 등에 대해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조사 결과 57명인 39.6%가 성년식 등이 “별로 필요 없다”거나 38명 26.%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혀 필요 없다”도 18명 12.5%에 달했다. 즉 144명중 113명인 88.5%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5명인12.5%가 “매우 그렇다”, 26명 18.1%만이 “대체로 그렇다”고 긍정 의견을 보였다.

(9) 당신은 성년 의식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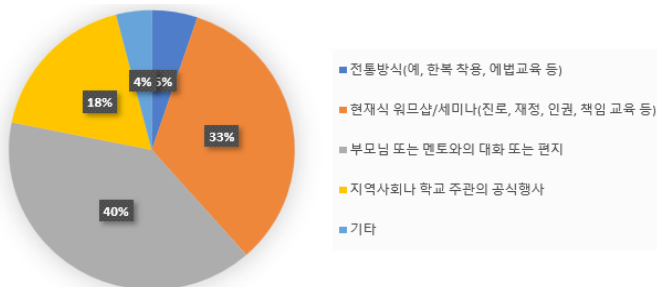
[표 9] 성년 의식 경험 여부



▶ 한편 응답자의 72.2%인 104명이 성년의식에 대한 “경험 없음”으로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이나 가족 차원의 간단한 행사”가 23명 16%
였고, “전통 성년례(지자체, 학교 등 주관행사)”에 5명 3.5%만이 참여한 경
험이 있다. “성년의 날 행사에 참여한 적 없음”도 12명 8.3%에 달했다. 응
답 대학생의 80.5%가 성년의식이나 행사 등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10) 성년의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되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표 10] 성년 의식 진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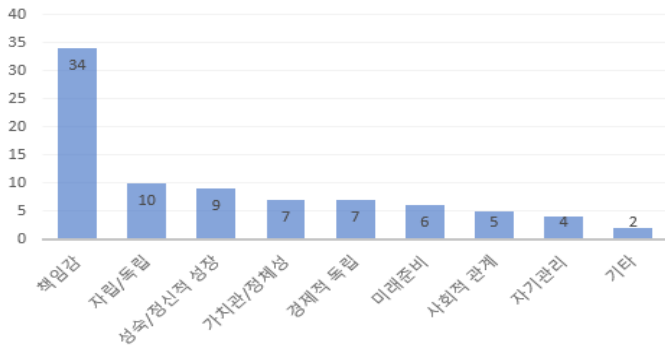


▶ 성년 의식이 이뤄진다면 “부모님 또는 멘토와의 대화 또는 편지”를

하고 싶다는 학생이 69명(49.3%)에 달했다. 이어 “현대식 워크숍/세미나(진로, 재정, 인권, 책임 교육 등)”이 좋다고 한 학생은 58명(41.4%)에 달했다. 이어 “지역사회나 학교 주관의 공식 행사”에 대해 31명(22.1%)가 긍정했고 전통 방식(예: 한복 착용, 예법 교육 등)에 9명(6.4%)만이 좋다고 하였다.

(11) 당신이 생각하는 ‘성년이 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관식)

[표 11] 성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내용



▶ 144명의 응답자 중 11번 질문에 답변한 학생은 89명으로 위의 그래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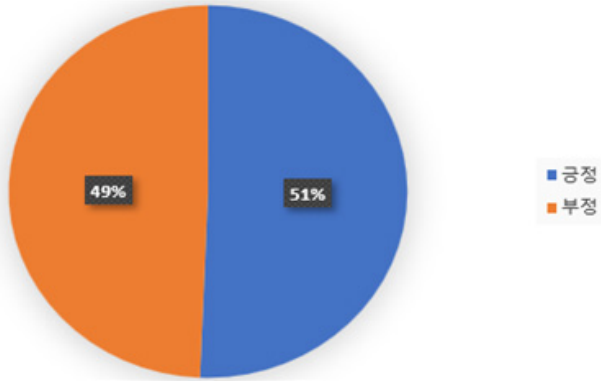
- ① 책임감 (34명, 38.2%):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주제는 ‘책임감’이었다. 구체적으로 “모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책임감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이 성년이라는 개념을 법적 지위 이상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따르는 시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일부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 ② 자립과 독립 (10명, 11.2%):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얻은 주제는 ‘자립/독립’이었다. 응답자들은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하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독립이 필요하다”와 같은 표현들이 두드러졌다. 스스로 살아가야 함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 ③ 성숙과 정신적 성장 (9명, 10.1%): 응답자들은 성년 이후 삶에서 ‘정신적 성숙’과 ‘성인다운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단순히 나이의 증가가 아니라 정신적·정서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④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 (7명, 7.9%): 대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⑤ 경제적 자립 (7명, 7.9%): 재정 관리 능력과 경제적 독립 역시 성년 이후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꼽혔다. 현대사회의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적 독립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 ⑥ 미래 준비 (6명, 6.7%): ‘미래 준비’에 대해서도 여러 응답자가 강조하였다. 특히 “미래를 위한 진로 준비와 커리어 관리”, “지속 가능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 ⑦ 사회적 관계 (5명, 5.6%):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도 나타났다. “타인을 존중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 “사회적 지위와 책임감을 갖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강조하였다.
- ⑧ 자기 관리 (4명, 4.5%): 응답자들은 “정신과 육체의 건강 관리”, “자기 절제와 통제”와 같은 자기 관리 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 ⑨ 기타 (2명, 2.2%): 기타 항목으로는 ‘고독에 대한 극복’과 같이 구체적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답변도 소수 있었다.

(12) 성년이 된 후 당신에게 ‘관례’ 또는 ‘성년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 주시오.

[표 12] 관례 혹은 성년 의식의 의미



▶ 성년식에 대한 자유로운 답변을 긍정과 부정 인식으로 나타내면 위의 표와 같다. 이를 비교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년식에 대한 긍정적 답변에 대한 양상들

전체 81개의 답변에 대해 분석해보면 긍정적 의미를 내포한 것은 39개로 48.1%를 차지한다. 답변들은 성년식을 통해서 ‘자신이 어른이 되었거나 책임감을 실제로 받아들일 계기가 됨’, ‘삶에 있어 방향성을 찾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기회로 활용’, ‘사회 구성원 중 하나로 우뚝서는 자립심 생성’ 등에 관점을 집중하고 있다.

방향 설정을 위한 분석에서 주로 ‘책임’(다수 반복되어 나타남), ‘자각’이나 ‘기회’ 및 ‘실감’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고 ‘교육’, ‘성숙’, ‘출발점’ 등도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이를 분석해보면 관례라는 의미의 전통행사에 매달리기 보다는 자신의 성찰이나 사회적 입지 확보 등의 의미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의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겠다.

대표 응답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성년 의식은 내가 어른으로서 삶의 책임과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선언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자신이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년 의식이 있다면 내가 어른이 된 느낌을 피부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기르거나 주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등과 같이 이러한 응답들은 성년 의식이 현대 청년들에게 여전히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특히 자기 책임 인식과 인격적 전환을 촉진하는 장치로서의 잠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부정적 인식의 반복적 표현과 특징을 살펴보면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들은 38명(46.9%)에 달했고 이들은 성년 의식을 ‘형식적이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나이로 충분히 성인이 되었음을 느끼기에 별도의 의식은 불필요하다’, ‘강요되거나 압박처럼 느껴진다’, ‘의미를 모르겠다, 관심 없다’ 등과 같은 이유로 무의미하다고 간주하였다.

실제로 텍스트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부정 표현은 ‘모르겠다’(5회), ‘없다’(4회), ‘의미 없다’(2회), ‘별로’, ‘딱히’ 등의 단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성년 의식 자체를 무관심하거나 형식적 관행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성년 의식은 그저 이벤트일 뿐 그렇게 개인에게 도움되고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다.”,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함.”, “형식적인 것일 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등의 이러한 응답들은 성년 의식이 사회적으로 공인된 전환 의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과 밀접히 연결되는 실질적 의미 부여와 체험 기반의 설계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표 13] 성년의식에 대한 인식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긍정(左), 부정(右))



3. 설문 결과에 기초한 성년식 필요 여부 확인

1) 성년식과 책임감

오늘날 대학생들은 법적으로는 성년의 범주에 들어서 있음에도, 정서적·사회적 차원에서는 자신을 ‘진정한 성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당신은 자신이 성년이라고 느낍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가 ‘아니다’(41명, 28.5%) 혹은 ‘잘 모르겠다’(36명, 25%)라고 응답하였다.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44명 중 67명(약 46.5%)에 불과하여, 절반 이상이 성인으로서의 자각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성년이 되었다고 느낀 시점은 언제입니까?”라는 후속 질문에서는 41명(약 28.5%)이 “아직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년들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성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는 성년이 되는 의미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이를 분명히 인식시켜 줄 전환 의례 또한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동체가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의례, 즉 관례(冠禮)를 통해 개인이 역할 전환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면 성년 인식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년의식으로써 관례의 필요성을 상

기시키게 한다.

청소년에서 성년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 ‘책임감’이었다. 즉 응답자 144명중 89명인 61.8%가 이를 선택하여 증빙하였다. 즉 성인은 법적나이나 외적 성장만을 의미 한다는 것 보다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짐을 통해 자신의 성장을 드러낼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조사에서는 책임감이외에도 ‘경제적 독립’이나 ‘가치관 확립’ 등에도 응답을 많이 하였다. 이밖에도 ‘자율성’ 6.3%를 비롯해 ‘자기인성확립’ 3.5% 및 ‘사회참여 2.1% 등을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결국 대학생으로 성인이 된다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길 희망하고 사회적 존재로 참여하여 살아가고 싶어 하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책임감’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는 내적인 성숙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책임을 지우려는 자기 확신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현대 사회에서도 전통적 관례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정신을 살려내려는 내적 모습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성년으로써 책임감을 갖기 위한 행위가 어떤 식으로 필요하고 보여지는 것이다. 즉 현대사회에서도 전통적 관례의 정신을 현대적 방식으로 계승하여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직간접 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책임감을 갖기 위한 내용과 형식에 대한 교육이나 선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떠한 형태로든 삶에서의 책임감, 경제적 독립이나 사회적 역할 수행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관례의 단순한 현대적 승계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의 성년식 형성이라는 방법론을 도출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이다. 결론적으로 관례의 현대적 재해석과 다양한 방법으로의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성인으로써 ‘정신적 성숙과 자기 인식’를 무려 응답자의 72.2%인 104명이 응답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어 ‘직업/진로 준비’(54.9%) 나 ‘재정 관리 능력’(52.8%)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대인관계 능력’(29.2%) 및 ‘사회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27.1%)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답변을 분석해보면 자신을 성인으로써 자각하기 위한 정신적, 물질적 성숙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벗어나 스스로 성찰함으로써 사회적 존재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를 전개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대학생들은 정신적 성숙과 경제적 자립 등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 하는 장치는 없어 보인다. 대학생이 되었다고 저절로 정신적 성숙이나 경제적 자립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음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을 보충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성년식을 활용한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년식을 단순한 축하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에게 성인으로써의 정신적 무장과 사회적 책무를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면 현대성을 가지게 될 관례의 필요성은 더욱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당신은 성년으로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 144명의 응답자 중 52.1%인 75명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했으며, “아니다”라는 응답도 29.2%에 달했다. “그렇다”고 확신한 응답자는 5.6%에 불과하여, 많은 청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경쟁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년식은 청년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성년식의 필요성

위의 설문을 통해서 성년의식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년의식이나 관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성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기념하거나 치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조사결과 57명인 39.6%가 성년식 등이 “별로 필요 없다”거나 38명 26%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혀 필요 없다”도 18명 12.5%에 달했다. 즉 144명중 113명인 88.5%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5명인 12.5%가 “매우 그렇다”, 26명 18.1%만이 “대체로 그렇다”고 긍정 의견을 보였다.

설문조사에서 성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기념하거나 치르는 것에 대해 144명 중 113명(약 88.5%)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성년의식이나 관례에 대한 현대 청년들의 관심이 낮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전통적 성년의식은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는 중요한 통과의례의 하나였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형식적으로 변질되거나 그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설문결과는 현재 청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도 볼 측면이 있다. 이를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보면 성년의식을 통과의례 수준의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성년의식이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청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적 방식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성년의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모님 또는 멘토와의 대화 또는 편지”를 하고 싶다는 학생이 69명 49.3%

에 달했다. 이어 “현대식 워크숍/세미나(진로, 재정, 인권, 책임 교육 등)”이 좋다고 한 학생은 58명 41.4%에 달했다. 이어 “지역사회나 학교 주간의 공식행사”에 대해 31명 22.1%가 긍정했고 전통방식(예: 한복 착용, 예법 교육 등)에 9명 6.4%가 좋다고 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49.3%가 “부모님 또는 멘토와의 대화 또는 편지”를, 41.4%가 “현대식 워크숍/세미나”를 선호하였다는 점은 두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개인적·정서적 의미 부여를 중시한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공식적·의례적인 ‘행사’보다 부모나 멘토와의 대화 혹은 편지를 통해 자신의 성장을 인정받고, 내면의 다짐을 언어화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는 성년의식을 통한 자아 정체성 확인과 심리적 전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하겠다. 둘째는 성년의식 속에서 진로, 재정, 인권, 책임과 같은 실질적 문제를 다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 형식의 재현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성인의 자질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의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 관례는 주로 사회 진입과 성인으로서의 자격 부여를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의례가 중심을 이루었다. 예를 들어, 성복(盛服) 착용, 스승과의 예절 절차, 사회적 명칭 부여 등이 주요 절차였다. 이러한 관례의 목적이 사회 질서 내 편입과 공동체 승인 등 개인이 공동체 속에서 거듭나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년은 내면적 성장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실제적 삶의 준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하면 성인의식인 관례 등에 대해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를 하지만 내면적 성숙을 확인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실질적 내용의 배울 수 있는 성년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성년식의 올바른 방향성 탐구

설문조사 3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형식적인 성년의식이 나 관례를 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이며 의미 있는 성년의식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이 되었을 경우 그 책임의식을 갖으며 스스로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을 인식해 실천해 나가야 함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음직하다.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성년의식을 넘어서 청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재구성되어지는 성년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11번, 12번 질문을 통해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2번째 마지막 질문에서 “성년이 된 이후 당신에게 ‘관례’ 또는 ‘성년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 주세요”라고 하여 성년의식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적 긍정 응답은 전체 81명 중 39명(48.1%)이었고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들도 38명(46.9%)에 달하였다. 이들은 성년의식을 ‘형식적이다’,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나이로 충분히 성인이 되었음을 느끼기에 별도의 의식은 불필요하다’, ‘강요되거나 압박처럼 느껴진다’, ‘의미를 모르겠다, 관심 없다’ 등과 같은 이유로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는 성년의식을 통해 ‘자신이 어른이 되었음을 실감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계기’,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 정립의 기회’,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첫걸음’ 등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처럼 의견이 양분되는 나타나는 현상의 이면에는 성년식이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체험을 기반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내적 성숙과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

는 실질적 교육 중심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

11번 질문인 “당신이 생각하는 ‘성년이 된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를 중심으로 성년식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144명의 답변자중 89명만이 주관식 설문에 답했다. 답변에서는 책임감이 34명(38%)으로 최고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대학생들이 성년 이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 나타났다. 이는 성년이 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어 자립/독립(10명, 11.2%) 및 성숙/정신적 성장(9명, 10.1%)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학생들이 경제적, 정신적 측면에서 자립과 성장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치관/정체성 및 경제적 자립(각 7명, 7.9%)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는 성년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명확히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 미래 준비(6명, 6.7%)와 사회적 관계(5명, 5.6%), 자기 관리(4명, 4.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이 현실적 삶의 준비와 사회적 상호작용, 자기 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설문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생들은 성년이 된다면 책임감을 가장 중시하고 자립이나 성숙함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외적이면서도 내적가치 및 그 역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형식에 머물렀던 옛날의 관례 즉 오늘날 성년식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개인의 내적 성장과 사회 속에서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상기케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인성교육 방안의 하나로 이것들을 활용하여 구성하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책임감과 권리의식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둘째는 스스로 일어서고 판단하는 자립이나 독

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세 번째는 정신적 성숙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해 줄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네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워크숍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자립 능력을 도와줄 금융교육의 도입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을 현대적 성년식의 전후로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 배우도록 한다면 성년식의 형식적 실행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면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성년식이 현대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의례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년식이 과거의 상징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인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가능성 현실화는 과거 속 관례를 단지 여기에서 오늘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 현대적 맥락 속에서 ‘재창조’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5. 결론 및 인성 교육 프로그램 제언

본 연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관례 필요성에 대해 대학생들의 성년의식을 바탕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년의식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사회적 의례로 기능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대적 관례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코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성년의식인 관례가 필요한지에 대해 그 필요성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은 법적으로는 성년의 범주에 들어서 있음에도, 정서적·사회적 차원에서는 자신을 ‘진정한 성인’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인임을 느끼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53.5%가 아니다 혹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고 있어 성년임에도 이

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역설적으로 성년 의식이나 관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불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으니 정확히 알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함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성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동체가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의례, 즉 관례(冠禮)를 통해 개인이 역할 전환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면 설문조사에 서처럼 성년임에도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년 의식으로써 관례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다.

성년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책임감’이다. 응답자의 61.8%가 그렇게 답했다. 이것은 청년기를 넘어 성인기에 오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내적 성숙함을 지녀야 함에 대해 중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하겠다. 이는 형식에 치우친 성인식이 아니라 성인으로써 주체적 책임감과 사회적 역할 수행의 중요성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성찰할 수 있는 성년의식이 이뤄져야 함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하겠다.

이어진 질문에서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75명인 52.1%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답했고 "아니다"라고 답한 29.2%에 달했으며 "그렇다"고 확신한 응답자는 5.6%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듯 보이지만 사회적 책임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기를 지나 바로 성인기로 왔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소로 보여 진다. 그러하기에 사회의 일원으로써 소속감을 갖고 책임감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설문조사를 분석해 보면 성년 의식의 필요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인 의식이나 관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성년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기념하거나 치르는 것에 대해 144명 중 113명(약 88.5%)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는 성년 의식이나 관례에 대한 현대 청년들의 관심이 낮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는 성년 의식이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는 중요한 통과의례의 하나였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의식이 형식적으로 변질되거나 그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설문 결과는 현재 청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성년 의식을 통과의례 수준의 형식적인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성년식이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청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의 장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적 방식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설문 결과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대학생들은 성년이 되면 책임감을 가장 중시하면서 자립, 성숙 등의 가치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대 성년식이 단순한 통과의례 수준의 행사나 기념식 등의 행사로 행해지기 보다는 개인의 성장 및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대학 교양교육 안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성년식 프로그램의 개발은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성교육 연계형 성년의식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책임감과 권리의식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로 성인으로서의 자각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둘째로는 자립심과 독립 의지 함양을 위한 체험 중심의 의례 프로그램을 실행으로 실제적 자립과 독립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번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신적 성숙과 성장을 이룩기 위한 사회적 메시지 전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각인 시키는 것이다. 넷번

째는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워크숍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성인으로서의 자기 이해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현실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적 성년식의 현실화를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알차게 운영된다면 현재 사장(死藏)되어 가고 있는 성년식이 현대적 의미를 살리며 실질적 효과를 갖춘 교육적 의례로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단행본

『禮記』

논문

- 김연희, 『傳統冠禮의 成人의 의미와 현대화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김은희, 「전통 성년례의 현대적 의의」, 『동양학연구』 9집, 원광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13, 174-194쪽.
- 김은희, 『韓國 傳統成年禮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김혜경, 『傳統冠禮와 現代 成年禮 服飾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노인숙, 「冠禮의 구조와 특징에 대한 연구 - 儀禮와 禮記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33집, 동아인문학회, 2015, 405-441쪽.
- 송미화, 「관례(冠禮)의 전통과 인성교육적 함의」, 『대동철학』 89집, 대동철학회, 2019, 43-63쪽.
- 엄숙, 「傳統冠禮(笄禮)의 意味속에서 現代成年禮의 方向摸索」, 『차문화·산업화』 2집, 국제차문화학회, 2006, 1-20쪽.
- 이문주, 「성인식으로서의 관례의 구조와 의미분석」, 『유교사상문화연구』 17집, 한국유교학회, 2002, 25-50쪽.
- 이희재, 「韓國의 傳統冠禮와 成人의 意味」, 『동양예학』 5집, 동양예학회, 2000, 137-153쪽.
- 조서영, 「성년례(成年禮)의 사회 윤리적 의미와 성인이행기의 교육역할 연구」, 『동양고전연구』 97집, 동양고전학회, 2024, 463-490쪽.
- 조창규, 「유가 관례의 문화해석」, 『대동학문학』 27, 대동한문학회, 2007, 415-440쪽.
- 황미선·이은영, 『한국성년례 복식의 형태와 의미』,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의례인 관례(冠禮), 즉 성년식이 여전히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응답 결과를 통해 성년식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현대적 재구성의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다수의 대학생들은 법적 성년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사회적 차원에서 자신을 성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성년식을 통해 공동체로부터 성인으로의 역할 전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성인이 된 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으로 ‘책임감’을 꼽았고 성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대한 자각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재 청년들이 성년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 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교육적 전환점을 제공하는 실질적 성년식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년식을 사회적으로 기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 전통적 형식의 관례가 현대 청년층에게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현실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성년식이 현대적 인성교육의 장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책임감과 권리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자립과 독립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워크숍 및 멘토링, ▶사회적 성숙을 강조하는 공동체 교육, ▶경제적 자립 능력 함양을 위한 금융 교육 등으로 구성된 성년의식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성년식을 전통적 관례 수준으로 재현해 내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모습으로 재구성하여 청소년에서 성년기로 넘어가는 대학생들에게 인성 교육을 실천하는 역할을 할 때, 관례 즉 성년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사회적 의례로 그 기능을 다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관례, 성년식, 인성교육, 책임감, 정체성.

■ Abstract

A Study on the Necessity of Coming-of-Age Ceremonies in Contemporary Society : Proposals for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Fostering Responsibility

Suh, WonHyuk / ChungNam National Univ.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ether gwanrye (冠礼), the traditional Korean coming-of-age ceremony, retains its social significance in modern society by analyzing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adulthoo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44 university students to examine their recognition of coming-of-age rituals and to derive directions for their contemporary reconstruction.

The results reveal that although students are legally adults, many do not perceive themselves as emotionally or socially matur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uncertainty or denial when asked whether they felt like adults, suggesting the need for a formal, communal event that affirms their adult status. Notably, “a sense of responsibility” was cited by 61.8% of respondents as the most important value associated with adulthood, highlighting the need for inner maturity beyond physical and legal growth.

However, 88.5% of respondents expressed a negative view of holding formal coming-of-age ceremonies, indicating a diminished interest in traditional rituals. This gap in perception suggests that such ceremonies, if to be revitalized, must be transformed into practic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a restructured model of the coming-of-age ceremony as a platform for character development, including: (1) education on responsibility and rights, (2) experiential programs promoting independence, (3) workshops and mentoring for identity formation, (4) community engagement for social maturity, and (5) financial literacy training for economic autonomy. Through such an educational reinterpretation, the coming-of-age ceremony can move beyond a symbolic ritual to become

a meaningful rite of passage that supports the growth of young adults in today's society.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directions for future program improvements. By doing so, it intends to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university's general education and major education programs.

Keyword • Gwanrye, Coming-of-age ceremony, Character education, Responsibility, Identity formation

충남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육과정 고도화 방향성 논고*

정 형 근**

목 차

1. 서론
2. 연구 배경
3. 충남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황 분석
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육과정 고도화 방향
5. 결론

1. 서론

한국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급속한 국제화와 이주 확대 속에서 다문화 사회를 형성해 왔다. 이주배경 학생들의 수도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2017년 109,387명에서 2024년 205,665명으로,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은 1.91%에서 3.6%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이는 유·초·중·고의 학교급이나, 국내출생·중도입국·외국인가정 등 여러 유형에서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¹⁾

* 이 논문은 국립공주대학교 연구년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year project of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국립공주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1)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2025.05.25.

이에 지난 10여 년간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이주배경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왔다. 2012년 국가 수준의 한국어교육과정(KSL)이 수립되면서 그에 따라 교재 개발과 다문화 특별학급이 신설·운영되고 이중언어 교육도 현장에 도입하였다. 특히 이주배경 학생이 다수 거주하는 밀집 지역의 학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교과 지도, 생활 지도, 교사 및 학부모 간 의사소통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보다 세밀한 교육 전략을 모색·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학생의 다양하고도 특별한 요구에 대한 교육적 반영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장인실·우라미, 2022; 조현희·장인실, 2020).

특히 충청남도는 천안, 아산, 당진 등 산업단지 중심 지역과 농촌 지역을 아우르며 결혼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양한 이주배경 구성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충청남도의 유·초·중·고 이주배경학생 수는 14,141명으로 전체 학생의 5.5%를 차지하고 있다(충청남도교육청, 2024).²⁾ 이와 같은 현실은 양적 증가 추이를 넘어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교육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에 대응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과 ‘한국어학급’ 운영 등 다양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육과정의 수준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중도입국 학생의 경우 공교육 진입은 이루어졌으나 이후의 학업적 정착은 보장되지 않으며, 한국출생 다문화학생 역시 한국어 능력이 정상화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별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제도교육에 적응하기 위한 언어와 문화교육의 고도화는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2) 충청남도교육청, 『공존과 공영의 2025 충남 다우리 다문화교육 추진 계획』, 2025a.

이 글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교육과정 고도화의 거시적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내 급증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배경 학생들이 제도교육 내에서 성장하며 자신들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배경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개요

저출생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였으나, 지역, 산업수요에 따라 이주배경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적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 공단배후지 등 특정 지역의 학교로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관계부처는 이주배경학생을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3. 9.)을 발표한 바 있다.³⁾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란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이해 문화 속에서 교육과정 기반의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학교(유치원)을 말한다. 해당 개념에서 주목할 점은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교육과정’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의사

3) 관계부처 합동,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2023. 해당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4년 약 6.8만명(전체대비 1.1%)이나, 지속증가하여 2023년 기준 약 18.1만명(전체대비 3.5%)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에 가장 많이 있고, 지역 내 전체학생 대비 비율은 전남(5.9%)과 충남(5.4%)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문화 밀집학교는 2022년 기준 71개교이며 그 중 44%(31개교)가 5개 시군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각각 경기 안산 8개교, 경기 시흥 8개교, 서울 구로 5개교, 서울 영등포 5개교, 충남 아산 5개교로 나타났다.

소통 능력 함양을 넘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
에 적응함으로써 학교급별로 성공적인 과정 이수를 위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교육의 한 갈래인 한국어교육은 방과후학교 시범학교(2006-
2011년)로 시작되었다가 다문화 예비학교(2012-2018년)로 명칭이 변경되
었다.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문화특별
학급(한국어학급)’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다문화학생을 지
원하고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범학교들은
2006년 이래로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글로벌 선도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되
었다. 2014년부터 이 학교들은 다문화교육 중점학교가 되었다. 교육부는
기존에 운영되던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등을 2019년부터 다문
화교육 정책학교로 통합하였다.

전국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2019년에 643개교, 2020년에 661개교,
2021년은 713교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2:3). ‘정책학교’로의 통
합은 그동안 교육부에서 견지해 온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과 다문화학생
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하나의 사업으로 개편함으로써 중앙다문화교
육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지역 자율
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표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변천 과정

시기	2006-2011	2012~2013	2014~2018	2019~현재
한국어 지도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특별학급 (한국어학급)
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글로벌 선도학교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특징	- 다문화교육 개념 도입 및 기초 마련 - 다문화 이해교육 중심의 단편적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종합방안 수립 - 정책학교 유형화, 교사 연수, 한국어교실 확대 운영	- 진로학습 지원 확대, 정서적 안정 및 학교 적응 중심 - 다문화감수성 교육을 일반 학생으로 확대	- 상호문화 역량 강화 - 온오프 혼합형 교육 및 교사 전문성 강화

교육부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통해 유치원 단계에서는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통합교육 형태로 지원하고, 초·중·고 단계에서는 일반 교과수업에 다문화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요소를 반영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할 경우에는 다문화특별학급(한국어학급)을 설치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책학교 참여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연 2회(4월, 11월)로 일반학교와 비교하여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교육부, 2019: 13). 이를 위해 중앙 차원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책학교 운영 사례집을 배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다문화교육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책학교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을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면서도 언어, 학습 등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이른바 두 개의 경로(two track)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학교도 일종의 ‘선도모델’로서 목적이 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21: 4). 따라서 시범학교 혹은 선도모델로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연구하는 것은 다문화교육의 현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은 물론, 다문화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반성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진다.⁴⁾

4) 김명하·김경주·서나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실태 분석:서울특별시 중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권 2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53-54쪽.

현재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재학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지정 또는 공모하는 방식으로 지정한다. 시·도교육청 자체 한국어학급 선정(심사) 기준을 반드시 수립하고 현황 파악을 통해 신규 편·입학하여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 다수(5명 이상 권장) 재학하는 학교를 우선 지정한다.⁵⁾

2) 한국어교육과정(KSL)의 제·개정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현재의 교육부)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을 고시하기 전까지 한국어교육은 공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 당시 한국어교육은 ‘외국어로서의한국어(Korean as a Foreign Language, KFL)’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성인학습자이거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계승어(혹은 상속어)로서의 한국어(KHL: Korean as a Heritage Language)’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급속한 다문화 현상과 함께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공교육에 진입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언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교육의 성격을 지닌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KSL) 지난 2012년 도입된 이후 지난 2017년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확정·고시(교육부 고시 제2017-131·132호, '17.9.29) 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 활동에 대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2017년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 대상의 명확화, 학습 한국어의 체계화·세분화 등의 보완이다. 교육 대상의 측면에서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개정 전)에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5) 교육부 외, 『2025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사업설명회 자료집』, 2025.

의 함양이 필요한 학생’(개정 후)으로 수정함으로써 교육 대상을 명확화하였다. 학습 한국어를 체계화·세분화 하여 기존 내용 체계의 학습 한국어를 ① 수업 상황(단원, 차시, 학습 목표 등)이나, 학문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식을 세우다, 풀이 과정, -(으)시오 등) 등 모든 교과 학습에 기본이 되는 ‘학습도구한국어’와 ② 교과목 학습을 돕기 위해 ‘교과별 어휘’로 구성된 ‘교과적응 한국어’로 구분하였다.

내용체계에서는 크게 생활한국어교육과 학습한국어교육으로 구분한다. 초급(1~2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 중급(3~4단계)에서는 의사소통 한국어와 학습도구 한국어를 병행 교육하며, 고급(5~6단계)에서는 교과적응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표 2] 2017년 KSL 개정의 주요 내용

구분		생활한국어교육	학습한국어교육	
		의사소통한국어	학습도구한국어	교과적응한국어
언어 기능		듣기-말하기-읽기 - 쓰기		
언어 재료	주제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의사소 통기능	일상 기반	일상 및 학업 기반	교과 기반
	어휘	일상 및 학교생활 어휘	교실 어휘 사고 도구 어휘 범용 지식 어휘	교과별 어휘
	문법	학령적합형 교육 문법	학령적합형 문식력 강화 문법	교과별 특정 문법
	텍스트 유형	구어 중심	구어 및 문어 중심	문어 중심
문화		학령적합형 한국문화의 이해와 수용 학령적합형 학교생활문화의 이해와 수용		

공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고시는 그동안 사교육의 범주에만 머물러 있던 한국어 교육을 공교육 현장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토대,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

를 지닌다. 공교육 현장에서 교육과정은 당연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해당 교과목의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통일성 있고 일관된 교육을 효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 체계와 내용, 방안 등을 담고 있는 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해당 교과목의 교육적 핵심을 얼마나 잘 꿰뚫고 있는가에 따라 교육현장에서의 성공적 적용 가능성이 달라진다.⁶⁾

3) 선행연구 고찰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로는 우선 이윤정(2023)의 연구를 들 수 있다.⁷⁾ 해당 연구에서는 초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운영계획과 실제 실행 간 괴리, 다문화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 교육활동의 피상성과 단절성, 국내 출생 다문화학생의 소외 등의 문제를 현장 관찰과 면담을 통해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그물망 지원을 확대하며, 정서적 지원 및 정체성 함양 활동을 연계한 다문화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다문화 교원연수를 지원하고 교내 다문화 교사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성 및 연속성을 강화하고, 정책 제안 창구를 마련하여 다문화교육 개선방안을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제도적 한계와 실천적 과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김명희 외(2022)는 서울특별시의 중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11개교를

6) 박석준, 「교육부 고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언어 재료」, 『문법교육』 제40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20, 2쪽.

7) 이윤정, 「초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출생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된 광역시 정책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권 1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3, 105-144쪽.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운영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학교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⁸⁾ 연구 결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의 중첩성, 세계 시민교육과의 혼재성, 외국인밀집지역 여부에 따른 학교 운영 방식의 차이, 공립과 사립학교에 따른 담당 교사의 업무 파악 및 숙련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개선의 방안으로는 현행 초·중등용 가이드라인을 학교급별로 분리하여 제시할 것과 지역별 중등 한국어 위탁교육기관 증설, 중등 단계의 특성을 살린 교재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초등과 차별화된 중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류영희(2023)의 연구는 이주민 밀집 지역 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언어 교육 과정을 질적 메타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그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였다.⁹⁾ 언어를 ‘문제’, ‘권리’, ‘자원’으로 접근하는 Ruiz의 틀을 바탕으로 한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이 실제 학교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어 교육은 주로 의사소통 중심에 머무르며 교과 학습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중언어 교육은 방과후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비정규 영역에 국한되며, 여전히 단일언어 중심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서 언어가 여전히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도, 교육과정 내에서 언어를 권리이자 자원으로 인식하는 복합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향후 이주 배경 학생들의 언어 정체성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인실·박영진(2018)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국제혁신학교로 지정된 세

8) 김명희·김경주·서나래, 앞의 논문, 53-54쪽.

9) 류영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 분석: 언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이주민 밀집 지역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시사점 탐색」, 『교육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교육연구소, 2023, 77-99쪽.

10) 장인실·박영진, 「다문화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다문화밀집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1권 4호, 2018, 1-24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탐색하였다.¹⁰⁾ 이를 통해 이중 언어 수업교실 운영의 필요성과 학생 단계에 따른 맞춤형 국어 수업, 다문화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자료 보급, 다문화학생 적응 지원을 위한 디딤돌 교실 운영 및 상담 지원과 통역 동반 상담지원 시스템 구축, 학생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평가 도구를 개발, 국가 및 지역 교육청의 다각적 지원 등을 주장하였다. 다문화밀집 지역의 학교에서 모든 학생의 성장을 위해 교육과정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고 그 방향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안진숙(2023)은 한국어학급을 수료하고 학력 인증 후 정규학교 편입을 통해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적응 경험을 분석하고,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교육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였다.¹¹⁾ 연구 결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학급을 통한 공교육 진입 과정에서 학습적 차원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교육 시스템의 문제, 사회적 인식과 지원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기간 확대, 교사 역량 강화,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정책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착 지원, 진로 체험과 직업 교육 확대를 통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과 지원을 제안하였다.

한국어 학급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한 연구로는 백인옥·김경제(2020)과 이승왕(202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백인옥·김경제(2020)에서는 유아대상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한국어교사 역량에 관한 질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어 교사의 지원 확대와 역량강화 교육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

11) 안진숙,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제12권 제4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3, 77-98쪽.

향후 학습대상자들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한국어와 다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승왕(2022)는 공교육 내에서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¹²⁾ 교사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와 이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상시 운영의 필요성, 학교급별 특성에 맞게 초등과 중·고등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한국어 교육 기관의 연계성을 강화를 위해 한국어 교육 유관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거나 전문적으로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앞선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이주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황과 교육과정 운영의 고도화 방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3. 충남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황 분석

1) 충남의 다문화교육과 정책학교 추진 현황

충남의 다문화교육은 지난 2006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2년 다문화 예비학교(한국어학급, 다문화유치원) 도입 및 확대로 이어졌다.¹³⁾

장인실(2023)의 연구보고서에서는 충남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아래 [표 3]과 같이 시기별로 구분한 바 있다.¹⁴⁾

12) 이승왕, 「한국어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공교육 내 교사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제68집, 우리말학회, 2022, 293-320쪽.

13) 충청남도교육청, 앞의 보고서, 2025a.

14) 장인실, 『충남 아산·천안 외국인학생 밀집지역 체계적 지원 방안』, 충청남도교육청·경인교육대학교 한국다문화교육연구소, 2023, 52쪽.

[표 3] 충남 다문화교육 정책 시기별 구분

구분	1기	2기	3기
연도	2009~2013	2014~2018	2019~2023(현재)
특징	충남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다문화가정 중심 정책 ☐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다문화교육 우수 사례 등장 ☐ 정책학교 중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중심 다문화교육 정책 전개 ☐ 다수의 일회성 프로그램 실행 ☐ 다문화교육 교사 교육 시작	이원화된 다문화교육 체제 확립 ☐ 다문화교육 정책의 방향성 정립 ☐ 교육과정 내에 문화이해교육 포함 강조 ☐ 문화이해교육으로서 반편견,비차별 교육의 강조 ☐ 중도입국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본격화 ☐ 글로벌 인재 육성과 기초학력 강화 ☐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문화교육이 강조 ☐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서와 진로 지원의 등장 ☐ 교원 연수 강화 ☐ 다문화교육 성과와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	이주민 밀집학교 등장에 따른 한국어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강화 ☐ 다문화정책 학교의 재조직 ☐ 균등한 교육 기회 강조: 한국어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강화 ☐ 지역 자원의 총원 및 다원화 ☐ 다문화학생을 포함한 진로교육 강화 ☐ 다문화 감수성 증진 교육의 강조

1기는 <다문화교육 길라잡이>가 일선 학교로 배포된 2009년부터 <다문화교육 중장기 계획>이 실시되기 전인 2013년까지로 '충남 다문화교육의 방향성 탐색'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다문화가정 중심 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이기도 하다. 2기는 <다문화교육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종료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로 '다문화교육 정책의 다양화'가 진행되었다.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모두를 위한 다문화교육 체제 구축이라는 이원화된 다문화교육 체제의 정립이 눈에 띈다. 3기는 <다문화교육 중장기 계획>이 끝난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이주민 밀집학교 등장에 따른 한국어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 강화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더불어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기 위한 「충남교육청다문화

교육진흥조례」(충청남도 조례 제 5226호)가 제·개정(2018, 2019, 2022년) 되면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해당 조례에는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위탁형 대안학교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교원 연수 등 도내 다문화교육 전반에 걸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다문화교육 및 이주배경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학교를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충남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총 38개교(유치원 포함)이다. 지역적으로는 천안(유 9, 초 3, 중 2), 아산(유 5, 초 4, 중 2, 고 2)에 집중되어 있다.¹⁵⁾

[표 4] 충남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황(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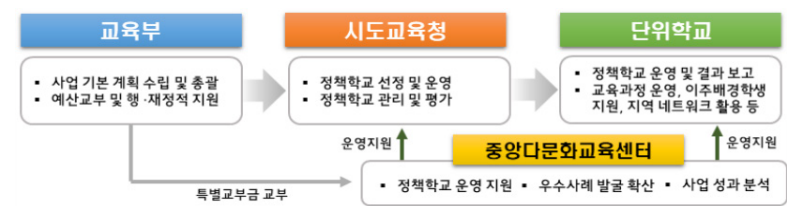
구분	유		초							중					고		
	지역	천안	아산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	청양	천안	아산	서산	예산	서천	아산	논산계룡	당진
학교 수		9	5	3	4	2	1	1	1	2	2	1	1	1	2	1	2
합계		14		12						7					5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밀집 특화 모델교’와 ‘교육 활동 운영교’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밀집 특화 모델교’는 한국어 학급 강화, 이중언어 교실 등 이주배경학생 강점 개발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교원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등 다문화 친화적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교육 활동 운영교’는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다문화 교육과정 우수모델 개발·운영 및 이주배경학생 대상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설계·운영에 중점을 둔다.¹⁶⁾

15) 충청남도교육청, 『2025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계획』, 2025b.

16) 충남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중 아산 소재 5개 초등학교와 논산계룡 소재 1개 고등학교 등 6개교는 밀집특화모델교로 지정되었으며 유치원을 포함한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추진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추진 체계 흐름도

아울러 한국어학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전체 현황과 지역별 현황은 [표 5], [표 5-1]과 같다.

[표 5] 충남교육청 2025년 한국어학급 지정 현황(전체 현황)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전년대비 증감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학교 수	16	7	2	25	19	7	3	29	+4
학급 수	31	7	2	40	33	7	4	44	+4

[표 5-1] 충남교육청 2025년 한국어학급 지정 현황(지역별 한국어학급 수)

구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초	9	·		19	2	1	2	·	·	·	·	·	·	·	33
중	2	·		5	·	·	·	·	·	·	·	·	·	·	7
고	·	·		3	·	·	·	·	·	·	·	·	·	·	4
계	11	·		27	2	1	2	·	·	·	·	·	·	·	44

2) 학교 현장 면담

이 글에서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로 지정된 아산지역 소재 인문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명(1학년 5명, 2학년 5명)과 한국어학급 운영 책임교사(1명)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¹⁷⁾ 해당 면담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는 모두 교육활동운영교로 지정되었다. (위의 보고서)

17) 면담은 교실에서 진행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을 통해 자유로운 형식으로 학년 당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생각과 요구사항, 진학과 진로 계획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책임교사를 대상으로는 학생 지도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중심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 내용을 토대로 한 분석은 책임교사가 공동저자로 참여해 논문에 포함된 해당 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참고하여 작성하였다.¹⁸⁾ 면담에 참여한 학생들의 한국 거주 기간은 2년~7년까지 다양했으며 성비는 남학생 2, 여학생 8로 여학생이 많았고, 거주국은 모두 러시아어권에 해당하는 국가들이었다. 면담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모두 재외동포 비자(F-4)로 국내에 입국한 학생들이었으며 외국 국적의 중도입국 학생들이었다. 면담자에 참여한 학생 현황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면담 대상자(학생)

구분	대상(성별)	출신국	한국 거주기간
1학년	1A(남)	우크라이나	5년
	1B(여)	우즈베키스탄	3년
	1C(남)	러시아	6년
	1D(여)	카자흐스탄	7년
	1E(여)	키르기즈스탄	3년
2학년	2A(여)	카자흐스탄	3년
	2B(여)	러시아	3년
	2C(여)	우즈베키스탄	3년
	2D(여)	러시아	5년
	2E(여)	투르크메니스탄	2년

면담은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기에 학생들의 답변은 다양했으나 본

각 1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학생들과 교사의 동의를 얻어 녹취 후 전사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일부 문법과 어휘 오류를 수정하였다.

18) 신난희·최은혁, 「러시아어권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습 맥락에 관한 문화적 이해: 충남 Y고등학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제48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5, 193-224쪽.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1)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 (2)진학·진로에 대한 인식으로 양분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수업 운영에 대한 인식

해당 고등학교 한국어학급의 주교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사용하고 있다. 교재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럽지만 여느 한국어 교실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동일 학급 내에서도 숙달도의 차이가 존재해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다. 2학년의 경우 1학년 때 경험했던 대학생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말하기 수업에 대한 요구와 함께 교과 수업에 대한 부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어 말하기 수업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 학생들과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아서 한국어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주로 러시아어로 대화해요. 그러니까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별로 좋아지지 않아요.(2A)

1학년 때 순천향대학교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과 멘토링을 경험했는데 재미있었어요. 그 언니, 오빠들도 저희와 같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온 선배들이니까 대화도 잘 통하고 대학교 진학이나 대학 생활에 대해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2학년에 올라와서는 이 프로그램을 안 해서 조금 아쉬워요. (2D)

저희는 하루에 3시간씩 수업해요. 공부하는 교재가 저에게는 조금 쉬워요.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 보충자료를 함께 주셔서 괜찮아요. 그런데 한국어 공부를 해도 오후에는 원래 반으로 가서 수업을 듣는데 공부하는게 너무 어려워요. (1B)

면담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학년 학생들의 경우 다소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와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학습동기의 부재와 비자발적인 이주 이

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이는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장인실(2023)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해당 연구에 참여했던 교사와 관리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이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의 어려움이었다.²⁰⁾

이는 학습한국어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활한국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이주배경학생의 원적학급에서 진행되는 교과학습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달리 해소할 수 없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책임교사와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천안이나 아산, 평택 등에 산업단지들이 많다 보니 이주배경 학생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지도에 어려움도 많아지죠. 무엇보다 가장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건 아무래도 아이들 진학과 진로지도 부분이에요.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나 한국생활에 적응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가더라도 지방에 있는 대학보다는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무엇보다 교과수업 진도를 잘 따라갈 수가 없으니 학습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큰 편이지요. 그래서 올해 1학년부터는 한국어 수업시간을 2시간으로 3시간으로 늘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어 책임교사)

(2) 진학·진로에 대한 인식

진학과 진로에 대한 생각은 학년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1학년의 경우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없는 상태였는데 이는 앞서 살핀 학습 의지와 동기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2학년

19) 앞의 논문 신난화·최은혁(2025)에서 실태조사에 참여한 48명의 학생들 중 한국 이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자신이 원했다는 학생이 26명, 원하지 않았다는 학생이 8명, 모르겠다는 학생이 19명으로 확인된다. 이주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 선택)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한국에서 공부(14명)나 돈을 벌기 위해(11명)로 나타났다.(201쪽)

20) 장인실, 『충남 아산·천안 외국인학생 밀집지역 체제적 지원 방안』, 충청남도교육청·경인교육대학교 한국다문화교육연구소, 2023, 69쪽.

의 경우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이 1학년에 비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일부 모국으로 귀향하고자 하는 뜻을 보였는데 이는 장인실(2023)의 연구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연구에서 모국 귀향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23명)와 그렇지 않다(24명)는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²¹⁾

대학에 가는 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공부가 너무 어렵고, 또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1A)

특별히 어떤 꿈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국에서 계속 살지도 잘 모르겠어요. (1C)

한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서 따로 한국어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토픽 준비해서 한국 대학에 진학해서 통번역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와 상황이 비슷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걱정이예요. (2C)

저는 통번역을 전공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학비도 비싸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2D)

학교에서 대학교 탐방프로그램 같은 걸 하는데 희망하는 학생들만 가요. 그런데 저는 참가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연세대학교에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2E)

저는 한국대학이 아니라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가고 싶어요. 거기는 여기보다 생활하기도 편하고 친한 친구들도 있어서 부담이 없어요. 한국에서 사는 건 너무 힘이 들고 항상 긴장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사람들은 제 외모만 보고 한국사람인 줄 알고 말을 거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예요.. (2A)

이주배경학생들의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생각은 그들이 처한 환경적 요소들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민감한 청소년기 급속한 환경 변화로 인한 내적 긴장과 혼란함을 겪는 것과 동시에 부모나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살핌과 조언의 결핍 경험이 이주배경학생 개인의 자존감이나 미래 설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는 책임교사와의 면담에서도 확인된다.

21) 위의 보고서, 204쪽.

부모 대상 교육도 중요한 과제예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생계 유지에 바쁘다보니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도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산에 있는 다문화센터에 나가 부모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며 어려운 가정들이 많지요. 그러다보니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요. (한국어학급 책임교사)

그 밖에도 교육과정과는 무관하지만 같은 학교의 한국학생들과 일부 교사들의 차별의 시선을 느낀 학생들도 있었고, 재외동포로서 느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는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정책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접근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라 볼 수 있다.

4.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육과정 고도화 방향

1) 모어 연계 학습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적용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은 내용 체계에서 생활 한국어와 학습 한국어로 구분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한국어를 학습 도구 한국어와 교과 적응 한국어로 교육과정을 세분화함으로써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이주배경학생의 교과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원진숙 외(2013:79)²²⁾에서도 캐나다의 이민자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Cummins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를 구별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Cummins (1979)는 외국인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언어 능력을 ‘인지적 학문적/전문적 언어 능력’인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와 ‘기초적 면대면 소통 능력’인 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로 구분하였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BICS를 ‘생활 한국어’로,

22) 원진숙 외, 『2012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3, 79쪽.

CALP를 ‘학습 한국어’로 명명하고 이 두 영역의 한국어 능력은 이주배경 학생들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보았다.²³⁾ 하지만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기존의 연구(박영진·장인실, 2020.)에서도 일상적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 체제 하에서 많은 이주배경 학생들이 교과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도 앞으로 내용교과의 핵심 어휘와 개념 및 성취기준과 연계한 ‘학습 한국어’의 내용 확장과 심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한국어 교육과정은 부록으로 학습 한국어 영역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교과별 핵심 주제와 학습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교과별로 다문화 배경 학생이 꼭 알아야 할 용어와 어휘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제시된 목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에 대한 지침은 없다. ‘교수 학습 방법’ 항목에서 학습 한국어 영역의 교과별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으나 추상적인 수준의 일반적 진술이어서 구체적 실행 방안의 지침 역할은 못 하고 있다. 이는 문서상의 교육과정이 지닌 한계이기도 하므로 교재개발, 수업 연구 등의 실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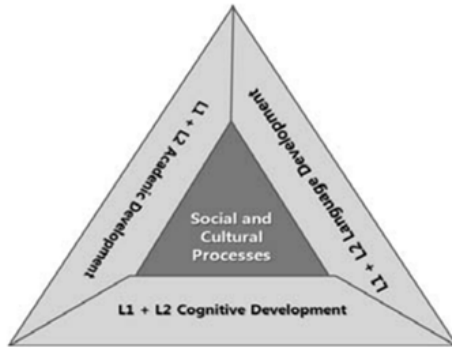
Baker(2001)는 이민자 학생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며, 모국어와 주류 언어를 연결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이민자 학생들의 학습 성취가

23) 이수진,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융합 관점의 기초 문식성 교육과정 운영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72집, 국어교육학회, 2020, 202-203쪽; 위 논문에서는 미국의 ESL 교육과정인 ‘WIDA’의 경우와 비교하여 내용교과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WIDA(World-class Instructional Design and Assessment)는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영어가 모어가 아닌 다언어·다문화 배경의 영어 학습자들을 위해 개발된 미국 최초의 국가적 ESL 교육과정이다. 김윤주(2015)는 WIDA의 변화를 고찰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내용교과와의 연계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WIDA 2012>는 특히 내용교과 영역 및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24) 위의 논문, 187-214쪽.

높아지고 학업 중단율도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학업 역량이 강화됨을 지적한 바 있다.²⁵⁾

Thomas & Collier(1997)는 다음의 [그림 2]에 제시된 프리즘 모델을 통해서 다문화 배경 학생들이 학교라는 생활공간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있어 학습자 자신의 모어(L1)와 새로운 목표 언어(L2)를 통한 언어 발달, 인지 발달, 교과 학습 영역의 학문적 발달, 사회 문화적 적응 과정 등의 제반 변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림 2] 프리즘 모델: Thomas & Collier(1997)²⁶⁾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개별교과 학습한국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중언어강사 자원을 확충하여 이주배경학생의 모어와 한국어 교과 학습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물론 교과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이중언어강사의 경우 각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기에 선발과 양성을 위

25) 류영희, 앞의 논문, 77-99쪽.

26) 원진숙,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KSL 교육의 정체성」, 『언어정보와사전편찬』 31권,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2013, 35쪽.

한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기에 충남의 경우 아산과 천안에 집중되어 있는 밀집지역 학교에서부터 시범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적용 교과목 또한 학습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체능교과목부터 시작하여 이를 방과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확장해 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학습한국어 능력 함양을 넘어 학교적응력 제고, 생활습관 개선, 자존감 형성, 진로 탐색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이상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을 개발·적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 부여되어야 한다. 아산과 천안의 밀집지역 학교 교사 대부분이 교과과정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장인실, 2023)²⁸⁾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교과 학습한국어 지원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선발과 양성을 교육과정 마련과 행·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한 바 있는 경기도 다문화국제혁신학교²⁹⁾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27) 장인실(2023)의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한 실태조사 중 다음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빈번한 결석의 문제와 교칙 미준수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관리자는 외국인학생들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구기종목에 관심이 많다는 것에 착안하여, 체육 교사 한 명과 교내 배구 동아리를 개설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체육 활동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출석과 교칙 준수 등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일부 학생의 경우, 방과 후 활동과 연계된 진로 탐색까지 흥미를 보였다. 사례 공유가 있었다. 다른 학교에서 또한 밴드부 등 예체능 계열의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의 개설을 통해 외국인학생들의 학교 활동 흥미 증진과 교칙 준수, 생활 습관 교정,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학습적 효과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66쪽).

28) 위의 보고서, 64쪽.

29) 그동안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교육과정의 전반적 변화보다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과 모든 학생 대상 세계 문화이해 및 외국어 교육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다문화교육은 안산 및 시흥 지역의 다문화 밀집 학교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합적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2017년 교육부는 안산 및 시흥 지역을 교육 국제화 특구

기존의 생활 중심 한국어교육(BICS)은 학업적 성공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이주배경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이 제한적일 뿐 교과학습에 필요한 선행지식이나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모국에서 학습한 내용은 교과 학습에 필요한 기반 지식으로 존재하며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에서의 교과학습의 배경지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로 진행되는 개별교과 수업에 이주배경학생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습 한국어(CALP)를 중심으로 하는 보다 진일보한 교육과정 마련이 중요하다.

2) 지역자원 연계 진학·진로 교육과정 확장

충남교육청은 ‘충남 다우리 다문화교육’ 계획에 근거하여 지역 내 다문화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왔다. 그 중 지역자원과 연계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 한국어학급 운영(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3학급, 순천향대 7학급, 남서울대 3학급), 지자체 협력 지역센터 운영(당진, 아산), 시군 가족센터장과 함께하는 간담회 추진, 관내 대학 연계 꿈길 성장캠프, 멘토링 등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³⁰⁾

주지하듯 지역의 여건과 상황은 늘 변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교육정책과 지자체와 (고등)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사업들이 해마다 새로운 계획 수립 하에 시행된다.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아산과 천안의 경우 지역의 성장과 변모 양상의 속도가 도내 타 지역에 비해 빠르다. 따라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학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활용도를 최대화하고 이를 통해 이주배경학생들이 현재 겪고 있는 진학과 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찾

로, 경기도교육청은 일부 학교를 다문화국제혁신학교로 지정하고, 교육과정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허용하였다(교육부, 2017; 경기도교육청, 2017).

30) 충청남도교육청, 앞의 보고서, 2025a.

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PDS(전문성 발달 학교: Professional Development School)는 대학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 현장의 실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구안된 것으로, 상호 협력적 관계에 기반한 대학과 현장의 교류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³¹⁾ 즉 교육 이론과 관련한 전문가인 대학의 교수들과 이를 실천하는 현장의 교사들 간 협력 체제를 형성하여 학교 현장을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충남에는 2024년 기준 총 23개의 학부대학에 164,591명의 학부생과 5,282명의 전임교원이 있다. 그 중 천안과 아산지역에만 10개 대학이 있다.³²⁾ 국립대학은 2개(국립공주대, 공주교대)가 있는데 모두 교육이 강점인 대학이다. 즉 대학과 연계한 한국형 PDS의 구현이 가능한 조건이다. 현재 수준의 연계협력을 한층 높여 대학의 연구력을 활용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교과 연계형 학습한국어 교육과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십분 활용한 전방위적인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용(진학 설계·진로 탐색·멘토링 강화·실험·실습 등)을 기획하여야 한다.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주배경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미약한 성취동기 문제를 일선 학교 차원에서 모두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기에 지역 내

31) 김미혜, 「초등 교사의 국어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PDS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3집, 2010, 63-102쪽; 이 논문에서 PDS는 학습 공동체(learning community), 책무성과 질 보장(accountability and quality assurance), 협력(collaboration), 다양성과 평등(diversity and equity), 구조와 자원 및 역할(structure, resources and roles) 등 다섯 가지 기준(standards)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대학과 현장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대학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일방적 관계를 부정한다. 또한 PDS 참여 주체들이 학습 중심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갖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66쪽)

32)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2025.05.13.

전문성을 지닌 집단과의 거버넌스 구축은 중요한 실천 과제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아산에 개소한 ‘충남교육청국제교육원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이하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 ‘아산교육발전특구’사업과 협력·연계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이주배경학생 공교육 적응을 지원하는 한국어교육’이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학급(다우리 배움교실)과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초·중등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소리펜을 활용한 한국어교재와 한국어 교수·학습 도움 자료집을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³³⁾

충남교육청의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기존 사업은 ‘아산교육발전특구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³⁴⁾ 아산시는 지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선정된 바 있는데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대학 연계 거점형 늘봄 지원 및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충남형 늘봄 운영·확대’와 ‘이주배경 학생의 지역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및 아산형 세종학당 운영’이다. 아산교

33) 그 밖에도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우리 체험 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캠프와 아카데미 운영,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실현을 위해 교원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연수나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알록달록 다우리 온가족 놀이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국제교육원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누리집 참조, <https://mgcec.coeiei.or.kr/main/main.action>, 2025.05.16.)

34)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이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일컫는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기초지자체 당 30억(1.3유형) 및 인구 100만 명 당 100억(2유형)으로 기준 설정 후 지역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규제가 완화되는 행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아산시는 옛 신창중학교 폐교 예정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센터는 다문화교육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충남 서부권 복합교육문화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폐교 부지를 아산시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지역정주 환경을 개선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2025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교육부 누리집 참조, <https://www.moe.go.kr/main.do?s=moe>, 2025.05.16.)

육발전특구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의 용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주배경학생 성장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지자체-대학-초중등 학교가 연계되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이주배경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설계에 지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교사와 학부모 대상 연수 강화

장인실(2023) 연구보고서는 총 37명의 교육관계자(교사 20명, 파견교사 4명, 관리자 8명, 연구사, 책임연구원 및 교육청 소속 정책수립자 각 1명씩, 다문화교육 전문가 2명)를 대상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해당 연구에 참여한 참여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부분 교사와 관리자들이 손꼽아 이야기 했던 문제는 학습과 관련된 것보다 생활지도와 관련한 고충이 가장 많았다는 점이다. 중도입국학생이나 외국인학생의 경우, 언어뿐만 아니라 정서 및 심리적으로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한국에 오게 되기에 식습관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예의 및 예절 교육, 수업 태도 등)와 교칙 및 규범, 사법적인 문제까지 기초적인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이 학교에 왔을 때 교사와 관리자들은 문화·생활·정서적 측면에서 학생들을 적응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음을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밀집지역의 경우, 교사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행정 및 수업 준비,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보조 자료 개발 등 업무 과중 및 필수 교육과정 이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교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로 및 진학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할 수 없는 한계가 지적되었다.³⁵⁾

따라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

35) 장인실, 앞의 보고서, 2023, 68쪽.

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인사 분야나 포상 등에서 우선권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가 불평등의 문제를 내재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교원들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나 중장기적으로 경험이 축적된 전문성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앞서 책임교사와의 면담에서 나타났듯 이주배경학생들의 가정 돌봄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내에서 이주배경학생들의 잦은 지각과 결석 등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다. 이 문제를 전적으로 학교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 가정 내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혹은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5. 결론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의 성과와 대안의 제시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에 반해, 상대적으로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주배경학생들에게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은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상이한 지역적 여건과 상황을 반영한 연구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는 기존의 학교 교육과정 틀에서 온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전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급증

한 이주배경학생들이 재학 중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전반을 살펴보고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간 지역의 다문화교육 안정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지만 학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특히 급증한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언어 교육적 지원과 진학과 진로 설계 지원에는 다소 한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주배경학생들이 성장하여 지역에 정주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자원이 연계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많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보다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실태 조사에 기반을 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의 문제를 다루지도 못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들과 한국어학급 책임교사에 대한 면담도 여러 여건상 심층적이지 못했기에 기본자료와 기존의 연구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최근 충청남도 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학생들이 재학 중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시론이자 거시적 차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다 정치하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 문헌

기본자료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추진 계획』, 2017.
- 관계부처 합동,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2023~2027년)』, 2023.
- 교육부, 『한국어교육과정(개정안)』, 2017.
- 교육부 외, 『2025학년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사업 설명회(중등)』, 2025.
- 원진숙 외, 『2012 한국어(KSL)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2013.
- 장인실, 『충남 아산·천안 외국인학생 밀집지역 체계적 지원 방안』, 충청남도교육청·경인교육대학교 한국다문화교육연구소, 2023.
- 충청남도교육청, 『공존과 공영의 2025 충남 다우리 다문화교육 추진 계획』, 2025a.
- _____, 『2025년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계획』, 2025b.
- _____, 『2025학년도 다문화교육 한국어학급 지정 현황』, 2025c.
- _____, 『2025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목록』, 2025d.
- _____,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

논문

- 김명희·김경주·서나래,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실태 분석:서울특별시 중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권 2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49-81쪽.
- 김미혜, 「초등 교사의 국어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PDS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3집, 도서출판 박이정, 2010, 63-102쪽.
- 김윤주, 「미국 ESL 교육과정 "WIDA" 고찰을 통한 KSL 한국어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제50권 제2호, 국어교육학회, 2015, 140-702쪽.

- 류영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질적 메타 분석: 언어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이주민 밀집 지역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시사점 탐색」, 『교육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교육연구소, 2023, 77-99쪽.
- 박석준, 「교육부 고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언어 재료」, 『문법교육』 제40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020, 1-24쪽.
- 박영진·장인실, 「대학-학교 간 협력적 관계에서 개발된 다문화국제 혁신학교의 교육과정 분석연구: Posner의 교육과정 분석이론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연구』 제38권 제3호, 한국교육 과정학회, 2020, 33-56쪽.
- ,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초등학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5권 1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2, 21-43쪽.
- 백인옥·김경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한국어교사 지원과 역량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권 5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531-546쪽.
- 신난희·최은혁, 「러시아어권 고려인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습 맥락에 관한 문화적 이해: 충남 Y고등학교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제48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5, 193-224쪽.
- 안진숙,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문화교류와다문화교육』 제12권 제4호,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3, 77-98쪽.
- 양경화·이난, 「지역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정책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교육종합연구』 21권 4호, 한국종합연구원, 2023, 91-109쪽.
- 원진숙,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KSL 교육의 정체성」, 『언어정보와사전편찬』 31권, 연세대학교언어정보연구원, 2013, 23-58쪽.
- 유상미, 「한국어(KSL) 교육과정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교육』 9권 3호,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2025, 1-27쪽.
- 이수진, 「다문화 배경 학생을 위한 융합 관점의 기초 문식성 교육과정

운영 방향」, 『국어교육연구』 제72집, 국어교육학회, 2020, 187-214쪽.

이윤정, 「초등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출생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된 광역시 정책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권 1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3, 105-144쪽.

이승왕, 「한국어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공교육 내 교사 전문성 신장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제68집, 우리말학회, 2022, 293-320쪽.

장인실·박영진, 「다문화교육과정 개발 방향 탐색: 다문화밀집지역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1권 4호, 2018, 1-24쪽.

장인실·우라미,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S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권 3호, 2022, 95-112쪽.

조현희·장인실,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 중학교 교육과정 개선 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38권 1호, 2020, 59-85쪽.

홍종명, 「한국어(KSL) 교육과정 관련 학술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76집, 2025, 233-266쪽.

인터넷 사이트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 2025.05.25.

교육부 누리집, <https://www.moe.go.kr/main.do?s=moe>, 2025.05.16.

충남교육청 국제교육원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누리집, <https://mgcec.coeiei.or.kr/main/main.action>, 2025.05.16.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과 진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을 거시적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최근 이주민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들이 공교육에 진입하면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어학급(KSL)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중심의 생활한국어교육과 학습 한국어교육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학습 지원의 미흡, 진학·진로지도 체계의 부재 등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교육청의 정책자료 분석과 더불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학생 및 교원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여 연계 학습한국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적용, 지역자원 연계 진학·진로 교육과정의 확장,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의 고도화 전략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향후 이주배경학생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이주배경학생,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교육과정

■ Abstract

A Study on the Advancement Strategies for the Curriculum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in Chungcheongnam-do

Jung Hyung Geun / Kong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macro-level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curriculum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administered by the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focusing on ensuring the educational and career rights of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As the number of students from diverse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s in public education increases, 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 classes have expanded, particularly in multicultural policy schools. Despite the integration of both communication-oriented daily Korean instruction and academic Korean instruction, limitations remain in supporting subject-specific learning and in providing effective academic and career guidance. Based on an analysis of core policy documents from the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and interviews with students and teachers in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this study proposes three strategic directions: (1)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n academic Korean curriculum linked to students' mother tongues, (2) the expansion of career and academic guidance through connections with local resources, and (3) the reinforcement of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and parents. This research provides meaningful insights for designing inclusive and responsive curricula that respect the linguistic and cultural diversity of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while ensuring equitable access to educational opportunities.

**Keyword • students with immigrant backgrounds,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schools, curriculum**

■ 논문투고일:2025.05.31. ■ 심사완료일:2025.07.08. ■ 게재확정일:2025.07.10. ■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휴타고지의 확장 및 실천 가능성

권 양 이*

목 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나아가며

1. 들어가며

Hase와 Kenyon¹⁾은 안드라고지가 성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격에 강한 강조점을 두지만, 특히, 공식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요소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어려움에 비추어 Hase와 Kenyon²⁾은 안드라고지와 교육학의 진보적 조합인 휴타고지라는 개념을 비선형적이고 자기 결정적 학습 접근법으로 도입했다. 휴타고지는 고대 그리스어 “heutos”에서 유래하였고 ‘self’를 의미하고 “agogy”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강사

1) Hase, S. & Kenyon, C. “Heutagogy: A child of complexity Complicity Theor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lexity and Education*, vol. 4, no. 1, University of Alberta, 2007, pp.111-118.

2) Ibid., pp.111-118.

는 “learning”을 의미한다.³⁾ 휴타고지, 자기결정학습 개념은 루소 시대부터 있었지만⁴⁾ 휴타고지는 Southern Cross University의 Stewart Hase와 호주의 Chris Kenyon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디지털 시대가 기술 장치와 인터넷 접속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양의 내용과 리소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특히 관련성 있는 접근 방식이다⁵⁾ 자기 결정적 학습에 중점을 둔 전체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철학인 휴타고지는 주어진 맥락에 적합한 접근법으로 그 자체를 드러낸다. 고등 교육에서의 언어 학습은 교육학 시스템에서 안드라고지에서 천천히 휴타고지로 전환되고 있다. 휴타고지는 안드라고지적 학생 중심의 강조점을 유지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결정 학습에 대한 연구로 설명된다. 내용이 아닌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휴타고지는 자기 탐구와 언어 학습을 기르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⁶⁾ 특히 언어교육에 있어 주목받고 있다. 휴타고지는 교육과정 및 이론 연구 등에 걸쳐 실로 많은 분야에서 언급되고 있고⁷⁾ 휴타고지적 접근법은 자율성,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래의 노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⁸⁾

3) Ibid., pp.111-118.

4) Amnon, Glassner. “Heutagogy (self-determined learning): new approach to student learning in teacher education”, *Educația-plus*, vol. XXIV, 2019, pp.40-44.

5) Mwinkaar, L. & Lonibe, J. Y. “Heutagogy as an alternative in teacher education: conceptions of lecturers and pre-service teachers of school of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DD-UBIDS”, *Frontiers in Education*, vol. 9, 2024, pp.1-10.

6) Blaschke, L. M. “Heutagogy and lifelong learning: A review of heutagogical practice and self-determined learning”,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vol. 13, no. 1, Athabasca University, 2012, pp.56-71.

7) Hase, S. & Kenyon, C. op. cit., pp.111-118.

8) Rosyanafi, R. et al.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heutagogical

휴타고지는 자기주도학습, 고급사고 기술, 문제 해결 능력,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논문 쓰기 경험을 풍부하게 준비시키고⁹⁾ 과학적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¹⁰⁾ 글쓰기에서의 휴타고지적 접근 방식의 중요성¹¹⁾에도 불구하고 글쓰기와 교육학의 진보적 조합인 휴타고지에 입각하여 글쓰기 교육을 조망한 국내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고 있고¹²⁾ 학습자 간 격차로 수업 운영이 어려운 점¹³⁾ 등은 글쓰기 교육의 학습 접근 방식의 점검과 재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를 한 사례가 일천하다는 점에서 국내 교육계는 상당한 연구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Cook과 Gregory¹⁴⁾는 미래사회에 갖추어야 할 중요한 소프트 기술 중의 하나가 글쓰기라고 주장하였다. 교양 교육으로서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의 함양, 학습자들의 고차원적 사고 함양, 전공 학습의 도구로서의 글쓰기는 이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글쓰기 영역에서의 휴타고지적 고민은 시급하다.

approach: A case study on wri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themed theses in the non-formal education program at the Universitas Negeri Surabaya”, *Child Education Journal*, vol. 5, no. 3, LPPM Universitas Nahdlatul Ulama Surabaya, 2023, pp.165-173.

9) Ibid., pp.165-173.

10) Ibid., pp.165-173.

11) Hartati, F. & Setyaningrum, N. “Differentiated Teaching Module for Indonesian Language Based on Graphological Analysis of Letter I, R, G”, *Studies in Learning and Teaching*, vol. 4, no. 2, Indonesia Approach Education, pp.396-406.

12) 신희선, 「멘토링을 통한 대학생 글쓰기 지도 사례연구」, 『작문연구』 제11집, 한국작문학회, 2010, 285-323쪽.

13) 김성연·김주영, 「이메일피드백과 온라인 컨퍼런스를 활용한 전공영어 글쓰기 사례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4권 4호,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21, 134-162쪽.

14) Cook, V. S. & Gregory, R. “Emerging Technologies: It’s Not What You Say - It’s What They Do”, *Online Learning*, vol. 22, no. 3, ONLINELEARNINGCONSORTIUM, 2018, pp.121-130.

휴타고지가 경험학습에 기초한 자기성찰을 근간으로 하여 발달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큰 축이 되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의 휴타고지 확장과 실천 가능성 및 효용성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1) 휴타고지

(1) 안드라고지에서 휴타고지로

휴타고지의 새로운 학습 시대가 열리고 있다. 휴타고지는 개인이 학습에 대한 책임을 맡아 학습을 위한 고유한 전략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핵심 개념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공유하기 시작하기를 기대하는 학습 모델이다.¹⁵⁾ 휴타고지는 안드라고지 또는 자기 주도 학습(self-directed learning)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안드라고지의 확장된 개념, 연속체로 정의될 수 있다.¹⁶⁾ 그러나 휴타고지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학습하는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결정하고 구현해 나가는 자기 결정학습(self-determined learning)으로서 나아가 경험한 것에 대한 자기성찰 과정을 통해 오류에 대한 행동과 믿음의 수정까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경험에 그치는 안드라고지와 구별된다. [표 1] 참조.

첫째, 안드라고지는 경험 중심의 단일 루프(single loop)인 반면 휴타고지는 경험한 것에 대한 성찰이 핵심으로서 자기성찰의 이중 루프 학습이다

15) Hase, S. & Kenyon, C. *From andragogy to heutagogy: Implications for VET*, Southern Cross University, 2001.

16) Mwinkaar, L. & Lonibe, J. Y. op. cit., pp.1-10.

(double loop learning).¹⁷⁾ 안드라고지에서는 학습자 역량 개발인 반면 휴타고지에서는 익숙한 환경뿐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신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개발이다. 안드라고지의 역량은 “기술, 지식의 숙달”을 의미한다.¹⁸⁾ 반면 휴타고지의 능력은 “익숙하고 고도로 집중된 전문적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새롭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지식, 기술, 개인적 자질 및 이해의 통합”이다.¹⁹⁾ 안드라고지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성찰이 없는 선형적 접근을 취하나 휴타고지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성찰, 학습은 자기 결정이므로 학습 경로는 학습자가 정의하며 교사가 정하지 않는다. 학습자 스스로 경로를 선택하기 때문에 학습은 비선형적으로 이루어진다.²⁰⁾ [표 1] 참조.

[표 1] 안드라고지, 휴타고지의 비교

안드라고지(자기 주도)	휴타고지(자기 결정)
단일 루프(경험)학습	이중 루프(경험에 대한 성찰) 학습
역량(competency) 개발	능력(capability) 개발
선형 설계 및 학습 접근	비선형 설계 및 학습 접근
교수자 학습자 주도	학습자 주도
학습자가 내용을 이해하게 하기	학습자가 과정을 이해하게 하기

※ 출처: Richardson, McGowan & Styger(2018:1840), Mwinkaar & Lonibe(2024:3)

17) Argyris, Chris. “Double-loop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vol. 1, no. 2, Academy of Management, 2002, pp.206-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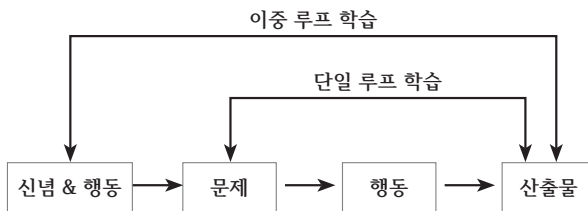
18) Hase, S., & Davis, L. “From competence to capability: The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management”, *Graduate College of Management Papers*, 1999, 163.

19) Stephenson, J. “The concept of capability and its importance in higher education”, *Capability and quality in higher education*, 1998, 1-13.

20) Blaschke, L. M. & Hase, S. “Heutagogy: A Holistic Framework for Creating Twenty-First-Century Self-determined Learners”, In the future of ubiquitous learning: Learning designs for emerging pedagogies, M. M. Kinshuk & B. Gros. eds. Heidelberg: Springer Verlag, 2015b, pp.25-40.

(2) 휴타고지 이중 루프 학습 모델

휴타고지 기반의 수업 설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커리큘럼 사용하는데 교수자는 자료 제공을 할 수도 있으나 학습자가 교수자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아 코스 설계를 결정 한다. 학습자 스스로 학습 경로, 맥락, 활동 및 여정을 결정하고 평가 설계에도 학습자가 참여하여 협상을 한다. 학습자는 획득한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한다.²¹⁾ 즉, 학습계약, 학습 활동의 과정을 거쳐 학습결과에 이른다. 이중 루프 학습 사이클과 자기성찰은 개인의 가치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휴타고지만의 핵심 개념이다. Argyris²²⁾에 따르면 휴타고지의 메타인지적 반성 과정은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정의하는 "이중 루프 학습"으로 설명된다. 이중 루프 학습은 지배적인 가치와 행동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수정될 때 발생한다. 이중 루프 학습에서 학습자는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연구한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고려한다. 이중 루프 학습에서 학습자는 행동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과정에 참여하여 개인의 신념과 가정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습의 결과는 학습자의 행동과 신념 체계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²³⁾



[그림 1] 이중 루프 학습 모델²⁴⁾

21) Hase, S. & Kenyon, C. op. cit., 2007, pp.111-118.

22) Argyris, Chris. op. cit., pp.206-218.

23) Blaschke, L. M. & Hase, S. op. cit., pp.25-40.

24) Eberle, Jane. "If you are not Modeling Good Teaching, you are Teaching

2) 휴타고지에서 교수자의 역할

(1) 휴타고지적 교수자

휴타고지는 자기결정학습으로서²⁵⁾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란 Deci와 Ryan(1985)이 제시한 이론이다. 자기결정이란 자신의 행동과 운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학습자가 자기결정력을 가질 때, 장시간 과제 참여가 가능하고, 유의미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다. 학습자가 자기결정력을 갖지 못할 때, 자신의 삶의 과정을 결정할 때 소극적이고, 내적동기보다 외적 동기에 따르기 쉽다.²⁶⁾ 휴타고지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요 책임이 요구되는 학생 중심(learner centered) 과정에서의 인식과 적용이 교수자에게 요청된다. 학습자와 관련된 휴타고지 원칙은 학생을 학습의 주요 주체로 보고 자기 효능감을 실현하는 것을 옹호한다. 첫째, 이러한 원칙은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학생의 동기와 연관시키는 자기 결정이론의 핵심 측면의 일부이다. 페다고지(pedagogy)는 교사 중심이고 안드라고지는 성인학습자를 위한 수업실천행위로서 학습자의 자율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습자의 자율성 정도는 페다고지, 안드라고지, 휴타고지로 나갈수록 높다.²⁷⁾ 둘째, 협력의 측면으로 휴타고지에서 교수자는 협동과 호기심을 북돋우기 위해 기회, 관련성, 정황과 복잡성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²⁸⁾ 휴타고지에서 교사는 무대의 현자라기보다는 옆에서 안

Something Else: The HUCC Model of Teaching”, *Kidmore End: Academic Conferences International Limited Proceedings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e-learning (Online)*, 2012, p.142-149.

25) Hase, S. & Kenyon, C. *Self-determined learning: Heutagogy in action*,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03, p.2.

26) 권양이, 『스마트 시대의 원격평생교육방법론』, 공동체, 2020. 35-36쪽.

27) Blaschke, L. M. op. cit., pp.56-71.

28) Richardson, L. P., McGowan, C. G., & Styger, L. E. J. “A Quality Approach

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²⁹⁾ 이러한 유형의 교사는 학습자가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하여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2) 글쓰기 교육

Hase와 Kenyon에 따르면 학생은 휴타고지의 책임을 부여받아 지식 창출 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학습경험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고³⁰⁾ 경험과 실천을 반성적 성찰과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이해로 발전시켜야 한다.³¹⁾ 글쓰기 영역에서 성찰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특히 이전 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오류를 깨닫고 자신의 글쓰기 태도를 수정, 변환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는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학습 과정으로 작가는 글쓰기를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합, 체계를 구성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²⁾ 풍부한 경험과 습관화를 통해 글쓰기는 성장할 수 있다. 생활 습관은 가장 가까운 환경, 가족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교수자는 그들의 글쓰기를 개발하고 글쓰기 수업을 좋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크닉을 시도해야 한다. 글쓰기 스킬을 개발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생각과 사고를 조직화하여 종이에 활자화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좋은 글쓰기는 명령에 따라 산출되는 기술 같은 것이 아니다. 글쓰기는 다른 생산적이고 표현력 풍부한 사람들

to Masters Education Using an Australian Case Study -- A Reflection",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6, no. 8, 2018, pp.1837-1847.

29) Hase, S. & Kenyon, C. op. cit., 2007, pp.111-118.

30) Hase, S. & Kenyon, C. op. cit., 2007, pp.111-118.

31) Canning, N. & Callan, S. "Heutagogy: spirals of reflection to empower learners in higher education", *Reflective Practice*, vol. 11 no. 1, Taylor & Francis, 2010, pp.71-82.

32) Hafizah, H. et al., op. cit., pp.29-36.

과 면대면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통하는데 사용되는 언어기술이다.³³⁾ 글 쓰는 이는 글쓰기 활동에서 필적학, 언어 구조, 단어 등을 사용하여만 하고 이러한 글쓰기 기술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연습과 정기적인 연습을 통해 얻어진다. 글쓰기 활동은 고립된 활동이 아니라 자료의 완전습득, 연구방법, 글쓰기 작문법, 참고 자료 활용, 언어 습득, 글쓰기 습관, 적절한 미디어의 사용과 독자층의 구분과 같은 다양한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연구방법

1) 사례 연구

질적 연구방법은 주변과 차이가 있는 사례를 통해 밝혀진 이슈를 탐색하는 것³⁴⁾이다. 사례 연구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교육, 사회학, 심리학을 포함한 수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검증되었다.³⁵⁾ 단일 사례 연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사례가 이전의 이론적 관점과 차별화 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고³⁶⁾ 대학 글쓰기 과정을 만든 상황의 독특성과 글쓰기 교육과정에서 휴타고지적 요소를 성찰하고 코스 설계를 구상한다는 점과 특별히 관련된 기존 문헌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석 목적으로 이 사례 연구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되

33) Tarigan, Henry Guntur. *Menulis sebagai suatu Keterampilan Berbahasa Writing as a Language Skill*, Angkasa, 2008, p.4.

34) Stake, Robert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5, p.35.

35) Bergen, A. & While, A. "A case for case studies: exploring the use of case study design in community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31, no. 4, Wiley, 2018, pp.926-934; Richardson, L. P., McGowan, C. G., & Styger, L. E. J. op. cit., pp.1837-1847.

36) Richardson, L. P., McGowan, C. G., & Styger, L. E. J. op. cit., pp.1837-1847.

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 접근 방식을 사용한 질적 연구로, 이는 특정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질적 연구 접근 방식이다.³⁷⁾

본 연구에서 사례 연구 대상자는 대학 교양학부 글쓰기 교수자이다. 여성이고 연령은 만 56세이다. 글쓰기 교육 분야에서 25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교양학부 전임교원으로서 우수 강의상을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으며 휴타고지의 주요 개념인 반성적 성찰, 자기 피드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25년 경력의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한 이유는 면담 대상자가 보유한 교육적 경험의 다양성 때문이기도 하다. 면담자는 서울·경기권의 4년제 대학은 물론 지역에 기반을 둔 대학, 2년제 3년제 전문대학, 사범대, 이공대, 법대 등 다양한 전공 영역의 학습자를 교육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면담 질문지는 기관, 학습자 및 교수자의 휴타고지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연구³⁸⁾에서 사용된 질문을 참고하여 구성된 반 구조화된 (semi-structured) 질문지이다. 왜 글쓰기 교육이 필수가 되었습니까? 휴타고지 또는 자기 결정 학습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핵심 조치를 취했습니까?,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없었습니까? 와 같은 질문과 학생들의 글쓰기를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 교사, 관리자 또는 학습자로서 자기 결정 학습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데 필요한 현재 습관처럼 행해지는 관행에 대한 변경 사항,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데 직면하는 어려움, 해결 방안, 휴타고지 접근 방식에

37) Fetters, M. D., Curry, L. A., & Creswell, J. W. "Achieving integration in mixed methods designs—principles and practices", *Health services research*, vol. 48, no. 6, Health Research and Educational Trust, 2013, pp.2134-2156.

38) Akyildiz, S. T. op. cit., pp.151-169.

대한 학생들의 반응, 학생들의 접근방식에 대한 적응력 등에 대해서 심층 면담하였다. 참여자의 비밀 보호 및 사생활 비밀보장을 위해 가명으로 처리했다. 면담자의 대학교에서는 대한민국의 일반 대학 글쓰기 교육과 마찬가지로 중핵 필수과목으로서의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가 운용되고 있다.

[표 2] 연구 참여자

가명	연령	성별	학력	경력	소속
이나연	만 56세	여성	국문학 박사	25년	대학 교양학부 부교수

2) 자료분석

면담자와 연구자는 사적, 공적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교류를 통해 휴타고지적 이념의 실효성과 실천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는 과정을 오래 거쳐 왔기에 래포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그 간 수행된 논의 과정이 실제 수업 사례로서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변환될 수 있으며, 그 효과성은 어떻게 산출될 수 있을지 오래 고민하였다. 공식적인 면담은 2024년 11월 22일, 29일, 12월 6일 3회에 걸쳐서 면담자의 연구실에서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후 5~6차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면담내용을 보충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의 분석을 통하여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교수자의 수업 경험에 따른 인식과 태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무엇을 느끼고 성찰하며 왜 그렇게 인식하는지를 그 내면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인터뷰 녹음 직후 인터뷰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였다. 파일에서 애매모호한 단어나 오류 문구,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면담자에게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교수자의 성찰일지, 심층 면담자료, 후기자료 및 학습자의 성찰일지, 강의 평가 등도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녹음 내용을 토대로 반복되는 주제 및 핵심 내용과 개념 분류 후 코딩하여 도출되는 의미를 분석하는 개방코딩으로 하였다. 부호

화 작업 후 의미들의 범주화는 축 코딩, 선택코딩을 실시하여 범주화한 내용과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다.³⁹⁾ 분석한 자료는 연구자와 교육학 박사 2인의 비교 분석과 공동으로 확인 작업을 하는 연구자 삼각측정(investigator triangulation)과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실시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분석 준거는 [표 3]와 같다.

[표 3]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휴타고지의 확장 탐색 범주

범주	하위 범주	주제
휴타고지적 접근	자기 결정적 학습	• 자기 결정적인 글쓰기 • 자율기반의 창조 활동
	이중 루프 학습	• 작성된 글 개별튜터링 • 풍부한 자료의 제시
휴타고지 확장하기	자기 주도적 학습자 중심수업	• 안내자, 촉진자 역할 • 자기 피드백 활용 수업
	학습의 전이	• 반성적 성찰 • 상황에 적용하기
휴타고지 실천가능성 성찰	글쓰기의 어려움	• 수동적인 학습자 • 학습자의 긍정적 변화
	휴타고지 실천 전략	• 정형화된 수업 틀에서 탈피하기 • 안내, 피드백 제공

4. 연구결과

1) 휴타고지적 접근

글쓰기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동기가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⁴⁰⁾

39) 권양이·이경희, 「위기 사건 경험 노인 여성학습자의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 학습경험의 의미탐색: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29권6), 한국 노년교육학회, 2023, 223-252쪽.

40) 박송이·정덕현, 「대학생의 성장 마인드셋과 글쓰기 동기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20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521-534쪽

‘교직 논리 및 논술’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 수준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⁴¹⁾ 등 글쓰기와 자기주도 학습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글쓰기 과제를 할 때는 외부의 권위자들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식을 창조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⁴²⁾ 즉, 면담자는 글쓰기 교육 자체가 자기 결정적이고 전적으로 학습자의 자율에 기반하는 창조 활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글쓰기에서 휴타고지적 요소를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은 글쓰기 학습자 맥락에 매우 부합한다고 평가하였다. 학습자가 학습에서 주요 행위자 역할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휴타고지식 교육관⁴³⁾은 글쓰기 강의를 하는 내내 글쓰기 교수자로서 가지는 중요 가치로 삼아온 가치라고 한다. 다음은 면담자의 글쓰기 교육 관점에서의 휴타고지에 대한 정의이다.

(가) 글쓰기 교육의 관점에서 자기 결정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자기 글쓰기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저자로서의 사고를 수행하는 활동과 그 개선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긴 호흡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이전 사고가 반영된 이전 글을 대상화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배우고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담자가 속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담당 교수의 교육 가치와 목표에 따라 다층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즉, 해당 교수에 따라 각기 자기 교육 철학에 맞게 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휴타고지가 지향하는 교육학적 입장에 호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암묵적으로 반영되었을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면담자의 휴타고지의 핵심개념인 이중 루프 학습과 관련된 대

41) 최임숙, 「교직 논리 및 논술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변화 연구」, 『인문사회 21』 9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297-310쪽.

42) 박연주, 「문화분석: 연구 글쓰기 과제에서 자기주도감 확립하기」, 『인문사회 21』 14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3, p.3197.

43) Hase, S. & Kenyon, C. op. cit., 2007, pp.111-118.

목이다. 면담자는 학습자들이 이전에 작성한 글을 가지고 개별 튜터링을 한다고 한다. 학습자들에 질문하고 스스로 말하게 한 후 텍스트화 한 후 텍스트화된 자신의 사고를 다시 보고 스스로의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Eberle⁴⁴⁾에 따르면 이중 루프학습은 과정과 결과 모두를 결과를 성찰한 후의 산출물이 학습자의 믿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를 사용하여 다른 영역에서 유사 문제 해결에 적용하였는지 학습자들을 독려한다. (나-1)은 학생들의 관련 수강 후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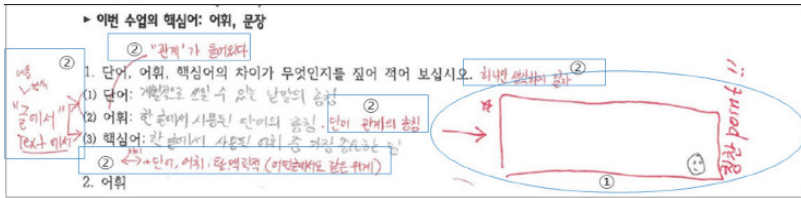
(나) 저는 학습자들이 자신이 이전에 쓴 글로부터 스스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편입니다. 이런 활동은 특히 학습자들이 자신이 이전에 쓴 글(previous works)을 대상으로 면 대 면 개별 튜터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저는 이전 글의 자기 확장을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합니다. '이전 글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고르세요. 그 부분이 마음에 드는 이유를 말해 보세요. 나머지 부분과 마음에 드는 부분의 관계는 (중략) 한 달 후 이 글을 고칠 것입니다.

(나-1) 개별 맞춤형 피드백과 조 활동의 모니터링 결과 공유, 스스로의 행동과 사고를 익힐 기회, 대학다운 강의.....

글쓰기와 발표를 융합한 수행 활동에서는 2개월 이상의 시간 안에서 조별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교수는 단지 발표계획서, 초고, 발표 수행, 개별 리포트화의 거시적 맥락 차원에서 일정을 제시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발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개선하고 수행하는 활동을 진행하도록 한다고 한다. 교수는 학습자들의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하지만, 과제로 제시된 중요 과정에서만 직접적인 피드백을 수행하고 나머지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성찰할 시간을 주고 요청을 기다려 피드백을 수행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한다. 다음 [그림 2]는 참여자의 학생이 이론 수업에서 사용하는 자기 피드백 활용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2]의 ①은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한 교수의 후속 활동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활동을 읽고 거기서 유의미한

44) Eberle, Jane. op. cit., pp.142-149.

것을 발견하여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2]의 ②는 학습자의 필기로 학습자의 답변과 교수 강의 필기를 함께 읽으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수행된다. 글쓰기 경험을 통해 자신 글에서의 개선점을 탐지하고 수정하는 과정,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연구하고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은 이중 루프 학습 맥락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림 2] 이중 루프 학습 맥락에서의 이론 수업과 자기 피드백 예시

면담자는 학습자의 글쓰기를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자료의 풍부한 제시를 통해서 학습자들의 풍부한 글쓰기, 주제와 틀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롭고 신선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휴타고지적 교수자는 촉진자, 안내자로서⁴⁵⁾ 실제로 자료의 제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다) 학습자 글쓰기를 풍부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지점이 거시구조의 개선을 통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중략) 새롭고 신선한 자료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신선한 자료란 글쓰기를 위해 살피는 자료, 인용하는 자료, 즉, 남이 안쓰는 자료,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는가, 흥미유발, 예화 등등...

(다-1) 마스한 교수님, 문법을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을 길러주심...

2) 휴타고지를 확장하기

면담자에 따르면, 현재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습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이를 텍스트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45) Blaschke, L. M. op. cit., pp.56-71.

수 있다. 기존 교육의 패러다임 안에서 과정적 글쓰기, 다양한 글쓰기 경험에 학습자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접근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저자성을 가진 글쓴이’로서 학습자 위상을 확보하게 하기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점은 글쓰기 교육이 휴타고지의 교육적 지평이 요구하는 맥락과 적극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하겠다. 우선, 대학생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능동적으로 자기 결정적인 학습 맥락에서 논리적 구성을 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글쓰기를 위해서는 문장구조, 문법도 필요하지만 문제의식,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많은 자료를 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⁴⁶⁾ 면담자는 다양한 자원들의 신뢰성이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15분 내외만 강의를 수행한다고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교수자는 지식 전달자가 아닌 단지 안내자, 촉진자가 될 뿐이다. (라-1)은 수강 후기이다.

(라) 자료원이 ‘source of data’의 의미라면, 2달 이상의 긴 호흡을 전제로 하는 프로젝트형 발표 및 글쓰기 수업의 경우 학생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고 그 실효성을 분석하는 것을 내재화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는 다양한 자원들의 신뢰성이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만 15분 내외의 강의를 수행하는 편입니다.

(라-1) 수업 시간에만 바짝 하면 과제도 없고 매 수업 30분 일찍 끝내주셔서 개꿀임...

면담자는 대학 글쓰기 수업은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향후 맞닥뜨리는 상황으로의 전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중 루프 학습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학습을 반성하고 학습이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평가하고, 배운 것을 다른 영역에 어

46) 신희선, 앞의 논문, 285-323쪽.

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장려한다.⁴⁷⁾ 대학 글쓰기 수업의 궁극적 목표가 학습한 것을 다른 영역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인만큼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자신의 이전 활동을 통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이후 질적으로 유의미한 행동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한다. (마-1)은 관련 수강 후기다.

(마)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내용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앞으로 놓일 학습의 상황이나 직무 상황에서 ‘전이(transition) 가능한’ 사고의 방식이나 행동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전 활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이후 질적으로 유의미한 행동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수업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마-1) 수업방식이 피드백 위주이고, 수업이 그저 수업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배우고….

교육학과 관련 전공생들에게는 전공 글쓰기 장르를 섭렵하는 글쓰기 수업 방식이 반영된다고 한다. 현행 임용고사가 서술형으로 출제되는 만큼 전공 영역에서의 글쓰기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들 수업에서는 발견 학습을 위한 질문 등을 많이 활용하지만 ‘국어사’나 ‘음운론’과 같은 내용 지식이 많은 수업은 수업 특성상 이중 루프 학습 과정과의 관련성은 많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휴타고지의 전면적 도입 보다는 학습자의 자기 결정적, 자기 주도적 측면을 강화하고 내용 지식 학습 후 학습자들의 신념, 믿음 등의 변화를 알아보는 자기 성찰적 국면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바) 교안작성,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글쓰기잖아요, 국어사, 15세기는 어떻고 이론적 정보가 많은 것을 내용 지식이 많다고 합니다. 학습을 위한 글쓰기인데, 교육학 관련 전공생, 이 학습자들의 글쓰기 수업에는 주로 전공 내용지식을 기술하는 글쓰기나 전공 글쓰기 장르를 섭렵하는 글쓰기 수업 방식이 반영됩니다. 이들 수업에서는 발견 학습을 위한 질문 등을 많이

47) Eberle, Jane. op. cit., pp.142-149.

활용하지만 ‘국어사’나 ‘음운론’과 같은 내용 지식이 많은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반응과 이를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3) 휴타고지 가능성에 대한 성찰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오랜 시간 정답을 찾아내는데만 길들여진 대학생들에게 학습 여정의 주도권을 부여하여 학습자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 행동과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면담자는 학습자가 자기 결정면에 있어서 당황하고 막막해하는 상황이 길어짐을 글쓰기 수업 지도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터어키의 경우에도 학습자가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중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도 수동적 학습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휴타고지식 수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⁴⁸⁾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면담자의 신입생 글쓰기 수업에 대한 면담 내용이다.

(사) 신입생 학습자들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작문에 대한 이론은 배웠지만, 이를 실제 글쓰기로 전환하는 경험을 많이 해 보지 않은 학습자들입니다. 이들은 대학 글쓰기 장르에 해당하는 합목적적 글쓰기와 문학적 글쓰기 장르의 차이를 깊이 경험하지 못한 학습자들이고, 목적이나 주제와 같은 거시구조를 스스로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공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학습자들 중 3분의 2는 앞서 제가 말한 글쓰기 교육 방식을 깊이 공감하는 편입니다. 나머지 학습자들에게는 제 수업에 과제가 많고 수행 활동이 지나치게 많은 것 때문에 힘들게 여겨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에 있어 긍정적 수용 방식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데, 정답이 없는 글쓰기 과정에서의 답답함을 자기 방식의 적용과 이에 대한 이해로 찾아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 그러나 자기 결정권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 당황하고 막막해하는 상황이 너무 길어지면 그 효과가 분명히 악화되는 지점이 있다고

48) Akyildiz, S. T. op. cit., pp.151-169.

한다. 이와 같이 정형화된 수업에 익숙한 신입생들의 경우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글쓰기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아-1)는 강의 평가의 내용들이다.

(아) 학습자들이 문제를 만나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 수용 방식을 배우고 그 수용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이 ‘정답 없음’의 답답함을 ‘자기 방식의 이해와 적용’으로 찾아내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좋았으나, 다만 학습자들이 전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수행하는 일에 대해 당황하고 막막해하는 상황이 길어지는 조원의 경우 그 효과가 약화되는 지점이 있다..

(아-1) 수업 안팎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음, 조별 활동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움, 교수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없음, 교수의 수업이 다소 어려움

(아)에 나타나는 것처럼 학습자가 휴타고지적 수업의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면담자는 휴타고지의 자기 결정 학습의 이점을 다음의 (자)와 같이 언급하였다.

(자)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결정권 수행 활동의 반영 비율이 높은 수업이 더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수업을 수행할 때 교사인 제가 학습자로부터 배우는 것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며, 교육 현장과 교사 활동, 교육 현장과 학술 활동의 연계가 보다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정형화된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에 익숙한 학부생들에게 휴타고지 원칙을 적용한 수업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휴타고지적 수업에서 분명히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학습자들의 변화가 긍정적이었고 글쓰기 과제의 양이나 질이 최초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수행에 비해 보다 증진되었다고 한다. 또한 수업 후기나 실증적인 강의 평가(예: 친절한 수업과 수준 높은 수업, 수업 재밌고 유익, 일단 과제가 많고, 수업 방식이 피드백 위주라, 수업이 그저 수업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배우고, 학습자 스스로의 변화를 목도할 수 있음 등) 통해 수업 성공을 재검증할 수 있었다

고 한다. 물론 호불호가 있다는 강의 후기도 있었지만 매년 높은 강의 만족도 점수를 항상 유지하는 것은 수업 성공을 입증하는 대목이라 풀이된다. 학습자들은 전통적 학습 방법에 익숙했으나 휴타고지식 자기 결정 수업 방식을 나중에는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⁹⁾ 온라인 글쓰기 학습에서 휴타고지식으로 접근한 결과 학습자들의 과학적 글쓰기 스킬이 증가되었다⁵⁰⁾ 와도 맥락이 닿는다. (차)는 면담자가 평가한 휴타고지 전략의 평가부분이다.

(차) 휴타고지 전략의 성공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입니다. 첫째 수행활동을 통해 만나는 이력 추적되는 학습자들의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과제로 제출되는 글쓰기 과제의 양이나 질이 최초 학습자들이 보여주는 사고의 질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 성공 요인이 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학습자들의 수업 후기나 강의 평가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물이 수업의 성공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게 합니다.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자기 결정 학습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데 있어 향후 극복하여야 할 현재 관행은 학습 목표가 정형성을 가진 것, 그 과정 역시 정형화되어가는 것이라 한다. 수행 과정에 선불리 개입하기보다는 인내하고 믿음을 갖고 기다려 피드백을 한다고 한다. 이처럼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할 때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학문적 그리고 내용 전문가로서 교수자를 존경하게 된다. 의미 있는 피드백과 협력은 학생들 간의 관계성,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¹⁾

(가) 자기 결정 학습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데 극복하여야 할 현재 관행은 교수의 학습목표가 닫힌 것(정형성을 가진 것)으로 지정되고, 그 과정 역시 정형화되어가는 것이라 (중략) 교수가 해당 과제를 제시하면서 기대하는

49) Blaschke, L. M. op. cit., pp.56-71.

50) Hafızah, H. et al., op. cit., pp.29-36.

51) Alpert, E. C. *The use of pedagogical, andragogical, and heutagogical learning principles in undergraduate humanities courses: An examination of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Concordia University Irvine, 2021.

것에 내용 지식이 크게 관여할 때 학습자들의 수행과정에 대하여 선불리 판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자기 결정 학습 접근 방식을 위해 교수는 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고, 학습자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 보다 많은 것들을 기대하며, 진정한 반응자로서의 피드백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쓰기 교육 자체가 자기결정, 자율성,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다보니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중등교육에서부터 정형화되고 고착화된 수업 커리큘럼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글쓰기를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전 글이 보여주는 다양한 다른 방식의 접근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길을 선택하여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이전 글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학습자 자신이 글쓰기에 대한 신념, 가정,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글쓰기에서의 학습자 맥락을 고려할때 이는 휴타고지 이중 루프 학습의 기본 원칙과 적극적으로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타) 글쓰기 교육 자체가 ‘자기결정, 자율성 증진, 창조성’의 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이를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고착화된 틀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중략) 학습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익숙한 것과 자신이 할 수도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의 나아감에 대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을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고 이전 글이 보여주는 다양한 다른 방식의 접근을 발견하고 그 길 중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길을 선택하여.....

면담자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스스로에 대해 배우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서 사고는 어떤 것인지를 포착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타 인지, 메타 언어적 방법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휴타고지적 접근에서 설명할 수 있는 명세화된 용어적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휴타고지에서 반성은 전체론적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메타인지는 학습자가 자신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학습한 방식도 반성하고 학습 방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⁵²⁾

52) Blaschke, L. M. & Hase, S. op. cit., pp.25-40.

5. 나아가며

본 연구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휴타고지 확장 및 실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 향후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안드라고지의 확장 개념인 휴타고지는 안드라고지, 자기 주도학습에 뿌리를 둔 자기 결정 학습 모델이다. 글쓰기는 원래 자기 결정 학습이 큰 축이 되는 활동이므로 학습자들은 휴타고지 자기 결정학습의 원리가 작동하는 글쓰기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논리력, 창의력이 증진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면담자는 글쓰기 교육 자체가 매우 자기 결정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에 휴타고지적으로 접근하고 이 원칙이 반영된 틀 안에서 향후 의 수업 설계를 구상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하였다. 면담자는 본인의 학습자가 글쓰기 학습에서 주요 행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육관을 글쓰기 강의를 하는 내내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 Hase와 Kenyon은 휴타고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 바 있다. “자기 결정 학습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에서 주요 행위자' 역할을 하는 학습자 역량을 개발하는 전체론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는데 이는 개인적 경험의 결과로 발생한다(p. 112)”⁵³⁾ 이처럼 휴타고지는 글쓰기 수업에서의 학습자 맥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글쓰기 학습은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고 궁극적으로 주요 행위자인 학습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전체론적 접근 방법의 휴타고지 기본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면담자는 글쓰기의 휴타고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자 중심의 수업하에 진행이 될 것과 글쓰기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의 전이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어사’나 ‘음운론’과 같은 내용

53) Hase, S. & Kenyon, C. op. cit., 2007, pp.111-118.

지식이 많은 수업에서는 수업 특성상 학습자들의 반응과 이를 반성적 성찰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시키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셋째, 입시 위주의 정형화된 교육환경에 익숙한 대학 신입생 학습자들은 답 없음의 막막함, 목적이나 주제와 같은 거시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학습자들이 문제를 만나는 상황에서 반성적 성찰과 교수자의 피드백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과정, 최선을 위해 믿음, 행동을 수정하는 일련의 메카니즘은 이중 루프 학습 과정의 맥락과 적극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자기 결정 학습에 막막해하는 학습자, 국어사나 음운론과 같은 내용 지식이 많은 수업은 수업 특성상 이중 루프 학습의 적용과 관련성이 적은 것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자기결정적, 자기주도적 측면을 강화하고 습득한 지식에 대한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후 학습자들의 신념, 믿음 등의 변화를 알아보는 자기 성찰적 국면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인 대학생들은 성인도래기의 연령으로서 페다고지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고 페다고지의 몇몇 부분은 그들에게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인문대학 학습자들의 경우 휴타고지 수업에서 학부생으로서의 효능감을 증진시키고 학문적 자율성, 자기 주도성, 학문적 자기 결정력의 강한 토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둘째, 향후 글쓰기 교육에서 교수자 피드백 요소를 강화하고, 학습자 자기 피드백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교수자의 건설적인 피드백은 이중 루프 학습을 구성하는 휴타고지의 주요 개념이기도 하다.⁵⁵⁾ 피드백 및 반성적 성찰은 중요한 요소로서 학생들은 동료, 멘토, 강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학습 경험을 성

54) Alpert, E. C. op. cit.

55) Blaschke, L. M. & Hase, S. op. cit., pp.25-40.

찰, 필요에 따라 방법론을 조정해야 한다.⁵⁶⁾

본 연구는 글쓰기 교육과정 및 운영 관행, 휴타고지에 대한 인식을 교수자의 인식을 통해 탐색하고 휴타고지의 글쓰기 수업에서의 확장과 실천 가능성을 국내 최초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휴타고지에 대한 교육학적 교감이 가능하며 동시에 글쓰기예의 휴타고지 확장에 공감하는 교수자를 파악하고 섭외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기에 단일 사례로 할 수 밖에 없었다. 교양 교육 글쓰기 교육의 강화 내지는 전공 영역에서의 전공과목과 글쓰기 교육과의 연계 협력을 후속연구에서 휴타고지에 입각하여 모색하고 휴타고지 기반의 교수 설계, 그 효과성은 어떻게 산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후속 연구에서 수행되길 기대해 본다.

56) Bărbuceanu, C. D. “Exploring Heutagogy-the digital twist in self-determined learning and education”, *Revue des Sciences Politiques*, no. 81, 2022, pp.62-69.

■ 참고 문헌

- 권양이, 『스마트 시대의 원격평생교육방법론』, 공동체, 2020.
- 권양이·이경희, 「위기 사건 경험 노인 여성학습자의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과정 학습경험의 의미탐색: 심리적 변화를 중심으로」, 『노년교육연구』 9권 1호, 한국노년교육학회, 2023, 43-66쪽.
- 김성연·김주영, 「이메일피드백과 온라인 컨퍼런스를 활용한 전공영어 글쓰기 사례연구」,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4권 4호,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21, 134-162쪽.
- 박송이·정덕현, 「대학생의 성장 마인드셋과 글쓰기 동기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20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521-534쪽.
- 박언주, 「문화분석: 연구 글쓰기 과제에서 자기주도감 확립하기」, 『인문사회 21』 14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3, p.3197.
- 신희선, 「멘토링을 통한 대학생 글쓰기 지도 사례연구」, 『작문연구』 제11집, 한국작문학회, 2010, 285-323쪽.
- 최임숙, 「교직 논리 및 논술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변화연구」, 『인문사회 21』 9권 1호, 아시아문화 학술원, 2018, 297-310쪽.
- Akyildiz, S. T. "Do 21st Century Teachers Know about Heutagogy or Do They Still Adhere to Traditional Pedagogy and Andrag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rogressive Education*, vol. 15, no. 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ors, 2019, pp.151-169.
- Alpert, E. C. *The use of pedagogical, andragogical, and heutagogical learning principles in undergraduate humanities courses: An examination of student and faculty perceptions*, Concordia University Irvine, 2021.
- Amnon, Glassner. "Heutagogy (self-determined learning): new approach to student learning in teacher education",

- Educația-plus*, vol. XXIV, 2019, pp.40-44.
- Argyris, Chris. "Double-loop learning, teaching, and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vol. 1, no. 2, Academy of Management, 2002, pp.206-218.
- Bărbuceanu, Costina Denisa. "Exploring Heutagogy-the digital twist in self-determined learning and education", *Revue des Sciences Politiques*, no. 81, 2022, pp.62-69.
- Bergen, A. & While, A. "A case for case studies: exploring the use of case study design in community nursing resear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31, no. 4, Wiley, 2018, pp.926-934.
- Blaschke, L. M. "Heutagogy and lifelong learning: A review of heutagogical practice and self-determined learning",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Athabasca University, vol. 13, no. 1, 2012, pp.56-71.
- . "The dynamic mix of heutagogy and technology: Preparing learners for lifelong lear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52, no. 4,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2021, pp.1629-1645.
- Blaschke, L. M. & Hase, S. "Heutagogy, Technology, and Lifelong Learning for Professional and Part-Time Learners", *In Transformative Perspectives and Processes in Higher Education*, Dailey-Hebert A. & Dennis K. eds. Advances in Business Education and Training, vol 6, Springer, Cham, 2015a, pp.75-94.
- . "Heutagogy: A Holistic Framework for Creating Twenty-First-Century Self-determined Learners", *In the future of ubiquitous learning: Learning designs for emerging pedagogies*, M. M. Kinshuk & B. Gros. eds. Heidelberg: Springer Verlag, 2015b, pp.25-40.
- Canning, N. & Callan, S. "Heutagogy: spirals of reflection to empower learners in higher education", *Reflective*

- Practice*, vol. 11, no. 1, Taylor & Francis, 2010, pp.71-82.
- Cartwright, M., Edwards, R., & Reeve, F. eds. *Supporting Lifelong Learning, Volume II: Organising Learning*, London: Routledge and Open University Press, 2002, pp.160-179.
- Cook, V. S. & Gregory, R. "Emerging Technologies: It's Not What You Say – It's What They Do", *Online Learning*, vol. 22, no. 3, ONLINELEARNINGCONSORTIUM, 2018, pp.121-130.
- Eberle, Jane. "If you are not Modeling Good Teaching, you are Teaching Something Else: The HUCC Model of Teaching", *Kidmore End: Academic Conferences International Limited Proceedings of the European conference on e-learning (Online)*, 2012, pp.142-149.
- Fetters, M. D., Curry, L. A., & Creswell, J. W. "Achieving integration in mixed methods designs—principles and practices", *Health services research*, vol. 48, no. 6, Health Research and Educational Trust, 2013, pp.2134-2156.
- Hafizah, H., Putri, F. D. C., Widiensyah, A. P., & Farhana, H. "The increasing of scientific writing skills through a heutagogy approach in Indonesian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and Education*, vol. 5, no. 2, University of Jambi, 2021, pp.29-36.
- Hartati, F. & Setyaningrum, N. "Differentiated Teaching Module for Indonesian Language Based on Graphological Analysis of Letter I, R, G", *Studies in Learning and Teaching*, vol. 4, no. 2, Indonesia Approach Education, pp.396-406.
- Hase, S. & Kenyon, C. *Self-determined learning: Heutagogy in action*,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2003.
- _____. "Heutagogy: A child of complexity complicity Theory", *Complicit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lexity and Education*, vol. 4, no. 1, University of Alberta, 2007, pp.111-118.
- _____. *From andragogy to heutagogy: Implications for VET*,

- Southern Cross University, 2001. (ePublications@ SCU, <https://bit.ly/2WpZZe6>)
- Mwinkaar, L. & Lonibe, J. Y. "Heutagogy as an alternative in teacher education: conceptions of lecturers and pre-service teachers of school of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DD-UBIDS", *Frontiers in Education*, vol. 9, 2024, pp.1-10.
- Richardson, L. P., McGowan, C. G., & Styger, L. E. J. "A Quality Approach to Masters Education Using an Australian Case Study -- A Reflection", *Univers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6, no. 8, 2018, pp.1837-1847.
- Rosyanafi, R. J., Lestari, G. D., Yusuf, A., Nugroho, R., & Yulianti, E. "Analyzing the implementation of heutagogical approach: A case study on wri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themed theses in the non-formal education program at the Universitas Negeri Surabaya", *Child Education Journal*, vol. 5, no. 3, LPPM Universitas Nahdlatul Ulama Surabaya, 2023, pp.165-173.
- Stake, Robert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1995.
- Tarigan, Henry Guntur. *Menulis sebagai suatu Keterampilan Berbahasa Writing as a Language Skill*, Angkasa, 2008.
- Wenger, Etinne. "Communities of Practice and Social Learning Systems", *Organization*, vol. 7, no. 2, 2000, pp.225-246.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서의 휴타고지의 확장 및 실천 가능성에 대해 탐색하고 향후 대학 글쓰기 교육과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4년제 대학교양학부 글쓰기 수업 교수의 심층 면접하고 학습 자료, 성찰일지, 강의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휴타고지는 글쓰기 수업에서의 학습자 맥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비추어 글쓰기는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되고 궁극적으로 주요 행위자인 학습자의 역량을 개발하는 전체론적 접근방법의 휴타고지 기본가정을 지지한다. 둘째, 참여자는 대학 글쓰기 수업에 휴타고지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진행될 것과 글쓰기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습의 전이 가능성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대학생들은 글쓰기 경험이 적은 학습자들로서 합목적적 글쓰기의 거시구조인 목적이나 주제,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한다. 추후 학습자들이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 해결 방식을 배우고 그 수용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과정은 휴타고지의 이중 루프 학습 맥락과 적극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글쓰기 교육에서의 효과적인 휴타고지적 실천 전략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휴타고지, 대학 글쓰기, 자기 주도성, 자기 결정 학습

■ Abstract

The Extension and Practicality of Heutagogy in College Writing Education

Kwon, Yangyi / Hongik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nd implementing heutagogy in college writing classes an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future college writing education.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we analyzed in-depth interview data, reflection journals, and lecture evaluations of liberal arts writing class professors. First, it was found that heutagogy was useful for understanding the learner context in writing classes. This result supports the basic assumption of heutagogy that writing is derived from personal experience and ultimately develops the capacity of learners as the main actors. Second, the participants emphasized that in applying the heutagogy principle to college writing classes, it should be conducted as a self-directed learner-centered class and that the ultimate goal of writing classes should be to expand the transferability of learning. Third, college students are learners with little writing experience and are said to be unable to create the purpose, topic, and structure of purposeful writing on their own. The process in which learners later learn positive problem-solving methods in problem situations and find new paths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m can be interpreted as actively connected to the double-loop learning context of heutagogy. Effective heutagogy strategies for future writing classes are also discussed.

Keyword • Heutagogy, College Writing, Self-Directed, Self-Determined Learning

■ 논문투고일:2025.05.31. ■ 심사완료일:2025.07.07. ■ 게재확정일:2025.07.08. ■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글쓰기 방안 모색

: 낮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를 제안하며

홍 래 성 · 윤 정 안*

목 차

1. 들어가며
2. 인성교육과 교양 글쓰기 교과에 대하여
3. 낮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에 대하여
4. 나가며

1. 들어가며

1)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과 초·중·고에서의 인성교육 상황

2015년 7월에 정부가 시행한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을 규격화, 정량화, 통제화한다”라는 이유로 각처의 단체, 각계의 인사로부터 시종일관 많은 비판을 받았다.¹⁾ 실제 현장을 들여다보아도 『인성교육진흥법』이 얼마나 유효한가는 물음표에 가깝다. “한국교총이 교사 600여 명에게 인성교육

* 홍래성(공동 제1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의사소통교실 객원교수
윤정안(공동 제1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의사소통교실 객원교수

1) 『인성교육진흥법』과 관련한 문제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서는 김길순,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78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를 참조할 것.

에 관해 실시한 조사에서 절반가량인 46%가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돼 시행 중인 사실조차 모른다고 답했다”²⁾ 라는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주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예를 들면 갑질 논란, 보복 운전,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은 올바른 인성 함양의 중요성을 되풀이 환기한다. 대다수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방안 중 하나로 초·중·고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동의를 표한다.³⁾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연히 대학 입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성교육이란 등한시되기 일쑤이다.

다소간의 범박함을 무릅쓰고서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초·중·고 교육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통과점 정도로 기능하고 있을 따름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일절 부재한다고만 볼 수는 없으되, 실상은 인성 함양을 도모하기보다 지식 전달에 치중하는 모양새를 대체로 띠고 있다. 이를테면 <도덕>이나 <윤리> 같은 교과목을 뒤적일 시,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는 4대 성인(聖人)으로 묶이어 각각의 사상이 나열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목도할 수 있다. 곧 ‘예수-사랑, 부처-자비, 공자-인(仁), 소크라테스-무지(無知)의 인정’이라는 도식 아래서 제각각의 성격, 특징이 어떠한지를 학생 개개인에게 암기토록 유도하는 방식이 취해진 것이다. 교수자는 팸플릿(pamphlet)에서 발췌하듯이 지식을 전달한다. 학생 개개인은 항목별로 외워서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고리 속에서 애초에 예수, 부처, 공자,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던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참된

2) 이현진, “[기자수첩] 있으나마나한 ‘인성교육법’”, 한국대학신문, 2017.09.1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943>; 해당 기사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 2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작성되었다. 시일이 많이 흘렀으니만큼 당연히 현실점에서는 사정이 훨씬 나아졌으리라고 짐작된다.

3) 박상완·박균열, 「학교 인성교육의 의미와 인성교육정책 개선 방안 탐색: 프랑스의 인성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학연구』 35권 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22쪽.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고민은 사라져 버린 지 오래다. 이 밖에도 인성교육이 평점척도화(評點尺度化)된 경우는 무수히 많다.⁴⁾

만약 초·중·고에서 인성교육이 본디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대학들은 인성교육을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거나 최소화된 형태로만 제공해도 충분할 것이다. 혹은 고차원의, 메타적인 차원의 인성교육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볼 수도 있을 것이다.⁵⁾ 하지만 전술한 것처럼 현시점의 초·중·고에서는 인성교육이 본디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장의 변화도 요원한 듯싶다. 그런 까닭에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고차원의, 메타적인 차원의 인성교육까지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기초적인, 기본적인 인성교육이나마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⁶⁾ 본 논문의 문제의식은 다름 아닌 여기서부터 촉발되었다.

2) 여러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강화 추세

물론 근대적인 대학의 출발점은 전문 직업인 양성에 놓여있었다. 대학은 시민성(citizenship) 또는 시민윤리(civic ethics)라는 목표를 배제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교육에서 주된 초점은 아니었다.⁷⁾ 한편, 다들 알고 있듯

4) 이로 미루어본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인성 법제화’ 시도는, 여러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을지언정 강제적으로라도 명문화해놓지 않는다면, 인성교육이 긴요하다는 당위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고 또 아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의 소산으로 여겨지는바, 그 배경에 대해서만큼은 납득할 만한 여지가 없지 않다.

5) 박병기,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방향」, 『대학교육』 190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23쪽 참고.

6)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덧붙여둘 수 있다. 충남 소재 J대학교 재학생 1,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학생 자신의 상황과 위치에서 인성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66.9%로 가장 많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23.4%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한다. 이는 상당히 시사적이다. 두 개의 응답률을 합하면 90.3%로 사실상 전체 의견이라고 보아도 무방한바, 대학생들이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지희진,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 7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453쪽 참고.

7) 박병기, 앞의 논문, 25쪽.

이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 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대학들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들은 대학 역량 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학생취업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취업과 관계되는 실용 교육이 우선시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맥락을 참작할 때, 대학들에게 인성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커리큘럼을 만들어야 한다고 무턱대고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매 해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말미암아 대학들은 점점 더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바, 학생 유치에 별반 도움되지 않는 인성교육을 챙기라는 목소리는 공허하게만 들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작금의 현실에서 대학이 담당해야 할 기능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이 단순히 취업사관학교로 기능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또 지식의 상아탑만을 지향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그리하여 대학이 자성(自省)을 통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합의가 점차 힘을 얻어가는 형편인 셈이다. 특히 절반 이상의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대학 교육은 초·중·고 교육의 다음 순서로 진행되는 고급화된 의무교육이라고도 간주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초·중·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인성교육을 대학에서라도 충실히 다루어보자는 건해는 마냥 도외시하고 말 것이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미 적지 않은 대학들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몇 대학은 교육과정 개편안, 새로운 비전(vision), 장기 발전 계획 등을 제시할 때면 의례적으로 인성교육을 앞세우곤 한다.⁸⁾ 몇몇 대학은 홈페이지 속의 교육 목표를 소개하는 난이나 교육이념을 소개하는 난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문구를 뚜렷이 적시하고 있다. 몇몇 대학

8) 전제아, 「한국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과정 사례 분석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9호, 인간학연구소, 2005, 5쪽 참고.

은 바롬인성교육위원회(서울여자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서울대학교), 창의인성교육센터(경인교육대학교) 등과 같이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기관 혹은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있다. 몇몇 대학은 인성교양대학(수원대학교), 인성교양학부(부산대학교) 등과 같이 학부나 단과대의 이름에다가 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⁹⁾

이렇듯 대학들이 인성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는 사례란 현재에도 그리 드문 편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인성교육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나아가 대학들에서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된 논의는 얼마나 수행되었는가.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미 펼쳐졌거니와, 이에 따라 많은 부분이 이미 채워졌다. 그럼에도 아직 덧붙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교양 글쓰기 교과로부터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좀 더 상세히 말한다면 본 논문은 교양 글쓰기 교과에서 인성교육을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 및 이때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써 낮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가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문제 제기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2. 인성교육과 교양 글쓰기 교과에 대하여

1) 인성교육의 개념 규정 문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인성교육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유인즉 인성교육은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 막상 그 의미를 따진다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인성교육

9) 더불어 몇몇 대학은 수시모집의 한 전형인 입학사정관제를 운영하면서 학생 선발 평가지표 안에 인성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정·고강호, 「대학생의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고찰」, 『부모교육연구』 11권 1호, 한국부모교육학회, 2014, 43-44쪽 참고. 이 논문은 서울교육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의 입학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진흥법』을 살펴보아도 인성교육은 제2조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정도로만 정의되었을 따름인바, 다분히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들에서도 인성교육이 지닌 함의에 대해 뚜렷하게 기술해 놓은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체로 대동소이한 가운데서 두 가지만 가져와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인성교육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성품의 기본을 닦는 과정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할 경우, 그런 인식 경향은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다.¹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품성을 형성하는 교육¹¹⁾

전자든 후자든 간에 포괄적이어서 아쉬움을 남긴다. 전자와 후자를 모두 아우르는 단어로 전인(全人)교육을 떠올릴 수 있고, 이로부터 ‘인성교육이란 곧 전인교육이다’라는 명제를 도출해 볼 법도 하나, 이런 식이라면 ‘전인교육이란 무엇인가?’가 다시금 문제로 제기되므로 공허한 기표 대체에 불과한 셈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인성교육을 인격교육, 시민교육, 가치교육 등과 동의어(혹은 유의어)로 간주하는 견해도 종종 찾을 수 있으나, 이때도 그 각각에 내포된 함의가 쉽사리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변함없으므로, 여전히 막연한 개념 규정에 머문다고 보아 틀리지 않는다.

기실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인성이 차지하고 있는 몫이 지대하다. 적지 않은 논자들이 인성에 대해 나름대로 뜻 매긴 적이 있으며,¹²⁾ 그

10) 박병기, 앞의 논문, 23쪽.

11) 신차균, 「체형 중심 인성교육의 이념과 실제」, 『교육철학』 23권, 한국교육철학학회, 2000, 209쪽.

12) 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확인하려면 유홍준, 도승이, 고재석, 「인성 교과교육 교육효과성 분석-성균관대학교」, 『교양교육연구』 11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451쪽을 참조할 것.

럼에도 인성을 명백하게 뜻 매기기란 애당초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¹³⁾

우리가 인성교육이라고 말할 때의 ‘인성’은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및 정서(감정) 등을 의미하지만, 또 그것을 좀 넓게 보면, 인성은 지·덕·체 또는 지·정·의 등을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¹⁴⁾

인성을 좁게 본다면 “도덕성, 사회성 및 정서(감정) 등”으로 이해될 수 있고, 넓게 본다면 “지·덕·체 또는 지·정·의 등을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위의 인용문은 말한다. 그러나 넓게 볼 때는 일단 제쳐두고서 좁게 볼 때만 따지더라도, “도덕성, 사회성 및 정서(감정) 등”을 어떠하다고 딱 잘라 표현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¹⁵⁾ 구태여 이 밖의 다른 인용문을 더 가져오지 않더라도, 인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단어가 매한가지로 상당한 함의를 지닌 탓에, 어느 경우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손쉽게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듯 인성의 폭넓은 의미 범주로 인해 인성교육은 느슨한 의미망을 공유하고 있을 뿐, 분과와 주제에 따라 경우와 사정에 따라 그때그때 요구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오용될 여지마저 존재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인성교육의 개념 규정 문제를 놓고서 취할 수 있는 관점은 두 가지 정도로 추려진다. 하나는 원론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용적인 차원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는 칸트의 판단

13) 그런 까닭에서 어느 논문은 인성교육이라고 꼭 호칭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화교육이든 인간교육이든 인격교육이든 참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간에 전체적인 의미만 잘 통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이다. 김태현, 노명래, 「순천향대학교의 인성교육 방안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6권,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6쪽 참고.

14) 이성호, 「人性教育, 이대로 좋은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도덕성회복을 위한 정신문화포럼』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4쪽.

15) 덧붙이건대 여러 선행 연구에서 쓰인 인성의 역어(譯語)들, 곧 character, moral character, humanity, human nature, personality, virtue 등을 살펴 보아도 인성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다.

력 비판론이나 흄의 인성론, 혹은 동양의 유학(儒學)이나 성리학 등과 같은 사상을 토대로 삼아 어떻게든 인성에 대한 엄밀한 뜻매김을 시도한 다음, 이로부터 인성교육과 관련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리고 후자는 광의의 인성교육으로 부를 수 있을 법한 현재 상황을 일단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실제 기능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탐사해 보는 방법이다.

뚜렷한 개념 규정이 밑받침되어야 체계적인 사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지 않으나 전자는 현학적인 방향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크지 않은가 여겨진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후자는 실용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여겨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둘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고자 한다.¹⁶⁾ 여기에 덧붙여서 비록 후자라고 할지언정 인성, 인성교육에 대해 아예 고민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는바, 본 논문은 세밀하지는 못하나 ‘나’에 대해 이해하고, ‘타자’에 대해 이해하며, 나와 타자 간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 이르는 것을 인성으로 파악하고, 또 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인성교육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성, 인성교육에 대한 시선이란 배려, 소통, 정직, 존중, 책임 등과 이어지므로, 선행 연구들과 견주어서도 지향하는 지점이 다르지 않다.

2) 교양 글쓰기 교과적 적합성

대학들은 인성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가. 교과를 통해서든 비교과를 통해서든 그 외의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인성교육은 다양하게 기획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과로만 한정해서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교양 글쓰기 교과에서 인성교육을 취급하는 것이 알맞지 않을까 싶다.

16) 오해를 피하고자 한 마디 덧붙이자면, 본 논문이 후자를 선택한다고 해서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무작정 지향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은 오히려 재고되어야 하는바, 이유인즉 어느 논문에서 지적한 바처럼 “인성교육의 관심을 실천 또는 행동에 국한시킬 경우 오히려 인성 그 자체는 관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한구, 「인성의 개념: 성리학의 관점」, 『도덕교육연구』 29권 1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017, 5쪽.

먼저 어찌하여 교양이 적합한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교양의 어원인 ‘Bildung’을 추적해 보면 그 자체에 인성교육과 관련한 의미가 애초부터 내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¹⁷⁾ 인성교육은 본래적으로도 교양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도 전공이 아닌 교양이어야 재학생이 모두 수강할 수 있기에, 인성교육은 실제적으로도 교양을 통해 수행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 때문이다.¹⁸⁾ 대학들에서 인성교육과 관계되는 강의를 대부분 교양으로 개설, 운영 중인 데에는 상기와 같은 해아림이 있었으리라고 추측된다.

다음으로 어찌하여 교양 가운데서도 글쓰기 교과가 적합한지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앞서 인성을 ‘나’에 대해 이해하고, ‘타자’에 대해 이해하며, 나와 타자 간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 이르는 것으로, 또 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인성교육으로 정해 두었거니와, 관련한 첫걸음은 무엇보다 의사소통으로부터 내디뎌진다. 작금의 시대에서 의사소통은 진즉부터 아주 비중 있게 취급되고 있다. 일찍이 이어령은 정보사회의 특징을 개괄하면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아래처럼 제시한 적이 있다.

정보사회는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라 **발신자-수신자의 兩者關係**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방통행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이다. 그리고 자연을 중심으로 한 농경사회와 기계를 중심으로 한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사회의 생산 양식은 인간과 그리고 그 마음이나 지력을 자원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情報産業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기능에서 **소통과 감동**으로 관리보다는 **참여와 협력**으로 패

-
- 17) 초기 독일 낭만주의 이후에 중시된 개념으로 발동Bildung이 있습니다. 교육, 육성, 교양, 형성, 도야 등으로 번역됩니다. 생소한 말이지요. 단적으로 ‘정신의 자기 전개와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도 아리송하세요? 간단히 말하면 자아 찾기입니다.” 사사키 아타루 저, 김소운 역, 『춤춰라 우리의 밤을 그리고 이 세계에 오는 아침을 맞이하라』, 여문책, 2016, 57쪽.
- 18) 물론 전공에서도 인성교육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의 모든 학부·과에서 인성교육을 다루는 교과를 (그것도 합치된 기준을 준수하면서) 하나씩 개설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러다임을 바꿔간다.¹⁹⁾

위의 인용문에서 발견되는 “발신자-수신자의 兩者關係”, “상호의존적인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소통과 감동”, “참여와 협력” 등과 같은 주요 키워드들은 뜻하는 바가 한군데로 모인다. 다른 아닌 정보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얼마나 긴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이다. 비단 위의 인용문이 아니더라도 각종 매체는 정보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의사소통에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발표하기, 토론하기 등도 존재한다. 따라서 발표하기, 토론하기 등을 제쳐두고서 글쓰기에 눈길을 주는 이유와 관련해서도 몇 마디 설명을 보태둘 필요가 있다. 첫째, “인성교육이 현실적인 신념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쓰기와 말하기 등 표현활동을 수반하여야 한다. 특히 쓰기는 읽기에 비해 더욱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쓰기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²⁰⁾라는 의견을 빌려올 수 있다. 둘째, “많은 글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읽어내고,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겹쳐보는 쓰기활동은 다른 교과는 흉내 낼 수 없는 지고한 자기반성과 자기정화의 과정이며, 자아와의 독대를 통해 전인적 품성이 일깨워지고 활성화되는 밀도 높은 실천행위이다. 따라서 진정한 인성교육은 글쓰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내화·체화된다”²¹⁾라는 의견을 빌려올 수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술된 아래와 같은 의견까지를 눈여겨볼 수 있다.

삶의 계층 가능성 내지 양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은 디지털 시대 전반을 지

19) 이어령, 「情報時代와 仁의 文化: 儒敎思想의 21世紀의 패러다임」,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編, 『21世紀의 挑戰, 東洋倫理의 應答』,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98, 19쪽. 인용문의 강조 표시는 인용자에 의한 것임.

20)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001, 32쪽.

21) 백승무, 「대학 말글교육의 교육목적 설정에 대한 제언」, 『우리말글』 63집, 우리말글학회, 2014, 114쪽.

배하고 있다. “양화된 자아” 역시 이러한 신앙을 추종한다. 신체에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가 부착되고 이로써 체온, 혈당, 칼로리의 섭취량과 소모량, 지방질 비중, 이동 프로필 등이 측정된다. 센서는 명상 시의 심장 박동도 체크한다. 긴장을 이완시키는 휴식의 시간에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성과와 효율인 것이다. 마음의 상태, 감정, 일상적 활동도 일일이 기록된다. 이러한 자기 측정과 자기 통제의 목적은 정신적, 육체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더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도 해주지 못한다. “양화된 자아” 역시 자아에서 의미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다다이즘적 자아 기술이다. 자아는 온갖 데이터로 분해되어 결국 의미의 진공 상태에 이르고 만다./ 양화된 자아의 구호는 “수치Numbers를 통한 자기 인식”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수치를 쌓아 올린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자기 인식이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수치는 자아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계산Zählung은 이야기Erzählung가 아니다. 그런데 자아를 지탱하는 것은 **이야기**다. 계산이 아니라 이야기가 자기 발견과 자기 인식에 이르게 해준다./ 고대인들의 자기 돌봄도 스스로에 관해 기록하는 습관과 연관되어 있다. 푸블리카치오 수이(Publicatio sui, ‘자신을 밝히기’ ‘고백하기’-테르툴리아누스)는 자기 돌봄의 본질적 부분을 이룬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문화에서는 글쓰기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습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나중에 다시 읽어보기 위해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해 두는 것,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논설이나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 필요한 진실을 자기 자신에게 되살리기 위해 일기를 쓰는 것 등이 있었다.²²⁾

의사소통이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건만, 그 반작용으로써 오히려 의사소통의 한 축인 나,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슬픈 자화상이 조명되고 있다. 흐름은 어떻게 하면 나, 자아를 이해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대안으로는 이야기 구축이 유효하다고 여겨지는바, 자연스레 글쓰기의 위상이 두드러지기 마련이다. 특히 푸블리카치오 수이(Publicatio sui), 다시 말해 자기에 대한 서사 쓰기가 중요하게 호출된다.²³⁾

이상 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의사소통

22)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85-86쪽. 인용문의 강조 표시는 원문에 의한 것임.

을, 그중의 한 방법으로 글쓰기를, 그중의 한 주제로 나, 자아에 대한 성찰을 주목하는 방식이 다른 것에 비겨 효용성이 크다고 판단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을 능히 담당하기 위한 교과를 꼽는다면 다른 아닌 글쓰기 교과가 우선순위로 삼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낯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에 대하여

1) 기존 사례 검토

교양 글쓰기 교과에서 나, 자아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 사례들은 적지 않다. 이를테면 자기소개서 쓰기, 편지 쓰기, 내적 갈등 쓰기, 외적 갈등 쓰기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이 고안되고 실행되었음을 적어둘 수 있다.²⁴⁾ 좀 더 인상적인 경우를 소개한다면 ① 자화상을 감상하고 느낀 점을 본인의 자아 이미지와 연계하여 글쓰기를 해본다거나 혹은 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

23) 실제로 인성교육을 교양 글쓰기 교과와 연계한 선행 연구들 가운데서 상당수는 자기에 대한(혹은 자기의 롤모델에 대한) 서사 쓰기를 중심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그중의 몇몇은 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원용되는 맥킨 타이어의 '이야기로서의 주제'에 많이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해당 개념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매킨타이어는 근본적으로 인간 존재가 "실행된(혹은 상연된) 이야기 속의 성격/인물"(human beings as characters in enacted narratives)이라는 사실에서 출발 …(중략)… 자아를, 이처럼 서사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자아를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이야기의 주체로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역사, 고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한 역사의 주체인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체의 존립 근거가 성격/인물의 통일성이다. 성격적 통일성이 없는 존재를 이야기의 주체로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김정현, 「매킨타이어의 전통 개념 연구」, 『해석학연구』 22호, 한국해석학회, 2008, 342쪽.

24) 박해랑, 「글쓰기 사례를 통해서 본 인성교육 방안」, 『교양교육연구』 11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609-646쪽; 박현이, 「감성 개발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편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4, 77-114쪽; 강민경, 「大學 敎養 授業에서의 人性敎育 考察-아버지와 疏通하기 授業을 중심으로」, 『語文研究』 42권 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393-415쪽; 정성미, 「자아 성찰 글쓰기를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어문론집』 66권, 중앙어문학회, 2016, 253-277쪽.

는지를 인터뷰한 뒤 이에 기반하여 글쓰기를 해보는 방안, ② 그림과 시를 활용하여 자화상을 쓰도록 하는 방안, ③ 사진과 내러티브를 통해 자기에 대해서 고찰하게끔 하는 방안, ④ 문학을 매개체로 삼아 자기를 되살피는 방안, ⑤ 비평을 토대로 자아 성찰을 모색하는 방안, ⑥ 스타니슬랍스키의 ‘Magic if(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략을 적용해 보는 방안 등이 고안되고 실행되었음을 적어둘 수 있다.²⁵⁾

이러한 기존 사례는 각종 보조수단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는 데서 의의가 확보된다. 다만 나, 자아에만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타자가 간과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아예 없지는 않았으되, 결국은 나, 자아가 귀착점으로 삼아지는 모양새를 대체로 띠었던바, 오롯했다고 보기가 어렵다.²⁶⁾ 주지하다시피 나, 자아에 대해 자문해 보는 작업만으로는 나, 자아를 제대로 탐색할 수 없다. 굳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는 라캉의 정언을 빌리지 않더라도 나, 자아에 대해 알고자 할 때면 늘 타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 상실이 의외로 도외시

25) 한래희, 「자아 이미지와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20호, 한국작문학회, 2014, 359-370쪽; 이송희, 「그림과 시를 활용한 자화상 쓰기」, 『국제어문』 90호, 국제어문학회, 2021, 559-584쪽; 정덕현, 「사진과 내러티브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수업 연구」, 『문화와융합』 39권 2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17, 145-176쪽; 고명신, 「문학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수업 방안」, 『리터러시 연구』 2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245-285쪽; 차성연, 「비평을 활용한 자기성찰적 글쓰기 수업 운영 방안」, 『비평문학』 6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201-226쪽; 안숙현, 「스타니슬랍스키의 ‘Magic if’를 활용한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 『한국문예창작』 14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175-183쪽.

26) 이재기, 「글쓰기에서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작문연구』 43호, 한국작문학회, 2019, 85-109쪽; 양가영, 「의사소통 교육에서 문학의 의의와 문학 치료의 활용 -자기 서사 쓰기에서 문학의 타자성과 문학 치료의 제한적 수용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7호, 국제어문학회, 2023, 175-210쪽; 임지연, 「자기서사 글쓰기에서 타자성과 윤리성의 문제」, 『작문연구』 18호, 한국작문학회, 2013, 141-173쪽.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류와는 반대 방향에 서서 나, 자아가 아니라 타자에게로 시선을 주려고 한다. 이럴 때의 관건이란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 성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실례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으로 모인다.

2) 타자 이해 방안 소개

당연하게도 첫 단계로는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놓인다. 다만 이론적인 배경이 너무 현학적인 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타자(성)와 관련한 사유를 펼친 철학자들, 가령 들뢰즈, 라캉, 레비나스 등을 호명한 다음, 이들의 방법론이 어떠했는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낯설게 하기를 주목했다. 주시하다시피 낯설게 하기는 러시아 형식주의를 대표하는 한 인물인 쉬클로브스키(Shklovsky)가 주창한 개념어이다. 낯설게 하기에 관한 핵심 대목을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다.

예술의 목적은 사물이 알려진 그대로가 아니라 지각되는 데로 그 감각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술의 테크닉은 사물을 ‘낯설게’(unfamiliar: making strange)하고, 형식을 어렵게 만들며, 지각의 어려움과 길이를 증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각의 과정이야말로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심미적 목적이며 그 과정은 연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이란 한 대상이 예술적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대상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Shklovsky(1965)의 “Art as Technique” 한 대목).²⁷⁾

쉬클로브스키는 낯설게 하기를 톨스토이의 작품으로써 예증한다. 구체적으로 “톨스토이는 익숙한 대상물에 명칭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낯설게 보이게 하며 한 사물을 처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사건을 그것이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해서

27) 정경미, 「존 던의 시와 ‘낯설게 하기」, 『현대영어영문학』 45권 2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01, 267쪽에서 재인용.

지각의 꾸물거림을 유도”²⁸⁾한다는 것이다.

물론 낮설게 하기를 학생들에게 너무 상세하게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다. 낮설게 하기에 대한 꼼꼼한 파악이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낮설게 하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무엇인가만 잘 숙지하면 충분하다. 오히려 학생들은 낮설게 하기를 원래 맥락보다도 더 넓게, 또 쉽게 변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① 친숙한 대상을 찬찬히 바라보기, ② 이때는 대상을 기존 문법과 다르게 주시하기라는 두 가지 명제를 유념한다면,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무심코 지나쳤던 대상을 재발견할 수 있을뿐더러 대상에 대한 한층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낮설게 하기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대상을 정하면 된다. 다만 사람은 선택지에서 제외한다. 사람을 대상에서 뺀 이유는 학생들이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고 해도 실제로는 자기 입장을 투영하는 정도에서 대부분 머물게 되는바, 타자를 이해하는 데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또한 학생들은 대개 아는 사람을 고르기 마련이므로 서로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막상 무언가를 스스럼없이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사람만 아니라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혹은 사물이라도 괜찮다. 평소 눈길이 머물지 않았던 대상으로부터

28) 톨스토이는 「Kholstomer」에서 말의 시점으로 인간의 사유 재산 제도를 아래처럼 낮설게 묘사한다. “나는 그들이 채찍질과 그리스도교적 신앙에 관해서 말했던 것을 잘 이해했다. 그러나 그때 완전히 무지의 상태에 있었다. “그 자신의 것”, “그의 망아지”란 의미는 뭘까? 이런 말들에서 나는 나와 마구간 사이에 일종의 어떤 관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에 나는 그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나와 다른 말들을 떼어놓았던 훨씬 후에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나는 그들이 나를 “사람의 재산”이라 불렀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말”이란 단어들은 나를, 즉 살아있는 말을 내게 언급했는데 이것은 “내 땅”, “내 공기”, “내 물”이라는 단어들만큼이나 내게 낮설게 보였다.(Shklovsky(1965)의 “Art as Technique” 한 대목)” 서혜련, 「쉬클로프스키의 낮설게 하기」, 『語文學研究』 3권, 우석대학교 여학연구소, 1999, 265쪽.

새로운 인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모두가 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특별한 양식에 얽매지 않고 쓰기에 임하면 된다. 곧 에세이가 합당하다는 의미이다. 이유인즉 “자유로운 입장에서 사물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보는 양식의 정신, 이것은 다름 아닌 에세이 정신”²⁹⁾이기 때문이다.

한편, 낯설게 하기는 자기 마음대로 대상을 규정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대상의 자기화는 곤란하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오히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이든 개별성/특수성, 독특성/보편성을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로써 학생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익숙했었가를 되짚어야 한다.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밑바탕은 여기서부터 주어진다.

그리고 이상을 유념하면서 교수자는 학생들의 결과물을 피드백해야 한다. 얼핏 보아 타자의 입장인 듯싶으나 따지고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해당하는 대목을 잘 찾아낸 다음, 이를 학생들에게 적절히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어떤 시선으로 다가가야 대상의 은폐된 또 다른 면모를 포착할 수 있는지를 적절히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피드백은 기본적으로 첨삭을 통해 이루어지거니와, 충분한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 우수 사례 발표를 통해서도 상호 간의 토론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³⁰⁾

이제 학생들의 결과물을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먼저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부터 토로해두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 중 상당수가 일인

29) 유종호,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200쪽.

30) 낯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는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는다면 아주 손쉽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서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하리라고 짐작된다.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통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관점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도움받는 행위를 긍정적이라고 여기는 견해가 있을 법하다. 반대로 이러한 관점은 스스로가 떠올린 것이 아니라는 데서 도움받는 행위를 비판적이라고 여기는 견해도 있을 법하다. 기실 이는 낯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글쓰기 교육 전반과 관련된 문제이다. 앞으로 꾸준히 고민하고 협의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칭 시점으로 대상에 자기를 이입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에게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으리라고 추측되나, 그 외의 방식이 좀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못내 아쉬움 남긴다. 일인칭 시점이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머물러서 타자를 환기하지 못한 모양새를 보였다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 학생들은 담배, 버스, 자판기, 지하철, 특정 조형물, 파리 등과 같이 다양한 대상을 가져왔으며, 이렇듯 다양한 대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법에 종속되는 관점으로 그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라면 번뜩이는 관점을 부분적으로 담았으나 전체적으로 균질하지 못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타자를 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모르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은 남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지하철을 소재로 삼은 글 중의 한 대목인 <‘나’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간다. 오전 시간이라 더욱 사람들끼리 부대긴다. 졸고 있는 아저씨, 사람들 사이에 끼서 어찌할 줄 모르는 대학생 등 모두가 내 안에서 힘들어한다.>를 들 수 있다. 이를 보면 일인칭 시점을 활용해서 지하철을 ‘나’라고 표현했을 뿐 일상적으로 접하는 풍경을 묘사한 것과 차이가 없다. 기존 문법에 충실할 뿐 다른 관점이 부재하다. 익숙한 지하철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낯선 지하철에 이르러야 한다.

다음으로 성공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가지 정도를 예시로 가져올 수 있다. 방금 기술한 만족스럽지 않았던 점을 완전히까지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겨낸 모습을 띤다.

<사례1>

오랜만에 만나는 ○○이의 손이었다. 하지만 나를 쥐는 그 손에는 힘이 많이 빠져 있었다. 이 애는 나를 쥐고 무언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다. 많이 써보지 않은 티가 확 났다. 하지만 매우 천천히 그리고

노력하는 듯이 어떤 글을 따라 쓰기 시작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상을 수상하였을 당시 연설하였던 내용이었다.

<사례2>

그들은 다른 생물의 피를 빨아먹지도 않았다. 오히려 피만 쏙 빼고 나머지는 남김없이 먹어 치우는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중략)… 식욕이 돋는 나는 그 녀석의 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

<사례3>

"틱, 탁" 내가 조금만 느리게 돌아가면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내가 조금만 빨리 돌아가면 사람들은 초조해한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누군가는 내가 멈추기를 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더 빨리 움직이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내가 멈추길 바란다고 해도, 나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의 속도를 보여줄 뿐이다. 내가 빨리 움직이려 해도 시간은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에 또다시 정해진 시간만을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다.

<사례1>은 펜의 입장에서 서술한 글이다.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펜을 쥐고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연설을 필사한다는 내용을 참신하게 표현했다. 무심코 버려졌던 펜이 다시금 주인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묘사가 읽는 이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특기할 사실은 정말로 펜이 되어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타자-되기는 타자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이로써 인성교육의 달성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례2>는 모기의 입장에서 서술한 글이다. 모기는 다른 생물의 피를 먹는 데 반해 인간은 다른 생물의 피를 제거하고 그 나머지를 먹는다는 사실을 참신하게 표현했다. 진정 모기가 되어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떠올릴 수 없었을 내용이다. 또한 너무나도 당연해서 오히려 쉽사리 알아채지 못하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데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반성하게끔 이끌기까지 한다. 타자-되기에다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로부터의 탈피까지를 한번에 담아낸 인상적인 서술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인성교육의 달성 가능성이 엿보인다.

<사례3>은 벽시계의 입장에서 서술한 글이다. 나는 언제나 그대로이다. 그러나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다. 누군가는 빨리 움직이기를 또 누군가는 천천히 움직이기를 바라지만 나는 어느 쪽의 기대도 채워줄 수 없다. 나는 같은 움직임을 보여줄 뿐이지만 각자는 처지에 따라 나를 다르게 느낀다. 타자는 모두 다르다는 인식을 참신하게 표현했다. 타자-되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로써 인성교육의 달성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처럼 낮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나에 대해, 타자에 대해, 그리고 나와 타자 간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 대해 성찰해 보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학생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고자 다섯 단락 정도로 분량을 한정했으나 학생들에게 보다 긴 분량을 요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더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에세이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나, 형편에 따라 특정한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4. 나가며

지금껏 본 논문은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글쓰기 방안 모색해 보았다. 이는 초·중·고에서 인성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면 대학에서라도 인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론에서는 초·중·고의 인성교육 현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대학들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최근 실상을 살펴보았다. 초·중·고에서는 입시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 대부분 교육이 진행되는바, 인성교육 또한 본디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어진 경향을 띠었다. 한편으로 대학들은 점차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 구체적으로 인성교육은 각종 표어에 활용되기도 했고 기관 혹은 위원회의 핵심으로 삼아지기도 했으며 학부나 단과대 등의 이름과 연결

되기도 했다.

제2장에서는 먼저 인성교육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았고, 다음으로 교양 글쓰기 교과에서 인성교육을 다루는 것이 어찌하여 적합한지를 고민해 보았다. 인성교육은 무엇보다 인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쉽게 어퍼하다고 규정 내리기가 어려운바, 다분히 포괄적인 상태로 쓰였음이 부정될 수 없다. 느슨한 의미망을 공유한 채로 각각의 논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활용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펼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뜻을 정해 둘 필요가 있었기에, 세밀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나’에 대해 이해하고, ‘타자’에 대해 이해하며, 나와 타자 간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 이르는 것을 인성으로 파악했고, 또 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인성교육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공보다는 교양이 본래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더 알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사소통을, 그중의 한 방법으로 글쓰기를, 그중의 한 주제로 나, 자아에 대한 성찰을 주목하는 방식이 큰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교양 글쓰기 교과가 가장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히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기존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써 낫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를 제언해 보았다. 기존 사례는 대부분 나, 자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타자를 등한시하는 감이 없지 않았다. 나,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자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바, 비록 주류와는 거리가 있을지언정 타자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써 낫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 다음 낫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안내했는지, 그에 따른 학생들의 실제 성과가 어땠는지 등을 세 가지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낫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가 한층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계

속 궁구해야 할 것이며, 그 밖의 새로운 방법과 관련해서도 계속 궁구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본 논문을 마무리 짓도록 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사사키 아타루 저, 김소운 역, 『춤춰라 우리의 밤을 그리고 이 세계에 오는 아침을 맞이하라』, 여문책, 2016.
-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編, 『21世紀의 挑戰, 東洋倫理의 應答』,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98.
- 유종호,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 정기철, 『인성교육과 국어교육』, 역락, 2001.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도덕성회복을 위한 정신문화포럼』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한병철 저, 김태환 역, 『심리정치』, 문학과지성사, 2015.

논문

- 강민경, 「大學 教養 授業에서의 人性教育 考察-아버지와 疏通하기 授業을 中心으로」, 『語文研究』 42권 3호,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2013, 393-415쪽.
- 고명신, 「문학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수업 방안」, 『리터러시 연구』 21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245-285쪽.
- 김길순, 「‘인성교육진흥법’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한국사상과 문화』 78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5, 459-488쪽.
- 김정현, 「매킨타이어의 전통 개념 연구」, 『해석학연구』 22호, 한국해석학회, 2008, 335-373쪽.
- 김태현·노명래, 「순천향대학교의 인성교육 방안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 논총』 6권,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8, 5-49쪽.
- 박병기,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과 방향」, 『대학교육』 190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5, 23-27쪽.
- 박상완·박균열, 「학교 인성교육의 의미와 인성교육정책 개선 방안 탐색: 프랑스의 인성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책학연구』 35권 2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17, 21-44쪽.
- 박세정·고강호, 「대학생의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고찰」, 『부모교육연구』

- 11권 1호, 한국부모교육학회, 2014, 35-50쪽.
- 박해랑, 「글쓰기 사례를 통해서 본 인성교육 방안」, 『교양교육연구』 11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609-646쪽.
- 박현이, 「감성 개발을 위한 대학 글쓰기 교육의 한 방향 -문학텍스트를 활용한 편지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8권 3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4, 77-114쪽.
- 백승무, 「대학 말글교육의 교육목적 설정에 대한 제언」, 『우리말글』 63집, 우리말글학회, 2014, 103-125쪽.
- 서혜련, 「쉬클로프스키의 낮설게 하기」, 『語文學研究』 3권, 우석대학교 어학연구소, 1999, 253-280쪽.
- 신차균, 「체험 중심 인성교육의 이념과 실제」, 『교육철학』 23권, 한국교육철학학회, 2000, 205-225쪽.
- 안숙현, 「스타니슬랍스키의 'Magic if'를 활용한 대학 교양 글쓰기 교육」, 『한국문예창작』 14권 1호, 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175-183쪽.
- 양가영, 「의사소통 교육에서 문학의 의의와 문학 치료의 활용 -자기 서사 쓰기에서 문학의 타자성과 문학 치료의 제한적 수용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7호, 국제어문학회, 2023, 175-210쪽.
- 유한구, 「인성의 개념: 성리학의 관점」, 『도덕교육연구』 29권 1호, 한국도덕교육학회, 2017, 1-18쪽.
- 유홍준, 도승이, 고재석, 「인성 교과교육 교육효과성 분석-성균관 대학교」, 『교양교육연구』 11권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447-474쪽.
- 이송희, 「그림과 시를 활용한 자화상 쓰기」, 『국제어문』 90호, 국제어문학회, 2021, 559-584쪽.
- 이재기, 「글쓰기에서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하여」, 『작문연구』 43호, 한국작문학회, 2019, 85-109쪽.
- 임지연, 「자기서사 글쓰기에서 타자성과 윤리성의 문제」, 『작문연구』 18호, 한국작문학회, 2013, 141-173쪽.
- 전제아, 「한국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과정 사례 분석-서울 소재 4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인간연구』 9호, 인간학연구소, 2005, 5-31쪽.

- 정경미, 「존 던의 시와 ‘낮설게 하기」, 『현대영어영문학』 45권 2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01, 265-279쪽.
- 정덕현, 「사진과 내러티브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수업 연구」, 『문화와 융합』 39권 2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17, 145-176쪽.
- 정성미, 「자아 성찰 글쓰기를 통한 인성교육의 가능성」, 『어문론집』 66권, 중앙어문학회, 2016, 253-277쪽.
- 지희진,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 7권 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433-466쪽.
- 차성연, 「비평을 활용한 자기성찰적 글쓰기 수업 운영 방안」, 『비평문학』 63호, 한국비평문학회, 2017, 201-226쪽.
- 한래희, 「자아 이미지와 서사적 정체성 개념을 활용한 자기 성찰적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20호, 2014, 359-370쪽.

신문기사

- 이현진, “[기자수첩] 있으나마나한 ‘인성교육법’”, 한국대학신문, 2017.09.11.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943>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글쓰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초·중·고에서의 인성교육이 그리 유효하지 못한 형편임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라도 인성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론에서는 초·중·고에서의 인성교육 현실을 살펴보고, 이어서 대학들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최근 실상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먼저 인성교육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았고, 다음으로 교양 글쓰기 교과에서 인성교육을 다루는 것이 어찌하여 적합한지를 고민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기존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새로운 방법으로써 낮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를 제안해 보았다.

앞으로도 낮설게 하기를 토대로 한 에세이 쓰기를 더욱 발전시키는 작업 및 그 밖의 새로운 방법을 추가로 모색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청된다.

주제어 • 인성교육, 낮설게 하기, 교양, 의사소통, 글쓰기, 대학

■ Abstract

Exploring Effective Writing Strategies of Character Education : Suggesting Essay Writing Based on the Technique of Defamiliarization

Hong, Rae-seong / University of Seoul

Yoon, Jeong-ahn / University of Seoul

This paper explores effective writing strategies for character educ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essay writing based on the technique of defamiliarization. Given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character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is study argues for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character edu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The introduction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character education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followed by a review of the recent emphasis placed on character education within many universities. Chapter 2 discusses how character education can be defined and why writing classes in liberal education serve as a suitable context for its implementation. Chapter 3 critically analyzes previous studies and proposes essay writing based on defamiliarization as an alternative and innovative approach. The paper concludes by emphasizing the need for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essay writing based on defamiliarization and the exploration of other creative methods to further enhance character education.

Keyword • Charater Education, Defamiliarization, Liberal education, Communication, Writing, University

■ 논문투고일:2025.05.31. ■ 심사완료일:2025.07.09. ■ 게재확정일:2025.07.14. ■

대전 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역 문화 리터러시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 요 셸*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대전 지역 유학생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 실태
4. 지역 문화 리터러시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오늘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습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히 대학 수업에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속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사회와 접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어 교육은 대부분 국가 차원의 표준 언어 능력 함양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학생이 실제로 생활하는 지역적 맥락과 문화를 반영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새로운 언어와 낯선 문화 환경을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은 일상

* 김요셸 우송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초빙교수

생활, 사회적 소통, 학업 지속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대전 지역의 대중교통 표현, 재래시장 상호작용, 지역 축제나 예술행사의 배경, 지역 주민의 말투와 담화 방식 등은 한국어 교재나 표준 수업만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한편 유학생의 실제 생활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거주 지역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문화 리터러시는 단순한 언어 능력을 넘어서는 실천적 의사소통 능력으로 확장된다. 학습자가 특정 지역의 언어 사용 양상, 문화 관습, 사회적 코드 등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실제 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한국어 교육은 표준화된 언어 지식과 문화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나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정서적 고립감과 학습 동기 저하로 종종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 리터러시 중심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학습자 중심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역 기반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성과 교육의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개념

리터러시는 오랫동안 ‘읽고 쓰는 능력’으로 협의적으로 이해해 왔으나, 최근에는 지식 구성, 비판적 사고, 사회 참여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 실천’

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Barton & Hamilton, 1998).¹⁾ 이러한 관점은 언어 사용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임을 강조한다. 특히 Street(2003)은 전통적인 리터러시 개념을 ‘자율적 모델’로 비판하고, 리터러시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며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지닌다는 ‘이데올로기적 모델’을 제시하였다.²⁾

이러한 리터러시의 개념은 더 확장되어 문화 리터러시 이론으로 이어진다. Hirsch(1988)는 문화 리터러시를 한 사회가 공유하는 배경 지식, 관습, 언어적 암시 등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³⁾ Jennings&Purves(1991)는 이를 ‘문화로부터 배우는 능력’으로 확장하였다.⁴⁾ Green(1988)은 문화 리터러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읽고 쓰며,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⁵⁾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지역 문화 리터러시이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지역의 문화, 역사,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들을 기반으로 대전이라는 특정 지역의 문화적·언어적 특성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

1) Barton, D. & Hamilton, M. *Local Literacies: Reading and Writing in One Community*, London, NY: Routledge, 1998, pp.3-7.

2) Street, B. V., “What’s “new” in New Literacy Studies?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Education*, vol. 5, no. 2, Teachers College, NY: Columbia University, 2003, pp.77-79.

3) Hirsch, E. D.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NY: Vintage Books, 1988, pp.2-3.

4) Jennings, E. M. & Purves, A. C. *Literature and Literacy: A Theoretical Framework*, London, NY: Routledge, 1991, pp.17-28.

5) Green, B. “Subject-specific literacy and school learning: A focus on writing”,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vol. 32, no. 2, Melbourne: ACER, 1988, pp.158-162.

를 향상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2) 한국어 교육에서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 교육

기존의 한국어 교육은 주로 표준화된 언어 지식과 일반적인 한국 문화 소개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학습자의 실제 맥락과 접촉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나 지역 공동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지역적 문화와 언어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일상 생활 적응 및 지역사회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문화 리터러시는 단순한 문화지식이 아닌 학습자의 지역 적응력과 실천적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교육 요소로 주목받는다.

김강희(2024)는 부산 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 특유의 언어 표현 상호작용 규범 문화 공간을 교수 내용에 통합할 경우 학습자들의 지역 참여도와 문화 해석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태도, 지식, 맥락, 활용”이라는 네 가지 요소는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구성 원리로 기능하며 학습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문화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구성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⁶⁾

또한 강소영(2023)은 광주 지역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 축제 참여, 지역 방언 학습, 지역 예술공간 탐방 등의 활동을 포함한 통합형 수업이 학습자의 언어 자신감, 지역 적응, 문화 민감성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⁷⁾ 이는 지역 기반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지역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성과 언어교육의 융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6) 김강희, 「한국어교육을 위한 지역 문화 리터러시 연구-부산 지역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225-226쪽.

7) 강소영, 「한국어교육에서 지역문화와의 융합교육 방안 연구-광주 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55쪽.

이처럼 지역 문화 리터러시는 단순한 보조 자료가 아닌 주요 교육 목적이자 전략으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언어와 문화를 통합한 수업 설계를 통해 학습자의 실제 삶과 언어 사용이 긴밀히 연결되는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문화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과 이론적 기반

지역 문화 리터러시가 단순한 문화 정보 전달을 넘어 학습자의 실제 삶과 연결되는 실천적 능력이라는 점은 앞선 논의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제 교육적 실천의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이론적 기반 위에 설계되어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전은주(2013)는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을 한국어 교육 공간 선택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한국어 교육에서 로컬리티의 반영이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학습자가 어느 지역에서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가는 곧 그 학습자가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이해해야 할 공간과 로컬리티에 대한 정보이기도 하다고 하였다.⁸⁾ 이는 학습자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향상이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지역 문화 리터러시 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성과 사회 통합을 위한 관점에서 지역 문화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적이다. 유학생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단순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역 주민과의 관계 형성, 문화적 갈등 완화, 자율적 생활 운영 등은 지역 고유의 담화 양식과 사회적 코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요구한다. 이는

8) 전은주, 「한국어 교육과 로컬리티」, 『한국언어문화학』 10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166쪽.

단기간의 언어 습득이 아니라, 지역성에 뿌리내린 문화 경험과 리터러시 활동을 통해 축적되어야 하는 역량이다.

둘째, 언어교육과 지역 문화교육의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 문화 리터러시는 단지 교육 콘텐츠의 소재가 아니라, 교수-학습 방법, 평가, 학습자 정체성 형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리로 기능한다. 따라서 지역 문화 리터러시는 지역성, 장소성, 참여성을 중시하는 현장 기반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와 같은 교육 방향은 국제적으로도 공고한 이론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Byram(1997)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언어 능력, 태도, 문화 지식, 해석력, 비판적 사고의 통합적 구조로 설명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언어교육의 핵심이라고 보았다.⁹⁾ Deardorff(2006)는 이러한 능력이 내면적 존중과 타문화 수용 태도에서 출발하여 실제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⁰⁾

또한, Gruenewald(2003)의 장소 기반 교육은 지역 리터러시 교육이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는 장소성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한 학습이 학습자의 정체성, 소속감, 지역사회 기여 의식을 강화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단순한 지역 정보의 학습이 아닌, 학습자가 특정 장소에서 주체적으로 문화적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으로서의 교육을 지향한다.¹¹⁾

결과적으로 지역 리터러시 교육은 한국어 교육이 보다 깊이 있는 문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이론 기반이자, 지역사회와 학습자 사이의

9) Byram, 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Clevedon), 1997, pp.9-13.

10) Deardorff, D. K.,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SAGE(California), 2006. pp.248-252.

11) Gruenewald, D. A., "The Best of Both Worlds: A Critical Pedagogy of Place", *Educational Researcher* 32-4, AERA(Washington), 2003. pp.6-9.

문화적 연결을 구축하는 전략적 통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대전 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맥락에 적합한 지역 문화 리터러시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는 언어교육과 지역사회 통합을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대전 지역 유학생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 실태

1) 대전 지역 개요 및 주요 문화 자원

대전광역시는 대한민국 중부 내륙에 위치한 광역시로 인구 약 140만 명이 거주하는 중핵 도시이다. 행정구역상 5개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 부세종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과 인접해 있어 행정·교육·과학기술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대전은 조선 시대부터 충청 내륙의 교통 요지로 발전해 왔으며, 20세기 철도 개발과 함께 도시화가 본격화되었다. 현재는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인구로 형성된 다문화적 도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전은 특히 국내외 유학생 유치를 위한高等教育기관이 밀집된 도시로,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배재대학교, 카이스트, 한밭대학교, 건양대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있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외국인 학습자 간의 상호문화적 소통이 중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 지역의 주요 문화 자원을 역사·전통 문화 자원, 과학·기술 문화 자원, 생활 문화·시민 참여 문화 자원, 축제·지역 공동체 문화 자원 등 네 가지와 언어적 특성 및 리터러시 학습 가능 요소를 포함하여 5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대전 지역의 주요 문화 자원 중 대전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한 한국어 교사 3인의 논의를 통해 선정한 항목들이다.¹²⁾

12) 한국어 교사 3인은 모두 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40대가 1

(1) 역사·전통 문화 자원

- 우암사적공원(중구): 조선 중기의 유학자인 송시열을 기리는 사당과 유허지가 조성된 공원으로 유교 사상과 지역 인물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인근에 송시열과 관련된 기념 조형물과 한옥형 교육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전통 사상과 지역 문화의 접점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유성온천지구(유성구): 조선시대부터 ‘치유의 공간’으로 알려진 전통 온천 지역이다. 근대 이후 일본식 여관과 온천 문화가 발달했으며, 현재도 지역의 전통·근현대 생활문화가 공존하는 장소로서 지역 생활문화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 소제동 철도관사촌(동구): 일제강점기 철도관사 건물들이 남아 있는 근대 문화유산 보존지구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장소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지역 근대사 이해 및 장소기반 교육의 실제 사례로 적합하다.

(2) 과학·기술 문화 자원

- 국립중앙과학관, 엑스포과학공원(유성구): 1993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조성된 대형 과학문화 공간이다. 체험형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이 과학도시로 불리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담론과 언어를 학습자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교육 자원이다.
- 대덕연구개발특구(유성구 및 대덕구): 정부출연연구소와 첨단 기업, 대학 연구단지가 모여 있는 과학기술 클러스터이다. 외국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첨단 기술 역량과 산업문화, 연구소 담화 구조 등을 간접 체험하거나 탐방학습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상징적 자원이다.

(3) 생활문화 및 시민 참여 문화 자원

- 중앙시장(동구): 충청권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으로 충청도식 말투, 상거래 담화, 전통식문화 등을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일부 다국어 안내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공간으로 언어·문화 통합 수업에 적합하다.
- 성심당(중구): 전국적으로 알려진 지역 브랜드 제과점으로 ‘빵집’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대전 지역의 정체성 상징이다. 상품 이름, 서비스 담화, 브

명, 50대가 2명이며 각각 약 11년, 15년, 20년 가량 대전에 거주 중이다.

랜드 스토리 등을 통해 지역성과 상업문화, 상호작용 담화를 주제로 교육 설계가 가능하다.

-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미술관(서구): 지역의 주요 공연·전시 공간으로 유학생들이 한국 예술 문화를 직접 접하고 지역 주민들과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 감상 담화, 공연 관람 예절, 시각 문화 해석 등 통합적 언어교육이 가능하다.

(4) 축제 및 지역 공동체 문화 자원

- 대전0시축제(중구): 대전의 대표적인 도심형 문화 축제로 구도심의 거리, 광장, 야간 공간을 중심으로 시민 참여형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 예술인과 청년 기획자들의 자율적인 콘텐츠 생산이 특징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한국의 야간 축제 문화, 지역 문화 공간 재해석, 시민 문화 실천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업에서는 지역 탐방, 실시간 관찰 과제, 문화 해석 활동 등으로 연계 가능하다.
- 효문화뿌리축제(중구):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뿌리공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전통문화 축제로 '효'를 핵심 주제로 각 성씨 조형물, 전통 공연, 민속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족 중심 가치관, 공동체 윤리, 성씨 문화 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 해석과 정체성 교육에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콘텐츠이다.
- 대전국제와인엑스포(유성구): 유성구와 대전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 와인 산업 박람회로 매년 가을 유성온천 일대에서 개최된다. 세계 각국의 와인 시음, 한국 전통주 체험, 지역 음식 및 문화 전시가 결합된 복합문화행사로, 지역의 산업문화, 관광 전략, 글로벌 교류 맥락을 동시에 반영한다. 한국의 지역경제와 문화소비 현장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수업에서는 상업문화 언어, 다문화 융합 사례, 브랜드 리터러시 주제로 확장할 수 있다.

(5) 언어적 특성 및 리터러시 학습 요소

- 충청도 방언: 대전은 충청권 방언 사용 지역으로 부드럽고 간접적인 표현 방식, 완곡한 화법, 억양 등이 특징이다. 이는 담화 태도, 언어 예절, 감정 표현 등과 연결되며 지역 언어 리터러시 수업 주제로 매우 유의미하다.
- 공공문자 환경: 대전시는 일부 관광지나 관공서에서 다국어 안내판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상생활 정보는 한국어로만 제공된다. 안내 문구, 간판, 전단지 등 실제적 텍스트를 학습자 리터러시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 자원과 요소들이 대전 지역 유학생들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 교육에 활용되어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과 지역 정주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2) 대전 지역 유학생의 지역 문화 경험 특성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지역사회와 일정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한 채 주로 교내 생활권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강희(2024)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지역 유학생들은 “생활 공간이 기숙사, 강의실, 학교 주변 상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대한 직접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진술하였다.¹³⁾ 이는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문화자원이나 커뮤니티 기반의 체험 프로그램이 유학생의 생활권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 체험 활동에 대한 참여 수준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된다. 강소영(2023)은 광주 지역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역 문화 활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장벽, 정보 접근성의 문제, 정서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유의미한 참여가 저조하다고 분석하였다.¹⁴⁾ 이와 유사하게 대전 지역 유학생들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문화 행사나 시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한국어로만 제공되거나 홍보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유학생들의 지역문화 경험은 표면적인 감상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안미리.박인심(2024)은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수업

13) 김강희, 「한국어교육을 위한 지역 문화 리터러시 연구-부산 지역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229쪽.

14) 강소영, 「한국어교육에서 지역문화와의 융합교육 방안 연구-광주 지역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45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52쪽.

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 이전에는 “지역사회와의 실제 접촉 경험이 거의 없었고 지역을 그저 거주지로만 인식했다.”고 보고하였다.¹⁵⁾ 문화적 체험이 있더라도 그 경험을 교육적으로 확장하거나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조적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특성은 유학생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가 정보의 접근, 해석, 활용이라는 세 단계에서 모두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 있는 언어적·문화적 표현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며, 다시 그것을 언어로 구성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단절 상태는 곧 유학생의 지역 정체성 형성과 지역사회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국어 교육 차원에서 지역 문화 기반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

3) 대전 지역 유학생 설문조사

본 연구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 실태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이후 제안할 교육 방안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5년 3월 대전 지역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5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대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와 일정 수준 이상의 접촉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자가 응답 방식을 활용하여 배포되었으며 조사 전 응답자에게 연구 목적과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응답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구성 요소에 근거하여 개발하였고 응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하여 중급 이하의 한국어 학습

15) 안미리·박인심,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 연구」, 『문화와 융합』 46권 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4, 136쪽.

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단순화하고 모국어 보조 설명을 일부 병기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5개 영역으로 20개의 폐쇄형 문항과 2개의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며,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핵심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표 1] 설문 문항 구성

영역	문항 수	내용	비고
인적 배경	4문항	국적,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거주 형태 등	
지역 문화 정보 이해	4문항	지역 문화에 대한 정보 이해 및 접근 수준	문화 지식
지역 문화 내용 경험	4문항	지역 문화에 대한 경험 및 이해 수준	문화 실천
지역 문화 해석 비교	4문항	지역 문화에 대한 해석 및 비교 수준	비판적 해석
지역 문화 기반 한국어 교육 수요	4문항	지역 기반 한국어 수업에 대한 요구 및 선호도	활용 능력
개방형 응답	2문항	인상 깊은 경험, 수업 제안 등 자유 기술	질적 보완 자료

폐쇄형 문항은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응답자의 태도, 인식, 행동 경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며, 국내외 학습자 대상 인식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방형 문항은 폐쇄형 응답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화 체험의 질적 측면을 보완하고자 추가하였다. 특히 지역 문화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수업 개선에 대한 제안은 향후 교수-학습 내용 구성에 도움이 되는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제공한다.

4) 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응답자 정보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국적,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거주 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 응답자 정보

응답자		국적	한국어 능력	체류 기간	거주 형태
1	남	중국	고급	1년	자취
2		중국	중급	6개월	기숙사
3		중국	초급	6개월	기숙사
4		중국	초급	6개월	기숙사
5		베트남	고급	1년 6개월	자취
6		베트남	중급	1년	자취
7		베트남	초급	6개월	기숙사
8		베트남	초급	6개월	기숙사
9		우즈베키스탄	고급	2년	자취
10		우즈베키스탄	초급	1년	자취
11		키르기스스탄	초급	6개월	기숙사
12		캐나다	초급	1년 6개월	자취
13		러시아	중급	6개월	기숙사
14		몽골	중급	1년	자취
15		프랑스	중급	1년	자취
16	여	중국	고급	2년	자취
17		중국	고급	2년	자취
18		중국	고급	1년 6개월	자취
19		중국	중급	1년	자취
20		중국	중급	6개월	기숙사
21		중국	초급	1년	자취
22		중국	초급	1년	자취
23		중국	초급	6개월	기숙사
24		중국	초급	6개월	기숙사
25		베트남	고급	2년	자취

26	여	베트남	고급	2년	자취
27		베트남	고급	1년 6개월	자취
28		베트남	중급	1년 6개월	자취
29		베트남	중급	6개월	기숙사
30		베트남	초급	1년	자취
31		러시아	고급	2년	자취
32		러시아	고급	1년 6개월	자취
33		러시아	고급	1년	자취
34		러시아	중급	1년 6개월	자취
35		러시아	중급	6개월	기숙사
36		프랑스	고급	1년	자취
37		프랑스	중급	1년 6개월	자취
38		프랑스	초급	6개월	기숙사
39		인도네시아	고급	1년	자취
40		인도네시아	고급	1년	자취
41		인도네시아	고급	6개월	기숙사
42		카자흐스탄	중급	6개월	기숙사
43		카자흐스탄	초급	1년	자취
44		독일	고급	2년	자취
45		아르메니아	초급	6개월	기숙사
46		몽골	중급	6개월	기숙사
47		캐나다	초급	1년	자취
48		필리핀	초급	1년 6개월	자취
49		태국	중급	1년	자취
50		핀란드	중급	1년	자취

응답자 정보는 국적, 한국어 수준, 체류 기간 순으로 정렬하였다. 남학생이 15명 여학생이 35명이었고, 중국 학생이 14명, 베트남 학생이 10명, 러시아 학생이 6명, 프랑스 학생이 4명, 인도네시아 학생이 3명,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캐나다, 몽골 학생이 각 2명, 그리고 독일, 아르메니아, 필리핀, 태국, 핀란드 학생이 각 1명이었다.

한국어 능력은 TOPIK 보유 급수 혹은 한국어 학습 수준을 조사하였는

데 고급 학생이 17명, 중급 학생이 16명, 초급 학생이 17명이고, 한국 체류 기간은 2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명, 1년 6개월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명, 1년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7명, 6개월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7명으로 나타났다. 6개월 거주한 17명의 학생은 기숙사에 살고 그 외에는 모두 원룸 등에서 자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역 문화 정보 이해

이 영역의 문항으로는 지역 문화 정보 사전 획득 정도, 지역 문화 정보 제공 이해 정도, 지역 문화 정보 접근성 정도, 지역 문화 정보 선호 정도이다. 지역 문화 정보 사전 획득 정도란 지역 문화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 등에 앞서 해당 문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지역 문화 정보 제공 이해 정도란 지역 문화에 대해 제공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또한 지역 문화 정보 접근성 정도란 지역 문화 정보에 대해 충분히 쉽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며, 지역 문화 정보 선호 정도란 지역 문화에 대해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선호도를 구하는 질문이다.

[표 3] 지역 문화 정보 이해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 문화 정보 사전 획득 정도	4	12	15	12	7
지역 문화 정보 제공 이해 정도	3	5	12	17	13
지역 문화 정보 접근성 정도	10	13	15	7	5
지역 문화 정보 선호 정도	10	9	20	5	6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대전 지역 문화에 대한 사전 정보를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보통이다’ 이하

62%), 정보를 이해하는 정도(‘그렇다’ 이상 60%)는 높게 나타났고, 접근성 정도(‘그렇다’ 이상 24%)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 대상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 비율이 초·중·고급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정보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대전 지역 문화에 대한 정보의 선호도가 낮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3) 지역 문화 내용 경험

이 영역의 문항으로는 지역 문화 내용 인식 정도, 지역 문화 내용 경험 정도, 지역 문화 내용 이해 정도, 지역 문화 선호 정도이다. 지역 문화 내용 인식 정도란 지역 문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아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지역 문화 내용 경험 정도란 지역 문화 내용을 충분히 체험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지역 문화 내용 이해 정도란 지역 문화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지역 문화 내용 선호 정도란 지역 문화 내용에 대한 선호도를 구하는 질문이다.

[표 4] 지역 문화 내용 경험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 문화 내용 인식 정도	10	12	10	10	8
지역 문화 내용 경험 정도	12	10	14	10	4
지역 문화 내용 이해 정도	5	5	10	18	12
지역 문화 내용 선호 정도	5	4	13	18	10

설문 결과에 따르면 대전 지역 문화 내용의 인식 정도에서 ‘보통이다’ 이하가 64%, 지역 문화 내용 경험 정도는 72%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 지역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정도(‘그렇다’ 이상 60%)와 지역 문화를 선호하는 정도(‘그렇다’ 이상 56%)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는 대전 지역 문화를 경험하고 알게 되면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고 선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지역 문화 해석 비교

이 영역의 문항으로는 지역 문화 해석 정도, 지역 문화 수용 정도, 지역 문화 비교 정도, 지역 문화 융합 정도이다. 지역 문화 해석 정도란 알고 경험한 지역 문화를 학습자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지역 문화 수용 정도란 알고 경험한 지역 문화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지역 문화 비교 정도란 학습자의 모문화와 지역 문화를 충분히 비교하여 이해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며, 지역 문화 융합 정도란 학습자의 모문화와 지역 문화를 충분히 융합하여 표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표 5] 지역 문화 해석 비교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 문화 해석 정도	2	10	15	13	10
지역 문화 수용 정도	4	4	18	16	8
지역 문화 비교 정도	3	8	12	14	13
지역 문화 융합 정도	4	9	13	16	8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대전 지역 문화를 해석하고 수용하며 모문화와 비교하고 융합하는 정도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해석의 정도는 ‘그렇다’ 이상이 46%, 수용의 정도는 48%, 비교해서 이해하는 정도는 54%, 융합하여 표현하는 정도는 48%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 이하의 비율을 각각 살펴보면, 24%, 16%, 22%, 26%로 나타나며 이는 대전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이 대전의 지역 문화에 대해 해석하고 수용하며 모문화와 비교

하여 융합하는 것에 매우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지역 문화 기반 한국어 교육 수요

이 영역의 문항으로는 지역 문화 체험 교육 수요 정도, 지역 문화 지식 교육 수요 정도, 지역 문화 이해 교육 수요 정도, 지역 문화 표현 교육 수요 정도이다. 이는 한국어 수업을 구성할 때 지역 문화 체험 위주의 수업, 혹은 지식 강의 위주의 수업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지역 문화를 듣고 읽는 것을 선호하는지, 말하고 쓰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는 문항이다.

[표 6] 지역 문화 기반 한국어 교육 수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 문화 체험 교육 수요 정도	5	5	22	11	7
지역 문화 지식 교육 수요 정도	6	8	16	11	9
지역 문화 이해 교육 수요 정도	2	6	15	18	9
지역 문화 표현 교육 수요 정도	4	6	19	15	6

지역 문화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수요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 방식의 지역 문화 기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그렇지 않다’ 이하가 20%, ‘그렇다’ 이상이 36%로 나타났고, 강의 방식의 지역 문화 기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그렇지 않다’ 이하가 28%, ‘그렇다’ 이상이 40%로 나타났다. 한편 듣기와 읽기 중심의 지역 문화 기반 한국어 이해 교육에 대한 수요는 ‘그렇지 않다’ 이하가 16%, ‘그렇다’ 이상이 54%, 말하기와 쓰기 중심의 지역 문화 기반 한국어 표현 교육에 대한 수요는 ‘그렇지 않다’

이하가 20%, ‘그렇다’ 이상이 42%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지역 문화에 기반한 다양한 한국어 수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지역 문화 리터러시 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1) 교육 목표 설정

본 교육 방안은 유학생의 지역 문화 리터러시 함양을 목표로 하며 단순한 문화 정보의 습득을 넘어 지역 맥락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기존의 문화교육이 표준화된 문화 요소에 편중되어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의 생활환경과 직접 연결되는 지역 문화 중심의 언어교육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본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 지역의 문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실제 지역 공간을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말하기 및 쓰기 활동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언어적·비언어적 문화 요소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넷째, 지역 문화를 자신의 모문화와 비교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 문화에 기반한 담화 상황에 적절히 참여하고 생활하는 실천적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리터러시의 다차원적인 구성 요소인 지식, 맥락 이해, 태도, 실천 능력 등을 고르게 갖추고 학습자의 의사소통 역량, 문화 간 이해력, 자기 표현력 등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2) 교육 내용 제안

본 교육 프로그램은 대전 지역의 구체적인 문화 자원과 실제 생활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교육 내용은 학습자의 언어 수준, 지역 정착 경험, 과

제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총 네 가지 교육 범주로 제시한다.

첫째, 지역 문화 지식 습득 영역에서는 대전의 대표적인 명소와 문화 시설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학습자는 엑스포과학공원, 성심당, 대전예술의전당 등 지역적 상징성을 갖는 공간을 학습하고, 대전0시축제, 효문화뿌리축제, 등 대전에서 실제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를 사례로 들어 지역 문화의 형태와 기능을 파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암사적공원, 유성 온천지구 등과 같은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장소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문화 유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둘째, 지역 언어 환경 이해 영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담화 방식, 간판이나 공공문구 등의 문자 환경, 생활 속 언어 사용 양상 등을 중심으로 지역성과 언어의 상관관계를 탐색한다. 학습자는 충청도 방언 표현과 억양의 특성을 학습하며, 시장이나 대중교통 공간에서 사용되는 실용적 언어 자료를 해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지역 언어 리터러시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상점 간판이나 안내문 등의 실제 언어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글의 문화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셋째, 문화 체험 활동 기반 담화 생산 영역에서는 학습자의 실제 문화 체험을 말하기 및 쓰기 활동과 연계하여 담화 생산 중심의 언어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중앙시장이나 대전시립미술관 등을 방문한 후 체험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특정 장소나 음식에 대한 소개 글을 구성하게 한다. 또한 포스터 발표, 지역 주민 인터뷰 결과 발표 등 말하기 중심 과제를 통해 자기 표현 능력과 실용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다.

넷째, 문화 비교와 자기화 영역에서는 대전 지역에서의 문화 경험을 모 문화와 비교거나 성찰하는 활동을 통해 비판적 문화 리터러시를 함양한다. 학습자는 자신이 속한 지역과 대전의 축제를 비교하거나 문화 충격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 문화를 통해 느낀 가치관의 변화를 서술하는 활동을 통해 문화 간 이해력과 내면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은 단편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학습자가 지역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실제 언어 사용과 문화적 실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내용 간 상호 연결성과 단계성을 확보하여 통합적인 문화 이해 능력이 자연스럽게 확장되도록 구성하였다.

3) 교수-학습 활동 설계

본 교육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기반의 과제 중심 교수법, 체험 학습, 담화 기반 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가 단순히 지식을 수용하는 수동적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질적 맥락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의 문화적 요소를 지역성과 결합하여 학습자의 실제 생활과 연결시킴으로써 학습 지속성과 지역정주성을 함께 강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계된 교수-학습 활동의 예시이다.

[표 7] 교수-학습 활동 예시

활동 이름	활동 유형	활동 내용	기대 효과
지역 문화 탐방 미션	체험 과제 + 보고서 쓰기	그룹을 구성하여 전통시장, 미술관 등을 방문한 후 관찰한 언어 표현이나 행동을 기록하고 에세이로 정리.	지역 언어·문화 이해, 글쓰기 표현 향상
지역 축제 포스터 발표	말하기 과제	대전 지역 축제 포스터를 만들고 친구들에게 발표.	정보 요약, 시각 자료 해석, 발표 표현 향상
대화 속 문화 읽기	담화 분석	시장, 식당, 대중교통 등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메모하여 대화를 구성한 후 그룹별로 대화의 맥락, 말투, 관용 표현 등을 분석함	비언어 정보 및 맥락 파악 향상

고향 문화와 대전 문화 비교	비교 에세이	학습자 자신의 고향 문화와 대전의 문화를 비교한 글쓰기	문화 간 인식, 서사 구조 구성 강화
인터뷰 후 기사 쓰기	통합 과제	지역 주민(상인, 집주인 등) 인터뷰 후 기사 형태로 정리	실제 언어 사용, 글쓰기 응용 강화

이러한 활동들은 학습자의 인지적·정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단순한 문화 정보 습득을 넘어선 리터러시 역량의 실질적 함양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지역의 언어적·문화적 요소를 능동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담화로 재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지역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상호문화적 민감성과 자기 표현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데, 초급 학습자의 경우 단문 중심의 보고서 작성이나 그림 중심 포스터 발표 등 단순화된 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중급 이상의 학습자에게는 담화 분석, 비교 문화 에세이, 기사 쓰기 등 고차 인지 능력을 요구하는 심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모든 활동은 과제 전, 과제 중, 과제 후로 구분하여 교사의 사전 지시 및 배경 지식 제공, 활동 수행 중 피드백, 과제 결과에 대한 교정 및 성찰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편적인 언어 표현이 아니라 지역 공간과 문화적 실천을 언어적으로 구성하는 통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 간 이해 능력의 발달로 이어질 수 있다.

4)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및 운영 방안

앞서 제시한 교육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활동은 외국인 유학생의 실제 학습 환경과 언어 수준을 고려할 때 교실 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지닌

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정보 전달을 넘어서 학습자가 지역성과 문화적 맥락을 실제 언어 행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운영 단계에서의 유연성과 체계적인 교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 집중형 수업, 주간 교양과목, 한국어 집중과정 등 수업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탐색-체험-표현-성찰’의 4단계로 학습 흐름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는 주어진 지역 문화 콘텐츠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한 뒤 체험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직접 참여하며 그 결과를 말하기.쓰기 등의 산출 과제로 표현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에 따른 단계적 적용 방안이 요구된다. 다음은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방안 예시이다.

[표 8]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 예시

수준	학습 목표	주요 활동 예시	교사 지원 전략
초급	- 기초 지역 어휘 및 표현 익히기 - 간단한 정보 이해 및 전달	- 지역 장소 이름 말하기 - 사진 보고 간단한 설명 문장 쓰기	- 시각 자료 및 어휘 리스트 제공 - 문형 템플릿 제시 - 모국어 병행 설명
중급	- 지역 문화 담화 이해 및 응답 - 기본적인 비교.설명 능력 강화	- 시장 상황극, 지역 방언 듣고 따라 말하기 - 축제 소개 포스터 제작	- 어휘.표현 사전 제시 및 연습 - 중간 점검 및 피드백 제공
고급	- 지역 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 - 자기화 및 문화 간 비교 표현 능력 향상	- 지역 문화 에세이 쓰기 - 자국 문화와의 비교 발표 - 인터뷰 기사 작성	- 고급 어휘와 표현 확장 지도 - 비판적 질문 제공 - 상호 피드백 운영

이와 같은 수준별 적용은 동일한 교육 콘텐츠를 다양한 학습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하며,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고급 학습자의 경우 문화

비교, 자기화, 담론 생산 등의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중심의 활동과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전 지역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통해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유학생들은 지역 문화에 대한 정보 접근성 부족, 체험 기회의 한계, 해석 및 표현 능력의 미흡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한계를 보였고 동시에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수업에 반영하기를 희망하는 높은 교육 수요도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문화 리터러시를 중심에 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보 이해, 체험 활동, 담화 생산, 비판적 해석 등의 원리로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전 지역에 관한 문화 리터러시 연구를 위하여 수준별 적용 가능성을 보이고 지역성과 연계된 실제 콘텐츠 활용을 보여 교육 프로그램의 실용성과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

이에 몇 가지 교육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문화 리터러시 기반 교육은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체험형 비교과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확장하여 유학생의 지역 정주성과 학습 지속성을 함께 지원할 수 있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지역의 문화 기관, 예술 공간, 행정 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적인 학습 자료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문화 리터러시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 문화 기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수, 지역 안내 가이드북 제작, 지역 문화 기반 수업 자료 구성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전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타 지역의 유학생 대상 비교 연구, 유학생의 장기적 추적 연구, 정성적인 사례 분석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역성과 언어교육의 접점을 모색하며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학생 교육의 질적 제고와 지역사회 통합 및 유학생의 지역 정주 등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Barton, D. & Hamilton, M. *Local Literacies: Reading and Writing in One Community*,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8.
- Byram, 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 1997.
- Hirsch, E. D.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New York: Vintage Books, 1988.
- Jennings, E. M. & Purves, A. C. *Literature and Literacy: A Theoretical Framework*,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1.

논문

- 강소영, 「한국어교육에서 지역문화와의 융합교육 방안 연구-광주 지역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5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47-57쪽.
- 김강희, 「한국어교육을 위한 지역 문화 리터러시 연구-부산 지역 로컬리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8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221-233쪽.
- 안미리·박인심, 「대학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수업의 효과 연구」, 『문화와 융합』 46권 1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4, 131-143쪽.
- 전은주, 「한국어 교육과 로컬리터」, 『한국언어문화학』 10권 1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153-181쪽.
- Deardorff, D. K. "Identification and Assessment of Intercultural Competence as a Student Outcome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0, no. 3, California: SAGE, 2006. pp.241-266.
- Green, B. "Subject-specific literacy and school learning: A focus on writing",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vol. 32, no. 2, Melbourne: ACER, 1988. pp.156-179.
- Gruenewald, D. A. "The Best of Both Worlds: A Critical Pedagogy

of Place”, *Educational Researcher*, vol. 32, no. 4, Washington: AERA, 2003. pp.3-12.

Street, B. V. “What’s “new” in New Literacy Studies?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cy in Theory and Practice”, *Current Issues in Comparative Education*, vol. 5, no. 2,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2003, pp.77-91.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 리터러시 기반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지역 문화 리터러시의 개념적 기초를 정립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유학생의 지역 문화 정보 이해, 체험 경험, 해석 및 표현 능력, 교육 수요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학생들은 대전 지역 문화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체험 기회가 제한적이며, 문화 해석 및 표현 능력 역시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지역 문화 기반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정보 이해, 문화 체험, 담화 생산, 문화 비교 및 자기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 목표와 내용, 수준별 적용 방안 및 교수-학습 활동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성과 한국어 교육의 유기적 통합 가능성을 제시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성과 문화 간 이해 능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제적 교육 방안을 제공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지역 문화 리터러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 대전 지역, 문화 간 의사소통, 지역 정주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Based on Local Cultural Literacy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Daejeon

Kim, Joseph / WOOS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Korean language education program grounded in local cultural literacy, specifically targeting international students residing in Daejeon.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he study clarifies the theoretical concept of local cultural literacy, followed by a survey-based empirical analysis to investigate learners' understanding, experience, interpretation, and demand regarding regional culture. The findings reveal that while international students have limited access to local cultural information and opportunities for direct experience, they show strong interest in educational programs incorporating regional culture. In response, this study proposes an instructional model composed of four domains: information comprehension, cultural experience, discourse production, and intercultural comparison and reflection. The program is designed with level-specific applications and task-based learning activities tailored to actual learner environments. This study highlights the pedagogical value of integrating regional identity with language instruction and provides a practical model to enhance cultural literacy,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local integration of international learners.

Keyword • Local Cultural Literacy, International Students, Korean Language Education, Daeje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Local Settlement

■ 논문투고일:2025.05.31. ■ 심사완료일:2025.07.09. ■ 게재확정일:2025.07.11. ■

융합형·참여형 교양 교육 모델 구축 : 기후변화 수업 사례 분석*

김 유 철**

목 차

1. 들어가며
2. 융합형·참여형 교양 교육 모델의 시대적 요구
3. 기후변화 수업 모델의 정합성
4.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이해 수업 사례
5. 결론 및 제언

1. 들어가며

최근 한국 대학의 교양 교육 시스템은 자유 전공의 확대 및 융합형·참여형 강의 확대 등 중요한 변혁을 맞이하고 있다. 이는 흔히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급격한 사회·경제구조의 재편과 맞물려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조응하여, 역동적 지식의 융합이 대학교육에서도 강조되는 상황이다.¹⁾ 이러한 흐름에 의해 전통적 산업 간 분

* 본 연구는 2024년도 덕성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과제번호: 3000009485)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1) 강이화,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의 미래 - 국내·외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제29권 1호,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9, 283쪽.

업 구조에 기반한 대학의 학과 간 경계 허물기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 의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의해 비대면 강의 유형이 한층 확대되고, 온라인 학습 콘텐츠의 급격한 증가로 교수자 1인이 전적으로 주도하는 일 방향의 강의식 수업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점증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문제는 융합형·참여형 강의 확대 원칙에 대한 공감과 별론으로 이를 교양과목의 강의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은 여러 도전 요인으로 인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도전 요인으로서는 우선, 대부분 대학에서 교양과목의 경우 전공 과목에 비해 수강생 규모가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글쓰기·영어회화 등 일부 필수 교양과목에 인정되는 예외가 존재하지만, “~의 기초”, “~의 이해”, 등의 교과목명으로 개설되는 일반 교양과목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서 대형 강의의 환경에서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토론 및 문제 해결형 소그룹 활동 등 쌍방향 참여형 학습의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유전공제의 확대에 의해 다수 학생들이 자신의 주 전공을 확정하지 않은 가운데, 특정 전공의 연성화된 입문 과목을 다수 수강하게 됨에 따라 학문 간 융합을 위한 통합적 사고력을 배양할 기회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도전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기한 제약 속에서도 융합형·참여형 교수법의 효용을 담보할 수 있는 강의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강의실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기획·확산하는 지식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기후변화 관련 교양 강의가 그 내재적 특성상 융합형·참여형 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3년 동안의 참여 관찰의 대상이 된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이해> 과목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협상 시뮬레이션 게임 등 몇 가지 유용한 쌍방향형 협업 교수·학습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과목의 ‘융합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러한 성

격에 걸맞은 ‘참여형’ 학습법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수행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관심 있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구 대상 집단이나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행동 패턴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²⁾ 이는 같은 성격의 강의를 축적된 상황이 아니어서 정량적 연구를 위한 성과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방법론적 선택이기도 하다. 즉, 참여 연구는 원형적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 수업은 그 분석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 대응은 본질적으로 기존 학문·지식 체계의 역동적 융합을 요한다. 인류 활동에 의한(anthropogenic) 7대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대기 조성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이 태양의 복사 강제력을 증가시켜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평균 1.2°C 상승시켰고, 향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교양 수준의 기초 대기과학·화학에 대한 교육에서 출발한다. 또한, 이러한 과학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성안·발효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교토의정서·파리협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제정치학·국제법의 기초적 지식을 함께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환경·사회·거버넌스 책임(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영학의 시각을, 환경 단체 등 시민운동을 설명하면서 사회학적 시각을, 생태주의로의 인식론적 변동을 설명하면서 문화인류학·철학의 시각을 소개할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 및 대응은 본질적으로 학문 간 융합을 필요로 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은 수강자의 융합적 사고력 양성에 기여한다.

2) Wang L., Peng L., & Qutub K.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2018, pp.66-67.

기후변화 강의에 내재한 ‘융합적’ 성격 및 참여형 학습법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아래 2장은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이 확산하게 된 이론적·실증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어 3장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교양수업이 어떻게 한국 대학 교양 교육의 일반적 제약하에서도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구체적 사례로 ‘플립드 러닝(FL: Flipped Learning, 이하 플립드 러닝)’ 유형으로 진행한 기후변화 강의 사례의 개요 및 여러 참여형 활동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 강의 외에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이 효용성을 지니는 분야의 예시 및 사례 발굴 필요성을 환기하며 결론을 맺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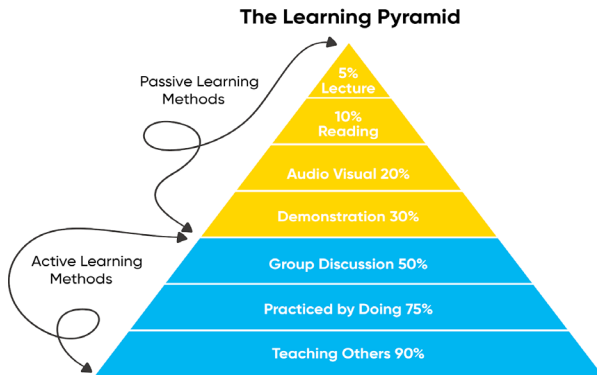
2. 융합형·참여형 교양 모델 관련 논쟁 및 교양 교육의 시대적 요구

1)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 관련 이론적·경험적 논쟁

최근, 한국의 여러 대학은 혁신원·교수학습센터 등 내부 조직을 통해 혁신형 교수법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대표적 목표가 융합형·참여형 교수법의 확산이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roject-based Learning)·플립드 러닝 등 새로운 강의 유형 역시 확산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강의 개발·진행 과정에서 소액의 연구비, 완화된 강의 평가 기준, 수업 조교 제공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의 교육적 효과가 이론적·실증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검증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혁신형 강의의 확산에 이론적 근거로 흔히 인용되며, 필자가 참여한 지원 프로그램의 수행에서도 대학 기관이 지원 근거로 언급한 이론이 아래 [그림 1]의 ‘학습 효과 피라미드’이다. 이는 미 사설 연구단체인 ‘NTL(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이 제시한 교육 효과 모델인데, 학습 내용에 대한 24시간 이후 기억 잔존량 기준으로 학습법 간 효용성 면에서 명확한 우열이 존재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교수·학습법은 총 일곱 가지인데, 우선 ① 강의(Lecture) ② 읽기(Reading) ③ 시청각 자료(Audio Visual) ④ 시연(Demonstration)은 ‘수동적 학습법(Passive Learning Methods)’으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⑤ 그룹 토론(Group Discussion) ⑥ 실제 수행에 의한 학습(Practiced by Doing) ⑦다른 사람을 가르치기(Teaching Others)의 세 가지 교수·학습법은 능동적 학습법(Active Learning Method)으로 분류된다. 기억 잔존량 측면에서 나열된 역순으로 효과성이 우수하며, 다른 사람 가르치기(90% 잔존)와 강의(5%) 간에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해당 실험 연구의 주장이다.



[그림 1] 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 (NTL)이 제시한 학습 피라미드³⁾

이러한 모델의 상당한 인용·관심도에도 불구하고,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 역시 다수 존재한다. 우선, 상기 모델의 이론적 기반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1940년대 제시된 데일(Dale)의 ‘경험의 뿔(Cone of

3) arlo.co - Overview of the learning pyramid for training providers, <https://www.arlo.co/blog/overview-of-the-learning-pyramid-for-training-providers>, 2025.01.18.

Experience)’ 등 기존의 모델을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이론은 효과성의 위계를 전제한 것은 아니었는데, 상기 피라미드 모델은 빈약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여 성급하게 효과성에 대해 단정적 주장을 전개한다는 것이다.⁴⁾

연구 설계에 대한 약점 역시 두드러지는데, 상기 모델의 근거가 되는 실험의 정확한 연구 설계, 피험 집단의 특성, 반복 관찰에 의한 검증 등 일반적인 인지 심리학·교육학 연구에 요구되는 데이터 검증이 엄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험 조건에 대한 피상적 설명에 기대더라도 여러 흠결을 지적할 수 있는데, 각 교수·학습법에 대한 통제 집단·실험 집단이 설정되어 그 효과를 추적·관찰하여야 했음에도 능동적 학습법-피동적 학습법 피험자로 그 범위를 임의적으로 설정한 점 역시 흠결로 지적될 수 있다. 또한, 심리학·교육학 분야 실험 연구에 흔히 따라붙는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문제 역시 지적할 수 있다. 실제로 학습 내용이 다른 환경에서는 NTL이 제시한 기법 간 기억 잔존량의 비율 편차와 상이한 결과값이 나타난다는 경험적 연구도 존재한다.⁵⁾

빈약한 이론적·실증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NTL이 제시한 학습 피라미드에 대한 인용 정도 및 관심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2025년 1월 현재 구글 스콜라를 통한 관련 문헌 검색 건수는 2,330여 건에 이른다. 또한, 참여형 교수·학습법 관련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아동 교육은 물론, 의학 교육 현장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참여형 교수·학습을 해당 영역에서 적용,

4) Kåre Letruda & Sigbjørn Hernes. “The Diffusion of the Learning Pyramid Myths in Academia: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48, no. 3, Oxfordshire: Taylor & Francis, 2016, pp.291-302.

5) Metiri Group - Multimodal Learning Through Media: What the Research Says, <https://www.semanticscholar.org/paper/Multimodal-Learning-Through-Media%3A-What-the-Says-Fadel/abe917cefd91a4b94a4f1f31bc035e922bb924f7>, 2025.01.16.

그 효과를 관찰 분석한 경험적 연구는 비록 NTL이 제시한 학습 피라미드 효과의 분류나 구체적 수치의 적실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잘 설계된 참여형 교수·학습법이 전통적 강의 유형보다는 큰 효과를 가진다는 직관적 관찰 및 경험칙은 고수한다.⁶⁾ 이러한 참여형 교수·학습법의 효과는 필자가 다수 공동연구자와 함께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수강자의 종합적 비판적 사고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확인된다.⁷⁾

NTL이 제시한 학습 피라미드 모델의 적실성은 연구의 엄밀성 면에서 비판받았지 몰라도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의 교육적 효과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특정 교수법의 효과성은 전달되는 지식 내용과의 정합성에 크게 좌우되며,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과목·주제가 있고, 전통적 강의 유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 통계학 지식이 부족한 학생군에 회귀 분석과 관련된 내용을 기억 잔존량 기준의 효과성만 맹신하여 ‘남을 가르치기’를 통해 전달하려 한다면, 잘못되거나 부족한 내용을 집단적으로 학습할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이러한 통계 분석 모델을 적용한 연구 설계의 과정에서는 능동적 학습법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어떠한 교수·학습법이 우월한가”의 논쟁은 일반화된 법칙 및 이의 검증에 의해 일단락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정 교수법이 실제

6) Mary Louise Hemmeter et al.,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yramid Model for Promoting Social-Emotion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vol. 36, no. 3, SAGE publishing, 2016, pp.133-146; Ken Masters. “Edgar Dale's Pyramid of Learning in medical education: Further Expansion of the Myth”, *Medical Education*, vol. 54, no. 1, CrossRef, 2019, pp.22-32.

7) Taedong Lee et al., 「Do Debates Enhance Critical Thinking and Argumentation in Political Science Education?」, 『東西研究』 제32권 3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0, pp.159-184.

강의 환경에서 큰 효과를 가지는 주제와 잘 매칭하고, 이에 대한 경험 사례를 축적하는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문제는 한국 대학의 교양 교육 현실이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는 반면, 그 적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 혁신형 교양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도전 요인

혁신형 교수·학습법 및 융합 교육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제시하여 대중적으로 널리 확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기술, 유전자 편집 및 3D 프린팅 등 최근 여러 신기술의 발전과 이의 융합이 생산양식 등 여러 삶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일컫는다.⁸⁾ 가장 핵심적으로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현실 등의 과학기술 발달을 통해 실재와 가상을 통합해 사물들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등장을 의미한다.⁹⁾ 결국, ‘융합·초연결성’에 의한 생산성의 비약적 향상에 의해 근미래에 기존 사회·경제구조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 압축적으로 녹아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심화와 함께 대학 교육 역시 중대한 변혁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 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노동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과거 산업 혁명이 그러했던 것처럼 대학의 커리큘럼, 운영 방식, 교수·학습법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기준, 졸업 후 취업을 못한 청년이 166만 명에 이르는 등 청년

8) World Economic Forum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ttps://www.weforum.org/about/the-fourth-industrial-revolution-by-klaus-schwab/>, 2025.01.28.

9) 김정옥 외, 『2016 다보스 리포트: 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2016.

세대의 취업 문제가 심각한 반면,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인력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5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 부족률은 28.3%로 예상되며, 드론(75%), 로봇(55%)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부족 문제는 현재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¹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대학에서 학습하는 지식의 생존 주기가 더욱 짧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대학 교육 역시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역량 배양 중심으로 재편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¹¹⁾ 세계경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 인력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역량으로 ‘복합문제 해결능력(Complex Problem Solving Skill)’을 꼽았으며, 이러한 역량은 산업화 시대 구획된 대학 전공의 경계를 허물고 넘을 때 비로소 배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¹²⁾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 정부는 대학 교육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 및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운영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SW 중심대학 지원사업」 및 「SW 일자리 창출 전략」, 고용노동부의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의 경우,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인용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융합형 연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별, 전공별 칸막이를 낮춰 학문 간 융합형 연구 추진 필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Flipped-Learning, Blended-Learning 등), 프로

10) 황의철,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n Curriculum of Universit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25권 11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 230쪽.

11) 조현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54-55쪽.

12) 백성기 외, 『제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혁신 방안(등록번호: 11-1342000-000244-01)』, 포항공과대학교, 2016, 21-22쪽.

젝트 기반 수업(PBL) 등 혁신적 수업 방법 확산”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도입하였다.¹³⁾ 2020년도 사업의 경우, 20개 대학이 선정되어 지원 대학당 10억여 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혁신 교수법을 적용하는 강의 수 확대에 큰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교양 교육 환경에서 혁신 교수법의 적용은 여러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융복합 교과목의 수가 너무 적으며, 개설되는 과목의 평균 수강생이 다른 유형의 교양과목에 비해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60개 대학의 39,890개 교과목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융복합 교과목은 227개(0.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융복합 교과목은 31~50명, 혹은 51명~100명 규모의 강좌가 주로 개설되어 기초 문해나 체험 소양 영역 교과목에 비해 강의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¹⁴⁾ 사실, Flipped-Learning 이나 Blended-Learning의 핵심이 온라인 강의의 부분 도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축약적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실제 적용해 보는 그룹활동·토의 등에 있음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상술했듯이 혁신형 수업이 무조건 우월한 학습 효과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신화에 불과하며, 한국 대학 교양과정의 제약 요인은 그 효과의 발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결국, 현실적 교과목 설계의 관점에서 “대략 50명의 중대형 강의 환경에서도 어떻게 여러 학문의 융합적 사고를 수강자의 참여 및 능동적 학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가?”의 고민이 본래 혁신형 교양 교육의 취지 실현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충족시키는 다

13) 대한민국 교육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운영 추진 계획(안)」, 2020.01.31.

1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2023, 5쪽.

양한 교과목 설계 및 교수법이 존재하겠으나, 이 글은 특히 기후변화 관련 강의의 잠재성에 주목한다.

3. 융복합·참여형 강의 확산의 요구와 기후변화 수업의 정합성

기후변화 관련 과목이 융합형 강의에 적합한 이유는 주제에 대한 이해와 대응 자체가 학제 간·융복합적 접근을 요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문제와 여러 학문 간의 대략적 연계 양상은 아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 융합성의 요소의 예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원인과 메커니즘은 대기과학 및 기초화학 분야와 연계되며, 과거 지구의 생물다양성 변화는 지구사적 관점에서 다뤄질 수 있다.

[표 1]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 학문과의 연계성 정리

유관 학문 영역	기후변화와의 연계성	강의 소재 예시
대기과학·기초화학	기후변화의 과학적 원인: 온실가스의 유형과 효과	킬링커브(Keeling Curve)
지구사	기후변화와 지구상 생물다양성과의 관계	6번째 대멸종
국제법	기후변화 관련 다자조약	파리협정의 주요내용
정치학	기후변화-에너지 전환 관련 각국의 정책 및 협상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경제학	소득수준과 환경정책간의 관계: 순환경제; ESG	쿠르네츠 환경곡선
사회학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의 역할	그레타 툰베리-그린피스 등 환경 운동가-단체
문화인류학·종교학	문화적 코드로서 생태주의와 주요 종교와의 연계	기독교·불교의 자연관
환경공학	기후변화 문제 대응·경감을 위한 기술 발달	탄소포집활용기술(CSU)

※ 출처: 저자 작성

국제적 대응으로서 다자조약의 성립과 이행은 국제법 및 정치학의 영역에 속하며, 환경정책과 경제 발전의 관계, 순환경제, 그리고 ESG 개념은 경제학·경영학의 통해 설명 가능하다. 사회학은 환경운동 및 시민단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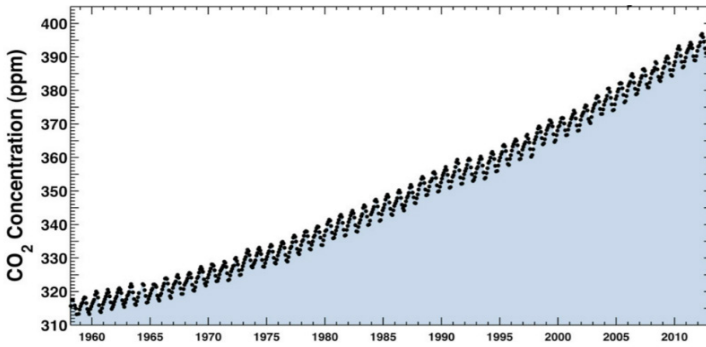
역할을 분석하고, 문화인류학 및 종교학은 생태주의의 문화적 코드화와 종교적 자연관을 탐구한다. 나아가 환경공학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한 기술 발달을 다루며, 이처럼 기후변화는 여러 학문의 시각을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복잡성과 해결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융합형 강의의 적합성을 지닌다.

이러한 융합 요소를 상술하면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원인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대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정책 결정자·대중의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메커니즘은 “인간 활동에 의한 (anthropogenic)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삼불화질소(NF₃) 등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에 따라 대기의 구성이 변화하여 태양의 복사 강제력이 증가한 결과, 지구의 평균 온도가 대략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2도가량 상승한 상황”으로 축약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¹⁵⁾ 기후변화의 핵심 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직관적인 이해를 돕고 널리 인용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킬링커브는 하와이 마노아의 대기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를 수십 년간 포집·분석한 자료로서, 엘 고어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에 기후변화의 핵심 과학적 증거로 인용되며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¹⁶⁾ 또한, 기후변화는 생물종 다양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바, 과거 지구사에는 기후변화에 의해 총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으며 산업혁명 이후 인류 활동에 의한 작금의 기후변화에 의해 여섯 번째의 대멸

15) 전의찬 외, 『기후변화: 27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서울: 지오북, 2016, 36쪽.

16) Daniel C. Harris, “Charles David Keeling and the Story of Atmospheric CO₂ Measurements”, *Analytical Chemistry*, vol. 82, no. 19, ACS, 2010, pp.7865-7870.

종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¹⁷⁾ 이는 기초적 지구사·지구과학 지식 체계와 큰 연관성을 지닌다.



[그림 2] 킬링커브(Keeling Curve)¹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국제사회와 다양한 학문 분야의 협력으로 발전해왔으며, 대응체제의 구축은 주로 법학,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위협 인식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UNFCCC: United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교토의정서, 파리협약 등 국제 다자조약이 성안·이행되었다.¹⁹⁾

국제 다자조약의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은 환경 쿠즈네츠 곡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의

17) 엘리자베스 콜버트 저, 김보영 역, 『여섯 번째 대멸종』, 서울: 쌤앤파커스, 2022.

18) U.C. San Diego - The Keeling Curve Measurement Notes, <https://keelingcurve.ucsd.edu/measurement-notes/>, 2025.01.18.

19) Peter M. Haas,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1992, pp.1-35.

필요성은 순환경제 모델로, 기업의 환경 보호 의무는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개념을 통해 논의될 수 있다. 이처럼 경제학은 기후변화 대응의 실제적 측면을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다.²⁰⁾

기후변화 인식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는 정부 외에도 시민단체, 지역사회,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상징적인 환경운동가들이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사회학적 시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개인 수준의 환경 인식 제고와 생태주의의 확산은 생산 및 소비 감소에 기여한다. 이는 문화인류학이나 종교학의 관점에서 생태주의가 하나의 문화 코드로 자리 잡거나, 기독교 및 불교의 자연관과 연계되어 설명될 수 있다.²¹⁾

이처럼 교양 강의 주제로서 기후변화 이슈는 본질적으로 융복합의 성격을 지니며, 융복합형 강의가 부족한 한국 대학의 교양 교육 현실에서 상당한 잠재성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강의는 참여형 교수·학습법과 정합성이 매우 높은데, 상당수 핵심 이슈가 공공정책 결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전원(Energy Mix)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Energy Transition)은 시민 그룹의 적극적 지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때로는 정치·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지역 주민의 지가 등 재산 가치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우려, 삼림 등 자연 생태계 파

20) Esmaeili P, Balsalobre Lorente D, & Anwar A. "Revisiting the environmental Kuznetz curve and pollution haven hypothesis in N-11 economies: Fresh evidence from panel quantile regression", *Environmental Research*, vol. 228, Medline, 2023, pp.1-11.

21) 홍덕화, 「기후위기 시대, 갈림길에 선 한국 환경운동」,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8권 제1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24, 87-136쪽; 김학철, 「기독교교양 강의실에서 기후변화 가르치기—기후변화 담론과 신학적 대응의 지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7집, 한국기독교교회, 2023, 175-233쪽; 임창욱, 「기후 위기 담론과 불교적 극복 방안-인간 탐욕의 제거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100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4, 193-222쪽.

괴에 대한 우려, 개발 이익 분배에 대한 우려, 주민 건강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을 손꼽는다.²²⁾ 결국,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정책 시뮬레이션 게임은 참여형 과제의 소재가 될 수 있다.

물론, 기후변화 관련 융복합·참여형 교양 강의 설계는 상기한 한국 대학 교양 교육의 제약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0여 명의 중대형 강의 환경에서 참여형 교수·학습법 적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진행 규칙의 설정 및 모니터링 등의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융복합형 강의를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교양과목의 저학년 수강생에 대한 배려 없이 특정 분야의 이슈를 전공 입문 수준으로 깊게 다룰 경우, 교수자·수강자 간 기대 수준의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하의 강의 설계 예시는 이러한 제약 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4. 덕성여대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이해> 수업 사례

덕성여자대학교는 선도적으로 전면 자유전공제를 도입하여, 1학년생이 다양한 전공 탐색과목, 일반 교양과목, 필수 교양과목을 수강한 후, 2학년으로 진급하는 시기 원하는 전공을 지원하여 주전공을 선정하는 학사제도를 운영한다. 따라서, 교양과목 수강생들이 특정 전공에 대한 확고한 지식 체계나 선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융복합형 강의를 진행하기에는 나름 유리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개설된 융복합형 강의가 많지는 않은 실정이며, 교양과목 강좌의 평균 수강 인원 역시 상기한 대학교협 자료와 큰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교내 혁신사업의 지원을 받아, 2022년 1학

22) Lawrence Susskind et al., "Sources of Opposition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Energy Policy*, vol. 165, Elsevier, 2022, pp.1-17.

기부터 2024년 2학기까지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이해>라는 과목을 플립드 러닝 형식으로 기획·진행하였다. 수강생들이 인접 학문의 기초 지식은 물론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무한 것으로 전제하고, 물음 형식으로 13개 핵심 테마를 선정하여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적시하였다. 이는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하고 각 주차 학습 주제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물음은 기후변화 환경 문제의 이해에 핵심 사항임은 물론, 상기한 인접 학문과 뚜렷한 연계를 가진다. 이는 아래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이해 강의 약식 강의 계획서

주차	핵심 테마	주요 내용	유관 분야
1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이해는 왜 중요한가?	기후변화 영향의 시나리오	미래학
2	인간의 산업·경제활동은 어떻게 환경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인류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산업혁명 이후 환경재해 사례와 환경규제의 등장	환경경제학·환경법
3	우리는 기후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후변화의 과학적 메커니즘	대기과학
4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왜 국제적 문제이며, 인류는 어떠한 대응을 해 왔는가?	초국경적 환경 문제에 대한 외교적 교섭	국제정치
5	국제 다자조약은 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가?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등 환경관련 다자조약	국제법
6	순환경제란 무엇이며, 환경공학의 발전은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순환경제의 개념·사례 및 이를 구현하는 환경공학 기술 설명	경제학·환경공학
7	어떻게 개도국의 발전 욕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개도국-선진국 간 갈등 원인에 대한 경제학-국제정치학적 설명	경제학·국제정치
8	전 세계 여러 국가는 국내적 차원에서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주요국 환경정책의 편차	정치학·정책학
9	전 지구공동체는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는가?	에너지 전환의 주요 이슈	정치학·정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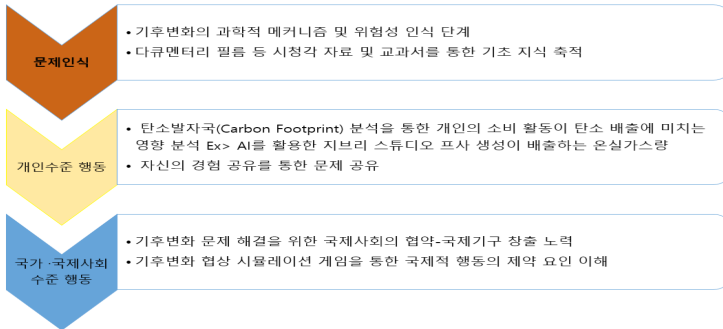
10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ESG의 개념 및 사례	경제·경영학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운동·지자체의 노력	사회학
12	미세먼지, 생물종 다양성 감소, 사막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는가?	미세먼지, 생물종 다양성 감소, 사막화에 대한 대응 노력 소개	생물학·국제정치학
13	해양생태계는 왜 중요하며 이를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은 어떻게 규제되어야 하는가?	미세플라스틱 방지 문제 및 관련 국제협약 성안 노력에 대한 소개	해양 생물학·국제정치학

본 연구는 전공 입문 수준의 대학 강의에서 핵심 테마와 유관 이슈 간의 연계성 학습 전략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제시한다. 특히, 교수자가 명시적으로 연계성을 설명하기보다는 강의 내용 및 다양한 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그 관계를 인지하도록 유도하는 교수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대학 신입생과 같이 해당 분야의 배경지식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연계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도한 설명이 오히려 인지적 부담을 가중시켜 학습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따라서 본 강의 모형은 핵심 개념 학습과 심화된 이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학습자 스스로 지식의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한편, 본 강의는 FL 방식을 주요 교육 전략으로 채택하되, 모든 학습 활동을 플립드 러닝 형태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강의 내용의 특성과 학습 목표를 고려하여 전통적인 강의 방식과 혼합적으로 운영하였다. 이는 플립드 러닝의 핵심이 단순히 강의 콘텐츠의 일부를 온라인으로 이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 및 사실 관계와 같이 온라인 학습이 효율적인 영역의 콘텐츠를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후, 이를 기반으로 심층적인 토론, 문제 해결, 협력적 과제 수행 등 능동적인 학습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특정 주제의 경우, 온라인 강

의나 그룹 활동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거나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며, 능동형 학습을 위한 학습자의 사전 준비 시간 또한 전통적인 강의 수강에 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주차에 플립드 러닝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학습자에게 과도한 학습 부담을 초래하여 학습 의욕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플립드 러닝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학습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혼합형 학습 모델 설계를 탐색하고, 실제 강의 운영 사례를 통해 그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강의의 교육 모형은 (1) 문제인식 단계 (2) 개인 수준 행동 고양 단계 (3) 국가-국제수준의 행동 단계로 나뉘어, 각 차원의 고유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 제시를 위한 협동을 이루는 데 그 근본적 목표를 둔다.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의 과학적 메커니즘과 그 심각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다큐멘터리 필름과 같은 시청각 자료와 교과서를 활용하여 핵심 지식을 전달하고, 학습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 단계인 '개인 수준 행동 고양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소비 활동이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생성 활동과 같은 개인적 경험을 탄소 발자국 분석과 연계하여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추상적인 환경 문제를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인식하고 공유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적 실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국가-국제사회 수준의 행동'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즉 협약 체결 및 국제기구 설립 과정을 학습한다. 특히, 기후변화 협상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국제적인 행동에 따르는 다양한 제약 요인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3]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이해 수업의 교육 모형

대부분 대학에서 추진하는 교육 혁신 사업에서는 플립드 러닝 방식의 강의 운영 요건으로 최소 5주차 이상의 적용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참여 관찰의 대상이 된 기후변화 강의의 경우, 학기마다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대다수 수강생들이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라는 점과 과학적 사실에 관한 내용은 토론·그룹 활동을 위한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 의사결정, 국제협상, 온실가스 감축 관련 프로젝트 기획·제안 등 주로 사회 과학 관련 주제의 강의에 플립드 러닝을 적용·진행 하였다. 플립드러닝 진행 시, 모든 수강자들은 6인 혹은 8인으로 이루어진 소그룹으로 나뉘며, 개별 소그룹은 특정 이슈에 대해 상반된 입장·아이디어를 가진 두 개의 팀으로 나누어 그룹 활동을 진행한다.

구체적 주제 예시로는 ① 마을 하천 관리를 위해 점원 오염 배출 기업에 대한 오염세 부과 관련 시뮬레이션 게임 ② 선진국 A와 개발도상국 B국 간 초국경적 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양자 협상 시뮬레이션 게임 ③ 파리협정 전 지구적 이행점점(GST)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결정기여(NDC) 재조정 시뮬레이션 게임 ④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ESG)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경연 ⑤ 미세플라스틱 규제협약 성안·협상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그룹 활동 주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해당 주차 강의와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며, 대략 1시간 내외의 준비로 활동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실, MIT 등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후변화 협상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 및 협업 툴 등이 존재하지만, 긴 소요시간과 높은 난이도로 인해 교양 강의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다.²³⁾ 필자는 여러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 강의실 환경에 맞게 약식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적용하였다. 아래 [표 3]은 상기 ②번 주제에 관한 시뮬레이션 게임 설명인데, 싱가포르-인도네시아 간 초국경적 연무와 관련한 갈등에 착안한 것이다.

해당 주차 플립드 러닝 및 정책 시뮬레이션 게임 진행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상 강의에서는 소득수준과 깨끗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강한 환경 규제 사이에는 ‘역 U형의 관계’를 가진다는 환경 쿠르네츠 곡선을 중심으로 선진-개도국 간 환경 역량의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또, 양자간 갈등이 어떻게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 왔는지 여러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나아가 아래 시뮬레이션 게임의 내용 및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수강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게임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 게임은 줌 실강 형태로 진행한다. 줌의 ‘소회의실’ 기능은 수강생들의 소그룹 협상·토의는 물론, 교수자의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소그룹 협상은 각기 선진-개도국 간 역할을 맡아 합의문 형태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 요구된다. 합의문의 도출 후, 각 그룹은 모두 본회의실로 돌아와 협상 결과를 공유하는 ‘Debriefing’ 시간을 가진다. 같은 주제에 대해 같은 롤로 진행되었지만, 각 소그룹별 합의 결과는 다르므로 어느 팀이 어떤 논거를 활용해 협상을 잘 진행했는지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이에 디브리핑의 학습 효과가 있다.

23) Climate Interactive, “World Climate Simulation.”, <https://www.climateinteractive.org/world-climate-simulation/> (검색일: 2025년 1월 28일).

[표 3] 초국경적 연무 방지를 위한 양자 협상 시뮬레이션 게임 설명

A국과 B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접국이다. A국은 일찍이 산업화를 이루어, 1인당 GDP가 \$50,000를 상회하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여러 선진국과 같이 과거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산화황(So2)을 포함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때로 B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A국은 국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오염원 정화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함에 따라 자국의 대기질·수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최근 10년간 A국의 산업활동이 B국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B국은 1인당 GDP가 \$4,000에 미치지 못하는 빈국으로서, 전통적으로 풍부한 천연자원 및 농업에 의존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최근 고무·천연가스 등 자원 처리산업 및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한 오염원이 국경을 넘어 A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플랜테이션 농장 조성을 위해 놓은 산불·들불이 엄청난 양의 연무(煙霧)를 발생시켜, 상당수의 A국 시민이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산업적 피해 역시 상당하다.

A국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B국을 포함하여 지역 여러 국가와 ‘삼림파괴를 위한 농지 확장 금지 및 연무에 의한 피해 방지 협약’의 체결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A국 정부대표는 B국 수도에서 B국 정부대표와 만나, 동 협약의 원안을 제시하고 협상에 돌입하였다. A국이 작성한 원안에는

① 당사국은 피해예방(prevention) 및 주의의무(due diligence)의 원칙에 따라 타국에 환경적 손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를 지니며 ② 손해 발생시 가해국은 피해국의 물적·인적 손실에 따른 배상의 책무를 지닐 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A국의 원안에는 이러한 의무는 협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만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A국의 원안에 대해, B국은 과거 A국의 경제성장시 B국에 미친 환경적 악영향에 대한 피해보상은 동 협약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들어 협약 체결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플랜테이션 농업은 빈곤선에 있는 B국 다수 빈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임을 들어, 이러한 협약 체결의 요구는 반인도적 처사일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B국은 만약 A국이 협약 체결을 원한다면, 최소한 30억달러(한화 약 35조원)의 경제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A국 GDP의 1% 수준의 거액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수업은 A국이 역할을 대변하는 A그룹과 B국이 역할을 대변하는 B 그룹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다.

- ① 우선 A그룹은 B그룹에게 왜 상기의 협약 체결이 꼭 필요한지 1~2분 정도로 설명하여야.
- ② B그룹은 A그룹에게 그러한 요구가 왜 부당한지 1~2분 정도로 설명하여라.
- ③ 협상을 계속 진행하자. A국은 B국에 대한 경제원조 액수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목표이며, B국은 A국 협상원안에서 ‘손해 배상 규정’을 삭제 혹은 완화하기 위한 것이 협상의 목적이다.

※ 진행규칙: ① 만약 시뮬레이션 종료 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두 팀 모두 최저점을 부여받게 된다. ② 상대국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최고점의 90%만을 부여받게 된다. 합의문 도출 후, 본회의실로 돌아와 'Debriefing'을 통해 다음 사항을 공유한다.

- ① A그룹-B그룹 간 협상의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 ② 자신이 속한 그룹과 상대 그룹 주장의 주요 논거는 무엇이었는지?
- ③ 협상의 주요경과는 어떠하였으며, 왜 그렇게 결론이 났는지?

이러한 협상 경험은 쿠르네츠 곡선 등 온라인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기억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며, 수강생들의 협업 및 소통 능력 배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게임 이외에도 ESG 경영 구현을 위한 사업 프로젝트 기획 및 경연, 환경 보호 관련 사회적 기업·비영리 시민단체 창설 기획, 업사이클링 실현을 위한 활동 동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그룹 활동을 접목한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내외 경진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배출 되었다. 이러한 능동형 학습법의 효과에 대해서 강의 평가 응답자 8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플립드러닝 주차에서 배운 이론 및 배경지식은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통해 직접 활용하다보니 기억에 오래 남고, 시험을 위해 별도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을 스스로 여러 분야에 활용해 보려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생 A의 강의 평가 의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개인, 지역사회, 기업, 정부, 국제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영학 전공을 염두해 두고 있어, ESG 중심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접근했지만 다양한 행위자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어 신선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로바로 적용해 보는 기회를 가져, 이러한 다양한 행위자의 입장과 역할이 더욱 와 닿습니다. (학생 B의 강의평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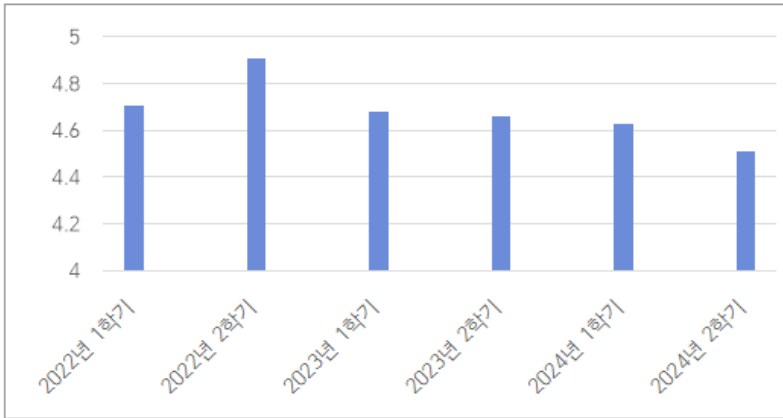
그러나, 학생들의 환류 과정에서 도전요인 역시 확인되는데, 대략 5차레로 그룹 활동을 최소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크다고 토로한 수강생 역시 있었다. 온라인 강의의 내용 습득이 애로가 있는 상황에서 그룹

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종종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털어놓은 학생 역시 있었다. 또한, 소그룹 활동 중 팀원들 간 기여도의 차이와 의견 조율의 어려움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온라인 강의 내용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게임 주제에 대해 스스로 의견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 지식이 풍부하여,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과제를 준비한 반면 저는 사전 지식이 없어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학생 C의 강의 평가 의견)

때로 팀원들 간 의견 조율이 힘들어 협상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상당수 학우들은 별 기여 없이 시간을 때우기도 했습니다. 줌으로 진행되다 보니 때로 소통에 제약을 느끼기도 했고, 카메라를 켜지 않기도 했습니다. NDC 작성 과제의 경우, 반대편 그룹이 별다른 의견이 없어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 D의 강의 평가 의견)

이러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아래 [그림 4]와 같이 다소 우하향하는 강의 평가 평균 추이에서도 나타난다. 강의 평가는 2022년 2학기 4.909로 정점을 찍은 후, 우하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해당 학기에 학생들의 그룹 활동을 모니터링 지원할 수 있는 강의 조교 지원으로 보다 밀도 있는 활동이 이루어진 반면, 이후 조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부 그룹에서 프리라이딩 문제 발생 등으로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프리라이더 발생에 대한 학생 민원이 특히 2024년 2학기에 급증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학기부터는 최대 수강 인원을 50명에서 40명으로 줄이고, 참여 관련 세부 평가 지표 및 윤리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였다.



[그림 4]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이해 강의 평가 변동 추이

이 같은 수강생의 피드백과 교수자의 관찰을 종합해보면, 플립드 러닝-그룹 활동의 결합을 통한 능동형 학습은 학습의지가 크고 상당한 학습 시간을 투입하는 학생 그룹에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 그룹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년에 걸친 중간고사·기말고사 평균 점수는 100점 환산 78.62점이었으며, 표준편차는 14.48로 필자의 여타 전공 수업보다 약 3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룹 활동 미참여자, 프리라이더 피보고자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 그룹에 비해 100점 만점 기준, 약 7.8점 낮은 시험 성취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함을 명확히 밝힌다. 우선, 본 연구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만큼 충분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설정하여 동일한 조건 하에 강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찰된 플립드 러닝의 학습자별 효과 차이에 대한 해석은 잠정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선불리 그 효과의 불균등성을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보다 엄격한 연구 설계를 통해, 즉 충분

한 표본 크기를 확보하고 통제-실험군 비교를 통해 플립드 러닝의 학습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후속 연구를 통해 플립드 러닝의 다양한 학습자 특성에 따른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양 교육 시스템하에서 융합형·참여형 강의 유형의 확산 배경을 짚어보고, 여러 도전 요인 속에서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가지기 위한 제언 및 경험을 공유하려 하였다. 비록 단일 사례에 기반한 제한적 경험이지만, 융합형·참여형 강의 유형의 확산이 제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 강의실 환경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기획·구현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이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문제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배경 역시 융합형·참여형 강의의 소재로서 이에 주목한 이 글의 의의를 더해 준다.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이 일부 이론의 과장처럼 절대적이거나 모든 교육 환경에서도 일반화 가능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효과를 무조건 부정할 필요도 없다. 플립드 러닝-시뮬레이션 게임 결합과 같이 능동형 교수·학습법이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가지는 강의 주제는 분명 존재하며, 그러한 전제 조건하에서 혁신 교수·학습법은 지속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 물론, 강의 주제-교수법 간 매칭에 대한 판단은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교수자 본인이 최종 판단하여야 하며, 대학 기관은 우수 매칭 사례를 중심으로 최적 학습 효과의 결정 요인을 지속적으로 탐구하여야 한다.

필자가 진행한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이해> 과목의 경험은

플립드 러닝-그룹 활동의 결합을 통한 능동형 학습이 수강생의 사전 지식 및 학습 의지에 따라 차등적 효과를 보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학습 의욕을 가진 수강생 그룹에게는 높은 학습 효과를, 다소 어려움을 겪는 학생 그룹에게는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 시킬 수도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가설은 엄밀한 실험 방법을 적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학습 조건에서 플립드 러닝-그룹 활동을 통해 학습한 실험군, 전통적 강의 방식을 통해 학습한 대조군으로 나누어 그 학습효과를 추적·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차등적 효과가 경험적으로 타당하게 나타난다면, 이의 보정 방법 역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대학의 교양 교육은 여러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조류를 타고 다양한 변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이기도 하다. 혁신 교수법이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매칭되어, 수강생 그룹의 학습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면 대학이 교양 교육을 통해 사회 전반의 혁신 노력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글이 제시한 융합형·참여형 교수·학습법의 개발 노력이 향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 참고 문헌

- 강이화, 「4차 산업혁명과 대학교육의 미래 - 국내·외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제29권 1호,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019, 279-297쪽.
- 대한민국 교육부,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정 · 운영 추진 계획(안)』, 2020.01.31.
- 김정욱·박봉권·노영우·임성현, 『2016 다보스 리포트: 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매일경제신문사, 2016.
- 김학철, 「기독교 교양 강의실에서 기후변화 가르치기-기후변화 담론과 신학적 대응의 지형」,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7집, 한국기독교학회, 2023, 175-223쪽.
- 백성기·김성열·김영일·백란, 『제 4차 산업혁명 대비 대학의 혁신 방안 (국가연구개발보고서, 등록번호: 11-1342000-000244-01)』, 포항공과대학교, 2016.
- 오상진·이종석·임윤진, 『GTC BRIEF 3-15호_국내 CCU 최신 기술개발 동향과 미래 전망』, 국가녹색기술연구소, 2022.
- 임창옥, 「기후 위기 담론과 불교적 극복 방안-인간 탐욕의 제거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100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4, 193-222쪽.
- 엘리자베스 콜버트 저, 김보영 역, 『여섯 번째 대멸종』, 쌤앤파커스, 2022.
- 전의찬·권원태·이우경·김맹기·이동근·박흥경·최재철·최원기·문태훈·임동순·유승직·김승래·임재규·김용건·김선희·원장묵·허은녕·차재호·조준행·이명주·박상도·한기주·정태용·박영구·이덕배·정해봉·안윤기, 『기후변화: 27인의 전문가가 답하다』, 지오북, 2016.
- 조한국,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학교육의 변화와 교양교육의 과제」, 『교양교육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7, 53-89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2023.

- 홍덕화, 「기후위기 시대, 갈림길에 선 한국 환경운동」,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28권 제1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24, 87-136쪽.
- 황의철,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n Curriculum of Universiti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한국컴퓨터 정보학회논문지』 제25권 11호, 한국컴퓨터 정보학회, 2020, 229-238쪽.
- arlo.co - Overview of the learning pyramid for training providers, <https://www.arlo.co/blog/overview-of-the-learning-pyramid-for-training-providers>, 2025.01.18.
- Bodansky, Daniel, Brunnée, Jutta, & Rajamani, Lavanya.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 Esmaeili P, Balsalobre Lorente D, & Anwar A. “Revisiting the environmental Kuznetz curve and pollution haven hypothesis in N-11 economies: Fresh evidence from panel quantile regression”, *Environmental Research*, vol. 228, Medline, 2023, pp.1-11.
- Harris, Daniel C. “Charles David Keeling and the Story of Atmospheric CO₂ Measurements”, *Analytical Chemistry*, vol. 82, no. 19, ACS, 2010, pp.7865-7870.
- Haas, Peter M.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1992, pp.1-35.
- Hemmeter, Mary Louise, Patricia A. Snyder, Lise Fox, & James Algina. “Evalu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yramid Model for Promoting Social-Emotional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vol. 36, no. 3, SAGE publishing, 2016, pp.133-146.
- Letruda, Kåre & Sigbjørn Hernes, “The Diffusion of the Learning Pyramid Myths in Academia: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48, no. 3, Oxfordshire: Taylor & Francis, 2016, pp.291-302.

- Masters, Ken. "Edgar Dale's Pyramid of Learning in medical education: Further Expansion of the Myth", *Medical Education*, vol. 54, no. 1, CrossRef, 2019, pp.22-32.
- Susskind, L., Chun, J., Gant, A., Hodgkins, C., Cohen, J., & Lohmar, S. "Sources of Opposition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Energy Policy*, vol. 165, Elsevier, 2022, pp.1-17.
- U.C. San Diego - The Keeling Curve Measurement Notes, <https://keelingcurve.ucsd.edu/measurement-notes/>, 2025.01.18.
- Wang L., Peng L., & Qutub K. *Research Methods in Education*, London: SAGE Publication, 2018.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융합형·참여형 교육 모델이 확산하는 배경을 밝히고, 이를 교양 교육의 도전적 환경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건을 규명한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의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 구조에 상응하여 대학 교육의 혁신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개별 강의 수준에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사례가 충분히 축적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은 기후변화 관련 강의 잠재성에 주목하는바,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본질적으로 여러 학문·지식 체계의 융합을 필요로 하며, 플립드 러닝-그룹 활동과 같은 능동형 교수·학습법과 친화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나아가, <기후변화와 글로벌 환경 문제의 이해> 과목에 대한 참여관찰을 통해 관련 과목 설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능동형 교수·학습법의 효과를 추적·분석한다. 이 연구는 모든 강의 환경에서 보편적으로 우월한 학습 효과가 보장되는 교수·학습법은 이론적·경험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우며, 효과성이 기대되는 구체적 주제와의 결합 및 그룹 활동의 세부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결론 맺는다.

주제어 • 교양교육, 기후변화, 혁신형 강의, 플립드러닝

■ Abstract

Establishing Integrated and Participatory Liberal Arts Education Model : A Case Study Analysis of Climate Change Course

KIM, Youcheer / Duks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clarifies the background and identifies the implementation conditions for integrated and participatory educational models in liberal arts education. Despite recent emphasis on higher education innovation driven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ptimal course-level implementation cases remain limited. This article highlights the potential of climate change-related courses, as climate change response intrinsically requires 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and aligns well with active learning methods like flipped learning and group activitie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of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and Global Environmental Issues,’ this research shares course design insights and analyzes active learning effectiveness. It concludes by emphasizing that universally superior teaching methods are neither theoretically nor empirically guaranteed,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combining methods with specific effective topics and meticulously designing group activities..

Keyword • General Education, Climate Change, Flipped Learning

소방현장안전점검관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채 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설문조사
4. 설문조사 결과분석
5. 결론

1. 서론

소방공무원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조·구급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생활안전 활동 등 소방 서비스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소방업무는 이전의 주요업무인 화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구조구급 활동 및 긴급 생활안전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2024년 1월 문경 공장 화재, 2023년 12월 제주 창고 화재, 3월 전북 김제 단독주택 화재, 2022년 1월 평택 물류창고 화재, 2021년 6월 울산 상가 화재 등 최근 10년간 소방공무원 40명이 순직했다.

* 목원대학교 부교수

지난 10년간(2014~2023년) 소방관들의 각종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중 발생한 순직자 및 공상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다(소방청, 2024). 특히 2024년 1월 31일 경상북도 문경시 육가공 공장에서 화재진압 중 문경소방서 소속 김00 소방장과 박00 소방교가 안타깝게 순직했다.

크고 작은 각종 재난현장은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뿐만 아니라 현장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안전사고는 예고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하고 항상 상태변화의 연속으로 예측이 매우 곤란하다. 그리고 인적·물적 피해의 확대 위험성을 수반하며 급속하게 진행되므로 소방현장의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현장에는 소방대원의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있으며, 화재현장에서 화염, 열기, 연기 등으로 활동장해를 받게 되고, 특히 내화건물 및 지하 화재에 있어서 화염은 물론 짙은 연기와 열기로 인한 진입장해로 인명검색이나 소화활동이 제한받고 있다. 연기에 포함된 유독가스나 정전에 의한 암흑 속에서 행동, 통로에 전개된 소방호스, 건축구조물의 붕괴, 유리나 기와 등의 낙하물 등 현장의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1)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안전점검관은 소방 활동 중 현장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소방공무원을 의미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소방관서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현장활동요원으로 첫째, 현장예방요원은 화재안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둘째, 현장대응요원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차량운전·연관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셋째, 상황요원은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현장안전점검관은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명되며, 다양한 소방 활동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진다.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법적 정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현장안전점검관은 소방서의 현장 소방활동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현장안전점검관의 주요 목적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들은 활동 대원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요 역할은 현장안전점검관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와 협력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이들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측하고 보고하며, 대원의 장비 착용 상태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구성 및 배치는 현장안전점검관은 다수의 자격을 보유하고 현장 활동

경험이 풍부한 자로 선정된다. 현장 지휘권을 가진 부서(「지방 소방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대응단 또는 119 재난 대응단을 말한다)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지휘할 때는 현장안전점검관 또는 관할 안전센터 등의 장을 현장 안전 담당으로 지정한다.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정은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 [별표 1]에 따른다.

소방서의 상설 현장안전점검관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소방서의 현장소방활동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지정하고, 비상설 현장보건안전관리 책임자는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을 지정하며, 비상설 현장안전담당은 현장 소방활동 시 보건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해 지정된 소방공무원을 지정한다.

2) 현장안전점검관의 기능

현장안전점검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 소방 활동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이들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관측하고, 이를 보고 및 전파하여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

둘째,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이는 현장에서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한다. 이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사고사례 연구 및 관련 지식을 교육함으로써 대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넷째,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 투입 대원의 장비 착용 상태와 신체 및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이는 대원들이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다섯째,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관측하고 이를 보고 및 전파한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섯째,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대원 사고 등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현장안전점검관은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한다. 이는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일곱째,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 소방활동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를 점검하고 관리하며, 대원들에게 적절한 사용 방법을 지도한다. 이는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현장안전점검관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현장안전점검관의 역할

현장안전점검관의 역할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임무를 의미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 소방활동 중 안전에 대한 리더십을 제공하여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대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한다.

둘째, 재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 위험요소를 대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셋째, 재난 현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한다. 대원들에게 적절한 지시를 내려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넷째, 대원들의 장비 착용 상태와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전을 보장한다. 대원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소방 조직 내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대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줄인다.

여섯째, 사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보고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일곱째, 현장지휘관을 보좌하여 현장 소방활동 중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지휘관의 결정을 지원하고, 대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한다. 협력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현장안전점검관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역할은 대원들의 생명 보호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

4) 선행연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몇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위험요인의 파악 및 전파다. 손은수 외(2013)의 연구에서는 현장안전점검관의 주요

임무로 위험요인을 관측하고 보고 및 전파하는 역할을 강조했다. 무전기의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무선채널을 부여하고, '올스톱(All Stop)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 상황에서 즉시 대원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둘째,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다. 이병남(2017)의 연구에서는 소방관 구출팀 제도와 Two-in, Two-out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안전점검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의 사고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규정과 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셋째,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이다. 양기근 외(2015)와 우재봉 외(2013)의 연구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긴급 구조 통제단 훈련, 재난 대응의 과학적 접근,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넷째, 심리적 안정과 건강관리이다. 김상철(2019)의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PTSD와 직무 스트레스 문제를 다루며,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현장지휘 역량 강화이다. 박원호(2018)의 연구에서는 현장지휘관의 리더십이 현장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현장지휘관의 정보수집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여섯째, 재난 대비 훈련의 질적 평가다. 이성근 외(2020)의 연구에서는 재난 대비 훈련의 질적 평가를 통해 훈련의 각 요소에 대한 적절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장안전점검관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3.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소방현장안전점검관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전반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포털 오피스를 이용하여 소방현장안전점검관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5,932명의 소방공무원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소방현장안전점검관 역량에 미치는 요인으로 위험요인 전파, 안전사고 분석, 안전프로그램, 점검관 리더십, 점검관 전문성, 자격제도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 for Window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수집된 자료의 전체적인 응답 경향과 분포 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값 분석을 통하여 전체 항목에 대한 빈도와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한다.

둘째, 소방현장안전점검관 역량에 대한 주요 변수들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관계와 방향을 파악한다.

2) 설문의 구성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설문내용은 소방현장안전점검관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개인적 특성, 위험요인 전파, 안전사고 분석, 안전프로그램, 점검관 리더십, 점검관 전문성, 자격제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인

구통계학적 문항,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작성하였다.

4.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인구사회학적 배경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먼저 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설문지 응답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성별, 연령, 재직기간, 계급, 근무형태, 외근 담당업무, 최종학력, 현장안전점검관 경력, 소속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5,468명(92.2%), 여자 464명(7.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소방공무원 업무 특성상 강인한 체력을 요구하고 활동하는 주 담당자가 남자로 구성되었기 때문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연령은 30대가 2,227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0대가 1,836명(31.0%), 50대 이상이 1,405명(23.7%), 20대가 464명(7.8%) 순으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5년 이하가 1,690명(28.5%)으로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20년 이상이 1,556명(26.2%), 6-10년 미만이 1,045명(17.6%), 10-15년 미만이 921명(15.5%), 15-20년 이상이 720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은 소방위가 1,664명(28.1%)으로 가장 많은 응답 분포를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소방장이 1,267명(21.4%), 소방교가 1,221명(20.6%), 소방사가 1,023명(17.2%), 소방경이 641명(10.8%), 소방령 이상이 116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중퇴/졸업이 3,338명(56.3%)으로 가장 많았

으며, 그다음으로 2-3년제 대학교 중퇴/졸업이 1,691명(28.5%),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36명(10.7%), 대학원 중퇴/졸업이 267명(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인구사회학적 배경

내용	분류	응답자(명)	비율(%)
성별	① 남자	5,468	92.2
	② 여자	464	7.8
	합계	5,932	100
연령	① 20대	464	7.8
	② 30대	2,227	37.5
	③ 40대	1,836	31.0
	④ 50대 이상	1,405	23.7
재직 기간	① 5년 이하	1,690	28.5
	② 6년이상-10년 미만	1,045	17.6
	③ 10년 이상-15년 미만	921	15.5
	④ 15년 이상-20년 미만	720	12.1
	⑤ 20년이상	1556	26.2
계급	① 소방사	1,023	17.2
	② 소방교	1,221	20.6
	③ 소방장	1,267	21.4
	④ 소방위	1,664	28.1
	⑤ 소방경	641	10.8
	⑥ 소방정 이상	116	2.0
최종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6	10.7
	② 2-3년제 대학교	1,691	28.5
	③ 4년제 대학교	3,338	56.3
	④ 대학원	267	4.5

2) 응답분포 결과분석

재난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관에 의해 위험요인 관측 및 전파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 이다가 2,353명(3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그런 편이다가 2,144명(36.1%),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732명(12.3%)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3.36으로 나타나 대체로 소방공무원은 재난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관

에 의해 위험요인 관측·전파 및 보고 등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 점수가 3.36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재난현장에서의 위험요인 관측 및 보고 역할은 일부 개선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현장 안전점검관이 더 적극적으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신속히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에서의 안전 점검 및 보고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2] 위험요인 전파

변수	분류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위험 요인 전파	① 전혀그렇지 않다	173	2.9	3.36	.911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732	12.3		
	③ 보통이다	2,353	39.7		
	④ 그런 편이다	2,144	36.1		
	⑤ 매우 그렇다	530	8.9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다가 2,378명(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그런 편이다가 2,269명(38.3%), 매우 그렇다가 601명(10.1%)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3.45로 나타나 대체로 소방공무원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청 등에서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통계집 발간 등 다양한 발간자료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반영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평균 점수 3.45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내며, 안전사고 통계와 데이터 분석의 체계화 및 활용도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3] 안전사고 조사

변수	분류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안전 사고 조사	① 전혀그렇지 않다	138	2.3	3.45	.880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546	9.2		
	③ 보통이다	2,378	40.1		
	④ 그런 편이다	2,269	38.3		
	⑤ 매우 그렇다	601	10.1		

소방조직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런 편이다가 2,548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보통이다가 1,643명(27.7%), 매우 그렇다가 1,310명(22.1%)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3.77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은 소방조직의 안전문화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조직의 다양한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영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고, 조직 내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 안전 프로그램 도입

변수	분류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안전 프로그램	① 전혀그렇지 않다	171	2.9	3.77	.938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0	4.4		
	③ 보통이다	1,643	27.7		
	④ 그런 편이다	2,548	43.0		
	⑤ 매우 그렇다	1,310	22.1		

현장 소방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질문에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런 편이다가 2,530명(42.7%)으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가 2,172명(36.6%), 보통이다가 1,077명(18.2%)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4.12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은 현장 소방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관의 리더십 역량에 따라 안전사고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 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관의 리더십이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리더십 역량이 강한 현장안전점검관이 있을 경우, 소방대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를 저감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현장안전점검관의 리더십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표 5] 현장안전점검관의 리더십

변수	분류	빈도	%	평균	표준편차
리더십	① 전혀그렇지 않다	70	1.2	4.12	.834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83	1.4		
	③ 보통이다	1,077	18.2		
	④ 그런 편이다	2,530	42.7		
	⑤ 매우 그렇다	2,172	36.6		

현장안전점검관의 전문성 및 역량에 따라 현장에서의 사고방지 가능성이 다르다는 질문에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런 편이다가 2,555명(4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가 1,731명(29.2%), 보통이다가 1,348명(22.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3.95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은 현장안전점검관의 전문성 및 역량에 따라 현장에서의 사고방지 가능성이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현장에서 현

장안전점검관의 전문성 및 역량에 따라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관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순직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 강화가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강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현장안전점검관의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표 6] 현장안전점검관 전문성

변수	분류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전문성	① 전혀그렇지 않다	108	1.8	3.95	.899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0	3.2		
	③ 보통이다	1,348	22.7		
	④ 그런 편이다	2,555	43.1		
	⑤ 매우 그렇다	1,731	29.2		

소방공무원의 현장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장안전점검관 자격제도에 대한 질문에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런 편이다가 2,273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보통이다가 1,750명(29.5%), 매우 그렇다가 1,153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3.59로 나타나 현장안전점검관 역량을 위하여 현장안전점검관 자격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현장에서 현장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장안전점검관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현장안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현장안전점검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격제도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과 인증 과정을 거친 인력이 현장에 배치된다면, 보다

전문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발휘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7] 현장안전점검관 자격제도

변수	분류	빈도	%	평균	표준편차
자격 제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336	5.7	3.59	1.055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420	7.1		
	③ 보통이다	1,750	29.5		
	④ 그런 편이다	2,273	38.3		
	⑤ 매우 그렇다	1,153	19.4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 강화에 대한 질문에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런 편이다가 2,633명(44.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매우 그렇다가 1,722명(29.0%), 보통이다가 1,348명(22.7%)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이 3.97로 나타나 소방공무원은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 부족과 적극적인 역할의 미흡으로 안전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안전한 현장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안전점검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재난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8] 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

변수	분류	빈도	%	평균	표준편차
현장 안전 점검관 역량	① 전혀그렇지 않다	99	1.7	3.97	.869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130	2.2		
	③ 보통이다	1,348	22.7		
	④ 그런 편이다	2,633	44.4		
	⑤ 매우 그렇다	1,722	29.0		

3) 다중회귀분석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는 6개의 독립변수와 관계의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로, 각 독립변수가 관계의 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전에, [표 9]와 같이 추정된 회귀모형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으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에 대한 검정을 해야 한다. 이는 오차의 추정치인 잔차를 통한 더빈-왓슨(Dubin-Watson) d 통계치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더빈-왓슨 d 통계치에 대한 정확한 임계치(critical value)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도공식에 따르면 d값은 0과 4의 범위를 갖고 있으며, 완전 (+)적 상관일 때($r=+1$)은 대략 0의 값을 갖고, 완전 (-)적 상관일 때($r=-1$)은 대략 4의 값을 갖게 되며, 상관이 없을 때($r=0$)에는 2의 값을 갖는다. 그러므로 더빈-왓슨 d통계치가 2에 접근하면 오차항의 자기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양병화, 2002). [표 9]의 회귀모형은 더빈-왓슨 d 통계치가 1.977로 2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므로 자기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독립변수들의 관계가 회귀분석 모형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진단을 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에

는 회귀계수의 분산이 매우 커져 각 회귀계수를 검증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다중공선성을 발생시키는 독립변수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중회귀 모형의 다중공선성에 대한 검정결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공차한계(Tolerance) 값이 0.1보다 작거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0보다 높게 나타나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수들의 공선성통계량 분석결과, 모든 변수의 공차한계 값이 0.442~0.746으로 나타나 0.1보다 크며, 분산팽창요인(VIF) 값도 1.341~2.60으로 나타나 10보다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9]의 회귀모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회귀모형의 타당성 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회귀모형의 타당성 검정은 F값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 값이 클수록 모형의 설명력이 크다고 해석한다. [표 9]의 회귀모형에서 F값은 1915.817이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1%에서 아주 의미하여, 모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²)는 회귀분석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나타내주는데, [표 9]에서 R²=0.660으로 전체 분산 중에서 약 66.0%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한편,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비교해 볼 때 안전프로그램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점검관 리더십, 점검관 전문성, 점검관 자격제도, 위험요인 전파 순으로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사고 분석 유의도 0.05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참조).

[표 9] 다중회귀분석

변수	비표준 계수		표준 계수	t	유의 수준	공선성 통계	
	B	표준 오차	β			허용 오차	VIF
(상수)	.406	.043		9.383	.000		
위험요인전파	-.065	.011	-.068	-5.971	.000	.445	2.245
안전사고분석	.018	.011	.018	1.602	.109	.442	2.260
안전프로그램	.395	.009	.426	44.493	.000	.625	1.599
점검관리더딤	.339	.011	.325	30.664	.000	.510	1.961
전문성	.127	.010	.131	12.420	.000	.516	1.937
자격제도	.093	.007	.113	12.843	.000	.746	1.341
R2 = 0.660 F = 1915.817 P=.000 Durbin-Watson = 1.977							

a. 종속 변수: 점검관역량

5. 결론

첫째, 소방현장 안전점검관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역할은 소방현장의 안전에 관한 전반을 관리하고 결정해야 한다.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응시자격은 소방공무원 경력 10년 이상으로 하고, 안전관련 전공자·안전관련 근무경력 10년 이상·소방 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그리고 계급은 소방위 이상을 응시자격으로 하고, 시험과목으로 필기시험은 안전관리 이론, 안전관련 법규, 현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고, 실기시험은 현장에서의 안전 점검과 문제 해결 능력, 위험성 평가 능력을 평가한다.

둘째, 현장안전점검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소방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5일 과정, 총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지방소방학교에 도입하여 일관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안전점검관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포괄적으로 학습하도록

록 구성한다. 이론 과정은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주요 안전관련 법률, 규정, 지침을 이해하고, 위험관리 시스템 설계 및 실행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건물 및 연기의 특성을 읽어내는 방법, 유해 에너지의 식별 및 제어, 소방대원의 안전상태 점검 등 상황인식 능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로서 사고 현장에서의 체크리스트 작성법과 지휘관 및 팀원과의 협력, 의사소통 방법 등을 학습한다. 실습 과정은 다양한 사고 현장을 재현하여 현장안전점검관으로서의 임무 수행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실습 항목에는 현장상황 평가, 안전책임자 역할 수행, 위험 요소 파악 및 통제, 활동중지권 선언을 통한 위험 상황관리 등이 포함되며, 각 과정에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적인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른다. 또한, 사고 후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중심의 학습을 강화한다. 교육과정 종료 시에는 이론과 실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 점수를 충족한 수료자에게 이수증을 부여한다. 평가 항목에는 현장안전점검관의 핵심 역할에 대한 이해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지휘관과의 협력 및 소통 능력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안전관리자로서의 자격과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셋째,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현장 안전점검관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특수재난의 증가로 인해 재난의 양상과 대응 요구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다수사상자가 발생하며 급작스러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순간 증폭형 재난으로 발전했다. 인천 전기차 화재에서는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렸으며, 주민을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러한 특수재난의 빈도 증가에 따라 소방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특수재난에 대응하기 위

해 실화재 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화재 훈련은 화재 현장을 재현하여 소방대원이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화재 훈련은 인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훈련 교관과 교육생 모두 일정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훈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훈련 장소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전 계획이 필요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안전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함승헌 외, 2021). 또한, 소방지휘관의 독립적 지휘권과 지휘역량 강화가 요구된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서 독립적 지휘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휘능력이 부족한 경우, 초기대응이 지연되고 통합적인 재난관리 체계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소방조직 내부와 언론, 재난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으며, 지휘관의 체계적 훈련과 안전 지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손원배, 2023). 지휘관이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휘 및 의사결정 훈련과 현장 리더십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의 정확성 및 통합 지휘체계의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특수재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상철,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재난현장의 위험노출과 직무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41-148쪽.
- 박원호, 「소방공무원의 리더십 특성이 현장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재난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Disastronomy』 1권 2호, 2018, 41-65쪽.
- 소방청, 『2024년 소방청 통계연보』, 소방청, 2024.
- 손원배, 「재난현장 소방지휘관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휘능력지표 개선에 관한 연구」, 『안전문화연구』 21권, 2023, 181-200쪽.
- 손은수·박태선·김종락·윤명오, 「소방공무원 현장안전을 위한 무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7권 1호, 2013, 60-65쪽.
- 양기근·유현희·전병순·이주호, 「재난현장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전국 7개 광역시·도 소방공무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1권 5호, 2015, 69-94쪽.
- 양병화, 『다변량 자료 분석의 이해와 활용』, 지학사, 2002.
- 우재봉·신호준·백민호, 「재난현장 대응체계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의식조사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9권 3호, 2013, 276-281쪽.
- 이병남, 「소방공무원 현장안전현황 실태조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35-36쪽.
- 이성근·고경석·송성욱·강경원, 「설문 조사를 통해 알아본 재난현장 구급 대응 훈련 분석」,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34권 6호, 2020, 135-141쪽.
- 함승한·최신웅·오동진, 「소방 실화재 훈련 중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호흡성분진의 특성」, 『소방안전연구』 2권 1호, 2021, 175-184쪽.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현장안전점검관에 대한 이론적 탐색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의 결과 안전프로그램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점검관 리더십, 점검관 전문성, 점검관 자격제도, 위험요인 전파 순으로 소방현장안전점검관의 역량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안전사고 분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현장 안전점검관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현장안전점검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소방 현장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방현장 안전점검관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제어 ● 소방현장안전점검관, 역량 강화, 리더십, 전문성, 자격제도

■ Abstract

A study on the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he competency of fire safety inspectors

Chae, Jin /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mpirical survey of firefighters on factors affecting the capabilities of fire safety inspectors through theoretical exploration and analysis of prior research on fire safety inspectors, and to suggest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fire safety inspectors based on the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safety programs were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followed by inspector leadership, inspector expertise, inspector qualification system, and risk factor dissemination as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capabilities of fire safety inspectors. However, the safety accident analysis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fire safety inspectors, a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and a new on-site safety inspector training course should be established to systematically train professional personnel who can manage and strengthen safety at fire sites. The capacity of fire safety inspectors must be strengthened to respond to the changing environment.

Keyword • Fire Safety Inspector, Capacity Building, Leadership, Professionalism, Qualification System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의 효과*

고 은 영 · 조 민 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최근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가 심화 되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과의 조화로운 공존이 주요한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250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총인구 대비 4.8%에 달하는 숫자이다(법무부, 2023). 한국 사회는 결혼 이주민, 이주 노동자, 유학생 등의 여러 다양한 국적과 인종, 민족 구성원의 증가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 세대 간 차이, 사회경제적 지위, 장애, 종교, 성별 등의 문화적 정체성 요소를 포함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 본 논문은 2024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 고은영(제 1저자)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조민아(교신저자) 한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겪는 급격한 변화와 적응 과정에의 요구는 상담자들에게도 나타났다.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 다문화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김민환, 2010; 김춘희, 손은령, 2014; 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Sue, Arredondo, & McDavis, 1992; Sue & Sue, 2015; Sue, & Torino, 2005). 오은경 등(2016)의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상담 연구의 주제는 결혼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 등에 초점을 둔 상담 성과연구, 성격 및 적응연구 등이 주축을 이루어 왔다. 한편, 최근에는 다문화 상담 관련한 다양한 척도 개발(김미진, 김경은, 임정하, 2019; 김태완, 조운용, 이연옥, 이혜진, 2016; 이영란, 2021), 인종이나 민족적 차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구(김진이, 2017), 사회정의 상담을 비롯하여 상담자들의 다문화 역량 연구 등 그 범위가 다양해졌다(임은미, 강혜정, 구자경, 2018; 정지선, 2020)

예비 상담자를 교육하는 대학에서도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요구에 따라,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 교육을 통해 상담심리학 전공 학생들을 다문화적으로 유능한 예비 상담자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라영안, 2022). Pressly, Parker와 Jennie (2001)는 Sue 등(1992)이 제안한 다문화 상담 역량 모델을 토대로 한 다문화 역량 수업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지, 정서 및 행동 수준에서 자기 인식, 다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적절한 개입 기술이 다문화 상담 수업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다. Sue 등(1992)은 다문화 상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비 상담자 학생이 자신의 가치, 편견, 정체성 등을 인식하고, 선입견 없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내담자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해하며, 그러한 내담자와 효과적으로 상담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기법과 전략을 익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다문화 상담 수업의 구성 요소로 적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다문화 상담 역량을 증

진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한편, 정지선(2018)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수업에 적용 가능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외국에서 집단간 대화가 다문화 교육을 위해 고안되고 시행되어 온 지 30년이 넘었으나(Zúñiga & Nagda, 1993), 국내 다문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을 제안하고, 이를 실행하여 효과를 확인한 경우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의 다문화 상담역량인 자기인식과 다문화에 대한 정의적 태도,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 대한 지식, 그리고 다문화 상담의 실제 기술을 함양하는데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시행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다문화 상담 수업 중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양적 및 질적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상담 수업 중 이루어진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심리전공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다문화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태도 및 행동 의도,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receptivity)은 사전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졌는가? 둘째, 다문화 상담 수업 중 이루어진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담심리전공 학생들의 다문화 상담역량, 즉 다문화에 대한 인지, 정서, 행동은 변화하였는가?

2.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상담 역량

미국에서는 다문화 상담을 개념화하는데 바탕이 되는 다문화 상담역량 모델(Sue et al., 1992)을 시작으로 다문화 상담역량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다문화 상담역량이란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들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하여 상담자가 갖춰야 할 역량으로 인지, 정서, 및 행동의 세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Sue et al., 1992). 첫 번째 인지는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편견에 대한 자기 인식(awareness)과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의 세계관에 대한 지식(knowledge)을 의미한다. 두 번째, 정서는 다문화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적인 반응과 태도를 포함하는 정의적 영역(affect)을 의미한다(Sue & Sue, 2015). 마지막으로 행동은 상담자가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 기술(skills) 및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임은미, 강혜정, 김성현, 구자경, 2018; Sue et al., 1992; Sue, & Torino, 2005).

다문화적으로 역량을 갖춘 상담자란 자신의 고유한 사회문화적 정체성 및 특성을 이해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잘 알고 그들을 적절하게 잘 도울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상담자를 의미한다(라영안, 2022). 이러한 다문화적으로 유능한 상담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상담을 가르치는 상담 교수자들은 예비 상담자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왔다(김태선, 신주연, 2020; 라영안, 2022; 정지선, 2018).

라영안(2022)은 예비 상담자를 위한 다문화 상담 교육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대학원 과정에서의 다문화 상담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결과, 다문화 상담 수업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으로 첫 번째, 다문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다문화 주제(예를 들어, 문화적 정체성과 편견, 특권, 성적지향, 젠더 이슈, 사회경제적 지위, 마이크로 어그레션 등의 주제가 있다) 선정, 두 번째로 예비상담자들의 자기인식 혹은 자기이해, 세 번째로는 저항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란 반구조화된 집단 안에서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다문화적 이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때 서로 논쟁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깊이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정지선, 2018; Zúñiga, Naagda, & Sevig, 2002; Zúñiga, Naagda, & Cytron-Walker, 2007).

정지선(2020)은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미국 테네시 대학교의 과학자-실무자-옹호자 모델을 기초로 하여 석사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다문화 상담자 교육과정의 이론 수업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과 차별적 현상 및 이론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이나 배경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 기술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며, 마지막으로 실습 수업을 통해 실질적인 다문화 역량을 발달 시키도록 제안하였다.

집단 간 대화를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해 수업 시간에 적용해 본 Zeleke, Karayig̃it과 Myers-Brooks(2018) 연구도 마찬가지로 대학원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자기 주도 학습 전략을 활용하여 다문화 상담 역량(인식, 지식, 기술) 증진을 위한 다문화 상담 수업을 이수한 대학

원생들의 다문화 역량이 증진되었는지를 양적, 질적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세 연구는 모두 대학원에서의 예비 상담자를 위한 다문화 상담 수업에 대한 제안으로 학부생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아쉬움이 있다.

정지선의 연구(2018)에서는 7주에서 12주 동안 진행되고 같은 집단원을 매주 두 시간씩 만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Zúñiga 등(2007)이 고안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1단계(2~3회기) 관계 형성하기, 2단계(3~4회기 소요), 차이점과 공통점 탐색하기, 3단계 논쟁주제 탐색하고 토론하기(3~5회기 소요), 4단계 행동 계획하기 협력자 구축하기(2~3회기 소요)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7~12주간 집단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일일 집단 대화 워크숍의 형태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제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이 북미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나 국내에서의 효과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다문화 상담역량을 증진하고자 하는 다문화 상담 수업에서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참여하게 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H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부생 중, 3학년 전공 선택 과목인 ‘다문화 상담’ 수강생(N=43)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수업 오리엔테이션 시 연구 목적(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 참여 및 효과성 연구)과 절차(사전-사후 검사,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작성)를 설명하고 참여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여 연구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 참여는 강제성이 없으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2) 프로그램 구성

상담 전공 학부생의 다문화 관련 핵심 역량(예: 내담자 대상별 이해, 문화 및 사회변화 이해 등)(조남정, 2016) 함양을 목표로, 본 연구를 위해 다문화 상담 수업에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IGD)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다문화 역량을 교육하기 위해서 다문화 상담 수업 프로그램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 자신의 가치관, 편견, 특권, 선입견 등과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2) 편견 없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3) 다양한 내담자들을 효과적으로 상담하기 위한 연습을 해보는 것이다(Pressly et al., 2001; Sue et al., 1992). 대부분의 대학교육과정 내 과목들은 인지적이고 지적인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다문화 상담 수업의 경우는 자기 인식(self-awareness)이 지식 및 기술의 습득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Sue, & Sue, 2015), 즉, 다문화 상담 수업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과정 간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Hladik, 2011). 특히 다문화 상담 수업에서는 참여 학생들의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적 대화와 자기 성찰(reflection) 내용의 비중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Yoon, Jérémie-Brink, & Kordesh, 2014; Zeleke et al., 2018).

본 연구에서 다문화 상담 수업 중 이론 수업과 더불어 학생들의 상호작용적이면서 자기성찰적인 참만남(encounter) 대화에의 직접적인 참여경험이 필요하고도 중요할 것으로 여겨, 다문화 상담 교육의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Zúñiga, Naagda, & Sevig, 2002; Zúñiga, Naagda, & Cytron-Walker, 2007).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의 다문화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기

초로 하였다.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 편견과 선입견 등에 대해 진솔하게 개방하고 논쟁하지 않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나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을 이해할 수 있는 대화 기술을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 중 Zúñiga 등(2002), Zúñiga 등(2007), Schmidt, Earnest와 Miles(2019)의 연구와 정지선(2018)이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업에 적용가능 하도록 제시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6회기로 구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 방식 중 특기할 만한 것은 4~5명이 한 조가 되어서 대화를 나눌 때, 각 집단은 서로 문화적 배경(성별, 나이, 국적, 인종, 전공 등)이 다양하도록 매회기 집단을 교체하며 가능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도록 하였다. 1회기 문화적 정체성 이해하기에서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소개하고 집단에서 나눔으로써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및 나와 문화적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2회기 편향과 특권 인식하기에서는 자신의 편견, 선입견, 특권 의식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3회기부터 5회기까지는(다문화적 관계맺기, 대화하기, 사례 개념화하기) 본격적으로 다문화 상담 기술을 적용하고 연습해보는 단계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 사례(탈북자, 성소수자, 결혼 이주민 등)를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잠재적 내담자와 관계맺기, 대화하기, 상담 사례를 개념화하는 연습을 통해 다문화 상담 기술을 연습해보도록 하였다. 마지막 6회기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행동을 성찰하고 문화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다짐을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의 세부 구성 내용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의 효과 | 고은영·조민아

[표 1]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 구성

회 기	구 성 요 소	목 표	활 용 내 용
1	문화적 정체성 이해하기	• 자기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한다. •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한다.	• 집단간 대화 소개/집단간 대화 규칙 소개 •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소개하고 나누기
2	편향과 특권 인식하기	• 자신이 가진 편향, 선입견, 고정관념, 특권 인식한다.	• 타인이 속한 집단에 대해 부정적이고 단순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탐색해보고 나누기 • 내가 누려온 특권 스스로 탐색해보고 나누기
3	관계 맺기 연습	•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담자와 관계맺기 연습을 한다	• 내담자(탈북자 대학생 사례)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상담자가 되어 자신을 소개해보기 • 내담자가 무시나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내담자를 환영함을 보여주기 •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에게 상담을 구조화하기 •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가 직면한 어려움을 탐색해보기
4	대화 하기 연습	•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상담 기술을 연습한다.	• 성소수자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공감 연습하기 • 결혼 이주민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질문, 재진술, 감정 반영 연습하기
5	다문화적 사례 개념화 연습	•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의 문제를 개념화하고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연습한다.	•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를 이해할 때 내담자의 현재 문제와 문화적 정체성, 문화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내담자를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보기
6	다문화 상담 수업을 통한 영향 성찰	• 다문화 상담 수업을 통한 영향을 성찰하고 문화적 민감성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 경험을 스스로 탐색해보기 • 상담자의 문화적 측면(특권, 사회경제적 배경, 문화적 정체성)이 상담 수행에 미치는 영향 탐색해보기 • 다문화 상담 수업에서 도움된 점, 아쉬운점 정리해보기 • 문화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탐색해보기

3) 연구 도구

상당심리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상담역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다문화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태도 및 행동 의도,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receptivity) 측정 도구를 선정 하였다. 각 측정 도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

다문화 감수성은 Chen과 Starosta(2000)가 개발하고 김옥순(2008)이 변안한 다문화 감수성 척도(IS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상호작용에의 참여’, ‘문화 간 차이존중’, ‘상호작용에의 자신감’, ‘상호작용 향유’, ‘상호작용에 대한 주의’의 5개 하위 요인,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 간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 차이를 존중하며, 상호작용에서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주의를 기울이는 등 다문화 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정혜인, 김진영, 2018)에서는 하위 요인별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67~.79 범위였으며, 전체 신뢰도는 .88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상호작용 참여’ .833, ‘문화차이 존중’ .610, ‘상호작용 주의’ .752, ‘상호작용 향유’ .661, ‘상호작용 자신감’ .850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890으로 나타났다.

(2)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정의적, 행동 의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인지적 태도(K-QDI-cognitive): Ponterotto 등(1995)이 개발하고 Baek 등(2021)이 변안한 한국판 신속차별척도(K-QDI)의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다양성을 인

정하고 관련 문제에 민감하며 인종적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Baek et al., 2021)에서 QDI 인지 및 정의적 태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인지적 태도의 신뢰도는 .758이었다.

정의적 태도(K-QDI-affective): 위와 동일한 K-QDI의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7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인종/민족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편안하게 여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적 태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21이었다.

행동 의도적 태도(K-BII): Esses와 Dovidio(2002)가 개발하고 Baek 등(2021)이 번안한 한국판 행동의도지수(K-BII)를 사용하였다. 총 12개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종/민족적 소수자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행동의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백근영, 2019)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0이었다.

(3)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Receptivity)

박혜숙과 원미순(2010)이 개발하고 박혜숙(2013)이 대학생 대상으로 타당화한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 정의, 행동의 3개 하위 변인, 총 38문항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박혜숙, 2013)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변인별로 인지 .834, 정의 .865, 행동 .887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947로 나타났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singl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2023년 1학기, D광역시 H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다문화 상담’ 수업 중에 총 6주간(주 1회, 회기당 75분) 진행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매주 프로그램 참여 전 관련 이론 동영상 강의를 통해 사전 학습을 하였다.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시작 전 오리엔테이션 후 주요 변인(다문화 감수성,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매 회기 종료 후 참여자들이 성찰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이 모두 종료된 직후, 사전 검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5) 자료분석

(1) 양적분석

수집된 양적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된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의 정규성 분포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s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변인(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서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변인(다문화 감수성)에 대해서는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여 효과 크기와 함께 평균 차이를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2) 질적분석

가. 내용분석

다문화 상담실습 대화 프로그램 실시 이후 작성한 소감문 자료에 대해 Elo와 Kyngas(2008)의 질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범주화하여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Elo와 Kyngas(2008)는 준비, 조직화, 보고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질적 자료의 내용 분석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한다. 본 연구 자료는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 실습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지적 이해, 정서적 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행동적 측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시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면서, 다문화 상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나요?’ ‘오늘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무엇이 있었나요?’ ‘오늘 집단간 대화 실습을 해보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오늘 집단 간 대화 주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행동을 더 하려고 마음 먹었나요?’. 이러한 질문은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 수업 내용에 근거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험 영역에 대한 연역적 구분으로 학생들이 수업 중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험하고 변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았다. 이후, 각 영역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실제적 경험에 대해서는 드러나는 의미 단위를 숙고하여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귀납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조직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소감문을 주의 깊게 읽고, 의미 있는 단어, 구절, 문장을 요약하는 축소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범주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위 범주를 구성하고 하위 범주를 다시 상위 범주로 묶어 범주체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범주 체계를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결과를 종합하였다.

나. 빅데이터분석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 참여 후 작성한 소감문의 질적 자료 분석을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TEXTOM 을 통하여 빈도분석, TF-IDF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서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감성어 분석 등을 수행하여 질적자료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빈도 분석은 학생들의 진술문 내에서 특정한 단어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은 특정 단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TF-IDF 분석은 단어의 빈도와 역문서 빈도를 조합하여 특정한 단어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분석이다. 인식이나 행동 변화에 대한 분석은 단어의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와 상대적 중요도의 의미가 중요할 것으로 보아 해당 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성 분석은 분석 자료에서 나타나는 정의적 태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텍스트에 탑재된 감성어휘 분석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자료의 감성어휘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비율과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였고 참여자들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해당 분석을 수행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D광역시 H대학교 상담심리학과 3학년 전공 선택 과목인 ‘다문화 상담’ 수강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모두 완료한 43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참여자들의 사전-사후 양적 설문 응답 자료와 프로그램 중 작성한 성찰 소감문(질적 자료)이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43명 중 여성 36명(83.7%), 남성 7명(16.3%)이었고, 학년은 3학년 31명(72.1%), 4학년 12명(27.9%)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는 20세에서 24세 사이로, 20세 (37.2%),

21세 (23.3%), 22세 (25.6%) 순이었다.

2)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 효과성 양적 분석

(1) 기술통계

프로그램 참여 전후 주요 측정 변인(다문화 감수성,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감수성은 사전 검사에서 $M=3.69$ ($SD=0.47$), 사후 검사에서 $M=4.15$ ($SD=0.35$)로 나타났다.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는 사전 $M=3.54$ ($SD=0.49$)에서 사후 $M=3.92$ ($SD=0.47$)로, 다문화 수용성은 사전 $M=3.96$ ($SD=0.42$)에서 사후 $M=4.26$ ($SD=0.43$)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의 왜도와 첨도 절대값은 3 미만으로 정규성 분포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

[표 2]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태도와 행동, 다문화수용성 척도의 기술통계

변수	측정 시기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다문화 감수성	사전	실험집단	43	3.6928	.46629	-.847	2.107
	사후	실험집단	43	4.1463	.34520	-.433	.148
인종/소수자에 대한 태도	사전	실험집단	43	3.5400	.49430	-.479	.593
	사후	실험집단	43	3.9171	.47120	-1.406	2.551
다문화 수용성	사전	실험집단	43	3.9602	.41918	.007	-.923
	사후	실험집단	43	4.2570	.42719	-.269	-.652

(2) 정규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태도, 수용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수가 50보다 적었기 때문에, 왜도와 첨도의 정규성 조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Shapiro-Wilks

검정을 통해 작은 표본에서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각 변수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해 Shapiro-Wilks 검정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감수성은 유의 확률(p-value)이 0.05보다 작아 귀무가설(데이터가 정규분포를 따른다)을 기각하므로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했으며(Shapiro-Wilks 검정, $p = .031$),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Shapiro-Wilks 검정, $p = .414$)와 다문화 수용성(Shapiro-Wilks 검정, $p = .154$)은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 감수성의 사전-사후 차이 검증에는 비모수 검정인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나머지 두 변수에는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3) 주요 변인별 효과 분석

가. 다문화 감수성에 대한 비모수 검정

다문화 감수성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Wilcoxon 부호 검정(signed-rank test)을 수행하였다. 다문화 감수성의 사전-사후 점수 간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Z = 4.978$, $p < .001$). 기술통계에 따르면, 사후평균(4.15 SD = $.345$)은 사전평균(3.69 , SD = $.47$)보다 높았다. 또한, 효과 크기를 계산한 결과 $r = .76$ 으로 나타나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의 다문화 감수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차이 검증

참여자들의 인종 및 소수자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태도와 행동 의도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태도와 수용성 모두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구체적으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이는 0.37717 ($t(42) =$

6.166, $p < .001$)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후 검사에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유의하게 긍정적으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수용성 사전 점수와 다문화수용성 사후 점수의 차이는 0.29682 ($t(42) = 5.135$, $p < .001$)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후 검사에서 다문화수용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표 3].

[표 3] 인종/소수자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태도 및 행동, 다문화수용성의 차이

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신뢰구간		t	자유 도	유의 확률 (양측)
				하한	상한			
인종/소수자에 대한 태도 사후 -	.377	.401	.067	.254	.501	6.166	42	.000
인종/소수자에 대한 태도 사전								
다문화수용성 사후 -	.296	.379	.058	.180	.413	5.135	42	.000
다문화수용성 사전								

3)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 효과성 질적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들이 작성한 소감문 중 다문화 상담 실습 회기인 3, 4, 5회기와 6회기 최종 성찰 소감문 보고서가 질적 내용 분석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을 질문에 따라 인지적 이해 영역, 정서적 경험 영역, 행동 변화에 대한 기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 참여 후 인지적 이해의 변화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적 이해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새롭게 알게

된 점’,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 등에 대한 소감문 응답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인지적 경험은 ‘나를 보게 됨’, ‘타인을 보게 됨’, ‘상담자로서의 나를 보게 됨’의 3가지 상위 범주와 10개의 하위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각 범주별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다문화 상담에 대한 인지적 이해 내용분석

의미단위의 예시와 인용문	하위 범주	상위 범주
나도 편견이 있었구나 “나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경각심이 강하게 드는 경험이었다.”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인식	나를 보게 됨
무작정 그냥 넘기는 나 “사실 나는 스스로가 다른 문화에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정말 이해한 후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만 인식한 후에 그냥 넘기는 걸 알게 되었다.”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상담자가 되어가는 나 “내담자 역할로 임했던 상담에서 상담자가 질문을 할 때 나의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서인지 대답을 똑바로 해내지 못했고...내가 상담사일 때 내담자와 문화적 차이가 있을 때 내담자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상담 진행에 문제가 될 방향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상담자로서의 자질에 대한 인식	
정보도 공감도 부족한 나 “탈북민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고 공감하기도 어려웠다.”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	
강점을 상담에 활용하는 나 “생각보다 내 주변엔 장애, 외국인, 성소수자 등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경험이 있어서 그들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고 생각해본 것처럼 보였다.”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인식	
그 입장에서 비로소 보이는 고통 “탈북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주는 기회를 기쁘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문화 배경 속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있는 그대로 다름을 받아들이기 “다문화 상담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 차별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문제를 생각했다. 그러나 다문화 상담을 오는 모든 내담자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문화적 차이와 다름에 대한 이해	타인을 보게 됨
머리에서의 이해로부터 빠져린 경험으로 “이론적인 수업에서도 언급되었으나, 빠져리게 체험되지 않았던 부분이지가 새로이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게 되었다.”	개인의 고유한 경험에 대한 이해	
공감자 및 관계 형성자로서 성장해야 할 나 “사회속에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게 쉬운게 아닌데 내담자와 상담자로 만나면 더 어렵다고 느꼈다.” “나의 기준에서는 공감하는 것이어도 내담자에게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도 들었고, 혹시나 차별적인 발언은 아닐지 걱정도 됐다.”	공감과 관계 능력의 필요성 인식	상담자 로서의 나를 보게 됨
경청과 관찰을 통한 집중자로서 성장해야 할 나 “요즘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핸드폰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경청 및 관찰 능력의 필요성 인식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해해야 할 나 “다문화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에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문화적 지식의 필요성 인식	
편견과 선입견을 경계해야 할 나 “다문화 상담은 내담자와의 의사소통부터 문화적 배경과 그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을 포함하여 상담자가 더 많은 정보를 고려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방적 태도와 인간 존엄성의 필요성 인식	

(2)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 참여 후 정서적 경험

‘다문화 상담 실습 중 느낀 감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소감문 응답을 통해 정서적 경험을 파악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 참여자들이 보고한 정서적 경험은 크게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기타 경험의 세 가지 상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각 상위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하위 범주(예: 긍정적 경험-공감과 이해, 성장과 뿌듯함 등) 및 관련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다문화 상담 실습 후 정서적 경험 내용 분석

의미단위의 예시와 인용문	하위 범주	상위 범주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게 됨 “대화를 나누면서 성소수자인 나의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났다. 친구들은 본인의 정체성을 밝히기까지 힘들거나 두려움은 없었을까? 나에게 말할 때는 힘들지 않았을까? 나의 반응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았을까?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많이 들었다.”	공감과 이해	긍정적 경험
비로소 조금씩 배워나가며 통찰력이 생겨남 “IGD를 6번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내담자, 상담자, 관찰자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배워나갔던 계기가 되었다. 또한, 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내가 당연히 여기던 고정관념과 차별적인 생각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 것 같아 뿌듯한 1학기라고 생각했다.”	성장과 뿌듯함	긍정적 경험
새로운 경험과 생각들 “실습을 하면서 우린 다양한 문화적 사람들을 많이 접하고 또한 그들을 만나고 겪는 많은 경험과 생각들이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경험	
여전한 편견에 불안하고 두려워짐 “나에겐 아직 내가 모르는 편견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계속 모르고 행동 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과 그래도 조심하고 잘 해쳐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려움과 불안	
판단과 평가를 내려놓지 못함을 마주함 “다문화상담 마지막 수업이 끝나갈 때쯤 교수님이 하신 말씀에 뒤통수를 맞은듯했다. ‘가치관이나 태도보다 내담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내담자를 판단하고 평가하면 내담자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한 학기동안 이 태도를 배워야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야 깨달게 되어 아쉬우면서도,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느꼈다.”	당혹감과 막막함	부정적 경험
스스로의 부족함에 좌절과 아쉬움을 느낌 “사실 다문화상담을 수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인식하는 것에 오래 걸렸고,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지막 대화라는 게 아쉬웠다.”	좌절감/아쉬움	
많은 변화를 깨닫고 놀람 “다문화 상담을 수강하면서 자신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되었다.”	놀라움	기타 경험

다양한 소수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지적장애인을 대할 때 불편함이 있는 건 공감이 되었지만, 덩치가 큰 남성의 지적장애인이 다가올 때 잠깐이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장애를 떠나, 덩치가 큰 남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건데 어떠한 경험을 통해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됐을지 생각하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것 같다.”

안타까움

기타
경험

이해되지 않거나 공감되지 않을 때의 답답함

“이성 관계에서의 친구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잠시 답답함도 느꼈었고 그 외에도 특정 종교를 가진 문화적 배경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땐 공감이 되었습니다.”

답답함

또한 정서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감성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감성어 분석에서 긍정적 감정 단어보다 ‘어렵다’, ‘힘들다’, ‘아쉽다’, ‘부족하다’, ‘답답하다’와 같은 부정적 감정 단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상담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실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긍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서도 성장과 변화의 순간들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정서적 경험과 관련하여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TF-IDF 키워드는 ‘내담자’, ‘상담’, ‘사람’, ‘역량’, ‘이야기’ 등이었다.

[표 6] 다문화 상담실습경험 감성어 분석

감성 분석(총 953)			
긍정 241 / 25.29%		부정 712 / 74.71%	
긍정단어	빈도(%)	부정단어	빈도(%)
긍정적	2.10	어렵다	14.90
뿌듯하다	1.78	힘들다	6.30
흥미롭다	1.68	아쉽다	3.78
새롭다	1.57	부족하다	3.57
즐겁다	1.26	답답하다	3.15

(3)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 참여 후 행동적 변화

실습 주제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행동을 더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소감문 응답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후 행동 변화 의지 및 다문화 민감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내용 분석 결과, 학생들의 응답은 크게 ‘지식 및 경험 증진’, ‘자기 성찰’, ‘공감 및 의사소통’, ‘사회적 책임’의 네 가지 상위 범주와 11개의 하위 범주로 분류되었다. 각 범주별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다문화 상담 실습 후 행동 변화 및 다문화 민감성 변화 내용 분석

의미단위의 예시와 인용문	하위 범주	상위 범주
상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앞으로 수업과 실습을 해서 상담능력을 길러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더 길러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문화 상담 역량 강화	지식 및 경험 증진 영역
다문화 상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상담심리에서 배우는 내용을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닌 많은 사례에 적용해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다문화 관련 지식 습득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노력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다문화 관련 경험 추구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사례들을 접해보면서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방적인 태도	자기 성찰 및 편견 개선 영역
자신에게 내재된 편견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내가 가진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기 성찰	
내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 “나의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해 친구의 고민 상담을 통해 공감해주는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 영역

다문화 상담에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연습하려는 노력 “다문화 상담에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고 연습할 것이다.”	의사소통 기술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하는 마음 “만약 내가 내담자나 상담자 역할을 맡아도 똑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정말 힘들고 고민거리가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내 주변에도 다문화 친구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문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다문화 사회 적응 지원	사회적 책임감 영역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차별과 편견을 줄이기 위해 노력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상담 기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	

또한, 행동 변화 및 다문화 민감성 관련 소감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단어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TF-IDF 분석에서 ‘문화’, ‘내담자’, ‘상담’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특히, 빈도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문화’, ‘내담자’ 뿐만 아니라 ‘경험’, ‘소수자’, ‘역할’, ‘문제’ 등의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향후 행동 변화를 계획함에 있어, 상담자로서의 ‘역할’과 실제 ‘경험’에 기반하여 ‘내담자’, 특히 ‘소수자’ 내담자를 대하는 방식과 ‘문화’적 요인 및 관련 ‘문제’들에 대해 깊이 숙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통합적으로 확인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참여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했다. 질적 분석은 이러한 양적 변화가 참여자들의 인지적 확장(자신, 타인, 상담자 역할 인식), 정서적 성찰(긍정적/부정적 감정 경험), 그리고 행동 변화 의지(지식/경험 증진, 자기 성찰, 소통 기술 향상, 사회적 책임감 인식) 라는 심층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목표로 설계된 집단 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다문화 감수성,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지적·정의적 태도 및 행동 의도, 다문화 수용성의 변화를 양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중 다문화 상담 실습 참여 소감문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여 양적 변화의 구체적인 양상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 참여 후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수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다문화 관련 인식, 태도, 수용성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 수련생 대상 문화적 역량 증진 프로그램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구자경 등(2020)의 연구,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성인의 다문화 역량에 큰 효과 크기를 나타냈다고 밝힌 강민희 등(2023)의 메타분석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다문화 상담 수업에 집단 간 대화를 적용하여 인식과 지식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한 Zeleke 등(201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된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은 예비 상담자들의 다문화 민감성을 높이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을 증진하며, 소수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는 데 효과적인 교육 방안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다문화 상담 역량의 구성 요소를 인지, 정서 및 행동 수준으로 개념화한 Pressly 등(2001), Sue 등(1992)의 모델을 적용한 집단간 대화

(intergroup dialogue) 프로그램이 상담심리 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상담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적 인식과 이해와 관련한 인지적 측면, 정서적 경험 측면, 수업을 통해 변화할 것으로 생각하는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질적 내용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 결과 3가지 상위 범주와 10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다문화 상담역량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으로는 ‘나를 보게됨(자신에 대한 인식-편견, 한계, 강점 등)’, ‘타인을 보게됨(타인에 대한 인식)’, ‘상담자로서 나를 보게됨(예비 상담자로서의 역할 인식)’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정서적 측면으로는 ‘공감’, ‘성장’, ‘새로움’ 등의 긍정적 경험과 더불어 ‘두려움’, ‘불안’, ‘당혹감’, ‘좌절감’ 등 부정적 정서 경험도 보고되었다. 특히 감성어 분석 결과, 부정적 감성 어휘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문화 상담 실습 과정이 기존의 인식 체계에 도전하고 자신의 편견을 마주하는 불편함을 동반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 경험은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처럼, 기존의 도식과 새로운 정보 간의 불균형 상태를 통해 새로운 학습과 적응이 일어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정서적 불편감은 다문화 역량 증진을 위한 성장의 일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행동적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후 다문화 관련 ‘지식 및 경험 증진 노력’, ‘자기 성찰 및 편견 개선 의지’, ‘공감 및 의사소통 기술 향상 추구’, ‘사회적 책임감 인식 및 실천 다짐’ 등의 변화 의지를 나타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문화’, ‘내담자’, ‘경험’, ‘소수자’ 등의 키워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 참여자들이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며 내담자, 특히 소수자 내담자를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행동 변화를 계획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은 Sue 등(1992) 과 Pressly 등(2001)이 제시한 다문화 상담 역량 모델에 기반하여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이론 학습과 더불어 상호작용적 대화와 성찰을 강조하는 집단 간 대화 방식이 예비 상담자들의 다문화 역량 함양에 필수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 교육 방안으로 집단 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지선(2020)과 라영안(2022)의 제언을 뒷받침한다. 또한, 학생들이 다문화 실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거부감, 두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것이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음을 논의한 것은, 향후 다문화 상담 교육 설계 및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충분한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상담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자 양성 과정 및 보수 교육에서 사례 중심의 실습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및 실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국내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는 다문화 상담 역량을 예비 상담자의 핵심 역량으로 강조한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 뒷받침하며, 인지·정서·행동의 통합적 접근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상담 실제적 측면에서 다문화 상담 실습 경험이 예비 상담자의 자기 성찰, 공감 능력, 문화적 민감성 증진에 효과적임을 보여줌으로써, 상담 현장에서의 실습 기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실습 과

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가 학습과 성장의 자연스러운 부분임을 밝혀, 교육자와 수련생 모두 이러한 경험을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는 현장 중심의 사례 기반 실습 교육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여, 상담 실재가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연구 방법론적 측면에서 양적 분석, 질적 내용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 과정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에서 다양한 분석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연구 결과의 풍부함과 객관성을 높여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 및 교육적·실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정 대학의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다양한 지역과 배경의 상담 전공 학생, 대학원생, 현장 상담사 등으로 확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폭넓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교 집단 없이 단일 집단의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통제 집단이나, 다문화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실습하는 비교 집단을 설정한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 고유의 효과를 분리하여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 어려움을 확인하였으나, 한국 문화 특수성(예: 집단주의, 관계주의, 특정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이러한 경험 및 다문화 역량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지는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수정하고, 문화적 특수성이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 종료 직후의 단기적 효과만을 측정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를 추적하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양적연구는 집단간 대화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의 사전- 사후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는 상담심리학 전공 학부생의 다문화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다문화 감수성과 다양한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이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다문화 상담 역량(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를 측정하기에 위 척도들은 다소 일반적 다문화 역량을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담 효능감이나 다문화 상담 기술의 변화 등을 측정 도구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은 참여자들의 심층적인 경험과 인식을 파악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의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전문가 피드백 또는 동료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분석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 상담 전문가 또는 숙련된 연구자로부터의 동료검토나 삼각검증과 같은 추가적인 신뢰도 확보 보완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법무부, 『2023년도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3.
- Sue, D. W. & Sue, D.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Theory and practice*, 6th ed., New York, NY: Wiley, 2015.
- Sue, D. W. & Torino, G. C. Racial-cultural competence: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In R. T. Carter. ed. *Handbook of racial-cultural psychology and counseling*, Hoboken, NJ: Wiley, 2005.
- Zúñiga, X. & Nagda, B. *Dialogue groups: An innovative approach to multicultural learning*. In D. Schoem, L. Frankel, X. Zúñiga, & E. A. Lewis. eds. *Multicultural teaching in the university*, Westport, CT: Praeger, 1993.

논문

- 강민희·박희진·위고운·윤성찬·김민선, 「국내·외 다문화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상담·사회복지분야의 (예비)전문가를 대상으로」, 『다문화 콘텐츠연구』 44권, 2023, 7-38쪽.
- 구자경·임은미·장은정, 「문화적 역량증진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상담전공수련생의 문화적 정체성 탐색 경험」, 『독서치료연구』 12권 1호, 2020, 1-25쪽.
- 김미진·김경은·임정하,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척도개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2권 1호, 2019, 21-45쪽.
- 김민환,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경향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0권 1호, 2010, 61-86쪽.
- 김옥순, 「한중 예비교사들의 문화 간 감수성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8권 1호, 2008, 193-217쪽.
- 김진이,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합의적 질적 연구(CQR)」,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권 4호, 2017, 605-634쪽.

- 김춘희·손은령, 「국내 다문화상담연구 현황」, 『상담학연구』 15권 6호, 2014, 2209-2223쪽.
- 김태선·신주연, 「다문화 시대의 상담자 교육: 비판적 의식과 상호교차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권 2호, 2020, 667-692쪽.
- 김태완·조운용·이연옥·이혜진, 「다문화수용성 척도의 타당성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1권 1호, 2016, 57-78쪽.
- 라영안, 「효과적인 예비상담자 다문화 상담 교육방안을 위한 질적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24호, 2022, 307-318쪽.
- 박혜숙, 「Rasch 측정모형을 사용한 대학생 대상 다문화 수용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7권 2호, 2013, 453-477쪽.
- 박혜숙·원미순, 「대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권 2호, 2010, 303-325쪽.
- 백근영, 「상담자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과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의 관계: 책임에 대한 귀인성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권 4호, 2019, 1289-1320쪽.
- 오은경·최미·최한나,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2016.7)」, 『상담학연구』 17권 5호, 2016, 223-242쪽.
- 이영란, 「다문화상담자 역량모형 개발」, 『다문화사회연구』 14권 2호, 2021, 77-122쪽.
- 임은미·강혜정·구자경, 「일반 상담역량, 다문화 상담역량, 사회정의 옹호 상담역량의 구조적 관계 및 잠재집단 탐색」, 『상담학연구』 19권 5호, 2018, 209-232쪽.
- 임은미·강혜정·김성현·구자경, 「한국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역량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9권 1호, 2018, 421-442쪽.
- 정지선,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집단 간 대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10권 4호, 2018, 33-60쪽.
- 정지선, 「다문화 및 사회정의 상담을 위한 상담자 교육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권 1호, 2020, 225-248쪽.

정혜인·김진영, 「예비유아교사의 다문화 교육이해, 다문화감수성과 다문화 교수효능감과의 관계: 다문화감수성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22호, 2018, 67-82쪽.

조남정, 「상담전공 학부생의 핵심역량에 대한 탐색적 연구」, 『상담학연구』 17권 3호, 2016, 23-43쪽.

Baek, K. Y., Seo, Y. S., Kim, A. R., & Piao, J. “Adapting “Color Blindness” to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Multicultural Minorities: Scale Developmen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49, no. 3, 2021, pp.353-390.

Chen, G. M. & Starosta, W. J.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Human Communication*, vol. 3, 2000, pp.1-15.

Elo, S. & Kyngäs, H. “Th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proces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2, no.1, 2008, pp.107-115.

Esses, V. M. & Dovidio, J. F. “The role of emotions in determining willingness to engage in intergroup conta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28, 2002, pp.1202-1214.

Hladík, J. “The relationship of the cognitive and affective element of multicultural competences”, *Pedagogika*, vol. 61, 2011, pp.53-65.

Ponterotto, J. G., Burkard, A., Rieger, B., & Grieger, I.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Quick Discrimination Index (QDI)”,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55, 1995, pp.1016-1031.

Pressly, P. K., Parker, W., & Jennie, J. “Actualizing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 multi- faceted course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ing*, vol. 23, 2001, pp.223-234.

- Schmidt, C. K., Earnest, D. R., & Miles, J. R. "Expanding the Reach of Intergroup Dialogue: A Quasi-Experimental Study of Two Teaching Methods for Undergraduate Multicultural Courses", *Journal of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vol. 13, no. 3, 2019, pp.264-273.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A call to the profess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20, no. 2, 1992, pp.64-88.
- Yoon, E., Jérémie-Brink, G., & Kordesh, K. "Critical issues in teaching a multicultural counseling cours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vol. 36, 2014, pp.359-371.
- Zelege, W.A., Karayiğit, C., & Myers-Brooks, K. "Using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to Develop Students'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development*, vol. 46, 2018, pp.40-57.
- Zúñiga, X., Naagda, B. A., & Cytron-Walker, A. "Intergroup dialogue in higher education: meaningful learning about social justice", *ASHE Higher Education Report*, vol. 32, no. 4, 2007, pp.1-128.
- Zúñiga, X., Naagda, B. A., & Sevig, T. D. "Intergroup Dialogues: An Educational Model for Cultivating Engagement Across Differences",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vol. 35, no. 1, 2002, pp.7-17.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담심리학 전공 학부생의 다문화 상담 역량 증진을 위한 집단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IGD)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다문화 상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D 광역시 소재 H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 다문화 상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51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4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6회기로 구성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해 다문화 감수성,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인지적, 정의적 태도 및 행동 의도, 다문화 수용성 척도를 사용하여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후 작성된 소감문을 질적 내용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빅데이터 분석(단어 빈도, TF-IDF, 감성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양적 분석 결과, 집단간대화 프로그램 참여 후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 감수성, 인종/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사전 검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질적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인지적으로 자신과 타인, 상담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으며('내담자', '상담', '문화' 키워드 중요도 부각), 정서적으로는 공감, 성장 등 긍정적 경험과 함께 두려움, 불안 등 성찰을 위한 정서적 불편감을 경험하였다. 행동적으로는 다문화 관련 지식/경험 증진, 자기 성찰, 소통 기술 향상, 사회적 책임감 인식 등 변화 의지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심리 전공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이 다문화 감수성, 태도,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다문화 상담 역량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 증진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문화 상담자 양성 과정에서 경험적·성찰적 학습 방법으로서 집단간 대화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과 교육적 의의를 시사한다.

주제어 • 다문화 상담역량, 집단간 대화(Intergroup Dialogue),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생, 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혼합연구

■ Abstract

The Effects of Intergroup Dialogue Program for Multicultural Competency Enhancement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Koh, Eunyong / Woosuk University

Cho, Mina /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n Intergroup Dialogue program designed to enhance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of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Participants were 43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psychology at H University in D Metropolitan City, selected from 51 students enrolled in a multicultural counseling course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Participants engaged in a 6-session Intergroup Dialogue program. Pre- and post-tests were conducted using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scales for cognitive and affective attitudes towards racial/ethnic minorities, the Behavioral Intentions Index, and the Multicultural Receptivity Scale.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and big data analysis (word frequency, TF-IDF, sentiment analysis) of participants' reflection notes were also performed to explore the program's impact in depth.

Quantitative analysis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from pre-test to post-test in participants' intercultural sensitivity, attitudes towards racial/ethnic minorities, and multicultural receptivity. Qualitative analysis indicated cognitive growth in awareness of self, others, and the counselor role (highlighted by the importance of keywords: 'client', 'counseling', 'culture'). Affectively, participants reported positive experiences like empathy and growth, alongside emotional discomfort (e.g., fear, anxiety) conducive to reflection (indicated by a high frequency of negative sentiment words). Behaviorally, participants expressed intentions for change, including seeking

knowledge/experience, self-reflection,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and recognizing social responsibility.

The Intergroup Dialogue program was effective in enhancing multicultural sensitivity, attitudes, and receptivity, and promoting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aspect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among undergraduate counseling psychology students. This suggests the applicability and educational significance of Intergroup Dialogue program as an experiential and reflective learning method in counselor training programs.

Keyword •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y, Intergroup Dialogue Program, Undergraduate Counseling Psychology Students, Program Effectiveness, Mixed Methods Research

COVID-19 팬데믹 이후 좋은 사회를 위한 돌봄의 재고찰

: 공황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원리의 회복을 중심으로

박 정 승 · 강 은 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 1) 돌봄의 개념과 이론적 전개
 - 2) 공황의 특성과 돌봄
3. 좋은 사회와 공동체 원리
 - 1) 좋은 사회론
 - 2) 공황과 공동체 원리
4. 좋은 사회를 위한 돌봄의 역할과 기여
5. 구체적 정책방안과 제도적 함의
6. 나아가며

1. 서론

17세기 홉스는 인간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사회계약을 맺었다고 보았다. 루소 역시 자연 상태를 긍정하면서도 이 해관계 조정을 위해 사회 구성을 필수로 보았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개인 단위의 삶보다는 집단적 삶이 생존과 발전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학습해 왔

* 박정승 (제1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강은진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세계관의 확산과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는 전통적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점진적으로 해체시켰다.¹⁾ 퍼트넘(Putnam)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 호혜성, 시민참여 네트워크가 약화되면서 과거 공동체가 담당해오던 위험 분산과 상호부조 기능이 개인과 국가로 양분되었다. 공동체가 담당해오던 기능이 점차 개인과 국가로 이전되면서, 공동체는 본래의 역할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적 덕성이나 도덕 감정을 지닌 시민의 역할 또한 점차 약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돌봄’ 영역에서 구조적 모순을 드러냈다. 전통적으로 돌봄은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연대성(solidarity)에 기반한 집합적 책임이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성별 분업 모델에 머물렀고, 그 결과 여성은 여전히 구조적인 부담과 성차별의 이중고에 놓이게 되었다.²⁾ 육아정책연구소(2020)년 자료에 의하면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36.2%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맞벌이 가구는 49.4%, 외벌이 가구는 21.2%가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³⁾ ‘일-가정 양립 정책’은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역량 문제로 전환시켰다. 뒤르켐(Durkheim)이 제시한 사회적 연대의 약화는 돌봄의 사회화 과정에서 공동체적 지지망의 부재로 이어졌고, 결국 돌봄 부담의 재가족화를 초래했다. 이는 공동체 신뢰도가 돌봄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동체적 신뢰의 회복은 돌봄의 사회화에 있어 필수적 인프

1)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pp.18-190.

2) Jane Lewis, “Employment and Care: The Policy Problem”,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vol. 40, no. 4, 2006, p.428.

3)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2020.

라고 기능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인과적 구조로 접근되어야 한다.

COVID-19 팬데믹은 이러한 돌봄 위기의 구조적 취약성을 전면적으로 노출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공동체 네트워크의 단절은 돌봄의 사회적 기반을 더욱 약화시켰고, 개별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3,136명에서 2023년 5,415명으로 1.7배 증가했다.⁴⁾ 팬데믹 초기 서울의 무연고 사망이 1년 새 37.8% 늘어난 것도 사회적 고립과 지역 돌봄 인프라의 단절과 무관하지 않다.⁵⁾ COVID-19으로 인한 노인요양시설 내 돌봄의 공백또한 발생하였다. 코호트 격리조치로 인한 노인 감염 및 사망자 발생, 약 18.6%가 우울감 경험하였으며,요양보호사 26%가 일 중단, 그 중 70%는 가족 통보로 인한 중단과 시설 폐쇄, 서비스 중단으로 가족 돌봄 의존 또는 방치 상황 발생하였다.⁶⁾

‘더 케어 컬렉티브’는 “불평등과 부정의의 세계에서 돌봄 부재는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한 것처럼, 돌봄 위기는 단순히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자본의 고갈과 연대성 약화가 낳은 공동체 위기의 표출로 되었다.⁷⁾ 백영경은 돌봄의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연대와 자발적인 부조들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한다.⁸⁾ COVID-19 팬데믹을 통하여 우리는 사라진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돌봄의

4) 보건복지부, 『공공·돌봄 통계연보』, 2024.

5) 서울특별시, 『무연고 사망 현황』, 2021.

6) 참여연대, “코로나19로 드러난 노인돌봄공백.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연대, 2020.07.09.

7) The Care Collective, *The Care Manifesto: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London: Verso, 2021.

8) 백영경, 「탈성장 전환의 요구와 돌봄이라는 화두」, 『창작과비평』 48권 3호, 2022, 36-48쪽.

중요성과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다. 여론 역시 공동체 돌봄의 복원을 요구한다. 2020년 엠브레인 조사에서 응답자 82.2%가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0대 이상(90%)에서 특히 높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의 재사회화는 공동체의 복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콜먼(Coleman)이 강조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은 집합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재를 생산하는 핵심 자원이다. 돌봄 역시 본질적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며, 이를 지속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를 매개하는 중간 영역으로서 공동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백영경이 주장한 “새로운 연대와 자발적 부조”는 시장과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동체적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돌봄 연구는 주로 정의(justice)의 관점에서 분배와 재인정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돌봄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기반으로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는 로버트 벨라(Robert N. Bellah)가 제시한 ‘공휼(compassion)’ 개념에 주목한다. 벨라에 따르면, 공휼을 통한 상호 관심과 의존에 기반한 돌봄이 중심이 된 사회가 ‘좋은 사회’이며, 이는 정의에 기반한 ‘옳은 사회’를 포괄하는 보다 확장된 개념이다.⁹⁾

본 연구는 ‘공휼 기반 돌봄’이 개인화된 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체적 연대성을 복원할 수 있는 핵심 원리라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 당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 이론과 연대성 개념을 토대로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다. 공휼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넘어서 집합적 행동을 유발하는 사회적 동력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돌봄이 개별 가족의 부담에서 공동체의 공동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다.

9) 전명수, 『좋은사회로 가는 길: 종교, 시민사회, 공공성』, 집문당, 2018, 49쪽.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돌봄 연구의 이론적 흐름과 한계를 검토하고, 공동체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증한다. 3장에서는 사회적 자본과 연대성 개념을 중심으로 공휴 기반 ‘좋은 사회’의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이것이 공동체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틀에 기초해 돌봄 정책과 실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5장에서 연구의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공휴 기반 돌봄’이 여성 개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동체적 대안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돌봄의 개념과 이론적 전개

돌봄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적 행위가 아닌, 사회적 역량이자 생존과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적 실천이다. 돌봄 이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개념화에서부터 현재의 공공성 논의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 뚜렷한 패러다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단계로 개별적, 감정적 행위로서의 돌봄 개념화이다. 소벨(Sobel, 1969)은 돌봄을 타인을 향한 관심, 존경, 존중의 감정에서 비롯된 본능적 행위로 보았으며, 환경에 따라 그 기능이 강화되거나 약화 된다고 하였다. 맥팔레인(McFarlane, 1976)은 이를 상호적 소통을 통한 치유의 행위로 이해했다. 이 시기의 돌봄 개념은 개인의 도덕적 성향이나 자연적 감정에 기반한 것으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분석이 부재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돌봄 재정의다. 트론토(Tronto, 2014)는 돌봄을 “세상을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설명하며,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중심으로 돌봄의 윤리적 의미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했다.¹⁰⁾ 다니엘 엥스

10) Joan C. Tronto,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터(Daniel Engster, 2017) 역시 돌봄을 생물학적 필요 충족과 기초 역량 발달을 위한 직접적 실천으로 정의하며, 돌봄의 보편적 필요성을 강조했다.¹¹⁾ 더 케어 컬렉티브(2021)는 『돌봄 선언』을 통해 돌봄을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 누구나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규정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했다. 세 번째 단계는 정의 담론으로의 포섭과 한계이다. 이러한 이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돌봄 연구의 주류는 정의(justice) 패러다임 내에서 권리와 분배의 문제로 돌봄을 다루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는 돌봄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의의가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이론적 한계를 보여준다.

돌봄은 취약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인간 삶에서 실천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또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돌봄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누군가는 또한 필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우리 모두는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이다. 따라서 의존적인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에 기초한 필수적 실천으로 돌봄을 정의하며, 기존에 시장과 사회에서 저평가된 돌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한다.¹²⁾ 돌봄은 개인의 사적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적 사안으로서, 공적 담론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여전히 가족이나 여성의 몫으로 국한 시키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강조된다. 이에 따라 돌봄은 정의의 차원에서 재정의되고 이론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난 50년간 사회적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증가로 나타난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페미니즘, 정치철학, 종교 윤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되어 오면서 돌봄의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4, pp.67-72.

11) Daniel Engster,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p.63.

12) 신영민·김희강, 「돌봄 관점에서 본 이중빈곤연구의 의의와 한계」, 『한국사회정책』 26권 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41쪽.

의미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고, 다양한 실천을 통해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돌봄은 본질적으로 복합적인 개념으로, 단일한 하나의 이론 틀로 환원하기 어려운 다층적 특성을 갖는다. 돌봄을 특정한 도덕 이론으로 다루기 어려우며, 그 본질과 범위에서 윤리이면서 동시에 일련의 실천적 활동, 구체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사상과 실천에의 참여로서 간주 된다는 점에서, 돌봄이 정의와 양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¹³⁾

돌봄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 돌봄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한계를 보인다. 첫째, 방법론적 개별주의의 한계로, 많은 연구가 양육 스트레스로 인한 어머니의 우울감(안수영, 2015; 문혁준, 2004)과 양육효능감(박진영·부성숙, 2014; 최윤희·문혁준, 2016)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 이는 돌봄 문제를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개인의 심리적·기능적 적응 차원으로 축소하는 한계를 보인다. 둘째, 정책적 해결의 한계로, 보육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공백(김영란 외, 2018; 임혜정, 2017),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돌봄사각지대(정영모, 2019), 교육격차로 인한 소득격차의 문제(김희삼, 2009; 안종범·전승훈, 2008)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셋째, 이론적 편향성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중심으로 돌봄을 보조적 수단으로 다루거나, 돌봄의 윤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연구들은 기존 돌봄 정책의 문제와 돌봄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돌봄을 여성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에 기

13) 전명수, 「돌봄과 정의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연구」, 『신학과 사회』 34권 1호, 한신대학교 신학과사회연구소, 2020, 184쪽.

초하여 현황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으며, 돌봄을 안정적인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루는 한계를 지닌다. 최근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돌봄의 윤리적 의미와 권리적 차원, 돌봄 노동의 사회화, 돌봄 민주주의,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남찬섭, 2012; 김희강, 2010; 이선미, 2016; 안숙영, 2017; 석재은, 2018; 김희강, 2020). 특히, COVID-19는 돌봄 노동의 재평가(채효정, 2020)를 가져왔고, COVID-19로 인해 성별불평등과 돌봄 책임(이동선, 2020)이 심화되면서 해외 돌봄정책들과 돌봄의 변화(백영경, 2020; 이재완, 2020)를 바탕으로 경제적 생산활동중심이 아닌 돌봄 중심 가치로의 전환과 정책의 필요성(허라금, 2005)과 돌봄 가치 중심으로 새로이 사회의 재편을 주장하기도 한다(조혜정, 2006). 한편으로 돌봄 윤리를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 재편의 중심 가치와 규범으로 보며(김희강·강문선, 2010; 마경희, 2010; 황보람, 2012). 모두에게 돌봄이 평등하게 제공되는 돌봄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재구조화(김희강, 2020; 백경훈·송다영·장수정, 2017; 장수정, 2020; 석재은, 2020)와 돌봄 노동을 주로 수행하는 여성의 노동 가치에 대한 인정과 근로조건 개선(김정희, 2017; 전미향·이혁수, 2019; 김은영, 2012; 김보영, 2021), 돌봄서비스와 전달체계의 개선(주현정·김용득, 2018)을 통한 돌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권리 확대와 함께 돌봄 당사자의 권리 확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주로 여성인 돌봄 제공자의 ‘사회권’ 보장을 위해 경제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동권’과 누군가를 돌볼 권리를 인정하는 ‘돌봄권’의 동시 보장(장수정·백경훈·김병인·이혜정·오진방, 2021)을 주장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개인적 문제나 국가적 책임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COVID-19 경험을 통해 나타난 상호부조 네트워크의 중요성이나, 북유럽 국가들의 공동체 기반 돌봄 시스템의 성공 사례는 공동체적 접근

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돌봄 윤리 이론가들이 강조하는 관계적 존재론과 벨라의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통합할 때, 돌봄의 개인화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의만이 아닌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돌봄과 정의 사이에 벨라가 좋은 사회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공흠(compassion)’에 주목하려한다.

2). 공흠의 특성과 돌봄

이타성(altruism)은 생물계의 기본 원리인 이기심(egoism)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타자의 고통에 연민을 느끼며 때로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성향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차원에서는 생존을 위한 이기적 본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학습해왔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장기간의 진화 과정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성향이 아니라, 집단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 적응 메커니즘으로 진화한 것이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더욱 근본적 차원에서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타자의 얼굴과 마주하여 이타적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인간 존재로 발현된다. 즉, 이타성은 인간다움의 핵심이며,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존재론적 조건인 것이다.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이타심의 중요한 덕목은 ‘공흠’이다. ‘공흠’은 종교와 사회에서 모두 최고의 도덕적 가치가 된다. 공흠이 중요한 까닭은 인간은 기계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 감정, 욕망, 반사 신경 등이 뒤죽박죽 섞인 복잡한 통합체이기에 올바른 생각을 한다고 올바른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감정이 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감정은 깊은 신념을 배신하게 만들지만 어떤

감정은 왜곡된 믿음들을 무시하고, 우리 생각보다 더 낮게 행동하도록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하다.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려면 올바른 종류의 감정이 필요하다. 그러한 감정 중 하나가 긍휼이다.¹⁴⁾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는 복음서¹⁵⁾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들고 헐벗은 자, 옥에 갇힌 타자의 얼굴에 반응하면서 인간은 신을 알아가고 신과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¹⁶⁾ 소외된 이들, 고난받는 이들, 필요가 충족되지 않은 이들에게 헌신한 예수의 제자들에게 긍휼이 소중한 까닭은 긍휼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이면서, 신과 관계를 느끼게 해주는 인간의 감정적 본질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Μακάριοι οἱ ἐλεήμονες, ὅτι αὐτοὶ ἐλεηθήσονται.) (마 5:7)”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의 어원. 히브리어 헤세드(חסד (hesed))는 언약적 사랑, 자비, 인애, 충실함 뜻과 헬라어 동사 엘레에오(ἐλεέω (eleēō))로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긍휼히 여기다 뜻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 자비, 친절이며 동양에서 말하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비슷하다. 따라서 ‘긍휼’은 신에게 받은 자가 베푸는 실천적 행위이다. 긍휼의 실천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착한 사마리아인’을 들 수 있다. 한 히브리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다 빼앗긴 채 쓰러져 죽어가고 있을 때, 그의 곁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나 이방인으로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 치

14) 미로슬라브 블프·라이언 매커널리린츠 저, 김명희 역, 『행동하는 기독교-어떻게 공적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IVP, 2017, 145쪽.

15)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비유

16) 에마뉘엘 레비나스 저,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신, 죽음, 그리고 시간』, 그린비출판사, 2013, 300쪽.

료를 받게 하고 떠나갔다(눅10:30-32).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이방인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돌봄도 정의도 아닌 긍휼이다.¹⁷⁾ 헨리 나우웬은 긍휼을 행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약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긍휼을 통한 돌봄의 행동이며, 돌봄은 인간의 몸짓 중 가장 인간다운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긍휼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고 말한다.¹⁸⁾ 특정집단이나 개인이 소외되지 않고 정서적 좌절감, 분노와 공격성, 아노미와 혐오 정서가 배태되지 않도록 공감과 정체감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적가치의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한다. 고통을 겪거나 가난할 때, 필요가 채워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상황에 공감하는지도 알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는 긍휼을 찾는다.¹⁹⁾

긍휼은 인간 본질의 핵심적 덕목으로, 신학적·철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상호연결된 측면으로 감정, 책임, 행동을 포함하는 통합적 개념이다. 긍휼의 첫 번째 측면은 타인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다. 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공감적 고통이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다’ 말하였다. ‘긍휼’의 라틴어 어원 ‘compassio’는 ‘com(함께)’ + ‘pati(고통받다)’의 합성어로, “함께 고통받음”을 의미한다. 이는 타인의 고통이 자신에게도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연결의 상태를 나타낸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4-15)” 말한다. 레

17) Curtis Frakes, “Our Neighbor, Our Self: Emmanuel Levinas's Ethical Hermeneut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vol. 38, no. 1, 2010, pp.79-99.

18) 헨리나우웬 저, 윤종석 역, 『돌봄의 영성』, 두란노, 2014, 52쪽.

19) 미로슬라브 블프·라이언 매커널리린츠 저, 앞의 책, 147쪽.

비나스는 고통을 무익한 고통으로 타자를 이 무익한 고통에서 꺼내줘야한다고 말한다.²⁰⁾

공흔의 두 번째 측면은 무한책임이다. 타인은 ‘신비’이기 때문에 인지가 불가능하다. 알 수 없는 타인의 상황에 무한책임이 요구된다. 타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디까지 무엇을 해줄지 모른다. 따라서 한계 없이 해주는 것이다.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도 인간들의 죄를 공흔히 여기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인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셨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공생애 과정에서 세리와 창녀, 나병 환자 등 경계 없는 무한한 사랑을 베풀었다. 타인에게 필요한 것은 고기일지 혹은 고기를 잡는 법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으로 공흔은 베푸는 것이다.

공흔의 세 번째 측면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이다. 무한책임에는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가 “공흔히 여기셨다”는 기록 이후에는 항상 구체적 치유와 돌봄의 행동이 뒤따랐다. 병자 치유(마태복음 14:14, 마가복음 1:40-42), 시각장애인 치유(마태복음 20:29-34) 이러한 행동적 측면은 감정과 인식이 실제적 변화를 가져오는 완성 단계이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크리스천은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주장은 인간 본질이 근본적으로 타자 지향적이며, 공흔을 통해 가장 온전히 실현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진정한 공흔은 타인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감정),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며(생각),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는(행동) 요소가 조화롭게 통합될 때 완전한 형태의 공흔이 실현된다. 이는 단순한 감상이나 피상적 동정을 넘어, 타인을 향한 전인격적 관여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공흔은 감정, 책임, 행동의 세 차원이 통

20) 김영걸, 『우리는 박해자를 위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가? 레비나스가 답하다』, 어문학사, 2022, 125쪽.

합된 덕목으로서, 인간 존재의 본질적 특성이자 윤리적 이상을 구현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공흠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우리 마음이 느끼는 일종의 동정이다. 이는 우리에게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그를 돕게 만든다”고 말한다. 진정한 공흠이 있다면, 이제는 행동을 취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능한 어떤 수단이 있고 어떤 행동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용한가를 생각할 차례다. 우드노우는 공흠과 정의는 언제나 나란히 가야하며,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공흠과 전체 사회를 위한 좀 더 광범위한 정의감 사이에는 건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²¹⁾

3. 좋은 사회와 공동체 원리

1) 좋은 사회론

좋은 사회론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정치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좋은 사회”의 요소를 실현하고 “나쁜 사회”의 요소를 피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세기에 걸쳐 철학자들과 사회 과학자들은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것과 그러한 사회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었으며, 정치적 이념에 따라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²²⁾ 존 듀이(John Dewey)는 좋은 사회란 좋은 자아와 마찬가지로 다양하지만 조화를 이루며 성장

21) Robert Wuthnow, *Acts of Compassion: Caring for Others and Helping Ourselv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전명수, 앞의 책, 2018, 102쪽 재인용.

22) Robert N. Bellah, et al., *The Good Society*, New York: Knopf, 1991; John Kenneth Galbraith, *The Good Society: The Humane Agenda*, Boston: Houghton Mifflin, 1996; Walter Lippmann,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the Good Society*,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37; Erik Olin Wright, *Envisioning Real Utopias*, London: Verso, 2010.

하는 통합된 전체, 권력과 능력이 결합된 완전한 참여 민주주의라고 선언하며 다양성, 조화, 참여 민주주의, 협력, 공동체 및 개인의 표현에 대해 강조한다. 보수적 지식인 러셀 커크(Russell Kirk)는 좋은 사회는 높은 수준의 질서, 정의, 자유로 특징지어진다고 주장하며, 이 중에서 질서가 우선으로 정의는 용인할 수 있는 시민사회질서가 달성될 때까지 집행될 수 없다고 말한다. 페미니스트인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사회 질서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정의와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평등을 주장한다. 반면 에드가 후버(J. Edgar Hoover)는 평등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으며 도덕이 쇠퇴하고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악이 번성한다고 말한다.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는 좋은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며 “종교는 시민사회의 기초이며 모든 선과 모든 위안의 원천이다”라고 썼으나 고어 비달은 “죽음이 두렵다면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종교의 중요성을 일축했다. 좌파는 다양성, 평등, 조화, 협력, 공동체 및 개인의 표현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우파는 사회 질서, 도덕, 역사, 전통, 종교 및 자유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다.

좋은 사회론이 사회적 화두가 된 것은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가 『좋은 사회』(Good Society, 1996)라는 책에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여러 작업을 하면서 국가 내 및 국가 간, 교육, 건강 관리, 환경 지속 가능성, 평화, 외교 및 건전한 이민 정책 등을 정리하여 좋은 사회의 상을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빈곤을 퇴치하는 사회를 이상적인 좋은 사회로 보고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경제적 기능과 함께 정치적 맥락을 언급하였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은 그동안 제시했던 사회설계구상을 정리하여 막연한 개념의 좋은 사회로 불렸으며, 교육, 헌정 주의 개편 등 정치제도의 설계, 경제적 조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실현된 사회를 좋은 사회로 규정하는 흐름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복지와 평

등, 자유와 능률성의 조화, 복지사회 비전과 복지 전략의 재검토, 노동 복지의 구현, 복지를 통한 사회적 연대 및 시민의식의 회복,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현, 협력적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 등 다양한 가치들의 조화를 실현하는 사회를 좋은 사회라 보는 흐름도 있다.

좋은 사회를 이념적 차원으로 규정한 것도 있다. 에치오니(Amitai Etzioni, 1996)는 좋은 사회의 핵심개념으로 공동체를 들면서 공동체를 한 그룹의 개인들 간 결속(bonding)과 도덕 문화(moral culture)의 공유라는 두가지 요인의 조합으로 정의하였다.²³⁾ 벨라(Bellah)와 그의 공동 저자들 역시 『좋은 사회』(Good Society)라는 책에서 좋은 사회는 자신과 사회 모두가 부와 권력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라 의미의 실현과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라 말한다.²⁴⁾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선과 악의 이원론이 아니라 자아와 사회적 번영을 위한 적절한 제도적 조건들을 창조함으로써 자아와 사회모두에서 미덕(돌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돌봄의 문제는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⁵⁾ 벨라의 좋은 사회가 추구하는 이러한 돌봄과 정의의 균형은 바로 종교, 그중 특히 기독교의 정신이기도 하다. 벨라의 공적 종교(public religion) 개념은 1967년 “Civil Religion in America”에서 처음 제시되어 현대 돌봄 이론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벨라는 공적 종교를 “국가적 자아 이해를 위한 종교적 차원”으로 정의하며, 이는 개인적 신앙과 구별되는 집단적 의미 체계로서 작동한다고 보았다.²⁶⁾ 특히 돌봄과 관

23) 전명수, 앞의 책, 2018, 14쪽.

24) Robert N. Bellah, et al., op. cit., p.192.

25) Robert N. Bellah, et al., op. cit.; Ananta Kumar Giri, “The Good Society: Compassion, Responsibility and Understanding Self and Society”, *Social Change*, vol. 41, no. 1, 2011, pp.9-12.

26) Bellah, Robert N.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vol. 96, no. 1, 1967, p.7.

련하여 중요한 것은 벨라가 강조한 “언약적 책임” 개념이다. 벨라에 따르면, 미국의 시민종교는 단순한 애국주의가 아니라 “신 앞에서 한 민족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하며, 이는 특히 “가장 작은 자들”에 대한 집단적 돌봄 의무를 포함한다. 벨라는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인용하면서, 진정한 공적 종교는 “죽은 자들이 헛되이 죽지 않도록 하는” 집단적 헌신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이를 돌봄 맥락으로 번역하면, 개인의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 불행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과제가 된다는 의미이다. 본 글 역시 좋은 사회에 대한 여러 개념 중에서 벨라의 주장하는 도덕(좋은)과 정의(옳음)이 균형을 이루며, 공동체를 통한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좋은 사회라 정의에서 시작된다. 벨라의 좋은 사회는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며, 핵심적 구성 요인은 공동체라 말한다.²⁷⁾

2) 공황과 공동체원리

최근 경제와 정치로 해결되지 않는 시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으로 사회적 차원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다. 타자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동반자로서의 연대감이 없으면 사회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²⁸⁾ 종교의 기본 가치는 사랑, 자비, 공황, 구제, 돌봄의 실천이다. 성경에 따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명기 10:17-18)”라고 말하며,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자비와 자선의 부족이라는 차원을 넘어 정의를 짓밟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는 하나님은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이며, 약자에 대

27) 전명수, 앞의 책, 2018, 49쪽.

28) 박명규·이재열,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한울아카데미, 2018, 75쪽.

한 사랑의 실천이 바로 ‘공의를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²⁹⁾ 공흠의 마음은 강함에 대한 과시가 아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과 함께 선을 이루는 모습(로마서 15:1-2)으로 나타난다.

초기 기독교는 인종과 신분, 경제력의 경계를 초월한 진정한 공동체였다. 기록에 따르면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사도행전 2:44-46)” 평등한 공동체로써 떡을 나눔을 통해 물질의 평등을 이루려 했을 뿐만 아니라 소외된 집단(여성·노예·버려진 사람들)을 평등하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포용과 관용’의 공동체였다. ‘기독교의 발흥’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는 당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엄청난 재난이었던 역병의 현장에 달려가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나 안위보다는 역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였다. 로마제국기간 총 11번의 전염병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로마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두 전염병³⁰⁾의 시기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나타난다. 그 당시 사회는 대량의 인명피해로 인한 인구 부족, 노동력 부족, 식량 생산의 부족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찾아왔으며,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배타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사회로 변모했다. 이러한 재난과 혼란의 시기에 기독교는 공흠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을 원동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들은 박해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여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는데 열심을 내었다. 소외되

29) 팀켈러 저, 최종훈 역, 『팀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정의롭게 만드는가?』, 두란노, 2012, 94쪽.

30) 165~180년에 창궐한 “안토니우스 역병”(Antonine Plague)과 251~266년에 창궐한 “키프리아누스 역병”(Plague of Cyprian)은 특별히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다.

고 격리된 자들에게 보여준 긍휼을 통한 돌봄은 그들의 공동체적 삶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고 기독교의 성장을 가져온 것이다. 그것은 초기 기독교가 사회적 공인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³¹⁾

긍휼을 통한 약자 돌봄과 베품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깊은 종교적 이념과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Francis, Jorge Mario Bergoglio)은 2024년 네번째 회칙 디렉시트 노스(Dilexit no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을 발표하였다. 두번째 장에 ‘사랑의 행동과 말씀’을 다루면서, ‘가까움과 긍휼, 부드러운 사랑’을 보여주시는 주님은 “개인의 문제와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신다”고 말하였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이웃사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며,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성경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18, 마태복음 22:39)”는 명령과 “너희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는 것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누가복음 6:36)”는 예수의 가르침은 긍휼을 통한 이웃사랑의 실천적 규범을 제공한다. 특히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를 넘어, 타인과의 근본적 연결성을 인식하는 공존의 윤리를 함축하며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다. 이는 이웃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본질을 드러낸다. 마티유 리카르(Matthieu Ricard, 2019)가 강조했듯이, 이타심과 긍휼의 마음은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이라는 우주적 진리와 일치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은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의 사회통합 이론과도 맥을 같이 한다. 뒤르켐은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이질성에 기반한 상호의존성이 공동체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³²⁾ 오늘날 우리가 직

31) 로드니 스타크 저, 손현선 역, 『기독교의 발흥』, 좋은씨앗, 2020, 152-174쪽.

32) 에밀 뒤르켐 저, 민문홍 역,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원저 1893), 235-246

면한 ‘각자도생’의 비정한 사회 현실은 단순한 개인주의의 결과가 아니다. 국가와 시장의 실패와 더불어 공동체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연대의 위기를 반영한다.³³⁾ 공생의 가치가 소멸되고 있는 현상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 연대의 약화에 기인한다.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공흠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연대는, 개인적 선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공동체의 재건과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윤리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연대는 동시대성을 공유하는 구성원 간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회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물리적 권력이나 강제력이 아니라, 이웃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한 번 더 껴안아 주며, 한 번 더 사랑하는 공흠의 실천 속에 만들어진다.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 Anjeze Gonxhe Bojaxhiu)의 말처럼,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공흠의 실천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좋은 사회를 위한 돌봄의 역할과 기여

기존 돌봄 연구들은 주로 정책적 효과성이나 개인적 차원의 만족도 측정에 집중해왔으며, 돌봄의 사회적 기반이 되는 공동체와 신뢰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부족했다. 특히 공동체와 신뢰가 단순한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이론적 주장만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방향성과 메커니즘을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2002-2016) 36개국 8차례 분석에서 사회

쪽.

33) 박명규·이재열, 앞의 책, 82쪽.

적 신뢰가 주관적 웰빙에 일관되게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15-0.25$, $p < 0.001$).³⁴⁾ 핀란드 Health 2000 Survey($n=8,028$, 응답률 87%)는 사회적 지원과 신뢰/상호성이 자가 평가 건강과 심리적 웰빙과 독립적으로 연관됨을 입증했다.³⁵⁾ 이는 신뢰가 직접적으로 웰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간접효과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역인과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의 세계번영지수(Prosperity Index) 2023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저신뢰 사회(low-trust society)’로 진단되었다. 한국은 세계 167개국 중 중 29위에 랭크되어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부문이 가장 취약한 분야로 평가되며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³⁶⁾ 이는 한국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신뢰 간의 불균형적 발전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동체 차원의 연대와 통합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협력과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자본은 중요한 관심 자원이다. 사회가 바르게 기능하려면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핵심적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자발적 협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가치로 신뢰

34) Glatz, Christoph & Eder, Anja. “Soci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urope: A Multilevel Analysis Using European Social Survey (2002–2016)”,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45, 2019, pp.505–532.

35) Aalto, Anna-Mari, et al.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The Health 2000 Survey”, *BMC Public Health*, vol. 7, no. 1, Article No. 182, 2007, pp. 1–11.

36) 세계번영지수는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가 매년 11월 25일 발표하는 것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나라’를 가려내기 위해 고안하였다.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안전, 개인의 자유, 거버넌스, 투자환경, 기업여건, 시장접근성과 기간시설, 경제의 질, 생활환경, 보건, 교육, 자연환경, 사회적 자본 등 12개 항목을 조사해 합산한 결과이다. 한 사회의 번영정도를 GDP수치가 아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세계번영지수 발표는 2007년에 시작되었다. 2021년 사회자본부문 147위.

를 주목하며 사회적자본이 풍부한 고신뢰 사회일수록 자발적 사회성, 강한 공동체적 연대가 가능하여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 할 수 있다하였다.³⁷⁾ 신뢰는 상호 호혜와 협력을 촉진하여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고 연대와 통합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는 대부분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³⁸⁾이 풍부한 국가로 입증된다. 넥 앤 키퍼(Knack and Keefer)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타인을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비율이 10% 저하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8% 가량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³⁹⁾ 딘제르와 우슬란서(Dincer and Uslander)는 신뢰수준이 10%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이 0.5% 증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⁴⁰⁾ 알레시나와 라페라라(Alesina and La Ferrara) 역시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때, 경제활동의 거래 비용은 감소되고, 대규모 조직은 더 잘 운영되며, 정부는 더욱 효율적이되어 금융 발전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지적하였다.⁴¹⁾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공동체는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신뢰도는 평등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빈부격차가 심한 사회는 갈등이 심하다. 후쿠야마는 한국을 '저신뢰

37) Francis Fukuyama.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pp.25-32; Francis Fukuyama.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1999, pp.16-18.

38) 사회적 자본이란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대표적인 사회 자본 요소인 '신뢰'는 공동체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기회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자본은 기존 인적자본이 개인적 차원에 그친 것에 비해 네트워크 등 좀 더 관계 중심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39) Stephen Knack & Philip Keefer,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no. 4, 1997, pp.1251-1288.

40) Oguzhan C. Dincer & Eric M. Uslander, "Trust and Growth", *Public Choice*, vol. 142, no. 1, 2007, pp.59-67.

41) Alberto Alesina & Eliana La Ferrara, "Who Trusts Ot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5, no. 2, 2002, pp.207-234.

국가’로 명명하기도 했다.⁴²⁾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1’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이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진보 과정을 수년간 후퇴시키고 사회적 응집력과 글로벌 협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격차 심화, 사회적 상호작용 파열, 시장의 급속한 변동이 전세계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⁴³⁾ 산업화와 도시화로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어 기반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는 점차 쇠퇴하였다. 그 결과, 경쟁의 심화와 개인주의의 만연은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며, 사회의 통합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주거, 일자리,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인 갈등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념, 계층, 세대, 젠더 등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진영 논리와 확증 편향이 결합되면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대신 혐오와 증오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심화는 근본적으로 관용과 공휴, 사회적 신뢰, 그리고 공동체성의 상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18년 BBC 글로벌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경, 문화 또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얼마나 관용적인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들은 응답자의 20%만이 매우 관용적이라고 답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12%만이 그렇다고 답하였다.⁴⁴⁾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적 대인 신뢰도는 2014년 73.7%에서 2023년 52.7%로 10년

42) Francis Fukuyama, op. cit., 1995, pp.129-145.

43)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Geneva: World Economic Forum, 2021, pp.12-18.

44)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BBC World Service and Ipsos MORI, 2018.04.23.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bbc-global-survey-world-divided>

사이 20%p 넘게 감소했다.⁴⁵⁾ 한국리서치의 2020년 코로나 극복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는지’에 대해 61%가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통계청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 신뢰도가 2020년 50.3%로 직전 년도 보다 15.9% 낮아졌다. 사회적 고립도 또한 34.1%로 2019년 조사보다 6.4% 증가했다. 사회적 고립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60세 이상이 41.6%로 19~29세 보다 14.9% 높다.⁴⁷⁾ 이러한 조사결과는 한국사회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낮기 때문에 관용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한국사회가 매우 심각한 분열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는 그의 저서 『문명의 대가』에 대한 인터뷰⁴⁸⁾에서 “우리의 가장 큰 환상은 건강한 사회가 부를 추구하는 것을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정치인과 대중 모두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평가하고 도덕적 틀에 기초하여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공흠”이며, 이 공흠은 ‘사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고, 우리사회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라 하였다. 샌델 또한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만들 수 없고, 공정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삶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이견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

45) 한국행정연구원,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2023, 45-47쪽.

46) 한국리서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조사』, 2020, 15-17쪽.

47)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1』, 2021, 82-85쪽.

48) Jack Palmer, “WARNING: NO COMPASSION. PROCEED WITH CAUTION.”, Sojourners, 2011.10.05. <https://sojo.net/articles/warning-no-compassion-proceed-caution>

꾸어야 한다고 하였다.⁴⁹⁾ 이를 위해서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티칸 공의회 헌장은 공동선을 정치공동체의 존재 이유로 보았으며, 벨라 역시 공동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성숙한 사회, 좋은 사회는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관용하며 존중하고 포용한다. 사회적 신뢰 회복의 첫걸음은 존중과 포용, 서로의 관계망을 회복하는 공동체성의 회복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좋은 사회는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인 것이다.

5. 정책방안과 제도적 합의

벨라의 이론적 틀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한 성공 사례들을 분석하면, 공
 흠 기반 공동체 돌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부
 르트조르흐(Buurtzorg) 모델과 북유럽 국가들의 보편주의 기반 공동체 돌
 봄 체계는 공흠의 가치가 제도화된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⁵¹⁾ “이웃처럼 돌
 본다”는 철학 아래, Buurtzorg는 2006년 설립 이후, 10~12명 규모의 자
 간호팀이 동일 근린 내 50~60명의 환자를 홀리스틱하게 돌보는 구조를 갖
 추었다. 이들은 IT 시스템을 통해 행정 부담을 제거하고 “관료주의보다 인
 간성”을 강조하며 돌봄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벨라(Bellah)가 강조한
 개념이 실제 돌봄 구조에 적용된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KPMG(2012) 분석
 결과 평균 돌봄 시간이 기존 대비 약 절반으로 줄었으며, 간호팀이 제공하
 는 총 돌봄 시간이 35.7% 감소했다. 이 공동체의 환자 만족도는 10점 만점
 에 9.1점을 기록하였다. 이는 1,410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되어 네덜

49) 마이클 샌델 저, 이창훈 역,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영사, 2014, 360-362쪽; 전명수, 앞의 책, 2018, 75쪽 재인용.

50) KPMG, Value walks: *Successful habits for improving workforce motivation and productivity*, 2012, p.14.

51) Buurtzorg - About Us, <https://www.buurtzorg.com/about-us/>, 2025.07.01.

란드 내 최고 수준이다.⁵¹⁾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보편주의 원칙을 중심으로,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공공이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은 모든 시민에게 평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돌봄이 아닌 전문직 중심의 공식 돌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세계적으로 높은 사회적 신뢰도(노르웨이 71.5%, 스웨덴 66.8%)와 낮은 소득 불평등(Gini 계수 0.25~0.28)을 유지하고 있으며, UN 인간개발 지수(HDI) 및 삶의 질 지표에서도 상위권을 지속하고 있다.⁵²⁾ 이러한 실증 사례들은 돌봄을 단순히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휴의 원리에 따라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공동체적 신뢰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진이 돌봄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에서, 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함의를 지닌다.

COVID-19 팬데믹 시기, 한국 사회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중심으로 한 범국가적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대응은 벨라(R. Bellah)가 제안한 공동체주의 혹은 공적 종교적 윤리의 실천적 요소와 부분적으로 조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우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CDSHQ)를 중심으로 방역, 보건, 행정, 기술, 교육 등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였고,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의 연결도 긴밀하게 유지되었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 온라인 브리핑, 문자 시스템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유를 실현하였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도 매우 주목할 만했다. 예를 들어, IT 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마스크 재고 앱’은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냈으며, 민간 병원과 기업들도 자체 시설을 치료센터로 전환하여

52) Our World in Data, *Trust in others*, 2022.

공공 역할을 분담하였다. 의료계에서는 자원봉사 의사들이 방역 취약지에 파견되어 활동했고, 종교계 역시 예배 중단과 봉사 확대 등을 통해 공동체 연대에 기여했다. 이러한 사례는 벨라가 주장한 ‘공동선(common good)’과 공동체적 공헌의 윤리가 비상 상황에서 제도 바깥에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COVID-19 대응은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서, 시민들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선택을 실천한 집단적 공헌의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팬데믹 상황은 또한 지역 내 자발적인 상호부조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재확인한 계기였다. 도시 및 농촌 곳곳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형성한 돌봄 공동체는 고립된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한 물품 제공, 정서적 교류, 비대면 돌봄 등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학교, 복지기관이 연대하여 “비공식적 돌봄 생태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호부조는 일회성 후원이나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관계성의 돌봄으로 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물리적 지원보다 관계적 신뢰가 더 깊은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는 향후 국가 정책의 실질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다.

6. 나아가며

COVID-19 팬데믹이 남긴 사회적 상흔과 심화된 돌봄 위기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성의 회복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벨라가 제시한 ‘공헌을 통한 상호 관심과 의존이 바탕이 된 돌봄’이 중심이 되는 ‘좋은 사회’는 현대 사회의 돌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한 이상이 아닌, 구체적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레비나스가 강조한 ‘타자의 얼굴’에 대한 무한책임의 윤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한다.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진정한 공흠은 타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닌, 그의 고통에 응답하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⁵³⁾ 이러한 무한책임의 원리는 공동체 재건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벨라의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개별적 선의를 사회적 제도와 문화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공흠은 단순한 개인적 덕목이 아니라,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는 실천적 원리로 작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흠에 기반한 공동체 회복과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적문화의 회복’을 위한 공적 담론의 재구성, 참여적 거버넌스, 공동 책임의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 종교, 학계, 시민 사회, 공공부문,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합의를 도출이 필요하며, 벨라가 강조한 “정의와 돌봄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제도적 정책과 공동체의 자발적 돌봄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책임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⁵⁴⁾ 구체적으로는 지역 종교기관과 돌봄 서비스 제공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정부-민간의 매칭펀드 조성, 공유 자원 플랫폼 개발, 공흠 기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돌봄펀드 조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대구동구의 “안심마을”과 세종조치원을 “번암빛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같은 곳들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다.⁵⁵⁾

둘째, 레비나스의 ‘무한책임’ 개념을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감 교육과 윤리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돌봄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해결책만으로는 극복될 수 없다. 타자의 고통에 민감하게

53) 에마뉘엘 레비나스 저, 김성호 역, 『우리 사이: 타자 사유에 관한 에세이』, 그린비출판사, 2019, 112-115쪽.

54) Robert N. Bellah, et al., op. cit., pp.254-286.

55) 윤춘근, “돌봄 위기의 대안, 마을에서의 공동체 돌봄”, 인천in, 2023.05.26.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윤리적 주체의 형성이 필수적이다.⁵⁶⁾ 학교 교육 과정에 공휴와 공동체 윤리를 핵심 가치로 포함시키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세대 간 돌봄 실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얼굴과 얼굴의 대면’으로 실제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체험적 학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반 마련도 요구된다. 돌봄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정부 주도 민간 리더 개발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또한 A.I의 발달에 의한 대면의 방법에도 다양성이 생겼다.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자립준비 청년들을 비롯한 취약한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기술의 다각화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벨라가 강조한 ‘공동선’을 위한 종교의 공적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종교는 오랜 시간 역사적으로 돌봄과 구제의 중요한 주체였다.⁵⁷⁾ 종교는 현대 사회에서도 공휴에 기반한 공동체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 종교기관들은 자신들의 시설과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돌봄의 실천적 모델을 제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적 역할에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종교계와 공공부문 간의 제도적 협력 체계를 구축, 종교 기반 돌봄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와 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으로 종교적 본질과 실천적 함의가 이루어진 종교 리더 양성과 종교인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과제의 몇 가지 연구의 보완성이 필요해졌다. 먼저 젠더 관점의 보완이 필요하다. 돌봄의 젠더화된 특성을 고려하여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사회 대응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화 진행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56) 김영걸, 앞의 책, 178-182쪽.

57) 전명수, 「종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대한 재성찰」, 『담론201』 18권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 65-92쪽.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돌봄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AI, IoT,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되 인간관계의 온정을 잃지 않는 돌봄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COVID-19 팬데믹 이후의 좋은 사회는 경쟁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냉정한 사회가 아닌, 레비나스가 말한 “타자의 얼굴”에 응답하는 공흠의 윤리가 제도화된 사회여야 한다.⁵⁸⁾ 벨라의 주장처럼 “의미의 실현과 가능성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회복함으로써, 우리는 돌봄의 위기를 넘어 모두가 존엄을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⁵⁹⁾ 공흠은 단순한 개인적 덕목이 아닌, 사회 구조를 변혁시키는 실천적 원리로 작용해야 한다. 이것이 COVID-19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귀중한 교훈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구현해야 할 책임이다.

58) 에마뉘엘 레비나스 저, 김성호 역, 앞의 책, 224쪽.

59) Robert N. Bellah, “The Necessity of Opportunity and Community in a Good Society”, *International Sociology*, vol. 12, no. 4, 1997, pp.387-393.

■ 참고 문헌

단행본

- 김영걸, 『우리는 박해자를 위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가? 레비나스가 답하다』, 어문학사, 2022.
- 더 케어 컬렉티브 저, 정소영 역, 『돌봄 선언: 상호의존의 정치학』, 니케북스, 2021.
- 박명규·이재열,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한울아카데미, 2018.
- 석재은, 「'좋은 돌봄'의 정책 원리: 돌봄의 상품화를 넘어」, 김혜경 편, 『노인돌봄: 노인돌봄의 경험과 윤리 - 좋은 돌봄을 위하여』, 양서원, 2011.
- 전명수, 『좋은사회로 가는 길: 종교, 시민사회, 공공성』, 집문당, 2018.
- 에마뉘엘 레비나스 저, 김도형·문성원·손영창 역, 『신, 죽음, 그리고 시간』, 그린비출판사, 2013.
- _____, 김성호 역, 『우리 사이: 타자 사유에 관한 에세이』, 그린비출판사, 2019.
- 마이클 샌델 저, 김명철 역,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1.
- _____, 안진환·이수경 역, 『왜 도덕인가』, 한국경제신문사, 2010.
- _____, 이창훈 역, 『공동체주의와 공공성』, 김영사, 2014.
- 미로슬라브 블프·라이언 매커널리 린츠 저, 김명희 역, 『행동하는 기독교: 어떻게 공적 신앙을 실천할 것인가』, IVP, 2017.
- 보건복지부, 『공공·돌봄 통계연보』, 2024.
- 서울특별시, 『무연고 사망 현황』, 2021.
- 에밀 뒤르케임 저, 민문홍 역, 『사회분업론』, 아카넷, 2012.
- 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2020.
- 통계청,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1』, 2021, 82-85쪽.
- 팀 켈러 저, 최종훈 역,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정의롭게 만드는가?』, 두란노, 2012.

한국리서치,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조사』, 2020, 15-17쪽.

한국행정연구원,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2023, 45-47쪽.

헨리 나우웬 저. 윤종석 역, 『돌봄의 영성』, 두란노, 2014.

Bellah, Robert N., Richard Madsen, William M. Sullivan, Ann Swidler, & Steven M. Tipton. *The Good Society*, New York: Knopf, 1991.

Engster, Daniel.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_____.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1999.

Our World in Data, *Trust in others*, 2022.

The Care Collective, *The Care Manifesto: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London: Verso, 2021.

Tronto, Joan C.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1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1*, Geneva: World Economic Forum, 2021.

논문

김태수, 「“좋은사회”론의 개념적 토대: A. 에치오니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행정학회, 2007, 3-19쪽.

백영경, 「탈성장 전환의 요구와 돌봄이라는 화두」, 『창작과비평』 48권 3호, 창비, 2020, 36-48쪽.

석재은,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권 2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57-91쪽.

- 석재은·노혜진·임정기, 「좋은 돌봄의 필요조건과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돌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7권 3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203-225쪽.
- 신영민·김희강, 「돌봄 관점에서 본 이종빈근연구의 의의와 한계」, 『한국사회정책』 26권 1호,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35-59쪽.
- 양현표, 「초기 교회로부터 배우는 오늘 비대면 시대를 위한 목회 원리」, 『갱신과 부흥』 27권,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21, 307-342쪽.
- 유승무, 「COVID-19, 종교, 그리고 '코로나 이후' 사회: 종교를 배태한 의료사회학적 접근」, 『불교와 사회』 12권 1호,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과학연구소, 2020, 32-66쪽.
- 이상철, 「레비나스의 신 담론과 이타성의 윤리학」, 『신학사상』, 한국신학연구소, 2024, 167-195쪽.
- 이재열, 「사회의 질, 경쟁, 그리고 행복」, 『아시아리뷰』 4권 2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5, 3-29쪽.
- 전명수, 「종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대한 재성찰」, 『담론201』 18권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2015, 65-92쪽.
- 전명수, 「좋은 사회를 위한 사회통합의 실천과 종교의 역할: 종교공공사회학적 접근」, 『신학과 사회』 31권 3호, 한신대학교 신학과사회연구소, 2017, 179-215쪽.
- 최성훈, 「코로나19 관련 노인차별에 대한 공공신학적 분석: 위험인식, 여가와 돌봄,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55권, 장로회신학대학교, 2021, 423-453쪽.
- Alesina, Alberto & Eliana La Ferrara. "Who Trusts Ot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5, no. 2, 2002, pp.207-234.
- Aalto, Anna-Mari, et al.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The Health 2000 Survey", *BMC Public Health*, vol. 7, no. 1, Article No. 182, 2007, pp.1-11.
- Bellah, Robert N.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vol. 96, no. 1, 1967, pp.1-21.
- Bellah, Robert N. "The Necessity of Opportunity and Community

- in a Good Society”, *International Sociology*, vol. 12, no. 4, 1997, pp.387-393.
- Dincer, Oguzhan C. & Eric M. Uslaner. “Trust and Growth”, *Public Choice*, vol. 142, no. 1, 2007, pp.59-67.
- Glatz, Christoph & Eder, Anja. “Soci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urope: A Multilevel Analysis Using European Social Survey (2002-2016)”,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145, 2019, pp.505-532.
- KPMG, “Value Walks: Successful Habits for Improving Workforce Motivation and Productivity”, 2012, pp.1-30.
- Frakes, Curtis. “Our Neighbor, Our Self: Emmanuel Levinas's Ethical Hermeneutics”, *Journal of Religious Ethics*, vol. 38, no. 1, 2010, pp.79-99.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pp.183-190.
- Knack, Stephen & Philip Keefer.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no. 4, 1997, pp.1251-1288.
- Tronto, Joan C. “Consent as a Grant of Authority: A Care Ethics Reading of Informed Consent”, *Naturalized Bioethics*, 2008, p.182.

신문기사

- 윤춘근, “돌봄 위기의 대안, 마을에서의 공동체 돌봄”, 인천in, 2023.05.26. <https://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54>
-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BBC Global Survey: A world divided?”, BBC World Service and Ipsos MORI, 2018.04.23. <https://www.ipsos.com/ipsos-mori/en-uk/bbc-global-survey-world-divided>

Jack Palmer, “WARNING: NO COMPASSION. PROCEED WITH CAUTION.”, Sojourners, 2011.10.05. <https://sojo.net/articles/warning-no-compassion-proceed-caution>

인터넷

Buurtzorg - About Us, <https://www.buurtzorg.com/about-us/>, 2025.07.01.

■ 국문초록

현대 사회는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장지상주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사회적 가치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본고는 로버트 벨라의 '공휴'를 통한 상호 관심과 의존이 바탕이 된 돌봄이 중심인 '좋은 사회'가 현재의 돌봄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완성할 수 있는 핵심원리로서 공동체원리의 회복을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돌봄의 논의를 고찰한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우리를 지지하고 견디게 해주던 다양한 공동체는 해체되거나 그 기능이 변모하였고, 오늘날 우리 사회를 포함한 전 세계는 기후 재앙과 환경 위기,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위기 속에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적 욕망이 빚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에 치우친 접근을 넘어서, 공동선을 중심으로 둔 책임 있는 태도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문제와 인류 공동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좋은 사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 공휴에 바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 연대성에 기반한 상생과 협력,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공공성, 다양성의 존중과 상호 평등 등을 토대로 공동체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좋은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사회란 공휴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돌봄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 그리고 책임의식을 통해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종교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항하여 빈곤층을 구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며 저발전 국가의 공공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증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현대 사회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종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종교를 비롯하여 이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앞장서서 공휴의 가치를 바탕으로 좋은 사회 실현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주제어 • 좋은사회, 돌봄, 공휴, 사회적가치, 공동체원리

■ Abstract

Reconsidering Care for a Good Society after the COVID-19 Pandemic : Focusing on the Recovery of Community Principles Based on the Philosophy of Compassion

Park, Jung Seung · Kang, Eun Jin / Korea University

Modern society has moved beyond growth-oriented economic values, with social values emerging as a new discourse. This paper argues that Robert Bellah's concept of a 'good society,' centered on 'care based on compassion, mutual concern, and interdependence,' can be the key to resolving the current care crisis. The study advocates for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principles as the core mechanism to achieve this goal.

Various communities that once supported us have been dismantled or transformed. Today, the world faces existential threats from global crises such as climate catastrophe and the COVID-19 pandemic, fundamentally stemming from humanity's endless greed and selfish desires. To overcome these crises, we must move beyond approaches focused solely on economic values and adopt responsible attitudes centered on the common good while pursuing sustainable societies.

Communities can be restored through respect for all human beings, compassion-based care for the socially vulnerable, solidarity-grounded cooperation,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and respect for diversity and equality. A good society is one where care, rooted in compassion, becomes central to human relationships. Community restoration is possible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trust, and responsibility. Traditionally, religion has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enhancing social values by relieving the poor and caring for the marginalized. In this era of transition, the role of religion in building a 'good society' is more important than ever. It is time for all

COVID-19 팬데믹 이후 좋은 사회를 위한 돌봄의 재고찰
: 긍휼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원리의 회복을 중심으로 | 박정승·강은진

members of society to realize a good society based on compassion.

Keyword • Good Society, Care, Compassion, Social Value, Community Principles

해양경찰관의 불안 및 회피 애착이 이중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 재 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설계, 방법 및 가설
4. 분석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현대 사회에서 경찰 조직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특히 해양경찰관은 해양 주권 수호, 해상 치안 유지, 해양 환경 보호 등 고유한 임무를 담당하며, 이는 일반 경찰관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해양경찰관이 처한 특수한 직무 환경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업무 몰입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동시에 자신의 경력 발전에 대한 몰입을 나타내는 이중적 몰입(dual commitment), 즉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의 수준은 직무 수

*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부 조교수

행 능력과 조직 전체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¹⁾

개인의 애착 유형은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의 근간이 되는 심리적 특성으로, 이는 직장 내에서의 행동 양식과 태도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해양경찰관이라는 특정 직무 집단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애착 유형이 이중몰입과 맺는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이론적 발전과 실무적 적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찰 관련 연구들은 주로 일반 경찰 조직의 조직몰입이나 직무 스트레스 요인 규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반면, 해양경찰관과 같이 고유한 업무 환경과 높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 특히 애착 유형과 몰입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경찰관은 일반 경찰관과 구별되는 직무 특성과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상이한 행동 양식 및 심리적 특성을 나타낼 개연성이 높기에, 이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는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애착 이론은 개인의 대인관계 양상과 정서 조절 능력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심리학 이론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이 이론적 틀을 직장 내 몰입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탐구하려는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²⁾ 특히,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조직 몰입뿐만 아니라 경력몰입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해양경찰 조직 내에서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구성원 지원 방안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배경과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해양경찰관

1) 고현철, 「연구개발 조직구성원의 이중몰입(Dual Commitment)에 관한 연구-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00-111쪽.

2) 임다정·두경희, 「직장인의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권 3호, 2018, 86쪽.

의 불안 애착 및 회피 애착이 이중몰입(조직몰입,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해양경찰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조직 구성원인 해양경찰관의 직무 만족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불안 및 회피 애착

(1) 개념

애착이란 개인이 특정 대상과 형성하는 지속적이고 심리적인 연결로서, 이는 단순한 정서적 유대를 넘어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진화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³⁾ 애착 체계는 영유아가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시키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이후의 대인관계 패턴을 결정하는 틀로 작용한다.⁴⁾ 내적 작동 모델은 타인에 대한 기대와 자기 가치감에 대한 신념을 포함하며, 이는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관계에서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아동은 타인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한 아동은 타인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⁵⁾ 이러한 내적 작동 모델은 성인이 되어

3) 윤성민,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권 4호, 2019, 1140쪽.

4) 김진숙, 「애착이론의 내적 작동 모델과 상담적 적용점」, 『상담학연구』 14권 4호, 2013, 2485-2507쪽.

5) 권석만·신민섭·한수정·김중술, 「성인기 애착 양식원형과 내적 작동 모델 요소간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권 1호, 2002, 103-104쪽.

직장 동료나 연인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조직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애착은 발달 초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재차 형성 가능한 역동적인 체계로서, 성인기의 중요한 관계 경험⁶⁾을 통해 불안정한 애착 패턴이 수정될 수 있음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⁷⁾ 이는 해양경찰관이 라는 고위험 직군의 경우 조직 내에서의 지지적 관계가 애착 재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해양경찰관은 예측 불가능하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므로, 동료 및 상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조직 전체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특성

불안 애착은 애착 체계의 과도한 활성화 상태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이런 특성의 개인들은 관계 유지에 대한 강박적 욕구와 지속적인 거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한다.⁸⁾ 조직 상황에서 이들은 동료들의 사소한 반응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피드백을 개인적 평가로 받아들이 가능성이 높다. 불안 애착 성향이 강한 개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가 매우 크다. 그 결과 비판에 쉽게 상처받고 자신의 가치를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⁹⁾ 또한 이러한 과민성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6) 예를 들어 치료 여부, 안정적인 가정 생활 등을 들 수 있다.

7)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3885143/>, 2025년 4월 24일 검색.

8) 김광은·이위갑,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 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1호, 2005, 234쪽.

9) 김은영·이지은, 「대학생의 애착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권 7호, 2020, 256쪽.

도 완벽주의적인 태도로 이어져,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거나 오히려 잦은 실수를 유발할 수 있다.¹⁰⁾ 불안 애착 성향이 강한 해양경찰관들은 과도한 업무 완벽주의, 동료들의 인정에 대한 지속적 갈구, 작은 실수도 심각한 실패로 과대평가하는 인지적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장기적으로 직무 소진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¹¹⁾

회피 애착은 애착 체계의 의도적 억제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유형의 개인들은 친밀감 유발 상황에서 정서적 거리두기 전략을 활성화시키며, 독립성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¹²⁾ 회피 애착 성향이 강한 개인은 타인과의 깊은 관계를 불편하게 느끼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는 특성이 있다. 조직 환경에서 회피 애착 성향이 강한 구성원들은 팀워크 활동 회피, 감정 표현의 억제, 과업 지향적 태도의 과잉 강조 등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회피 애착 성향이 강한 경우, 동료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감정적인 교류가 부족하여 오해나 갈등 상황 발생이 쉽다.¹³⁾

(3) 효과

성인 애착은 구성 개념에 따라 다차원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서 조절 전략, 대인 관계 기대,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라는 핵심 영역에서 개인

10) 오창진·강요한·송원영,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권 2호, 2023, 315쪽.

11) 김종길, 「해양경찰공무원의 불안정성인애착이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해양환경안전학회지』, 31권 1호, 2025, 136쪽.

12) Fraley, R. C. & Shaver, P. R.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4, no 2, 2000, pp.138-140.

13) Edelstein, R. S. "Attachment and emotional memory: Investigating the source and extent of avoidant memory impairments", *Emotion*, vol. 6, no. 2, 2006, pp.340-342

차를 만들어 낸다. 정서 조절 전략의 경우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성인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불안정 애착을 가진 성인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기 쉽다.¹⁴⁾ 대인관계 기대의 경우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성인은 타인과의 친밀감을 편안하게 느끼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안정 애착을 가진 성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¹⁵⁾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성인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회적 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성인은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¹⁶⁾

직무 수행 측면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개인은 상사의 지시를 '안전 기지(secure base)'로 인식함으로써 도전적인 과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실패를 학습 기회로 인식하고, 동료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능숙하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개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자기 회의나 방어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¹⁷⁾ 특히, 불안 애착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거나, 작은 실수에도 크게 낙담하여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¹⁸⁾

14) 김정문,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4-15쪽.

15) 이옥경·이예진, 「애착 제품 개발을 위한 대학생의 애착 실태 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30권 2호, 2021, 363쪽.

16) 김진숙·안창일, 「애착 유형에 따른 억압의 강도와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권 4호, 2008, 1029쪽.

17) Bowlby, J.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Books, 1988, p.163.

18) Littman-Ovadia, H., Oren, L., & Lavy, S. "Attachment Styles and Employee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Burnout", *The Journal of*

2) 이중몰입

(1) 개념

이중몰입은 개인이 직장이나 조직과 같은 특정 환경에서 두 가지 이상의 역할이나 목표에 동시에 몰입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여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각 활동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집중과 헌신을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¹⁹⁾ 해양경찰관의 경우, 직무 몰입과 경력 몰입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조직의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²⁰⁾

조직 몰입은 현재 맡은 업무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의미하며,²¹⁾ 경력 몰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직업적 성장을 추구하는 태도를 나타낸다.²²⁾ 해양경찰관은 자신의 직무에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때, 개인은 높은 성취감을 느끼고 조직은 숙련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²³⁾ 이러한 이중 몰입은 해양경찰관 개인에게는 직무 만족도 향상, 자기 효능감 증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몰입도가 높은 인재들의 확보, 조직 생산성 증대, 그리고 조직 문화의 긍정적 변

Psychology, vol. 147, no. 4, 2013, p.387.

19) Jeong, Y. A. "Commitment and Multiple Commitments: Theoretical Perspectives",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1, 1990, p.264, pp.263-284.

20) 유영현, 「해양경찰공무원의 동기부여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해양경찰학회보』 7권 3호, 2017, 113쪽.

21) 전호성·송해덕, 「조직침묵, 직무몰입, 조직공정성, 이직의도간 구조적 관계 연구」, 『HRD 연구』 20권 2호, 2018, 89-90쪽.

22) Huang, W., Yuan, C., & Li, M. "Person-job fit and innovation behavior: roles of job involvement and career commitment",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0, 2019, p.1134. (<https://doi.org/10.3389/fpsyg.2019.01134>.)

23) 유영현, 앞의 논문, 2017, 115-117쪽.

화를 가져올 수 있다.²⁴⁾

(2) 유형

경력 몰입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에 대해 갖는 심리적 투자와 헌신의 정도를 나타낸다.²⁵⁾ 이는 개인이 자신의 경력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고 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경력 몰입이 높은 개인은 자신의 직업적 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²⁶⁾

해양경찰관의 경우, 경력 몰입은 개인의 전문성 개발, 직무 만족도 향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²⁷⁾ 특히, 경력 몰입은 해상에서의 특수한 업무 환경,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향상,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문성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관 개인의 경력 몰입은 곧 조직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몰입은 개인이 특정 조직에 대해 갖는 심리적 애착과 일체감을 의미한다.²⁸⁾ 이는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수용, 조직에 대한 헌신, 그리고

24) 해양 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헌신하는 해양경찰관이 동시에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인 경력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중몰입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5) Blau, G. "Testing the longitudinal impact of career planning and career commitment on subsequ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35, no. 3, 1989, p.228; London, M.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8, no. 4, 1983, pp.621-622.

26) Hall, D. T. *Careers in organiza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22, pp.112-115.

27) 예를 들어, 해양경찰관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며, 장기적으로는 관리자나 정책 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는 것은 경력 몰입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28) 김윤재·남궁선·강영숙, 「보육교사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9권 4호, 2014, 137쪽.

조직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욕구로 구성된다. 조직 몰입이 높은 구성원은 조직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으로 여기며, 조직의 발전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²⁹⁾ 해양경찰관의 경우, 조직 몰입은 해양에서의 안전 확보, 불법 행위 단속,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조직의 핵심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다. 조직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진 해양경찰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며,³⁰⁾ 이는 결국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진다.³¹⁾

(3) 효과

해양경찰관이 자신의 경력 개발에 힘쓰면서도 동시에 조직의 목표에 헌신할 때, 개인은 직무 만족도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으며, 조직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³²⁾ 경력 몰입과 조직몰입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효과 창출을 의미한다.³³⁾ 이러한 이중 몰입 상태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시사한다.

해양경찰관이 새로운 구조 기술의 학습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목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이중 몰입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해양경찰관은 기술 향상을 통해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해양 안전 의식 고취 등 사

29) Mowday, R. T., Steers, R. M., & Porter, L. W.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4, no. 2, 1979, pp.226-227.

30) 유영현(2017)은 해양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 나서는 해양경찰관은 조직에 대한 강한 헌신과 몰입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해양 불법 조업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 등은 해양경찰관 역시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 몰입이 높은 구성원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유영현, 앞의 논문, 2017, 115-117쪽.

31) 김종길, 「해양경찰공무원의 환경적합성이 조직 및 직무애착에 영향 연구」, 『한국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9권 7호, 2023, 873-874쪽.

32) 유영현, 앞의 논문, 2017, 115-117쪽.

33) 전혜지·김우철, 「경력몰입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역량개발학습연구』 18권 2호, 2023, 138-139쪽.

고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에도 기여한다.³⁴⁾ 이와 같이 성인 애착 유형이 직무 몰입 및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개인이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기대하며,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안형 애착을 지닌 개인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품고 정서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긴장감은 결국 조직이나 경력에 대한 몰입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회피형 애착을 보이는 개인은 친밀감을 회피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어, 조직의 가치에 공감하거나 동료들과 협력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전반적인 몰입 수준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³⁵⁾

3. 연구 설계, 방법 및 가설

1) 연구 설계

해양경찰관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경찰 직무와 역할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애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불안 및 회피 애착이 이중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진행을 위해 해양경찰관 163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³⁶⁾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이 독립변수는 불안 및

34) 해양경찰청,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4, 17-18쪽.

35) Mikulincer, M. & Shaver, P. R.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Guilford Publications, 2010, pp.21-30; Fraley, R. C. & Shaver, P. R. op. cit., pp.132-135.

36) 본 연구는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해양경찰교육원에 입소한 현직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전국 각 지방 해양경찰청에서 선발된 현직 경찰관들로, 실제 업무 경험을 가진 재직자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적절한 조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설문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해 편의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이로 인

회피 애착을 설정하였다. 불안 애착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경향을, 회피 애착은 친밀한 관계를 불편해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를 피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애착 유형은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해양경찰관의 경우 팀원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들의 애착 유형은 직무 수행 효율성 및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몰입은 개인이 자신의 경력과 소속된 조직 모두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경력 몰입은 개인이 자신의 직무나 직업에 대해 느끼는 열정과 헌신을, 조직몰입은 개인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동화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불안 및 회피 애착은 대인관계에서의 신뢰 결핍과 정서적 거리 형성으로 직무 몰입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결과 및 회피 애착이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약화시킨다는 결과와³⁷⁾ 불안 애착이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몰입도 하락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³⁸⁾ 해양경찰관의 부정적 애착 관계가 이중몰입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연구 방법 및 가설

연구의 진행을 위해 독립변수의 불안 및 회피 애착은 성인 애착 질문지

해 전체 해양경찰 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표본의 직급, 지역, 연차 등에 따른 다양성 확보가 제한적일 수 있어 일반화 가능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37) Hazan, C. & Shaver, P. R.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2, 1990, pp.277-278.

38) Mikulincer, M. & Shaver, P. R. "Boosting attachment security to promote mental health, prosocial values, and inter-group tolerance", *Psychological inquiry*, vol. 18, no. 3, 2007, pp.142-143.

(RAAS: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³⁹⁾ 및 Brennan et al.(1998)⁴⁰⁾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중몰입은 Meyer & Allen(1991)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분석 방법의 경우 통계적 분석은 SPSS를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피어슨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 이러한 연구 설계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관의 불안 및 회피 애착이 높은 경우 이중 몰입 즉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4.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 응답자는 135명(82.8%), 여성 응답자는 28명(17.2%)이다. 근무 기간은 '5년 미만'이 57명(35.0%)으로 가장 많고, '5-10년' 39명(23.9%), '21년 이상' 25명(15.3%). 계급은 '순경'이 45명(27.6%)으로 가장 많고, '경위' 33명(20.2%), '경감' 31명(19.0%), '경정' 30명(18.4%) 순이다. 연령은 '30-39세'가 54명(33.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20-29세' 44명(27.0%), '40-49세' 43명(26.4%)과 비슷한 비율이며, '50세 이상' 응답자는 22명(13.5%)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 기관은 '경찰서' 근무자가 69명(42.3%)으로 가장 많고, '지구대/파출소' 근무자는 65명(39.9%)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39) Teixeira, R. C. R., Ferreira, J. H. B. P., & Howat-Rodrigues, A. B. C. "Collins and Read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 validity evidences", *Psico*, vol. 50, no. 2, 2019, e29567. (<https://doi.org/10.15448/1980-8623.2019.2.29567>)

40)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vol. 46, no. 1, 1998, pp.58-63.

지방경찰청 근무자는 15명(9.2%), 기타는 2명(1.2%)으로 나타났다. 입직 경로는 '경찰공무원 공개 채용'이 70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간부 후보생' 출신이 67명(41.1%)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간부후보 특별 채용'은 9명(5.5%), 변호사 특별 채용은 1명(0.6%)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 결과

구분	하위 항목	빈도	비율(%)	구분	하위 항목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35	82.8	연령	20대	44	27.0
	여성	28	17.2		30대	54	33.1
근무처	지방청 이상	15	9.2		40대	43	26.4
	경찰서	69	42.3		50대 이상	22	13.5
	함정	65	39.9	근무기간	5년 미만	57	35.0
	파출소	10	6.1		5-10년 미만	39	23.9
	특수구조단	2	1.2		10-15년 미만	23	14.1
	기타	2	1.2		15-20년 미만	19	11.7
현계급	순경	45	27.6		20년 이상	25	15.3
	경장	31	19.0	입직경로	순경공채	70	42.9
	경사	33	20.2		순경 - 경사공채	67	41.1
	경위	30	18.4		간후보	9	5.5
	경감	18	11.0		고시특채	1	0.6
	경정	5	3.1		기타	16	9.8
	총경 이상	1	0.6				

2) 요인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 연구의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요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불안 애착, 회피 애착, 경력 몰입, 조직 몰입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7~.952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불안 애착의 분산 설명력은 31.315%, 회피 애착의 분산 설명력은 36.124%, 경력 몰입과 조직 몰입은 각각 43.016%, 32.833%의 분산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결과

구성 개념	항목	요인 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Cronbach α
불안 애착	9	.873	.783	4.071	31.315	.897
	10	.872	.773			
	11	.848	.774			
	8	.787	.644			
	12	.694	.577			
	13	.608	.491			
회피 애착	4	.864	.758	4.696	36.124	.921
	1	.844	.721			
	5	.820	.755			
	3	.819	.743			
	6	.785	.699			
경력 몰입	2	.781	.676	5.162	43.016	.952
	11	.859	.856			
	9	.855	.784			
	8	.833	.821			
	12	.710	.817			
	7	.659	.787			
조직 몰입	5	.875	.812	3.940	32.833	.889
	4	.858	.811			
	6	.652	.780			
	1	.603	.721			
	3	.560	.535			
	2	.505	.494			

변수들 간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상관관계의 경우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회피 애착과 조직 몰입은 -.528의 강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p<.01$), 불안 애착 역시 조직 몰입과 -.364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경력 몰입은 조직 몰입과 .833의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 두 몰입 요인이 긴밀히 연결됨을 시사한다.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평균	표준 편차	구성 개념간 상관 관계			
			1	2	3	4
불안 애착	2.3405	.77366	1			
회피 애착	2.4489	.74910	.495**	1		
경력 몰입	3.6493	.76882	-.472**	-.625**	1	
조직 몰입	3.5665	.96003	-.364**	-.528**	.833**	1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3) 가설 검증 분석 결과

불안 및 회피 애착이 경력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은 각각 $\beta = -.216(p=.002)$, $\beta = -.518(p=.000)$ 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해양경찰관의 불안 및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경력 몰입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불안 애착을 가진 개인은 자신의 직업적 역할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적극적인 경력 개발 노력이나 직무에 대한 헌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불안감은 직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결국 경력 몰입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불안정한 애착 스타일이 직무 만족도 및 헌신도 저하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델의 설명력(R^2)은 42.5%의 예측력을 보인다.

[표 4] 불안 및 회피 애착이 경력 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오차	β	t	p	Tolerance limit
경력 몰입	상수	.174		31.291	.000	
	불안 애착	.069	-.216	-3.129	.002	.755
	회피 애착	.071	-.518	-7.511	.000	.755

R=.652, $R^2=.425$, adj $R^2=.418$, p=.000, F=59.224, Durbin-Watson=1.756

불안 및 회피 애착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회피 애착($\beta = -.461, p = .000$)만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나타냈으며, 설명력은 29.3%로 나타났다. 회피 애착이 높은 해양 경찰관은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타인과의 친밀감을 회피하는 성향이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결국 조직에 대한 낮은 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피 애착 성향이 강한 개인은 조직 내에서 동료나 상사와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어려워하며, 이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은 조직의 목표나 가치에 대한 공감대가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조직 몰입도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불안 애착은 조직 몰입에 대해 $\beta = -.136(p = .077)$ 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조직 몰입이 경력 몰입보다 애착 유형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불안애착이 조직 몰입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해양 경찰은 일반적인 조직 그리고 일반적인 조직구성원과는 다른 조직 문화와 직업에서 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 경찰 조직의 리더십 스타일, 직무 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등이 조직 몰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불안 애착의 영향을 상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양 경찰관은 예측하기 어려운 해상 환경에서 근무하며, 이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직무 특성은 불안 애착이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즉, 불안 애착이 높은 해양 경찰관이라도, 직무 자체의 특성 때문에 조직에 대한 몰입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표 5] 불안 및 회피 애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표준오차	β	t	p	Tolerance limit
조직 몰입	상수	.241		22.412	.000	
	불안 애착	.095	-.136	-1.781	.077	.755
	회피 애착	.098	-.461	-6.028	.000	.755
R=.541, R ² =.293, adj R ² =.284, p=.000, F=33.183, Durbin-Watson=1.772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해양 경찰관의 불안 및 회피 애착이 이중 몰입(경력 몰입 및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불안 애착은 경력 몰입에, 회피 애착은 조직 몰입에 각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 경찰관의 애착 스타일이 직무 태도 및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해양 경찰과 같은 특수한 직무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조직 적응력이 매우 중요하며, 애착 스타일이 이러한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해양 경찰 조직은 구성원들의 애착 스타일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인사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먼저 애착 스타일 기반의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다. 해양 경찰관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이중 몰입 향상을 위해 애착 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불안 애착이 높은 경찰관에게는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회피 애착이 높은 경찰관에게는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해양 경찰관들이 자신의 애착 스타일을 이해하고, 건강한 대인 관계 및 직무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조직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지원하고,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이다. 건강한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들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조직 문화는 구성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조직 몰입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팀 활동,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성원 간의 유대감 강화와 개방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세 번째는 관리자의 역할 강화이다. 관리자는 구성원들의 애착 스타일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발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불안 애착이 높은 구성원에게는 안정적인 지지 기반을 제공하고, 회피 애착이 높은 구성원에게는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관계 형성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는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를 부여하고,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구성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그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에 대한 헌신도를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해양 경찰관의 애착 스타일과 이중 몰입 간의 관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 및 조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 참고 문헌

단행본

해양경찰청,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4.

Bowlby, J.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Basic Books, 1988.

Hall, D. T. *Careers in organizatio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02.

논문

고현철, 「연구개발 조직구성원의 이중몰입(Dual Commitment)에 관한 연구-조직몰입과 경력몰입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권석만·신민섭·한수정·김중술, 「성인기 애착 양식원형과 내적 작동 모델 요소간 관련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권 1호, 2002, 93-124쪽.

김광은·이위갑,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권 1호, 2005, 233-247쪽.

김종길, 「해양경찰공무원의 불안정성인애착이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해양환경안전학회지』 31권 1호, 2025, 130-137쪽.

——, 「해양경찰공무원의 환경적합성이 조직 및 직무애착에 영향 연구」, 『한국해양환경안전학회지』 29권 7호, 2023, 871-878쪽.

김은영·이지은, 「대학생의 애착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몰입의 매개효과」,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권 7호, 2020, 255-263쪽.

김윤재·남궁선·강영숙, 「보육교사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벤처창업연구』 9권 4호, 2014, 135-144쪽.

김정문,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진숙, 「애착이론의 내적 작동 모델과 상담적 적용점」, 『상담학연구』 14권 4호, 2013, 2485-2507쪽.
- 김진숙·안창일, 「애착 유형에 따른 역압의 강도와 스트레스 지각 및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권 4호, 2008, 1026-1029쪽.
- 오창진·강요한·송원영,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내면화된 수치심이 발표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권 2호, 2023, 307-327쪽.
- 윤성민,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이중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권 4호, 2019, 1139-1164쪽.
- 이옥경·이예진, 「애착 제품 개발을 위한 대학생의 애착 실태 조사」, 『한국생활과학회지』 30권 2호, 2021, 361-371쪽.
- 임다정·두경희, 「직장인의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과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권 3호, 2018, 86.
- 장유진·김나래, 「직장인의 성인애착과 조직몰입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의 매개효과」, 『사회심리발달연구』 제4권 2호, 2023, 33-50쪽.
- 전호성·송해덕, 「조직침묵, 직무몰입, 조직공정성, 이직의도간 구조적 관계 연구」, 『HRD 연구』 20권 2호, 2018, 87-112쪽.
- 전혜지·김우철, 「경력몰입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역량개발학습연구』 18권 2호, 2023, 123-162쪽.
- 유영현, 「해양경찰공무원의 동기부여가 조직몰입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해양경찰학회보』 7권 3호, 2017, 95-117쪽.
- 홍세연·조동혁, 「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애착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4호, 2023, 465-476쪽.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vol. 46, no. 1, 1998, pp.58-63.
- Edelstein, R. S. "Attachment and emotional memory: Investigating the source and extent of avoidant memory impairments", *Emotion*, vol. 6, no. 2, 2006, pp.340-345.
- Fraley, R. C. & Shaver, P. R.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etical developments, emerging controversies, and unanswered ques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4, no. 2, 2000, pp.132-154.
- Hazan, C. & Shaver, P. R.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2, 1990, pp.270-280.
- Huang, W., Yuan, C., & Li, M. "Person-job fit and innovation behavior: Roles of job involvement and career commitment",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0, 1134, 2019. <https://doi.org/10.3389/fpsyg.2019.01134>
- Jeong, Y. A. "Commitment and Multiple Commitments: Theoretical Perspectives",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 1, 1990, pp.263-284.
- Littman-Ovadia, H., Oren, L., & Lavy, S. "Attachment Styles and Employee Performance: The Mediating Role of Burnout",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47, no. 4, 2013, pp.383-401.
- London, M.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8, no. 4, 1983, pp.620-630.
- Mikulincer, M. & Shaver, P. R. "Boosting attachment security to promote mental health, prosocial values, and inter-group tolerance", *Psychological Inquiry*, vol. 18, no. 3, 2007, pp.139-156.
- Mowday, R. T., Steers, R. M., & Porter, L. W.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14, no. 2, 1979, pp.224-247.
- Mikulincer, M. & Shaver, P. R. *Attachment in adulthood: Structure,*

dynamics, and change, Guilford Publications, 2010.

Teixeira, R. C. R., Ferreira, J. H. B. P., & Howat-Rodrigues, A. B. C.
“Collins and Read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
validity evidences”, *Psico*, vol. 50, no. 2, 2019. <https://doi.org/10.15448/1980-8623.2019.2.29567>

인터넷 사이트

<https://pmc.ncbi.nlm.nih.gov/articles/PMC3885143/>, 2025년 4월
24일 검색.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불안 및 회피 애착 유형이 이중몰입(조직몰입,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해양경찰공무원 163명을 대상으로 성인 애착 척도(RAAS)와 이중몰입 척도를 활용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SPSS 25.0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불안 애착은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 애착은 조직몰입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경력몰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해양경찰관의 애착 불안이 대인관계에서의 과도한 경계심과 실패 두려움으로 인해 조직 및 경력 목표 추구를 저해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애착 기반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조직 차원의 맞춤형 멘토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언하며, 해양경찰 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해양경찰관, 불안 애착, 회피 애착, 조직 몰입, 경력 몰입

■ Abstract

The Impact of Anxious - Avoidant Attachment on Dual Commitment among Maritime Police Officers

You, Jae Doo /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how anxious and avoidant attachment styles affect dual commitment (organizational and career commitment) among maritime police officers. Using a survey of 163 maritime police officer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 and dual commitment measures, wi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via SPSS 25.0. Results indicated that anxious attachment negatively impacts both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commitment. Avoidant attachmen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but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career commitmen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ttachment anxiety in maritime police officers hinders the pursuit of organizational and career goals due to excessive vigilance and fear of failure in interpersonal interactions. The study proposes developing attachment-base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and implementing tailored mentoring systems to enhance organizational efficiency.

Keyword • Coast Guard Officer, Anxious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Career Commitment, Organizational Commitment

■ 논문투고일:2025.05.24. ■ 심사완료일:2025.07.09. ■ 게재확정일:2025.07.09. ■

마음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이론 비교 분석 연구*

장 연 주**

목 차

1. 서론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ST
4. ST에 대한 비판적 견해
5. DSP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6. 체화주의와 행화주의
7. 결론 및 제언

1. 서론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읽으면서 ‘내가 왜 타인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자문한 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이 무엇을 의도하거나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사실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한다. 이러한 능력은 타자의 행동을 예측하고 해석하는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원활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은 상위표상(metarepresentation)과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의 발달을 위한 기반

* 본 연구는 2025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장연주(제1저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교육연구전공 부교수

이 되기도 한다.¹⁾

타인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는 지난 30년간 심리학, 철학, 인지신경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고,²⁾ ‘마음 이론’을 기반으로 논의되어 왔다.³⁾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은 우리 자신과 타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하는 발달심리학의 개념이다. 최근까지 마음 이론은 두 하위 이론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이론 이론(Theory Theory, 이하 TT)과 시뮬레이션 이론(Simulation Theory, 이하 ST)이다. TT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잘 설명하고 예측해 줄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ST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훌륭한 모델이 있기에 타인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어 줄 이론은 필요 없고, 대신, 타인의 인지과정이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타인의 내면을 마치 직접 읽어내는 것처럼 이해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마음 이론’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⁴⁾ 이러한 비판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직접적인 사회적 지각(DSP: Direct Social Perception, 이하 DSP)’을 강조하고, 두 번째는 정보 처리 과정에서 뇌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의 감각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를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타자에 대한 이해의 핵심이자 근간에 둘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특히 마지막 입장은 사회인지를 설명하는 이론 중

1) Perner, Josef.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Cambridge, MA: MIT Press, 1991.

2) 김혜리, 『마음읽기와 마음나누기』, 서울: 학지사, 2023.

3) 정혜윤, 「타인의 마음, 행화로 만나기」, 이영의 외, 『체화된 마음과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2024.

4) 김혜리, 앞의 책.

하나인 행화주의(enactivism)로 분류된다.⁵⁾

타인의 내면을 읽어내는 문제는 기존에 지배해 온 마음 이론보다는 그 대안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으며, 이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단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타인의 내면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역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탐색할 수도 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한 가지 시각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익숙해지는 태도가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령 그것이 낯선 시각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배척하기보다는 차분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타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문제에 지배적이었던 마음 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세 입장(DSP, 체화주의, 행화주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각 이론의 의의와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DSP 이론과 행화주의(enactivism) 이론을 비교하였지만,⁶⁾ 본 연구에서는 DSP 이론뿐만 아니라, 체화주의, 행화주의를 각각 비교하여 타인에 대한 이해에 더욱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위와 같은 목적의식하에 문헌 연구를 연구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3장에서는 ST 이론을 소개하였다. ‘마음 이론’ 중 ST 이론만을 언급한 이유

5) 양선이, 「감정에 관한 행화주의: 프린츠의 제한된 행화주의를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30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3, 67-97쪽.

6) 정혜윤, 「타인의 마음, 행화로 만나기」, 이영의 외, 앞의 책, 2024.

는 TT 이론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ST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담고 있는 세 가지 이론, 직접적인 사회적 지각(DSP), 체화주의(embodimentism), 행화주의(enactivism) 이론이 ST 이론과 어떻게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떠한 점을 근거로 비판적인 견해를 지니게 되었는지 알아보았다. 5장에서는 체화주의와 행화주의가 DSP 이론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상반된 견해를 가졌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6장 1절에서는 체화주의와 행화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데 있어 뇌중심주의와 어떻게 상반되는 견해를 취하는지 알아보고 2절에서는 체화주의와 행화주의의 차이점을 짚어보았다. 3절에서는 사회인지를 의미 생성이 상호작용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적 절차로 제안하는 행화주의의 주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타자 이해에 관한 각각의 이론을 연결하여 논의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였다.

본 연구는 단순한 문헌 정리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이론(ST)에 대한 철학적·인식론적 비판을 바탕으로 대안적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개념적 구도를 재구성함으로써 타자 이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심화하고자 했다. 이는 문헌을 자료로 활용한 분석적 연구로서, 단순 탐색이 아니라 사회 인지 이론의 전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작업이다.

3. ST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 ‘마음 이론’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마음 이론(Theory of Mind)’은 마음은 관찰 불가능한 영역의 힘이고 그 힘의 효과

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난다는 개념이다.⁷⁾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믿음, 의도, 욕망 등 심적인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켜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해석하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까지 마음 이론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설명됐는데, 그중 이 절에서는 ST(시물레이션 이론)를 소개하고자 한다.

ST는 우리가 타인의 입장이나 상황에 자기 자신을 두고,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그 사람의 상황에 닥쳐졌을 때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며 행동할지 상상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⁸⁾ 여기서 ST는 두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낮은 수준은 거울뉴런 시스템(mirror neuron system)에 의해 발행하고, 높은 수준은 복잡한 수준의 내적 과정을 포함하는데, 사람들이 타인의 정신 상태를 알고자 가상(pretend)의 정신 상태를 사용하여 상상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말한다.⁹⁾ 이때 투사는 낮은 수준에서는 암묵적으로, 높은 수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일어난다. 그 예로, 낮은 수준의 시물레이션은 표정에 기초하여 타인의 정서를 파악하는 등 관찰자적인 양상에 제한된다. 고차적 시물레이션은 타인의 관점을 취해, 그가 처해 있다고 추정되는 상황에서 가장된 사고, 믿음, 의도를 구성함으로써 타인의 욕구, 판단, 신념을 읽어내는 방식이다.

이 이론의 연구가들은 ‘관찰 불가능성의 원칙(unobservability principle)’을 설명하고 있다. 인간 마음의 핵심적인 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고, 타인의 정신 상태는 감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추론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¹⁰⁾ 또한, 타인의 정신 상태

7) 알바 노에 저, 김미선 역, 『뇌과학의 함정: 인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하여』, 서울: 갤리온, 2009.

8) Schlicht, Tobias. *Philosophy of social cognition*, Cham: Springer, 2023.

9) Shanton, K. & A. Goldman. “Simulation theory”,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gnitive Science*, vol. 1, no 4, 2010, pp.527-538.

10) Leslie, Alan M. “Pretense and representation: The origins of ‘theory of

는 비가시적이어서 이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심적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한다.¹¹⁾ 이 이론은 특정한 심적 상태를 타자에게 귀속시키는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인지를 개인 차원의 과정으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¹²⁾ ST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ST 이론

구분	내용
등장 배경	- 마음 이론의 등장과 함께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아는지 관심이 부각됨
핵심 개념	- 타인의 입장에 자신을 놓고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감정, 사고, 의도 등을 상상하여 이해함
핵심 전제	- 타인의 정신 상태는 오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함
인지 성격	- 인지를 개인의 내적 과정으로 환원하여, 개인 상상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함
비판	- 인지를 사회적 맥락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축소함 - 타인의 마음을 상상에 의존하며 비직접적인 방식으로 설명함

4. ST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1) 직접적인 사회적 지각(DSP: Direct Social Perception) 이론의 견해

DSP 이론을 통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견해는 관찰 불가능성 원칙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한다. 즉, 타인의 심적 상태는 그의 행동을 통해 충분히 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DSP 지지자들은 단순히 타인의 마음이 ‘지각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지각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직접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mind””, *Psychological Review*, vol. 94, no. 4, 1987, pp.412-426.

11) Epley, Nicholas & Adam, Waytz. Mind Perception,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say. eds. New York: Wiley, 2009.

12) 정혜윤, 「타인의 마음, 행화로 만나기」, 이영의 외, 앞의 책, 2024.

데 있어 별도의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니엘 자하비는, 우리가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타인의 심리 상태가 우리의 “일차적인 지향적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¹³⁾ 다니엘 자하비는, 우리가 타인의 심리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곧 타인의 심리 상태가 우리의 “일차적인 지향적 대상”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¹⁴⁾ 즉,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가 마치 눈앞에 직접 나타나는 것처럼 경험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추론하지 않고도 그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즉각적으로 파악한다. 이것이 DSP에서 말하는 ‘직접적 지각’의 핵심 개념이다.

조엘 크루거(Joel Krueger)와 쇠렌 오버가드(Søren Overgaard)는 고전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이 지각적 직접성을 ‘사회적 정보의 풍부함’으로 설명한다.¹⁵⁾ 그들에 따르면, 타인의 정서나 의도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별도의 ‘마음 읽기’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¹⁶⁾ 손 갤러거(Shaun Gallagher)는 이와 비슷한 개념을 ‘지각의 똑똑함(smartness)’으로 설명한다. 여기에서 ‘똑똑하다’는 것은 추가적인 인지적 보조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갤러거는 지각이 본래 ‘똑똑’하며, 따라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별도의

13) 앞의 책.

14) Zahavi, D. “Empathy and direct social perception: A phenomenological proposal”,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vol. 2, no. 3, 2011, p.548.

15) Gallagher, S. “Inference or interaction: Social cognition without precursors”, *Philosophical Explor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Mind and Action*, vol. 11, no. 3, 2008b, pp.163-174.

16) Krueger, J. & S. Overgaard. “Seeing subjectivity: Defending a perceptual account of other minds”, *ProtoSociology: Consciousness and Subjectivity*, vol. 47, 2013, p.241.

추론이나 해석 없이 직접적인 지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¹⁷⁾

결과적으로, 갤러거는 DSP에서 말하는 ‘직접적 지각’의 반대 개념은 ‘간접적 지각’이 아닌, 추론과 해석이 추가된 지각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사회적 지각은 매우 ‘똑똑’해서, ST와 같은 별도의 인지적 과정이 없어도 대부분의 사회적 이해를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체화주의의 견해

체화주의(embodimentism)는 체화인지 이론(embodied cognition theory)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일상 용어로 체화는 ‘직접 경험하여 자기 것이 됨’을 뜻하는 반면, 체화인지 이론에서는 지식의 주체가 환경과 ‘완전히 들러붙음’의 의미로 사용된다.¹⁸⁾ 즉, 체화는 두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얇은 뇌만의 독립적인 작용이 아니라 신체 전체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얇은 개인 혼자만의 산물이 아니라 타인이나 인간이 만든 도구, 그리고 물리·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 하며 나타난다는 것이다.¹⁹⁾ 다시 말해 체화 인지(Embodied Cognition)란 정보 처리 과정에서 뇌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의 감각이 우리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다.²⁰⁾

체화 인지의 대표적인 학자는 레이코프(Lakoff)와 존슨(Johnson)이 있으며, 이를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인간의 인지는 신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사고는 감각적이고 운동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주

17) Gallagher, S. "Direct perception in the intersubjective context",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 17, no. 2, 2008a, p.540.

18) 한상모, 『체화된 삶과 교육』, 서울: 퍼플, 2020, 5쪽.

19) 앞의 책.

20) Lakoff, George &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9.

장한다. 이에 대한 연구들은 과거의 기억, 현재 경험하는 감각 자극, 수행 중인 행동이나 자세, 물리적 환경의 구조와 크기 등이 무의식적으로 개인의 인지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²¹⁾ 예를 들어, Williams와 Bargh의 연구²²⁾에서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보다 따뜻한 음료를 마실 때 타인을 더 신뢰하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ckerman, Nocera, 그리고 Bargh의 연구²³⁾에서는 단단한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때 폭신한 의자에 앉아 있을 때보다 의사결정이 더 엄격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Ijzerma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²⁴⁾에서는 사회적 배제 경험이 실제로 손끝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신체를 따뜻하게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완화되는 결과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상황적 맥락과 신체적 감각 경험 등 신체에 내재된 정보가 인지와 행동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지가 본질적으로 체화적임을 시사한다. 즉, 체화된 인지 개념은 과거에 신체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심신이원론, 마음의 모듈성(Modularity of the mind) 이론, 계산주의(Computationalism), 신경 연결망을 기반으로 정신 작용을 설명하려 했던 환원주의적 연결주의와 차별화되고,²⁵⁾ 뇌를 중심으로 인지를 해명하려는

21) 골드하겐 저, 윤제원 역, 『공간혁명』, 파주: 다산사이언스, 2019.

22) Williams, Lawrence E. & John A. Bargh. "Experiencing physical warmth promotes interpersonal warmth", *Science*, vol. 322, no. 5901, 2008, pp.606-607.

23) Ackerman, J. M., C. C. Nocera, & J. A. Bargh. "Incidental haptic sensations influence social judgments and decisions", *Science*, vol. 328, no 5986, 2010, pp.1712-1715.

24) Ijzerman, H. et al., "Caring is for sharing: How attachment styles modulate communal cues of physical warmth", *Social Psychology*, vol. 44 no. 2, 2012, pp.160-166.

25) Barsalou, Lawrence 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grounding cognition", *Journal of Cognition*, vol. 3, no. 1, 2020, p.31.

26) 이영의, 「체화된 마음과 몸의 위상」, 이영의 외, 『체화된 마음과 몸』, 서울: 한국문화사, 2022.

신경과학과도 경쟁하고 있다.²⁶⁾

체화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이론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 통일된 하나의 지배적인 관점이 정립되지 않았다. 그리고 4Es라고 불리는 체화인지(embodied cognition), 내장인지(embedded cognition), 확장인지(extended cognition), 행화인지(enactive cognition) 뿐만 아니라, 분산인지(Distributed Cognition), 상황인지(Situated Cognit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⁷⁾ 그리고 마크 롤랜즈는 체화인지와 확장인지를 하나로 묶어 연합된 마음(amalgamated mind)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²⁸⁾

이렇게 개별 이론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화주의적 접근은 실시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각·운동 정보가 인지과정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²⁹⁾ 인간은 오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각·운동 체계를 활용하여 신체적·기능적 한계를 고려한 상태에서 환경과 서로 작용하면서 외부 정보를 지각하고 해석하며, 그에 따라 행동한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작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몸과 환경의 연결’이 필수적이라고 본다.³⁰⁾ 본 연구에서는 체화인지를 체화주의 입장으로 행화인지를 행화주의 입장으로 대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행화인지가 사회인지로서 복잡한 인지능력

27) 이영의, 「체화된 인지의 개념 지도: 두뇌의 경계를 넘어서」, 『Trans-Humanities』 8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5, 101-139쪽; 이영의, 「체화된 마음과 몸의 위상」, 이영의 외, 앞의 책, 2022.

28) 마크 롤랜즈 저, 정혜윤 역, 『새로운 마음 과학: 확장된 마음으로부터 체화된 현상학까지』, 서울: 그린비, 2024.

29) 이영의, 앞의 논문, 101-139쪽; Marmeleira, J. & G. D. Santos, “Do not neglect the body and action: The emergence of embodiment approaches to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126, no. 3, 2019, pp.410-445.

30) Wilson, M. “Six views of embodied cognitio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vol. 9, no. 4, 2002, pp.625-636.

과 사회적 환경에 주목하고, 사회인지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행화주의(enactivism)로 분류되기 때문이다.³¹⁾

과연 그렇다면, 체화주의적 접근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ST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체화 인지 이론은 신경과학에서 발견된 거울뉴런(Mirror Neurons)의 역할을 강조한다. 거울뉴런은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바라볼 때, 마치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에서 활성화되는 신경세포들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 컵을 잡으려고 동작하면 이를 관찰하는 사람의 뇌에서도 같은 동작을 할 때 활성화되는 뉴런이 반응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타인과 대화할 때 단순히 언어적 정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 표정, 목소리의 억양 등을 활용하여 의미를 공유하고 조율한다. 이는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개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즉, 체화주의는 인지가 단순히 개인의 정신적 과정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ST가 추론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이해한다면, 체화주의는 신체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통해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해한다. 또한 ST는 신체가 단순한 전달 도구로서 수동적인 역할을 취하는 반면, 체화주의는 신체가 인지과정의 핵심요소로서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취하고 있다. 즉, 체화주의 이론에서는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신체적 경험과 타인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3) 행화주의 이론의 견해

행화주의자들의 ST에 대한 비판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

31) 양선이, 앞의 논문, 67-97쪽; 정혜윤, 「타인의 마음, 행화로 만나기」, 이영의 외, 앞의 책, 2024.

째로 이들은 ST가 인간의 심적 상태를 숨겨진 내적 상태로 간주하고,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인식론적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들은 타인의 심적 상태를 오직 추론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입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신, 타인의 의도와 감정을 그들의 행동적 표현과 맥락 속에서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행화주의자들은 ST가 탈신체화한다고 비판한다. 이 이론에서는 신체가 단순히 전달 매체 역할만 할 뿐, 타인과의 이해와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ST 지지자들은 거울 뉴런의 발견을 근거로 들어, 이를 심적 시뮬레이션의 신경학적 증거로 삼고자 하지만,³²⁾ 행화주의자들은 거울뉴런의 활성화가 ST에서 정의하는 '시뮬레이션'과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ST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³³⁾

세 번째로, 행화주의자들은 ST가 사회인지에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을 3인칭 관찰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타자에 대한 이해가 마치 상호작용과 독립적이라고 설명하는 ST의 내재주의적 접근은 사회인지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회인지는 “타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그 이상”이며, “타자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이해를 구성해 가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³⁴⁾ 푸흐스(Thomas Fuchs)와 드

32) Vittorio, G. “Before and below ‘theory of mind’: Embodied simulation and the neural correlates of social cognit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Biological Sciences*, vol. 362, no. 1480, 2007, pp.659-669.

33) Gallagher, S. “Direct perception in the Intersubjectivity context”,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 17, no. 2, 2008a, pp.540-542; Gallagher, S. “Simulation trouble”, *Social Neuroscience*, vol. 2, no. 3-4, 2007, pp.353-365.

34) De Jaegher, H., E. Di Paolo, & S. Gallagher. “Can social interaction

예거(Hanne De Jaegher) 역시, 숨겨진 심적 과정과 실제 상호작용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ST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³⁵⁾

마지막으로, 행화주의자들은 ST가 개인이 타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사회인지가 단순히 타인의 심적 상태를 추론하고 귀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과 공동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³⁶⁾

[표 2] ST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이론	ST 이론에 대한 비판	핵심 개념 및 논거
DSP	ST는 추론에 의존하여 타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 경험과 다름.	- 타인의 정서 상태는 직접적인 지각 가능 - 지각 자체가 '똑똑(smart)'하여 추가 해석 불필요
체화주의	ST는 신체를 단순한 매개로 간주하여 '탈신체화'된 이론이며, 인지의 본질을 왜곡함.	- 인지는 신체,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발생 - 신체 경험이 인지와 정서/판단에 직접적 영향
행화주의	ST는 타인의 마음을 숨겨진 내적 상태로 전제하며, 실제 상호작용을 배제함.	- ST는 상호작용을 간과하고 관찰자적 시각에 머무름 - 사회인지는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5. DSP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1) 체화주의의 견해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DSP 이론은 타인의 정신 상태를 직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ST와 달리 복잡한 내적 추론이 필요하지 않다

constitute social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14, no. 10, 2010, p.442.

35) Fuchs, T. & H. De Jaegher. "Enactive intersubjectivity: Participatory sense-making and mutual incorporation",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vol. 8, 2009, p.466.

36) Zahavi, D. op. cit., p.546.

고 주장한다. 여기서 체화주의가 DSP 이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지각은 신체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체화주의는 인지가 신체적인 경험과 환경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타인의 정신 상태를 단순히 직접적으로 지각한다고 보는 것을 비판한다. DSP 이론은 사회적 지각이 마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과정인 것처럼 보지만, 체화주의에서는 우리의 신체적 경험과 행위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경험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역동적 과정이라는 것이다.³⁷⁾

둘째로, 사회적 지각은 감각, 운동적 경험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체화주의는 인지가 신체적 감각과 운동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고 강조하는데, DSP는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체화주의에서는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신체적 경험과 감각적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³⁸⁾ 반면, DSP는 이러한 신체적 요소보다 순수한 지각 과정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 체화주의 관점에서는 사회적 지각의 복잡성을 단순화한 이론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로, 사회적 인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단순히 그들의 얼굴을 보고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실제로 상호작용 하면서 감정을 조정하고 의미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³⁹⁾ 예를 들어, 만약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슬퍼하는 표정을 지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위로하는 말을 하거나 손을 잡아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친구가 괜찮다고,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즉

37) Lindblom, J. "A radical reassessment of the body in social cognition",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1, no. 987, 2020, pp.1-16.

38) *Ibid.*, pp.1-16.

39) *Ibid.*, pp.1-16.

시 감정을 다시 조정하면서 덜 걱정하거나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하지만 DSP가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한계를 가진다고 비판한다. 즉, 행화주의는 DSP 이론이 사회적 인지를 보다 복합적인 과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신체적 경험과 무관하게 다룬다고 비판한다.

2) 행화주의의 견해

행화주의자들은 DSP 이론이 사회인지에서 상호작용이 수행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적 경험의 직접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지각 능력의 문제라기보다, 상호작용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인데, DSP 지지자들은 이 점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드 예거(De Jaegher)는 이들이 사회적 지각을 마치 개인의 인지 능력에 의해 강화되는 개별적인 과정처럼 다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그는 DSP를 개인의 능력으로 이해하기보다, 상호작용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⁴⁰⁾ 이러한 입장은 드 예거가 갤러거(Gallagher)를 비판하는 지점에서 드러나는데, 그는 갤러거가 인지주의의 전통적인 개인주의적, 모듈적인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본다. 갤러거가 주장하는 ‘똑똑한 지각’(smart perception)이 결국 지각 과정에 추가적인 인지적 요소가 개입하는 것으로, 이는 ST에서 전제하는 지각 개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⁴¹⁾

결국, 드 예거는 단순히 ‘빈약한 지각’을 ‘똑똑한 지각’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40) De Jaegher, H. “Social understanding through direct perception? Yes, by interacting”,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 18, no. 2, 2009, pp.535-542.

41) 정혜윤, 「타인의 마음, 행화로 만나기」, 이영의 외, 앞의 책, 2024.

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ST, DSP 모두가 공통으로 취하는 정적인 관찰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인지를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과정 안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DSP 이론을 비판하고 있는 체화주의와 행화주의 이론을 설명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DSP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

이론	ST 이론에 대한 비판	핵심 개념 및 논거
체화주의	DSP는 사회적 지각을 신체와 환경의 상호작용 없이 가능한 직접적 과정으로 단순화함	- 사회적 지각은 신체적 경험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 - 감각·운동적 경험이 지각의 필수 조건이며, 단순한 시각적 지각으로 축소 불가
행화주의	DSP는 지각을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인지 능력으로 환원하며, 상호작용의 본질을 간과함	- ‘똑똑한 지각’은 여전히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함 - ST와 DSP 모두 정적인 관찰자 모델에 머물러 있음 - 사회인지는 행위-참여를 통한 의미 공동 구성의 과정

6. 체화주의와 행화주의

1) 뇌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뇌중심주의자는 인지를 하는 데 있어 뇌가 중심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들에 따르면 믿고, 해석하고, 경험하고, 범주화하고, 규칙을 조작하고, 추측하고, 인지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귀납적으로 추론하고, 의사결정하고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뇌인 것이다. 즉, 인지의 주체는 자아가 아니라, 뇌인 것이다. 또한, DNA의 이중나선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한 크릭 역시 자아는 신경망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아의 독립성을 부정한다.⁴²⁾

42) 이영의, 「뇌중심주의의 한계: 부분·전체 원리를 중심으로」, 이영의 외, 『체화된

뇌중심주의는 인지를 신경망의 과정, 상태, 패턴으로 보는 것을 넘어 자아 및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환원적 물리주의(reductive physicalism)로 주장하는데, 이 이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그것들은 물리학에 기반하여 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뇌중심주의를 지지하는 물리주의자들은 신경과학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다르면 물리주의에 우호적인 경험적 증거가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한다.⁴³⁾ 그렇지만, 저명한 과학철학자 험펠이 지적했듯이 물리주의자들의 이런 태도는 ‘이론가의 딜레마(theoretician’s dilemma)’에 처하게 된다.⁴⁴⁾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신경과학자, 철학자들은 최신 과학이 물리적 세계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다.⁴⁵⁾

인지 과학자인 알바 노에는 뇌가 우리의 앎, 의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뇌, 몸, 우리 자신이 처한 환경과 관련하여 뇌가 하는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⁶⁾ 그는 뇌가 우리의 앎, 의식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분명하나, 뇌 말고도 몸과 세계를 포함하여 자신을 파악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경과학자, 심리학자, 철학자들은 뇌가 어떻게 우리를 의식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 어떻게 뇌가

마음과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2023.

43) Churchland, Patricia S. *Brain-Wise: Studies in Neurophilosophy*, Cambridge, MA: MIT Press, 2002.

44) Hempel, Carl. Reduction: Ontological and linguistic facets. in *Philosophy, Science, and Method: Essays in Honor of Ernest Nagel*, Patrick Suppes, Sidney Morgenbesser, & Morgan White. eds. New York: St. Martin’s, 1969.

45) 알바 노에 저, 앞의 책; 이영의, 「체화된 마음과 몸의 위상」, 이영의 외, 앞의 책, 2022; 이영의, 「뇌중심주의의 한계: 부분·전체 원리를 중심으로」, 이영의 외, 앞의 책, 2023; 마크 롤랜즈 저, 앞의 책; 체화인지연구단, 『마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박이정, 2024.

46) 알바 노에 저, 앞의 책, 5쪽.

감각, 느낌, 주관성을 일으키는지, 빨강이 빨강다는 느낌이 어떻게 뇌의 작용으로 발생하는지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시인한다.⁴⁷⁾

체화주의와 행화주의는 인지란 몸에 기반을 둔 활동으로 인지를 신체와 엄격히 구분하는 것을 반대한다. 전통적으로 인지는 몸과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데카르트의 이원론이다. 데카르트는 정신은 비물질적이고, 그 성질은 사고이며, 사고는 물질로서 몸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하였다.⁴⁸⁾ 이 두 이론은 기호주의와 연결주의, 두뇌 중심적 신경과학이 공유하는 관점, 즉 인지가 신체나 세계와 무관하게 작동하거나 전적으로 두뇌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견해에 반대한다.

2) 체화주의와 행화주의의 차이점

체화주의와 행화주의 이론의 차이점을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체화주의는 ‘신체적인 경험’이 타인의 행동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는 반면,⁴⁹⁾ 행화주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없으면 사회적 인지는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⁵⁰⁾ 즉, 체화주의는 신체적인 메커니즘을 강조하고 있고, 행화주의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형성된다고 보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체화주의와 행화주의 모두 신체와 환경,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지에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두 이론이 유사하지만, 그 안에서 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고, 인지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체화주의와 행화주의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겠다.

47) 앞의 책, 16쪽.

48) 이영의, 「체화된 마음과 몸의 위상」, 이영의 외, 앞의 책, 2022.

49) Gallagher, S. op. cit., 2008a, pp.535-543.

50) De Jaegher, H. & E. Di Paolo. “Participatory sense-making: An enactive approach to social cognition”,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vol. 6, 2007, pp.485-507.

체화주의는 인지는 기본적으로 뇌, 신체, 환경 간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이지만, 행화주의는 인지는 개인 내부 과정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⁵¹⁾ 즉, 체화주의는 궁극적으로 개인이 신체적·신경적 수준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에, 행화주의는 인지를 개체 내부의 과정으로 보지 않을뿐더러, 인지과정이 신경적 수준에서만 설명될 수 없고, 행위(action)와 상호작용(interaction) 속에서 발생한다⁵²⁾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체화주의는 거울 뉴런, 감각-운동 과정(sensorimotor processes), 신체적 공명 등이 타인을 이해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본다.⁵³⁾ 예를 들어, 거울 뉴런 시스템이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뇌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타인의 행동을 보는 순간, 우리의 신체적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화주의는 인지가 단순한 정보 처리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과 능동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의미를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타인과의 실제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가 공동으로 형성되며, 사회적 맥락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타인의 표정을 보고 ‘내가 그 감정을 모방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구성되는 것이다.⁵⁴⁾

인지의 본질적인 성격 또한 두 이론은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 체화주의

51) Varela, Francisco J., Evan, Thompson, & 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The MIT Press, Cambridge, 1991.

52) Thompson, Evan. *Mind in life: Biology, phenomenology, and the sciences of mi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53) Rizzolatti, G. & L. Craighero, “The mirror-neuron system”, *Annual Review of Neuroscience*, vol. 27, 2004, pp.169-192.

54) De Jaegher, H., E. Di Paolo, & S. Gallagher. op. cit., pp.441-447.

는 기존의 뇌 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신체와 환경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별적인 인지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신체가 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 강하다. 인지를 개인의 신경 시스템(거울 뉴런, 감각-운동 회로 등)과 같은 신체적 경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행화주의는 인지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과정(dynamic process)으로 보고, 인지는 단순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타인과의 공동 행위 속에서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인지로서 행화주의 견해

행화주의는 영미권 분석철학 전통에 기반한 인지과학에 대한 비판으로 유럽대륙 전통에서 나온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 퐁티 등의 현상학적 철학사상에 영향을 받았다.⁵⁵⁾ 행화주의에 기여한 학자들은 깁슨, 깬러거 등이 있지만, 그중 생물학자인 바렐라와 그의 스승 마투라나는 행화주의의 핵심 이론인 자가생산체계론을 발표하였다. 자가생산체계란 생물학에서 세포의 자가 유지 및 조직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자기 구성 요소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말한다.⁵⁶⁾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 외부와 분리되어 있지만 외부와 물질을 교환하며 항상성을 유지한다. 마찬가지로 유기체도 활동을 통해 동일성과 항상성을 생성하고 유지하며 그런 과정을 통해 인지를 정의하는 자율적 행위자이다. 모든 시스템은 뭔가를 결과로 생산해 내는데, 자가생산계는 그 결과물이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으려면, 마치 동물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유기체도 자신

55) 이기흥, 「행화주의의 마음치유: 시론」, 『철학탐구』 48권,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7, 91-129쪽.

56) Maturana, Humberto R. & Francisco J.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0.

의 환경과 어떤 형태로든 상호 교류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기체와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상호작용을 할 때 이 둘은 구조적으로 잘 접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생성적 행화주의는 인지를 내적 표상에 대한 계산으로 보는 인지주의를 반대하고,⁵⁷⁾ 사회인지로서 타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회인지는 타인들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타인들과 함께 이해하는 것에도 관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는 타자의 행동에 대해 그 이유를 말로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실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⁵⁸⁾

위에서 살펴본 사회인지에 대한 이들의 견해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사회인지가 요구하는 능력을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ST와 DSP 모두 ‘우리가 타자의 마음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며, 따라서 이것은 타자의 마음에 대한 ‘앎’에 초점이 있다. 반면, 행화주의에서는 ‘앎’이 아니라 ‘행위’, ‘행위로서의 앎’이 핵심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할 경우, 행화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행화주의는 시각 양상을 통해 환경 구조를 탐사하고 탐색하는 능력을 중요시 여긴다.⁵⁹⁾ 환경 내 시각적 구조를 탐사하고 탐색하는 것도 행위의 한 형식으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각하는 주체는 외부 환경에 담긴 구조, 풍부함, 복잡성을 탐사하고 탐색하는 활동을 해야 하고, 이러한 구조적 풍부함과 복잡성을 반영하는 경험을 행화하는 데 있어 이 경험을 할

57) 이영의, 『체화된 마음과 몸의 위상』, 이영의 외, 앞의 책, 2022.

58) De Jaegher, H., E. Di Paolo, & S. Gallagher. op. cit., p.442.

59) 마크 롤랜즈 저, 앞의 책.

용한다는 것이다.

행화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상호작용은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미리 주어지는 입력 정보가 아니다. 또한 타인의 마음을 먼저 파악한 뒤 그것을 상호작용에 적용하는 과정도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가 사회적 이해를 구성한다. 이들은 상호작용을 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몰입하는 과정이자, 그 자체로 인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절차로 본다.⁶⁰⁾ 이때 인지는 ‘의미 생성’과 동일시되며, 의미 생성은 ‘자율성’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⁶¹⁾

행화주의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 체계는 자율적 체계로서 내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인지 체계와 환경은 상호 구성하고 규정하며 공동으로 결정하는 역동적이면서 순환적인 관계에 구조적으로 결속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⁶²⁾ 이러한 과정에서 인지 체계는 세계를 자신의 발생과 존속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로써 세계에 관한 ‘관점’이 형성된다. 이 ‘관점’의 형성은 곧 ‘의미’의 생성과 같다.⁶³⁾ 즉, 자율적 체계가 세계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규범성을 창출하는 행위가 바로 의미 생성인 것이다.

행화주의에서 인지는 “체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체계와 환경 간 발생하는 의미 생성의 관계적 절차”로 이해된다.⁶⁴⁾ 이때 세계

60) De Jaegher, H. op. cit., p.538.

61) Thompson, E. & M. Stapleton. “Making sense of sense-making: Reflections on enactive and extended mind theories”, *Topoi*, vol. 28, no. 1, 2009, p.24.

62) Thompson, E. & M. Stapleton. “Making sense of sense-making: Reflections on enactive and extended mind theories”, *Topoi*, vol. 28, no. 1, 2009, p.24.

63) Weber, A. & F. J. Varela. “Life after Kant: Natural purposes and the autopoietic foundations of biological individuality”,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vol. 1 no. 2, 2002, pp.117-118.

64) Thompson, E. & M. Stapleton. “Making sense of sense-making:

는 유기체 내부에 먼저 표상된 후 평가되어 의미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관점을 지닌 유기체가 세계와 직접 맞닥뜨리면서 의미를 획득한다.⁶⁵⁾ 또한 전통적으로 구분되어 온 지각과 행위의 경계는 행화주의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지각은 의미 생성 행위 내의 특수한 국면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⁶⁶⁾ 예컨대 스폰지의 부드러움은 우리가 스폰지를 만지고 눌러보고 쥐어보는 탐색적 행위를 통해 비로소 지각되듯, 지각은 유기체의 신체와 환경이 특수하게 맞닿는 지점에서 발생한다.⁶⁷⁾

의미 생성이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인지 작용이라면, 사회적 차원에서의 인지 작용은 ‘참여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 생성’을 통해 설명된다. 참여적 의미 생성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행화주의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자율적 행위 주체들 간의 규제된 구조적 결속으로 정의한다.⁶⁸⁾ 이때 ‘규제’는 주체들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구조적 결속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주체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형성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 간 몸의 열기가 전이되는 현상은 상호작용이라 할 수 없다. 구조적 결속은 존재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대화가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대화 참여자들이 주제를 공동으로 정하고, 대화의 시작부터 전개, 마무리까지 그들의 자율성을 유지한 채 규제하기 때문이다.⁶⁹⁾ 연극 무

Reflections on enactive and extended mind theories”, *Topoi*, vol. 28, no. 1, 2009, pp.26.

65) Di Paolo, Ezequiel & Thompson, Evan. The enactive approach,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Embodied Cognition*, Lawrence Shapiro. ed. New York: Routledge, 2014, pp.69-73.

66) De Jaegher, H. & E. Di Paolo. op. cit., p.489.

67) Myin, E. “An account of color without a subject?”,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26, 2003, pp.42-43.

68) 정혜윤, 「타인의 마음, 행화로 만나기」, 이영의 외, 앞의 책, 2024.

69) De Jaegher, H. & E. Di Paolo. op. cit., p.493.

대에서 배우들 간의 상호작용도 이에 해당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그 자체로 인지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참여적 의미 생성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때 사회적 상호작용은 참여자 간 ‘상호조정(coordination)’을 기반으로 한다. 상호조정은 동역학계 이론의 주요 개념 중 하나로, “서로 간 혹은 공통의 다른 체계에 관해 함께 지속적으로 구조적 결속을 유지하거나 유지했던 둘 이상 체계들의 행동 간 비우연적인 상관관계”로 정의된다.⁷⁰⁾ 상관관계란 둘 이상의 체계 행동에서 기대 이상으로 일치하는 현상을 뜻한다. 예컨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길을 부지런히 걷는 것은 상관관계가 아니다. 반면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경우는 상관관계에 해당하며, 이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면 상호조정으로 간주된다.

드 예거의 ‘가리키는 움직임’ 예시는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상호조정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참여적으로 생성되고 변형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누군가가 가리키는 동작에 의해, 나는 그간 인식하지 못했던 환경의 특정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만약 상대방이 내가 주의 기울이기를 바라는 대상이 불분명하다면, 나는 상대방의 시선을 따라 그가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나의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을 더욱 강조하여 바라보게 만든다.⁷¹⁾ 이 예는 타인의 의도, 생각, 감정 등이 개인 차원에서 먼저 형성된 후 사회적 장면에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되고 파악되며 소통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드 예거⁷²⁾는 “의미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성되고 변형되는 것이지, 이들 사이에 전달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70) *Ibid.*, p.490.

71) De Jaegher, H., op. cit., pp.535-542.

72) *Ibid.*, p.540.

강조하였다.

체화주의와 행화주의를 비교·분석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4] 체화주의와 행화주의 비교

구분	체화주의	행화주의
출발점	뇌중심주의 비판 → 뇌, 신체, 환경 강조	뇌중심주의·인지주의 비판 → 인지는 행위와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
핵심 주장	신체적 경험을 통해 형성됨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 생성
사회인지에 대한 관점	타인의 감정·의도는 감각-운동적 공명으로 이해 가능	사회적 이해는 실제 상호작용 안에서 '참여적으로' 생성됨
인지 개념	신체적 실천을 통한 개인의 지각 기반 인지	의미 생성 과정 그 자체가 인지이며, 이는 상호작용적 과정
사회인지의 조건	신체가 타인의 감정을 자동적으로 모사하고 공감함으로써 이해	상호작용 없이는 진정한 사회인지 불가능. "함께 이해함"이 핵심
인지의 주체	신체화된 개인 주체 강조	상호작용하는 자율적 존재들의 관계성 강조

마음 이론과 그 대안으로 등장한 3개 이론을 비교 분석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네 가지 이론의 비교

구분	ST	DSP	체화주의	행화주의
핵심 주장	타인의 마음을 시뮬레이션하여 이해함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직접적으로 지각함	인지는 신체적 경험, 환경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됨	인지는 타인과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으로 형성됨
지각의 이해	지각된 정보 + 내적 시뮬레이션	지각 자체에 의미가 있음	신체적 탐색 행위의 결과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적 현상
인지본질	내적 표상 기반의 계산과 추론	직접적 지각 능력	신체-환경-뇌의 통합적 작동	자율성과 참여성에 기반한 역동적 절차
사회인지 이해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며 간접적인 이해	타인의 표정, 몸짓을 직관적으로 파악	감정 이해는 신체적 공명과 경험을 통한 역동적 형성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감정을 조정하고 의미를 공동 구성함

신체의 역할	시뮬레이션 수행 수단	감각기관을 통한 직접 시각의 통로	인지의 중심 요소	인지과정은 신체와 환경 간 행위 속에서 성립됨
상호작용 역할	내적 추론 중심으로 상호작용은 부차적	직접 시각 중심, 상호작용은 후속적	감정은 신체 경험에 기반해 형성됨	상호작용 자체가 인지이며, 의미 생성의 기반
환경의 역할	배경적 요소로 간주	시각을 위한 물리적 조건 정도	인지의 구성 요소로, 신체-환경 간 상호작용 중시	환경과 유기체가 구조적으로 결속되어 인지를 공동 생성함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ST가 독점적으로 주도해 온 ‘타자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DSP, 체화주의, 행화주의 관점을 통해 오늘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ST 이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세 입장 중 DSP 이론은 타자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시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체화주의는 신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형성에 주목하고 있다. 행화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참여적으로 구성되는 관계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회인지를 개인의 내면적 인지 역량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들로 인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틀이 각각 달라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에 대한 이해 혹은 ‘앎’이라는 개념을 단일한 관점이나 고정된 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중심을 이루어온 ST 이론을 포함하여, DSP, 체화주의적 접근, 행화주의적 접근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폭넓고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타자 이해는 언제나 하나의 이론만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각 이론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비교적 접근

은 학제 간 연구와 응용 가능성의 기반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사회인지의 핵심적인 측면을 조명하였다. 기존 이론이 삼인칭 시점에서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는 과정(예: ST)에 집중한 반면, 행화주의는 인지를 개인 내부의 작용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사회적 참여와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지 이론의 중심에 위치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타자 이해를 보다 동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으로 바라보는 데 기여한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지 영역에서의 행화주의 관련 경험연구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체화주의와 연결된 경험연구는 아직 적지만 일부 선행연구가 존재하는 반면,⁷³⁾ 행화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경험연구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까지는 문헌 분석 수준의 연구가 주를 이루며,⁷⁴⁾ 이를 실증적 경험연구로 확장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연극 분야에서 배우들이 환경과 언제, 어떻게 인지적으로 상호작용하는지, 혹은 어떤 지점에서 그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지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연극 분야에서는 배우-관객-공간 간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감정 공유와 인지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인지와 정서가 공동으로 구성되는 행화주의적 이해의 가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이처럼 행화주의 기반의 경험연구는 기존의 인지 중심적 설명을 넘어, 참여자들의 실천 속에서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을 실

73) 이동훈·신천우·신현정, 「사회적 행위 지각에 있어 해석 효과: 관점에 따른 운동 공명효과의 조절」, 『인지과학』 23권 1호, 한국인지과학회, 2012, 109-132쪽; 이병관·김지경, 「체화된 인지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도덕적 정체감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6권 7호, 한국광고학회, 2015, 123-147쪽.

74) 이 곤, 「행화적 인지로 고찰한 배우 훈련의 대안적 방향」, 『연기예술연구』 23권, 한국연기예술학회, 2021, 117-140쪽.

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유의미한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공감의 발생 및 확장의 기제에 관한 경험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이론은 공감을 일인칭 시점에서 타인의 입장을 상상하는 것으로 설명해 왔으나, 실제 상호작용은 쌍방향적이며 공감은 특정 이론만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타인과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 작용하며 공감을 형성하고 확장한다. 이에 따라 공감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는 행화주의 관점에서의 사회인지 이론을 더욱 정교화하고, 정서-인지-상호작용이 통합된 인지 모델로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단순히 선행 연구를 나열하거나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마음 이론의 지배적인 흐름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이론의 철학적 전제와 사회인지에 대한 관점을 비교·구조화함으로써 이론적 논의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이론의 통합 가능성과 사회적 인지의 새로운 이해 틀을 제시함으로써 학제간 담론의 기반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골드하겐 저, 윤제원 역, 『공간혁명』, 파주: 다산사이언스, 2019.
- 김혜리, 『마음읽기와 마음나누기』, 서울: 학지사, 2023.
- 마크 롤랜즈 저, 정혜윤 역, 『새로운 마음 과학: 확장된 마음으로부터
체화된 현상학까지』, 서울: 그린비, 2024.
- 알바 노에 저, 김미선 역, 『뇌과학의 함정: 인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하여』, 서울: 갤럭시, 2009.
- 이영의, 「체화된 마음과 몸의 위상」, 이영의·김종갑·손 갤러거·강신익·
한광희·강태경·최재목·박길수·정혜윤·이상욱 공저, 『체화된
마음과 몸』, 서울: 한국문화사, 2022.
- , 「뇌중심주의의 한계: 부분·전체 원리를 중심으로」, 이영의·손 갤러
거·김종갑·최재목·박길수·한광희·강태경·정혜윤·이상욱·강신익
공저, 『체화된 마음과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2024.
- 정혜윤, 「타인의 마음, 행화로 만나기」, 이영의·손 갤러거·김종갑·최재
목·박길수·한광희·강태경·정혜윤·이상욱·강신익 공저, 『체화된
마음과 세계』, 서울: 한국문화사, 2024.
- 체화인지연구단, 『마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박이정, 2024.
- 한상모, 『체화된 삶과 교육』, 서울: 퍼플, 2020.
- Churchland, Patricia S. *Brain-Wise: Studies in Neurophilosophy*.
Cambridge, MA: MIT Press, 2002.
- Di Paolo, Ezequiel. & Thompson, Evan, The enactive approach,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Embodied Cognition, Lawrence
Shapiro. ed. New York: Routledge, 2014.
- Epley, Nicholas & Adam, Waytz. Mind Perception, i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S. T. Fiske, D. T. Gilbert & G. Lindsay.
eds. New York: Wiley, 2009.
- Maturana, Humberto R. & Francisco J. Varela. *Autopoiesis and
cognition: The realization of the living*,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80.

- Hempel, Carl. Reduction: Ontological and linguistic facets, in *Philosophy, Science, and Method: Essays in Honor of Ernest Nagel*, Patrick Suppes, Sidney Morgenbesser & Morgan White. eds. New York: St. Martin's, 1969.
- Lakoff, George &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western thought*,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99.
- Perner, Josef. *Understanding the representational mind*, Cambridge, MA: MIT Press, 1991.
- Schlicht, Tobias. *Philosophy of Social Cognition*, Cham: Springer, 2023.
- Thompson, Evan. *Mind in life: Biology, phenomenology, and the Sciences of min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 Varela, Francisco J., Evan Thompson, & Eleanor Rosch. *The embodied mind: Cognitive science and human experience*, The MIT Press, Cambridge, 1991.

논문

- 양선이, 「감정에 관한 행화주의: 프린츠의 제한된 행화주의를 중심으로」, 『인간·환경·미래』 30호,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23, 67-97쪽.
- 이 곤, 「행화적 인지로 고찰한 배우 훈련의 대안적 방향」, 『연기예술 연구』 23권, 한국연기예술학회, 2021, 117-140쪽.
- 이기흥, 「행화주의 마음치유: 시론」, 『철학탐구』 48권,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7, 91-129쪽.
- 이동훈·신천우·신현정, 「사회적 행위 지각에 있어 해석 효과: 관점에 따른 운동공명효과의 조절」, 『인지과학』 23권 1호, 한국인지과학회, 2012, 109-132쪽.
- 이병관·김지경, 「체화된 인지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도덕적 정체감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6권 7호, 한국광고학회, 2015, 123-147쪽.

- 이영익, 「체화된 인지의 개념 지도: 두뇌의 경계를 넘어서」, 『Trans-Humanities』 8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5, 101-139쪽.
- Ackerman, J. M., C. C. Nocera, & J. A. Bargh. "Incidental haptic sensations influence social judgments and decisions", *Science*, vol. 328, no. 5986, 2010, pp.1712-1715.
- Barsalou, Lawrence 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grounding cognition", *Journal of Cognition*, vol. 3, no. 1, 2020, p.31.
- De Jaegher, H. "Social understanding through direct perception? Yes, by interacting",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 18, no. 2, 2009, pp.535-542.
- De Jaegher, H. & E. Di Paolo. "Participatory sense-making: An enactive approach to social cognition",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vol. 6, 2007, pp.485-507.
- De Jaegher, H., E. Di Paolo, & S. Gallagher. "Can social interaction constitute social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vol. 14 no. 10, 2010, pp.441-447.
- Fuchs, T. & H. De Jaegher. "Enactive intersubjectivity: Participatory sense-making and mutual incorporation",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vol. 8, 2009, pp.465-486.
- Gallagher, S. "Simulation Trouble", *Social Neuroscience*, vol. 2 no. 3-4, 2007, pp.353-365.
- , S. "Direct perception in the intersubjective context", *Consciousness and Cognition*, vol. 17, no. 2, 2008a, pp.535-543.
- , "Inference or Interaction: Social Cognition without Precursors", *Philosophical Explorations: An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Mind and Action*, vol. 11, no. 3, 2008b, pp.163-174.
- IJzerman, H., J. C. Karremans., L. Thomsen, & T. W. Schubert.

- “Caring is for sharing: How attachment styles modulate communal cues of physical warmth”, *Social Psychology*, vol. 44, no. 2, 2012, pp.160-166.
- Krueger, J. & S. Overgaard. “Seeing Subjectivity: Defending a Perceptual Account of Other Minds”, *ProtoSociology: Consciousness and Subjectivity*, vol. 47, 2013, pp.239-262.
- Leslie, Alan M. “Pretense and representation: The origins of ‘theory of mind’”, *Psychological Review*, vol. 94, no. 4, 1987, pp.412-426.
- Lindblom, J. “A radical reassessment of the body in social cognition”, *Frontiers in Psychology*, vol. 11, no. 987, 2020, pp.1-16.
- Marmeleira, J. & G. D. Santos. “Do not neglect the body and action: The emergence of embodiment approaches to understanding human development”,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126, no. 3, 2019, pp.410-445.
- Myin, E. “An account of color without a subject?”,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vol. 26, 2003, pp.42-43.
- Shanton, K. & A. Goldman. “Simulation theory”,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gnitive Science*, vol. 1, no. 4, 2010, pp.527-538.
- Thompson, E. & M. Stapleton. “Making sense of sense-making: Reflections on enactive and extended mind theories”, *Topoi*, vol. 28, no. 1, 2009, pp.23-30.
- Rizzolatti, G. & L. Craighero. “The mirror-neuron system”, *Annual Review of Neuroscience*, vol. 27, 2004, pp.169-192.
- Vittorio, G. “Before and Below ‘Theory of Mind’: Embodied Simulation and the Neural Correlates of Social Cognit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Biological Sciences*, vol. 362, no. 1480, 2007, pp.659-669.
- Weber, A. & F. J. Varela. “Life after Kant: Natural purposes and

the autopoietic foundations of biological individuality”,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Sciences*, vol. 1, no. 2, 2002, pp.97-125.

Williams, Lawrence E. & John A. Bargh. “Experiencing Physical Warmth Promotes interpersonal Warmth”, *Science*, vol. 322, no. 5901, 2008, pp.606- 607.

Wilson, M. “Six views of embodied cognition”,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vol. 9, no. 4, 2002, pp.625-636.

Zahavi, D. “Empathy and direct social perception: A phenomenological proposal”, *Review of Philosophy and Psychology*, vol. 2, no. 3, 2011, pp.541-556.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앓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신경과학, 철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마음 이론 중 시뮬레이션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본 글은 이러한 전통적 이론을 비판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세 가지 입장—즉, 직접적인 사회적 지각, 체화주의, 행화주의—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이론의 특징을 조명하였다. 이 세 입장은 공통적으로 타인의 마음을 두뇌 내적 상태로 간주하고 이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고 보는 시뮬레이션 이론의 기본 전제에 반대한다. 직접적인 사회적 지각 이론은 타인의 마음에 대한 직접 지각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체화주의는 신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 형성에 주목한다. 반면, 행화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참여적으로 구성되는 관계적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행화주의는 사회 인지를 개인의 내면적 인지 역량이 아닌,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본고는 타인에 대한 이해, ‘앓’이라는 개념을 고정된 시각이나 단편적인 접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더 풍부하게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마음 이론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사회적 지각, 체화주의, 행화주의 이론을 각각 검토하고 그 의의와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주제어 • 마음이론, 시뮬레이션 이론, 직접적인 사회적 지각,
체화주의, 사회인지, 행화주의

■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Theory of Mind and Comparative Analysis of Alternative Theories

Jang, Yeon Ju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explores the questions, “How can we understand the minds of others?” and “How do we perceive and interpret knowledge?” by examining their significance across disciplines such as neuroscience and philosophy. Traditionally, the Simulation Theory(ST), a prominent version of the Theory of Mind, has dominated discussions on this issue. This paper critiques such traditional accounts and sheds light on three alternative perspectives—Direct Social Perception(DSP), embodimentism, and enactivism—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se three perspectives commonly reject the core premise of ST, which views others’ minds as internal brain states that cannot be directly observed. DSP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directly perceiving others’ mental states. Embodimentism emphasizes the formation of cognition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body. Enactivism stands out by stressing the relational process through which meaning is co-constructed in social interaction. Thud it understands social cognition not as an individual’s internal cognitive capacity, but as a dynamic process emerging through social engagement. Accordingly, this study endeavors to illuminate our understanding of others and the concept of “knowing” in a more nuanced manner by moving beyond fixed viewpoints or fragmentary approaches. To this end, it examines the theories of DSP, embodimentism, and enactivism, analyzing their implications and significance as alternatives to traditional models of mind.

Keyword • Theory of Mind, Simulation Theory, Direct Social Perception, Embodimentism, Social Cognition, Enactivism

■ 논문투고일:2025.05.31. ■ 심사완료일:2025.07.14. ■ 게재확정일:2025.07.16. ■

디지털 시대 교회 리더십 전략

: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원칙의 통합 모델

김 양 희 · 유 학 곤*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토대: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모델
3.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모델의 통합적 접근
4. 현대 교회를 위한 적용 전략
5. 교회 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6. 결론 및 제언

1. 서론

21세기 들어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 되고, 팬데믹 이후 계속되는 온라인 환경의 확산은 교회에 다양한 도전과 구조적 전환을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하이브리드 예배와 비대면 소통의 일상화는 사역 방식과 리더십 구조의 근본적인 재정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속에서 목회자 중심 모델이었던 교회 리더십은 보다 참여적이고 분산된 디지털 리더십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 행정 역시 신학적 가치를 내포한 전략적 운영 체계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김양희(제1저자)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
유학곤(공동저자) 백석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강태평(2019)은 기독교 행정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Living Word로 영적·행정적 객체를 바람직한 상태로 통치·관리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 많은 교회들은 디지털 전환을 기술적 도입에만 국한시켜, 깊은 신학적 성찰 없이 단순한 '관리 조직'으로 기능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디지털 환경 사이의 유기적 통합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에서 코이노니아(koinwía)²⁾ -신앙 공동체로서의 실존적 연결성-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교회의 존재론적 정체성에 관한 본질적 질문을 제기한다.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실존적 일치와 영적 연대를 포함하는 교회론적 핵심 개념으로,³⁾ 디지털 시대에도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신학적 기준점이 된다. 실제로, 기술 중심의 효율성과 초월적 영성 사이의 간극은 오늘날 교회가 가장 민감하게 대면하는 신학적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응하여, 존 웨슬리의 교회론과 조직 목표 설정 및 실행 관리를 위한 전략 도구인 SMART 모델⁴⁾이라는 상이한 이론 틀을 창의적으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제

1) 강태평, 『기독교행정학』, 영성네트워크, 2019, 28쪽.

2) 코이노니아(koinwía)는 헬라어로 '교제', '나눔', '공동체적 참여'를 의미하며, 신약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상호 교제, 믿음의 나눔, 영적 연합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에 힘쓰던 초기 공동체(행 2:42),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고전 1:9),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신자 간의 사귄(요일 1:3)이 있다.

3) Douglas, Brian. "Koinonia", *Journal of Anglican Studies*, vol. 20, no.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 pp.133-138.

4) 피터 드러커의 MBO(Management by Objective) 이후 발전된 모델로서, George T. Doran의 기고문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며, 이후 조직과 개인의 목표 설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S.M.A.R.T. 모델은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현 가능성과 관련성을 높이고,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되는 ‘영적 SMART’(Spiritual SMART) 개념⁵⁾은, 신학적 가치와 전략적 실행을 동시에 고려하는 디지털 시대 교회 운영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첫째,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원리는 디지털 시대의 교회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둘째, SMART 모델을 교회 행정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신학적 및 조직적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이 두 이론의 통합적 접근은 디지털 시대 교회 리더십과 행정 혁신에 어떤 전략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청에 효과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통합적 사역 모델의 개념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토대: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모델

1)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원리

웨슬리 교회론은 18세기 영국의 종교적·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나, 그 신학적 통찰과 공동체 구조는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⁶⁾ 이 교회론의 핵심은 개인의 영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총체적 접근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리로 구성된다.⁷⁾

5) 이는 연구자가 정의한 개념으로서, 이하 Spiritual SMART로 지칭하고자 한다.

6) 오성욱, 「존 웨슬리의 교회론적 새 비전: 하나님의 ‘보이는 손’」, 『피어선 신학 논단』 13권 1호,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2024, 153-175쪽.

7) Thorsen, Don. “A Wesleyan-Holiness perspective on 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vol. 50, no. 2,

(1) 성화(Sanctification):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

존 웨슬리 교회론의 중심 개념인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인간이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영적 여정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개선이나 경건 생활의 강화만을 뜻하지 않으며, 그보다 훨씬 넓은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을 포괄하는 실천적 신학의 정수로 이해된다.⁸⁾

Noble(2010)은 웨슬리의 성화를 영적 성숙의 점진적 진보이며, 교회 공동체의 윤리적 토대를 형성하는 실천적 신학으로 규정하였으며,⁹⁾ Thorsen(2015)은 이를 상호 권면과 책임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적 성장 과정으로 정의했다.¹⁰⁾ 더 나아가 Snyder(2007)는 성화를 공공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개인의 변화로 해석함으로써,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윤리적 영성임을 강조했다.¹¹⁾

이러한 국제적 학술 흐름은 국내 연구에서도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다. 강병오(2013)는 웨슬리의 성화신학이 단순한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넘어 공공성과 사회적 선을 위한 공동체적 실천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¹²⁾ 오성욱(2024)은 성화가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과 조직 안에서 구현되는 살아있는 신학적 원리임을 강조했다.¹³⁾ 또한 이찬석(2021)은 팬데믹이라는 현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성화를, 공동체가 시대적 도전에 책임 있게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5, pp.295-298.

8) Noble, Thomas A. "John Wesley as a theologian: an introduction", *Evangelical Quarterly*, vol. 82, no. 3, Leiden: Brill, 2010, pp.238-257.

9) Ibid., pp.238-254.

10) Thorsen, Don. op.cit., pp.295-298.

11) Snyder, Howard A. "The church as holy and charismatic",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vol. 15, no. 2, the Wesleyan Theological Society, 1980, pp.9-22.

12) 강병오, 「존 웨슬리의 성화 신학과 정치윤리」, 『한국조직신학논총』 36권, 한국조직신학회, 2013, 147-178쪽.

13) 오성욱, 앞의 논문, 153-175쪽.

응답하는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웨슬리 성화론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확장했다.¹⁴⁾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성화 개념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효한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하며,¹⁵⁾ 이는 웨슬리의 신학이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상기시키는 영속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디지털 시대의 파편화된 관계성과 개인주의적 경향 속에서,¹⁶⁾ 웨슬리의 성화 개념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총체적 영적 성장과 공동체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¹⁷⁾ 기술 환경에서도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신학적 토대가 될 수 있다.

(2)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 공적 신앙의 실천

웨슬리의 두 번째 핵심 원리인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은 거룩함이 단지 개인의 내면적 경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실천 신학적 선언이다.¹⁸⁾ 이 개념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매개하는 공공적 통로로서, 사회 정의와 이웃 사랑을 조직적으로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요구한다.¹⁹⁾

웨슬리는 "성결은 사회적이다(Holiness is social)"라는 명제를 통해, 거룩함이 결코 개인적 영역에 국한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실천을 통해 완성된다는 신학적 입장을 제시하였다.²⁰⁾ 그에게 있어 진정한 성결

14) 이찬석, 「팬데믹(Pandemic) 시대 교회와 신학의 과제」, 『한국조직신학논총』 64권, 한국조직신학회, 2021, 107-138쪽.

15) Drozdek, Adam. "On sanctifying cyberspace", *Studia Gdańskie*, no. 34, 2014, pp.79-88.

16) 최동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묵회」, 『선교와 신학』 52권,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171-200쪽.

17) Drozdek, Adam. op.cit., pp.79-88.

18) Thorsen, Don. op.cit., pp.295-298.

19) Ibid.

20) Maddox, Randy L. "'Visit the Poor': Wesley's Precedent for Wholistic

은 고립된 개인의 영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실천이었다.

나아가 Maddox(2001)는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을 개인의 영적 갱신이 사회적 변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비전으로 해석하였다.²¹⁾ 그에 따르면, 웨슬리에게 있어 진정한 거룩함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정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이는 개인의 내면 변화와 사회적 변혁 사이의 유기적 연결성을 체계적으로 조명한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다.

이러한 관점을 더욱 발전시켜, Field(2015)는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 개념이 단순한 윤리적 삶의 강조를 넘어서, 사회 구조의 정의 실현과 공적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실천신학임을 강조하였다.²²⁾ 그는 특히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 개념이 개인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적 변혁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신학적 과제라고 평가하며, 이것이 현대 실천신학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국내 학술 담론에서 또한 권행운(2023)은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 원리가 한국교회의 공공신학적 실천과 분열된 사회에서의 공적 책임을 위한 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²³⁾ 이는 한국적 맥락에서 웨슬리 신학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중요한 연구로, 시대적 요청에 대한 신학적 응답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이 원리는 온라인 윤리 실천, 디지털 격차 해소, 가상 환경에서의 신앙적 가치 구현 등으로 확장되어

Mission.” *Transformation*, vol. 18, no. 1, 2001, pp.37-50.

21) Ibid.

22) Field, David N. “Holiness, social justice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John Wesley’s insights in contemporary context”, *Holiness: The Journal of Wesley House Cambridge*, vol. 1, no. 2, 2015, pp.177-198.

23) 권행운, 「요한 웨슬리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추동 요인과 시사점」, 『신학과 실천』 83호, 한국실천신학회, 2023, 457-486쪽.

현대적 의의가 더욱 강조된다.²⁴⁾

(3)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 영성 실천의 제도화

웨슬리에게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제도화된 영적 실천 체계로서, 기도, 성경 읽기, 성찬, 금식 등의 구체적 신앙 행위들을 포함한다. 그는 이를 성령의 역사에 협력하는 신앙적 응답이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경로로 이해하였다.²⁵⁾

Knight(2010)에 따르면, 웨슬리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 내적 경건과 외적 실천, 개인적 체험과 공동체적 증언을 통합하는 영적 성장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체계적인 영성 훈련의 원형을 제시했다.²⁶⁾ 이러한 웨슬리의 개념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조명하며, Spadaro(2014)는 디지털 공간이 새로운 은혜의 전달 통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온라인에서도 전통적인 영적 실천의 가능성을 역설한다.²⁷⁾ 이러한 관점을 더욱 발전시켜, Campbell과 Garner(2016)는 디지털 시대에도 전통적 신앙 실천이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술과 영적 실천이 융합된 형태로 재구성될 가능성을 강조한다.²⁸⁾

이와 연계하여 국내 연구에서도 오광석(2022)은 은혜의 수단을 성령의 은혜가 구조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해석하며, 공동체 성화와 교회의 실

24) Heidi A. Campbell & Stephen Garner. *Networked Theology: Negotiating Faith in Digital Cultur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pp.55-75.

25) Wesley, John. The Means of Grace, in *John Wesley's Sermons: An Anthology*, A. C. Outler & R. P. Heitzenrater. ed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pp.157-167.

26) Knight, Henry H. III, *The Presence of God in the Christian Life: John Wesley and the Means of Grace*, Lanham, MD: Scarecrow Press, 2010.

27) Spadaro, Antonio. *Cybertheology: Thinking Christianity in the Era of the Internet*,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4, pp.30-52.

28) Heidi A. Campbell & Stephen Garner. op.cit., pp.55-75.

천적 사명을 구성하는 핵심 틀이라고 보았다.²⁹⁾ 더불어 임영택(2016)은 웨슬리 초기공동체에서의 은혜의 수단을 교육 목회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것이 성도의 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훈련 구조로 작용했다고 평가하면서 은혜의 수단이 단순한 종교적 관습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영적 형성 시스템으로 기능했음을 역사적 자료로 뒷받침한다.³⁰⁾ 따라서 이러한 학술적 논의들은 은혜의 수단이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의 영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실천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신학적 구조임을 보여준다.

(4) 속회와 반회(Class/Band Meetings): 공동체 구조의 원형

웨슬리 교회론의 네 번째 핵심 원리는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구조이다. 초기 감리교는 속회(class meetings)와 반회(band meetings)를 통해 정기적인 영적 점검, 상호 권면, 공동 실천의 구조를 형성하였다.³¹⁾ 이는 단순한 교회 조직의 세분화가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적 책임을 통합하는 웨슬리 신학의 독특한 교회론적 표현이었다.³²⁾

Snyder(2007)는 웨슬리의 소그룹 구조가 단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신앙적 책임성을 함께 나누는 핵심적인 교회론적 장치였음을 지적하였다.³³⁾

29) 오광석, 「교회, 세상 속의 은혜의 수단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웨슬리안 교회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26집, 한국기독교학회, 2022, 141-172쪽.

30) 임영택, 「웨슬리 초기공동체의 교육 목회 방법 연구: 은혜의 수단」, 『기독교교육정보』 36집,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6, 155-181쪽.

31) Heitzenrater, Richard P. *Wesley and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pp.108-113.

32) Ibid.

33) Snyder, H. A. op. cit., pp.9-22.

34) Fellows, P. "Discipleship in Three Dimensions: A Critical Examination of John Wesley's Doctrine of Holiness and It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Small Group Discipleship", *Ecclesiology*, vol. 17, no. 1,

이러한 관점을 발전시켜, Fellows(2021)는 이 구조가 공동체 내 상호 책임성과 공적 신앙 실천의 기초로 기능한다고 평가하였다.³⁴⁾ 더불어 Campbell과 Garner(2016)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이러한 전통적 소그룹 활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의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웨슬리 공동체성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였다.³⁵⁾

국내 연구에서도 이 원리에 대한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영택(2016)은 속회 구조가 제자도를 실현하는 교육 목회적 실천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공동체 성화와 영성 훈련의 체계적 기반으로 분석하였다.³⁶⁾ 그는 특히 속회를 공동체 책임성과 제자훈련을 강화하는 영성 훈련의 중심 기제로 해석하면서, 현대 교회의 리더십 개발과 제자화 모델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권문상(2019)은 웨슬리의 소그룹 구조를 한국 교회 개혁을 위한 실천적 기초로 간주하며, 공동체성의 회복과 책임 있는 제자훈련의 틀로서 그 현대적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³⁷⁾

이러한 학술적 논의들을 종합할 때, 웨슬리의 속회와 반회 구조는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속회, 줌 반회, 메타버스 기반 제자훈련 등으로 혁신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신학적 잠재력을 지닌다.³⁸⁾ 특히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18세기 속회 구조의 핵심 가치인 상호 책임성과 영적 성장이 가장 공간에서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³⁹⁾ 이는 전통적 공동체 구조가 물리

2021, pp.29-48.

35) Heidi A. Campbell & Stephen Garner. op.cit., pp.55-75.

36) 임영택, 앞의 논문, 155-181쪽.

37) 권문상, 「존 웨슬리의 구원론적 교회론: 교회 개혁의 기초로서의 소그룹 교회 구조」, 『조직신학연구』 31권,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2019, 184-217쪽.

38) 조해룡, 「메타버스 (Metaverse) 시대 선교적 교회의 목회구조 변화와 과제: 한국교회 적용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60권,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3, 311-343쪽.

39) Spadaro, Antonio. op.cit., pp.165-182.

적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도 진정한 영적 교제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웨슬리의 소그룹 구조는 시대와 매체를 초월하여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적 요소를 구현하는 지속 가능한 교회론적 원리로 재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만인 제사장직의 실재화

웨슬리 교회론의 마지막 핵심 원리는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이다. 이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만인 제사장직(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의 실재화⁴⁰⁾라는 신학적 전제에 기반한다. Snyder(2007)는 웨슬리가 초기 감리교 운동을 통해 평신도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사명 수행을 위한 핵심 주체임을 강조함으로써 만인 제사장직 개념을 실천적이고 조직적으로 구현하였다고 분석하였다.⁴¹⁾

국내 연구에서는 오광석(2022)이 웨슬리가 감리교 초기부터 평신도 설교자와 인도자에게 안수를 부여하여 사역의 공식적 주체로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만인 제사장직 개념이 단지 이상적 담론이 아니라 조직 교회 내에서 제도화된 사역 원리였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다.⁴²⁾ 장성배(2015)는 이를 확장하여 만인 제사장직을 ‘만인 선교사직(missionaryhood of all)’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모든 신자가 교회의 사명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실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였다.⁴³⁾ 더불어 김성철(2016)은 평신도 리더십이 활성화될수록 교회의 사역 확산력과 공동체 역동성은 강

40) Chilcote, Paul W. *John Wesley and the Reign of God: A Theology of Grace and Holines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pp.112-118.

41) Snyder, H. A. op.cit., pp.9-22.

42) 오광석, 「성직자 안수문제: 초대교회 안수 전통과 초기 감리교 목회자 안수에 대한 고찰」, 『신학과세계』 제120호, 감리교신학대학교, 2022, 283-323쪽.

43) 장성배, 「평신도 선교 사역자 운동: 만인 선교사직 개념을 중심으로」, 『신학과세계』 제106호, 감리교신학대학교, 2015, 434-472쪽.

화된다고 분석하며, 한국교회가 은사 기반 사역 배치와 참여형 리더십 구조를 통해 이러한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⁴⁴⁾

결론적으로, 웨슬리 교회론은 교회의 존재론적 구조와 공동체 실천의 총체적 틀을 형성하며, 평신도 사역은 이 구조 안에서 참여와 책임의 원리로 작용한다. 디지털 시대의 교회 역시 자발성과 공동체 책임을 겸비한 평신도 리더십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는 웨슬리 교회론의 현대적 적용 과제로 자리매김한다.

2) SMART 모델의 핵심 요소와 적용 원리

현대 조직 관리에서 널리 활용되는 SMART 모델은 체계적 목표 설정과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적 틀로, 최근 교회 행정과 사역 계획에도 도입되고 있다. 여기서는 SMART 모델의 기원과 핵심 요소를 살펴본 뒤, 교회 적용 가능성과 신학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1) SMART 모델의 기원과 전략적 구조

SMART 모델⁴⁵⁾은 피터 드러커의 목표 관리(MBO)를 발전시킨 것으로, 조직과 개인의 체계적인 목표 설정과 효과적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다.⁴⁶⁾ 구체성(Specific), 측정 가능성(Measurable), 달성 가능성(Achievable), 관련성(Relevant), 시간제한성(Time-bound), 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갖추도록 강조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목

44) 김성철,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유관순연구』 21호,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 2016, 97-125쪽.

45) 피터 드러커의 MBO(Management by Objective) 이후 발전된 모델로, George T. Doran의 기고문에서 처음으로 명시되었으며, 이후 조직과 개인의 목표 설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모델은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실현 가능성과 관련성을 높이며, 기한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46) Doran, G. T. "There's a S.M.A.R.T. Way to Write Management's Goals and Objectives", *Management Review*, vol. 70, no. 11,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1981, pp.35-36.

표 설정의 구조적 체계성과 실질적 효과성을 증진 시키고, 균형 있게 적용될 때 조직은 추상적 비전을 구체적 성과로 전환하는 실행력을 확보하게 된다.⁴⁷⁾

한편, Locke와 Latham(2002)의 목표 설정 이론(Goal Setting Theory)⁴⁸⁾은 SMART 모델의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는 개인의 동기 부여와 성과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표의 명확성, 피드백 제공, 수용도, 도전성 등의 요소들은 SMART 모델의 구성 요소들과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⁹⁾

더 나아가 Bardiau et al.(2014)은 SMART 모델의 적용 효과를 분석하며, 구체적 특수성, 객관적 측정 가능성, 현실적 실행성, 시간적 적시성 등을 핵심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결합될 때 조직의 전략적 성과 향상에 기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⁵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론적 배경들을 종합해볼 때, SMART 모델은 단순한 관리 도구를 넘어 목표 설정과 성과 달성에 관한 심리학적 통찰을 실무

47) Ibid., pp.35-36.

48) Locke, Edwin A. & Gary P. Latham. "Building a Practically Useful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Motivation: A 35-Year Odyssey", *American Psychologist*, vol. 57, no. 9, Medline, 2002, pp.705. 목표 설정 이론은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동기 부여와 성과 향상을 촉진한다는 이론으로, 목표의 수용도와 피드백도 핵심 요소로 본다.

49) Locke와 Latham은 목표 설정 이론을 통해, 목표의 구체성, 도전성, 피드백 제공, 수용도가 개인의 동기 부여와 성과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 네 가지 요소는 SMART 모델의 다섯 가지 구성 요소(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bound)와 개념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며, SMART 전략이 성과 지향적 목표 설정 이론의 실천 도구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50) Bardiau, R., Seguran, M., Senart, A., & Osman, A. M. T. "A Recommendation System for Specifying and Achieving SMART Goals", *WEBIST*, vol. 2, 2014, pp.322-327.

에 적용한 체계적 접근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직 구성원의 목표 인식과 실행 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전략적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하며, 다양한 조직 맥락에서 폭넓은 적용 가능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조직 역시 SMART 모델의 적용 대상으로서 의미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교회는 영적 사명을 추구하는 독특한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동시에 구체적 목표 설정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사역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SMART 모델이 교회 사역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적용 원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영적 가치와 전략적 실행력이 조화를 이루는 사역 관리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목표 설정의 사역 실행력 강화

교회의 다양한 사역 영역에서는 "3개월 내 지역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런칭"이나 "상반기 중 신입 교인 정착률 30% 향상"과 같이 명확한 목표 설정을 통해 사역의 방향성과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 특히 이러한 구체적 목표 설정이 교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행동적 영향이 주목할 만하다. Meyer와 Allen(1991)의 조직 몰입 이론에 따르면, 명확한 목표와 역할 인식은 구성원의 정서적 몰입을 강화하여 자발적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내며,⁵¹⁾ 이는 교회 사역에서 평신도들의 소명 의식과 봉사 지속성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동기 부여 효과와 함께, SMART 목표에 기반한 사역 계획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우선순위 설정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 Appelbaum et. al(2012)은 Kotter의 변화 관리 이

51) Meyer, J. P., & Allen, N. J.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 1, no. 1, 1991, pp.61-89.

론을 재해석하며, 단기적 성취를 가시화하는 것이 장기적 변화를 위한 동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는데,⁵²⁾ 이는 SMART 모델의 시간제한성(Time-bound) 특성과 측정 가능성(Measurable) 원칙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사역 영역별로 살펴보면, 교회 교육 사역에서는 Bloom(1956)의 교육 목표 분류학을 SMART 원칙과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⁵³⁾ 예컨대 “8주 과정에서 5가지 영적 훈련 방법(기도, 묵상, 전도, 섬김, 공동체 참여)을 습득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한다”는 목표는 SMART의 구체성·측정 가능성 원리에 기반해, 성과 평가가 가능한 실행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Bloom의 세 가지 교육 영역—인지적, 정의적, 행동적—을 SMART 구조에 따라 전인적으로 통합하는 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회 행정 영역에서 SMART 원칙의 적용은 사역 계획, 예산 배분, 인사 운영 등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Van Gelder(2007)는 교

52) Appelbaum, S. H., Habashy, S., Malo, J. L., & Shafiq, H. “Back to the Future: Revisiting Kotter’s 1996 Change Model”,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vol. 31, no. 8,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012, pp.764-782. Kotter의 변화 관리 이론은 조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8단계 전략으로, 긴박감 조성, 변화 주도 연합 형성, 비전 수립과 공유, 단기 성과 창출, 변화의 정착 등을 포함한다. 특히 단기 성과의 가시화를 통해 변화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강조된다; John P. Kotter. *Leading Chang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6.

53) Bloom, B. 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New York: Longmans, Green, 1956; Bloom의 교육 목표 분류학은 교육 목표를 인지적(cognitive), 정의적(affective), 심리운동적(psychomotor) 영역으로 분류한 체계로, 학습 목표를 명확히 구조화하고 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된다. SMART 원칙의 ‘구체성(Specific)’과 ‘측정 가능성(Measurable)’은 이러한 영역별 목표를 정의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교회 교육에서도 목표 중심의 설계와 피드백을 가능하게 만든다.

회 행정이 단순한 기능적 효율성을 넘어서, 영적 분별력과 공동체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⁵⁴⁾ 이러한 맥락에서 SMART 모델의 ‘관련성 (Relevance)’ 원칙은 특정 목표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예배, 교육, 선교, 봉사 등—과 실제로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SMART 접근법은 사역 평가와 개선의 순환적 과정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한다. Leithwood와 Jantzi(2006)는 변혁적 리더십이 구성원의 지속적 성장과 적응적 학습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실증하였으며,⁵⁵⁾ 이러한 원리는 교회 지도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SMART 모델의 측정 가능한 평가 체계는 성장적 실천을 위한 객관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교회 조직은 SMART 모델의 적용에 있어 신학적·실천적 가능성을 함께 내포한 특별한 사례로 여겨진다. 교회는 영적 사명을 추구하는 독특한 조직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구체적 목표 설정과 체계적 실행을 통해 교회 사역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SMART 모델이 교회 사역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적용 원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영적 가치와 전략적 실행이 통합된 사역 운영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핵심적 의미를 갖는다.

(3) 교회 적용 가능성과 신학적 수용성

한국교회 맥락에서 SMART 모델의 도입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으나, 목표 중심 전략 모델의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학술적 논

54) Van Gelder, Craig. *The ministry of the missional church: a community led by the Spirit*, Grand Rapids: Baker Books, 2007.

55) Leithwood, K., & Jantzi, D. “Transformational school leadership for large-scale reform: Effects on students, teachers, and their classroom practices,”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vol. 17, no. 2, 2006, pp.201-227.

의는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조직의 전략기획, 행정 혁신, 리더십 훈련 영역에서 SMART 원리를 간접적이거나 유사한 형태로 수용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러한 경향의 핵심 사례로, 임영택(2009)은 교회 교육 목회론에서 사역의 체계화, 리더십의 전략적 개발, 제자훈련의 단계별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천신학 내에서 계획과 평가의 균형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⁵⁶⁾ 이러한 접근은 SMART 모델의 ‘측정 가능성’과 ‘달성 가능성’ 원리와 유사한 지향점을 보이며, 목회적 실천과 조직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유사하게, 김성철(2016)은 교회 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를 분석하며, 평신도 리더 양성을 위한 사역 목표 설정과 훈련 과정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사역 구조는 명확한 기대치와 평가 가능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⁷⁾ 이와 같은 논지는 SMART 모델의 ‘구체성(Specific)’과 ‘측정 가능성(Measurable)’의 핵심 원리와 개념적 유사성을 지니며, 교회 조직 내 전략적 사역 구조와 실천신학의 접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더욱 직접적인 분석으로, 최동규(2020)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 변화를 심층적으로 고찰하며, 목회 전략의 체계화와 명확한 목표 설정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교회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⁵⁸⁾ 이는 SMART 모델의 핵심 원

56) 임영택,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교육목회”, 『기독교교육정보』 22권, 한국 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9, 261-291쪽.

57) 김성철, 앞의 논문, 97-125쪽.

58) 최동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목회」, 『선교와 신학』 52권, 장로

리와 상통하는 접근으로 보여진다. 특히 그의 연구는 전통적인 목회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체계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SMART 모델의 신학적 수용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국내 학술 문헌들은 SMART 모델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전략적 사고, 목표 수립, 측정 체계화 등의 핵심 요소들을 실천 신학적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는 SMART 모델이 한국교회의 실천적 요구에 부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적용 과정에서 신학적 성찰과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조직 실행 가능성과 평신도 사역 체계

SMART 모델의 ‘달성 가능성’ 원칙은 교회 사역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이상적 비전을 넘어 실제 자원과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 목표 설정을 가능케 한다. 이는 리더십 훈련, 셀 구조 운영, 은사 기반 평신도 배치 등 사역 인프라 구축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특히 평신도 중심 사역에서 SMART의 ‘구체성’과 ‘달성 가능성’은 상보적 역할을 한다. ‘3개월 내 셀 리더 2인 양성 및 주간 회의 정착’과 같은 계획은 리더십 개발을 구조화하며 자발적 참여를 촉진한다. 이러한 접근은 평신도들이 단순한 사역 참여자가 아닌 책임감 있는 공동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적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웨슬리가 강조한 ‘만인 제사장직’의 현대적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Katzenbach와 Smith(1993)는 팀 조직의 핵심으로 구성원 자율성과 상호 책임성을 강조했는데,⁵⁹⁾ 이는 교회의 리더십 분산화와 속회/반회 구조에 적용 가능하다.

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171-200쪽.

59) Katzenbach, Jon R. & Douglas K. Smith. “The Discipline of Teams,”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1, no. 2, 1993, pp.111-120.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함께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 이론 역시 명확한 목표와 참여 구조가 내재적 동기와 공동체 몰입을 강화한다고 설명하며,⁶⁰⁾ SMART 모델과 이론적 상통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 실천 신학적 관점에서 Graham(2017)은 교회 조직이 영적 비전과 실행 가능성 사이의 긴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¹⁾ 그의 ‘실용적 교회론’은 영적 본질을 유지하며 조직 효율성을 추구하는 균형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SMART의 ‘관련성’ 원칙과 연결된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은 단순한 인력 배분이 아닌, 자율성과 소명에 기반한 유기적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SMART 모델은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문상(2019)은 웨슬리의 소그룹 구조를 공동체성 회복과 책임 있는 제자훈련의 가능성으로 제시하였다.⁶²⁾ 그의 분석에서 나타난 웨슬리의 속회, 반회 시스템이 지닌 실천적 구조가 SMART 모델의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원리와 상통한다고 판단되며, 이는 현대 교회에서 SMART 모델이 웨슬리 전통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SMART의 ‘시간 제한성’은 사역의 주기적 평가와 갱신을 가능케 한다. Osmer(2008)는 ‘현명한 판단’을 위해 지속적 평가와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는데,⁶³⁾ 이는 시간 제한적 목표 설정이 효율성을 넘어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구조적 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SMART 기반

60) Ryan, Richard M. & Edward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Medline, 2000, pp.68-78.

61) Graham, Elaine L. "On becoming a practical theologian: Past, present and future tenses", *HTS Teologiese Studies*, vol. 73, no. 4, 2017, pp.1-9.

62) 권문상, 앞의 논문, 184-217쪽.

63) Osmer, Richard 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8, pp.82-86.

평신도 사역 체계는 웨슬리 전통의 ‘은혜의 수단’과 ‘사회적 성결’을 현대 교회 구조에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실천적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5) 성경적 원칙과 신학적 수용성

SMART 모델은 기독교 전통에서 직접 출발한 모델은 아니지만, 그 핵심 원리들은 성경적 가치와 의미 있게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SMART의 구체성, 측정 가능성, 시간제한 요소와 깊이 맞닿아 있다. 여기서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함’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계획의 중요성을,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는 달성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는 효율적인 계획을 넘어 공동체적 책임성과 신중한 실행을 전제하는 영적 분별력의 일부로 이해될 수 있다.⁶⁴⁾

이와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교회 내 조직적 질서와 체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명확한 책임과 평가 기준, 일정 기간 후 결산하는 구조는 SMART 원칙의 성경적 근거로 볼 수 있다. 특히 주인이 각 종에게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것은 SMART의 ‘달성 가능성’ 원칙과 일치하며,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하는 구조는 ‘시간제한성’의 성경적 모델을 보여준다.

그러나 SMART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학적 긴장도 성찰되어야 한다. Root(2021)는 성경적 ‘거룩한 시간(sacred time)’이 현대적 조직 효율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⁶⁵⁾ 교회의

64) 누가복음 14:28.

65) Root, Andrew. *The Congregation in a Secular Age: Keeping Sacred Time Against the Speed of Modern Lif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1, pp.23-45.

시간은 선형적·생산적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카이로스(kairos)’⁶⁶⁾ 시간이어야 하며, 이는 SMART 모델의 ‘시간제한성’ 구조와도 신학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영적 성숙, 공동체성, 은혜의 경험 같은 비계량적 가치들이 수치화되거나 조직 논리에 종속될 위험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독교 조직의 전략기획은 정량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지만, 교회의 신학적 본질과 사명을 대체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벨 후크스(bell hooks)의 ‘비판적 수용(critical adoption)’⁶⁷⁾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⁶⁷⁾ 이는 SMART 모델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영적 목적에 맞게 변형하고 적용하는 접근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웨슬리의 사중적 접근법(Wesleyan Quadrilateral)⁶⁸⁾에 따르면, SMART 모델은 ‘이성’과 ‘경험’ 영역에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성경’과 ‘전통’이라는 근본적 권위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SMART 모델의 신학적 수용성은 ‘수용 여부’가 아닌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세속적 경영 기법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유한 신학적 가치와 영적 목적을 중심으로 이 모델을 재해석하고 변형하는 창조적 적용 과정을 의미한다. 교회가 이 모델의 실용적 도구를 영적 분별력과 통합하여 하나님 나라

66) 카이로스(kairos)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때’ 또는 ‘은혜의 시간’을 뜻하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순간으로 이해된다.

67) Hooks, Bell. *Teaching to transgress: education as the practice of freedom*, New York: Routledge, 1994, pp.25-28.

68) 웨슬리의 사중적 접근법(Wesleyan Quadrilateral)은 신학적 진리를 판단하는 네 가지 권위의 원천으로 성경(Scripture), 전통(Tradition), 이성(Reason), 경험(Experience)을 제시한다. 성경을 1차적 권위로 하되, 전통, 이성, 경험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신학적 판단을 돕는다는 방법론이다.

의 가치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신학적 수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모델의 통합적 접근

1) 신학과 전략의 창의적 융합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모델의 통합은 단순한 병렬적 적용을 넘어, 두 이론이 지닌 고유한 강점을 상호 보완하는 창의적 융합을 추구한다. 특히 웨슬리 교회론이 제공하는 영성과 공동체성 중심의 신학적 토대는 SMART 모델의 목표 지향적 체계성과 만나 새로운 차원의 실천적 틀을 구성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융합 과정에서 웨슬리의 신학적 가치는 SMART 모델이 지닐 수 있는 기계적 효율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동시에 SMART 모델의 체계적 접근법은 웨슬리 교회론의 추상적 이상을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통합적 접근은 교회가 영적 본질을 견고히 유지하면서도 현실적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 [표 1]을 통해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원리들이 SMART 모델의 각 요소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 교회 사역의 구체적 방향성을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⁶⁹⁾

69) 표의 SMART 요소는 약어로만 표기하였으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S = Specific(구체성), Measurable(측정 가능성), Achievable(달성 가능성), Relevant(관련성), Time-bound(시간제한성).

[표 1]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모델 요소의 전략적 통합

웨슬리 교회론 핵심 요소	신학적 의미	SMART 요소 대응	전략적 적용 설명
성화	지속적 영적 성장	구체성(S) / 측정 가능성(M)	성도 영성 훈련 목표의 구체화 및 추적 가능성
사회적 성결	공공 책임과 정의 실천	관련성(R)	공동체/사회적 사명을 위한 실천 목표 설정
은혜의 수단	반복적 영성 훈련 구조	시간제한성(T)	주기적 실행 시간 설정 및 지속성 확보
속화·반회 구조	소그룹 내 상호 돌봄과 책임	달성 가능성(A)	실행 가능한 소그룹 운영 및 목표 설계
평신도 사역	만인 제사장직의 실현	측정 가능성(M) / 시간제한성(T)	리더 양성과 사역 실행 결과의 추적 가능성

이러한 상호보완적 관계는 교회가 영적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실행력을 갖추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따라서 영성과 전략성, 공동체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시대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모델의 결합은 단순한 개념적 결합을 넘어, 실제 교회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실천 모델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 SPIRITUAL SMART 모델 제안

Spiritual SMART 모델은 SMART 요소를 단순한 전략 도구가 아닌, 신학적 해석을 통해 교회 사역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실천 전략 틀로 제안한다. 이 모델의 핵심은 기존 SMART 모델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교회의 고유한 영적 목적과 신학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창조적 변형에 있다. 각 요소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선교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개별 교회의 상황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 [표 2]를 통해 SMART 모델 각 요소의 신학적 재해석과 전략 정의, 그리고 실제 교회 현장 적용 예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SPIRITUAL SMART 모델의 교회 사역 적용 예시

SMART 요소	통합 정의 (신학적 해석)	전략 정의	전략적 적용 예시
구체성(S)	성화 지향의 구체적 목표 설정	사명에 기초한 구체화	매일 30분 기도와 성경 묵상 실천
측정 가능성(M)	은혜 체험 기반의 참여 / 변화 지표	정성·정량 평가 포함	월 2회 소그룹 은혜 나눔 참여 여부 기록
달성 가능성(A)	공동체성과 상호 책임에 기반한 달성 가능 목표	실현 가능한 소그룹 활동 설계	3개월 내 셀 모임 봉사팀 조직 및 실행
관련성(R)	선교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시대·지역 필요 반영	분기별 1회 지역사회 봉사 활동 참여
시간 제한성(T)	제자도 형성을 위한 시간 기반 훈련 구조	일정 내 훈련 계획과 평가	6주간 제자훈련 과정 수료 후 리더로 활동

이 모델은 단순한 수치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가치를 전략적 실행으로 구체화하는 통합적 접근을 지향한다. 각 요소는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원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성화 지향 구체성’은 웨슬리의 성화 개념을, ‘은혜 기반 측정성’은 은혜의 수단을, ‘공동체 중심 달성 가능성’은 속회와 반회 구조를 반영한다. 마찬가지로 ‘선교적 관련성’은 사회적 성결을, ‘제자도 시간 구조’는 평신도 사역과 영적 훈련의 체계적 접근을 각각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시도로 볼 수 있다.

3) SPIRITUAL SMART 모델의 적용 원리

Spiritual SMART 모델은 웨슬리 교회론과 SMART의 통합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사역 구조화 프레임으로 기능한다. 이 모델은 성화 지향 구체성(S), 은혜 기반 측정성(M), 공동체 중심 달성 가능성(A), 사명 관련성(R), 제자도 시간 구조(T)라는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교회 사역의 실행력과 신학적 정체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원리들이 단순히 개별 전략 요소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연결 구조 속에서 통합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화 지향 구체성(S)은 교회의 사역 목표가 단지 기능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영적 성숙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뿌리를 두도록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은혜 기반 측정성(M)은 사역 실행의 정성적·정량적 지표를 통해 지속적인 성찰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동체 중심 달성 가능성(A)은 속회와 반회 등 공동체 구조 속에서 실제로 실현 가능한 사역 단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개별 원리들과 함께, 사명 관련성(R)은 웨슬리 교회론이 강조하는 사회적 성결과 평신도 사역의 책임성을 SMART 전략의 목표 정합성과 연결하여, 교회가 시대적 요구에 민감하게 응답하는 사역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제자도 시간 구조(T)는 웨슬리 교회의 훈련 체계와 영적 성장 단계를 시간 기반의 전략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전인적 제자훈련이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국 이처럼 각 원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교회는 신학적 본질과 전략적 실행력을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적 사역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웨슬리 교회론의 영적 가치와 현대 조직 이론의 전략적 통찰이 단순한 병렬적 결합을 넘어, 상호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디지털 시대 교회 사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실천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4) SPIRITUAL SMART 3축 통합 프레임 구성

앞서 제시된 Spiritual SMART 모델의 적용 원리들은 개별 요소 차원을 넘어 통합적 구조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원리들을 신학적 정체성(Theological Identity), 공동체 실행력(Communal Execution), 디지털 전략 통합(Strategic Integration)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조직화한 ‘SPIRITUAL SMART 3축 통합 프레임’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은 기존의 SMART 전략 요소들과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가치들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유기

적 체계 속에서 교회의 사역 구조 전반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축은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여, 교회가 신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첫 번째 축인 신학적 정체성 축은 성화(S: Sanctification), 신학(Theology), 리더십(L: Leadership,)과 같은 웨슬리 전통의 본질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교회의 존재론적 기반을 확립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축은 교회의 모든 전략과 행정이 영적 방향성과 신학적 근거를 갖고 진행되도록 돕는 것을 지향한다.

두 번째 축인 공동체 실행력 축은 참여(P: Participation), 책임(R: Responsibility), 실행(A: Action)이라는 실행 원리를 바탕으로, 속회와 반회, 평신도 리더십 등 공동체 기반의 실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축은 교회의 사역이 단지 목회자 중심의 일방적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연합된 사명 수행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을 지향한다.

세 번째 축인 디지털 전략 통합 축은 혁신(I: Innovation), 통합(Integration), 실용성(U: Utility)을 중심으로, 교회가 디지털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면서도 그 본질적 사명을 왜곡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예배, 온라인 사역 플랫폼,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 등은 모두 이 축의 실행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세 축의 상호작용은 Spiritual SMART 모델이 단순한 개념의 나열이 아니라, 신학-공동체-기술이 통합된 교회 사역의 실행 프레임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각 축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통해 교회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요구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의 [표

3]은 이 통합 프레임의 각 축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 전략 기능, 그리고 실제 사역 적용 사례를 시각적으로 제시해 본 것이다.

[표 3] SPIRITUAL SMART 3축 통합 프레임 구조

축	핵심 개념	해당 약어	신학적 / 전략적 기능	사례
신학적 정체성	성화, 신학, 리더십	S, T, L	영적 방향성과 정체성 확보	제자훈련, 성경 기반 목표
공동체 실행력	참여, 책임, 실행	P, R, A	공동체 기반 실행 구조와 자발적 사역 동력 제공	셀모임, 평신도 리더십
디지털 전략 통합	혁신, 통합, 실용성	I, I, U	디지털 전략 수립 및 실행 가능성 확보	온라인 예배, ERP 행정 시스템

4. 현대 교회를 위한 적용 전략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영성 훈련

디지털 기술은 영성 훈련에 새로운 지평을 열며, ‘성화 지향 구체성(S)’과 ‘제자도 시간 구조(T)’ 원칙을 구현할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웨슬리의 ‘은혜의 수단’과 ‘성화’ 원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창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영성 훈련 모델은 온-오프라인 훈련의 장점을 통합하여 성도들이 일상에서 지속적 영적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영적 성장 여정 시각화 시스템은 ‘은혜 기반 측정(M)’ 원칙에 기초해 영적 성장을 의미 있는 여정으로 시각화하며, AI 기반 개인화 영성 지원 시스템은 웨슬리의 ‘자기 점검’ 원리를 현대적 기술로 구현하여 영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디지털 영성 훈련 전략들은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가치와 SMART 원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구성된다. 하이브리드 영성 훈련은 ‘은혜의 수단’과 ‘성화’ 원리에 기반하여 ‘구체성(S)’과 ‘시간제한성(T)’을 적용하며,

AI 기반 개인화 영성은 ‘개인 성화’와 ‘영적 점검’ 원리를 통해 ‘측정 가능성(M)’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속회 시스템은 ‘속회와 반회 구조’에 기반하여 ‘달성 가능성(A)’에 중점을 둔다. 다음 [표 4]는 전략 요소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영성 훈련 모델로 체계화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표 4] 디지털 시대 영성 훈련 전략의 통합 구조

전략 요소	웨슬리 교회론 연계	SMART 원리 적용	구체적 구현 방안
하이브리드 영성 훈련	은혜의 수단, 성화	구체성(S), 시간제한성(T)	통합 영성 훈련 플랫폼 구축, 영적 성장 여정 시각화
AI 기반 개인화 영성	개인 성화, 영적 점검	측정 가능성(M)	맞춤형 영성 큐레이션, 영적 성찰 AI 시스템
디지털 속회 시스템	속회와 반회 구조	달성 가능성(A)	클라우드 기반 소그룹, 가상 속회 나눔 플랫폼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방안들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서는 신학적 성찰과 공동체적 맥락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영성 훈련이 오프라인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웨슬리의 ‘전인적 성화’가 보다 온전히 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의 효율성과 신학적 본질이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실천의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2) 평신도 참여와 공동체적 리더십 강화

디지털 시대는 교회 리더십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공동체 중심 달성 가능성(A)’ 원칙은 웨슬리의 ‘만인 제사장직’ 이념을 현대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며, 웨슬리 교회론의 평신도 사역 활성화는 디지털 환경에서 확장된 형태로 실현될 여지가 있다.

웨슬리의 평신도 사역 원리는 디지털 시대의 네트워크 사회구조와 본질적으로 부합한다. Snyder(2007)가 지적했듯이,⁷⁰⁾ 웨슬리는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체로 인식하는 만인 제사장직을 실제적으로

70) Snyder, H. A. op. cit., pp.9-22.

구현했으며, 이는 현대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러한 원리는 지리적 제약을 넘어서는 영적 공동체 형성과 은사 기반의 분산된 사역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접근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네트워크 기반 리더십 원리는 웨슬리의 ‘연결주의 교회론’과 ‘만인 제사장직’ 원리에 기반하여, ‘공동체 중심 달성 가능성(A)’을 적용함으로써 위계적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이는 개인의 은사와 소명에 따른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체 전체의 사역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참여형 의사결정 원리는 웨슬리의 ‘공회(Conference) 원리’와 연계되어, ‘선교적 관련성(R)’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이 소수의 리더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영적 분별과 집단 지혜를 통해 형성되는 것을 지향한다.

셋째, 상호 책임성 기반 평가 원리는 웨슬리의 속회 시스템에서 강조된 ‘상호 권면과 책임’ 원리를 현대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은혜 기반 측정성(M)’을 통해 사역의 투명성과 지속적 개선을 위한 공동체적 성찰 구조를 형성한다. 넷째, 단계적 제자화 원리는 ‘제자화 체계’와 결합하여 ‘제자도 시간 구조(T)’를 적용함으로써, 평신도가 신앙 성숙도와 은사 발달에 따라 점진적으로 리더십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 성장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의 이론적 근거는 조직심리학 연구에서도 뒷받침된다. Meyer와 Allen(1991)의 조직 몰입 이론이 보여주듯이,⁷¹⁾ 명확한 역할과

71) Meyer & Allen, op. cit., pp.61-89. Meyer와 Allen은 조직 몰입을 정서적, 지속적, 규범적 몰입의 세 차원으로 구분했는데, 이 중 정서적 몰입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서적 몰입은 구성원이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진심으로 동의하며 심리적 유대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명확한 역할 인식이 이러한 정서적 몰입을 크게 높인다는 점이다. 자신의 역할이 분명할 때 구성원들은 업무에서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책임이 부여될 때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와 공동체 헌신이 강화되며, Ryan과 Deci(2000)의 자기결정 이론은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충족될 때 개인의 내재적 동기가 활성화됨을 보여준다.⁷²⁾ 웨슬리의 평신도 사역 원리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와 일치하며, SMART 모델의 체계적 접근은 이를 실현 가능한 구조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평신도 참여와 공동체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할 수 있다.

[표 5] 평신도 참여와 공동체적 리더십 강화 전략

전략 요소	웨슬리 교회론 연계	SPRITUAL SMART 원리 적용	핵심 지향점
네트워크 기반 리더십	연결주의 교회론, 만인 제사장직	공동체 중심 달성 가능성(A)	수평적 협력과 은사 기반 역할 분담
참여형 의사결정	공회(Conference) 원리	선교적 관련성(R)	공동체 지혜를 통한 영적 분별
상호 책임성 평가	상호 책임성	은혜 기반 측정성(M)	투명성과 공동체적 성찰 구조
단계적 제자화	제자화 체계	제자도 시간 구조(T)	신앙 성숙도에 따른 점진적 성장

이러한 전략들은 웨슬리가 강조한 ‘상호 책임성’과 ‘공동체적 분별’의 가치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다. 핵심은 이러한 접근이 단순한 조직 효율성을 넘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제자화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지혜를 바탕으로 구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사회 참여를 통한 선교적 실천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원리인 ‘사회적 성결’은 현대 교회의 사회적 책임

도 강해진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에 대한 깊은 소속감과 장기적 헌신이 형성되는 것이다.

72) Ryan, R. M. & Deci, E. L. op. cit., pp.68-78.

과 공적 참여에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한다. ‘선교적 관련성(R)’ 원칙은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 실천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디지털 시대는 교회의 사회 참여 방식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데이터 기반 사회 참여는 웨슬리의 ‘사회적 성결’과 ‘사회 개혁’ 원리에 토대를 두며, ‘성화 지향 구체성(S)’을 적용하여 지역사회 니즈 매핑과 임팩트 평가 시스템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둘째, 디지털 공공신학은 ‘공적 신앙’과 ‘사회적 책임’ 원리와 결합하여, ‘선교적 관련성(R)’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윤리 연구소와 다중매체 공공신학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교회의 공적 목소리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셋째, 글로벌 디지털 선교는 웨슬리의 ‘세계는 나의 교구’ 비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공동체 중심 달성 가능성(A)’을 적용하여 온라인 선교 플랫폼과 다국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는 선교를 모색한다.

넷째, 사회적 정의 프로젝트는 ‘사회 개혁 실천’ 원리에 기반하여, ‘제자도 시간 구조(T)’를 통해 체계적 옹호(advocacy) 활동—소외계층 권익 보호와 사회 정의 정책 제안—과 장기적 변화 프로젝트로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웨슬리의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실천의 균형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로 이해되며, 복음의 총체성을 실현하는 선교적 실천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6]은 웨슬리 교회론 기반 Spiritual SMART 모델을 적용한 사회 참여 전략을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6] 웨슬리 교회론 기반 Spiritual SMART 실행 전략

전략 요소	웨슬리 교회론 연계	SPRITUAL SMART 원리 적용	구현 방안
데이터 기반 사회 참여	사회적 성결, 사회 개혁	성화 지향 구체성(S)	지역사회 니즈 매핑, 임팩트 평가 시스템
디지털 공공신학	공적 신앙, 사회적 책임	선교적 관련성(R)	디지털 윤리 연구소, 다중매체 공공신학 콘텐츠
글로벌 디지털 선교	세계는 나의 교구	공동체 중심 달성 가능성(A)	온라인 선교 플랫폼, 다국적 협력 네트워크
사회적 정의 프로젝트	사회 개혁 실천	제자도 시간 구조(T)	체계적 옹호 활동, 장기적 변화 프로젝트

이 전략들은 웨슬리의 선교적 비전을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단순한 사회 활동이 아닌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연결된 선교적 실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웨슬리가 강조했듯이, 사회적 성결은 개인의 성화와 분리될 수 없으며, 교회의 사회 참여는 복음의 총체적 실현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교회가 영적 깊이와 사회적 관련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5. 교회 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1) 디지털 인프라 및 리더십 혁신

(1)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목표 설정

교회 행정의 디지털화는 물리적, 기술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속 인터넷과 클라우드 기반 저장 시스템으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교회 전용 ERP나 Google Workspace 같은 행정용 온라인 플랫폼이 요구된다. 카카오톡, Zoom, Notion 등 디지털 소통 도구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속도와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 인프라는 의사소통의 정확성, 자료 보존의 안정성, 업무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

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표 7]은 SMART 모델 기반의 교회 행정 목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7]에서 보듯이, 첫째, 구체성(S) 측면에서는 디지털 전환 기간 내 온라인 헌금 체계 구축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교회 홈페이지 연동 및 QR코드 생성과 같은 구체적 실행 조건으로 체계화한다. 이를 통해 재정 처리 자동화와 접근성 향상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측정 가능성(M)은 일간 사용자 수 및 사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Google Analytics 또는 설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실현된다. 이는 사용자 피드백 기반 개선을 지원한다.

셋째, 달성 가능성(A)은 교인 중 60% 이상 스마트폰 활용 가능자 기반 운영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며, 사전 설문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을 통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시도 낭비 감소와 실현력 확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관련성(R)은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참여 용이성 확대를 통해 교회의 핵심 가치와 연계되며, 예·결산 보고 자동화와 간편 기부 안내 강화로 발전시킨다. 이는 교회 신뢰도 제고와 세대 간 참여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째, 시간제한성(T)은 6개월 이내 시스템 구축이라는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하고, 도입 및 전 교인 교육 완료도와 일정표 수립 및 교역자/리더 대상 우선 교육을 통해 전개한다. 이는 빠른 정착 및 초기 활용도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SMART 모델 기반 접근은 교회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각 요소별 목표와 실행 조건, 기대 효과의 명확한 설정은 교회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행정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표 7] SMART 기반 교회 행정 목표 구조

전략 요소	웨슬리 교회론 연계	SPRITUAL SMART 원리 적용	구현 방안
구체성 (S)	디지털 전환 기간 내 온라인 헌금 체계 구축	교회 홈페이지 연동, 전용 QR코드 생성	재정 처리 자동화, 접근성 향상
측정 가능성 (M)	월간 사용자 수 및 사용률 모니터링	Google Analytics 또는 설문 시스템 연계	사용자 피드백 기반 개선 가능
달성 가능성 (A)	교인 중 60% 이상 스마트폰 활용 가능자 기반 운영	사전 설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병행	불필요한 시도 낭비 감소, 실행력 확보
관련성 (R)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참여 용이성 확대	예·결산 보고 자동화, 간편 기부 안내 강화	교회 신뢰도 제고, 세대 간 참여 격차 해소
시간 제한성 (T)	6개월 이내 시스템	도입 및 전 교인 교육 완료도입 일정표 수립 및 교역자/리더 대상 우선 교육	빠른 정착 및 초기 활용도 극대화

이러한 SMART 기반 목표 설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교회 행정의 실행력과 전략적 명확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로 명확한 목표,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 구체적 시간제한 설정은 리더십 신뢰를 높이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며 조직의 생산성과 방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더 나아가 온라인 헌금 시스템, 디지털 결산 보고, 피드백 기반 시스템 개선 등은 데이터 기반 순환적 행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웨슬리의 ‘은혜의 수단’이 지닌 영적 질서와 반복성 원리와 신학적으로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참여적 거버넌스와 리더십 모델 혁신

4장에서 제시한 평신도 참여와 공동체적 리더십의 신학적-전략적 원리를 실제 교회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 섹션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구체적 도구와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온라인 의사결정 플랫폼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웨슬리의 공회 원리를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는 핵심 도구가 된다. 슬랙(Slack), 디스코드(Discord),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세대별, 관심사별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 Google Forms, SurveyMonkey 등을 연동한 상시적 제안 접수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 제안 사항을 정리하고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리더십 개발과 배치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또한 중요하다. 온라인 은사 진단 도구와 사역 기회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여, 개인의 은사와 관심사에 맞는 사역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매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SMART 모델의 ‘달성 가능성’ 원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이다.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한 단계별 리더십 훈련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 단계의 체계적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각 단계별 수료 조건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투명한 리더 양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반 도구들의 도입이 필요하다. 각 사역팀의 목표 달성도, 참여율, 만족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축함으로써 사역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Google Analytics, Tableau, Power BI 등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직관적인 성과 확인이 가능하며, 월별 온라인 설문조사와 분기별 화상 회의를 통한 정기적 피드백 순환 구조는 웨슬리의 ‘상호 권면’ 원리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이 된다.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혁신을 통해 분산형 리더십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를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로 전환

하기 위해 팀별 전용 채널, 프로젝트별 협업 공간, 전체 공지 시스템을 통합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다. Microsoft Teams, Notion Workspace, 또는 전용 교회 앱을 통해 실시간 소통과 자료 공유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AI 기반 업무 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일정 관리, 업무 배분,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을 자동화함으로써 리더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본질적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단계적 도입과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핵심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점진적으로 전체 교인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시스템 사용법 안내를 통해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피드백 수집을 통한 시스템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술적 도구들이 목적이 아니라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적 책임과 평신도 사역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디지털 소통과 커뮤니티 관리

(1) 통합적 디지털 소통 전략

교회의 디지털 소통은 다양한 채널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다중 채널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체계 위에 세대별, 관심사별 맞춤형 소통 전략과 양방향 소통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진정한 연결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한 기본 정보 제공, 유튜브·페이스북을 활용한 콘텐츠 배포, 카카오톡·텔레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소통, 줌·게더타운을 통한 화상 모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 특히 MZ세대를 위한 인스타그램·틱톡, 중장년층을 위한 네이버 밴드·카페, 시니어 세대를 위한 전화 상담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전방위적 접근을 통해 각 세대 특성에 맞는 영적 돌봄과 맞춤형 목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현대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비대면 소통 기술의 확장을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영성과 신앙적 유대 형성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⁷³⁾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신앙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영적 연결감 회복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⁷⁴⁾

따라서 교회의 디지털 소통 전략은 Spiritual SMART 모델의 ‘은혜 기반 측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소통의 효과성을 단순한 전달률이나 클릭 수가 아니라, 영적 연결감과 공동체 소속감 측면에서 평가하고 개선하는 순환적 구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동체 경험은 물리적 모임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과 도전을 갖는다. 따라서 관심사·지역·연령대별 온라인 소그룹 운영, 디지털 환경에서의 체계적 영적 돌봄 시스템 구축, 건강한 온라인 문화를 위한 명확한 공동체 규범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⁷⁵⁾

특히 웨슬리의 속회 시스템을 디지털로 재해석한 이러한 접근은 공동체 중심 달성 가능성(A)과 성화 지향 구체성(S)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도 진정한 영적 성장과 의미 있는 공동체 경험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73) 최동규, 앞의 논문, 171-200쪽; 조해룡, 앞의 논문, 311-343쪽.

74) 봉원영,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회복탄력성 도시를 위한 기독교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6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461-472쪽.

75) 최동규, 앞의 논문, 157-181쪽.

더 나아가 교회의 교육 목회와 공동체 운영은 단순한 조직 관리를 넘어 공동체적 책임과 성장을 유도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참여 기반 커뮤니티 운영과 리더십 모델 정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결국 디지털 커뮤니티 관리는 단순한 기술적 운영이 아닌,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가치를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하는 신학적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회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신학적 가치와 기술적 도구의 실천적 통합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참여적 리더십 혁신, 효과적 소통과 커뮤니티 관리가 연결된 유기적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전략은 단순한 효율성 추구를 넘어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가치인 성화, 사회적 성결, 은혜의 수단, 공동체적 책임, 평신도 사역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신학적 실천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교회가 본질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디지털 시대 도전에 응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도전에 응답하기 위해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모델의 창의적 융합을 시도하였다. 연구의 세 가지 핵심 문제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웨슬리 교회론의 핵심 원리는 디지털 시대의 교회 리더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본 연구는 웨슬리 교회론의 성화, 사회적 성결, 은혜의 수단, 속회와 반회 구조, 평신도 사역 활성화 등 핵심 원리들을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재해석함으로써 현대 교회 리더십의 신학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적 책임의 균형, 전통적 공동체 구조의 현대적 재구성, 평신도의 적극적 참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요한 영적·실천적 틀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 영성 훈련 시스템, 디지털 속회 구조, 평신도 중심의 네트워크형 리더십 등이 디지털 환경에서 공동체의 영성과 책임성 강화에 실천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SMART 모델을 교회 행정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신학적 및 조직적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 본 연구는 목표 설정 및 평가 과정이 단순한 조직 효율성 추구를 넘어 교회의 본질적 신학적 가치와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SMART 모델의 요소들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여 영적 분별과 공동체적 책임성, 성도의 전인적 성장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SMART 모델이 단순한 관리 도구가 아닌, 영적 성숙과 공동체적 연대감을 촉진하는 교회 행정의 신학적 토대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이 두 이론의 통합적 접근은 디지털 시대 교회 리더십과 행정 혁신에 어떤 전략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본 연구가 제안한 Spiritual SMART 모델은 교회의 본질적 영적 가치와 현대적 조직 실행력을 전략적으로 통합하는 틀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영성의 분절화, 공동체적 연대감 약화, 기술 중심적 접근의 위험성 등 디지털 시대 교회가 마주한 도전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 전략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데이터 기반 영성 훈련 체계, 평신도 중심의 참여형 리더십 구조,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적 선교 방안을 제시하여, 이론과 현장 사이의 실천적 간극을 좁히고 디지털 전환기 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적 기여가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와 실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모델의 실제 교회 현장 적용에 대한 사례 연구 및 실증적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사역, 디지털 예배, 평

신도 리더십 개발 등 사역별 맞춤형 실천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과 신학적 가치 사이의 윤리적 균형점을 모색하는 심층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piritual SMART 모델이 디지털 전환기 한국교회에 유의미한 신학적·전략적 길잡이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강태평, 『기독교 행정학』, 영성네트워크, 2019.

Bloom, Benjamin S.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New York: Longmans, Green, 1956.

Campbell, Heidi A. & Stephen Garner. *Networked theology: negotiating faith in digital cultur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pp.55-75.

Chilcote, Paul W. *John Wesley and the Reign of God: A Theology of Grace and Holiness*,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pp.112-118.

Heidi A. Campbell & Stephen Garner. *Networked Theology: Negotiating Faith in Digital Cultur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pp.55-75.

Heitzenrater, Richard P. *Wesley and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pp.108-113.

Hooks, Bell. *Teaching to transgress: education as the practice of freedom*, New York: Routledge, 1994, pp.25-28.

Knight, Henry H. III. *The Presence of God in the Christian Life: John Wesley and the Means of Grace*, Lanham, MD: Scarecrow Press, 2010.

Osmer, Richard R. *Practical theology: an introduction*, Grand Rapids: Eerdmans, 2008, pp.82-86.

Root, Andrew. *The congregation in a secular age: keeping sacred time against the speed of modern lif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1, pp.23-45.

Snyder, Howard A. *The radical Wesley and patterns for church renewal*, Wipf and Stock, 2007.

Spadaro, Antonio. *Cybertheology: thinking Christianity in the era of*

the internet,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14, pp.30-52.

Van Gelder, Craig. *The ministry of the missional church: A community led by the Spirit*, Grand Rapids: Baker Books, 2007.

Watson, Kevin M. *The class meeting: reclaiming a forgotten (and essential) small group experience*, Franklin, TN: Seedbed Publishing, 2014.

Wesley, John. *The means of grace*, in John Wesley's Sermons: An Anthology, Albert C. Outler & Richard P. Heitzenrater. eds.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pp.157-167.

논문

강병오, 「존 웨슬리의 성화 신학과 정치윤리」, 『한국조직신학 논총』 36권, 한국조직신학회, 2013, 147-178쪽.

권문상, 「존 웨슬리의 구원론적 교회론: 교회 개혁의 기초로서의 소그룹 교회 구조」, 『조직신학연구』 31권, 한국복음주의조직신학회, 2019, 184-217쪽.

권행운, 「요한 웨슬리의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의 추동 요인과 시사점」, 『신학과 실천』 83호, 한국실천신학회, 2023, 457-486쪽.

김성철, 「교회봉사자의 섬김의 자세와 리더십의 변화」, 『유관순연구』 21권,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 2016, 97-125쪽.

봉원영,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회복탄력성 도시를 위한 기독교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권 6호, 한국콘텐츠학회, 2023, 461-472쪽.

오광석, 「교회, 세상 속의 은혜의 수단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웨슬리안 교회론」, 『한국기독교신학 논총』 126집, 한국기독교학회, 2022, 141-172쪽.

——, 「성직자 안수문제: 초대교회 안수 전통과 초기 감리교 목회자 안수에 대한 고찰」, 『신학과 세계』 102호, 감리교신학대학교, 2022, 283-323쪽.

오성욱, 「존 웨슬리의 교회론적 새 비전: 하나님의 ‘보이는 손」, 『피어선 신학 논단』 13권 1호, 평택대학교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2024,

153-175쪽.

이찬석, 「팬데믹 시대 교회와 신학의 과제」, 『한국조직신학논총』 64권, 한국조직신학회, 2021, 107-138쪽.

임영택, 「웨슬리 초기공동체의 교육목회 방법 연구: 은총의 수단」, 『기독교 교육정보』 36집,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6, 155-181쪽.

임영택,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교육목회」, 『기독교 교육정보』 22권,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9, 261-291쪽.

장성배, 「평신도 선교 사역자 운동」, 『신학과세계』 84호, 감리교신학대학교, 2015, 434-472쪽.

조해룡, 「메타버스 (Metaverse) 시대 선교적 교회의 목회구조 변화와 과제: 한국교회 적용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60권, 장로회신학대학교세계선교연구원, 2023, 311-343쪽.

최동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목회」, 『선교와 신학』 52권,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2020, 171-200쪽.

Appelbaum, S. H., S. Habashy, J. L. Malo, & H. Shafiq. "Back to the Future: Revisiting Kotter's 1996 Change Model,"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vol. 31, no. 8, 2012, pp.764-782.

Bardiau, Romain, Marie Seguran, Alain Senart, & Ahmed M. T. Osman. "A recommendation system for specifying and achieving SMART goals", *WEBIST*, vol. 2, 2014, pp.322-327.

Doran, George T. "There's a S.M.A.R.T. way to write management's goals and objectives", *Management Review*, vol. 70, no. 11, 1981, pp.35-36.

Douglas, Brian. "Koinonia", *Journal of Anglican Studies*, vol. 20, no. 2, 2022, pp.133-138.

Drozdek, Adam. "On sanctifying cyberspace", *Studia Gdańskie*, no. 34, 2014, pp.79-88.

Fellows, P. "Discipleship in Three Dimensions: A Critical Examination of John Wesley's Doctrine of Holiness and Its Implications for Contemporary Small Group Discipleship",

- Ecclesiology*, vol. 17, no. 1, 2021, pp.29-48.
- Field, David N. Holiness, social justice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John Wesley's insights in contemporary context, *Holiness: The Journal of Wesley House Cambridge*, vol. 1, no. 2, 2015, pp.177-198.
- Graham, Elaine L. "On becoming a practical theologian: Past, present and future tenses", *HTS Teologiese Studies*, vol. 73, no. 4, 2017, pp.1-9.
- Katzenbach, Jon R. & Douglas K. Smith. "The Discipline of Teams,"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1, no. 2, 1993, pp.111-120.
- Leithwood, Kenneth & Doris Jantzi. "Transformational school leadership for large-scale reform: effects on students, teachers, and their classroom practices",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vol. 17, no. 2, 2006, pp.201-227.
- Locke, Edwin A. & Gary P. Latham. "Building a practically useful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motivation: a 35-year odyssey", *American Psychologist*, vol. 57, no. 9, 2002, pp.705.
- Maddox, Randy L. "'Visit the poor': Wesley's precedent for wholistic mission", *Transformation*, vol. 18, no. 1, 2001, pp.37-50.
- Meyer, J. P., & Allen, N. J., "A three-component 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vol. 1, no. 1, 1991, pp.61-89.
- Noble, Thomas A. "John Wesley as a theologian: an introduction", *Evangelical Quarterly*, vol. 82, no. 3, 2010, pp.238-257.
- Rieger, Joerg. "Exploring the fullness of grace: Wesleyan moves from charity, service, and advocacy to deep solidarity", *Holiness*, vol. 9, no. 2, 2024, pp.89-99.
- Ryan, Richard M., & Deci, Edward L.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2000, pp.68-78.

Snyder, Howard A. “The church as holy and charismatic”,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vol. 15, no. 2, 1980, pp.9-22.

Thorsen, Don. “A Wesleyan-Holiness perspective on 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 *Journal of Ecumenical Studies*, vol. 50, no. 2, 2015, pp.295-298.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리더십 및 행정적 전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웨슬리 교회론과 S.M.A.R.T. 모델의 창의적 통합을 시도하였다. 웨슬리 교회론의 성화, 사회적 성결, 은혜의 수단, 속회 구조, 평신도 사역 원리는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신학적 기반이며, S.M.A.R.T. 모델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전략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체계적 관리 도구이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본 연구는 두 이론 체계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영성 SMART 모델(Spiritual SMART)’을 제안하고, 이를 디지털 시대 교회 사역에 적용 가능한 신학-전략 융합형 운영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켰다. 이 통합 모델은 교회가 영성과 공동체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과 전략성이라는 실행적 가치를 균형 있게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로서 기능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영성 훈련 시스템, 평신도 참여 기반 리더십 매핑, 데이터 기반 선교 실천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Spiritual SMART의 현장 교회 적용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패러다임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한 이론 구축을 넘어, 신학적 전통과 디지털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교회 리더십 모델의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실천신학과 조직이론 양 영역에 의미 있는 학문적 기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웨슬리 교회론, SMART 모델, 디지털 교회, 통합적 리더십, 영성 훈련, 교회 행정

■ Abstract

Strategic Church Leadership in the Digital Age : An Integrative Model of Wesleyan Ecclesiology and SMART Principles

Kim, Yang-Hee / Baekseok University

Lu, Hak-Gon / 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he creative integration of Wesleyan ecclesiology and the S.M.A.R.T. model in order to address the leadership and administrative transformation challenges faced by the church in the digital age. The principles of Wesleyan ecclesiology—sanctification, social holiness, means of grace, class meeting structure, and lay ministry—serve as the theological foundation that defines the essence of the church, and the S.M.A.R.T. model is a systematic management tool that enhances the strategic nature and execution ability of organizational 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pecific and measurable goals.

Based 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this study proposed the Spiritual S.M.A.R.T. model by organically combining the two theoretical systems, and developed it into an operational paradigm that integrates theology and strategy and is applicable to church ministry in the digital age. This integrated model functions as a practical tool that enables the church to maintain the essential values of spirituality and community, while also securing the practical values of efficiency and strategic nature in a balanced manner.

In particular, this study systematically presented specific implementation strategies such as a hybrid spiritual training system, leadership mapping based on lay participation, and data-centered missional practice, thereby aiming to propose that the Spiritual S.M.A.R.T. model is a paradigm with practical applicability to churches in the field and the potential for sustainable growth. This not onl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theoretical model but is also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academic contributions to both practical theology and organizational theory by pioneering an integrated

church leadership model in which theological tradition and digital culture are harmoniously combined.

Keyword • Wesleyan Ecclesiology, SMART Model, Digital Church, Integrated Leadership, Spiritual Training, Church Administration

2인 환자 운반법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 평가 : PATH-KOSHA 기법을 중심으로

손 정 원*

목 차

1. 서론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결과
4. 고찰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출동 건수 5,440,051건 가운데 구급 출동이 3,486,526건(64.1%)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 시 발생한 공·사상자 683명 중 구급대원이 296명(4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¹⁾ 또한 구급대원 수의 부족으로 인해 전국 구급대원 14,212명 중 4,548명(32%)이 여전히 2인 출동을 수행하고 있어, 현장 활동 중 근골격계 질환 예방 대책의 시급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²⁾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 MSDs)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 손정원(제1저자, 교신저자) 목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1) 소방청, 『2024 소방청 통계연보』, 2024, 63쪽.

2) 소방청, 『2024년도 119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2024, 9쪽.

온도 등으로 발생하는 건강 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³⁾ 작업을 위해 과도한 힘과 동작을 사용하거나 신체를 굽히고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취하기, 반복적인 동작 등은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주요 유해 요인이다.⁴⁾ 이에 119 구급대원의 환자 운반 작업은 무거운 환자를 들고 내리며, 밀거나 당겨서 운반하는 작업이 많으므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게 되며, 좁은 통로 등의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부딪힘 및 부적절한 동작, 과도한 굽힘 자세 등을 취하게 되므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⁵⁾⁶⁾

이러한 이유로 국외에서는 구급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서비스 종사자 (Emergency Medical Service, EMS)들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 위험 요인 분석, 작업환경 개선 효과 등의 다양한 연구⁷⁾⁸⁾⁹⁾¹⁰⁾¹¹⁾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3) 법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2항, 2024a.

4) 권영국, 『새로운 인간공학』, 디자인21, 2021, 119쪽.

5) Lavender SA et al., “Postural analysis of paramedics simulating frequently performed strenuous work tasks”, *Ergonomics*, vol. 31, no. 1, Elsevier, 2000, pp.45-57.

6) 손정원, 「119 구급대원의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손상 위험성 평가-환자 들기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3권 1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9, 102쪽.

7) Tahernejad A et al.,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ublic Health*, vol. 237, Medline, 2024, pp.107-115.

8) Friedenbergr R et al.,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injuries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paramedics: A comprehensive narrative review”,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vol. 77, no. 1, CrossRef, 2022, pp.9-17.

9) Amit LM & Hunter CS, “Analyses of posture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the United States”, *SHIFT: Global EHS Research to Practice*, vol. 2, no. 1, 2023, pp.10-18.

10) Davies K, Weale V, & Oakman J, “A participatory ergonomics intervention to re-design work and improve the musculoskeletal health of paramedics: protocol for a cluster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MC musculoskeletal disorders*, vol. 24, no. 716, Crossref, 2023, pp.1-14.

에 국내의 경우 실제 구급활동 활동 모습과 훈련 모습의 촬영 제약 등으로 인해 연구가 제한적이며 미비한 실정이다.¹²⁾¹³⁾¹⁴⁾ 또한, 현재 전국 9곳의 소방학교(교육대)에서는 신입 소방공무원 구급 교육 과정 시 환자 운반법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교수(교관)의 경험에 의존한 단순히 들고 내리며, 이동하는 행위에 국한되어 있어 구급대원의 근골격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¹⁵⁾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변형 들것과 긴 척추 고정판을 활용한 2인 환자 운반 작업을 PATH-KOSHA 기법을 적용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보다 안전하고 표준화된 환자 운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가변형 들것(Variable Stretcher, VS)과 긴 척추 고정판(Long Back Board, LBB)을 환자 운반 대표 장비로 구분 후, 운반 모습을 촬영하여 작업 자세를 분석한 관찰 연구이다. 환자는 인명구조용 전신 마네킹(RLNO

- 11) Moghaddamnia MM et al.,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and their associations with job content: A cross-sectional study", *Health in Emergency and Disasters Quarterly*, vol. 10, no. 3, Crossref, 2025, pp.153-165.
- 12) 김대성·문명국·김규상,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의 근골격계 증상 및 위험실태」, 『대한인간공학회지』 29권 2호, 대한인간공학회, 2010, 212쪽.
- 13) 홍성기, 「119 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증상과 환자운반 작업의 인간공학적 평가」,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8권 4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4, 81쪽.
- 14) 손정원, 「119 구급대원의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 평가: 환자 운반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7권 3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23, 33쪽.
- 15) 중앙소방학교, 『2025 신입교육과정 소방전술Ⅲ(구급)』, 동은디엔피, 2025, 88-95쪽.

70, RUTH LEE, England, 165cm, 70kg)으로 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 (Hero 13 black, Gopro, China)와 스마트폰(Galaxy S24 Ultra, Samsung, Korea)을 이용하여 3 측면(정면, 좌, 우)을 촬영하였다.

2) 연구 대상 및 분석 방법

2024년 8월 20일 K 소방학교 병원 전 외상처치술 과정에 입교한 구급 대원 60명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 후 동의를 얻어 훈련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후 촬영된 영상과 운반 작업 동작 평가에 대해 산업보건 전문가 2명(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 인간공학 기술사 1)에게 검토를 받았다. 검토 결과 2인 환자 운반 작업은 모두 동적인 작업임을 감안하여 신체 전신을 평가할 수 있으며 국내 보건의료인 특성에 맞는 PATH-KOSHA 기법으로 분석하기로 하였고, 운반 동작의 빈도와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5초 간격 샘플링 후 ‘최빈값’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3) 인간공학적 평가도구

(1) PATH-KOSHA 기법(Posture, Activity, Tools, and Handling)

PATH-KOSHA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8)¹⁶⁾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써, 최초 Buchholz 등(1996)¹⁷⁾에 의해 건설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을 국내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평가 기법이다. 이후 2009년경 디지털(PDA) 기기를 활용한 PATH-KOSHA 버전이 개발되었으나 장비와 소프트웨어 접근성의 한계로 사용하지 못하여 기존 수기 방식의 PATH-KOSHA 기법을 적용하였다. 평가 항목

16) 박정근·한영선, 「비정형작업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노출평가: 디지털 PATH-KOSHA 버전의 개발」, 『대한인간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5권, 대한인간공학회, 2009, 388-391쪽.

17) Buchholz B et al., “PATH: A work sampling-based approach to ergonomic job analysis for construction and other non-repetitive work”, *Ergonomics*, vol. 27, no. 3, Elsevier, 1996, pp.177-187.

2인 환자 운반법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 평가
: PATH-KOSHA 기법을 중심으로 | 손정원

은 크게 몸통 자세, 상지 자세, 작업 특성, 손 활동 수준 및 작업 속도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점수(9점 이하, 10~14점, 15 점 이상)에 따른 위험 수준(높음, 보통, 낮음)을 제시한다[그림 1].

몸통 자세*	1	2	3	4	5	6	7	8	9	10	관찰된 손	1	2	3	4	5	6	7	8	9	10
중립(<20)											우측										
앞굽힘 보통(≥20 ~ <45)											좌측										
앞굽힘 심리(≥45)											두관할 / 불확신										
옆(≥20), 옆굽힘 / 휠 유											손목 굽거나 휠	1	2	3	4	5	6	7	8	9	10
옆(≥20), 옆굽힘 / 휠 유											예										
두관할 / 불확신											아니오										
목 자세*											두관할 / 불확신										
중립(<20)											손으로 잡거나 쥐기	1	2	3	4	5	6	7	8	9	10
비중립											예										
두관할 / 불확신											아니오										
다리 자세*											두관할 / 불확신										
선자세(굽힘<35)											손가락으로 잡기	1	2	3	4	5	6	7	8	9	10
보통 / 벌리기											예										
앞손자세											아니오										
무릎굴기(단일 또는 양측)											두관할/불확신										
크로크기(양무릎≥35)											손/전완 접촉/압박	1	2	3	4	5	6	7	8	9	10
기초자세											예										
한발로 선자세											아니오										
두관할 / 불확신											두관할 / 불확신										
여개 / 앞 자세*											전통노출 유무	1	2	3	4	5	6	7	8	9	10
2발<60											예										
1발≥60											아니오										
2발≥60											두관할 / 불확신										
두관할 / 불확신											취급(손/손가락)무게 (kg)	1	2	3	4	5	6	7	8	9	10
발꿈치 자세*											<5										
중립(30~150)											≥5 ~ <20										
옆(150~180)											≥20 ~ <50										
직위/굽힘(<30)											≥50										
두관할 / 불확신											두관할 / 불확신										
취급(전신) 무게(kg)											15초간 연속 관찰 후 결정										
<5											작업(task)	1	2	3	4	5	6	7	8	9	10
≥5 ~ <20											작업 번호(1~10)										
≥20 ~ <50											손동작수준(HAL)	1	2	3	4	5	6	7	8	9	10
≥50											수준 낮(10~10)										
두관할 / 불확신																					
중양물취급																					
해당무																					
1순 취급																					
2순 취급																					
두관할 / 불확신																					
중양물취급 행위																					
해당무																					
운반 / 옮기고 옮기지																					
밀고 끌고 끌어 옮기기																					
물기																					
내리기																					
두관할 / 불확신																					
노출빈도																					
해당무																					
극소진동																					
전진진동																					
두관할 / 불확신																					

[그림 1] PATH-KOSHA 평가 프로그램¹⁸⁾

(2) 작업 샘플링 기법(Work sampling method)

관측 방법이 간단한 측정 기술 중 하나이며, 근로자의 의식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으므로 결과값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 작업장에서의 행동, 작업시간, 여유율, 가동률 산정 등에 자주 활용되는 기법이다.¹⁹⁾

- 18)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비정형작업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노출평가 개선방안-보건의료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공단, 2008, 80쪽.
- 19) 장영숙·이택영·박소연, 「Work sampling 기법을 이용한 자동차부품공장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수준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권 4호, 대한작업치료학회, 2008, 81쪽.

비정형 작업에 존재하는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PATH-KOSHA는 시간연구 기법보다 작업 샘플링 기법으로 사용될 때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5초 간격 작업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²⁰⁾

3. 연구의 결과

1) 교육생의 인구 사회학적 현황

성별로는 여성이 53.3%(32명)로 남성 46.7%(28명) 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34세 그룹이 41.7%(25명)로 가장 많았고, 구급대원으로서 총 근무 기간별로는 5년 이상 9년 미만이 36.7%(22명), 10년 이상 14년 미만이 25.0%(15명)로 높았다. 구급대원 보유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가 63.3%(38명), 근무부서로는 119안전센터가 91.7%(55명)로 구급 출동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

[표 1] 교육생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구분		인원	%
성별	남성	28	46.7
	여성	32	53.3
연령	25~29	3	5.0
	30~34	25	41.7
	35~39	19	31.7
	40~44	11	18.3
	45~49	2	3.3
근무기간	1~4	9	15.0
	5~9	22	36.7
	10~14	15	25.0
	15~19	13	21.7
	20~25	1	1.7

20) Gavriel Salvendy, *Handbook of Industrial Engineer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2, p.1699-1721.

구급자격	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	38	63.3
		22	36.7
근무부서	행정부서 119안전센터	5	8.3
		55	91.7

2) 장비별 작업 자세 평가

(1) 가변형 들것을 사용하여 환자 운반하기

가변형 들것을 사용하여 계단에서 환자 운반하기 작업의 5초 간격 샘플링은 총 3개 동작 20개 정지 영상이었다(그림 2).

PATH-KOSHA 12점 이상(위험 수준 보통 이상)으로 작업 자세 교정이 필요한 정지 영상 수는 1번 대원 17개, 2번 대원 18개이었고, 최빈값은 1번 대원 19점(평균값 14.3점, 최댓값 19점), 2번 대원 19점(평균값 16.0점, 최댓값 21점) 이었다(표 2, 3).



[그림 2] 가변형 들것의 5초 간격 작업 샘플링(대원 1: 우측, 대원 2: 좌측)

[표 2] 가변형 들것 측정값(대원 1)

구분	순서	PATH-KOSHA							
		몸통	팔	다리	목	하중 (kg)	반복 빈도(회)	손 동작 수준	점수 (위험 등급)
들기	1	중립	어깨 높이	쪼그림	굴곡	> 25kg	11~20	9	19 (High)
	2	전방굴곡 < 30°	팔 내림	무릎 굽힘	굴곡	> 25kg	1~10	2	9 (Low)
	3	전방굴곡 < 30°	어깨 이상	쪼그림	중립	> 25kg	1~10	4	13 (Medium)
운반 하기	4	비틀림	어깨 이상	쪼그림	중립	> 25kg	11~20	3	15 (Medium)
	5	전방굴곡 < 30°	어깨 높이	무릎 굽힘	중립	> 25kg	> 30	5	15 (Medium)
	6	전방굴곡 < 30°	어깨 높이	서 있음	비틀림	> 25kg	11~20	3	12 (Medium)
	7	비틀림	어깨 이상	쪼그림	비틀림	> 25kg	11~20	2	16 (Medium)
	8	전방굴곡 30°~60°	팔 내림	쪼그림	중립	> 25kg	11~20	3	12 (Medium)
	9	중립	팔 내림	서 있음	굴곡	> 25kg	1~10	3	8 (Low)
	10	중립	어깨 높이	서 있음	비틀림	> 25kg	>30	9	19 (High)
	11	중립	어깨 높이	쪼그림	비틀림	> 25kg	21~30	8	19 (High)
	12	전방굴곡 < 30°	어깨 이상	서 있음	비틀림	> 25kg	11~20	6	16 (Medium)
	13	중립	어깨 높이	무릎 굽힘	비틀림	> 25kg	> 30	3	14 (Medium)
	14	중립	어깨 이상	무릎 굽힘	비틀림	> 25kg	1~10	4	13 (Medium)
	15	전방굴곡 30°~60°	어깨 높이	무릎 굽힘	비틀림	> 25kg	21~30	4	16 (Medium)
	16	중립	팔 내림	무릎 굽힘	굴곡	> 25kg	> 30	3	12 (Medium)
	17	전방굴곡 < 30°	팔 내림	쪼그림	중립	> 25kg	21~30	5	14 (Medium)
	18	중립	어깨 높이	무릎 굽힘	중립	> 25kg	1~10	7	13 (Medium)
	19	비틀림	팔 내림	무릎 굽힘	중립	> 25kg	11~20	2	11 (Low)
내리기	20	비틀림	어깨 이상	서 있음	중립	> 25kg	11~20	9	19 (High)

[표 3] 가변형 들것 측정값(대원 2)

구분	순서	PATH-KOSHA							
		몸통	팔	다리	목	하중(kg)	반복 빈도(회)	손 동작 수준	점수 (위험 등급)
들기	1	전방굴곡 < 30°	팔 내림	무릎 굽힘	굴곡	> 25kg	1~10	3	10 (Low)
	2	비틀림	팔 내림	쪼그림	비틀림	> 25kg	11~20	8	19 (High)
운반하기	3	비틀림	팔 내림	쪼그림	굴곡	> 25kg	> 30	8	21 (High)
	4	비틀림	팔 내림	무릎 굽힘	중립	> 25kg	21~30	4	14 (Medium)
	5	전방굴곡 < 30°	어깨 높이	쪼그림	굴곡	> 25kg	> 30	8	20 (High)
	6	전방굴곡 < 30°	어깨 높이	쪼그림	굴곡	> 25kg	1~10	6	15 (Medium)
	7	전방굴곡 < 30°	팔 내림	무릎 굽힘	중립	> 25kg	21~30	5	13 (Medium)
	8	전방굴곡 30°~60°	어깨 높이	서 있음	굴곡	> 25kg	> 30	9	20 (High)
	9	전방굴곡 < 30°	팔 내림	서 있음	굴곡	> 25kg	21~30	6	14 (Medium)
	10	전방굴곡 30°~60°	어깨 높이	서 있음	비틀림	> 25kg	> 30	5	17 (Medium)
	11	비틀림	어깨 이상	서 있음	비틀림	> 25kg	1~10	6	17 (Medium)
	12	비틀림	팔 내림	쪼그림	굴곡	> 25kg	11~20	8	19 (High)
	13	전방굴곡 < 30°	어깨 높이	쪼그림	비틀림	> 25kg	11~20	2	13 (Medium)
	14	전방굴곡 < 30°	팔 내림	쪼그림	굴곡	> 25kg	11~20	7	16 (Medium)
	15	비틀림	어깨 높이	서 있음	비틀림	> 25kg	21~30	8	19 (High)
	16	중립	어깨 높이	무릎 굽힘	중립	> 25kg	1~10	7	13 (Medium)
	17	전방굴곡 < 30°	팔 내림	서 있음	비틀림	> 25kg	21~30	2	11 (Low)
	18	중립	팔 내림	서 있음	굴곡	> 25kg	11~20	6	12 (Medium)
	19	전방굴곡 30°~60°	팔 내림	서 있음	중립	> 25kg	> 30	8	17 (Medium)
내리기	20	전방굴곡 < 30°	어깨 높이	쪼그림	굴곡	> 25kg	21~30	8	19 (High)

(2) 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환자 운반하기

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계단에서 환자 운반하기 작업의 5초 간격 샘플링은 총 3개 동작 20개 정지 영상이었다[그림 3].

PATH-KOSHA 12점 이상(위험 수준 보통 이상)으로 작업 자세 교정이 필요한 정지 영상 수는 1번 대원 17개, 2번 대원 18개이었고, 최빈값은 1번 대원 17점(평균값 15.0점, 최댓값 20점), 2번 대원 20점(평균값 15.7점, 최댓값 20점) 이었다[표 4, 5].



[그림 3] 긴 척추 고정판의 5초 간격 작업 샘플링(대원 1: 머리, 대원 2: 다리)

[표 4] 긴 척추 고정판 측정값(대원 1)

구분	순서	PATH-KOSHA							
		몸통	팔	다리	목	하중 (kg)	반복 빈도(회)	손 동작 수준	점수 (위험 등급)
들기	1	전방굴곡 < 30°	팔 내림	쫓그림	굴곡	> 25kg	21~30	3	13 (Medium)
	2	비틀림	어깨 높이	무릎 굽힘	중립	> 25kg	21~30	5	16 (Medium)
운반하기	3	전방굴곡 30°~60°	팔 내림	서 있음	비틀림	> 25kg	1~10	7	15 (Medium)
	4	비틀림	어깨 이상	쫓그림	중립	> 25kg	1~10	5	16 (Medium)
	5	중립	팔 내림	서 있음	굴곡	> 25kg	> 30	6	14 (Medium)
	6	전방굴곡 30°~60°	팔 내림	서 있음	중립	> 25kg	1~10	2	8 (Low)
	7	전방굴곡 < 30°	어깨 이상	쫓그림	굴곡	> 25kg	1~10	5	15 (Medium)
	8	전방굴곡 < 30°	어깨 이상	서 있음	중립	> 25kg	11~20	6	14 (Medium)
	9	비틀림	어깨 높이	무릎 굽힘	비틀림	> 25kg	11~20	8	20 (High)
	10	중립	어깨 높이	서 있음	비틀림	> 25kg	1~10	2	9 (Low)
	11	전방굴곡 30°~60°	어깨 이상	쫓그림	중립	> 25kg	> 30	7	20 (High)
	12	중립	어깨 이상	무릎 굽힘	굴곡	> 25kg	11~20	8	17 (Medium)
	13	전방굴곡 30°~60°	어깨 이상	무릎 굽힘	중립	> 25kg	21~30	3	14 (Medium)
	14	비틀림	어깨 이상	쫓그림	굴곡	> 25kg	11~20	4	17 (Medium)
	15	전방굴곡 30°~60°	어깨 이상	쫓그림	굴곡	> 25kg	1~10	6	17 (Medium)
	16	비틀림	팔 내림	쫓그림	굴곡	> 25kg	> 30	6	19 (High)
	17	전방굴곡 < 30°	어깨 높이	서 있음	비틀림	> 25kg	1~10	2	10 (Low)
	18	중립	팔 내림	무릎 굽힘	중립	> 25kg	11~20	8	14 (Medium)
	19	전방굴곡 < 30°	어깨 이상	무릎 굽힘	비틀림	> 25kg	1~10	8	18 (High)
내리기	20	전방굴곡 < 30°	팔 내림	쫓그림	굴곡	> 25kg	21~30	3	13 (Medium)

[표 5] 긴 척추 고정판 측정값(대원 2)

구분	순서	PATH-KOSHA							
		몸통	팔	다리	목	하중 (kg)	반복 빈도(회)	손 동작 수준	점수 (위험 등급)
들기	1	전방굴곡 30°~60°	팔 내림	쫓그림	비틀림	> 25kg	> 30	7	20 (High)
	2	전방굴곡 < 30°	어깨 이상	쫓그림	중립	> 25kg	1~10	6	15 (Medium)
운반 하기	3	전방굴곡 < 30°	팔 내림	서 있음	중립	> 25kg	1~10	8	13 (Medium)
	4	비틀림	어깨 이상	무릎 굽힘	중립	> 25kg	1~10	5	15 (Medium)
	5	중립	어깨 높이	쫓그림	중립	> 25kg	21~30	8	17 (Medium)
	6	전방굴곡 < 30°	어깨 높이	쫓그림	굴곡	> 25kg	21~30	2	13 (Medium)
	7	전방굴곡 30°~60°	어깨 이상	쫓그림	중립	> 25kg	11~20	5	16 (Medium)
	8	비틀림	어깨 이상	쫓그림	굴곡	> 25kg	21~30	4	18 (High)
	9	중립	어깨 이상	서 있음	굴곡	> 25kg	1~10	3	10 (Low)
	10	비틀림	어깨 높이	서 있음	중립	> 25kg	11~20	6	15 (Medium)
	11	전방굴곡 < 30°	팔 내림	서 있음	굴곡	> 25kg	11~20	3	10 (Low)
	12	전방굴곡 30°~60°	어깨 이상	쫓그림	굴곡	> 25kg	11~20	8	20 (High)
	13	중립	어깨 이상	서 있음	비틀림	> 25kg	> 30	8	20 (High)
	14	전방굴곡 30°~60°	어깨 높이	무릎 굽힘	중립	> 25kg	11~20	4	13 (Medium)
	15	중립	팔 내림	무릎 굽힘	비틀림	> 25kg	21~30	8	17 (Medium)
	16	중립	팔 내림	무릎 굽힘	비틀림	> 25kg	21~30	5	14 (Medium)
	17	전방굴곡 30°~60°	팔 내림	무릎 굽힘	비틀림	> 25kg	11~20	4	14 (Medium)
	18	중립	팔 내림	쫓그림	굴곡	> 25kg	11~20	9	17 (Medium)
	19	전방굴곡 < 30°	어깨 이상	쫓그림	중립	> 25kg	1~10	7	16 (Medium)
내리기	20	전방굴곡 30°~60°	팔 내림	쫓그림	비틀림	> 25kg	> 30	7	20 (High)

4. 고찰

대한민국 119구급대원은 응급환자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 및 구조, 처치, 이송의 업무를 수행한다.²¹⁾ 환자 운반 장비로는 주들 것, 가변형 들것, 분리형 들것, 계단 이송용 들것, 긴 척추 고정판, 접이식 들것, 바스켓 들것 등이 있으며, 이중 비 외상 환자에게는 간이형 들것을, 외상환자에게는 긴 척추 고정판을 주로 사용한다.²²⁾

응급환자는 주택뿐만 아니라 산, 호수, 바다 등 모든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통로가 좁은 골목, 경사가 가파른 계단, 바닥이 울퉁불퉁한 산길 등에서 간이형 들것과 긴 척추 고정판으로 환자 운반 시 과도한 힘의 사용과 더불어 부적절한 자세, 움직임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²³⁾²⁴⁾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 운반 작업 시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단에서 가변형 들것과 긴 척추 고정판을 이용한 환자 운반 작업 모습을 촬영 후 인간공학적 평가도구인 PATH-KOSHA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3개 동작 20개 샘플링 영상으로 구성된 가변형 들것을 사용한 환자 운반하기 작업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는 1번과 2번 대원 모두 최빈값 19점인 ‘가변형 들것 들기, 가변형 들것 내리기’ 동작이었다.

3개 동작 20개 샘플링 영상으로 구성된 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한 환자 운반하기 작업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는 1번 대원의 경우 최빈값 17점인

21) 법제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2024b.

22) 법제처,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2024c.

23) 황지영·조근자, 「119 구급대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실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1권 1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7, 55쪽.

24) 김정만 외, 「소방관의 근골격계 증상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지』 17권 2호, 한국산업보건학회, 2007, 112쪽.

‘긴 척추 고정판 운반하기’ 동작이었고, 2번 대원의 경우 최빈값 20점인 ‘긴 척추 고정판 운반하기’ 동작이었다.

위험도가 가장 높았던 위 3개 동작에 대한 유해 요인을 운반 장비별로 살펴보면 가변형 들것의 경우 ‘가변형 들것 들기’ 동작은 환자의 좌, 우측에서 대원 서로가 마주 볼 수 있도록 위치한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린 후 최대한 상체를 똑바르게 펼 수 있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양 무릎을 구부려 기마자세를 취한 후 두 대원이 동시에 들 것 손잡이를 잡고 들어 올리는 동작이다. 반대로 ‘가변형 들것 내리기’ 동작은 최대한 상체를 똑바르게 유지하면서 두 대원이 동시에 양 무릎을 구부려 내리는 동작이다. 이렇게 되면 무릎은 90도 이상 굽혀져 무게 하중이 심하며, 종아리의 장딴지근과 가자미근, 허벅지의 대퇴사두근, 엉덩이의 둔근, 복부의 복직근, 허리의 척추세움근, 상지의 위팔두갈래근과 위팔세갈래근, 전완근 등에 순간적인 힘을 주어 환자를 들어 올리거나 내려야 하므로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파트너와의 체격 차이(키, 몸무게)가 심할 경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여 운반 시 넘어지거나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발목, 무릎, 허리, 손목의 신체 부위에 위험도가 높았다.

‘긴 척추 고정판 계단 운반하기’ 동작은 환자의 1번 대원이 환자의 머리 쪽, 2번 대원이 환자의 다리 쪽에 위치하여 손잡이를 잡고,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는 동작이다. 이때 계단 기울기로 인해 무게 하중은 1번 대원이 더 심하며, 원만한 기울기를 유지하기 위해 허리와 팔을 낮추어 운반하므로 허리의 척추세움근과 등의 광배근, 어깨의 등세모근과 어깨세모근, 팔의 전완근에 지속적인 힘을 유지해야 하므로 체력 소모가 심하였다. 이에 팔, 어깨, 허리, 등의 신체 부위에 위험도가 높았다. 2번 대원의 경우 진행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을 뒤로 돌린 후 뒷걸음으로 내려오게 되어 부적절한 자세가 심하게 나타난다. 이에, 목의 목빗근, 어깨의 등세모근, 허

리의 척추세움근, 등의 광배근, 팔의 전완근과 위팔두갈래근, 종아리의 장딴자근과 가자미근에 지속적인 힘을 유지해야 하므로 체력 소모가 심하며, 종아리와 허리, 등, 어깨, 손목, 목의 신체 부위에서 위험도가 높았다.

위 결과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 다른 직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²⁵⁾²⁶⁾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²⁷⁾²⁸⁾²⁹⁾³⁰⁾ 소방 기술 경연대회 구급 종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³¹⁾에서 운반 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평소 구급 훈련 시 팀원 간의 환자 운반 작업 자세에 대한 동영상 촬영을 통한 피드백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가 습관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운반 자세는 환자 체중이 증가하거나 장소가 협소할 경우 나빠지기에 과체중 및 협소공간 출동 시 펌블런스 훈련 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가변형 들것을 사용하여 계단에서 환자 운반하기 작업을 PATH-KOSHA 기법으로 분석한바 1번 대원은 최빈값 19점(평균값 14.3점, 최댓값 19점)의 위험등급 높음(High)으로 시급히 작업 자세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2번 대원은 최빈값 19점(평균값 16.0점, 최댓값 21점)의 위험등급 높음

25) 이관우·김원호, 「제조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 기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이 통증, 재해율, 및 근로손실에 미치는 영향: 단일사례 연구」, 『대한물리의학회지』 12권 2호, 대한물리의학회, 2017, 115쪽.

26) 서민태·김효철·정원건, 「농업 운반 도구의 인간공학적 개선에 대한 인체부담 평가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대한인간공학회, 2022, 211쪽.

27) 김대성·문명국·김규상, 앞의 논문, 212쪽.

28) 김정만 외, 앞의 논문, 111쪽.

29) 홍성기, 앞의 논문, 81쪽.

30) 손정원, 앞의 논문, 33쪽.

31) 손정원·박재범, 「119 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 평가 -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종목을 대상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1권 3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7, 59쪽.

(High)으로 시급히 작업 자세 개선이 필요하였다.

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계단에서 환자 운반하기 작업을 PATH-KOSHA 기법으로 분석한바 1번 대원은 최빈값 17점(평균값 15.0점, 최댓값 20점)의 위험등급 보통(Medium)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 작업 자세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2번 대원은 최빈값 20점(평균값 15.7점, 최댓값 20점)의 위험등급 높음(High)으로 시급히 작업 자세 개선이 필요하였다.

결론적으로 구급대원 2명만으로 현장 활동을 하는 경우 들것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작업 자세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도는 많은 출동 건수와 비 또는 눈 내리는 날씨, 비좁거나 E/V가 없는 장소, 새벽 취약 시간대 활동뿐만 아니라 구급대원의 성별, 나이, 체격 등에 따라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68%에 머물러 있는 3인 탑승률을 100%로 높이려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환자 운반 작업 시 펌블런스 등을 활용한 4인 운반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학교 교수(교관)의 개인 경험치에 의존한 환자 운반법 교육을 탈피하여 통일된 환자 운반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전국 9곳 소방학교(교육대)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PHTLS 과정 입교생들 대상으로만 진행되어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권영국, 『새로운 인간공학』, 디자인21, 2021.
- 소방청, 『2024 소방청 통계연보』, 덕성기획, 2024.
- 소방청, 『2024년도 119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 덕성기획, 2024.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비정형작업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노출평가 개선방안-보건의료업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노정SR, 2008.
- 중앙소방학교, 『2025 신입교육과정 소방전술Ⅲ(구급)』, 동은디엔피, 2025.
- Gavriel, Salvendy. Handbook of Industrial Engineer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2.

논문

- 김대성·문명국·김규상, 「119 구급대원 구급활동의 근골격계 증상 및 위험실태」, 『대한인간공학회지』 29권 2호, 대한인간공학회, 2010, 211-216쪽.
- 김정만·서병성·정갑열·김동일·김원술·조한석·김진욱·권재·윤동영·김정일·노영만, 「소방관의 근골격계 증상과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보건학회지』 17권 2호, 한국산업보건학회, 2007, 111-1192쪽.
- 박정근·한영선, 「비정형작업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 노출평가: 디지털 PATH-KOSHA 버전의 개발」, 『대한인간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5권, 대한인간공학회, 2009, 388-391쪽.
- 서민태·김효철·정원건, 「농업 운반 도구의 인간공학적 개선에 대한 인체부담 평가 연구」, 『대한인간공학회 2022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인간공학회, 2022, 211쪽.
- 손정원, 「119 구급대원의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손상 위험성 평가 - 환자 들기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3권 1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9, 101-112쪽.
- _____, 「119 구급대원의 업무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 평가: 환자

- 운반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7권 3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23, 33-46쪽.
- 박재범, 「119 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 평가-소방기술 경연대회 구급종목을 대상으로」, 『한국응급구조 학회지』 21권 3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7, 59-71쪽.
- 이관우·김원호, 「제조업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물리치료 기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이 통증, 재해율, 및 근로손실에 미치는 영향: 단일사례 연구」, 『대한물리의학회지』 12권 2호, 대한물리의학회, 2017, 113-120쪽.
- 장영숙·이택영·박소연, 「Work sampling 기법을 이용한 자동차부품공장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수준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6권 4호, 대한작업치료학회, 2008, 77-88쪽.
- 홍성기, 「119 구급대원의 근골격계 증상과 환자운반 작업의 인간 공학적 평가」,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28권 4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4, 81-88쪽.
- 황지영·조근자, 「119 구급대원의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실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1권 1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17, 45-58쪽.
- Amit, L. & Hunter, C. “Analysis of posture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in the United States”, *SHIFT: Global EHS Research to Practice*, vol. 2, no. 1, 2023, pp.10-18, <https://www.bcspsshift.com/research/analyses-of-postures-and-musculoskeletal-disorders-of-emergency-medical-technicians-in-the-united-states>.
- Buchholz, B., Paquet, V., Punnett, L., Lee, D., & Moir, S. “PATH: A work sampling-based approach to ergonomic job analysis for construction and other non-repetitive work”, *Ergonomics*, vol. 27, no. 3, Elsevier, 1996, pp.177-187.
- Davies, K., Weale, V., & Oakman, J. “A participatory ergonomics intervention to re-design work and improve the musculoskeletal health of paramedics: protocol for a cluster randomised controlled trial”, *BMC musculoskeletal*

disorders, vol. 24, no. 716, Crossref, 2023, pp.1-14, <https://doi.org/10.1186/s12891-023-06834-8>.

Friedenberg, R., Kalichman, L., Ezra, D., Wacht, O., & Alperovitch, D.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injuries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paramedics: A comprehensive narrative review", *Environmental & Occupational Health*, vol. 77, no. 1, Crossref, 2022, pp.9-17, <https://doi.org/10.1080/19338244.2020.1832038>.

Lavender, S. A., Conrad, K. M., Reichelt, P. A., Meyer, F. T., & Johnson, P. W. "Postural analysis of paramedics simulating frequently performed strenuous work tasks", *Ergonomics*, vol. 31, no. 1, Elsevier, 2000, pp.45-57, [https://doi.org/10.1016/S0003-6870\(99\)00027-7](https://doi.org/10.1016/S0003-6870(99)00027-7).

Moghaddamnia, M. M., Shahrestanaki, Y. A., Maroufizadeh, S. M., Nikoo, R. G., & Shoori, N. P.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and their associations with job content: A cross-sectional study", *Health in Emergency and Disasters Quarterly*, vol. 10, no. 3, Crossref, 2025, pp.153-165, <http://dx.doi.org/10.32598/hdq.10.3.55.2>.

Tahernejad, A., Makki, F., Rezaei, E., Marzban, H., Tahernejad, S., & Sahebi, A.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emergency medical services personnel: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Public Health*, vol. 237, Medline, 2024, pp.107-115, <https://doi.org/10.1016/j.puhe.2024.08.020>.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2024b,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119%EA%B5%AC%EC%A1%B0%EA%B5%AC%EA%B8%8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undefined>, 2025.05.25.

_____,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2항, 2024a,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

&menuId=1&query=%EC%95%88%EC%A0%84%EB%B3%B4%EA%B1%B4%EA%B7%9C%EC%B9%99+%EC%A0%9C656%EC%A1%B0#undefined, 2025.05.25.

_____,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2024c,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6%8C%EB%B0%A9%EC%9E%A5%EB%B9%84%20%EB%B6%84%EB%A5%98%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J2942203>, 2025.05.25.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변형 들것(Variable Stretcher, VS)과 긴 척추 고정판(Long Back Board, LBB)을 활용한 2인 환자 운반법을 PATH-KOSHA 기법으로 분석하여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2인 환자 운반법은 들것 종류에 상관없이 작업 자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평균 68%에 머물러 있는 구급대원 3인 탑승률을 100%로 높이려는 인원 증원이 필요하며, 과체중 또는 비좁은 공간 등에서 환자 운반 시에는 펌블런스 등을 활용한 4인 운반법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학교에서는 교수(교관)의 개인 경험치에 의존한 환자 운반 교육을 탈피하고, 표준화된 환자 운반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119구급대원, 환자 운반, 작업 자세, PATH-KOSHA 기법,
훈련프로그램

■ Abstract

Assessing the risk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in two- person patient transport : focusing on the PATH-KOSHA method

Son, Jeong Won /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isk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by analyzing the two-person patient transport method using a variable stretcher (VS) and a long back board (LBB) with the PATH-KOSHA techniqu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two-person patient transport method requires improvements in work posture, regardless of the type of stretcher used. To address thi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to to achieve a 100% occupancy rate, as the current national average is only 68%. Additionally, in cases where patients are overweight or in confined spaces, a four-person transport method using a pump-ambulances should be established. Also, National Fire Academies should move away from patient transport education that relies on instructors' personal experience and instead develop, distribute, and implement standardized patient transport programs.

Keyword • 119 EMTs, Patient Transport, Work Posture, PATH-KOSHA, Training Program

■ 논문투고일:2025.05.26. ■ 심사완료일:2025.07.08. ■ 게재확정일:2025.07.09. ■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연구 주제어 분석 연구***

: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논문을 중심으로

윤 지 원 · 박 은 하***

목 차

1. 서론
2. 선행 연구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인공지능(AI)은 존 매카시(John McCarthy)가 1955년 한 학회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¹⁾로, 이후 다양한 연구와 기술적 발전을 거듭하며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연구 형태로 진행되다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대중적으로 본격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4차 산업 혁명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주제 중 핵심

* This work was supported by Changshi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5-031.

** 본 논문은 2025년 한국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윤지원(제1저자)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대학 교수
박은하(교신저자) 대구대학교 교양교육센터 강사

1) 나무 위키, <https://namu.wiki/>, 2025.01.21.

은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을 통한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이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지능’과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기반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인간이 지닌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을 기계가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할 때 인공지능 기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를 상대해 승리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박은하, 2021: 123). 또한 COVID-19를 겪으며 원격·온라인 교육 및 업무가 확산되었고, 인공지능 기술의 일상 적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주요한 키워드가 되었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인공지능은 주요한 사회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문 분야별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연구의 방향성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이에 학문 분야별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문 분야별 인공지능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작업은 인공지능 관련 주요 연구 결과를 알 수 있고 향후 어떤 연구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관련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연구의 주요 주제어를 분석함으로써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학문 분야별 연구 주제어의 특성을 규명하고, 연도별 연구 흐름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검색어로 설정하여 논문을 수집하였다. 검색 결과, 총 9,513편의 논문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Keywords)를 데이터 수집하여 연도별 및 학문 분야별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인공지능’과 ‘주제어’라는 검색어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 관련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키워드’, ‘연구 동향’으로 검색한 결과, 각각 343건과 484건의 논문이 확인되었다.²⁾

그러나 검색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인공지능’과 ‘키워드’로 검색하여 확인된 343건의 논문과 ‘인공지능’과 ‘연구 동향’으로 검색하여 확인된 484건의 논문 중 상당수가 중복되었으며, 중복되지 않은 논문의 대부분은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이 2020년부터 2025년에 발표된 것이지만 조병헌·박창준(2008), 김성룡(2011), 박현순·김경중(2013), 전영복·류수련·송재환·김혜진(2017), 김형주(2018)의 연구와 같이 2020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도 몇 편 있었다.

조병헌·박창준(2008)과 박현순·김경중(2013)은 ‘게임 인공지능’ 관련 연구 동향 논문으로, 조병헌·박창준(2008)의 경우는 연구 동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당시 해외에 출시된 인공지능 미들웨어의 현황과 게임들에 적용된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을 소개하면서 국내 게임 업계도 게임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연구를 확대해 선진국과의 경쟁에 준비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현순·김경중(2013)은 게임 인공지능 학계의 대표적인 저널(IEEE TCIAIG)을 문헌 분석함으로써 게임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개념을

2)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 2025.01.21.

다루고 대표적인 연구 주제를 알아보았다. 김성룡(2011)은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과 법 연구의 현황을 살펴본 연구인데 이와 관련한 국내 논의나 소개가 없다고 하면서 외국의 인공지능 연구의 주요 내용, 법적 논증 영역에 적용된 인공지능 연구를 다루었다. 전영복·류수련·송재환·김혜진(2017)은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Scopus DB에서 영어 논문의 초록을 수집해 인공지능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인데 다만 학술대회 논문으로 내용이 2쪽 정도로 간략하게 나와 있어 아쉬웠다. 김형주(2018)은 인공지능인문학 사업단이 향후 수행할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인공지능 철학과 관련된 기존 논문을 조사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국내 인공지능 철학연구는 심리철학과 윤리학 기반의 연구로 양분됨을 도출하였다. 2020년 이전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 동향 및 주제어 분석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하나의 학문 영역 또는 특정 주제 분야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해 왔다.

2020년 이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최지현·황서아·이유미(2023)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인문학 연구의 영향성 분석」, 김진원·이재운(2023)은 「국내외 인문학 분야의 인공지능 주제 연구 동향 비교 분석」과 같이 인문학(학문)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보다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주제 분야의 연구 동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이진우(2022), 「인공지능 미술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창작의 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배성희·김태훈(2024),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연구 동향 분석」, 진대용·표종철·조윤량(2022),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융복합 연구동향 분석」 최지호·변성우·이혜인·신화선(2023), 「인공지능 기반 작물 표현형 예측에 대

3) 논문 제목 표기 시 띄어쓰기, 한글맞춤법의 경우, 어문 규범에 맞게 고치지 않고 KCI에 나와 있는 논문 제목 그대로를 따랐다.

한 기술 연구 동향」 등이 있다. 그리고 주제 분야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교육 영역의 연구 동향이 많은 편이었는데 예를 들면, 한지윤·신영준(2020),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송이·김태종(2022), 「국내 인공지능 교육 연구 동향 분석: LDA 기법을 활용한 키워드 및 토픽 분석을 중심으로」, 김영아·박다은(2024), 「유아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국내연구동향 분석」, 김수진·임다미·김제이(2024), 「국내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연구동향 분석: 학교급별 비교를 중심으로」, 최지웅(2021), 「수학교육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동향」, 이재욱(2024), 「특수교육에서 인공지능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등이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국내에서 인공지능 관련 연구 동향 분석은 주로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해당 분야의 학술적 관심이 비교적 최근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분석의 초점은 특정 학문 분야보다는 주제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존 연구들이 범학문적 경향보다는 개별 주제의 심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국내 인공지능 관련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각 논문에 부여된 주제어를 중심으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여 인공지능 연구의 주요 관심사와 흐름을 정량적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단일 시점 또는 주제 중심 분석을 넘어, 연도별 변화와 학문 분야별 분포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의 구조적 특성과 발전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조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기획 및 학문 간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내 학술논문이므로 국내 학술지 정보, 논문 정보(원문) 및 참고문헌을 DB(데이터베이스)화한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검색한 논문을 그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인공지능’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⁵⁾ 총 12,127편의 논문이 나왔다. 최근 5년간인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내 학술논문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로 재검색을 한 결과, 논문 수는 총 9,513편이었다.

[표 1]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 수를 나타낸 것이다.⁶⁾

[표 1] 2020~2024년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 수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논문수	1,169	1,525	1,582	2,281	2,956	9,513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주제 분류’ 영역을 보면 학문 분야별로 논문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제’가 각 학문의 연구 주제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은 9,513편이고 학문 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농수해양학, 의약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여덟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문학의 주제로는 사전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기독교신학, 가톨릭신학, 유교학, 불교학, 언어학, 문학, 한국어와문화, 중국어와문화, 일본어와문화, 영어와문화, 프랑스어와문화, 독일어와문화, 스페인어와문화, 러

4) KCI 소개, <https://www.kci.go.kr/kciportal/aboutKci.kci>, 2025.01.24.

5)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 2025.01.24.

한글 ‘인공지능’과 영문 ‘artificial intelligence’ 모두 검색하였다. 한글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결과, 논문 수가 가장 많았으며 영문으로 검색한 논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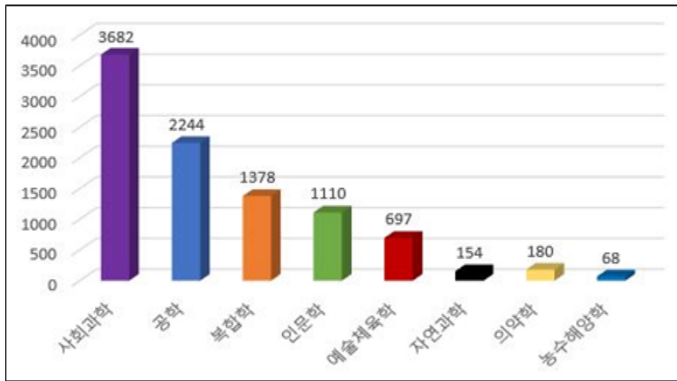
6) 2025년 국내 학술논문 가운데 ‘인공지능’으로 검색된 논문 수는 23편이었다.

시어와문학, 서양고전어와문학, 기타동양어문학, 통역번역학, 기타인문학 등으로 분류하였다.

인공지능 관련 학문 분야별 논문 수는 [표 2], [그림 1]과 같다.

[표 2] 2020~2024년 인공지능 관련 학문 분야별 논문 수

학문 분야	공학	사회 과학	인문학	복합학	예술 체육학	자연 과학	농수 해양학	의약학	합계
논문수	2,244	3,682	1,110	1,378	697	154	68	180	9,513



[그림 1] 2020~2024년 인공지능 관련 학문 분야별 논문 수

[표 3]은 ‘인공지능’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가운데 2020~2024년에 해당하는 9,513편을 대상으로 학문 분야별 및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2020~2024년 인공지능 관련 학문 분야 및 연도별 논문 수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사회과학	485	619	593	869	1,116	3,682
공학	269	345	425	552	653	2,244
복합학	172	236	221	332	417	1,378
인문학	129	173	166	281	361	1,110
예술체육학	77	94	92	149	285	697
의약학	21	21	39	40	59	180

자연과학	11	25	32	45	41	154
농수해양학	5	12	14	13	24	68
합계	1,169	1,525	1,582	2,281	2,956	9,513

본 조사에서 확인된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 중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독일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논문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의 논문 수와 작성 언어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2020~2024년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작성 언어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합계
논문수	9,081	388	19	16	7	2	9,513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은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나, 그중 대부분인 9,081편은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주제어도 영어로 표기되지만,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등 다른 언어로 작성된 논문들은 대부분 외국어와 함께 한국어를 병기하여 주제어를 제시하고 있었다.

당초 본 연구는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을 중심으로 주제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분석 대상은 총 9,513편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한국어를 병기하여 주제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한국어로 작성된 논문임에도 주제어를 영어로 표기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통해 주제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에, 전체 9,513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국내 학술논문 9,513편의 연구 주제어(Keywords)를 수집하여

그 특성과 연도별 및 학문 분야별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등재된 해당 논문들의 저자, 논문명, 발표 연도, 주제어, 학문 분야, 초록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Excel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이후 주제어의 표기 양상, 사용 빈도, 언어 병기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학술지의 투고 규정에는 주제어 표기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예컨대 「사회언어학」의 경우 논문 작성 요령에 “초록 뒤에는 논문 내용과 관련된 핵심 주제어를 영어로 5개 내외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는 3개에서 10개 내외의 주제어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별로 제시된 모든 주제어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가령, 논문 1편당 5개의 주제어를 제시했다고 가정하면, 한국어 논문 9,081편 기준으로 약 45,405개의 키워드가 제시된 셈이다.

본 연구 대상이 ‘인공지능’ 관련 학술논문이므로 ‘인공지능’ 주제어는 분석 대상 논문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기 방식은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토지공법과 인공지능」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토지공법, 계획법제, 토지가격평가, 토지거래허가, 국토교통, 인공지능 토지행정’ 등의 주제어가 제시되어 있으며, 「국방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향 연구」에서는 ‘Artificial Intelligence, AI, 국방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 등의 주제어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동일한 개념이 다양한 언어와 표기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일환으로, 웹 기반 텍스트 분석 및 시각화 도구인 보안트 툴(Voyant Tools)⁷⁾을 활용하여 주제어의 빈출 단

7) 보안트 툴은 오픈소스 웹기반 프로그램으로, 텍스트나 말뭉치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문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주로 디지털 인문학자들이 사용하나, 사용자가 텍스트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분석할 수 있어서 일반 대중도

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주제어의 연도별 변화 양상, 학문 분야별 분포, 빈출 상위 키워드 등을 확인하고, 국내 학술논문에서 인공지능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주제어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연구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1) 연구 주제어의 특성

먼저, 주제어의 표기 언어와 사용 빈도를 중심으로 주제어의 특성을 논의하였으며, [표 5]는 해당 논문들에서 주제어가 작성된 언어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2020~2024년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주제어 언어(한국어 제외)

언어	영어	영어+ 한국어 병기	한자	한자+ 일본어 병기	독일어+ 한국어 병기	독일어	프랑스어
논문수	1,400	100	14	12	5	1	1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은 대부분 한국어(9,081편)로 작성되었으며, 그다음으로는 영어(388편)로 작성된 논문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주제어는 본문 작성 언어에 따라 표기되며, 대부분은 한국어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제어 표기 언어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 [표 5]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쉽다. Voyant에는 분석 도구가 여러 가지여서 tools라고 불리는데 단어 빈도수 목록, 빈도 분포도, KWIC 디스플레이 등을 실행하여 텍스트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다(Voyant Tools: 텍스트 분석 도구, <https://21digitalguru.tistory.com/19>, 2025.01.25.)

서는 한국어를 제외한 언어로 작성된 주제어 분포만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총 9,513편의 연구 대상 논문 중 7,978편은 주제어를 전적으로 한국어로 표기하였으며, 나머지 논문들은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주제어를 작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어로 작성된 주제어가 1,402편으로 한국어 다음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와 영어 병기는 100편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병기 방식은 대체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AI training data)’, ‘노인 음성(elderly speech)’, ‘방언 데이터(dialect data)’와 같이 한국어와 영어를 괄호로 병기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이 외에도 한자로만 주제어를 작성한 논문은 14편이었으며, 한자와 일본어를 병기한 경우는 12편이었다. 한자만 사용된 주제어는 대부분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에 해당하며, 일본어와 한자가 함께 병기된 경우는 일본어 논문에서 나타났다. 한국어와 독일어 병기는 5편, 독일어 단독 표기는 1편, 프랑스어로 주제어를 작성한 논문도 1편 확인되었다.

또한 주제어 표기 형식에 있어서도 대부분 쉼표(.)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디지털 문명, 산업혁명, 빅데이터, 미래 예측’과 같이 구분하였으나, 일부 논문에서는 빗금(/), 가운데점(·), 세미콜론(;) 등을 활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1) 주제어 사례 - 표기

가. Artificial Intelligence, ChatGPT, Theological Issues, AI Theology, Mission

나-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AI training data), 노인 음성(elderly speech), 방언 데이터(dialect data),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ing), 발화 의도(speech intent), 감성(emotion)

나-②.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 Command Decision Support System(지휘결심지원체계), Conceptual Design(개념설계), Function Analysis Method(기능분석법)

다-①. 人工智能, 犯罪, 刑事法律风险, 防范, 对策

다-②. 受動構文、アフォーダンス、知覚システム、探索活動、人工知能

라. 인공지능(Künstliche Intelligenz), 설명요구권(Recht auf Erklärung), 알고리즘(Algorithmus), 자동적 처분(automatische Disposition), 딥러닝(Deep Learning)

마. Numérique, Langage, Mème, Français, Mème littéraire

바. 스페인어 작문/ 인공지능/ 기계번역/ 혼합형 수업/ 사회·문화적 요소

사. 생성형 인공지능(AI)·심층 인터뷰·SWOT 분석·광고PR 산업

아. AI 융합교육; 과학교육; 딥러닝; 지도학습

(1-가)는 영어 표기, (1-나)는 한국어와 영어 병기, (1-다)는 한자 및 한자와 일본어 병기, (1-라)는 한국어와 독일어 병기, (1-마)는 프랑스어, (1-바)는 빗금으로 표기, (1-사)는 가운데점으로 표기, 그리고 마지막 (1-아)는 세미콜론으로 표기한 예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제어는 논문 작성 언어와 동일하게 작성하기도 하지만 여러 언어로 적기도 하였다.

(1-가)의 사례는 논문도 영어로 작성하였고 주제어로 영어로 적은 사례이다. <Theological Issu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wards “AI Theology” for Mission(2024)> 논문에 적힌 주제어이며 학문 분야는 인문학이다. (1-나)는 한국어와 영어 병기의 사례인데 (나-①)은 한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영어를 쓴 것이고 (나-②)는 영어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한국어를 쓴 예이다. (나-①)은 논문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중노년층 방언 음성 데이터 구축 전략 및 분석(2024)>의 주제어이고 (나-②)는 <기능분석법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전술제대 지휘결심지원체계의 개념설계(2020)> 논문의 주제어이다. 한국어와 영어의 병기는 사례처럼 하나씩 병기하기도 하고 ‘Crop Yield Prediction, Deep Reinforcement Learning, Deep Q Networks(DQN), Double DQN, Dueling DQN 작물 수확량 예측, 심층강화 학습, 심층Q-네트워크, 이중 DQN’처럼 주제어를 영어/한국어로 모두 작성한 후에 이어서 한국어/영어로 주제어를 적는 경우가 있었다.

(다-①)처럼 주제어를 한자로 적는 경우는 논문이 중국어 또는 일본어로 된 논문일 경우인데 간체자가 있으면 대개 중국어로 작성된 논문이다. (다-①)은 <人工智能犯罪的刑事法律风险与防范(2021)> 법학 분야의 논문에 적힌 주제어이다. (다-②)는 일본어로 작성된 <日本語有生主語中間構文と受影受動構文の比較分析 - 探索行為とアフォーダンスを中心に-(2024)> 일본어문학 논문의 주제어 예이다. 한국어와 독일어를 병기한 (1-라)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고찰(2024)> 논문의 주제어인데 논문은 한국어로 작성하였지만 주제어는 한국어와 독일어를 병기하였다. 이 논문이 실린 『토지공법연구』의 타 논문을 살펴봤을 때, 주제어를 한국어, 한국어와 독일어 병기, 독일어와 한국어 병기, 한국어와 영어 병기 등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었다.⁸⁾ (1-마)는 프랑스어로 작성된 논문인 <Le phénomène du Mème français comme Langage numérique(2023)>의 프랑스어와문학 논문의 주제어로, 주제어도 프랑스어로 적었다. (1-바)는 학술지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에 게재된 논문 <인공지능을 통한 스페인어 교육 혁신: 작문 지도의 변화(2024)>의 주제어이다. 주제어와 주제어 사이를 쉼표 대신에 가운뎃점으로 표기한 예인 (1-사)는 <생성형 AI 기술이 바꾸는 광고PR의 현재와 미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본 시사점(2024)> 논문의 주제어이다. 마지막 (1-아)는 쉼표 대신에 세미콜론을 사용해서 주제어와 주제어 사이를 구분하였는데 이 주제어는 사회과학 논문 <인공지능 융합교육을 위한 데이터 기반 교육자료 개발: 감쇠진동을 중심으로(2021)>에 제시된 단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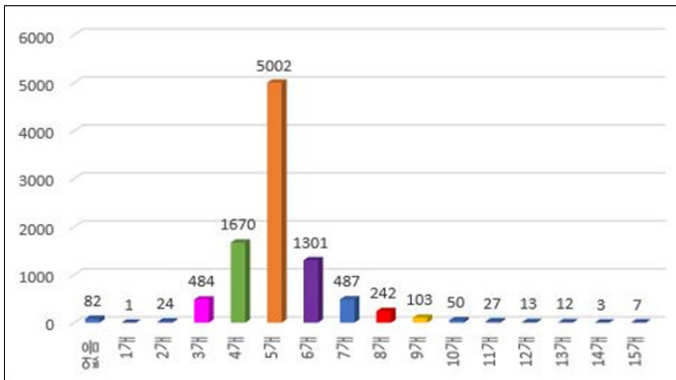
앞서 연구 주제어의 표기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번에는 연구 주제어의 개수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총 9,513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전

8) 한국토지공법학회 홈페이지에 논문 투고 시, “색인어 5개 이상 지정(외국어 및 국문으로 병기할 것)”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한국토지공법학회, http://www.toji.or.kr/bbs/board.php?bo_table=menu04_01&wr_id=10214, 2025.02.23.

체 주제어 수는 48,553개로 확인되었으며, 논문 1편당 평균 주제어 수는 약 5.1개였다. 이는 대부분의 논문이 주제어를 평균 5개 내외로 작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예상과도 부합한다.

개별 논문에서 제시한 주제어 개수를 살펴보면, 가장 적은 경우는 1개, 가장 많은 경우는 24개로 나타나 주제어 개수에 다소의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표된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 논문에서의 주제어 개수 분포 현황이다.



[그림 2] 2020~2024년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주제어 개수 분포

(2) 주제어 사례 - 개수

가. 수학적 귀납법

나-①. 유아 인공지능교육, 학부모

나-②.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관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작업자 예측분석

다-①. 생성 인공지능, 윤리교육, 가치, 정서, 성찰

다-②.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비즈니스 적용 프로세스, 비즈니스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라. 메타-메카닉스, 영화적 메타-메카닉스, 에로스, 에로티시즘, 자동화,

팔랑스테르, 노동, 영화적 자동화, 공학적 자동화, 시네마, 키네틱스, 메카닉스, 포토몽타주, 오토마톤, 오토마타, 인공지능, 디오니소스적 긍정, 내면화, 광기, 시스템, 휴머니즘, 포스트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 권력의 패러다임 전환

(2-가)는 주제어 개수가 가장 적은 1개의 사례이고 (2-나)는 주제어 개수가 2개인 사례이다. (2-다)는 주제어 개수가 평균에 해당하는 5개의 사례이다. 마지막 사례인 (2-라)는 주제어 개수가 가장 많은 24개의 사례이다. 주제어 개수가 하나만 있는 (2-가)의 논문 제목은 <수학적 귀납법에 관한 소고(2021)>이고 자연과학 분야인 『한국수학사학회지』에 실린 논문이다. 주제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Mathematical induction, 수학적 귀납법’처럼 영어와 병기하였다. (나-①)의 논문은 유아교육과 관련한 연구로 논문 제목이 <유아 인공지능(AI)교육에 대한 유치원 학부모 인식과 요구(2024)>이다. 이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은 『한국유아교육연구』이고 강원유아교육학회에서 연 1회 발행하는 학술지이다. 논문 투고 규정이나 논문 작성 요령 등을 검토하고자 하였는데 학회 홈페이지 주소(www.gsece.or.kr)는 있으나 검색되지 않았다. 이 학술지에 게재된 다른 논문의 주제어를 찾아보니 2개, 3개, 5개 등으로 개수가 동일하지 않았다. (나-②)는 공학 분야에 속하는 논문인데 논문 제목은 <인공지능 기반 해상풍력발전소 작업자의 위치 추적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이다. 주제어 개수는 (나-①)와 마찬가지로 2개이지만 각 3어절(11음절)과 5어절(19음절)의 사례 (나-①)보다 긴 주제어이다. 학술지명은 『한국기계기술학회지』이고 논문 투고 규정을 봤을 때 주제어 개수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사례 (다-①)와 (다-②)는 키워드 개수가 5개이고 (다-①)는 어절이 1~2개로 짧은 주제어로 구성되어 있고 개수가 동일하지만 (다-②)는 어절이 1~4개, 음절이 4~14개로 된 긴 주제어의 예이다. (다-①)는 복합학 분야의 『倫理研究』에 실린 <생성 인공지능과 윤리교육>이고 (다-②)는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으로 논문 제목은 <비즈니스 인공지능 적용 프로세스 및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이고 『로고스경영연구』 학술지에 실렸다. 주제어 평균 개수 5개의 빈도별 학문 분야 분포는 전체 연구 대상의 학문 분야 순서와 유사한 순서, 즉 사회과학, 공학, 복합학, 인문학의 순으로 나왔다.

(2-라)는 주제어 개수가 가장 많은 24개의 사례로 논문 제목은 <영화적 ‘메타-메카닉스’의 ‘자동화’에 관하여: 190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서구 영화를 중심으로(2020)>이다. 이 연구는 예술체육학 분야의 영화 주제에 해당하는 논문으로 ‘한국영화학회’에서 발간한 『영화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다. 이 학술지에는 논문 투고와 관련한 유의 사항(미발표 논문, 신상정보 삭제, 논문 유사도 검사 등)은 제시되어 있으나 주제어 개수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2-가) 논문이 실린 『한국수학사학회지』에도 주제어 관련 사항은 없었다. 사례 (2-가)와 (2-라)가 게재된 학술지 『한국수학사학회지』, 『영화연구』의 다른 논문을 살펴본 결과, 작성된 주제어 개수는 5, 7, 8개 정도였다.

2) 연구 주제어의 연구 동향

(1) 연도별 연구 동향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 총 9,513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어 (48,553개)의 빈출 단어를 알아보기 위해 보얀트 툴을 통해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표 6]은 연도별로 주제어의 빈출 단어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2020~2024년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주제어 빈출 단어(연도별)

연도	주제어의 빈출 단어									
2020년	인공 지능	ai	4	차	산업 혁명	arti- ficial	intel- ligence	교육	빅데 이터	데이 터
	624	150	117	92	86	84	83	78	75	73
2021년	인공 지능	ai	교육	arti- ficial	lear- ning	intel- ligence	4	딥러 닝	데이 터	차
	848	213	183	96	89	89	88	86	83	77
2022년	인공 지능	ai	교육	데이 터	딥러 닝	디지 털	intel- ligence	arti- ficial	lear- ning	분석
	884	227	171	127	115	106	102	102	91	71
2023년	인공 지능	ai	교육	생성 형	디지 털	arti- ficial	intel- ligence	데이 터	gpt	chat- gpt
	1399	474	241	142	141	139	135	128	121	116
2024년	인공 지능	ai	생성 형	교육	디지 털	데이 터	intel- ligence	arti- ficial	분석	gpt
	1782	859	377	322	253	183	152	152	146	131

연도별 연구 주제어의 빈도 분석 결과, 빈도면에서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1순위와 2순위의 주제어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1순위는 ‘인공지능’, 2 순위는 그 영어 약어인 ‘AI’로, 인공지능이라는 핵심 개념이 일관되게 주요 연구 키워드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영어 표 현인 ‘artificial’과 ‘intelligence’ 역시 매년 10위권 이내에 포함되었으며, ‘데이터’와 ‘교육’ 또한 전반적인 빈도에서 높은 순위를 유지하였다.

한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인 ‘4’, ‘차’, ‘산업혁명’은 2020년 에 모두 10위권 내에 포함되었으나, 2021년에는 ‘4’, ‘차’만이 유지되었고, 2022년 이후부터는 해당 단어들이 상위 주제어에서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인공지능 연구가 초기에는 사회적·산업적 변화와 관련된 담론(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나, 이후에는 보다 기술 중심의 주 제어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1년과 2022년에는 ‘딥러닝’과 ‘learning’이 10위권 내 주제어

로 등장하였으나, 2020년과 2023~2024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인공 신경망을 사용해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패턴을 학습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술로,⁹⁾ 이 시기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생성형’, ‘GPT’(ChatGPT)가 새롭게 10위권 내 주제어로 등장하였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최근 급격히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특히 ChatGPT는 2022년 11월 30일 OpenAI에 의해 공개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이 시점부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¹⁰⁾ 이후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주목을 받으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도별 인공지능 연구 주제의 흐름이 ‘4차 산업혁명 담론 → 딥러닝 중심 기술 논의 → 생성형 인공지능 및 ChatGPT 연구 확산’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학문 분야별 연구 동향

앞서 연도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주제어의 빈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9,513편의 논문에서 추출된 48,553개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보안트 툴을 활용하여 학문 분야별 빈출 주제어를 분석하였다.

[표 7]은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을 학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주제

9) 브런치 스토리 - 인공지능과 딥러닝. <https://brunch.co.kr/@realbronoh/6>, 2025.02.20.

ChatGPT 딥러닝은 AI의 한 분야로, 뇌의 신경망을 본떠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만드는 기술 (ChatGPT의 대답; ChatGPT, <https://chatgpt.com/>, 2025.02.20.)

10) ChatGPT <https://chatgpt.com/c/67b7fa3c-527c-8010-9181-da7a2c1403b4> (“ChatGPT 등장과 한국 소개 시점”에 대한 대답; ChatGPT, <https://chatgpt.com/>, 2025.02.20.)

어의 상위 10개 빈출 단어를 분석한 결과이다.

[표 7] 2020~2024년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의 주제어 빈출 단어
(학문 분야별)

학문 분야	주제어의 빈출 단어									
사회 과학	인공 지능	ai	교육	디지털	데이터	4	생성형	알고리즘	분석	차
	1544	01	551	314	273	198	196	176	171	155
공학	인공 지능	ai	learning	딥러닝	ar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deep	data	모델
	824	347	264	246	242	233	165	146	123	107
복합 학	인공 지능	ai	생성형	교육	디지털	gpt	디자인	분석	모델	챗
	258	138	80	44	30	30	27	26	21	20
인문학	인공 지능	ai	교육	gpt	디지털	생성형	chat gpt	챗	윤리	리터러시
	714	254	130	100	93	85	84	79	70	55
예술 체육 학	인공 지능	ai	생성형	디자인	교육	디지털	이미지	음악교육	생성	콘텐츠
	171	102	73	67	30	24	16	15	14	14
의약 학	인공 지능	intelligence	artificial	learning	deep	machine	딥러닝	ai	machine	neural
	63	58	58	33	19	16	14	13	11	10
자연 과학	인공 지능	딥러닝	ai	learning	모델	artificial	예측	데이터	intelligence	분석
	58	21	17	13	12	11	10	10	10	9
농수 해양 학	인공 지능	이미지	데이터	딥러닝	기반	intelligence	artificial	자율운항선박	신경망	생성
	27	11	8	6	6	6	6	5	5	5

분석 결과, 전 학문 분야에서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공통적으로 상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인공지능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임을 고려할 때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특히, 복합학 분야는¹¹⁾ 다른 분야에 비해 빈출 주제어의 종류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11) Voyant Tools - 분석 결과, <https://voyant-tools.org/?corpus=cdc5f1e41e87e26f>

1,775위까지의 순위 중 세 번 이상 출현한 단어는 215위까지였고, 그 외 대부분은 1~2회에 그쳤다.¹²⁾

분야별로 상위 10위 안에 든 빈출 단어 가운데 특징적인 주제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4’, ‘차’,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알고리즘의 사회적·제도적 적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했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윤리규범을 위한 AI 알고리즘 규제연구(2021)」, 「4차 산업혁명 시대 무역경영 분야의 머신러닝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2023)」, 「AI 스피커의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2020)」 등의 연구가 있었다.

공학 분야에서는 ‘learning’, ‘딥러닝’, ‘deep’ 등의 주제어가 두드러졌으며, 딥러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응용 연구가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경추 MRI 검사 유용성 평가(2022)」, 「반려동물 안구 질환을 위한 딥러닝 모델 기반 진단 시스템(2024)」, 「딥러닝을 활용한 건축내역서 자재 DB 추출(2023)」 등에서는 ‘딥러닝 기반’, ‘딥러닝 모델’이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었다.

복합학 분야에서는 ‘생성형’, ‘chat’, ‘챗’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했으며, 이 중 ‘챗’은 대부분 ChatGPT를 지칭했으나 일부에서는 ‘챗봇’도 포함되었다. 관련 논문으로는 「인공지능이 영화 제작을 대체할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오픈AI의 챗GPT와 소라 중심으로(2024)」, 「생성형 AI를 이용한 작업치료 기반 SOAP 노트 챗봇에 관한 연구(2024)」 등이 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chatgpt’, ‘윤리’, ‘리터러시’가 특징적이었으며,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윤리적 쟁점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을 반

12) 빈도가 2개인 단어는 216번째부터 456번째까지이고 457번째부터 1775번째까지 출현 빈도가 1개인 단어이다.

영한다. 「AI 시대의 리터러시에 관한 시론적 탐색 - ChatGPT와 대학 글쓰기 교육 중심으로」, 「Prompt 리터러시 시대의 도래 - 영어교육을 위한 ChatGPT와 DALL·E 활용 중심으로(2023)」와 같은 연구가 대표적이다.

예술체육학 분야에서는 ‘음악교육’, ‘생성’, ‘콘텐츠’ 등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되었으며, 「AI 기반 음악교육 방향 모색(2024)」, 「AI 생성 콘텐츠 기술을 적용한 공간디자인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2024)」, 「AI 음악 생성기 분석(2024)」 등의 논문이 있었다. 해당 논문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외에도 ‘생성 콘텐츠’, ‘음악 생성기’ 등의 표현을 활용하였다.

의학학 분야에서는 ‘machine’, ‘medical’, ‘neural’이 주요 주제어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machine’은 「Machine Learning in Anesthesiology(2020)」, ‘neural’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for Fracture Detection(2021)」 등 논문에서 확인되었으며, ‘medical’은 논문 제목보다는 주제어로 ‘medical device’, ‘medical image’, ‘medical AI’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공학과 유사하게 ‘딥러닝’, ‘learning’, ‘예측’이 주요 주제어였으며, 「딥러닝 기반 시계열 분석 모델 비교 연구(2024)」,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농산물 수확량 예측(2024)」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했다. 특히 ‘예측’은 시계열 예측 및 수확량 예측 등의 주제로 논문 제목에 자주 등장하였다.¹³⁾

마지막으로, 농수해양학 분야에서는 타 분야에서는 드물게 ‘자율운항선박’, ‘신경망’이 주제어로 등장하였다.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발전방안

13) 박은하(2025: 225)에 따르면 주제어 ‘예측’, ‘분석’ 등은 논문명에서 연구 초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는 연구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 주제어의 빈출 단어로 나온 ‘예측’의 경우는 <합수열 회귀모형과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노지채소의 수확량 예측(2024)>와 같이 연구 초점인 경우도 있고 <다중 시계열을 이용한 장기 예측 Transformer 모델(2024)>처럼 연구 초점이 아닌 표현으로 논문 제목에 나왔다.

도출 연구(2021)」, 「신경망 회로 제어를 이용한 선박 엔진 제어 성능 개선 연구(2023)」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재된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 9,513편을 대상으로, 해당 논문들의 연구 주제어를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의 연도별 및 학문 분야별 동향과 주제의 분포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공지능 관련 국내 연구는 202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예: ChatGPT)의 등장과 함께 ‘생성형’, ‘GPT’, ‘ChatGPT’ 등의 주제어 빈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기술의 최신 동향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과 학문적 탐구 사이의 동시성과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 주제어 분석을 통해 확인된 학문 분야별 특징은 인공지능 기술의 다학제적 확산과 융합적 적용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알고리즘 중심의 정책·윤리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4차 산업혁명’, ‘알고리즘’, ‘윤리’, ‘정책’ 등 사회적 현상과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공학과 자연과학 분야는 딥러닝 및 학습 알고리즘 중심의 기술적 접근이 두드러졌으며, ‘딥러닝’, ‘머신러닝’, ‘예측’, ‘모델’과 같은 기술 중심의 용어가 주를 이루었다. 인문학과 예술체육학에서는 ‘윤리’, ‘리터러시’, ‘콘텐츠’, ‘디자인’ 등 인간 중심의 해석과 창의적 접근이 강조된 것으로 미루어 생성형 AI에 대한 윤리적·철학적 성찰, 리터러시, 콘텐츠 생성 등 인간 중심의 비판적 접근이 활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수

해양학이나 의학학 등 상대적으로 논문 수가 적은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특수한 적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탐색되고 있었다. 특히 복합학 분야에서는 학제 간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생성형’, ‘챗봇’, ‘융합’, ‘GPT’ 등 기술과 교육, 사회, 문화가 만나는 교차 영역을 탐색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의 인공지능 연구 동향 분석이 대체로 특정 주제나 단일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논문에 제시된 주제어(keywords)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이를 연도별, 학문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보안트 툴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관련 연구의 시간적 흐름과 학제 간 확산 양상을 정량적·가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관련 국내 학술논문에 제시된 주제어(keywords)를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가 실질적으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망하고자 하였다. 주제어는 연구자가 연구의 핵심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은 단순한 빈도나 분류를 넘어 인공지능 연구의 주제적 방향성에 대한 메타적 통찰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방법론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인공지능 관련 연구 기획, 학술 정책 수립, 교육과정 설계 등에서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연구의 현재 지형과 미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에게는 분야별로 어떤 주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논문 주제 선정과 주제어 구성에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인공지능 관련 논문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했다는 점에

서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분석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KCI 등재 논문으로 한정되었으며, 2020년 이전에 발표된 관련 논문이나, KCI 등재 외 국내외 논문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논문의 주제어(keyword)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연구 내용 전반의 의미나 방법론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주제어뿐 아니라 논문의 초록, 본문, 참고문헌 등을 포함한 전방위적 텍스트 분석을 통해 보다 풍부한 주제적, 이론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방법론, 이론적 틀, 적용 사례 간의 연계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연구의 내적 구조와 방향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별·언어별 비교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의 국제적 동향과 지역적 특수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입체적인 연구 지형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문 간 융합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갖는 교육적·정책적 함의에 대한 실천적 전략을 마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의 출발점이자, 후속 연구를 위한 기반 자료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진대용·표종철·조운량, 『물관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융복합 연구동향 분석』, 한국환경연구원, 2022.

논문

김성룡, 「법적 논증과 관련한 인공지능연구의 현황」, 『IT와 법 연구』 제5권,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11, 319-346쪽.

김수진·임다미·김제이, 「국내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연구동향 분석: 학교급별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4권 제20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549-574쪽.

김영아·박다은, 「유아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국내연구동향 분석」, 『한국유아교육연구』 제26권 제3호,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 2024, 321-341쪽.

김진원·이재윤, 「국내외 인문학 분야의 인공지능 주제 연구 동향 비교 분석」, 『인문과학연구논총』 제44권 제2호, 명지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23, 287-311쪽.

김형주, 「인공지능 철학 국내연구 동향 분석 -인공지능 철학의 성장점에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제1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18, 149-170쪽.

박은하, 「국내 학술논문의 제목 분석: RISS의 인기 학술자료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33권 제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25, 207-235쪽.

———, 「텔레비전 광고와 영화에 표현된 인공 지능의 이미지」, 『인문사회21』 제12권 제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1237-1252쪽.

박현수·김경중, 「게임 인공지능 최신 연구 동향」, 『정보과학회지』 제31권 제7호, 한국정보과학회, 2013, 8-15쪽.

배성희·김태훈,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연구 동향 분석」, 『지식재산연구』 제19권 제4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4, 153-181쪽.

- 이재욱, 「특수교육에서 인공지능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발달장애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발달장애학회, 2024, 315-333쪽.
- 이진우, 「인공지능 미술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창작의 주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5권 제2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2022, 9-30쪽.
- 전영복·류수련·송재환·김혜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2017년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17, 39-40쪽.
- 조병헌·박창준, 「게임 인공지능 연구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3권 제4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8, 115-121쪽.
- 최지웅, 「수학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연구동향」, 『교과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고려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21, 1-14쪽.
- 최지현·황서이·이유미,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인문학 연구의 영향성 분석」, 『인공지능인문학연구』 제15권,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2023, 9-63쪽.
- 최지호·변성우·이혜인·신화선, 「인공지능 기반 작물 표현형 예측에 대한 기술 연구 동향」,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 인공지능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통신학회, 2023, 109-110쪽.
- 한송이·김태종, 「국내 인공지능 교육 연구 동향 분석: LDA 기법을 활용한 키워드 및 토픽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2권 제13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281-294쪽.
- 한지윤·신영준,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인공지능연구 논문지』 제1권 제2호,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 2020, 163-166쪽.

인터넷 사이트

- 나무 위키 - 인공지능, <https://namu.wiki>, 2025.01.21.
- 문해력, 인문학, 그리고 디지털, <https://21digitalguru.tistory.com/19>, 2025.01.25.
- 보안트 툴 - 분석 화면, <https://voyant-tools.org>, 2025.02.06.

브런치 스토리, <https://brunch.co.kr/@realbronoh/6>, 2025.02.20.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https://www.kci.go.kr>, 2025.01.21.

한국토지공법학회, http://www.toji.or.kr/bbs/board.php?bo_table=menu04_01&wr_id=10214, 2025.02.23.

Chat GPT, <https://chatgpt.com>, 2025.02.2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능 관련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국내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주요 주제어를 분석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연구의 주제어 특성을 파악하고 연도별 및 학문 분야별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주제어의 특성은 표기와 개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기는 주로 한국어로 하는데 영어, 한국어와 외국어의 병기 등 다양하게 적었다. 주제어의 개수는 평균 5개 정도를 작성하였는데 주제어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 1개이고 가장 많은 것은 24개였다. 다음으로 주제어의 연구 동향을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인공지능 관련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인공지능’을 나타내는 단어가 빈출 단어로 매번 나왔고 2020-21년에는 ‘딥러닝’, ‘learning’, 2023-24년에는 ‘생성형’, ‘GPT’가 빈출 단어로 나타났다. 학문 분야별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단어가 빈출 단어로 등장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4’, ‘차’, ‘알고리즘’, 공학과 자연과학에서는 ‘learning’, ‘딥러닝’, ‘deep’, 복합학에서는 ‘생성형’, ‘chat’, ‘챗’, 인문학에서는 ‘chatgpt’, ‘윤리’, ‘리터러시’, 예술체육학에서는 ‘음악교육’, ‘생성’, ‘콘텐츠’, 의학학에서는 ‘machine’, ‘medical’, ‘neural’, 그리고 농수해양학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신경망’ 등이 다른 학문 분야와는 달리 나타나는 단어였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기술의 최신 동향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다학제적 확산과 융합적 적용 양상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인공지능 관련 학술논문, 연도별 연구 동향, 학문 분야별 연구 동향, 연구 주제어의 특성, 주제어의 빈출 단어

■ Abstract

Keyword Trends in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 Analysis of Domestic Academic Papers across Disciplines (2020–2024)

Yoon, Ji Won / Changshin University

Park, Eun Ha /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keywords in artificial intelligence(AI)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from 2020 to 2024, identifying their characteristics, annual trends, and disciplinary variations. First, the keywords were examined in terms of notation and quantity. They were mostly in Korean, but there were variations such as English or a combination of Korean and foreign languages. On average, approximately five keywords were listed per paper, ranging from one to twenty-four. Next, an analysis of keyword trends by year showed that the terms representing “artificial intelligence” consistently appeared frequently as keywords. From 2020 to 2021, “deep learning” and “learning” were common, while in 2023–2024, “generative” and “GPT” were frequent keywords. In the social sciences, keywords such as “4차”(industrial phase) and “algorithm” were common. In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learning,” “deep learning,” and “deep” were frequently used. In interdisciplinary studies, keywords such as “generative,” “chat,” and “챗”(chat) appeared most often. In the humanities, “ChatGPT,” “ethics,” and “literacy” were notable in terms of frequency. In arts and physical education, keywords such as “music education,” “generation,” and “content” stood out. In medical sciences, frequent keywords included “machine,” “medical,” and “neural.” In agricultural, marine, and fisheries sciences, keywords such as “autonomous ships” and “neural network” appeared, distinguishing them from other fields. The study highlights the diversity of AI research across disciplines, with evolving keyword trends reflecting the advancements in the field.

Keyword • AI related research papers, annual research trends, research trends by academic discipline, keyword characteristics, keyword frequency

■ 논문투고일:2025.05.17. ■ 심사완료일:2025.07.03. ■ 게재확정일:2025.07.10. ■

논문투고 규정

제정 : 2018년 3월 1일
최근 개정 : 2025년 2월 1일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 지식의 대중화, 교양 관련 이론,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2023년부터 적용)

-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2월 15일, 2호 학술지는 6월 15일까지, 3호 학술지는 10월 15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2020.12.01. 개정)

- 1)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을 작성해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할 수 있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www.mokwon.ac.kr/lic>)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한다.
- 2) 삭제
- 3) 모든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논문원문파일(저자, 소속 삭제)'을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 기준 25매(참고문헌, 초록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쪽당 1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 4) 원고는 논문 제목, 성명(소속 및 직위는 *모양 각주로 표기),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성명 / 대학명 /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 대학명 /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 대학명 /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 학교	교사	성명 / 학교명 / 교사
	학생	성명 / 학교명 / 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 기관명 /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 등	성명 / 기관명 /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 대학명 / 종별 학위 성명 / 전 소속 / 직위 성명 /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미성년자	성명 / 학교명 /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2)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3)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4)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를, 단행본인 경우 『』를, 음악 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② 강조 및 간접인용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초록은 다음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 저서는 이탤릭체로, 영문(외국어) 논문은 겹따옴표 “ ”로 표기한다.

예)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예)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잡지 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 날짜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https://www.mokwon.ac.kr/lic>, 2022.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 요령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기하고,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예) 김병정, 「영화 <혼자>의 롱테이크와 촬영기술 연구」, 『지식과 교양』 8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1, 25-47쪽.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예)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0-85.

예)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예)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orton, 1977.

⑤ 국문·영문(외국어) 초록 및 국문 요약문 작성 요령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 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제목과 성명, 소속을 병기한다.

(8) 기타 편집사항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 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 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0,000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일반 논문: 200,000원
- 연구비 수혜논문: 400,000원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논문작성 양식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2021.11.01. 개정)

- 1)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 위임한다.
-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lic.jams.or.kr/co/main/jmMain.kci>) 내에서 심사할 논문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재투고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재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전면수정 후 재투고’,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 온라인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18. 3. 1.
개정 2021. 3. 1.
개정 2022.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 263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해 따른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서약서. 별첨 1, 2).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절 :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4) 중복 게재 :

-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

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 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논문에서 저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나눈다.

-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2) 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

지는 연구책임자이다.

-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 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저자(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

- 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 ②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 ③ 공동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편집위원장,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위촉하는 인사 5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의 입증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 1) 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와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지식과 교양』 투고 논문 심사와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기타 학술지 관련 업무
- (4) 본 연구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 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와 검토와 판정
- (3) 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 (4) 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제6조(규정준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술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센터장 : 민경식

◇ 편집위원장 : 구진희

◇ 편 집 위 원 :

고혜영(서울여대), 박내정(배재대), 권용진(경성대), 김경래(한국교원대),
김광환(건양대), 김순정(성신여대), 김혜정(경인교대), 노은희(가천대),
배병윤(한라대), 변진이(경일대), 서유석(경상국립대), 원은석(목원대),
정옥희(전주교대), 조기웅(전북대), 조용림(목원대), 조준희(동국대),
최병진(제주대), 홍태한(전북대)

◇ 윤리위원장 : 민경식

◇ 윤 리 위 원 :

서정일(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이아람찬(목원대), 이철우(공주대),
이태화(고려대), 장영란(한국외대), 최혜진(목원대)

◇ 표지디자인 : 현승훈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5년 07월 30일 / 30 July 2025

통권 제18호 / No. 18

발행인 민경식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담당 조교 이규원

발행일 2025년 07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1관)

103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우편번호 35349)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omepage <https://lic.jams.or.kr>

편집·인쇄처 으뜸디자인기획

전화 : 042-825-6157~8